

[전체목록으로 →](#)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새나라

윤경찬

문학예술출판사

주체 102 2013 [2015-09-08]

- 이 도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적보호를 받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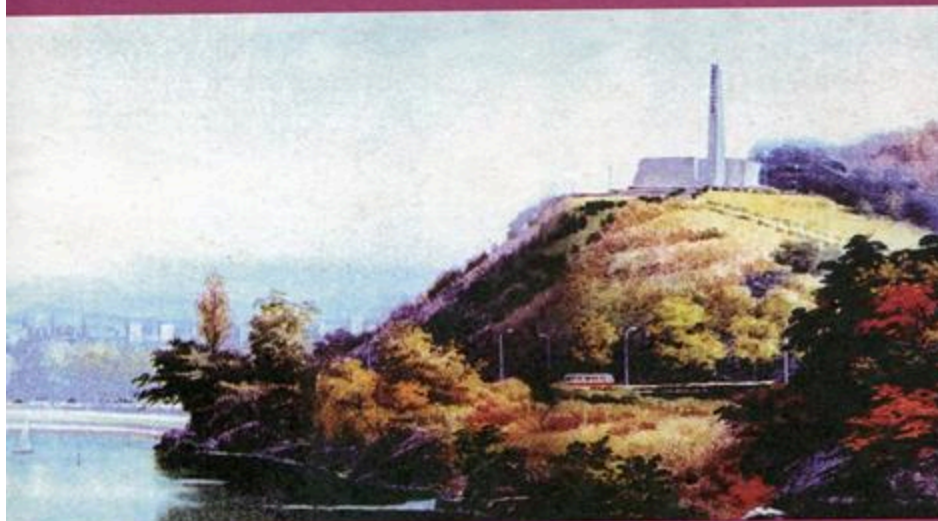


총서 《불멸의 역사》

장편소설

애 나라

윤경찬



문학예술출판사 주체102(2013)

1

봄이다. 사람들에게 류다른 신생의 환희와 희망을 안겨주는 해방조선의 첫봄이다.

오성재는 보통강이 지척에 바라보이는 자기 밭머리에 한낮이 되어오도록 앉아있었다. 보통별농민인 그가 부여받은 제땅에 나와있는것은 응당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고 볼수 있겠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나무등걸처럼 그냥 앉아있는거며 별에 탄 흙빛얼굴에 잔뜩 시름겨운 표정을 짓고 자주 한숨을 내부는것은 아무래도 무슨 사연이 있는듯싶었다.

주변에는 고즈넉한 정적이 깃들어있었다. 엇그제 경칩을 바래우긴 했으나 아직은 한낮에도 쌀쌀한 기운이 가셔지지 않았고 음달에는 잔설이 웅크리고있었다. 그런가 하면 양지쪽에서는 겨울이 물러갔는가를 살펴보려는듯 새싹들이 조심조심 땅우에 얼굴을 내밀고있었다. 이제 며칠 더 있으면 저기 봉수산이며 창광산, 해방산기슭에는 개나리며 진달래가 다투어 피여날것이고 겨울을 이겨낸 만물이 땅껍데기를 비집고 나와 대지에 푸른빛을 펼칠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양지쪽에서 냉이며 달래 같은것들만 살그머니 얼굴을 내미는데 그나마 냉이캐러 나온 어린 처녀들의 눈에 걸려들기만 하면 끝장이다. 호미자루 쥔 손들이 어찌나 영악스러운지 암만 땅속깊이 박혀있어도 뿌리채 뽑아내기때문이다.

오성재는 대타령벌이며 서성리벌에서 냉이를 캐느라 언뜻거리는 조그마한 형제들을 쫓프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예전같으면 벌판에 냉이캐러 나온 녀인들이 한벌

넌렸겠는데 그래도 올해 봄은 해방덕분에 형편이 좋은셈이다. 시내에서는 노동자, 사무원들에게 이달부터 식량공급을 시작했다고 한다. 이번에 나라에서 땅을 주었으니 올해부터는 농민들도 잘살게 될것이다.

생각이 땅에 미치자 오성재는 또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땅에 대한 생각만 하면 저절로 한숨이 나오군 한다. 오성재가 서성리별에 전답 4천평을 분여받고 표말을 박은게 열흘전이었다. 보통별대지주 구문선의 소작농이었던 자기에게 평생 소작으로 얻어부치던 그 땅이 제것으로 차례진것이다. 집이라고 할수 없는 토성랑움막에서 마소처럼 살아온 오성재로서는 자기 인생에도 기뻐서 올 일이 생기고 자기자신이 기뻐서 울고웃을줄 아는 사람이라는게 신기할 지경이었다. 그런데 며칠전부터 오성재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졌다. 매일같이 밭에 나와앉아있느라면 그 땅때문에 피땀을 흘리던 눈물겨운 지난날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군 했던것이다. 해마다 찾아오는 장마철에 시뻘건 흙탕물이 밭머리어방을 적셔놓고 물러가면 다행이지만 키높이 자라던 수수밭을 잠그어버릴 땐 오성재의 눈물도 그만큼 강을 이루군 했었다. 다 먹게 되었던 수수농사를 망치고 온 한해 기근에 시달리는것은 둘째였다. 제일 무섭고 억이 막히는것은 땅이 못쓰게 되는것이였다.

4년전 홍수때에도 그랬었다. 술한 인명을 집어삼키고 술한 집들을 집어삼키고... 술한 사람들을 한지에 나앉게 만든 그해 물란리에 오성재도 두 딸을 잃었다. 한밤중에 움막의 거적문밑으로 쓸어들어오는 흙탕물, 미리 꿰져놓았던 가산을 이고지고 다섯식구가 서로서로 손을 잡고 사품치는 물속을 헤쳐가던 그날... 캄캄칠야를 헤가르며 번개가 치고 하늘땅을 찢어발기는 굉음이 마음속의 공포를 더해주었다.

대줄기마냥 억수로 쏟아지는 비발속에서 《엄마!》, 《아!...》하는 외마디 비명소리에 뒤돌아보니 가운데 서있던 두 딸의 머리가 보이지 않았다.

《상순아! 하순아! 애들아!-》

허나 칠혹같은 어둠속에서 들려오는것은 무시무시한 물소리뿐이었다. 이불보따리를 물우에 집어던지고 허둥지둥 그쪽으로 헤엄쳐갔으나 세찬 급류에 휘말리운 어린 자식들을 어떻게 찾아낸단 말인가.

《아!-》

그게 다였다. 무서운 자연의 힘앞에서 오성재가 할수 있었던 유일한 반항은 캄캄한 허공을 주먹질하며 목터지게 웨친 외마디 비명소리뿐이었다. 그렇게 가슴아픈 일을 당하고도 울고불고 할새 없었다. 보통강에 범람하던 큰물은 서평양일대에 막대한 재앙을 끼치고서야 자기 힘을 과시한게 만족한듯 서둘러 물러가버렸다. 물이 켜 보통강주변은 처참하기 이를데 없었다. 토성랑움막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오는 곡성, 허물어진 움막앞에 손맥을 놓고 나앉은 사람들, 강기슭에 너저분하게 널린 온갖 허접쓰레기들, 강류역의 경작지들에 한뼘도 넘게 쌓인 감탕...

오성재는 흙모래에 묻혀버린 소작지밭머리에서 너무도 기가 막혀 맥없이 주저앉아버렸다. 이제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감탕에 묻힌 수수대들중에서 파아란 이파리 몇개가 바람에 흔들거리면서 숨막혀 죽겠으니 어서빨리 일으켜세워달라고 몸부림치는듯싶었다.

오성재는 그 수수대보다 자기가 더 숨막히는것 같았다. 밭이 이 모양 되었으니 올겨울 농량걱정은 둘째치고 지주의 성화를 어떻게 견딘단 말인가. 아닐세라 지주 구문선은 소작료를 탕감해줍시사 하고 허리를 굽히는 오성재의 머리우에 개화장을 휘둘렀다.

《네놈이 말았던 땅이니 네놈이 원상대로 복토해놔라. 그전에는 죽지도 못할줄 알아!》

지주의 손에 온 가족의 생사여탈권이 달려있으니 감히 거역할수도 없었다. 그는 안해와 함께 지계를 지고 그 땅을 되찾느라 해를 보내군 했다. 집에는 아홉살 어린 아들이 해종일 주린 배를 움켜쥐고 부모들을 기다리고있었다. 자식 여섯을 굶겨죽이고 물란리에 잃고 남은것이 그 애 하나뿐이었다.

어느날 저녁 늦게 돌아와보니 아들이 죽었다. 이게 무슨 변이냐? 움막앞에는 수해때 떠내려오던 물독 하나를 건져놓은것이 있었는데 아들이 그 안에 끼꾸로 박혀있었던것이다. 독을 눕혀놓고 뺏뺏해진 아들을 꺼낼 때 보니 개구리 서너마리가 사방으로 달아나는것이였다. 아마도 아들은 배고픔을 달래다 못해 그 개구리를 잡으려고 독에 몸을 기울였다가 그만 손을 놓치고 반나마 차있던 물에...

여직껏 살아오면서 남의것을 탐내본적이 없었는데 난생처음 임자없이 떠내려가는 물독에 욕심을 냈다가 하나밖에 남지 않은 자식마저 잃은것이다. 안해는 통곡소리도 못내고 기절해버렸다.

오성재는 단말마적인 노성을 터뜨리며 손에 잡히는대로 집어들고 저주로운 독을 박살내버렸다. 아, 하늘도 무심쿠나!

허나 다음날은 또 소작지를 살리려 지계를 지고 나서야 했으니 이것이 그의 운명이었다. 돌이켜보면 땅은 그에게 기쁨과 행복보다 슬픔과 재난을 더 많이 가져다주었었다. 그래도 그는 그 땅을 떠나지 못했다. 떠나고싶어도 갈곳이 없었던것이다.

그런데 해방이 되어 지주놈은 도망치고 오성재는 그 땅의 주인이 되었다. 지금 오성재가 고민하는 리유가 거기에 있었다. 해방이 되었다고 해도 해마다 겪던 물란리를 피할수야 없지 않은가. 그럼 앞으로도 그 땅때문에 울며 살아야 한단 말인가. 제땅을 가지게 된것은 말할나위없이 기쁘지만 홍수피해때문에 근심이 가서질 날이 없을거라고 생각하면 기쁨은 물러가고 마음이 무죽해지군 했다. 그렇다고 나라에서 주는 땅을 안 받을수도 없고...

오성재는 멍청한 눈길로 보통강을 바라보았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강이 요즘은 사방에서 흘러드는 눈석이물에 수위가 조금 높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소리없이 얄전하게 흐르고있었다. 언젠가 지나가던 풍수쟁이가 하는 말이 보통강은 우불구불한 모양새가 신통히 룡의 형국이라고 했는데 오성재도 그 말이 그럴듯 하다고 생각해왔었다. 그러나 하도 물란리를 겪고 자식들을 죽인 다음부터는 보통강이 룡의 모양이 아니라 돼지뺨을 마음대로 헤쳐놓은것처럼 보였다. 지금은 저렇게 얄전한 새색시처럼 소리없이 흐르는듯마는듯 하지만 일단 장마가 들면 도무지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런즉 홍수피해를 뻔히 내다보면서 그 땅을 맡아안는다는게 오성재로서는 암만 해도 자기를 납득시키기 어려웠다. 예전에는 땅의 주인인 지주에게 매달려사는 처지여서 소작이나마 얻어부치는것을 다행으로 알았지만 이제야 자기가 땅의 주인인데 아무거나

무턱대고 받아안으면 그게 바보노릇이 아닐가.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오성재는 더이상 앉아있을수 없었다. 그는 무릎을 짚고 움쭉 일어서다가 다시 주저앉았다.

(농촌위원회에 찾아가선 뭐라고 말할가? 이 땅은 안 가지겠다고?... 안되지, 그럼 어쩐다?)

원고개를 가까이 살면서 오성재는 한번도 자기 주장을 고집해본적이 없었다. 모든것에 수긍하면서 살아왔다. 그렇게 어질고 순박하기만 한 그에게는 농촌위원회에 찾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울수 없는것이였다.

그렇다고 안 갈수도 없었다. 이건 땅문제이다. 농군이 죽고사는 문제이다! 많이 굶어본 사람은 땅의 금새를 잘 아는 법이다. 드디어 용단을 내린 그는 마지막한숨을 길게 내불고나서 꿈 하고 일어섰다. 허름한 덧저고리소매에 두팔을 엇갈아끼우고 서성리농촌위원회를 향해 천근처럼 무거운 발을 내디디였다. 큰길에 나서서는 자기의 결심이 달라지기 전에 당도하려는듯 걸음을 다그쳤다.

서성리농촌위원회는 경의본선과 평남선이 갈라지는 당칠동에 자리잡고있었다. 해방전 왜놈군대의 련병장이 자리잡고있던 봉지동의 넓은 공지를 지나는데 점심고동소리가 철길너머 본정거리쪽에서 울려퍼졌다.

오성재는 더 조바심이 나서 눈앞에 보이는 ㄱ자형기와집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다행히도 농촌위원회 위원들은 점심고동소리를 못 들었는지 떠들썩하게 이야기판을 벌려놓고있었다. 하긴 요즘은 농민들이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혼자 길을 가면서도 싱글벙글 웃는 세월이라 점심때를 잊을만도 했다.

《계시우?》

미닫이문이 열리며 오성재네와 이웃해서 사는 리재익이 밖을 내다보았다.

《성재 이 사람, 웬일인가? 어서 들어오게.》

오성재는 자기 집사정을 잘 아는 리재익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게 반가웠다. 그는 조심스레 방안에 들어갔다. 알싸한 썩레기냄새가 코구멍을 간지럽혔다. 방안에는 너댓명의 농촌위원회 위원들이 둘러앉았는데 무슨 심중한 논의를 하겠는지 표정들이 심각했다.

《어떻게 왔나?》

리재익이 묻는 말이였다.

《저, 그저... 뭐... 회의를 하됐으면 난 그만...》

오성재는 방안의 분위기에 눌리워 말을 더듬으며 문가로 돌아섰다.

《아닐세, 자네가 있어도 일없네. 앉아서 몸이나 녹이라구.》

농촌위원회 위원장이고 제일 년장자인 당칠동의 박령감이 대통에 담배를 다지며 성재를 만류했다. 성재는 허리를 구부트하고 한쪽 구석에 놓인 화로옆에 쭈그리고앉았다.

《그래서 말이네.》

박령감은 화로에서 부저가락으로 숯불을 집어 담배를 붙이고서야 하던 말을 계속했다.

《지금 전국각지에서 농민들이 김일성장군님께 땅을 주셔서 고맙다는 감사편지두 올리는데 우리라고 가만있을수 있겠는가 하는걸세.》

《안되지요. 왜정때야 그 잘난 소작지두 떼울가봐 지주한텐 물론이구 마름한테까지
푼전을 털어버치군 했는데 사흘같이땅을 거저 받구두 입 씻고있으면 그게 무슨
사람이겠소.》

《웁수다. 어제두 평북도에서랑 황해도에서랑 장군님께 올린 감사편지가 신문에 또
났습디다. 그런즉 우리야 장군님가까이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아니요? 평양농민이면
무슨 일에서나 선봉이 돼야지요.》

리재익은 평양농민이라는 말에 힘을 주며 좌중을 둘러보았다. 모두들 그의 말에
공감하며 머리를 끄덕였다. 그 자리에서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께 감사편지를
올리는것으로 의견들이 합쳐지고 그 거사를 실행하기 위한 일감들이 분담되었다.
감사편지의 내용은 어떠어떠해야 하며 농군들의 머리만으로는 어려우니 식자있는
누구누구를 청해다가 편지의 초고를 잡아보게 한다는것, 누구를 장마당에 보내여 제일
좋은 떡과 비단을 사오게 한다는것, 누구누구가 편지를 가지고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에
찾아간다는것 토론은 끝이 없었다. 오성재도 자기가 찾아온 목적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들의 토론에 정신이 팔려있었다. 설사 잊지 않았다 한들 이런 정황에서야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인가.

점심시간이 퍼그나 지나서야 박령감이 재털이에 대통을 딱딱 털며 일어날 차비를
했다.

《이젠 얼른 집에 가서 한술씩 때구 분담 말은대루 움직입세.》

모두들 주섬주섬 일어섰다. 오성재도 어쩔수없이 몸을 일으켰다. 그때 문밖을
나서려던 리재익이 문득 오성재에게로 돌아섰다.

《참, 자네 왜 왔됐나? 일이 있으면 말하라우.》

오성재는 황황히 손을 내저었다.

《아니우다. 그저 지나가다가...》

리재익은 고개를 기웃거리면서도 더 캐묻지 않고 퇴마루로 나섰다.

그 순간 멀리 남쪽하늘에서 둔중한 봄우뢰소리가 울려왔다.

우르르릉-

올해의 첫 우뢰소리였다. 토방에서 신을 찾아신던 사람들은 저도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메아리가 사라지기도 전에 다시한번 우뢰가 터졌다. 처음보다 더 큰 우뢰소리였다.

꾸르르릉-

그 우뢰소리는 오성재에게 자기가 여기에 왔던 리유를 상기시켜주었으나 그는 무시무시한 공포의 전율이 온몸으로 쭉 지나가는통에 입이 얼어붙고말았다. 오성재만이 아니었다. 보통벌사람들에게 있어서 봄우뢰소리는 지나간 악몽의 메아리였고 닥쳐올 재난의 전주곡이었다.

봄우뢰소리는 농군들을 들판으로 부르는 소리라지만 보통벌농민들만은 그 우뢰소리를 무서워하고있었다.

한참만에야 누군가가 마당에 내려서며 탄식조로 말했다.

《어허, 올해 장마는 또 어떻게 겪을고...》

《봄에 첫 우뢰가 울어서 백날이면 장마가 진다는데 올해 장마는 좀 일찍 오려는가보군. 왜놈들이 공사를 한다고 온통 파헤쳐놔오니 장마만 지면 영낙없이 물란리를 겪겠는데.》

《요새 우리 집 처마밑에 제비가 둥지를 트는걸 보니 짚검불이 너슬너슬한게 올해 장마는 되게 꺾어야 할가봅니다.》

항간에서는 제비가 둥지를 틀 때 길면에 짚오래기가 너슬너슬하면 큰 장마가 지고 미끈하면 가문다고들 했다. 그래서 해마다 봄이 오면 제비들이 집을 짓는것을 지켜보며 자기들의 한해운수를 점치는것이 토성랑사람들에게는 하나의 풍습으로 굳어져있었다. 저저마다 한마디씩 하는 소리에 증이 났던지 박령감이 해진 지하쪽으로 토방들을 탕 구르며 마당에 내려섰다.

《방정들은 그만 떨게. 장마를 못 꺾어본 사람들같군.》

박령감에게는 방금전의 활기를 잃어버리고 우뢰소리 한번에 서리맞은 상들을 하는것이 언짢았던것이다. 하지만 그의 가슴속에서도 방금전의 우뢰소리가 사라지지 않고있음을 누가 모르랴.

모두들 고개를 짓수긋하고 대문가로 향했다. 박령감은 찌꿍- 하고 대문을 밀다가 뒤에서 오는 리재익의 팔소매를 붙잡았다.

《자넨 언제 토성랑까지 갔다오겠나. 집에 가야 진수성찬이 있는것도 아닐텐데 우리 집에 가서 한끼때자구. 성재 자네도 같이 가세.》

《됐수다. 형님집이라구 뭐가 있어서 또 군불을 때게 하겠소. 내 성재 저 사람이랑 동무해서 넘어가겠수다.》

리재익이 사양했으나 박령감은 한사코 팔소매를 놓지 않았다.

《뭐가 있어서 가자는건 이닐세. 그저 해방떡(만주콩으로 빻은 콩떡) 몇개하구 동치미 한쪽이면 되지. 자네가 가면 우리 로친네가 막걸리 한사발이야 걸려주겠지.》

《허, 막걸리까지 있다면야 가야지요. 안주인이 령감님대접에 극성인 모양이우다.》

박령감은 그 말이 싫지 않은듯 느슨한 미소를 지었다.

《그야 당연하지. 해방전엔 못했지만 이제는 내가 가장구실을 하니까. 그나저나 장군님 령을 받들구 땅을 노나주는 농촌위원회 위원장이 아닌가. 그러니 벼슬로 말하면 옛날 구장이나 면장따위에 대겠나? 흐흐... 해방덕분에 나두 사람대접을 받는것 같네.》

사람들은 우뢰소리에 받았던 여운을 다소나마 털어버리고 한결 개운해진 마음으로 흠어져갔다.

오성재는 자기 집에 가자는 박령감의 권고를 사양하고 남포쪽으로 가는 큰길로 방향을 잡았다. 보통강개수공사장에 나가있는 장혁수를 만나보고싶었던것이다.

2

오성재가 찾아가는 장혁수는 해방되는 날부터 공사장현장사무실에서 혼자 살고있었다. 공사장에 끌려와 일하던 사람들은 해방과 함께 고향으로 뿔뿔이

홀어져갔지만 그만은 자기가 살던 토성랑움막을 버리고 여기에 거처를 정한것이였다.
거기에는 누구에게도 말해본적 없는 기막힌 사연이 있었다.

장혁수는 여기저기 다니며 샅집이나 지다가 토목공사장은 벌이가 괜찮다기에 제발로
찾아온 사람이였다.

벌이가 좋다는게 하루종일 뻘뻘하게 일해야 겨우 60전이나 70전이였다. 남달리
허우대가 크고 체통이 커서 《장격정》이란 별명으로 불리우는 장혁수가 저녁마다 닭의
염통만 한 좁쌀봉지를 들고 집으로 갈 때면 그 모습이 처량하기 이를데 없었다. 그는
잘난 일자리마저 떼우지 않으려고 일에 열성을 부렸다. 굶어죽을수가 없어서 자기의
로동력을 녹거리로 팔아버리면서도 목숨이 붙어있는것을 다행으로 여기던 세월이였다.
과도한 로동으로 인하여 피가 마르고 기름이 마르는것을 계산할수 없었던 세월이였다.
그 세월에 그가 진짜 사람이였는지는 자기자신도 대답하기 어려웠다. 그래도 집에 가면
자기가 사람이라는것을 어렴풋이나마 느낄수 있었다. 집이라야 토성랑움막이였다.

일찌기 부모를 잃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벌어먹던 그는 나이 서른이 되어서야
장가를 들고 토성랑에 첫살림을 펴놓았었다. 그가 장가들던 이야기를 하자면 장밤을
밝혀도 못다하겠지만 그게 재미있는 연애담이 아니라 눈물겹고 기막힌 사연이
엮힌것이여서 장혁수는 한번도 남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본적이 없었다. 한마디로 대강
추린다면 동아방직에서 왜놈감독에게 모욕을 당하고 몸을 던졌던 처녀를 구원해준것이
인연이 되여 맨주먹뿐이던 로총각도 다행스럽게 가정이라는것을 가질수 있었던것이다.
그래도 그의 인생에서 행복한 시절이 있었다면 가정을 이루고 아들을 안아보던
그때뿐이였다.

원래 성미가 과묵해서 말수더구도 적고 좀해서는 웃을줄 모르는 그였지만 집에 와서 아들을 안아볼 때에는 두툼한 입술이 벌어지고 부리부리한 눈도 가느스름해지곤 했다. 그런 생활도 3년을 채우지 못했다.

42년도 서평양일대를 휩쓴 물란리때 왜놈들은 보통강물이 점점 불어나면서 강변에 루적해놓았던 군수용목재가 떠내려가게 되자 개수공사장에서 일하던 인부들까지 동원시켰다.

《통나무가 떠내려간다. 빨랑빨랑 건져라.》

왜놈의 말은 법이었다. 조선사람의 목숨은 통나무 한대값보다 못하던 때였다.

장혁수는 집에 있는 안해와 자식이 걱정스러웠지만 왜놈들은 그의 사정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튿날에야 그는 겨우 몸을 빼서 토성랑으로 달려왔다. 그에게는 눈앞의 현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그가 살던 움막은 물살에 형체도 없이 떠내려가고 그 자리에 남아있는것은 감탕에 반나마 묻힌 가마솥 한개뿐이었다. 그런데 내 아들, 내 안해는?...

《여보- 성학아-》

그에게는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며 창광산쪽에 미리 피신도 못하고있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물결에 휘말리워들어가는 안해와 자식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듯싶었다. 혁수는 그 환영에 시달리면서 시체라도 찾아보려고 보통강을 오르내렸다. 실성한 사람처럼 먹는것도 자는것도 잊고 감탕이 조금이라도 두드러진 곳이면 혹시나 해서 무작정 파보곤 했다.

물이 완전히 썬 다음에야 혁수는 대동강과 합수되는 강하류에서 감탕에 만나마 묻혀있는 안해와 아들을 찾아냈다. 안해는 포대기를 댄채 아들을 안고있었다. 포대기를 풀어버렸으면 혹시 저 하나만이라도 살수 있었으련만 어느 어머니가 저만 살겠다고 제 살점보다 더 귀한 자식을 버릴소냐?

아들을 안고있는데다 포대기가 물을 먹어서 무거워진탓에 날바다로 흘러가지 않고 그냥 가라앉아버린것 같았다. 다행이랄까? 과연 이런 경우에도 다행스럽다는 말이 어울릴까?

집이 없으니 장례를 치를데도 없었고 돈이 없으니 관을 살수도 없었고 묘를 쓸수도 없었다. 혁수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한밤중에 감탕바닥을 깊숙이 파고 안해와 아들을 물었다. 왜놈의 눈을 피하자니 다른 수가 없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던 안해와 아들을 감탕속에 묻으며 혁수는 생각했다. 아들애를 안은 안해가 캄캄칠야에 광란의 소용돌이속으로 빨려들어가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가? 이 못난 남편을 원망했겠지... 그리고 정말로 래세라는것이 있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물란리를 모르는 곳에서 살고싶다고 생각했겠지...

그는 뒤늦게나마 남편구실을 하고싶었다. 공사를 빨리 끝내서 이 강변에 떠도는 안해의 령혼을 위로해주고싶었다. 그렇게 해야 비명에 먼저간 사랑하는 사람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줄수 있을것 같았다. 그는 자기가 공사장에서 일하는것이 보통강을 사랑하거나 어떤 정이 있어서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차디찬 세상을 살아오면서 얼음덩이처럼 되어버린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것이란 분노와 억울함뿐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터쳐놓을데는 없었다. 보통강이 몰아온 재난인데

누구와 해본단 말인가. 가슴속의 울분을 쏟아버리자면 공사장에서 일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자기 가정에 불행을 몰아온 자연에 대한 유일한 복수였다. 더구나 그는 갈데도 없었다. 특별히 배운 재간도 없었다. 재간이 있다면 하도 극성스레 일한 덕에 왜놈측량기사의 눈에 들어 조수로 따라다니면서 웬만한 표척눈금은 맞출줄 아는것뿐이었다. 그래서 그는 남들이 해방만세를 부르며 공사장을 떠날 때 몇몇 노동자들과 같이 공사사무실을 차지하고 설계부터 빼앗아냈다.

너도나도 다 떠나가버리면 공사는 누가 계속한단 말인가. 설사 당장 일은 못한다 해도 공사장을 지키기라도 해야 할게 아닌가.

그는 왜놈들이 쓰던 현장사무실의 방 한칸을 차지하고 낮에는 품팔이를 다니다가도 밤이 되면 그곳을 지키며 절간의 중처럼 생활하기 시작했다.

해방이 되어 한달쯤 지났을 때 그는 하도 속이 답답해서 평안남도인민정치위원회의 간판을 내걸은 집으로 찾아갔던적이 있었다. 생전 처음 와보는 곳이었다. 자기가 오지랖 넓게 나선다는걸 모르는바 아니지만 속 시원히 알아보지 않고서는 건딜수 없었던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들은것은 《정신나간 놈》이라는 욕설뿐이었다.

《지금이 어느때게 그따위 정신나간 소리를 하고있소? 당장 새정권을 세우고 사회주의혁명을 해야겠는데 왜놈들이 하던 토목공사를 마저 하자구? 그게 제정신이 있는 소리요?》

머리카락을 매끈하게 빗어넘긴 양복쟁이가 정문에서 혁수에게 하는 말이였다. 마침 현관에서 나오던 키 큰 사람이 사연을 듣고나서 양복쟁이를 나무랬다.

《이 사람도 건국을 하자는건데 그렇게 욕질할거야 있소?》

그후에 알고보니 그가 총무부장을 하는 리주연이었다. 리주연은 혁수에게 어째서 당장은 공사가 불가능한가를 친절히 설명해주었다. 말은 친절했지만 공사를 못한다는것은 양복쟁이와 다름없었다.

《왜놈들이 다 파괴해놓고 달아나서 당장은 공장부터 복구해야 하오. 돈이 있어야 공사를 할게 아니요? 지금은 삼 한가락도 만들지 못하는 형편이요.》

《그럼 언제쯤 공사를 하게 됩니까?》

《글쎄, 그걸 누가 알겠소. 한 십년 지나면 가능하겠는지.…》

맥폴린 걸음으로 돌아선 혁수는 안해가 묻혀있는 강변에 앉아 하루해를 보냈다. 생각할수록 기가 막혔다. 그렇게도 바라던 해방이였건만 그 해방이 혁수자기에게 가져다준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오히려 공사를 완공해서 안해의 혼을 위로해주자던 한가닥 소원마저 풀어줄수 없게 되어버렸다. 그러나 혁수는 자기를 다잡았다. 나라사정을 생각하면 당장 공사를 할수 없다는거야 철없는 코흘리개들도 머리를 끄덕일만큼 명백한 답이 아닌가. 현실을 이성적으로 감수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화를 내면서도 그는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는 랭혹한 사실을 감정적으로 용납하기 힘들었다. 그는 안해에게 랑해를 구했다.

(여보, 어찌겠소. 나라사정이 어렵다는데 기다립시다. 나라가 있고야 백성이 있는건데 좀 더 참아주오.)

올해 2월에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가 조직되면서 평안남도인민위원회에는 토목과가 새로 나오고 보통강개수공사장을 로동조합산하에 정식 등록하였다. 도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이 된 리주연이 직접 공사장에 찾아와 그 사실을 전해주었다. 리주연은

혁수에게 노동자들을 모집하여 공사를 추진시킬 준비를 하라고 하면서 만주콩도 좀 보내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준비사업일뿐 공사를 당장 시작하는것은 아니었다. 그래도 혁수는 기뻐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시작된다지 않는가. 중요한것은 나라에서 이 공사를 잊지 않고있다는것이다. 혁수는 예전에 함께 일하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공사장에 나오도록 설복하였다. 그래서 한 50여명정도의 노동자들로 향토건설대를 무어가지고 지난달부터 일을 시작했다.

방대한 공사량에 비하면 너무도 작은 인원이었다. 그나마 로임도 지불하지 못하는데 인민위원회에서는 공사장을 감감 잊었는지 나와보는 사람조차 없었다.

오성재가 거기에 당도했을 때 장혁수는 마당 한구석에 바위처럼 틀고앉아서 질통끈을 손질하고있었다. 끈이 자주 끊어져 애를 먹이냈는데 마침 넉적한 평피대가 생겨서 그것으로 교체하는중이었다. 송곳으로 피대에 구멍을 내고 가는 철사로 촘촘히 결박하는데 솔뚜껑같은 큼직한 손이 군동작 하나 없이 정확하게 움직이는걸 보면 평생 그 일만 해본것 같았다.

쌀쌀한 날씨인데도 그는 덧저고리도 안 걸치고 광목으로 지은 물바랜 작업복만 입고있었다. 체통이 큼직한 사람이 외진 곳에 혼자 쭈그리고 앉은 모습은 마치 심심산중의 이끼오른 돌부처나 해묵은 나무등걸을 련상케 했다. 해별에 탄 구리빛얼굴이며 귀전을 덮은 더부룩한 머리며 제때에 깎지 못한 수염이며 모든것이 그를 서른다섯이라는 나이보다 10년은 더 늙어보이게 했다. 장혁수는 인기척에 고개를 돌리다가 뜻밖에 나타난 오성재를 보자 엉거주춤 일어섰다.

《아니?》

《혁수 이 사람, 그새 무고한가?》

두사람은 손들을 맞잡고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다. 올해 설날에 혁수가 토성랑마을의 어른들한테 설인사를 하려고 왔을 때 보고는 못 보았으니 반가울수밖에...

혁수는 마당가의 평상에 오성재를 끌어다 앉혔다.

《어떻게 여길 다 오셨수?》

장혁수는 담배쌈지를 꺼내들다가 문득 생각나서 물었다.

《참, 점심은 자셨수?》

《먹구 왔네.》

성재는 거짓말을 했다. 가슴이 답답해서 점심을 건넜는데도 먹고싶은 생각이 없었다.

장혁수는 마라초를 권하며 또 물었다.

《다들 어떻게 지내시우?》

성재는 잠시 제 기분에서 벗어나 동네형편을 알려주었다.

《임자는 모르겠구만. 영산이네가 얼마전에 문수리로 이사를 갔네. 영산이 애비가 손재간이 좋아서 화학공장에 입직했는데 공장에서 집을 거저 주었대.》

정말 희한한 소식이였다. 예전엔 토성랑에 쪽박 차고 오는 사람은 있어도 다른데 집을 잡고 나가는 사람은 없었던것이다.

《그리구 장돌이는 이달부터 서성리변전소에 나간다네.》

장돌이라면 평천리 오물장에서 녀마주이로 살던 녀석인데 로동계급이 되었다는 소리이다.

《해방이 좋긴 좋군요. 형님두 땅을 받았겠지요?》

혁수는 여느때는 하루 세마디도 안한다는 사람인데 한동리사람을 오래간만에 만난데다 듣느니 새소식뿐이어서 말이 많아진것 같았다.

《받았지.》

성재의 말은 어딘가 쓸쓸하게 울렸으나 혁수는 미처 눈치채지 못했다.

《어디에 받았나요?》

《응- 전에 내가 소작부치던 땅 있지 않나? 서성리철다리아래에 4천평을 받았네.》

혁수는 오성재의 무릎을 철썩 내리쳤다.

《정말 해방이 좋긴 좋수다.》

혁수의 입에서는 해방이 좋다는 소리가 떠날줄 몰랐다. 혁수는 제가 땅을 받은것처럼 기뻐하는데 당자인 오성재는 심상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좋기야 좋지.》

그제서야 혁수는 오성재의 얼굴에 비껴있는 그늘을 알아보았다.

《왜 그러시우?》

오성재는 그 질문이 나오기를 기다리기라도 한듯싶었다.

그는 혁수의 팔목을 꼭 잡으며 간절한 기대와 희망을 안고 애원조로 물었다.

《임자, 말해주게. 공사를 언제부터 다시 하나? 임자야 알겠지?》

혁수는 오성재의 물음에 한순간 얼터름해졌다. 그걸 물어보자고 예까지 왔는가? 그건 알아서 뭘하자고? 아차! 땅, 분여받은 땅때문이로구나!

혁수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성재를 한동안 마주보다가 제먼저 눈길을 돌려버렸다. 할말이 없었던것이다. 그는 어두운 얼굴로 말없이 담배를 맡았다. 공사를 당장 하고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자기같은 백성이 나라일에 간참할수야 없지 않는가.

지금 혁수는 자기를 찾아온 성재에게 공사장의 암담한 실태를 시시콜콜히 다 말해줄수는 없었다. 공사의 운명이자 부여받은 땅의 운명이고 오성재자신의 운명인데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가슴답답한 소리만 해주겠는가.

혁수는 오성재의 락심한 얼굴을 마주볼수 없어 먼 하늘가로 눈길을 돌리며 한마디 했다.

《나라에서 다 생각이 있겠지요.》

《후-》

오성재의 맥빠진 한숨소리에 혁수는 울컥 화를 냈다.

《제 사정만 사정이라고 할수 없지 않나요?》

《그래, 나라사정이 먼저구말구...》

오성재는 고개를 떨구고 힘없이 중얼거렸다.

잠시후 오성재는 그곳을 떠났다. 오던 길을 되짚어 농촌위원회로 향하는 그의 걸음에는 어딘가 비장한데가 있었다. 제 생각에 옴해버린 그는 분별을 잃었고 따라서 자기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치르려 하는지 알수 없었다. 설사 알았다 해도 그는 멈춰서지 않았을것이다. 그의 덧저고리 안주머니에는 토지소유권증서가 들어있었다. 농촌위원회에는 마침 박령감도 있고 리재익도 있었다.

《허, 임자 또 왔나? 암만해도 무슨 일이 있는게로군.》

박로인의 물음에 오성재는 말없이 숨만 몰아쉬었다.

리재익도 오성재의 거동이 여느때와는 다르다는것을 느끼며 앓은뱅이책상에서 돌아앉았다.

《무슨 일인지 말해보게.》

오성재는 진정을 못하고 씹씹대다가 덧저고리를 헤치고 토지소유권증서를 꺼내들었다.

《나한테 땅을… 바꿔주었으면 해서…》

박령감도 리재익도 놀라운 눈길로 오성재를 바라보았다. 오늘까지 토지분여사업을 해오면서 처음 당하는 일이었던것이다. 리재익이 오성재쪽으로 한걸음 나갔으며 물었다.

《임자 그게 무슨 말인가?》

《사정 봐주시우. 해마다 그 땅에서 물란리를 겪을 생각을 하면 속이 떨려서…》

오성재는 말끝을 흐렸다. 리재익은 《허참.》하고 탄식을 하고나서 오성재를 설복했다.

《이 답답한 사람아! 임자가 해방전에 그 땅때문에 고생했다는거야 내가 잘 알지. 하지만 그런 땅을 받은게 어디 임자 하나뿐인가? 보통벌에서 농사짓는 사람치고 큰물피해 받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 나두 임자네 옆에 땅을 받았다는거야 잘 알테지? 이거야 생 주정이 아니고 뭐가, 응?》

《거야 그렇지만 암만해도…》

《땡 -》

박로인이 주먹으로 얹은뱅이책상을 내려치는 바람에 오성재는 와찔 놀랐다.

《너 이놈! 농사군이 감히 땅타발을 해? 네놈이 이 보통벌에 태줄을 묻은 놈이 웬지 웬지냐?》

추상같은 고함소리에 문창호지가 으르렁 으르렁 울었다. 박로인의 악마디진 주먹은 그냥 후들거리고 눈에선 시퍼런 린광같은것이 뿜어나왔다. 애당초 그는 땅을 가지고 시야비야하는 오성재를 설복하고싶지도 않았다. 그만큼 땅은 그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신성한것이었던것이다.

《그게 어떤 땅이라구... 해방전엔 그 땅이나마 소작부치게 해달라고 지주놈한테 손이야 발이야 빌곤 하던 놈을 그래도 사람답게 살아보라고 김일성장군님께서 땅을 노나주셨는데 뭐가 어찌구 어찌?》

오성재는 정신이 좀 들었는지 앞에 앉은 두사람을 번갈아보며 눈길을 허둥거렸다.

《나야 그저 큰물에 내 땅이...》

하지만 이미 었질러놓은 물이었다. 박령감은 방바닥에 놓여있는 오성재의 토지소유권증서를 와락 나꿔챘다.

《너같은 놈은 땅을 가질 자격이 없다. 땅을 모욕하는 놈은 여기서 살 자격두 없어. 썩 나가!》

오성재는 순간에 몸이 굳어졌다. 이 무슨 청천벽력인가? 그는 박로인앞에 무릎걸음으로 다가앉으며 애원했다.

《형님, 이러지 마시우. 땅을 떼다니요? 그럼 난...》

《썩 나가지 못할가? 꽤썩한 놈같으니...》

박로인은 사정봐줄것도 없다는듯 오성재를 등지고 돌아앉았다. 무거운 침묵이 방안의 공기를 압박했다.

오성재는 애원에 찬 눈길로 박로인을 바라보다가 구원을 청하는듯 리재익에게 눈길을 돌렸다. 그러나 리재익도 오성재를 편역들지 않았다. 사람이 미련스러워도 정도가 있지 이거야 너무하지 않은가.

《임자 토성랑사람들을 망신시키지 말게. 사람이 가난하게는 살아도 제 욕심만 채기려들면 못써!》

리재익한테서까지 얻어맞고나니 오성재는 더 기대볼데도 없었다. 오성재는 귀가 멍멍해지고 방바닥이 흔들흔들하는것 같았다. 갑자기 그는 살먹을 찢리운듯 꺾- 하고 흐느끼며 고개를 떨구었다. 두손으로 방바닥을 짚고 어깨를 떠는데 피같이 진한 눈물이 노전바닥에 스며들었다.

《내가... 미련한 놈이우다. 평생소원하던 제땅을 가지구두 고마워할 대신에 타발부터 했으니... 내가 미욕한 놈이우다. 하지만... 그 땅때문에 가슴에 재만 남은걸 생각하면... 어이쿠... 해방된 오늘에는 그런 설음모르고 농사짓고싶었수다. 평생에 한번만이라두 한때기 땅에서나마 원썩같은 물란리를 모르구 농사짓고싶었던 말이우다. 그런데... 내가 토성랑에서두 못살면 어디 가서 살란말이요? 어허...》

오성재는 절망에 차서 부르짖었다.

온몸의 기운이 말짱 빠져버린 그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방을 나섰다. 방안의 사람들은 그를 붙잡을 생각도 하지 않고 침통한 표정으로 덤덤히 앉아있었다.

오성재가 대문을 나서는것과 동시에 웬 사람이 농촌위원회마당으로 들어섰다. 그 사람은 토지개혁실태료해그루빠에 동원되어있는 농림국 부원이었다.

3

김일성장군님께서 타신 승용차는 늦은 점심때가 되어서야 룡산고개를 넘어 시내로 들어오고있었다. 승용차의 뒤좌석에 앉으신 장군님께서는 여느때없이 마음이 즐거우시여 조용히 미소를 짓고계시였다. 앞좌석에 앉은 부관 리병설은 운전사와 눈을 끔찍거리며 자기들끼리 소리없이 웃군 했다.

《세건인 왜 자꾸 웃나?》

이런 때는 운전사 량세건이 리병설이보다 푸점이 좋았다.

《장군님께서 기뻐하시니 저희들도 절로 웃음이 납니다.》

《절로 웃음이 난다? 하긴 나도 그렇소. 농민들이 기뻐하니 절로 웃음이 나거던.》

운전사는 더 사기가 났다.

《장군님께서선 농민들때문에 기뻐하시구 저희들은 장군님께서 기뻐하시는게 기쁘구...》

리병설이 운전사에게 입을 다물라고 눈짓했다. 장군님께서 또다시 명상에 잠기신것을 감촉했기때문이다. 장군님께서는 여전히 웃음어린 안색으로 차창밖을

내다보고계시였다. 그이께서는 지금 토지개혁실태를 료해하시기 위해 평양시주변농촌들을 돌아보고 오시는 길이었다.

난생처음 제땅을 가지게 되었다고 감격에 흐느끼며 덩실덩실 춤을 추던 농민들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 그이께서는 미소를 거둘수 없으시였다. 토지개혁법령이 발포된지 20여일 남짓한 기간에 북반부에서는 일제히 토지분여가 실시되고 농민들은 땅의 주인이 된것이다. 오래전부터 가슴속에 안고계시던 많은 짐들중에서 제일 크고 무거운 짐을 하나 벗어놓으신것만 같아 그이께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어떤 때는 노래라도 부르고싶으신 심정이시였다.

《장군님! 빼앗겼던 들에 진정 봄이 왔습니다.》

룡산리의 한 농민이 분여받은 제땅을 밟고서서 눈물을 찼찰 흘리며 장군님께 올린 말씀이었다. 지난봄까지만 해도 봄을 원망하던 농민들, 해마다 봄이 오면 희망이 아니라 절망에 한숨쉬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고 억이 막혀 가슴을 치고 땅을 치던 이 나라 농민들이 올해에는 희망의 봄, 행복의 봄이 왔다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이 세기적변혁앞에서 누구보다도 눈물겹도록 기쁘고 행복하신분은 바로 **김일성**동지이시였다. 왜 그렇지 않으랴. 제2차 세계대전이 파시즘의 패망으로 막을 내리고 많은 나라들에서 독립을 이룩했지만 제일먼저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주지 않았는가.

물론 농민들에게 땅을 나누어주었다고 해서 농촌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볼수는 없었다. 그들을 진정한 땅의 주인으로 되게 하자면 아직 해야 할 일이 산더미같다는것을 그이께서는 모르지 않으시였다. 일부 지방에서는 농민들이 지주의 눈치를 보면서

분여받은 땅이 제땅이라는것을 실감하지 못하고있었다. 혹시 지주한테 땅을 다시 떼우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농민들도 있었다.

그들모두를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게 하자면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언제나 인자한 미소를 짓고계시면서도 그이께서는 크나큰 심뇌를 마음속에 안고계시였다.

승용차가 웃고개를 넘어 뺑대거리로 들어서는데 장군님께서 차를 멈추게 하시였다.

《우리 저기 들어가서 점심을 먹고 가자구.》

그러시고는 먼저 차에서 내리시여 길옆의 국수집으로 향하시였다. 예견치 못했던 정황이여서 리병설은 좀 당황해졌다. 장군님께서 국수를 좋아하시는줄은 잘 알지만 성안에 다 들어왔는데야 왜 하필 저런 허술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신단 말인가. 온전한 국수그릇 하나 있을상싶지 않은 길거리의 초라한 국수집에서 식사를 하시였다는걸 김책동지나 안길동지들이 알면 자기가 또 된욕을 먹을게 뻔했다. 김정숙동지에게는 또 뭐라고 말씀드린단 말인가.

리병설은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황급히 장군님의 뒤를 따랐다.

조선식기와지붕우에 간판을 올려놓은 국수집은 점심때가 지났는데도 미닫이를 활짝 열어놓고있었다.

장군님께서는 리병설에게 아무소리 말라고 눈짓해보이시고는 신발을 벗고 방안에 들어가 앉으시였다. 식당안에는 두세패의 손님들이 끼리끼리 마주앉아있었다. 한잔씩 마신 손님들이라 누가 들어오건 상관없이 자기들의 이야기에 열을 올리고있었다. 룡산리의 누구는 옥답4천평을 분여받고 밤새 지경을 돌며 춤을 추었다는 이야기,

오류리에서는 갓 마흔이 되도록 머슴살던 로총각이 땅을 받고 지주가 살던 집까지 받고 장가를 갔다는 이야기....

들어보면 거의다 토지개혁에 대한 이야기들뿐이었다. 그런데 장군님앞에 마주앉아있는 중늬은이는 이야기판에도 끼우지 않고 혼자서 창밖을 내다보며 싱글벙글 웃고만 있었다. 앞에는 국수 한그릇과 소주종발이 놓여있는데 국수는 아직 저가락을 대지 않은 상태였다.

장군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건네시였다.

《국수가 다 풀어지겠습니다. 어서 드셔야지요.》

로인은 하찮은 중늬은이를 존대해주시는 젊은분에게 머리를 굽석해보였다.

《그까짓 국수야 풀어지면 뭐랍니까? 그저 속이 흐뭇한게 먹지 않아두 배가 부르는것 같습네다.》

《좋은 일이 있는 모양이지요?》

《다 좋지요. 땅도 내 땅이요, 집도 내 집이요, 이 국수도 내 국수요, 이제는 다 우리건데 왜 안 좋겠습니까?》

장군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다 우리거라... 그참 좋은 말씀입니다. 로인님은 어데 사십니까?》

《예, 웃고개너머에서 삽니다. 엇그제는 땅을 반구 오늘은 성안에 들어가 소 한마리 사가지고 오는 길이웨다. 참 꿈같은 일이지요. 제땅에서 제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게 됐으니 농사군에게야 그 이상 단꿈이 있나요. 이게 다 김일성장군님 은덕이지요. 현대 이거 안됐소만 점잖으신 어르신네 담배 한대 없소이까? 씹지를 어데 떨궈나서...》

장군님께서서는 얼른 담배를 꺼내여 권하시였다. 성냥으로 불까지 붙여주시였다.

향긋한 담배맛에 기분이 더 좋아진듯 로인은 아예 말보따리를 헤쳐놓았다.

《오늘 아침에 저 옷고개를 넘으면서 가만 생각해보니… 참, 어르신네는 저 옷고개를 왜 그렇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장군님께서서는 창덕학교시절부터 옷고개의 유래를 알고계시였지만 로인의 흥을 깨뜨리고싶지 않아 모르는척 하고 물으시였다.

《로인님이 좀 말씀해주십시오.》

로인은 담배연기를 탐스럽게 삼켰다가 시원스레 내뿜고나서 말을 이었다.

…옛날에 대동군을 비롯한 여러 고을의 량반선비들은 평양으로 올 때 평양성이 바라보이는 그 고개마루에서 새옷을 갈아입곤 했다고 한다. 평양감사가 있는 성안에 어지러운 옷차림으로 들어갈수 없어서 그랬다는것인데 그때문에 고개마루에는 량반선비들이 벗어놓은 옷이 늘 하얗게 걸려있곤 해서 옷고개라는 이름이 붙었다.

로인은 손톱이 따거워질 때까지 담배를 피우고서야 아쉬운 표정으로 재털이에 비벼졌다.

《오늘 아침에 옷고개를 넘으면서 생각해보니 옷고개도 이젠 우리 고개인데 내 두루마기도 좀 걸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소. 그래서 입었던 두루마기를 벗어서 척 걸어놨지요.》

건너편식탁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어느새 로인의 이야기를 재미나게 들으며 킁킁거렸다. 그러거나말거나 로인은 종발밑창에 조금 남았던 술을 쪽- 소리가 나게 들이키고는 하던 말을 계속했다.

《헌데 한참 고개를 내려오다보니 옛날 량반놈들이야 평양감사가 무서워서 옷을 갈아입었지만 이제야 우리 세상인데 뭐가 무서워서 헌 두루마기라고 벗어놓겠는가 하는 배짱이 생기더라 말이웨다.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올라가서 두루마기를 입고 내려왔지요.》

《하하... 그거 참 잘하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웃음을 짓하시며 통쾌한 웃음을 터치시였다.

로인의 이야기에는 제 나라, 제땅을 다시 찾은 인민들의 감격과 환희가 반영되어있었다.

여기에 들리지 않았다면 이 좋은 이야기를 어데가서 들어보겠는가.

앞치마를 두른 접대원이 국수그릇을 쟁반에 받쳐들고 부엌에서 올라왔다.

장군님께서는 저가락을 드시며 로인에게도 권하시였다.

《좋은 이야기를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로인님도 이젠 식사를 합시다.》

로인은 점잖으신 어르신이 어떤분인지 짐작조차 못하고 그냥 멍글거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북조선립시인민위원회청사에 도착하실 때까지도 국수집의 즐거운 분위기에 잠겨계시였다.

장군님의 승용차소리에 안길이가 2층에서 달려내려왔다. 조국에 돌아오자마자 함경북도에 파견되어있던 안길은 얼마전부터 장군님의 곁에서 사업을 보좌해드리고있었다.

《무사히 다녀오셨습니까?》

장군님께서는 안길과 인사를 나누시고 집무실로 올라가시며 제기된것이 없는가고 물으시였다.

《쏘미공동위원회 공동성명서 제3호가 서울에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농림국장동무가 두번이나 다녀갔습니다.》

《무슨 일때문입니까?》

《토지분여사업에서 제기된 문제라고 합니다. 장군님께서 돌아오시면 직접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그이께서는 농림국장을 부르라고 이르시며 집무실로 들어가시였다. 집무탁우에는 쏘미공동위원회 공동성명서 제3호 원문이 놓여있었다.

지난해말 모스크바에서는 쏘, 미, 영 세나라의 외무상들이 모여 포츠담회담에서 아귀를 짓지 못한 날카로운 현안문제들을 토의결정하였다. 그 회의에서는 5년이내의 후견제를 실시하여 장차 조선에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가 수립되도록 도와준다는것이 결정되였다. 그 결정의 실행을 위해 올해초에는 쏘미공동위원회가 조직되였고 지난 3월 20일부터 서울의 덕수궁 석조전에서는 공동위원회가 자기 사업을 시작하였다.

장군님께서는 손에 들고계시는 공동성명서의 내용보다 그것이 작성된 회의장소로 생각을 달리시였다.

석조전이라면 20세기초 조선에서 서유럽문명을 받아들이면서 루네쌍스식으로 지은 2층짜리 화강석건물이다. 그곳은 왕궁의 미술작품들을 소장해두는 곳으로서 우리나라의 미술관으로 되어있었다.

조선민족의 슬기와 문명을 자랑하는 문화재가 집중되어있던 미술관에서 조선사람은 제힘으로 자주독립국가를 세울수 없기때문에 대국들이 도와주어야 한다고 모여앉은것이다.

장군님께서서는 무거우신 안색으로 공동성명서의 내용을 대충 훑어보시였다. 성명서에는 모스크바3상회의에서 결정한대로 조선에 잠정적인 립시정부를 세우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이 제시되어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들과 립시정부수립을 합의하기 위한 조건과 절차, 립시정부와 지방행정기관의 구성과 조직원칙에 대한 토의, 립시정부의 정강과 방침제시 그리고 제기된 문제들을 맡아수행할 분과위원회들이 조직된데 대해 밝혀져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성명서를 덮어놓으시며 알릴듯말듯 머리를 저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미전부터 쏘미공동위원회 회의장에 드리워있는 구름장을 보고계시였던것이다. 그것은 조선문제를 토의하는 그 자리에 유감스럽게도 조선사람이 앉을 의자는 준비되어있지 않았기때문이다. 주인이 없는 자리에서 손님들끼리 모여앉아 주인노릇을 하면서 주인의 리익을 론하고있는것이다. 지금 미국은 남조선을 영구강점하여 대륙침략의 교두보로 삼으려는 흥심을 점점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었다. 남조선주둔 미군사령관 하지는 회의시작전에 미국의 립장을 밝힌 《성명》을 발표하면서 조선인에게 미국식민주주의에 기초한 절대적인 자유를 약속하였다.

하다면 무슨 권리로 미국은 조선이 자주적인 국가로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가? 이것이 소위 민족자결에 대해 그토록 말하기 좋아하는 미국이 하는 말인가?

미국이라는 욕심많은 나라가 모스크바3상회의결정을 휴지장으로 만들것은 명백하지만 장군님께서서는 아직 그 누구앞에서도 자신의 견해를 말씀하는것을 삼가하고계시였다. 거기에 기대를 걸고있는 사람들을 미리부터 실망시키고싶지 않으시였던것이다. 중요한것은 회의결과가 아무리 비관적이라 해도 자체의 힘으로 민주주의독립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결심만은 변할수 없다는것이였다.

문기척소리가 나더니 안길이가 농림국장을 대동하고 들어섰다.

장군님께서서는 사색의 문을 닫으시고 두사람에게 의자를 권하시였다.

《앉으시오.》

그러나 농림국장은 앉을념을 앓고 죄지은 사람처럼 머뭇거렸다. 토지개혁법령을 관철하기 위해 밤잠을 잊고 뛰어다니면서도 노상 싱글벙글하던 사람인데 무슨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긴것 같았다.

《무슨 일입니까?》

농림국장은 대답대신 옆에 끼고온 가방에서 종이 한장을 꺼내여 장군님께 올렸다.

그것을 받아드신 장군님께서서는 의아한 표정으로 농림국장을 바라보시였다.

《이거야 토지소유권증서가 아닙니까?》

《웁습니다. 보통벌에 사는 한 농민의것인데 땅을 바꾸어달라고 해서 회수한것입니다.》

《땅을 바꾸어달라니, 그건 무슨 소리요?》

농림국장은 서성리농촌위원회에 실태료해를 나갔던 부원이 그 증서를 가져오게 된 전후사연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렸다. 농림국장의 입에서 토성량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장군님께서서는 마음속에 둔중한 아픔을 느끼시었다. 가슴에 묵은 상처처럼 도사리고있는 보통강을 올해 장마철전으로는 대수술을 해야겠다고 이미전부터 다짐해오시었는데 그 상처가 불시에 타격을 받은것이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오성재라는 이름이 적혀있는 그 증서를 손에 드신채 아무 말씀없이 앉아계시었다.

《장군님! 너무 마음쓰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그 농민을 다른데로 이주시키고 좋은 땅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국장이 조심스레 말씀올렸으나 장군님의 상심어린 안색은 풀리지 않으시었다.

《그건 옳은 해결책이 못됩니다. 보통강류역에 토지를 받은 사람이 그 한사람뿐이겠습니까? 서평양일대를 포함해서 많은 토지가 수해의 위험을 받군 하는데 그중에서도 토성랑주변에 있는 30~40정보의 논밭은 해마다 물에 잠기군 합니다.》

농림국장은 자기도 모르는 그곳 실태를 장군님께서 손금보듯 알고계시는데 대해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장군님께서 언제 그런것까지 다...》

《여기야 내 고향이 아닙니까.》

장군님께서서는 범상한 어조로 한마디 하시였으나 듣는 사람들은 경건한 감정에 휩싸였다. 15성상 총을 잡고 일제와 싸우시면서도 삼천리강산의 방방곡곡에 대하여 어느 경제학자나 지질학자 못지 않게 속속들이 알고계시는 장군님이시다.

어느 광산의 광석매장량, 어느 탄광의 석탄매장량, 어느 지방의 특산물...

농림국장이 집무탁앞에 한걸음 다가섰다.

《제 생각엔 그 농민이 땅타발을 하는게 너무하다고 봅니다. 남들은 제땅이 생겨서 고맙다는 인사뿐인데 그 농민은 투정질부터 하니 이걸 정말 말타면 견마 잡히우고싶다는 격입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아까부터 말없이 서있기만 하는 안길에게 시선을 돌리시였다.

《안길동무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농민의 땅타발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집무탁을 돌아 긴책상을 사이에 두고 두사람과 마주앉으시였다. 그러시고나서 그들에게 담배를 권하시며 달래듯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난 오성재농민의 땅타발을 이해해주고 싶습니다. 그 땅이 남의 땅이라면 타발할 필요가 없겠지만 제땅이기때문에 함구무언하고있을수 없었던게 아닐가요? 말하자면 그 땅이 좋다나쁘다 할수 있는것은 주인의 권리입니다. 그 농민이 오죽이나 물란리를 겪었으면 그랬겠습니까? 올해에도 장마가 지면 땅이 또 못쓰게 되겠는데...》

장군님께서서는 진심으로 그를 이해해주고싶으시였다. 그 농민의 투정질을 받아주고싶으시였다. 투정질을 받아줄 품이 없다면 그랬겠는가. 그 농민은 우리 인민정권을 믿고 투정질을 한것인데 우리에게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는가.

장군님께서서는 안길과 농림국장에게 말씀하고계시였지만 자신의 심중에도 그것을 되새겨놓으시며 마음을 가다듬으시였다.

《난 오늘 주변농촌들에 나갔다오면서 기분이 참 좋았됐습니다. 땅을 받고 기뻐하는 농민들을 보면서 웃음이 절로 나고 노래라도 부르고싶었됐습니다. 그런데 이 증서를 보니 우리에게 할일이 너무도 많다는것을 다시한번 자각하게 됩니다.》

《...》

안길은 자리에서 일어섰으나 입을 열지 못했다. 장군님의 괴로움을 덜어드릴만 한 말을 찾을수 없었던것이다.

장군님께서서는 집무탁으로 돌아가시여 증서를 집어드시였다. 거기에 씌여진 글을 읽고 또 읽으신 장군님께서서는 양복의 두번째 단추를 끄르시고 그 증서를 소중한 보물처럼 안주머니에 간직하시였다. 가장 귀중한것을, 가장 무거운것을 그이께서는 자신의 심장가까이에 간수하신것이다.

농림국장과 안길이 나간 뒤에도 그이께서는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시고 집무실을 거니시였다.

(보통강... 토성랑... 보통강...)

그이께서는 문득 지난해말 김책과 함께 평양학원에서 돌아오시다가 보통강개수공사문제를 처음으로 의논하시던 때를 회상하시였다.

그날 김일성동지께서는 평양으로 들어오시던 길에 봉수산기슭 서재골입구에서 차를 세우시였다. 이 길로 다니실 때면 드문히 차를 세우시고 강건너 토성량이며 빈민촌인 적굴동쪽을 점도록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시곤 하는 장군님이시였다. 그때까지는 그 누구도 지어 운전사나 부관도 장군님께서 왜 자꾸 이곳에 차를 세우곤 하시는지 알수 없었다.

오늘 장군님께서서는 가슴속에 혼자 묻어두고계시던 문제를 김책과 조용히 의논해보고싶으시였다. 이미전부터 결심을 굳혀오신 문제였지만 지금형편에서는 그것이 너무 엄청난 일이 아닌가 싶어 주저되는바가 없지 않으시였는데 제일 가깝고 믿음이 가는 전우의 동의를 받게 되면 그 결심을 실현하는데 큰 힘이 될것 같으시였던것이다.

지난밤에 내린 눈이 대지를 온통 하얗게 단장하고있었다. 며칠 있으면 설날이다. 어지러운 세월이 남긴 흔적들을 감추어버리고 신생의 깨끗한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하려는듯 강산은 포근히 눈포단을 덮고있었다. 이따금씩 바람이 불어치면서 해빛에 반사된 눈가루들이 보석알갱이처럼 반짝거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시였다. 보이는 모든것이 그이의 마음을 아프게 해주었다. 선내리쪽에 솟아있는 화장터의 거무튀튀한 굴뚝도, 당상철교근방의 오물적치장도 다 눈에 거슬리시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운하동너머의 토성량마을을 김책에게 가리키시였다.

《저기가 아래토성량이라고 부르는 사람 못살 곳입니다. 그리고 저쪽(현재 붉은거리)은 거지들이 벌거벗고 산다고 해서 적굴동이라고 부르는 빈민촌입니다. 난

토성량을 바라볼 때마다 과거 우리 민족의 수난사에 대해 새삼스럽게 되새겨보곤 합니다. 그래서 난 올봄부터 보통강개수공사를 시작하자고 하는데 김책동무 생각엔 어떻습니까?》

그이의 말씀이 너무 뜻밖이어서 김책은 반문하지 않을수 없었다.

《개수공사를 한단 말입니까?》

《힘들것 같습니까?》

장군님앞에서 언제한번 속에 없는 소리를 해보지 않은 김책은 자기가 우려하는바를 숨김없이 말씀올렸다.

《지금같은 형편에서 그런 방대한 토목공사를 한다는것이 너무 아람차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나라형편이 어려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김책동무에게 먼저 물어보는것입니다.》

장군님의 안색이 하도 무겁고 말씀하시는 그 어조가 하도 심중해서 김책은 당황해졌다.

자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느라 했는데 장군님께서서는 다른 대답을 바라신다는것을 깨달았던것이다. 하다면... 김책은 온몸이 굳어졌다. 사실말이지 오늘의 형편에서 자연개조공사를 벌려놓는다는것은 너무도 아람찬 일감이었던것이다.

다른것은 다 제쳐놓고 경제형편 하나만 놓고도 충분히 그렇게 말할수 있었다.

패망을 앞둔 일제는 조선의 산업시설을 닥치는대로 파괴하였다.

8. 15해방후에도 일제는 본토에 실어갈수 있는 재산과 기술자들을 철수시키고 광산지대와 공장들을 파괴할 시간을 얻기 위하여 악랄하게 저항하였다. 결과 북조선의 수십개 중요광산들이 완전침수되고 술한 탄광, 광산의 갱들이 파괴매몰되었으며 중공업공장들과 발전소를 포함한 공장, 기업소들이 폐허로 되었다.

장차 공산정권이 서게 될 북조선에는 애당초 그 경제적기초를 파괴해버리자는것이 섬나라족속들의 저렬하고 고약한 심보였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제가 파괴한 산업을 하루빨리 일떠세우기 위하여 조국에 개선하신 후 평양곡산공장과 서선전기회사를 비롯한 시내의 공장, 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였으며 고향 만경대를 찾으시기도 전에 강선의 로동계급을 먼저 찾아주시였다. 그 믿음에 고무되어 강선의 로동계급은 일제가 파괴한 전기로를 자체의 힘으로 복구정비하여 한주일전부터는 새 조선의 기둥이 될 첫 쇠물을 뽑아냈으며 전국의 방방곡곡에서도 생산돌격대가 조직되어 생산공정을 살리고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었다. 그러나 아직은... 아직은 방대한 자연개조공사를 할만 한 경제적잠재력이 없었다. 아직은 공사를 담당수행할 국가주권도 없고 도움을 받을데도 없었다. 아직은 인민들이 공사에 자각적으로 동원될만큼 각성되지도 못했다. 아직은 형편이 너무도 어려웠다. 그런데 장군님께서서는 무슨 타산으로 이 공사를 결심하시였는가. 만약 그때 김책이 장군님께서서는 어째서 보통강개수공사를 건국의 앞자리에 놓으시였는가고 물었다면 그이께서는 하고싶은 천만마디를 함축하여 자신께서 조선의 아들, 평양의 아들이기때문이라고, 따라서 토성랑의 비참상이 가슴아파 견딜수 없다고 말씀하시였을것이다.

장군님의 음성은 갈려있었다.

《여기는 조선인민이 겪어온 수난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력사의 고발장과도 같습니다. 그들이 겪은 수난이 단순히 보통강이라는 자연때문이겠습니까?》

장군님께서서는 말씀을 끊으시고 멀리 토성랑쪽에서 시선을 돌리시였다.

토성랑... 토성랑이란 보통강변의 옛 토성뚝을 따라 움막집들이 랑하처럼 나란히 붙어있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였다. 원래 보통강은 지금으로부터 500년전에는 홍수를 모르고 조용히 흐른다고 해서 평안강이라고 했는데 19세기부터 보통강으로 불리워왔다.

평원군의 깊은 산골짜기에서 발원하여 사시장철 맑은물 흐르던 보통강은 조선을 강점한 일본놈들이 상류의 산림자원을 마구 찍어냄으로써 흙탕물이 범람하기 시작하였다. 일제는 또한 시내의 하수도를 보통강으로 뿔아돌리고 강변의 곳곳에 오물적치장과 인분저장탱크들을 되는대로 넣어놓아 보통강변을 도시의 시궁창으로 만들어놓았다. 또한 왜놈들은 경치좋은 본평양의 구릉지대에는 돈많은 놈들만 살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보통강의 진펄지대로 내쫓아 비참한 빈민굴을 형성하게 하였다. 그렇게 생겨난것이 바로 토성랑이였다.

토성의 경사면을 감자움처럼 파내고 출입문대신 거적을 드리운 움막집들이 지금 그이의 시야를 꽉 채우는듯싶었다. 눈이 덮여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모름지기 움막지붕에는 양철조박들과 합판조박들이 얹혀져있을것이다. 그래서 낮에는 해빛이, 밤에는 별빛이 새여들고 여름에는 비물이, 겨울에는 눈석이물이 떨어지는 움막집,

어둡고 누기찬 방안에 비오는 날에는 개구리가 뛰어들고 청청한 날에는 쉬파리가
몰려드는 무덤보다 못한 집...

그렇게 사는것도 행복이라고 장마때면 그 잘난 집마저 홍수에 잃고 목숨까지
물거품처럼 떠내려보내며 최하층의 생활을 강요당해온 토성랑사람들... 아! 조선인민은
어찌하여 이다지도 비참하게 살아야 했던가.

이제 저 사람들이 올해의 추운 겨울을 또 어떻게 견디여낼것인가? 저 사람들도 《
해방 만세!》를 목청껏 웨쳤을진대 해방이 그들에게 가져다준것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과연 건국이라는 말속에는 토성랑이 포함되지 않는단 말인가.

그이께서는 토성랑사람들앞에 진심으로 미안스러우시였다. 그들에게 《만세!》의
진정한 대가, 해방의 참된 의미를 안겨주지 않고서는 그 미안함을 털어버릴것 같지
못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봉화산쪽으로 난 오솔길을 천천히 걸으시며 생각에 잠겨계시다가
뒤따르는 김책에게 문득 물으시였다.

《김책동무는 정치라는 말을 어떻게 리해합니까?》

《...》

그이께서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으시고 정갈한 숫눈우에 《정치》라는 단어를 한자로
쓰시였다.

《한자로 쓰면 정사 정에 다스릴 치입니다. 17~18세기에 유럽에서
신흥부르쥬아지들이 봉건왕조의 절대적인 전제제도를 반대하여 들고나온 삼권분립의
정치제도가 현대사회의 정치구조라고 할수 있는데 그들은 정치를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것으로 리해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인민의 요구를 실현시켜주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것이 정치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오, 다스릴 치의 부수는 물 수 변입니다. 그러니 정치라는 말에는 물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뜻도 포함되어있는게 아닙니까?》

김책은 손벽을 마주쳤다.

《웁습니다. 옛날 중국에서도 황하나 양자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임금으로 추대했다고 했습니다.》

《김책동무, 인민의 나라를 세우자고 혁명을 해온 우리가 저 토성랑을 그대로 두고서야 무슨 건국을 한다고 말할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리 힘에 부치고 할 일이 많아도 보통강개수공사를 먼저 함으로써 평양을 수해로부터 보호하고 보통강반에 락원을 일떠세우자는것입니다.》

장군님의 절절한 음성은 김책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김책은 심각한 표정으로 중절모를 벗어 들고 장군님을 우러러보았다. 장군님께서 보통강개수공사의 필요성을 나 한사람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도 이렇듯 품을 바치시는데 이제 이 공사를 위해 얼마나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셔야 할것인가.

김책은 늦게나마 시원스럽게 말씀드렸다.

《장군님, 공사를 합시다. 제가 좀 복잡하게 생각했던것 같습니다.》

《김책동무가 지지해주니 나도 힘이 생깁니다.》

장군님께서는 어느덧 공사장이 바라보이는 봉화산중턱에 이르시였다. 왜놈들이 공사를 한답시고 파헤쳐놓아서 공사장은 사방에 흙무지뿐이였다. 대지는 곱게 눈이불을

덮고있건만 구덩이의 경사면들은 하늘이 덮어준 눈이불도 안 차례져서 시뻘건 생땡을 상처처럼 드러내고있었다.

원래 일제놈들이 1937년부터 이 공사를 벌려놓은것은 서평양일대의 수해방지를 위해서가 아니였다. 애당초 그놈들에게는 조선사람들의 생명재산에 대한 어떤 책임감 같은것이 없었다. 그놈들에게는 대동강의 지류인 보통강에 운하를 형성하여 알곡, 목재를 비롯한 서선지방의 자연부원을 손쉽게 본토로 실어갈수 있는 수상운수가 필요할뿐이였다. 또한 이 일대에 군수산업체들을 건설하면 공업용수와 폐수처리로 보통강을 리용하는것이 유리했기때문이였다.

그러한 필요성으로부터 일제는 이 공사를 《조선총독부》가 관할하게 하고 해방되는 날까지 10년동안에 많은 로력을 동원시켰다. 공사속도가 굼벵이와 자리다툼을 하게 되자 놈들은 전라도와 경상도에서까지 알선인부들을 모집해왔으며 평양은 물론 평안남도 매개 군들에서 인민들을 《보국대》로 끌어오기까지 했다.

1940년대부터 일제는 전쟁의 수렁창에 더 깊숙이 빠져들면서 전쟁비용의 충당으로 혈떡거리기 시작했다. 큼직한 먹이감으로 생각했던 보통강개수공사도 귀찮아질 지경으로 급급해난 《조선총독부》는 공사의 리권을 개인들에게 팔아넘기지 않을수 없었다. 그 리권을 날쌔게 차지한자가 조선에서 금광업으로 거금을 긁어모은 나까무라라는 일본인과 평양의 대지주 구문선이였다. 그놈들은 합작회사를 만들어놓고 공사를 빨리 끝내기 위한 방도로 십장들의 수를 대폭 늘이었으나 결국은 총공사량의 절반도 못하고 일본의 패망과 함께 손을 떼고말았던것이다.

장군님께서서는 이 공사장전체가 평양의 상처, 조국의 상처처럼 생각되시였다. 그렇다, 이것은 식민지사회가 남겨놓은 악성종양이나 다름없다. 몸에 난 상처는 아픈 법이다. 그래서 더 마음쓰게 되고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애쓰는것이다. 평양의 상처와 다름없는 이 공사장도 그와 같은 리치라고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치료대책을 세우는것은 너무도 응당한 일이 아니겠는가.

김일성동지께서는 한적한 공사장의 전경을 오래동안 바라보시다가 김책에게 돌아서시였다.

《이번에 내가 모스크바에 가서 쓰딸린을 만났을 때 그는 3상회의가 열리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조선의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적극 도와줄 의향을 표시했습니다. 물론 난 그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자체의 힘으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여야 합니다. 어쨌든 조선혁명의 주인이야 조선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인이란 말뜻도 모르면서 주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비운 뒤의 버섯처럼 많아졌습니다.》

김책으로서는 일제를 반대하여 총 한방 쏘보지 못하고 개화장이나 짚고 다니던 《유명인사》들이 해방이 되자 저마끔 제 문패를 써가지고 주인흥내를 내려는것이 달갑지 않았던것이다. 한쪽에서는 매일같이 공공장소에 순박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해방조선이 나갈 길을 제나름대로 력설하느라 목에 피대를 세우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소련이나 중국에서 나온 사람들이 영치를 붙이고 앉을 자리를 편안히 마련하느라 저들끼리 부스럭대고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너도나도 주인노릇을 하자고 하는 때에 인민을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 내세운 공산주의자들의 책임감에 대해 다시 강조하시였다.

《제2차 세계대전후 파시즘의 억압에서 해방된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선포하고 자기식의 민주국가건설을 위해 노력하고있는 오늘 우리는 토지개혁과 산업국유화 같은 제반 민주개혁들과 함께 보통강개수공사를 우리 힘으로 완수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나라를 세우려 하는가를 세계앞에 똑똑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바로 그 시각에 멀리 쏘련에서는 쏘, 미, 영외무상들이 모여앉아 조선이라는 나라가 제발로 걸어갈수 있을 때까지 대국들이 《보모》가 되어 보살펴주어야 한다는 결정서의 마지막문구를 작성하고있었다.

...

생각에 잠겨계시던 **김일성**동지께서는 립시인민위원회 재정국장과 평안남도인민위원회 리주연부위원장을 전화로 부르시였다. 재정국장에게는 올해국가예산초안을 가지고오도록 하시였다.

지난 2월 북조선립시인민위원회가 조직된 후 **김일성**동지께서는 재정국에 국가자금을 계획적으로 동원하고 계획적으로 지출하는 예산편성제도를 확립할데 대해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며칠전에는 북조선립시인민위원회 제5차회의를 지도하시면서 국가재정사업을 잘하며 농민은행을 창설하여 토지개혁의 성과를 공고히 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그에 따라 재정국에서는 파괴된 산업을 복구하는데 선차적힘을 넣으면서 교육, 보건 등 민주주의시책들을 재정적으로 안받침할수 있는 국가예산제도를 4월부터 정식 실시하기로 하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재정국장이 가져온 문건을 한장한장 넘기시며 올해 국가예산을 받을 대상기관들의 명단을 주의깊게 훑어보시다가 말씀하시였다.

《보통강개수공사장은 빠졌구만.》

《예?》

재정국장은 어리둥절해졌다. 그로서는 매 부문별 대상기관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한데 기초하여 제일 중요하고 급한 대상에 한해서만 한푼한푼을 따져가며 예산을 세웠던것이다. 따라서 공사장처럼 확대재생산이 불가능한 소비단위의 예산지출은 생각밖의 일이었다.

문기척소리와 함께 서기가 들어와 리주연이 도착했다고 장군님께 보고드렸다.

《들여보내시오.》

장군님께서서는 리주연의 인사를 받으신 다음 직방으로 물으시였다.

《부위원장동무는 보통강개수공사장에 나가봤습니까?》

《예, 한달전에 장군님말씀을 받고서야 나가보았습니다.》

《형편이 어떻습니까?》

장군님께서서는 한가닥 기대를 안고 물으시였다.

《공사장이 텅 비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군님말씀대로 공사를 다시할수 있도록 준비사업을 해놓으라고 과업을 주었습니다. 지금은 한 50명정도의 노동자들이 향토건설대를 뭉고 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리주연은 이런것까지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는듯 재정국장을 얼핏 바라보았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실태를 그대로 말해주시오.》

《며칠전에 공사책임자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노동자들에게 로임을 주지 못하기때문에 하나둘 떠나간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속이 타시는듯 담배갑을 손에 쥐시였다.

《결국 돈이 문제란 말이지요. 50명도 되나마나한 사람들에게 지불할 돈도 없는 형편이란 말이지...》

그이께서는 담배가치를 그냥 만지작거리시며 생각에 잠겨계시다가 리주연에게 물으시였다.

《거기 책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리주연은 장혁수가 해방직후에 공사를 언제 시작하는가고 도인민정치위원회에 찾아왔던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올렸다.

《우리 도인민위원회에 토목과를 내오긴 했지만 책임자로 내보낼만 한 책임자도 없는데다 당장은 중요시할만 한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그 사람더러 공사장을 립시책임지고있으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리주연이도 공사를 먼 후날의 일로 생각하고있은것이였다.

《그 사람이 왜 해방후에도 공사장에 남아있었는지 모릅니까? 무슨 사연이라도 안고있는지...》

지금 그이께서는 인간적인 립장에서 장혁수에 대해 자상히 알고싶으시였던것이다.

《그런 내막까지는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리주연은 얼굴을 붉히며 말씀드렸다. 자기가 보통강개수공사장을 차요시하고 장혁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것을 모르고있은것때문에 장군님께서 실망하시였다는것을 몸으로 느꼈던것이다.

장군님께서서는 재정국장에게 문건을 넘겨주시며 간곡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물론 재정형편이 어려운줄 압니다. 하지만 공사예산을 다문 얼마만이라도 조성해보시오. 부탁드립니다.》

재정국장은 장군님의 부탁을 그 어떤 엄한 명령보다 더 무게있게 받아들였다.

《그리고 리주연동무는 나와 함께 며칠내로 보통강개수공사장에 나가봅시다.》

《알겠습니다.》

5

그날 오후 김일성동지의 집무실에서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평안남도인민위원회, 평양시인민위원회 책임일군들의 협의회가 진행되였다. 협의회에서는 평양 시내 로동자, 사무원들에 대한 식량공급문제가 기본으로 토론되였다.

농림국장의 실태보고는 엄중하였다.

《장군님께서 가르치신대로 이달초부터 시내의 로, 사세대들에 대한 식량공급을 시작했지만 전망은 어둡습니다.》

《원인이 뭘니까?》

《모리간상배들이 시장에 나오는 쌀을 닥치는대로 사들이기때문에 가격이 매일같이 올라가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상배가 아니라도 돈냥이나 있는 사람들이 쌀을 많이 사서 저축하기때문에 쌀값이 폭등하고있습니다. 제일 엄중한것은 남조선과 결탁된 반동놈들이 위조화폐를 들여와 쌀을 사서는 해주항을 비롯한 배길로 남조선에 실어내가는것입니다.》

농림국장은 식량공급을 제대로 못하고있는 원인을 몇가지로 분석했지만 이렇다할 대책안은 제기하지 못했다. 농림국장이 자리에 앉자 이번에는 시인민위원장이 일어섰다.

《시인민위원회에서는 해방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실업문제때문에 골머리를 앓고있습니다. 그리고 류랑고아문제도 당장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있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필요한것들을 수첩에 적으시며 일군들의 토론을 다 들어주시었다.

도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리주연은 평양고무공장에 원료가 떨어져 생산이 멎을 형편이라고 속상한 소리를 했고 시보안서장 오진우는 반동놈들의 책동이 우심해지고있는데 대해 사실자료들을 들어가며 보고했다.

엄혹한 현실은 마치나 장군님의 의지를 시험해보기라도 하려는듯 세찬 파도마냥 연방 밀려들었다.

그래도 장군님께서서는 끝없이 밀려드는 파도를 혼자서 다 막아나서야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만년필을 놓으시고 조용히 말씀을 시작하시였다.

《현시기 식량문제를 옳게 푸는것은 인민생활을 안정시킬뿐아니라 민주건설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때문에 인민위원회에서는 보안기관의 방조를 받아서라도 모리간상배들이 사들인 량곡을 조사장악하여 일정한 가격으로 수매해가지고 적당한 가격으로 주민들의 식량공급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농림국에서는 각 도 량곡보유량을 조사하며 여유량곡을 실어다가 평양시내에 공급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식량공급을 정상화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신 다음 시인민위원장에게 실업자들과 류량아문제에 대해 말씀하시였다.

《인민정권이 수립된 오늘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것은 심중한 문제입니다. 인민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식민지통치후과를 청산하기 위한 선차적과업으로 내세우고 실업자들에게 직업을 알선해주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책임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시면서 류량고아들을 집단적으로 수용하여 국가가 맡아키우며 그들에게 글도 배워주고 성년이 되면 안착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직장도 구해주어야 한다고 세세히 가르쳐주시였다.

《그리고...》

그이께서는 갑자기 말씀을 끊으시였다. 일군들이 모여앉은 기회에 보통강개수공사문제를 상정시키려고 했는데 차마 말을 꺼낼수 없으시였다. 방금 토론된 식량문제 하나만으로도 당장은 공사를 할수 없다는 위력한 론거로 되기때문이였다.

식량문제는 그렇다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북남통일문제, 산업복구, 교육, 보건...

제일 심각한것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직도 시대의 변화앞에서 어쩔바를 모르고 당황해하고있는것이였다. 건국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해방된 조선은 장차 어느 길로 나가야 하는가고 두리번거리는것이 오늘의 현실이였다.

어떤 곳에서는 지주가 토지개혁사업에 끼여드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반동들의 악선전에 속아 남으로 술가도주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이 정체를 숨기고 정권기관이나 법기관에 틀고앉아 마스지 말아야 할것까지도 《프로레타리아의 마치》로 두드려마스는 판이였다. 한마디로 말해서 식민지사회의 낡은 질서는 허물어졌지만 새 사회의 새 질서는 확립되지 못한 무질서와 혼돈의 시기, 장마철 여울목처럼 소란스럽기 그지없는 시기였다. 이런 형편에서 보통강개수공사의 절박성을 어떻게 한마디로 납득시키겠는가.

《이만합시다.》

그이께서는 괴로운 심정으로 회의를 결속하시였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중에서 지금 장군님의 심중이 얼마나 복잡하신가를 어렵뜻이나마 짐작하고있는 사람은 김책 한사람뿐이였다. 장군님께서 오전에 김책과 따로 만나신 자리에서 오후협의회 뒤끝에 공사문제를 상정시키겠다고 말씀하시였던것이다. 김책은 제가 먼저 그 문제를 꺼내놓음으로써 장군님의 마음속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싶었으나 그렇게 할수도 없었다. 왜냐면 그것은 곧 이 나라의 력사이기때문에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것이였다. 그 위대한 사변의 첫 발기자는 오직 **김일성**동지로 되여야 한다고 그는 생각하고있었다.

6

땡, 땡, 땡...

낮은 파철무지같은 전차는 월향동정류소에 대여섯명의 승객들을 부리워놓고 또 그만큼 태우더니 다시 종을 울리며 떠나갔다. 전차에서 내린 사람들중에는 건축가 김운상도 있었다. 와이샤쓰깃을 밖으로 내놓고 회색양복을 받쳐입은 단정한 차림새, 흰칠한 키, 반고수머리에 어글어글한 눈매...

그는 지금 평양제1인민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는 고향친구를 찾아가는 길이였다. 하숙집어머니가 열이 난다면서 자리를 펴고 누웠는데 왕진을 청하든가 하다못해 약이라도 지어갈 생각이였다. 병원에 들어선 그는 복도를 따라가다가 《내과》 패쪽이 붙은 출입문앞에 멎어섰다. 문안에서 녀의사의 상냥한 말소리가 새어나왔다.

《숨을 크게 쉬세요, 한번 더...》

운상은 손기척소리를 내며 문을 열었다.

그런데 만나려는 친구는 보이지 않고 선녀같이 아름다운 처녀의사가 묻는듯 한 시선으로 운상을 바라보는것이였다.

《미안합니다. 태호군을 찾아왔습니다.》

《태호선생은 왕진나갔습니다.》

《언제 돌아옵니까?》

《글쎄요. 대기실에서 기다려보세요.》

치료중이니 빨리 문을 닫고 나가라는 소리였다. 운상은 할수없이 대기실의 나무의자에 앉아 친구의사를 기다렸다. 오늘은 특별히 바쁜 일도 없고 친어머니처럼 다심한 하숙집어머니가 앓는데 빈손으로 들어갈수도 없었다. 일찌기 남편을 잃고 애지중지 키운 아들을 징병에 떼우고 종로뒤골목에서 쓸쓸하게 살아가던 하숙집어머니는 친아들에게 못다 준 정을 운상에게 쏟아붓고있었다. 그러니 자기도 아들구실을 해야 할게 아닌가.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해도 운상은 껍 참고 앉아있었다. 남들은 건국을 한다고 분주하게 뛰어다니는데 특별한 일거리도 없이 허송세월하고있는 자신의 현재가 운상으로서의 불만스럽기짝이 없었다. 작년 8월 중국 장춘대학에서 왜놈들이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해방된 제땅에서 건축가로서의 리상을 실현해보리라 가슴을 들먹이던 운상이었다. 그가 고향에도 가지 못하고 평양에서 하숙생활을 하고있는것도 건축가로서의 일감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지금은...

운상의 고향은 강남 벽지도리 섬마을이었다. 그의 부모들은 남새농사로 근근히 가세를 유지해나갔다. 아버지는 네남매나 되는 자식들중에서 둘째 운상이만은 어떻게 하나 식자있는 사람으로 키우고싶어했다.

《네가 충기가 밝은걸 보면 커서 뭐가 될 놈이다. 사내가 세상에 나서 뚜질게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땅이고 하나는 학문이다. 학문을 못 뚜지면 나처럼 평생 땅만 뚜져야 한다. 우리 집안에서 너만이라도 학문을 깊숙이 뚜져봐라. 그래서 세상에 흔치 않은 인물이 되어다오.》

아버지의 소원대로 운상은 평양에서 중학을 마치고 일본으로 건너갔다. 아버지는 학비를 걱정했지만 향학열에 불타는 아들의 길을 막을수 없었다. 운상은 대학에서 건축학을 배우기로 결심했다. 조선사람들이 지어준 법륜사도 저희들 재간이라고 우기는 심보나쁜 왜놈들이 조선의 건축술은 단층집밖에 못 짓는다고 시비하는게 뱀이 풀리기도 했지만 대대로 초가집에서 살아오는 조선사람들도 저 유럽에서처럼 큼직한 고층살림집에서 살게 하고싶었던것이다. 그는 모자라는 학비를 보충하느라 부두로동을 하면서도 수재로 이름을 날렸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할무렵에 그는 심한 자체모순에 빠졌다. 조선사람들을 위해 현대건축학을 배웠지만 제 나라가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인가 하는것이였다.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전에는 식민지지식인청년의 리상이 아무리 황홀하다 해도 그것을 실현할수는 없었다.

운상은 리상과 현실의 불일치로 평생 고통을 겪어야 할 자기의 어두운 앞날을 내다보며 한숨을 지었다. 그 고통에서 다소나마 벗어나자면 현실에서 어느 정도 가능한 방향으로 자기의 리상을 수정해야 했다. 그래서 생각해낸것이 조선농촌주택의 개량이였다.

당장 현대적인 아파트는 건설하지 못한다 해도 농촌의 초가집들을 조선에 흔한 석비레로 벽을 쌓고 기와를 얹어준다면 농민들의 생활이 한결 문명해질게 아닌가. 그러나 운상은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그 소박한 꿈조차 실현시킬수 없었다. 운상의 재능을 인정한 왜놈들은 그를 일본에 붙잡아놓고 별장의 설계를 요구하는가 하면 비행장활주로를 석비레로 포장하는데서 나서는 기술공학적문제들을 해결하라고 강요했던것이다.

해방되기 전해에 겨우 섬나라를 벗어난 그는 중국의 장춘대학에서 연구사업에 몰두하다가 해방이 되자 조국으로 달려나왔다.

조국해방! 운상에게는 비로소 자기의 리상을 실현할수 있는 현실적조건과 가능성이 마련된것이였다.

이제는 조선사람들을 위해 어떤 현대적건축물이든 마음대로 지을수 있었다.

환희로 부푼 가슴을 안고 서울로 나가던 그는 고향에 들려보기 위해 평양에 내렸다가 김일성장군님께서 평양으로 입성하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였다.

그는 두말없이 서울행을 포기하고 친구들의 주선으로 시내에 하숙을 정했다. 다음날부터는 김정희, 강처한 등 시내의 건축가들을 찾아다니며 새 조국건설에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의논하느라 밤을 새우곤 했다. 그런데 아무리 열변을 토해봐야 당장은 무엇부터 해야 할지 방향을 잡을수 없었다. 현대적인 고층건물을 짓자 해도 기중기 한대 없는 형편이였던것이다.

어느날 김운상은 속이 답답해서 평남도당을 찾아갔다가 빨찌산출신의 림춘추를 만나게 되였다.

《김일성장군님께서 평양에 입성하시면 여기부터 들리시겠지요? 저를 여기서 일하게 해주십시오. 청소부라도 좋습니다.》

《동문 누굽니까?》

《전 건축가입니다. 장군님을 만나뵈워야 우리 건축가들이 무슨 일부터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아닙니까?》

림춘추는 김운상의 손을 반갑게 잡아주었다.

《건축가선생은 여기서 청소나 하고있으면 안됩니다. 새 조국건설에서 선생이 할 일이 많습니다. 장군님께서 개선하시면 내 꼭 선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상은 그때 림춘추로부터 장군님의 고향이 평양 만경대라는것과 아직 조부모님들과 친척들이 살고계신다는것 그리고 장군님생가가 초가집이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선뜻 믿어지지 않았다. 전설적영웅이신 장군님께서 초가집에서 탄생하시다니...

운상은 그달음으로 만경대를 찾아떠났다. 모든걸 제눈으로 보기 전에는 신화적인 그 이야기를 믿을수 없었던것이다. 과연 이게 신화가 아니란 말인가? 무엇이 다른가.

운상은 만경대로 가서 그 신화를 제 눈으로 확인하였다. 우리 나라 서북부일대 특히는 대동강류역에 널리 분포되어있는 외통류형의 초가집은 땅에서 솟아오른듯 납작하고 자그마한 쌍채집이었다. 고삭은 조짚이영우에서는 큼직한 박이 익어가고있었다.

가난에 맞선 집주인들의 품성을 보여주는듯 잘 손질해놓은 사립문이며 장독대에 허리를 꼬부리고있는 쭈그렁독...

마침 김보현할아버님께서는 군데군데 떨어진 바람벽을 땀질하느라 진흙과 벼짚을 버무리고계시였다. 운상은 할아버님께 인사를 드리고 팔소매를 걷어붙였다. 메주덩이처럼 빛은 진흙으로 떨어진데를 매질했다.

《젊은이, 손적시지 마오.》

《할아버님께서 어떻게 이런 험한 일을 다 하십니까?》

《근일에 우리 장군이 20년만에 고향집으로 돌아오겠는데 바람벽 떨어진 꼴을 보일수야 없지 않겠소.》

운상은 할아버님앞에 머리를 수그렸다.

《할아버님, 집을 짓는 기술을 배운 조선사람으로서 오늘처럼 민족앞에 죄스러워본적은 없습니다. 김일성장군님의 생가가 이런 초가집이라는걸 아는 사람이 3천만백성중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젊은이, 그러지 마오. 난 이 초가집을 자랑으로 생각하오. 이런 집에서 나서자랴길래 만백성의 아픔을 아는 장군이 될수 있는거요.》

운상은 초가집의 구석구석을 다시한번 살펴보았다.

《이 집을 지은지 퍼그나 오래된것 같습니다.》

《오래됐지.》

할아버님께서는 대통에 담배를 재우며 초가집의 래력을 들려주시였다.

장군님의 일가는 전라도 전주에 본을 두고 살아오시다가 김계상선생대에 북으로 이주하여 평양에 자리잡으신 때부터 장군님대까지 12대를 살아오시였다고 한다. 평양성안의 중성리에서 생활하시던 일가가 만경대로 이주해온것은 증조할아버님때인

1862년이였다. 증조할아버님은 오막살이 한칸도 마련할 길이 없어 지주 리평택이네 묘를 보아주기로 하고 산당집을 얻어 산지기와 소작살이를 하게 되신것이였다. 1860년경에 지은 산당집은 건축초기에는 우진각지붕의 집이였다. 그런데 당시 지주의 자식들이 투전판에서 돈을 잃게 되자 지주놈은 산당집과 산직토지를 팔겠다고 당장 집을 내놓으라고 했다. 그래서 증조할아버님은 집세간과 이웃에서 빚돈까지 내였고 증조할머님은 머리태를 숙은 달비와 길쌈한 포목 그리고 닳아진 낫대접까지 장마당에 들고가시여 판 돈을 지주에게 주고 초가집으로 된 산당집을 사시였다.

운상은 할아버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울었다. 어쩌면 그렇게도 가난한 가정에서 그렇게도 위대하신분이 탄생하시였을까?

만경대와 그 일대를 돌아보면서 운상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대동강과 순화강을 양옆에 끼고있는데다 만경봉과 송산이 병풍처럼 둘러서있는 지세가 풍수쟁이들이 무릎을 칠만큼 묘했다. 그리고 송림이 우거진 주변풍치 또한 아름답기 이룰데 없었다. 만경대야말로 성인이 나올만 한 성지였다. 성지는 성지답게 꾸려야 할것이다. 운상은 조선의 건축가로서 자기가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를 깨달았다. 그는 농촌주택개량에 대한 자기의 소박한 꿈을 여기 만경대에서부터 실현해보고싶었다. 우선 장군님의 일가분들을 위해 세상에서 제일 멋진 집을 지어드리자. 그리고 이 주변에 사는 농민들에게는 저기 남리마을에 번듯한 기와집들을 규모있게 지어서 농촌마을의 리상향으로 꾸리자. 운상은 여기 만경대를 성지답게 꾸리는것을 민족이 자기에게 지워준 력사적사명감으로 받아안았다.

우리가 아무리 신의를 모르는 백성이라 해도 만민이 흠모하여마지않는 민족의 구세주를 어떻게 20년전에 떠나시였던 추녀님은 초가이영밑으로 들어서시게 한단 말인가. 안될 말이다! 해방의 은인을 그렇게 성의없이 모신다는건 안될 말이다. 하늘이 내신분이 이 초가집을 나서시여 나라를 구원해주시었고 그 일가분들이 아직도 여기서 살고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해 3천만이 지성을 모아 번듯한 기와집 한채를 지어드릴수 없단 말이나...

만경대에 다녀온 날부터 운상은 고향집설계에 달라붙었다. 친구들도 운상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나섰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하루는 림춘추가 그를 찾아왔다.

《장군님께서서는 동무가 만경대에 새집을 짓겠다고 한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고맙긴 하지만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건국의 큰 몫을 담당할 준비를 착실히 해두라고 말씀하시었소.》

그래도 운상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난 의견이 있습니다. 설사 장군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었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야 그래선 안되지요.》

《건축가선생, 선생은 우리 장군님이 어떤분이신지 다 모르고있소. 아마 온 나라인민들이 기와집을 쓰고사는 그때에 가서도 장군님께서 그 설계를 허락하지 않으실거요.》

운상은 그만 손맥이 풀렸다. 그럼 자기가 당장 할수 있는 일은 뭐란 말인가.

실업자가 되어버린 그는 하루가 지루해졌다. 요새는 건축인동맹을 맺는 사업을 주관하면서 뛰어다니긴 하지만 도판앞에 마주설 일감이 차레지지 않으니 손목이 근질거리기는 마찬가지였다.

저녁시간이 다되도록 기다렸으나 친구의사는 들어오지 않았다. 운상은 더이상 기다릴수 없어 문기척소리를 내며 치료실에 들어섰다. 퇴근시간이 되었는지 처녀의사는 위생복을 벗고 양복차림으로 가방을 챙기고있었다.

《의사선생님, 태호군이 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종로에 왕진을 좀 가줄수 없을까요? 우리 하숙집어머니가 앓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앓습니까?》

《감기같기는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약처방을 해주면 안될가요? 전 다른데 가볼데가 있어서...》

《...》

그때 갑자기 복도에서 다급한 발자국소리가 들리더니 치료실문이 벌컥 열렸다. 웬 중늬은이가 치료실에 뛰어들었다.

《선생님, 의사선생! 좀 가봐주시우, 우리 로친네가 급하우다.》

그는 오성재였다. 숨차게 달려온 그는 가쁜숨을 몰아쉬며 사정했다. 처녀의사는 친절 한 태도로 가르쳐주었다.

《저녁에는 구급과에서 왕진을 간답니다. 접수실 반대쪽으로 첫번째 방이에요.》

《갔됐지요. 방이 잠겼수다. 여기서 말소리가 들리길래...》

처녀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직일의사가 나왔겠는데...》

《의사선생, 어떻게 좀...》

오성재의 표정은 간절했다.

《환자가 어떻게 아파해요?》

《그저 아래배를 붙잡구 꼼짝을 못하는데 하루새에 반쪽이 됐수다. 이마가 불덩이같애요.》

《집이 어디예요?》

《아래토성랑이우다.》

처녀는 락심한 기색으로 의자에 앉았다. 집이 요근방이라면 몰라도 토성랑까지는 정말 자신이 없었던것이다.

《우선 이 약을 가져다먹이세요. 그리구 이름과 집주소를 대주세요. 직일의사가 나오면 꼭 보낼게요.》

오성재도 다른 방도가 없다는걸 리해했는지 고개를 맥없이 떨구었다.

《우리 집은 주소라는게 없수다. 서성리에 와서 아래토성랑을 찾으면 큰 오물장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열두번째 움막이우다. 그럴거없이 오성재네 집을 찾으시우. 그런데... 저...》

오성재는 딱한 표정을 짓고 머릿거리다가 힘들게 말을 뱉다.

《저... 왕진비가 얼마쯤 들가요?》

지금껏 왕진 한번 청해본적 없었던 오성재로서는 돈걱정을 안할수 없었던것이다.

《우리 병원에선 약값만 받는답니다.》

그래도 오성재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수중에 5원짜리 지전 한장밖에 없는데 왕진을 청했다가 만약 돈이 모자란다면 의사한테 욕되는 노릇이 아니겠는가. 오성재는 다시 물었다.

《한 5원쯤이면 될가요?》

《그거면 될거예요. 너무 걱정마세요.》

처녀는 오성재를 안심시키며 얼핏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오성재도 영 눈치가 무딘 사람은 아니었다.

《그럼 부탁하우다.》

그때까지 운상은 아무 말도 않고 한옆에 비켜서서 처녀를 지켜보았다. 그러느라니 공연히 화가 났다. 자기는 물론이고 급하게 달려온 토성량사람의 왕진요구까지 거절해버리는 처녀의사의 랭담성이 눈에 거슬렸던것이다. 의사의 직분은 제껴놓고라도 인간으로서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이라도 표현해야 할게 아닌가. 처녀의 얼굴은 고왔지만 고운 얼굴에 가리워져있는 마음씨는 고와보이지 않았다.

운상은 치료실을 나서다가 문가에서 돌아섰다. 속이 풀떡거려서 한마디 하지 않고는 급게 물러가기도 싫었다.

《의사선생은 직업을 잘못 잡은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왜정때도 아닌데 환자측의 요구를 그렇게 거절할수 있습니까? 의사라면 심장이 뜨거워야지요.》

《뭐라구요?》

처녀의 얼굴은 해쓱해졌다. 그러거나말거나 운상은 인사도 없이 치료실을 나와버리고말았다.

하지만 병원문을 나서자마자 운상은 자기를 후회했다. 초면인 처녀의사에게 주제넘은 훈시질을 하면서 무례하게 행동한것이 부끄러워졌던것이다. 따지고보면 자기에게는 그 처녀를 시비할 아무런 자격도 없지 않는가.

(그 처녀 날 싱거운 놈이라고 비웃겠지... 허참...)

운상은 쓸쓸한 심정으로 천천히 걸었다. 별로 바쁜 일도 없고 가볼데도 없는 실업자의 걸음새였다. 그리고보면 방금 처녀의사에게 무례한 행동을 한것도 자신의 생활이 불만스러운데서 산생된 감정의 여파라고 할수 있었다. 그렇다 한들 제 마음이 불편하다고 다른 사람한테까지 상처를 입힌다는건 잘못된 처사가 아니겠는가.

7

한편 치료실에 혼자 남은 처녀의사 리수영은 분해서 견딜수 없었다. 모욕당한 자존심이 독을 쓰는지 머리가 땡하고 귀속이 웅웅거렸다.

(내가 직업을 잘못 택했다고? 이제라도 의사를 그만두라고?... 어찌면...)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청년의 말을 되새겨볼수록 자기가 잘못했다는것을 인정하게 되는것이였다. 환자가 있다는데도 집이 멀다고 직일의사를 핑계대고 가지 않았으니 의사의 자격이 없다고 한 그 사람의 말이 옳은셈이다. 더 큰 잘못은 방금전까지 자기가 분해서 울었다는것이다. 뭘 잘했다고 울었는가?

(내가 진실앞에서 폭로되는걸 두려워하고 그걸 변명하려고 행악질까지 하는 그런 천박한 녀자였는가?)

생각해볼수록 그 청년을 미련쟁이라느니, 무례하다느니 하고 욕할만 한 자격이 자기에게는 없었다. 그렇긴 하지만 수영에게는 그 청년이 미웠다. 그가 운상을 미워하는것은 자기를 모욕했기때문이 아니라 그 청년이 자기의 약점을 알고있기때문이었다. 사람은 자기의 약점이 상대방에게 폭로되었을 때 그를 두려워하고 마주서는것을 꺼려하며 어쩔수없이 미워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것이다. 수영이도 마찬가지였다. 남들은 다 자기를 인물곱고 마음씨고운 처녀로 알고있는데 유독 그 사람만이 자기 내면의 깊은 곳에 감추어져있던 미완성측면을 알아보았던것이다.

텅 빈 방안에 앉아 제 생각에 잠겨있던 수영은 벌떡 일어섰다. 왕진가방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것들을 더 집어넣었다. 이제라도 토성랑에 가보지 않고는 마음이 편할것 같지 못했던것이다. 자기자신을 위해서라도 수영은 왕진을 가야 했다. 사실은 오늘 저녁에 신창리 영남이네 집에 갈 계획이었다. 지난 겨울에 일곱살나는 영남이가 급성폐염으로 입원했는데 수영이가 맡아 치료해주었다. 그때부터 그 집에서는 수영이를 은인처럼 여기고있었다. 오늘이 영남이 생일이라면서 그 애 어머니가 우정 찾아와 저녁에 꼭 들리라고 신신당부했던것이다. 작년 11월에 서울에서 들어와 외삼촌집에 얹혀사는 수영에게는 여기 평양이 생소하였고 따라서 자기의 외로움을 덜어줄수 있는 그런 생활이 몹시도 소중하였던것이다.

수영은 아쉬운 마음으로 신창리를 지나 신양리에서 경의본선철길을 따라가다가 서성교근방에서 큰길에 떨어졌다. 해는 이미 지평선을 넘어가고있었다. 지나가는

행인에게 아래토성랑이 어디인가고 물으니 수영의 왕진가방을 알아보고는 서성리변전소를 지나 얼마쯤 가다가 오른쪽소로길로 꺾어들라고 친절히 알려주었다.

토성랑주변에 이르니 퀴퀴한 냄새에 절로 얼굴이 찡그려지고 숨쉬기가 괴로워졌다. 수영은 토성랑에 한번도 와보지 못했었다. 그저 먼발치에서 지나가며 평양에도 서울의 한강변처럼 빈민촌이 있구나 하는 생각만 했을뿐이었다.

한참 더 가서야 오성재가 말하던 큼직한 오물적치장이 나타났다. 시내의 오물을 가져다버리는 이런 불결한 곳에서 사람이 산다는게 놀라왔다.

피죤을 램루를 걸친 서너명의 아이들이 쓰레기를 뒤지다가 멧쟁이아지미를 호기심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다.

《애들아, 좀 물어보자. 오성재아저씨네 집을 아니?》

막대기로 쓰레기를 뒤지던 애들중에서 한 아이가 나섰다.

《내가 알아요.》

《어느 집이냐?》

《나하구 가자요.》

그 애가 앞장서느라고 자기옆을 지날 때 수영은 물썩 풍겨오는 악취에 그만 숨이 꺾 막히는듯 했다.

《이 집이에요.》

아이는 거적을 드리운 움막을 가리켜보이고 오던 길로 돌아섰다.

수영은 주인을 찾았다.

《계십니까?》

거적문이 들춰지며 오성재가 반색을 했다.

《아니? 의사선생님이?...》

《환자를 보러 왔어요.》

《정말 고맙수다. 좌우간 들어오시우.》

수영은 움막안으로 들어갔다. 거적문을 닫는 순간 가물거리던 등잔불이 바람에 탁 꺼졌다. 움막안은 굴속처럼 캄캄해졌다.

《원, 이런...》

잠시후 성냥불에 움막안이 확 밝아지는가싶더니 다시 어두워지면서 좁쌀알같은 불씨가 등잔심지에 달라붙었다.

《여기루 오시우.》

수영은 어둠에 익숙치 않아서 오성재의 안내를 받아가며 신을 벗고 방안에 들어갔다. 방안이라야 부엌바닥보다 한뼘정도 높이고 판자를 깔 다음 그우에 가마니 짝을 펴놓은 맨땅이었다. 구들도 놓지 않은데서 어떻게 겨울을 날수 있는지 수영이로서는 이해되지 않았다. 수영은 청진기를 꺼내들고 환자를 진찰했다. 이마를 만져보니 열이 높았다.

《뭘 잡수셨어요.》

환자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대답했다.

《없어요. 목이 마르길래 랭수를 그냥 먹었더니... 아이쿠.》

오성재가 한숨을 쉬며 보태었다.

《여기 물은 끓여먹어야 하는건데 아마 그때문에...》

《여긴 수도가 없는가요?》

수영은 아차- 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토성랑에 무슨 수도가 있겠는가. 모든걸 미루어보아 급성소대장염같았다.

《병원에 입원해서 며칠 치료를 받아야겠어요.》

그런데 오성재가 도리질을 했다.

《그럴 형편이 못되우다. 사실은 오늘 래일 여기서 뜨자던 참이었수다.》

《어데로 이사를 갑니까?》

《딱히 정한데는 없고 그저 아무데로든 떠나야 할 사정이 생겨서... 난 여기서 살수 없는 놈이웨다.》

《왜요?》

《죄를 졌지요.》

오성재는 더 말하고싶지 않은지 고개를 돌렸다. 날이 갈수록 오성재는 자기가 정말 사람으로서 못할짓을 했다는것을 뼈저리게 느끼고있었다. 머리를 숙이고 농촌위원회에 찾아가니 증서는 이미 나라에 바쳤다는것이였다. 자기는 영영 땅을 잃은것이였다. 땅이 없이야 여기서 어떻게 살랴. 평생 배운 재간이 농사짓는것밖에 없으니 이제는 아무데 가서 초막이라도 지어놓고 화전을 일쿠든가 아니면 막로동판을 찾아다니는 수밖에 없었다. 사람의 운명이나 성격은 제가 나서자란 산천을 닮는다더니 어쩌면 자기 팔자는 신통히도 돼지뻔처럼 우불구불한 보통강을 닮아서 이다지도 모질게 갈지자를 그리는것이냐...

오성재의 사정을 알리 없는 수영에게는 그의 말이 리해되지 않았다. 이런데서조차 살수 없을 정도로 죄를 지었다는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이 집에서 이사를 가는건 상관할바 아니지만 그럼 환자는 어떻게 하는가?

한동안 속생각을 굴리던 처녀는 주사도 놓고 약도 주고나서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하여튼 제가 다시 오겠어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수영은 한가지 방도를 생각해냈다. 그것은 외삼촌의 방조를 받는것이였다.

그가 중성리에 사는 외삼촌네 집대문을 밀고 들어섰을 때는 밤이 펍 깊어서였다.

《에그, 왜 이제야 오니? 처녀가 밤중에 다니다 어쩔려구.》

외삼촌어머니가 걱정스레 하는 말이였다.

《왕진갔됐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네가 온 다음에 먹자구 기다리구있단다.》

친자식이 없는 외삼촌내외는 수영을 친딸처럼 여기고있었다.

《어쩌나... 나 목욕부터 해야겠는데...》

《밥부터 먹어라, 그새 목욕물을 덥힐테니.》

《아니예요. 찬물도 일없어요.》

수영은 외삼촌어머니의 의아해하는 눈길을 등뒤에 느끼며 얼른 제 방으로 들어갔다. 토성랑냄새가 옷에 스배인것 같아 의농을 열고 속옷까지 몽땅 갈아입었다.

벗어놓은 옷가지들을 한아름 안고 세면장에 들어가 으슬한 랭기를 참고 찬물을 짹짹 끼얹었다. 《진달래》 표비누로 머리를 감고 피부가 빨개지도록 온몸을 박박 밀었다.

수영은 빨래까지 다 하고서야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동여매고 세면장에서 나왔다.

향긋한 비누냄새를 풍기며 안방에 들어가니 외삼촌 정근식은 미닫이를 열어놓은 옷방에 앉아 병풍을 감상하고있었다.

《어마나? 웬 병풍이에요?》

《네 보기엔 어떻냐? 오늘 구해온거다.》

골동품에 남다른 취미를 가지고있는 외삼촌은 흡족한 표정으로 수영의 평가를 기다렸다. 높이가 다섯자쯤 돼보이는 십장생도를 수놓은 병풍은 수영이 보기에 도 품위가 있어보였다.

《외삼촌방에 잘 어울려요.》

외삼촌은 그 수병풍이 남쪽으로 흘러나가려는것을 부르는대로 값을 주고 겨우 손에 넣었다고 설명을 달았다. 그러면서 우리 나라 최초의 색실염색법과 병풍에 쓰인 비단의 질에 대하여, 해와 산과 거북기를 비롯해서 십장생에 들어가는 그림에 대하여 설명했다. 그러나 수영에게는 외삼촌의 말이 들려오지 않았다. 그의 눈앞에는 토성랑의 비참한 전경이 자주 얼른거렸다. 쓰레기를 뒤지던 소년의 몸에서 풍기던 악취가 아직도 떠도는듯싶었다.

수영은 저도모르게 방안을 둘러보며 오성재의 움막과 대비해보았다. 창문턱에 놓여있는 큼직한 어항에서는 금붕어들이 한가로이 떠다니고 벽에는 단원의 족자가 듬직하게 걸려있었다.

이 방에서 제일 눈길을 끄는것은 책상위에 올라있는 지구의였다. 크기가 축구공만 한 지구의는 온통 새까맣게 먹칠을 해놓았었다. 이방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석탄덩이같은 지구를 보며 사연을 알고싶어했지만 그 리유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서성고무공장을 경영하는 외삼촌은 원래부터 내성적인 선비형인데 42년도 물란리때 공장이 피해를 입은 후로는 사람들과의 교제도 싫어하면서 될수록 바깥세계와 담을 쌓고살았다. 세상살이에 시들해져서인지 공장을 원상복구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예전에는 하루 수백컬레의 지하족을 생산하던 공장이 지금은 겨우 수십컬레밖에 만들지 못하고있는데 그런데도 외삼촌은 전무에게 공장을 맡겨놓고 자기는 며칠에 한번씩 얼굴을 내미는 정도였다.

외삼촌의 병풍강의는 국이 식는다고 삼촌어머니가 두번씩이나 지청구를 해서야 겨우 끝났다. 수영이도 생각에서 깨어나 아래방으로 내려왔다.

외삼촌은 자개박이밥상에 따로 상을 차려주고 수영은 외삼촌어머니와 함께 룡모소반에 마주앉았다. 그런데 토성랑생각이 자꾸 나서 밥을 제대로 먹을수 없었다.

그는 외삼촌이 밥상을 물릴 때까지 손가락을 들고있다가 입안에서 맴돌던 말을 꺼냈다.

《외삼촌, 나 청이 하나 있어요.》

《뭐냐?》

《사랑채가 비였지요? 당분간 좀 쓰면 안될가요?》

수영은 외삼촌내외에게 루루이 설명했다. 토성랑에 왕진갔던 일이며 그 집의 딱한 사정이며...

《제가 맡은 환자인데 외면할수가 없어서 그래요.》

정근식의 내외는 조카딸의 착한 마음씨앞에서 다른 소리를 할수 없었다.

《마음씨는 꼭 제 에미를 닮았구나. 네 좋도록 해라. 그러나 내 한마디만 하자. 옛날부터 가난구제는 나라도 못한다고 했다. 그런 동정으로 제 마음은 위안할수 있겠지만 세상을 구제할수는 없는거다. 지금껏 살아봤으니 잘 알겠지만 세상만사를 착하고 뜨겁게만 대했댔자 손해밖에 볼게 없어.》

제 방으로 건너온 수영은 앉은뱅이책상에 앉아 외삼촌의 말을 음미해보았다. 지난날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보면 뜨거워지지 말라는 외삼촌의 말도 틀리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그 말을 따른다면 자기는 토성랑주민을 외면해야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수영은 어려서부터 착한 성정을 지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해왔었다. 녀학교시절에 읽은 안데르센의 동화들은 의식주에 대한 걱정을 모르고 곱게 자란 수영에게 불쌍한 사람들에게 대한 동정과 런던을 짝 채워주었었다.

그런데 그가 살던 남쪽에서의 생활은 동화처럼 아름답지 못했다.

어느해던가. 서울대학병원에 다닐 때 한번은 치료비를 물지 못하는 환자에게 자기의 월급을 보태준적이 있었다. 그때 원장은 차거운 시선으로 수영을 쏘아보며 쓰겁게 뇌까렸다.

《선생은 자선단체에서 일할걸 그랬소.》

《저는...》

《선생의 그 알량한 인도주의는 나를 모욕했고 또한 동료의사들을 모욕했고 적자생존을 주장한 다윈까지 모욕했던 말이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자고 의학을 배웠건만 현실은 그의 천진한 공상을 비웃으면서 돈 많으면 살만 하고 돈 없으면 지옥보다 못한것이 인간세상이라는것을 날마다 증명해주곤 하였다.

수영은 세상의 랭정한 존재방식에 순응할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불가사의한 생활의 순리라고 인정하였다. 그런데 오늘 그는 한 청년에게서 심장이 뜨겁지 못하다고 모욕을 당했다. 서울에서는 불쌍한 사람을 동정했다고 원장에게 모욕을 당했는데... 도대체 이 판이한 대조를 어떻게 리해해야 하는가? 과연 여기 북조선은 어떤 세상인가? 여기가 동화속의 하늘나라이기라도 하단 말인가?

아직은 뭐가 뭘지 알수 없었지만 어쨌든 그 토성랑주민은 돌봐주어야 할것 같았다. 그래야 그 청년앞에 인간으로서, 의사로서 떳떳해질수 있었다.

8

수영이가 제 방으로 건너간 뒤 정근식은 혼자 생각에 잠겼다. 자기가 조카딸에게 객적은 소리를 한것 같아 마음이 무죽했던것이다.

(흠, 착하고 뜨겁게 살지 말라고?... 이런 로망이라구야.)

이제 겨우 인생초엽에 들어선 마음씨고운 조카딸에게 선하고 바르게 살라는 말은 못할망정 세상은 어둡다는 따위의 설교로 생활에 대한 공포와 허무를 강조했으니까 이게 로망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십장생도에 그려진 사슴마저도 그렇게밖에 말할수 없었냐는듯 측은한 눈매로 정근식을 질책하고있었다.

(그래, 잘못했다. 나도 한때는 착하게 살고싶었지. 그런데 세상은 너처럼 순하지 못했어. 그래서 나도 이렇게 이지러졌구나.)

그는 순한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십장생도의 사슴과 눈을 맞추고 지나온 자취를 얼핏얼핏 더듬어보았다.

일찌기 서유럽의 문명을 숭상해온 정근식의 부친은 거치장스러운 갓이며 두루마기를 개화의 돌개바람에 날려버리고 평양장안에서 제일먼저 양복에 중절모를 쓰고다니던 선각자들중의 한사람이었다.

아버지는 구한국시대에 벌써 자그마한 고무공장을 차려놓고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외아들 근식을 공부시켰다. 아버지의 소원은 사각모까지 아들의 머리에 씌워주는것이였다. 중학시절에도 수재로 이름을 날리던 근식은 아버지의 소원대로 일본에 가서 대학공부까지 하게 되었고 당시 청년들속에 유행병처럼 퍼지던 맑스주의서적을 읽어보면서 세상의 모순을 발견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맑스의 학설이 옳다는것만은 인정하였다.

맑스는 자기의 학설에서 무산자가 잃을것은 철췌요, 얻을것은 전세계라고 피압박무산대중을 계급투쟁의 마당으로 부르면서 수탈자를 수탈하라고 가난한

사람들의 피를 끓게 해주었다. 지금도 정근식은 자기자신의 운명에 종지부를 찍는듯 한 《공산당선언》의 한구절을 똑똑히 기억하고있었다.

《오늘날 부르쥬아지에 대립하고있는 모든 계급중에서 오직 프로레타리아트만이 참다운 혁명적인 계급이다. 기타의 모든 계급은 대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몰락하며 멸망한다. 그런데 프로레타리아트는 대산업자체의 산물인것이다. 제 중간층, 즉 소상인, 소산업가, 수공업자 및 농민 이들은 모두 중간층으로서 자기의 존재를 멸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부르쥬아지와 투쟁하는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혁명적이 못되고 보수적이다. 아니, 그들은 반동적이기조차 하다.》

만약 맑스의 이 논리대로 세상의 구조가 변한다면 중소기업가인 아버지나 내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플라톤은 소유는 절도품이라고 했지만 근식은 아버지의 정직성을 믿었고 따라서 아버지의 고무공장은 수탈의 대상으로 될수 없었다. 선천적으로 마음이 착했던 그는 같은 민족끼리 피터지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계급투쟁의 리론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가문의 재산을 남에게 수탈당하기도 싫었다.

어느날 그는 대학안에 조직되었던 좌익독서회에서 혁명의 동력과 대상에 대한 문제로 격렬한 논쟁을 벌린적이 있었다.

독서회성원들은 계급투쟁에 관한 맑스의 학설이야말로 모든 피압박민중에게 정신적노예상태로부터의 출로를 밝힌 위대한 혁명리론이라고 격찬했다.

한참동안 말없이 듣기만 하던 정근식은 자신없는 소리로 자기 견해를 꺼내놓았다.

《그런데 말이요, 맑스나 엥겔스는 자본주의가 발전하던 시기 다시말하면 노동계급이 혁명의 동력으로 성장하고있던 시기에 활동했기때문에 잉여가치학설을 발견했고

계급투쟁의 원리를 내놓을수 있었소. 그러나 우리 나라는 봉건통치체제를 무너뜨리지 못한채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예속되었소. 이런 역사적조건에서 조선혁명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속에서 일어날 혁명이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거요.》

《그럼 조선혁명은 프로레타리아혁명이 아니라는거요?》

정근식이보다 한학년 선배가 날카롭게 물었다.

《나도 잘 모르겠소. 어쨌든 우리 아버지도 왜놈을 미워하는 마음은 남못지 않단 말이요. 그런데 만약 조선에서도 저 유럽에서처럼 계급혁명이 일어난다면 우리 집은 혁명의 동력이 아니라 대상으로서 타도돼야 하고 나도 자기 집안을 재산으로 때려부셔야 한다는 결론에 떨어진단 말이요.》

《야!》

선배는 정근식을 쏘아보며 낭떠러지에 몰아세웠다.

《자기 집안이나, 계급혁명이냐? 입장을 명백히 밝혀라!》

다른 학우들도 이구동성으로 투항주의라느니, 혁명성이 부족하다느니 하면서 정근식을 몰아댔다.

정근식은 가슴이 싸늘하게 식는것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나고말았다.

맑스의 리론도 칼날처럼 예리한데 그 리론을 대하는 자세까지 날카로와서야 어떻게 그 학설에 정을 품겠는가. 이제 겨우 좌익서적을 몇권 읽어보았을뿐인데 설사 진리탐구에서 오유를 범한다 해도 리해해주고 용납해야 할게 아닌가.

(하긴 계급혁명이니까...)

당시 그가 이해하고있는 혁명은 인간들이 욕심스레 움켜쥐고있는 온갖 허접쓰레기들을 휘말아올려 허공중에 흩날려버리는 돌개바람과 같은것이였다. 따라서 혁명은 무자비할수밖에 없고 그앞에서는 어떤 포근함이나 자비를 기대할수도 없었다. 맑스의 계급혁명리론에 대한 물리해로부터 결국 그는 《자본론》을 성서와 바꾸어쥐었다. 있는자와 없는자의 대립을 주장하는 맑스의 학술보다는 사람들에게 화목과 단합을 호소하는 예수의 교리가 더 인간적이라고 생각했던것이다.

아버지가 급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근식은 공부를 건너치우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아버지의 고무공장을 경영하면서 그는 일요일레베때면 장로교회의 장대재교회당에 가곤 하였다. 예수는 박애주의사상으로 인류를 교화하고 세계적인 통일을 이룩하려고 했다. 예수가 일찌기 십자가에 못박히지 않았더라면 인류는 누구를 숭배하고 누구에게 자기를 의탁하며 왕벌의 주위에 뭉친 벌떼처럼 어떤 방법으로 세계적인 통일을 이룩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해결했을수도 있지 않았을가. 선한것에 의한 세계적인 통일, 결코 재부나 권력에 의한 피라미드형의 종적인 통합이 아니라 민족과 민족, 개인과 개인호상간의 평등과 균형에 의한 횡적인 통일에 대한 요구는 계급사회의 출현과 더불어 시작된 전인류적인 념원이였다. 케자르나 나뽄레옹, 칭기스한과 같은 정복자들이 말발굽소리 높이 울리며 세상을 돌아친것도 결국은 자기나름대로 전세계를 통일할 야망에 의한것이였다.

허나 그들이 실패한것은 세계를 통일하겠다고 하면서 칼을 추켜들었기때문이였다. 칼은 물체를 자르는데 필요한 도구이다. 파괴와 분렬에 필요한 도구를 통일의 유일한 방도로 리용했다는것이 모순이였고 실패의 근본원인이였으며 그들이 위인이 아니라는

증거였다. 그 무엇이든 통일시키기 위해서는 점착제가 필요한 법이다. 그래서 인류는 칼과 칼이 부딪치고 대포소리 울리는 력사의 동란속에서도 그 점착제를 찾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렇게 찾아낸것이 하느님이였다. 하느님이야말로 전인류를 형제처럼 사랑으로 통일시킬수 있는 점착제이며 꿀벌집단의 왕벌과 같은 존재였다. 때문에 근식은 있는자건 없는자건 전인류가 하느님이 만든 점착제인 박애주의에 의해 화목과 단합을 이룩할수 있다고 믿었다. 《노아의 방주》에 양과 승냥이가 함께 타고있었다는것만 봐도 그것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을것이라고 믿고싶었던것이다.

정근식은 지구의를 하나 구해다 책상우에 놓고 빙글빙글 돌려보며 천진한 공상에 잠기기를 좋아했다.

이 지구우에 새끼양들이 승냥이곁에서 재롱을 피우며 마음놓고 뛰놀수 있는 세상을 건설할수는 없을가? 조선사람은 예로부터 선을 사랑하는 민족이니 인류전체가 참되고 영원한 평화를 누릴수 있는 생활원리와 생활방식을 궁리해내여 에덴동산과 같은 낙원을 이 땅우에 제일먼저 실현함으로써 세상의 본보기가 될수 없을가.

그 유토피아적인 리상을 그의 머리속에서 깨끗이 쓸어버린것은 1942년의 대홍수때였다. 홍수피해로 공장이 파괴되고 그 후과로 군수품조달이 미달되자 정근식은 《전시법》에 걸려 류치장신세를 지게 되였다. 친구들의 주선으로 겨우 목숨을 건진 그는 막대한 벌금을 물고서야 류치장에서 나올수 있었다. 홍수에 심하게 파괴된 자기 공장의 한가운데 주저앉아 그는 음산한 구름이 떠도는 하늘을 향해 목터지게 웨쳤다.

《아, 하느님이시여! 당신이 창조한 우주만물은 왜 이다지도 악착하나이까? 자연도 인간도 정녕 당신의 교리대로 선하게 개조할수 없나이까?》

이것이 그가 세상에 던진 마지막물음이었다.

정근식은 왜놈들에게 맞은 어혈로 집에 누워있으면서도 성경책을 펴들고 왜놈들을 용서해야 할 《진리》의 문장을 찾아보려고 애썼다. 그러나 글줄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자기를 모욕하던 놈들의 가증스러운 몰골과 고문장의 스산한 광경만이 눈앞에 얼른거렸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고 책장을 번져도 자비와 용서의 감정이 생기는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억울함을 속 시원히 복수하겠는가 하는 생각만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그렇다면 예수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도대체 이 세상의 본질은 무엇이고 나라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세상의 구조가 착하게 돼있지 못하다면 인간이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산다는것은 불가능하다는게 아닌가.

그의 뇌리에는 홀연 신앙은 거짓이라는것과 인간은 자기가 당한 모욕을 잊어버리거나 상대를 용서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떠올랐다. 그는 성경책을 아무런 미련도 없이 부엌아궁에 던져버리고말았다.

그때부터 그는 교회당에 발길을 끊었다. 최장로가 몇번이나 그를 찾아와 설복도 하고 유다가 되려는가고 위협도 해보았으나 그의 마음을 돌려세우지는 못했다. 나중엔 조만식이까지 정근식에게 이단자가 되지 말라고 막아나섰다.

《그쯤한 일로 하느님을 책망하면서 외람된 반역을 하면 더 큰 불행이 닥쳐올것ियो. 우주는 나보다 먼저 나고 하느님은 나보다 더 아신다고 생각하시요. 그러면 노여움이 가라앉을것ियो.》

정근식은 한껏 비양조로 웃고나서 조만식에게 물었다.

《장로님, 일본놈들은 예수보다 천황을 더 숭배합니다. 그런데도 우주만물을 창조했다는 하느님은 이번수해때 일구월십 자기를 믿고따르던 나에게는 불행을 주고 자기를 믿지 않는 일본놈들에게는 아무런 별도 주지 않았습시다. 이걸 분명 하느님이 나나 토성랑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왜 하느님을 사랑하겠습니까? 하느님은 왼쭉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대라고 했는데 이번에 내가 그 꼴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을 믿은 덕분에 차례지는것이 모욕을 감수하는것뿐이라면 무슨 리득을 보자고 신앙에 충실하겠습니까?》

《사람이 제 리성이란것을 과신하면 교만이 오는 법이요. 일단 하느님을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야 할것이요. 그래야 이 땅에 천국이 펼쳐질것이요.》

《그만두시오. 하느님을 믿는다고 인간이 아름다워진다면 교인이 많은 나라는 이미전에 하느님의 섭리대로 완성되었어야 할게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은 점점 더 흉흉해지고 인간은 더 악해졌습니다. 결국 종교의 력사는 하느님이 지키라는 그 모든 계를을 그대로 실천할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는걸 증명한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인간에게 예수를 닮으라고 설교하는건 욕심많은 인간에 대한 엄청난 기대이지요.》

그날 정근식은 큼직한 붓으로 지구의에 먹칠을 했다. 그것은 무정한 자연과 사회에 대한 자기식의 복수였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세상을 징벌하지 않고는 견딜수 없었다.

먹을 갈면서 그는 타고르의 시를 다시 상기했다. 과연 조선이라는 등불이 다시 켜질 날이 있을까? 그 등불이 동방을 밝게 비쳐 혼돈과 암흑속에 묻힌 이 지구상에 자기의

존재를 빛내일 날이 있을까?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이 벼루우에 떨어져 먹물과 합쳐지곤 했다. 정신적지탱점을 잃어버린 그에게는 인생에 대한 허무와 회의가 과도처럼 덮쳐들었다. 가만 생각해보니 자기가 그토록 분노했던것도 우습게 느껴졌다. 문제는 이 세상에 에텐의 동산을 건설할수 없을까 하는 공상에 집착했던 자신의 욕망에 불행의 화근이 있었다. 만약 인생의 초엽에 이 세계가 악하고 헛된것이라는것, 인간의 일체 욕구나 욕망의 추구가 다 부질없는것이라는것을 깨달았더라면 일찌감치 금욕과 체념속에서 정신을 안정시킬수 있었을게 아닌가.

인간세상에서 당하는 불행과 고통이 다 숙명적인것으로서 어차피 거기에 순응할수밖에 없다는걸 미리 알았더라면 현실을 도피하여 그 고통에서 벗어날수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어느 철학자는 《사회를 외면할수 있는 사람, 사회관계를 내던질수 있는 사람만이 고귀한 사람으로 된다.》고 말한 모양이었다.

결국 한때는 자기가 몸과 마음을 다 태워서 식어가는 이 세상을 덤혀보려던 꿈도 없지 않았던 정근식이 대문에도 마음에도 빗장을 지르고 세상과 담을 쌓고 살기 시작한것이다.

그는 파괴된 공장을 다시 복구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결국 하루에 수백켈레의 신발을 만들어내던 공장의 생산규모는 대폭 작아지고말았다. 자식이 없는 정근식은 재물에도 별로 마음쓰지 않았던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해방이 되었다. 해방바람은 그의 마음에 지른 빗장을 덜컥덜컥 흔들며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고 꾸짖는듯싶었다. 하지만 너무도 오래동안 거짓된 세상에서 살아온 정근식으로서의 생의 허무로부터 생의 환희로 급상승하여 건국의 한마당에

뛰여들기가 수월치 않았다. 더구나 항간에서는 북조선이 쏘련의 가맹공화국으로 된다는 말이 나돌고 실지로 쏘련군대가 주둔해있는 눈앞의 현실은 개인기업가인 정근식의 마음을 편안치 않게 해주었던것이다.

과연 이 땅에는 어떤 세상이 건설될것인가?

이런 복잡한 심리적굴곡으로 하여 자기가 조카딸에게 무심히 던졌던 말 한마디가 뜻밖에도 그의 가슴에 오래도록 여운을 남기는것이였다.

다음날 아침 정근식의 집에서는 사랑채를 정리하느라 부산을 피웠다. 먼지도 털어내고 불도 살렸다. 정근식이기도 망치를 들고 건들거리는 부엌문접철에 못을 박았고 마누라는 부엌세간을 몇가지 갈라내왔다. 몇해동안 비여있어서 곰팡내가 좀 나긴 했지만 토성랑움막에 비하면 궁전과 같은셈이였다.

그리하여 오성재는 뜻밖의 귀인을 만나 정근식의 사랑채로 이사하게 되였다.

9

그날은 유난히도 해빛이 따스하였다. 두대의 승용차가 서성교를 넘어 남포방향으로 달리고있었다. 앞차에는 **김일성**동지께서 타고계시였다. 그이께서는 지금 보통강개수공사장으로 가시는 길이였다. 장군님께서는 아무 말씀없이 차창밖으로 흘러가는 거리를 바라보고계시였다. 보통문을 지나서부터는 도시라는 맛이 없고

농촌마을같은 한적한 느낌을 주는 풍경이었다. 해는 벌써 중천에 솟았는데 성안의 장마당으로 들어오는 장사꾼들이 저마끔 이고지고 늦어진 걸음을 재촉하고있었다.

아직은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농촌지역 주민들은 저렇게 농토산물을 장마당에 가져다 팔아야 아이들 검정고무신이라도 살수 있었다.

(빨리 북조선소비조합련맹을 창설해서 리단위로 소비조합상점을 하나씩 차려놓으면 농민들이 저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될텐데...) 하고 장군님께서서는 생각하시였다.

길가녁으로 끌려오던 돼지가 갑자기 나타난 승용차에 놀랐는지 뒤다리를 버드럭거리며 짹 짹 소래기를 지른다.

《차를 천천히 몰라구.》

장군님께서서는 운전사에게 한마디 하시고는 다시 생각에 잠기시였다.

(지금 인민들은 생활의 곤궁에 시달리고있다. 무슨 일이나 첫걸음이 어렵다는데 이해 불만 넘기면, 그래서 부여받은 땅에서 첫해농사를 지으면 인민생활이 조금이라도 허리를 펴수 있을텐데... 모든 객관적조건을 종합해보면 한해만이라도 참았다가 개수공사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 모험을 하려고 한단 말인가? 이제라도 차를 돌려세워야 하는가?)

그러나 장군님께서서는 인침 고개를 저으시였다.

보통강개수공사문제는 조건이나 따지면서 하느냐 마느냐, 할수 있느냐 없느냐 하고 논리적으로만 대할 문제가 아니기때문이었다.

승용차는 어느덧 적굴동을 지나 봉수산기슭에서 오른쪽으로 꺾어 북쪽으로 향했다. 모란봉기슭에 피어있던 개나리들이 여기 봉수산 남쪽기슭에도 큼직큼직한 다발을 이루며 노랗게 피어있었다.

얼마쯤 더 가느라니 서재골로 불리우는 남쪽기슭에 벽돌로 지은 단층건물이 나타났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차에서 내리시여 공사장을 즉 둘러보시였다. 왜정때부터 별려놓았다는 공사장풍경은 마치 대수술을 받느라고 험상스럽게 찢고 헤쳐놓은 상처처럼 그이의 안정을 앗아갔다. 그 상처가 자기를 제때에 치료해주지 않은데 대한 분노를 안고 묵묵히 장마철을 기다리는듯싶었다. 이제 장마철이 되면 지금껏 자기를 방심해둔데 대한 울분으로 끓어번지려고 베풀고있는것 같았다.

장군님께서는 천천히 주변을 거니시며 생각에 잠기시였다. 치수공사란 준비를 잘해놓았다가 단기간내에 해제껴야 하는건데 이렇게 파헤쳐놓기만 하면 더 큰 수해를 입을게 아닌가. 물은 사정을 모른다. 그래서 불보다 더 무섭다고 한다. 인간의 생활에 크게 덕을 주기도 하고 해를 주기도 하는것이 물이다. 고대중국에 첫 통일국가를 세운 진시황은 주나라가 불을 덕으로 삼았다면 주나라를 대신한 진나라는 물을 이기는 물을 덕으로 삼는다고 했다. 인류문명의 발상지들인 닐강류역이나 황하류역, 인다스강류역만 꼽아봐도 예로부터 물을 얼마나 중시했는가를 잘 알수 있다. 우리 나라의 대동강문화도 례외가 아니다. 력사적으로 대도시의 기원과 발전의 자취를 더듬어보면 사람들의 생활과 강하천의 관계는 불가분리적이라고 할수 있었다. 고대도시 로마가 멸망한 원인중에는 도시의 인구팽창과 더불어 물이 부족했다는 설도 있다. 로마의 통치자들은

토목공사를 벌려 도시에 물길을 끌어들였지만 지배계급의 위세를 뽐내고 향락의 수단으로 리용했을뿐 일반백성들의 물고생은 아랑곳하지 않았던것이다.

우리 나라 력사에서조차 삼국시기나 고려, 리조시기 도읍을 정할 때 하천을 제일 중시했다. 신라만이 하천을 무시하고 경주산지에 수도를 정했다지만 그래도 그 세력범위는 락동강, 금강, 한강류역에 뻗어있었다.

그런데 저 보통강은 언제까지 원한의 대상으로 되여야 한단 말인가. 유구한 세월 맑은물 흘러내리던 강이 왜놈들의 산림탄벌에 흙탕물로 변하고 강바닥이 높아져 그 울분을 참을수 없다는듯 제값을 벗어나 범람하는데 하루빨리 사람들에게 해가 아니라 덕을 주는 강으로 되게 해야 할게 아닌가.

장군님께서는 한참동안 주변을 거니시다가 일행과 함께 공사사무실로 올라가시였다.

그때 장혁수는 사무실에 있었다. 승용차소리에 창밖을 내다보니 길우에 차가 몇어서고 사람들이 내리는것이 보였다. 공사장을 둘러보던분들이 사무실로 올라올 때까지 그는 창가에 멍하니 서있기만 했다. 그랬다가 정신을 차리고 황황히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 순간 혁수는 자기 눈을 믿을수 없었다. 맨앞에서 걸어오시는 젊으신분은 **김일성**장군님이시였던것이다. 작년에 모란봉공설운동장에서 개선연설을 하시는 장군님을 먼발치에서나마 직접 뵈왔고 초상화를 통해서도 낯을 익혀둔 그분이 틀림없었다. 분명 장군님이시였지만 그이께서 이렇듯 공사장에 찾아오시였다는것을 대번에 인정하는것은 혁수에게 있어서 너무도 아름답한 현실이였다.

장군님께서는 달려내려오던 자세로 망두석이 되여버린 혁수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였다.

《수고합니다. 동무가 여기 책임자입니까?》

《예? 저...》

《그러니까 장혁수동무로구만.》

그 순간에 장혁수는 정녕 이분이 김일성장군님이 틀림없다는 심장의 귀속말을 들은듯싶었다.

천리혜안을 지니셨다는 장군님이 아니시고서야 어떻게 자기 이름까지 아시겠는가. 모든게 꿈만 같았다. 꿈보다 더 황홀한 현실이었다.

《장군님!》

혁수는 뿔어나오는 걱정예 몸을 떨며 허리굽혀 인사를 올렸다.

《반갑습니다. 향토건설대동무들을 만나보고싶어서 나왔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혁수의 솔뚜껑같은 손을 잡으시고 한참이나 놓지 못하시였다. 더부룩한 머리, 해별에 탄 흙빛얼굴, 다 낡은 작업복, 발가락이 빠져져나온 로동화, 혁수는 신발이 껴진것만이라도 감추어보려고 발가락을 오무작거렸으나 장군님께서서는 벌써 다 보고계시였다.

잠시후 그이께서는 혁수의 안내를 받으시며 사무실로 향하시였다. 나들문이 서너개씩 달린 단층건물 두채가 크지 않은 마당가녁에 나란히 자리잡고 그보다 좀 우에 꼭같은 건물이 또 한채 서있었다.

서남방향으로 앉은 널직한 사무실에는 중심에 량수책상이 있고 좌우에 보통책상이 두개씩 있었다. 량수책상우에는 왜놈들이 작성했던 개수공사평면도가 유리밑에 놓여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도면을 유심히 들여다보시다가 장혁수에게 말씀하시였다.

《그래도 설계가 용케 살아남았구만. 왜놈들이 그냥 내버리지는 않았겠는데...》

장혁수는 장군님께서 자기들의 공로를 알아주시는 바람에 사기가 났다.

《예, 왜놈들이 가지고 달아나려는걸 마침 사무실뽀이가 알려주어서 우리가 목고채를 들고 막아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동무들은 왜놈들이 달아나도 이 공사를 끝까지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있었구만.》

장군님께서는 혁수를 대견하게 바라보시였다. 이것은 스쳐지날수 없는 귀중한 발견이었다. 이 공사에 대한 자신의 결심이 옳았다는것을 여기 로동자들은 행동으로 지지해준것이나 다름없었다.

그이께서는 다시 설계도를 바라보시며 혁수를 가까이 부르시였다.

《그런데 말이요, 내 보기엔 설계를 고쳐야 할것 같소. 왜놈들은 형제산에서 내리까지의 강폭을 이렇게 좁게 잡았는데 그러면 대홍수때에는 물이 미처 빠지지 못할거요. 경사각을 45도쯤 되게 폭 낮추어서 널직하게 파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큰물이 난다 해도 평양을 홍수의 피해로부터 철저히 보위할수 있습니다.》

혁수는 아무래도 잘 믿어지지 않는지 열띤 어조로 장군님께 말씀드렸다.

《분명 공사를 다시 한다는겁니까?》

《그렇소. 동무가 이 설계를 지켜내고 오늘까지 공사장에 남아있는것도 공사를 계속하자는게 아닙니까? 우리 현장에 직접 나가봅시다.》

장군님께서서는 먼저 사무실을 나서시였다. 그제서야 장혁수는 서둘러 따라나서며 기본공사현장까지는 차길이 없어서 갈수 없다고 말씀드렸다. 동행한 리주연이도 혁수의 편을 들었다.

《그럼 걸어서 가봅시다.》

《장군님, 저기 봉수산을 넘어가야 하는데… 길이 험합니다.》

《일없소. 가봅시다.》

장군님께서서는 운전사에게 차를 돌려 서평양조차장부근에 차를 대기시켜놓으라고 이르시고는 산허리를 파헤쳐놓은 곳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리병설은 딱한 표정을 짓고 안절무절하다가 할수없이 장군님의 뒤를 따랐다.

멀리 하당벌에서는 아지랑이가 가물거리는데 농민들이 제땅에 거름을 내느라 분주히 돌아가고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봉수산언덕에 서시여 기본공사현장을 쪽 둘러보시였다. 서포천과 형제산강이 합쳐지는 곳은 공사를 시작하다 그만둔 상태이고 봉수산을 가로챈 강줄기도 품을 많이 들여야 할 형편이였다.

본래의 보통강은 제산리쪽에서 뻗어내려온 형제산강과 서포천이 봉수산기슭에서 합수되어 인흥리, 기림리, 서성리 순서로 우불구불 흐르다가 내리근방에서 대동강과 합쳐지는데 장마철에는 강물이 범람하면서 서평양일대를 물바다로 만들어놓곤 했다. 때문에 보통강개수공사의 요점은 봉수산허리를 뚝 잘라 팔동교방향으로 새 물길을 내고 형제산강과 서포천의 합수목에는 제방을 쌓아 물길을 팔동교쪽으로 꺾어돌리는것이였다. 결국 본래의 보통강과 팔동교쪽으로 뿜은 새 물길로 갈라져흐르던

강물은 운하동에서 다시 합수되어 대동강으로 흘러드는데 그렇게 되면 보통강일대(오늘의 보통강구역)는 큼직한 섬으로 되는셈이었다.

장군님께서는 혁수를 자신의 가까이에 부르시었다.

《동무 생각엔 공사를 끝내자면 얼마나 걸릴것 같소?》

장혁수는 이미전부터 속구구를 해오던 문제여서 자신있게 대답했다.

《3년이면 해낼수 있습니다. 왜놈들은 5년으로 보았지만 해방된 제땅에서 하는 일인데 왜정때보다 두몫은 해낼수 있습니다.》

《3년이라?... 3년내에 홍수가 터지면 어떻게 하겠소?》

《예?》

혁수는 대답이 궁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단순하고도 어려운 질문이었던것이다. 공사가 끝나기 전에 홍수가 닥치는거야 어찌겠는가, 지금껏 그렇게 겪어왔는데...

장군님께서는 혁수의 생각을 바로잡아주시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었다.

《물론 해방전에는 자연이 인간을 이겨왔습니다. 인간은 그것을 어쩔수 없는것으로 받아들였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허락하지 말자는겁니다. 이제는 인간이 자연을 이길것입니다. 나는 올해장마철전으로 이 공사를 끝내자고 합니다.》

하늘땅이 바뀐다 해도 혁수는 그렇게까지 놀라지 않았을것이다. 리주연이도 놀랐다. 놀란 정도가 아니였다. 올해장마철전이라면 이제 극상 석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무리 기적이 일어난다 해도 그때까지는 불가능했다.

《책임자동무 생각엔 안될것 같소?》

장혁수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아 우려하던바를 조심스레 비쳤다.

《저… 왜놈들이 10년동안에 공사량의 절반도 못했는데… 더구나 석달동안에 이걸 끝낸다는게.》

《그러니 믿지 못하겠다- 혁수동무, 축지법에 대한 소문을 들은적 있소?》

장군님께서서는 웃음을 담으시고 룡조로 물으시었다. 장혁수는 얼굴이 환해지며 목청을 돋구었다.

《예, 아마 그걸 모르는 조선사람은 없을겁니다. 그러니까 장군님께서 이번에두 축지법을 써서…》

장혁수는 뭔가 깨도가 되는지 얼굴이 밝아졌다.

《하하… 내 오늘 공사장을 구경한 값으로 혁수동무한테 축지법의 묘술을 한가지 대주어야겠구만. 그래야 혁수동무가 신심을 가질것 같애.》

《장군님! 정말입니까?》

장군님께서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제방공사를 하느라고 날라다놓은 돌무지에 허물없이 걸터앉으시었다. 그러시고 혁수에게도 자리를 권하시였으나 그는 감히 앉지는 못하고 축지법을 배워주신다는 바람에 온몸이 귀가 되어 그이의 말씀을 기다렸다.

《혁수동무 보통벌에 땅을 분여받은 농민의 입장에서 이 공사의 절박성을 생각해본적이 있습니까?》

《전…》

《우리는 이 땅에서 인민을 주인으로 내세우고 인민이 바라는것을 철저히 실현시켜주는 새세상을 세우자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벌농민들은 땅을 분여받고도 올해장마를 걱정하고있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토지소유권증서가 들어있는 주머니를 끌어만지시며 오성재농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었다.

장혁수는 깜짝 놀랐다.

《아니? 성재형님이?...》

《그 사람을 압니까?》

《예, 아래토성랑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나한테 와서 공사를 언제부터 하는가 묻길래 대답을 못했었는데 그 형님이 그런 망녕된짓을 하다니.》

장군님께서서는 진지한 안색으로 물으시었다.

《그 사람에 대해 아는대로 말해보시오.》

장혁수는 애초의 어려움도 잊고 장군님께 사실대로 말씀올렸다. 42년도 수해때 두 자식을 홍수에 떠내려보내고 막내이는 물독에 빠져죽고 지금은 늙은 내외만이 바람부는 언덕우에 구부러진 로송처럼 외롭게 남았다는것...

《이번에 받은 토지가 왜정때 소작부치던 땅인데 그 땅때문에 성재형님은 웃을 날이 없었습니다.》

장혁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송곳처럼 그이의 마음속 제일 여린 곳을 아프게 찔러댔다. 더 듣지 않아도 그 농민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안겨오시었다. 장군님께서서는 그를 위해주고싶으시었다. 땅타발을 한다고 남들의 비난을 받고있는 그를 옹호해주고 편역을 들어주고싶으시었다. 그가 토성랑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그 한마디면 그가 어떤 왕청같은 일을 저질렀다 해도 모든 사람들이 그를 리해해주고 너그럽게 용서할것이라고 생각되시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저으기 갈리신 음성으로 장혁수에게 말씀하시였다.

《동무도 토성랑에서 살았다는데 이젠 동무이야기를 좀 들어봅시다.》

장혁수는 갑자기 당황해졌다. 가슴이 활랑거려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지금껏 그는 누구에게도 자기의 불우한 인생에 대해 이야기해본적이 없었다. 그 누구도 그의 과거사를 들어주겠다고 한적이 없었던것이다. 그런데 **김일성**장군님께서 막돌무지에 허물없이 걸터앉으시며 자기의 피눈물나는 인생사를 진지하게 들어주시겠다는니...

장군님께서서는 얼굴이 별개서 머뭇거리는 장혁수에게 어서 마음놓고 말해보라고 다시금 재촉하시였다. 장혁수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시고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실 생각을 안하시였다.

장혁수는 그만에야 다 털어놓았다. 친부모보다 더 인자하신 장군님께 든든히 지질러놓았던 마음의 돌뚜껑을 활짝 열어제꼈다. 거기에는 서른다섯해동안 쌓여온 재가 가득차있었다. 일찌기 부모를 여의고 떠돌아다니던 일, 나이 서른이 다 되어서야 가정을 이루던 일, 안해와 아들을 수해로 잃던 일...

다 털어놓고나니 마음이 한결 개운해지는것 같았다. 그러나 자기 가슴에서 날린 재가 장군님의 가슴속에 그대로 내려앉는다는것을 혁수는 미처 몰랐다. 리병설이며 리주연이 곁에서 자꾸 눈짓했지만 제 흥분에 사로잡힌 혁수는 그것을 볼수 없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자리에서 무겁게 일어나시며 혼자소리로 말씀하시였다.

《그랬구만. 그래서 동무가 여기를 떠나지 못하고있었구만.》

그다음에는 또 침묵하시였다. 장혁수나 오성재 같은 사람들에게 과연 열백마디 위로의 말이 필요하겠는가. 그저 공사를 하루빨리 완공해서 짓눌리고 비틀리웠던 그들의 인생을 곧게 펴주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지 않겠는가.

그이께서는 제 모양을 바로잡아주기를 애타게 기다리는듯 한 공사장전경을 바라보시다가 장혁수를 향해 돌아서시였다.

《물론 이 공사를 두석달안에 끝낸다는게 쉽지는 않을거요. 혁수동무도 잘 믿어지지 않겠지. 그러나 믿으시오. 우린 해낼수 있소! 만약 오성재농민을 만나거든 부여받은 땅에 마음놓고 씨앗을 묻으라고 하시오. 장마철전으로 공사를 완공해서 다시는 땅때문에 울게 하지 않겠다는것을 약속합니다. 일본놈들이 이 공사를 질질 끈것은 그들이 조선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고 우리 조선의 재부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민정권은 인민의 존엄과 리익을 모든것의 첫자리에 놓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보통강반에서 민주건설의 첫삽을 박자는것입니다. 이제 애국심이 불타는 평양시민들이 건국의 기발아래 떨쳐나선다면 얼마든지 장마철전으로 공사를 끝낼수 있습니다. 혁수동무, 이게 바로 축지법의 묘술이요.》

장혁수는 넋을 잃은 표정으로 그이를 우러르기만 했다. 아직은 그 말씀의 심오한 뜻을 다는 리해할수 없었지만 세상을 놀래울 기적이 펼쳐지게 되리라는것은 분명히 깨달았다.

장군님께서서는 공사를 최단기간내에 끝내자면 준비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사준비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그리고 현재 공사장에서 일하고있는 노동자들의 생활형편도 세부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장군님께서 떠나가신 뒤 혁수는 날개라도 달린듯 강변을 내달렸다. 당상동을 지나 내리까지 단숨에 달려갔다. 이 기쁜 소식을 제일먼저 알고싶은 곳이 있었던것이다. 그는 안해와 자식이 묻혀있는 강변에 퍼더버리고앉아 마음속으로 웨쳤다.

(여보! 기뻐하오. **김일성**장군님께서 보통강개수공사를 장마철전에 끝내주시겠다고요. 이름없던 이 공사장을 건국의 맨 첫자리에 내세워주시었던 말이요. 장군님께서는 축지법을 쓰시겠다고 했소. 이젠 당신도 맘편히 잠들거요....)

장혁수는 한낮이 펍 기울어서야 자기가 살던 토성랑마을로 향했다. 오성재를 찾아가는것이였다.

×

그날 밤도 장군님께서서는 자정이 넘어서야 저택으로 돌아오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얼른 식탁을 차리시였다. 그러나 장군님께서서는 밥상을 마주하시고도 수저를 드실념을 안하시였다. 그이의 안색은 여느때없이 무거우시였다.

《장군님, 국이 다 식습니다.》

곁에 앉아계시던 김정숙동지께서 조심스레 말씀드려서야 수저를 드시였으나 밥술을 뜨지 못하시였다.

《정숙동무, 술 한잔 주겠소?》

수저를 도로 놓으시며 하시는 말씀이였다. 그이의 음성은 몹시도 갈려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조용히 부엌으로 나가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오늘까지 장군님을

모셔오면서 그이께서 괴로와하시는것을 여러번 보시였다. 마안산의 아동단원들이 추운 겨울에 홑옷을 입고 떠는것을 보시였을 때에도 그랬고 귀중한 혁명가들이 《민생단》 루명을 쓰고 억울하게 불행을 당했을 때에도 그랬다. 항일의 혈전장에서 동지들을 잃고는 식사도 못하시고 잠도 못 이루시던 장군님이시였다. 자신의 괴로움은 내색하지 않으시면서도 남들의 불행앞에서는 자신을 건잡지 못하시는것이 우리 장군님이시다.

조국에 개선하신 후로는 오늘처럼 괴로와하시는것을 보시지 못했는데 과연 누가 또 정에 무른 우리 장군님의 마음을 아프게 허비여놓았을가.

김정숙동지께서는 따끈하게 데운 술주전자와 낫잔을 쟁반에 받쳐들고 들어오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찰랑거리는 술잔을 단숨에 비우시였다.

무슨 일때문에 그리도 심려가 크신가고 묻는듯 한 김정숙동지의 시선을 느끼시며 장군님께서는 오전에 보통강개수공사장에 나가시였던 이야기를 해주시였다. 오성재농민에 대해서, 장혁수에 대해서...

《어째서 조선인민은 사람답게 살수도 없었고 죽어서도 제대로 묻힐수조차 없었던 말이요? 어째서 조선인민은 그렇게도 비참하게 살아야만 했는가?》

장군님의 음성은 비분에 잠겨있었다.

《이제는 조선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을것이요! 다시는 조선민족의 존엄이 모독당하지 않을것이요! 나라형편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보통강개수공사부터 해야겠소!》

김정숙동지께서는 장군님께서 얼마나 어려운 용단을 내리시였는가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정당한것인가를 심장으로 느끼시였다.

《장군님께서 그렇게 결심하시었으니 토성랑인민들의 재난도 끝장나게 됐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저도 나가겠습니다.》

《고맙소, 정숙동무!》

《이젠 어서 식사를 하십시오.》

그래도 장군님께서 수저를 들지 못하시자 김정숙동지께서는 부엌에서 자신의 밥그릇을 가지고오시였다. 언제나 장군님께서 밥상을 물리신 다음에야 식사를 하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이 저녁만은 겸상을 해서라도 장군님께서 끼니를 번지지 않도록 하고싶으시였던것이다.

장군님께서는 그 정성을 외면하실수 없어 숟가락을 드시였다. 밥을 한술 뜨시였으나 목이 메여 넘기실수가 없었다. 조밥이여서가 아니라 정말로 모래알을 씹으시는것 같았었다. 그날 저녁 두분께서는 종시 저녁식사를 들지 못하시였다.

10

김일성동지의 집무실에는 여러 사람들이 둘러앉아있었다. 집무탁과 대칭되게 놓은 긴 책상의 오른쪽에는 김책과 안길이가 앉고 맞은편에는 름시인민위원회 선전부장을 하다가 로동부장으로 옮겨앉은 오기섭이와 평남도당의 장시우가 앉았다. 그리고 벽을 따라 놓인 의자들에는 농림국장, 재정국장, 교통국장 외에도 평안남도인민위원회 리주연부위원장과 평양시인민위원장이 앉아있었다.

장군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자신의 품속에 간수하시었던 토지소유권증서를 보여주시었다. 그것을 돌려가면서 보는 동안 그 증서에 깃든 사연과 보통강개수공사장에서 일하고있는 장혁수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시었다.

그들이 토성랑주민들이라는것을 특별히 강조하시면서 장마철전으로 공사를 끝낼데 대한 자신의 결심을 터놓으시었다.

모두들 뜻밖에 소집된 이 회의에서 자기들의 견해를 선뜻 내놓기 주저했다. 누구도 보통강개수공사에 대해 생각해보지 못했기때문이였다. 그도 그럴것이 8. 15해방바람에 잊어버렸던 보통강이였다. 이미 장마가 지나간 계절이여서 보통강의 물란리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것이다. 그다음에는 가을이 와서 겨울나이를 걱정하느라 장마를 잊었고 겨울에는 겨울대로 할 일이 많아서 한가스레 여름장마를 걱정할새가 없었다. 지금은 봄이여서 겨울의 묵은 때를 씻어버리느라 바쁘고 분여받은 땅에서 첫해농사차비를 하느라 바쁘고 파괴된 산업을 복구하느라 바빴다. 한마디로 누구 하나 다가올 장마와 보통강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다. 설사 생각해보았다 한들 당장 공사를 시작할 엄두는 내보지 못했을것이다. 그런 대담한 구상은 아무나 할수 있는것이 아니였다.

그런 형편에서 장군님께서 보통강개수공사를 시작해야겠다고, 그것도 장마철전으로 끝내야겠다고 말씀하시니 모두 당황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김책은 옴니암니 따질게 없다는듯 좌중에 대고 한마디 했다.

《장군님말씀대로 평양시민들이 다 달라붙으면 얼마든지 해낼수 있습니다.》

그래도 서로 눈치만 보는게 속상했던지 안길은 가만있지 못하고 일어섰다.

《이거야 하늘에 가서 별을 따오는것도 아니고 질통으로 흙이나 나르는건데 뭐가 무서워서 그러우?》

안길의 말도 방안의 침묵을 완전히 깨뜨릴수 없었다. 오기섭은 부시럭거리며 대통을 꺼내들다가 마주앉은 김책의 엄한 눈총을 받고 할수 없다는듯 다시 주머니에 쓸어넣었다.

장군님께서서는 회의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였다. 자신께서 오성재와 장혁수의 가슴아픈 인생사를 이야기하시면 일군들에게 공사의 절박성을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것이라고 생각하시였었다. 그것이 너무 주관적이라고 생각하시면서도 그 주관을 주장하고싶으시였다. 일군들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매 사람의 견해를 들어보고싶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앞상에 앉아있는 김책과 안길은 제외하고 오기섭의 이름부터 찍으시였다.

《로동부장동무부터 자기 견해를 말해보시오.》

오기섭은 자기에게 첫 발언권이 차례진것을 만족스럽게 여기는듯 의자등받이에서 몸을 떼여 자신있게 일어섰다.

《에- 나는 저 토지소유권증서를 보면서 우리 조선농민들의 정치적암둔성을 개탄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내가 함남지방에서 농조운동을 지도할 때에도 이런 미개한 현상이 더러 있었습니다. 농민들이란 원래 소소유자적근성이 뿌리깊은 계급이여서 공짜로 땅을 받고도 같은 값이면 분홍치마라는 격으로 욕심을...》

《오기섭동무!》

김책의 날카로운 소리가 오기섭의 장광설을 잘라버리었다.

《농민을 그렇게 천시하면서 어떻게 농조운동을 했다는거요? 여러 말 말고 공사에 대한 견해나 말하오.》

김책에게는 장군님앞에서 감히 제 자랑이나 하려들고 농민의 미개성을 운운하는 오기섭의 말투가 귀에 거슬렸던것이다. 오기섭은 다른 사람같으면 해보자고 덤벼들겠는데 상대가 김책인지라 어쩔수없이 마른기침을 한번 하고나서 말머리를 돌렸다.

《에- 나는 보통강토목공사 그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불가능하다는 견해입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짚막하게 물으시였다.

《리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것이 시기상조라는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혁명은 그 조건이 얼마나 성숙되었는가, 그 시기를 어떻게 정하는가 하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혁명의 씨뿌아찌아를 정확히 규정해야 한다는것입니다. 레닌이 발췌함대 장병들을 볼셰비크들의 편으로 끌어당기지 못하고 10월혁명을 일으켰다면 <아브로라>의 포성도 울리지 못했을것이고 애당초 10월혁명은 일어나지 못했을것입니다. 둘째로는 건국의 순서를 어떻게 정하는가 하는것입니다.》

《여보! 당신은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만 자꾸 하는거요?》

책상위에 묵직하게 올려놓은 김책의 주먹이 후들거리는것을 오기섭이 못 볼수 없었다. 거기서 눈길을 돌리다가 안길의 눈과 마주쳤는데 그 눈에서는 불이

나오고있었다. 자기의 실언을 깨달은 오기섭은 아까처럼 등받이에 기대앉으며 투덜거렸다.

《아, 나야 로선상 자그마한 착오도 없게 하자고 한마디 한건데 그렇게 옥박지르면 민주주의가 기를 펴겠소? 내가 말하자는건 우리에게 당장 급하고 중요한건 토목건설이 아니라 정권건설이라는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야 잠정적인 정권기관으로서 임시인민위원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가가 있어야 계획적인 경제건설이 가능하다는것은 소련의 국가건설경험에 비추어봐도 초보의 초보입니다. 때문에 하루빨리 공화국을 창건하고 산업을 증진시켜 국력이 축적된 다음에 토목공사를 하는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오기섭은 자리에 앉아서도 제 할소리는 다하고야 입을 다물었다.

김책은 장군님앞이라 무례하게 처신할수가 없어 간신히 분노를 누르고있었다. 본래부터 오기섭을 소인취급해오던 김책으로서는 무엄하게도 장군님께서 결심하신 문제를 흥정하려 하고 훈시하려드는것을 그냥 넘길수 없었던것이다.

장군님께서는 그다음에 장시우를 지명하시였다.

장시우는 오기섭이처럼 쫄랑거리지 말아야겠다고 마음먹었는지 일어서는 자세부터 점잖고 틀스러웠다.

《나는 이자 토성랑주민들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보통강개수공사를 하긴 해야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때문에 당장 토목공사를 벌려놓는다는건 아무래도 잘 리해되지 않습니다. 제가 무엄한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일성동지께서 개별적인 인간들의 불행앞에서 너무

인정에 사로잡히지 않았는가 우려됩니다. 건국의 방향타를 잡고있는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보채는 아이에게 먼저 젖을 물리는 식으로 일할수 없지 않습니까. 토성랑사람들이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는데 해방된 오늘에야 몇해 더 못 참겠습니까? 나는 그들도 나라형편을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그걸 이해 못할 우리 인민들이 아니지요.

》

장군님께서는 그냥 듣고만계시였다.

박헌영이 파견한 장안파공산당의 핵심인물인 장시우는 파쟁의 묘리는 알고있지만 우리 혁명의 목적과 본질은 모르고있다. 그이께서는 소위 혁명을 한다는 사람들이 혁명을 실무적으로 대하면서 왕왕 인민을 잊곤 하는게 안타까우시였다. 혁명을 한다고 하면서 인간을 외면하는건 어불성설이다. 장군님께서는 장시우에게 앉으라고 손짓하시고 이번에는 창문곁에 앉은 리주연에게 기대의 눈길을 돌리시였다.

《리주연부위원장동무의 립장은 어떻습니까?》

장군님께서는 리주연의 얼굴에 비껴있는 먹장구름을 보시며 신통한 대답을 들을수 없다는것을 예감하시면서도 어쨌든 그의 견해를 명백히 알고싶으시였다.

리주연의 머리속에서는 일진광풍이 몰아치고있었다. 해방직후부터 장군님의 가까이에서 일해오면서 그는 단 한번도 장군님의 뜻을 거역해본적이 없었다. 장군님의 말씀은 하나에서 열까지 다 옳았기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번만은 암만해도 잘 납득이 가지 않았다. 평안남도의 산업을 책임지고있는 리주연에게는 이 시각에도 나라에서 도와주기를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있는 공장들과 탄광, 광산들이 머리속에서 순서다툼을 하고있었다. 그런 판에 공사비용을 어떻게

해결한단 말인가? 돈이 없이야 토목공사를 할수 없지 않는가?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덮어놓고 공사를 할수 있다고 타산없는 소리를 한다는건 자기기만이 아닐까?
 장군님앞에서는 어느때건 솔직해야 한다. 리주연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힘들게
 말썽올렸다.

《도인민위원회에서는 현재 공사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로임도 내주지
 못하고있습니다. 암만해도 공사비용을 마련하기 전에는...》

《그러니 돈이 없어서 힘들단 말이지요?》

《예. 왜놈들이 파괴한 공장, 기업소들중에 복구정비를 끝낸 공장들도 있지만 아직
 국가적방조를 절실히 요구하는 대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어렵다는건 더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앓으시오.》

리주연이까지 그런 입장을 취하니 장군님께서서는 마음이 더 답답해나시였다. 물론
 리주연의 견해를 부정할수는 없지만 건국을 하자면 실무적인 타산보다 인민에 대한
 사랑을 먼저 놓아야 할것이 아닌가.

찬성하는 사람보다 미타해하는 사람이 더 많은 랭혹한 현실앞에서 장군님께서서는 정말
 속이 타드시였다. 그렇다고 비판이나 하고 우격다짐으로 공사를 내밀수도 없었다.
 그들이 공사의 필요성을 스스로 깨닫도록 가르쳐주고 손잡아 이끌어주어야 했다.
 그것이 장군님의 몫이였다.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것이기에 그만큼 힘에 부치시였지만
 다른 방도는 없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목단추를 던쳐놓으시고 온화한 어조로 말씀을 시작하시였다.

《나는 오래전부터 토성랑을 우리 민족의 수난이 집대성된 곳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참으로 보통강은 평양의 슬픔이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장혁수동무는 사랑하는 안해와 갓난 자식을 보통강감탕속에 묻었습니다. 난 이제라도 보통강이 내려다보이는 봉수산기슭의 양지바른 곳에 자리를 잡아서 시신을 다시 잘 안장해주자고 생각했습니다.》

김책이나 안길이까지도 장군님의 말씀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하긴 새삼스레 놀랄것도 없었다. 언제 한번 인민의 불행을 스쳐지나신적이 없는 장군님이 아니신가.

《지난날의 력사는 우리 인민이 노예취급을 당하고 감탕속에 묻혀온 력사였습니다. 누구도 인민이란 존재가 위대하다고 생각해본적이 없었으며 따라서 백성이 먹고사는것은 백성들자신이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인민을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들이 아직도 토성랑감탕속에서 살고있는데 그래도 공사가 절박하지 않다는겁니까? 인민의 신음소리를 증폭해들을줄 모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공산주의자라고 말할수 있습니까? 방금 동무들은 건국의 순서를 말했는데 토성랑을 빼놓고 어떤 건국을 하자는겁니까. 토성랑을 그냥 두고서는 성안에 아무리 큰 집을 짓고 공장을 일떠세운다고 해도 건국의 의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공사를 통해서 인민에 대한 무관심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가 세우는 새 나라가 인민사랑의 나라라는것을 밝히자는게 그렇게도 납득이 안됩니까?》

걱정을 터치시던 장군님께서서는 숨이 가쁘시여 잠시 말씀을 끊으시였다. 속이 타는대로라면 덤덤히 앉아있는 일군들의 가슴을 쿵쿵 두드리며 토성랑의 수난사를 생각할 때마다 자존심이 상하지 않던가고 소리쳐묻고싶으시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오성재농민의 증서를 다시 품안에 간수하시며 결론조로 말씀을 마치시였다.

《이 공사의 절박성이 납득되지 않는 동무들은 토성랑에 한번 가보시오. 그다음에 다시 이야기해봅시다.》

그것으로 협의회는 끝났다. 그래도 일군들은 받아안은 충격들이 하도 커서인지 선뜻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했다. 그도 그럴것이 일군들의 관점에서 볼 때 보통강개수공사는 너무나도 관심밖에 있던 작은 문제였었다. 당시형편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것이 일군들의 잘못이라고만 볼수도 없었다. 그런데 장군님께서 너무나도 작은 문제에 너무나도 크게 마음쓰시는것을 보면서 장군님을 너무나도 모르고있었다는 생각이 새삼스레 일군들의 가슴을 두드렸던것이다. 과연 우리 장군님은 어떤분이신가? 인민이란 어떤 존재인가? 건국이란 무엇인가?

11

그날 오후 김일성동지께서는 토성랑을 찾으시였다. 김책과 리주연이 장군님을 동행하였다. 먼발치에 차를 세우신 장군님께서서는 토성뚝을 따라 천천히 마을로 걸어들어가시였다.

다들 밥벌이하러 나갔는지 마을은 괴괴한 정적에 짓눌려있었다. 강변에서는 배가 불룩하고 팔다리가 새들새들한 아이들이 무슨 장난질을 하는지 오구구 모여있었다. 그 애들과 좀 떨어진 곳에서는 두 녀인이 쭈그리고앉아 땅속을 들여다보고있었다.

녀인들은 장군님께서 다가오시는줄도 모르고 물동이를 하나씩 끼고앉아 물이 고이기를 기다리고있었다. 수도가 없는 마을이라 강기슭에 웅덩이를 파고 모래를 퍼놓았다가 물이 고이면 바가지로 퍼내곤 하는것이였다. 토성랑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천연샘물이였다.

녀인들의 시름겨운 목소리가 장군님의 귀전에 울려왔다.

《에그, 가물철이라구 물도 잘 안 고이누만.》

《그까진 가물철이야 왜라우? 난 올해장마를 겪을 생각을 하면...》

장군님께서 잠시 그 자리에 서계시다가 녀인들 가까이에 다가가시였다.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던 녀인들은 화닥닥 일어섰다. 손에 들고있던 바가지들이 동시에 물웅덩이에 떨어졌다.

《아니? 장군님께서?》

《어썸...》

장군님께서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시며 우렁우렁한 음성으로 인사를 하시였다.

《수고들 합니다.》

그제서야 녀인들은 흰 머리수건을 벗겨버리며 황황히 허리를 굽혔다.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녀인들의 인사를 받으시고나서 물웅덩이를 한참이나 들여다보시였다.

《여기서는 다들 이 물을 잡숫겠지요?》

《예.》

그이께서는 무릎을 굽히시고 웅덩이에 떨어진 바가지로 물을 조금 뜨시였다. 바가지의 물을 찬찬히 들여다보시다가 한모금 물맛을 보시였다. 누가 미처 만류할새도 없었다.

《아니?》

녀인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비명이였다.

《그 물을 그냥 마시면 아니됩니다. 큰일납니다.》

김책이며 리주연이도 얼른 장군님곁에 다가섰다.

《장군님, 어찌자구 그러십니까?》

그래도 장군님께서는 그 말을 듣지 못하신듯 또 한모금 바가지를 기울이시였다. 역한 쇠비린내와 찻찻한 감탕내가 풍기는 물이였다.

그만에야 녀인들중의 한명이 터져나오는 오열을 막으려는듯 머리수건을 권 손으로 입을 싸쥐였다. 세상에...

뒤늦게나마 김책이 장군님의 손에서 바가지를 빼앗다싶이 해서는 자기도 물맛을 보았다. 비릿한 물맛에 얼굴이 쩡그려졌지만 장군님께서 아무 내색없이 맛보신 물이고 늘쌉 그 물을 마시며 사는 토성랑녀인들앞에서 표정을 달리할수가 없었다.

장군님께서는 그중 나이들어보이는 녀인에게 물으시였다.

《이 물을 그냥 마시곤 합니까?》

장군님께서 하도 다정하게 물으시어서인지 녀인은 친정오라버니에게 평소의 고달픔을 하소하듯 탄식조로 말씀올렸다.

《그저... 물을 끓여마시느라 하지만 꼭 그렇게만 되나요? 그래서 술한 사람들이 이 물때문에 병을 만나곤 합니다.

참말 토성랑사람들한테 물귀신이 딱 붙어있나 봅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무거운 표정으로 녀인의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발걸음을 떼시었다.

《인젠 가서 아주머니네 집구경을 좀 합시다.》

녀인은 당황해졌다.

《에그, 거길 어떻게. 루추해서...》

《일없습니다.》

장군님께서 앞장서 마을로 들어가시는 바람에 녀인은 할수없이 물동이마져 팽개치고 뒤따라섰다.

장군님께서서는 녀인의 안내로 어느 한 집앞에 이르시었다. 정확히 말하면 집이 아니라 움막이었다. 토성뚝을 직각으로 따내고 들어앉은 움막은 바람벽을 모두 판자로 둘러쳐었다.

정녕 이게 사람이 사는 집이란 말인가. 어째서 우리 인민은 이런 원시시대의 움막같은 곳에서 살아야 했단 말이냐? 어째서? 누구때문에...

장군님께서 토성랑인민들의 비참상을 처음 직접 목격하신것은 어린시절 3. 1만세시위에 떨쳐나선 만경대어른들과 함께 성안에 들어오셨을 때였다.

그때 그이의 마음속에는 계딱지같은 움막에서 사는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인상이 또렷하게 사진찍혀졌었다. 그후 창덕학교시절 물란리를 겪고난 뒤 토성랑에서 터져오르는 통곡소리를 직접 들으시면서 왜놈들을 몰아내고 내 나라를 찾으면 토성랑사람들을 잘살게 해야겠다고 다짐하시였었다. 그래서 백두산시절에도 국내인민들을 생각하실 때면 토성랑이 먼저 떠오르고 기어이 인민의 새 나라를 세우리라는 신념을 더 굳게 다지군 하시였었다. 정말이지 토성랑의 모습은 수십년세월 장군님의 마음속에 민족의 한으로 돌덩이처럼 들어앉아있었다.

장군님께서 움막집의 구석구석을 돌아보시는 사이에 마을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장군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와- 몰려들었다.

그이께서는 토성랑사람들과 마주 앉으시여 해지는줄도 모르고 그들의 피눈물나는 과거사를 들어주시였다.

마을의 늙은이 하나가 모두의 마음을 대변하여 층층 고여온 설분을 다 털어놓았다.

《토성랑인생들이라는게 홍수때는 물거품 한가지였지요. 요행 살아남은 사람들은 또 홍수뒤에 들이닥치는 전염병으로 목숨을 떼우구... 해방전엔 홍수뒤끝이면 저 선내리화장터에서 연기가 그칠새 없었습니다.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왜놈들이 태워죽였지요.

우리 옆집에 정근이네가 살았는데 부모들이 병에 걸렸지요. 하루는 왜놈경찰이 그 애 부모들을 화장터에 실어갑디다. 그런데 글썽 그 악귀같은 놈들이 울면서 따라갔던 아홉살짜리 정근이까지 산채로 태워죽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뿐인가요. 인수네는 4년전 홍수때 온 가족이 통채로 물에 떠내려가지 않았수. 어휴...》

사람들은 저저마다 수십년 쌓아온 억울한 만단사연들을 장군님께 낱알이 아뢰였다. 이 나라 수난의 력사가 해질녘의 토성랑마당에서 총화되는듯싶었다.

장군님께서는 손수건으로 자주 눈굽을 찍으시며 그들의 설분을 끝까지 들어주시였다. 그러는새 주위에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다. 그래도 그중 지각있어보이는 사람이 장군님께 한말씀 올렸다.

《장군님, 이젠 다 지나간 일입니다. 해방이 되었으니 우리 백성들도 설음을 모르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이의 신색은 밝아지지 못했다.

장군님께서는 퍼그나 갈리신 음성으로 단호하게 말씀하시였다.

《웁습니다. 토성랑사람들도 다시는 예전처럼 비참하게 살지 않을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장마철전으로 보통강개수공사를 하자고 합니다.》

《그게... 그게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여러분들도 한몫 해제낄수 있습니까?》

《여부가 있습니까. 제가 살 터전을 닦는 일인데... 장군님께서 령만 내리시면 밥술 뜨는이들은 다 떨쳐나설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장군님께서는 토성랑인민들에게 나라의 주인된 역할을 다할데 대해서 손가락을 꼽아가며 강조하시였다. 모두들 장군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있을 때 아까 물을 길던 녀인이 김책의 팔소매를 조심스레 잡아당겼다.

녀인은 종이에 쓴것을 내밀며 변명조로 떠듬거렸다.

《이거... 백반이올시다. 장군님께서 그 험한 물을 그냥 드시였는데... 이거라두... 글썄 장군님께 청수 한그릇 대접하지 못하구... 우리 미련한것들이 죄가 큼니다.》

김책은 종이봉지를 받아들며 가슴이 몽클해졌다. 혈육의 정이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가.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날이 어두워서야 토성랑을 떠나시였다.

만세소리가 터져올랐다.

그러나 토성랑에서 만세소리가 높아질수록 장군님의 마음은 몇곱절 더 무거워지시였다.

다음날 북조선공산당조직위원회 청사에서는 김일성동지의 사회하에 협의회가 다시 열렸다.

안건은 역시 보통강개수공사문제였다.

장군님께서는 폭 가라앉은 어조로 말씀을 시작하시였다.

어제 토성랑을 돌아보신 사연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시며 자신의 진정을 해쳐보이시였다.

나라를 찾겠다고 나선 길우에 부모형제들을 이국땅에 묻었고 귀중한 전우들도 백두광야에 묻었다.

그렇게 값비싼 희생을 치르며 쟁취한 조국해방이 단순히 잃었던 땅이나 되찾는것이라면 그건 해방의 의의가 왜소화된것이다. 아직도 토성랑사람들은 해방의 기쁨을 실생활로 느끼지 못하고있다. 해방은 인민들에게 참된 존엄과 권리를 안겨줄 때 진정한 의의를 가지게 된다. 토성랑사람들은 《김일성장군 만세!》를 부르는데 난 정말 미안해서 그 만세소리를 들을수 없었다...

일군들은 장군님의 말씀을 들으며 머리를 수그렸다. 장군님의 마음속엔 토성랑이 자리잡고있는데 자기들에게는 없었다. 이것이 장군님과 자신들의 인민관에서 하늘땅의 차이를 가져왔다는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유독 오기섭이만은 아직 깨도가 안되는지 장군님께서 말씀을 끊으신 기회에 자리에서 일어섰다.

《저는 김일성동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인간애에 탄복하였습니다. 저는 이 공사를 반대하는것이 아니라 리론적으로 잘 납득이 되지 않기때문에 일어섰습니다. 이번에 김일성동지께서는 토지개혁을 실시하심으로써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있는 농민을 쟁취하시였습니다. 그런데 토성랑의 주민구성을 보면 품팔이군이나 수공업자들 같은 도시서민층이 기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것처럼 큰 공사를 벌려놓는다는게 저로서는 잘 리해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맑스는 자기의 저서에서 룬펜프로레타리아트는 혁명의 동력이 될수 없다고 명백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다 아시겠지만 정치가는 라침판의 바늘이고 한 민족의 길라잡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할수 있는 일이

아니기때문에 령도자를 위인이라고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레닌동지도 쏘베트를 창건하고 사회주의혁명단계에 들어선것이 아니라 전시공산주의라는 과도기단계를 설정한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김일성**동지께서 보통강개수공사로부터 민주건설을 시작하자고 하시는것은 어떤 정치로선에 부합되는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무슨 힘으로 이 공사를 해내겠는지 납득시켜주십시오. 우리에게야 아직 자연과 싸울 준비가 안돼있지 않습니까?》

《오기섭동무는 토성랑주민들이 로동계급이나 농민이 아니라고 해서 그들을 외면해도 된다는겁니까?》

장군님께서는 그가 공사의 거대한 의의를 리해하지 못하는게 안타까우시였지만 열번이고 스무번이고 말씀하지 않을수 없으시였다.

…사실 우리에게는 할 일이 너무도 많다. 인민생활안정, 산업복구,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남북통일에 의한 전조선적인 통일정부수립, 무장력건설, 교육, 보건… 어느 하나도 절박하지 않은것이 없다. 이 모든것은 인민대중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제 손으로 일떠세워야 할 력사적과제이다.

그런데 인민은 언제한번 자기 힘의 무한대함을 모르고있다. 때문에 우리는 새 조선의 출발선에서 인민이 자기 힘을 믿게 하여야 한다. 나라를 사랑하는 한마음으로 굳게 뭉쳐 일떠선다면 얼마든지 제 손으로 새 나라를 건설할수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놓고볼 때 보통강개수공사는 단순한 치산치수가 아니다. 그러나… 그러나 나는 정치가로서 이 공사를 주장하는것이 아니다.

나는 제 나라를 빼앗기고 제 민족이 수난당하는것을 보고만 있을수 없어서 혁명을 시작했다.

무장투쟁을 시작하던 그때에도 손에 권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인민의 힘을 믿었기때문에 일제의 백만대군과 싸웠고 싸워서 이길수 있었다. 그때에도 역량상차이를 따져본다면 애당초 싸울 생각을 포기하고 노예의 운명에 순종해야 한다는건데 그렇게 살수야 없지 않았는가.

보통강개수공사문제도 단순히 논리적으로만 따져보려 해서는 안된다. 이제 장마가 지면 토성랑사람들이 또 물란리를 겪겠는데 해방된 제땅에서 그런 고통을 당할거라고 생각하면 난 못 참겠다.

《그러니 이 공사에 어떤 정치적의의를 부여해야 한다면 이 공사를 통해서 인민들의 설움을 가셔주고 그들을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우는것이 나의 정치로선이라고 리해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민의 나라를 세우자고 하는 현시점에서 어떤 정치로선이든 인민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지 않습니까. 다시말하면 우리는 인민의 리익을 모든 정치로선의 기초로 보아야 한다는것입니다. 어느때나 인민의 존엄과 복리를 첫자리에 놓는것이 우리 혁명의 목적이고 정치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각계각층 인민들의 힘을 동원하여 장마철전으로 이 공사를 끝낸다면 후날 력사가들은 이 공사의 정치적의의를 옳게 평가할것입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잠시 말씀을 끊으시고 호흡을 가다듬으신 다음 이 공사를 통해서 식민지사회가 남겨놓은 온갖 낡고 부패한 사상잔재를 보통강의 탁류와 함께 쓸어버리고 새 사회의 진정한 주인들을 키워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결국 보통강개수공사는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인간을 개조하는 하나의 혁명으로 될것입니다. 동무들은 공사비용부터 걱정하는데 난 인민들의 건국열의를 믿습니다. 인민이 바라는것이라면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힘도 인민자신이 안고있습니다. 인민의 요구는 력사의 요구이기때문에 인민이 바랄 때에는 그것을 실현할 력사적조건이 성숙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오기섭동무는 어제 혁명의 씨뿌아찌아에 대해서 말했는데 토성랑에 사람이 살고있고 장마철이면 그들이 또 홍수피해를 입게 될 상황에서 무엇을 기다리자는겁니까?

인민이 바라는것을 첫자리에 놓고 그것을 실현할줄 아는 사람이 팔짱끼고 앉아서 기다리는것보다 훨씬 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저야 뭐...》

오기섭은 더 할 말을 찾을수 없었다.

《재삼 말하지만 해방된 오늘까지 홍수때문에 인민의 곡성이 터지게 할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민정권이 있는 한 단 한사람도 불행에 울게 해서는 안됩니다. 나는 동무들이 토성랑주민들을 자기 부모형제처럼 생각할 때 비로소 인민정권기관의 참된 일군이 될수 있다는것을 새겨두기 바랍니다.》

장군님의 말씀이 끝나자 김책이 벌떡 일어섰다. 그는 평소의 그답지 않게 기관총처럼 냅다 쏘아댔다.

《동무들이 죽을 때까지 명심해야 할게 한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장군님께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실 때는 벌써 그 해결방도까지 환히 내다보고계신다는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문제라도 장군님께서 결심하시면 안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장군님을 모시고 싸워오면서 심장으로 체득한 진리요. 여기 모인 동무들은 장군님의 건국로선을 앞장에서 받아들여야 할 일군들인데 어째서 이걸 모르요?》

협의회는 밤이 어두워서야 끝났다. 장군님께서서는 평안남도인민위원회와 평양시인민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공사준비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과업을 주시였다.

12

이튿날 리주연은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고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로 찾아갔다. 장군님께서서는 마당에 세워놓은 화물자동차결에서 일군들과 이야기를 나누고계시였다.

장군님께서서는 리주연의 인사를 받으시며 그를 차있는데로 가까이 부르시였다.

《주연동무! 이 차를 타고 공사장에 갔다와야겠습니다. 지금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해방떡>만 먹으면서 일하다보니 배앓이를 자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수쌀을 좀 보내주자고 합니다.》

리주연은 열결에 수수쌀마대가 가득 실린 적재함을 올려다보았다. 공사장에 만주콩을 보내준것은 자기였다. 그것도 몇번이나 채다가 여유가 생겼길래 보내주면서 공사장에 식량이 해결된것을 다행으로 여겨왔었다. 노동자들이 그 콩만 먹고 배앓이를 할수 있다는것도, 그때문에 장군님께서 심려하시리라는것도 리주연은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그리고 로동화를 몇마대 실었는데 가져다주소. 토목로동을 해서인지 공사책임자라는 사람도 발가락이 나오는 신발을 신고있더라 말어요. 그다음에 또 있소. 재정국장동무!》

장군님께서는 큼직한 가방을 들고서있던 재정국장을 찾으시였다.

《그 가방을 주연동무한테 주소. 재정국장동무랑 머리를 싸매고 짜낸 돈이요. 로동자들에게 로임도 주지 못한다는데 도인민위원회에서 책임지고 공사비용으로 쓰도록 하오. 이젠 더 없던가?》

장군님께서는 한가지라도 더 보내지 못하는게 아쉬우신듯 일군들을 둘러보며 말씀하시였다. 그 말씀에 농림국장은 진짜로 놀라와하며 반문했다.

《장군님, 이렇게 많이 보내시면서 아직도 적다는겁니까?》

《농림국장동무가 수수쌀 한차에 으쓱해졌구만. 이제 공사가 완공돼서 서평양과 대타령일대의 논밭들이 홍수피해를 면하고 진펄도 다 논으로 개간되면 동무도 수수쌀대신 흰쌀을 보내지 못한걸 후회하게 될거요.》

장군님께서는 즐거운 기분으로 말씀하시며 리주연에게 돌아서시였다.

《어서 타오. 가서 로동자들에게 내 인사를 전해주소. 그리고 공사를 단기일내에 끝내기 위해서는 준비를 잘해야 한다는걸 특별히 강조주소. 삽이나 곡괭이 같은것은 동원되는 사람들이 가지고나올수 있지만 목도 같은것은 공사장에서 보장해야 하는것만큼 봉수산에서 목도를 넉넉히 장만해놓아야 한다고 말어요.》

그러시면서 도인민위원회가 책임지고 장혁수의 안해와 아들의 시신을 잘 안장해줄데 대하여 다시 상기시키시였다.

공사장으로 차를 타고가는 리주연의 심중은 무거웠다. 사람이 자기를 부정한다는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다. 더구나 자기가 진리라고 확신했던 정치적리념이나 생활신조를 스스로 부정하게 될 때 그 인간은 어쩔수없이 자체모순에 빠지게 된다. 지금 리주연의 경우가 그 비슷하였다. 그는 여태 자기가 무산민중의 리익을 위해 싸워왔다고 자부하고있었다.

일찌기 맑스-레닌주의에 매혹되어 혁명의 길에 나섰던 그는 파도우의 일엽편주마냥 세상풍파에 시달리다가 김정숙동지로부터 장군님의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과 전민항쟁방침을 직접 전달받고서야 비로소 올바른 투쟁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그때는 정말 라침판도 없던 쪽배에서 군함으로 옮겨탄 기분이었다. 그는 장군님의 가르치심대로 평양지방에 옮겨앉아 당소조를 조직하고 전민항쟁준비를 착실히 해나갔다. 해방직후에는 평남도당부를 조직하는데도 관여하고 평남도인민정치위원회 총무부장으로 일하였다. 도당1비서였던 현준혁이 그에게 도당부에서 같이 일하자고 했으나 리주연은 도리머리를 했다. 조만식의 민주당세력에게 평남도자치기관인 인민정치위원회를 맡겨두는게 불안했던것이다. 신간회시절부터 조만식을 알고있던 리주연은 《평안남도인민정치위원회》라는 간판을 내걸 때에도 그와 의합이 맞지 않았었다. 조만식은 그냥 정치위원회로 하자고 고집했고 리주연은 인민위원회로 해야 한다고 우겼던것이다.

《조만식선생은 어째서 인민이란 말을 싫어합니까?》

《리군도 내가 민족주의자라는것을 알지 않소? 그런데 인민이란 말에서는 공산주의냄새가 진하게 난단 말이요. 그저 백성이라고 해도 되지 않소? 황차 왜놈을

몰아낸 이 땅에선 조선사람이라면 덮어놓고 대동단결을 이룩해야 할 때인데 인민이다, 아니다 하구 편을 가르게 있는가 말어요.》

《선생님의 말씀대로 덮어놓고 대동단결을 해야 한다면 친일파나 민족반역자, 악질지주나 매관자본가까지 다 품어주자는건가요? 그렇게야 안되지요. 내가 말하는 인민은 그런자들을 제외한 반제국주의적, 반파쇼적인민입니다. 계급혁명의 동력으로 될수 있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인민으로 되는거지요.》

《그렇게 차 떼구 포 떼구나면 누구와 건국을 하겠소? 건국을 하자면 자본이 있어야 할텐데 맨주먹밖에 없는 백성들만으로 뭘 한다는거요? 밭든 굽든 자본을 가진 사람들과도 화해를 할수밖에 있소? 그리구 왜놈들 시달림을 그만큼 받았으면 이제 제 사람들끼리 오손도손 살아야 할게 아니요? 왜놈들 세상에서 살아가자니 할수없이 친일을 좀 했을수도 있구 돈두 벌었을수 있지. 이제 또 계급혁명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구 저 아라사에서처럼 공민전쟁이라두 해야 한다는거요? 공산주의자들은 그렇게두 제 민족을 사랑할줄 모른단 말어요?》

리주연은 그때 조선의 《간디》로 자처하던 조만식의 반동성을 똑똑히 보았으며 그와는 끝까지 한길을 갈수 없으리라는것을 깨달았었다.

《조만식선생은 얼마나 도량이 커서 과거 일제에게 붙어먹던자들과도 어깨동무하자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난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일찌기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청산하고 진정한 인민혁명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이제 장군님께서 개선하시면 모든게

명백해지겠지만 나는 우리가 조직하려는 도내 주권기관이 명실공히 인민의 이익을 위하는 기관으로 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만식은 리주연의 곳곳한 태도에 기가 눌렸는지 정치인민위원회로 하자는 타협안을 내놓았었다. 그래서 다른 도들에서는 인민위원회가 조직되었지만 유독 평남도에서만은 《평안남도인민정치위원회》라는 간판이 걸리게 되었었다.

그런 연고로 하여 리주연은 조만식일당이 올해 1월 모스크바3상회의결정으로 골적으로 반대해나서는것을 계기로 그자들을 인민정권기관에서 축출하는데 앞장섰던것이다. 그때 리주연은 인민이란 말자체를 싫어하는 조만식의 반인민성을 규탄하여 《인민정치위원회의 정치적성격》이라는 글을 《정로》에 싣기도 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리주연에게 있어서 인민이란 존재는 정권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혁명의 위력한 동력이였으며 따라서 그들의 복리를 책임지고 돌보아주는것은 정권기관 일군의 응당한 본분이였다. 그는 자기가 그 본분에 성실해왔다고 믿고있었다. 그런데 어제 협의회이후부터는 그러한 자부심이 없어졌다. 장군님의 인민관은 절대적인것인데 자기에게는 허용오차가 컸었다.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인민이 친부모형제로 자리잡고있는데 자기에게는 그저 책임지고 돌보아주어야 할 대상에 지나지 않았다. 얼핏 보면 큰 차이가 없어보이지만 어제 협의회에서는 그것이 태양과 못별의 차이로 나타난것이다. 장군님께서 나라형편을 모르시고 그런 방대한 공사를 결심하시였겠는가. 자기는 고작 한개 도의 살림을 맡아안고 숨가빠하지만 장군님께서 온 나라를 다 안고계시지 않는가. 그런데도 감히 객관적실태를 솔직히 보고드린다고 하면서 장군님의 뜻을 흥정하려 했으니 김정숙동지한테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얼마나 섭섭해하시겠는가.

무슨 일에서나 실수없이 장군님을 받들어온 리주연이로서는 자신을 용서하기 힘들었다.

차가 공사장에 도착했을 때 노동자들의 감격은 이루 말할수 없었다.

지금껏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아서 그들은 향토건설대를 해산하고 다 떠나자고 했었는데 어제는 장군님께서 몸소 찾아오시고 오늘은 또 이런 경사가 난것이다.

《난 신발이 다 해져서 미투리라도 삼으려고 했는데 내가 신발을 걱정하는줄 장군님께서 어떻게 아시구...》

《이런걸 두구 하늘에서 떨어진 복이라구 하는거야.》

《아니, 장군님께서 보내주신건데 웬 하늘타령이요?》

《차차... 장군님이 바루 하늘이다, 이 소리지.》

노동자들은 적재함의 짐들을 부리우면서 도무지 진정을 못했다.

리주연은 노동자들을 모아놓고 공사준비를 잘할데 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자기비판을 했다.

《난 동무들보다 못한 놈이요, 훨씬 못한 놈이요. 난 장군님께 이 공사를 당장은 할수 없다고 말씀드렸됐소. 동무들, 나를 비판해주오.》

장혁수는 감격에 겨워 아까부터 눈만 슴벅거리다가 리주연의 팔을 으스러지게 틀어잡았다.

《우린 더 한심한 놈들입니다. 장군님께서 이 공사를 중시하시는줄도 모르고... 다 떠나려고 했됐수다. 엇그제 장군님께서 공사장에 찾아오신 다음에야 정신들을

차렸수다. 야! 성칠이, 덕배, 말을 해라! 여기를 뜨겠다던 놈들 말을 해봐라! 아직두 가겠어?》

장혁수의 사나운 고함소리에 로동자들은 어깨를 움츠렸다.

《우리가 제 생각만 하는 덜된 놈들이었소. 부위원장어른! **김일성**장군님께 우리가 죽어두 제방을 베고죽겠단다구 말씀드리주시우.》

《옳수다! 말씀드리주시오!》

사람들은 제 동가슴을 두드려대며 이구동성으로 호응했다. 그러다가 자기들의 진정을 담은 편지를 장군님께 올리자는 누군가의 제의에 와- 환성을 올렸다.

리주연은 공사장에서 돌아오는 길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를 찾아갔다. 장군님께서서는 리주연이 가져온 편지를 반갑게 받아보시었다.

《**김일성**장군님 전 상서

조선을 해방시켜주시고 무산민중의 새 나라를 세워주신 **김일성**장군님께 보통강개수공사 향토건설대 대원들은 감격의 마음을 주체할길 없어 장군님께 삼가 이 글월을 올리웁니다. 국사에 다망하신 장군님께서 썩은물 흐르는 보통강때문에 이렇듯 심뇌가 크신줄 우린 정말 몰랐습니다. 토성랑움막이 아무리 춥다 한들 만주의 눈보라만이야 했겠습니까? 우리한테는 움막이나마 제집이 있었지만 장군님께서서는 20성상 풍찬로숙을 하시며 강도 일제와 혈전분투하시고 오늘은 또 건국도상에 할 일도 많지만 보통강을 제일 걱정하신다니 공사를 맡은 저희들은 하늘에 얼굴을 들수가 없습니다. 이젠 우리도 정신을 차렸습니다. 우리들은 장군님배려에 천백번 감사하면서 이 몸으로 제방을 쌓아서라도 장군님 분부하신 기한내에 공사를 기어이

완공하겠습니다. 그러니 공사는 넘려하지 마시고 장군님께서 부디 귀체만강하시옵기를
일구월심 바라옵니다.

보통강개

수공사

향토건설대

일동

1946년

4월 XX일》

장군님께서 편지를 다 읽으신 다음 리주연에게 말씀하시였다.

《로동자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니 고맙습니다. 그 편지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
인민들은 정에 주려 살아왔습니다. 우리 인민정권이 자기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것을
느끼게 되면 그들은 무한대한 힘을 발휘할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기적을 낳는다고
하지요. 주연동무! 어떻습니까? 아직도 이 공사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까?》

장군님의 말씀은 가뜩이나 격앙되였던 리주연의 가슴을 세차게 흔들어주었다.

《장군님, 용서하십시오. 저는 장군님 가까이에서 일해오면서도 인민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자신을 지내 혹독하게 대하는게 아닙니까?》

리주연은 정중한 자세로 장군님을 우러르며 자신의 심중을 꺼내었다.

《아닙니다. 저는 장군님께서 보통강개수공사를 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현시점에서 건국의 순서로 보나 경제적득실관계로 보면

불합리하지만 그래도 공사를 강행하여 인민정권의 성격을 내외에 시위하려는것으로만 생각했었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수긍되면서도 오늘의 객관적형편이 너무 어렵다는데만 포로되어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대답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쥐꼬리만 한 소총명으로 장군님의 응지를 재단하려 들었으니... 용서하십시오.》

장군님께서서는 리주연의 말을 제지시키시였다.

《주연동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만 합니다.》

그러시면서 리주연을 의자에 앉히시고 담담한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나는 참된 정치는 어머니와 같은 사랑의 마음에서만 나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민의 리익을 안중에 두지 않는 통치배들은 정치를 세상을 다스리는 권력으로 보았기때문에 애당초 인민에 대한 사랑과 인연이 없었습니다. 결국 정치와 폭력은 동의어로 되고말았지요. 하지만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인민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리주연은 흥분을 견잡을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섰다.

《장군님의 뜻대로 공사를 장마철전에 꼭 끝내겠습니다.》

《조직사업을 잘해보시오. 물론 공산당에서 공사를 맡아할수도 있지만 나는 인민위원회에서 책임지고 하는게 더 좋을것 같습니다. 우리는 공사과정을 통해서 각계층 군중들을 인민정권의 두리에 묶어세워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결성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보통강개수공사를 평안남도인민위원회가 책임지고 할데 대해서와 공사지휘부를 튼튼히 꾸리고 공사계획을 면밀히 세울데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공사의 단계별계획, 설계선행, 자재소요량...

장군님께서 설계수정에 대해 말씀하시자 그는 장혁수에게서 제기된 내용을 보고드렸다.

《장혁수동무의 말이 설계가 걸렸답니다. 장군님께서 왜놈들의 설계를 뜯어고치라고 하셨는데 그걸 할만 한 사람이 없답니다. 제 보기에는 도인민위원회 토목과에도 그런 설계를 맡을만 한 사람이 있을것 같지 않습니다.》

장군님께서는 그럴수 있겠다는듯 고개를 끄덕이시며 잠시 생각을 더듬으시다가 양복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드시었다. 거기에는 조국에 개선하신 후 찾아내신 여러명의 지식인들의 이름이 적혀있었다.

《내가 한사람 소개하지요. 중성동에 있는 구강병원에 가면 1층에 건축가들이 모이군 한단데 거기에는 김운상이라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그 동무에게 맡기면 해낼겁니다.》

장군님께서는 만경대에 새집을 짓겠다고 했다는 김운상을 만나보시지는 못했지만 그에 대한 료해를 구체적으로 해두시었던것이다. 리주연은 어려운 문제가 즉석에서 풀리자 사기가 났다.

《래일중으로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리주연은 보고를 드려야 할지 몰라 잠시 머뭇거리다가 장혁수한테서 들은 이야기를 말씀올렸다.

《장군님께서 공사장을 다녀가신 뒤 장혁수동무는 오성재농민을 찾아갔됐답니다. 장군님께서 오성재농민에게 걱정하지 말고 분여받은 땅에 씨앗을 묻으라고 하신 말씀을 전해주자고 갔는데 그 농민이 며칠전에 토성량을 떠났더랍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저으기 긴장되시였다.

《어데로 갔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집 안주인이 며칠전부터 앓고있었다는데 하루는 웬 처녀가 손수레를 끌고와서 세간살이까지 다 걷어신고 갔답니다.》

《친척이 아니였답니까?》

《예, 시내엔 친척이 없답니다.》

장군님의 안색은 어두워지시였다. 그가 어디로 갔단 말인가? 혹시 그때 농촌위원회에서 평양에서 살 자격이 없는 놈이라고 욕을 했다더니 그래서 떠나지 않았을가? 고지식하고 순박한 사람이니 어디 외진 곳에 가서 숨어살자고 영영 떠난게 아닐가?

하긴 공사소식을 들으면 천리밖에서도 다시 찾아오겠지... 농사군이 땅을 떠나서 가면 어디로 가겠는가.

장군님께서서는 다소 마음을 놓으시며 리주연에게 돌아서시였다.

《그리구 2~3일후에 안주쪽으로 가볼 계획인데 주연동무도 함께 갑시다. 안주, 숙천벌 농민들이 예로부터 물고생을 많이 했는데 평남일대의 관개공사를 빨리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럼 안주관개공사장에 가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리주연은 놀랐다. 선뜻 믿어지지 않았던것이다. 보통강개수공사만 해도 아릅찬데 새로운 공사를 또 시작한단 말인가.

원래 안주, 숙천벌은 비옥한 곡창지대이지만 하늘을 바라고 농사짓는 천수답, 수리불안전답이었다. 해방전에 왜놈들은 농민들로부터 물세를 비싸게 받아 폭리를 보려고 관개공사를 계획하였지만 시작도 못해본채 쫓겨가고말았다. 리주연이 대충 알기에도 이 공사는 여러개의 저수지와 수십개의 양수장을 건설하고 수백리물길을 형성하는 대관개공사였다. 그 방대한 공사를 또 계획하시다니 과연 장군님의 그 담력과 배짱은 어디서부터 생겨나는것인가. 리주연은 놀란 가슴을 진정하지 못하고있지만 장군님의 안색은 여전히 평온하시였다.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수 없습니다. 우리 인민은 이 모든 역사적과제를 자기 힘으로 해낼것입니다.》

장군님의 음성은 확신에 넘쳐있었다.

리주연은 놀랐던 가슴이 진정되고 용기가 백배해지는듯 한 신비경에 휩싸였다.

언제나 인민을 먼저 생각하시는 인민의 령도자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런 담력과 배짱이 생길수 있겠는가.

인민의 소원을 모든 사색의 출발점으로 정하시고 종착점 없는 헌신의 장정을 걸으시는 장군님!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인민이 잘사는 세상을 세울것인가 하는것이 우리 장군님의 꿈이고 소원일진대 아! 이 나라 동포들아!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자애로운분을 민족의 령도자로 모시였느냐!

13

중성리 구강병원은 2층으로 된 석조건물이었다. 그 건물의 2층은 병원으로 쓰지만 아래층에는 각종 건재류들을 판매하는 도매소가 자리잡고있었다. 그 도매상이 한때는 측량기를 메고다니던 사람이여서 한켠 구석방을 내주었는데 시내의 건축가들은 그곳을 모임장소로 리용하곤 했다. 행뎡그런 방안에는 편수책상 하나와 나무의자 몇개 그리고 낡은 도판 하나가 먼지를 들쓰고 외롭게 서있었다.

김운상은 해방산쪽으로 면한 그 방의 창문가에 서서 멀어져가는 태호의 뒤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있었다.

(일이 참 별나게 됐는걸...)

운상은 지금 수영이라는 처녀의사때문에 딱한 처지에 몰리우게 된것이였다. 그의 머리속에는 며칠전에 태호가 하숙집으로 찾아왔던 일이 문득 떠올랐다.

《어머니가 앓는다면서? 어제 자네가 왔댔다구 수영선생이 말해주더군.》

태호가 왕진가방을 메고 들어서면서 하는 말이였다.

《해열제를 썼더니 열은 좀 내렸어.》

태호는 하숙집 어머니의 체온도 재보고 맥도 봐주고나서 필요한 약들을 꺼내놓았다.

운상은 그가 치료를 끝낸 다음 지나가는 말로 슬쩍 물었다.

《그 처녀가 다른 말은 안하던가?》

《아니, 왜?》

《내 그 처녀한테 싫은 소리를 좀 했됐네. 의사라는게 너무 랭랭하더라 말이야.》

《우리 수영선생이 랭랭하다? 그건 말두 안돼.》

《가재두 게편이라더니 그 처녀를 두둔하는건가?》

운상은 자기가 목격한것을 대강 추려서 말해주었다. 그래도 태호는 고개를 흔들었다.

《모를 소리다? 수영선생은 어제 저녁에 토성랑에 왕진을 갔잖어.》

《자네가 어떻게 아나?》

《오늘 아침에 과장선생에게 그렇게 보고하더군. 오후에도 토성랑에 또
가봐야겠다면서 일찍 나갔네.》

운상은 한방망이 맞은 기분이었다. 그럴줄 알았으면 처녀에게 그렇게까지 아픈
소리를 하지 않는건데...

《래일이라두 찾아가서 사죄하라구.》

태호의 말에 운상은 눈을 치떴다.

《난 사죄할게 없어. 그땐 처녀가 분명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자넨 너자를 볼줄 몰라. 수영선생은 인물로 보나 마음씨로 보나 나무랄데가 없어.》

결에서 듣기만 하던 하숙집 어머니가 호기심이 동했는지 태호에게 한마디 했다.

《이보라구, 그런 처녀라면 운상이 저 사람에게 소개해주지.》

태호는 한쪽눈을 껌벅거리며 능청을 부렸다.

《어머니, 그럴 생각도 없지 않은데 이 친구가 불합격맞을가봐 걱정이예요. 우리
병원에선 그 처녀를 에베레스트(주물랑마봉)에 비유하거던요.》

《그건 무슨 말인가?》

《그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름인데 아직은 누구도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본 사람이 없대요.》

《거긴 왜 힘들게 올라가나?》

말문이 막힌 태호는 늙은이와 말할 재미가 없었던지 손을 내저으며 운상에게 돌아앉았다.

《그썸하면 수영선생의 금새를 알겠지?》

운상은 흥 하고 코웃음을 쳤다.

《비유는 요란한데 자네가 모르는게 있어. 사람들이 에베레스트정점에 오르지 못하는건 높고 험하기때문이 아니라 산소가 희박하기때문이야. 산소가 부족한 그곳에 오르다가 질식되기보다는 청신한 공기가 차넘치고 푸른 잔디가 깔린 언덕에 오르는 편이 낫지.》

태호는 껄껄 웃었다.

《자신없으면 없다구 하게, 변명하지 말구. 푸른 동산이 아무리 좋다 한들 에베레스트에 비기겠나. 솔직히 말하라구, 내 소개 할가?》

《필요없어. 내가 찾아보지 않으리.》

《서른살까지 못 찾았는데두?...》

그날은 룡담 절반 진담 절반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말았다.

그런데 방금전에 왕진가는 길에 들린 태호는 먼저 그 소리부터 꺼내는것이였다.

《자네 아직 수영선생에게 사죄 안했더구만.》

운상은 화를 벌컥 냈다.

《내가 왜 사죄한단 말인가? 사람을 우습게 만들지 말라구.》

태호는 여느때없이 정색해서 충고를 주었다.

《자네가 가지 않으면 정말로 우스운 졸장부가 될거야. 우리 의사들에겐 심장이 차갑기때문에 의사자격이 없다는 말처럼 가슴아픈 모욕이 없어. 해방덕에 우리 의사들의 직업윤리도 달라졌단 말이야. 더구나 그 처녀 서울에서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의 기업이 파산당해서 집까지 잃구 따뜻한 인정을 찾아 북에 들어온 처녀야. 그 처녀는 여기서 생활의 안정과 행복을 찾고싶어한단 말이야. 그런데 자넨 자기 직업에 애착을 느끼고 사는 그 처녀를 아프게 해주고도 아닌보살하겠다는건가? 무슨 권리로 자네가 그 처녀를 모욕해?》

《...》

운상은 그만에야 할 말이 없어졌다. 태호는 갈길이 바쁜지 선자리에서 돌아섰다. 문손잡이를 붙어잡고 그는 다시한번 오금을 박았다.

《수영선생에겐 자네가 찾아올거라구 말해줬네. 그러니 오늘 당장 가보라구. 자기 인격이야 자기가 지켜야지.》

운상은 지금 창가에 서서 태호가 남긴 말들을 음미해보며 자기의 실책을 인정할수밖에 없었다. 태호의 말대로 병원에 찾아가서 그 처녀에게 미안하다고 사죄해야 할것 같았다. 그렇지 않으면 처녀앞에서 허세나 부리는 졸장부로 낙인찍힐수 있었다.

시간가는줄 모르고 생각에 잠겨있던 그는 문두드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방안에 들어서는 사람은 뜻밖에도 리주연이었다.

《아니, 부위원장동지가?...》

달포전 3. 1운동 27주년 평안남도경축대회때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주석단에 올랐던 리주연을 본적이 있었던것이다.

《김운상선생입니까? 반갑습니다.》

리주연은 방안을 두루 살펴보며 말을 이었다.

《그동안 선생들의 생활에 관심을 돌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선생들이 변변한 건물 하나 없어 이런데서 생활한다는것도 **김일성**장군님께서 가르쳐주셔서야 알았습니다.》

운상은 와뜰 놀랐다. 갑자기 심장이 후드득 뛰면서 온몸이 긴장되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여기를 알고계신단 말입니까?》

《예, 난 **김일성**장군님께서 운상선생을 만나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선생은 이제부터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을 맡아해야겠습니다.》

리주연의 말이 너무 비약하는통에 운상은 반문하지 않을수 없었다.

《장군님께서 저에게 무슨 과업을 주셨다구요?》

《장군님께서서는 보통강개수공사를 발기하시고 그 설계를 수정할데 대한 과업을 선생에게 맡겨주시였습니다. 그러니 오늘중으로 공사장에 가서 기존설계를 인계받아야 하겠습니다.》

리주연은 명백하게 말했지만 운상은 도무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부위원장동지, 좀 차근차근 말씀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보통강개수공사를 당장 시작한단 말입니까? 전 믿어지지 않습니다.》

《나도 처음엔 선생처럼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엄하게도 장군님앞에서 반대의견을 내놓았겠지요.》

리주연은 장군님께서 나라사정이 어려운 이때 얼마나 큰 용단을 내리시였는가에 대해 자기가 느낀것만큼 이야기해주었다. 그래도 운상은 모든게 선명치 않았다.

건국이자 건설이라는것을 잘 알고있는 그는 새 조국건설의 첫삽을 어디서부터 뜨겠는가 하는데 대해 누구보다 신경을 써오고있었다. 건축가는 나라에서 국책으로 중시하는데가 어떤 분야인가를 잘 알아야 했기때문이였다. 산업건설을 우선시할것인가, 주택건설이나 공공건물에 투자가 집중될것인가. 그런데 토목공사부터 한다고 하니 건축가인 운상으로서의 건국의 방향타가 어디로 정해졌는지 가늠할수 없었던것이다.

리주연은 운상의 착잡한 심정이 리해되는듯 여유있게 말했다.

《이제 설계를 직접 맡아하느라면 장군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될겁니다. 운상선생, 시간이 없습니다. 혼자서 힘들면 토목설계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인입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끝내야 합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감이였지만 운상은 리주연에게 더이상 묻지 않았다. 너무도 명백해서 물을것이 없었다. 모를것이 있다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 즉 이 공사를 어째서 당장 해야 하는가 하는것이였다.

운상의 견해에 의하면 인간은 자연앞에 무력한 존재였다.

아무리 훌륭한 창조물도 세월의 흐름이나 자연재해앞에서는 한갓 소꿉놀이에 지나지 않았다. 인간은 자연에 순응하여 살면서 그것을 리용할수는 있었으나 자연을 개조할수

있는 존재는 못되었다. 자연은 너그러우면서도 엄격해서 인간이 본래의 자기 상태를 파괴해놓으면 무서운 보복을 들뜨우곤 했다.

때문에 개수공사와 같은 큰 토목공사를 벌리자면 자연의 힘에 대응한 인간의 힘이 준비되어야 한다. 국력을 기울여야 할 크고 중요한 공사가 지금형편에서 가능하겠는가? 혹시 장군님한테 누구도 모르는 큼직한 금고가 있는게 아닐까?

이랬든저랬든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이니 기쁜것은 말할것도 없고 무조건 집행해야 한다는것도 명백하지만 그 의문만은 털어버릴수 없었다.

밖으로 나온 운상은 봉수산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무겁기도 하고 가볍기도 한 걸음이었다. 가벼운것은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을 받아안고 가는 걸음이기때문이고 무거운것은 어째서 이 공사가 제일 첫자리에 놓였는가 하는 의문때문이었다.

장혁수에게서 설계를 인계받은 운상은 그날부터 설계수정에 달라붙었다. 왜놈들이 만들었다는 쪼물썩한 설계를 어떤 대홍수에도 견딜수 있도록 대폭 수정하자니 할 일이 많았다. 그는 토목설계에 경험이 있다는 두명의 설계가를 더 선발하여 매일 측량기를 메고 공사장을 오르내렸다. 건축학을 전공하면서 토목공학을 함께 배워둔것이 오늘을 위해서인듯싶었다.

일반적으로 자연흐름식물길설계에서는 물흐름속도를 어떻게 정하는가 하는 문제가 기본이었다. 물흐름속도가 너무 빠르면 제방흙이 패워나가고 너무 늦으면 풀씨같은게 내려앉아 강바닥에 수초가 무성해지는데 수초의 저항으로 물흐름이 더 떠지면 감탕이 퇴적되어 제방을 무너뜨릴수도 있었다.

그러니 표척의 눈금 하나 잘못 찍어도 돌이킬수 없는 결과를 낼수 있었다. 하기가 인간이 자연을 길들인다는게 용이하겠는가. 운상은 낮에는 공사장에 나가있고 밤이면 현장사무실의 동쪽끝방에 들여놓은 책상에 마주앉아 참고서들을 뒤적이며 설계를 완성해나갔다. 그러다보니 수영에 대해서는 아예 잊어버리고말았다.

어느날 밤 그는 물길의 천메터당 표고차가 엄청나게 차이나는통에 연필을 집어던지고 머리를 싸쥐었다. 문득 그는 일본에 가서 함께 공부한 구진배가 생각났다. 평양출신의 구진배는 운상이보다 후배인데 같은 대학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했었다. 운상은 건축인동맹을 무으면서 구진배의 행방을 찾아보았었다. 그런데 구진배는 해방후에 지주인 아버지를 따라 남조선에 나갔다는것이였다. 그가 있었다라면 이런 설계쯤은 쉽게 해제끼겠는데...

14

며칠후 김운상은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로동부장 오기섭의 호출을 받았다. 오기섭은 공사설계를 료해하겠다면서 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오라는것이였다. 운상은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난감해서 구두로 대답할 준비를 해가지고 갔다.

오기섭의 방은 책상이며 의자며 마루바닥이며 모든게 거무틑틑해 보였다. 로씨야적위군들이 입던 상의에 가죽혁띠로 뚱뚱한 배를 묶은 오기섭은 당꼬바지에 넣었던 손을 힘있게 내밀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반갑소! 건축가선생, 앉으시오!》

오기섭은 운상에게 자리를 권하고 활달한 동작으로 책상을 에돌아 자기의 가죽회전의자에 가앉았다. 거무튀튀한 책상우에는 전화기와 문갑, 로어로 된 책들이 무질서하게 쌓여있었다.

얼핏 제목을 보니 《맑스주의와 수정주의》, 《자본론》, 《웨. 이. 레닌전집》 등이였다. 그 책들은 이 방 주인의 유식을 증명해주고 또한 이 방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는 역할도 맡아하는듯싶었다. 철케들이 놓여있는 바람벽우에는 《프로레타리아여, 일어나라. 유산자들을 숙청하라!》는 구호가 걸려있고 오기섭의 뒤에는 한폭의 붉은기가 드리워져있었다.

오기섭은 운상을 해부학적으로 료해하려는듯 노트를 펼치고 꼬치꼬치 물었다. 나이, 고향, 경력, 출신성분...

《자작농이라... 그러니 빈고농출신은 아니구만. 음, 일없소. 공산당은 이미 친일파, 매관자본가를 제외한 광범한 근로대중의 단결을 호소했으니까.》

그러면서 벽우에 걸린 구호를 흘끔 올려다보았다.

《일본에 가서는 고학을 했겠소? 집에서야 학비를 어떻게 다 보내주었겠소.》

《예.》

《고생했겠구만. 음, 장가는 갔소?》

《아직 안 갔습니다.》

《아직두?》

오기섭은 흥미있다는듯 만년필을 노트우에 던지고 의자에 몸을 제꼈다.

《부럽소, 아주 부럽소. 평양은 물이 좋아서인지 미인이 많소. 좌우간 1등미인을 쟁취해보오. 그러나 미인들만 따라다니면서 계급성을 무시하면 안되오. 반드시 혁명가의 집안에서 미인을 골라야 하오. 내 얼마전에 철도공장에 료해사업을 나갔었는데 글썄 공산당총각이 민주당집안의 처녀와 결혼식을 했다는거요. 기가 막혀서… 그래 공산당과 민주당이 한이부자리에서 동침할수 있소? 그렇게 뿌라스해서 수정주의밖에 더 나오겠는가? 그러니 건축가선생은 사랑을 해도 계급적선에서 탈선하지 말아야 하오. 우리 조선에도 잔 다르크같은 영웅미인들이 있을거요. 평양에 그런 옛말이 있지? 적장의 목을 베도록 도와준 기생말이요. 이름이 뭐드라?》

《계월향입니다.》

《그래, 그런 미인이 그때만 있었겠소?》

오기섭은 한참 시큰둥한 소리를 늘어놓다가 다시 책상에 몸을 수그렸다.

《설계는 어떻게 돼가요? 계획서를 가져왔소?》

운상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계획서가 특별히 필요할것 같지 않아서… 물어보는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오기섭은 어이없다는듯 두팔을 벌렸다.

《여보! 이게 어떤 공사라고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한단 말이요? 동무야 설계를 맡은 사람으로서 언제까지 설계를 끝낸다구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야 할게 아니요? 여기 뭘 모르게 있소?》

《설계는 한 열흘쯤이면 끝낼수 있습니다.》

오기섭은 자기가 말을 잘못 듣지 않았나싶어 운상을 한참 쳐다보았다.

그러다가 책상을 탕! 쳤다.

《동무! 지금 제정신이요? 이 공사의 중요성을 모르는가?》

언성을 높이던 오기섭은 아무래도 이 인테리겐차를 정치적으로 각성시키는 사업을 제가 맡아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손세를 써가며 설명했다.

《이 공사는 우리 공산당의 위신문제란 말이요. 내 당신한테만 하는 말인데 우리가 이 공사를 장마철전으로 끝내자는게 어떤 타산이 있어서 그러는줄 아오? 이게 다 정치란 말이요. 이쯤 말하면 당신도 눈치가 있으니 알겠지?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설계를 잘해놓소. 한달쯤이면 넉넉하겠지?》

김운상은 머리가 땡겨져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공사예산은 대략 얼마나 잡았소?》

운상은 자기가 추산하고있는 수자를 불렀다. 그것이 또 오기섭을 격분시켰다.

《동문 정말 깜깜이로구만. 동무 눈엔 나라형편이 보이지 않소?》

운상은 욕만 먹을수 없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이 공사를 만년대계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여보, 동문 설계가요, 정치가요? **김일성**동지야 정치가이니 응당 그렇게 말씀하실수 있지. 그러나 동무야 설계를 맡은 실무가로서 선 하나, 점 하나를 책임적으로 짚어야 할게 아닌가? 동무의 손에 따라 나라의 수백만금이 왔다갔다하는데 지금 형편에 무슨 돈이 많아서 토목공사에 물쓰듯 하겠소. 나참.》

오기섭은 전반적인 나라형편은 안중에도 없는 운상의 정치적우매성을 진심으로 개탄했다.

운상은 오기섭에게서 욕을 먹는게 억울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리주연으로부터 처음 공사설계를 맡으라고 할 때 어째서 이 공사를 중시하는가 하는게 잘 납득되지 않았는데 지금 오기섭의 말을 듣고보니 어느 정도 룬콕이 잡히는것 같았다.

그런데 리주연부위원장은 설계를 최단기간내에 끝내라고 하지 않았는가. 오기섭의 말에도 모순이 있다. 공사가 바쁘지 않으니 천천히 잘하라고 하면서도 나라형편을 생각해서 적당히 설계하라는것은 또 무슨 소리인가. 그러면서도 공산당의 위신을 세워야 한다는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것인가. 정말로 공산당의 위신을 세우자면 리주연의 말대로 장마철전에 끝내야 할게 아닌가...

운상은 고무방망이로 뒤통수를 한대 얻어맞은것처럼 멍했지만 더 물어보고싶지 않아 건성으로 인사하고 그 방을 나왔다.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정문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에는 맥이 없었다.

건국대업에 한몸 바치리라던 열정과 자부심은 줄지에 사그라져버리고 캄캄한 동굴속에서 동서남북도 모르고 미로를 헤매는것 같은 불안감이 온몸을 사로잡았다.

그는 누구든 붙잡고 흥금을 터놓고싶었다. 도대체 나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하는가. 이 공사의 본질이 도대체 무엇인가.

정말 장마철전으로 공사를 끝내긴 끝내자는것인가. 정말 만년대계로 해야 할 공사가 웁긴 웁은가... 무엄하다고 귀뺨을 맞을지언정 속시원히 묻고싶었다. 그는 리주연을 찾아 도인민위원회로 가다가 발길을 멈추었다. 그한테 가야 자기가 바라는 대답을

들을것 같지 못했다. 리주연부위원장은 이미 공사를 빨리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때는 너무나 명백해서 물어볼 말이 없었다. 그럼 오기섭의 말을 해명해줄 사람은 누구인가?

그날 저녁 경상동 오기섭의 집에는 몇명의 친구들이 모여앉았다. 태반은 오기섭이 함흥에서 데리고 올라온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해방후에 쏘련에서 나온 얼마우재들이였다. 아래방은 조선식으로 치장했지만 옷방은 유럽식으로 꾸려져있어 손님들은 모두 옷방 한가운데 놓인 큼직한 원탁에 둘러앉아있었다.

상우에는 산해진미가 떡 벌어지게 차려져있었다. 큰상이 다 찻는데도 오기섭의 큰딸은 음식들을 계속 들여왔다.

오기섭은 축배잔을 높이 들고 점잖게 한마디 했다.

《오늘은 국제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 칼 맑스의 탄생일입니다. 맑스주의를 신봉하여 투쟁에 나섰던 우리들이 혁명이 승리한 오늘 국제프로레타리아운동에 쌓아올린 그분의 공적을 잊어서는 안될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날 함께 투쟁하던 동지들과 그분을 추억하며 회포를 나누고싶어서 자리를 마련했으니 차린건 없지만 량껏 들기 바랍니다. 축배!》

《축배!》

모두들 맑스의 명복을 빌며 축배를 들었다.

평남도당에 한자리를 차지한 박도완이 생복접시에 저가락을 가져가며 한마디 했다.

《평양장안 40만인구중에 맑스의 생일을 기억하고 모여앉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정말 오기섭동지의 투철한 맑스주의정신에 탄복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오기섭은 닭의 날개죽지를 깨소금그릇에 찍으며 짐짓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그래두 한때 좌익서적을 읽은 사람들이야 오늘같은 날 감회가 깊을텐데 왜들
가만있겠소?》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조선사람중에 맑스나 엥겔스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대구요.》

《그렇기도 하오. 그래서 백성은 따라오게 할수는 있어도 알게 할수는 없다고
하는거요. 조선이 동방의 은둔국이라는걸 증명하는 실례가 어디 그뿐이요? 자! 술이나
듭시다.》

그들은 맑스-레닌주의의 영원성을 위해서, 국제로동운동의 전세계사적승리를 위해서
연방 잔을 쥘었다. 누구도 조선을 위하여 축배를 들자는 사람은 없었다. 술이 몇순배
돌아서부터는 신사표식으로 줄라뻐던 넥타이를 늦춰놓고 걸쭉한 육담도 입에 올리며
결결거렸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지나가는 소리로 보통강개수공사를 화제에 올렸다.

《내 그런 말하는 사람에게 욕을 해주었습니다. 지금이 어느때게 그따위 류언비어를
퍼뜨리는가구요.》

《그건 류언비어가 아니라 사실이요.》

《사실이라구요? 우리 힘으로 그 공사를 한단 말입니까?》

오기섭은 주량도 세고 식성도 좋아서 여전히 시작할 때의 속도로 저가락질을 하며
대꾸했다.

《말은 그렇지만 우리 힘으로야 안되지. <쁘라우다>라는게 진리라는 소린데 거기에
꼭 진리만 신습데? 정치란 그런거요. 토목공사라는게 말처럼 쉽소? 그래서 내
쓰팔린동지한테 엑스까와뜰을 몇대 달래자구 **김일성**동지께 말씀드릴 생각이요. 그렇지

않으면 쏘미공동위원회때문에 서울에 나간 슈띠꼬브가 온 다음에 내가 직접 제기하던가... 음.》

《하긴 쏘미공위가 제대로 진척돼서 조선에 후견제가 실시되면 굴착기같은거야 문제될게 없지요. 혹시 미국사람들때문에 공위가 파탄되면 북조선은 소련의 가맹공화국이 돼야 할겁니다. 우리 힘만으려야 건국이 어렵없지요.》

《그건 옳소.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다, 신민당이다 갈래가 많은 때에 공산당에서 이 공사를 맡아나서면 민심이 어디로 쏠리겠는가 생각해보오. 설사 장마철전으로 공사를 끝내지 못한다 해도 공산당이 백성들의 생활에 무관심하지 않다는 인식은 줄수 있으니까 우리는 큰 리득을 보게 된단 말이요. 이게 바로 정치요. 난 이번 일을 통해서도 **김일성**동지의 정치가로서의 위대성에 대해 다시한번 탄복하게 되요.》

오기섭은 진심으로 자기가 발견한 《진리》를 력설했고 좌중은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중에서 박도완이 모르게 있다는듯 오기섭에게 물었다.

《이제 소련에 굴착기를 부탁해서 언제야 나오겠습니까?》

《빠르면 래년쫘에야 나올수 있지. 하여튼 인민들의 질통만 믿고 공사를 벌린다는건 말이 안되요. 당신두 소련에서 살아봤으니까 기계의 힘이 얼마나 위력한지 잘 알겠구만. 지금이야 인력으로 피라미트를 쌓던 때두 아니구 만리장성을 쌓던 때두 아니지 않소? 그러니 준비를 착실히 해놓고 기다려야지.》

밤이 깊어감에 따라 취기도 깊어졌다. 오기섭의 딸은 적산창고에서 끌어다놓은 피아노를 뚝뚝거리고 주정군들은 《까쥬샤》를 불러댔다.

맑스를 추억하자고 모여앉았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판장판을 벌려놓았으니 사색적이고 지성적인 맑스의 령혼이 설사 그 자리에 왔댔다 해도 진저리를 치며 가버리지 않을수 없을 지경이었다.

다음날 오기섭은 머리가 지끈거려 꿀물을 두대접이나 마시고 집에 누워있다가 오후에야 립시인민위원회청사로 나갔다.

그는 서기실에 앉아있는 안길에게 보통강개수공사와 관련하여 장군님께 직접 말씀드릴게 있으니 보고드려달라고 이야기했다. 안길은 무뚝뚝한 표정으로 말했다.

《장군님께서서는 오늘 일정이 몹시 바쁘신데 나한테 말하면 안되겠소?》

《내가 료해한 문제이니 내가 직접 말씀드리는것이 좋을것 같소. 내 방에 가있겠으니 장군님께서 시간을 내시겠다면 전화해주오.》

그리고는 자기 방으로 돌아와 대통에 가치담배를 부스러뜨려놓고 가족회전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앉았다.

허공으로 흩어지는 담배연기를 바라보며 그는 자기가 장군님께 말씀드리려는 문제에서 모순이 없겠는가를 다시한번 따져보았다. 크게 걱정할건 없을것 같았다.

오기섭이 김운상에게 한 말이나 어제 술친구들에게 한 말은 다 그의 진심이였다. 그는 정말로 보통강개수공사를 아무런 기계수단도 없이 장마철전으로 할수 있다고는 믿지 않았던것이다. 부언하건대 그는 장군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반대하려고 하지는 않았다는것이다. 그의 과오는 그가 자기 인민을 너무도 모르고 또 알고려고 하지 않은데서부터 생긴것이였다. 그는 자기 조국, 자기 인민과 너무도 멀리, 너무도 오래 떨어져있었다. 따라서 그는 조선인민에 대해 잘 알수 없었으며 인민이 자기 힘을 자각할

때 어떤 미증유의 기적을 창조할수 있는가를 알수 없었다. 그에게 있어서 인민이란 제힘으로 행복을 쟁취할 능력이 부족하기때문에 양떼를 몰아가는 목동처럼 자기같은 정치인들이 이끌어주고 돌봐주어야 할 수동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 사실이 그렇지 않은가. 남들이 증기기관차로 산업혁명의 시대를 펼쳐놓을 때 조선인민은 버선발에 짚신을 신고 하늘소를 타고다녔으며 무식이 부끄러운줄 모르고 노전우에 앉아 막걸리동이를 기울이며 아리랑타령을 불렀었다. 낮에는 나무그늘밑에서, 밤에는 고콜불아래서 《범이 담배 피우던 때인데...》하고 옛말이나 하면서 세월을 보내던 그 인민을 하루아침에 각성시켜 무산혁명의 한마당으로 이끌어낸다는게 말처럼 쉽겠는가. 그는 리광수의 《민족개조론》을 옳다고 생각지는 않았지만 그런 글을 쓴 필자의 심정이 결코 가볍지는 않았을것이라는것만은 리해하고싶었었다.

그러한 정치적제약성으로 하여 오기섭이라는 인간은 자기 인민에게 헌신할수 없었고 자기 수령의 사상에 끝까지 충실할수 없었던것이다.

오기섭이 장군님께서 부르신다는 연락을 받고 그이의 집무실에 들어섰을 때는 저녁무렵이었다.

장군님께서는 오기섭에게 의자를 권하시고 담배통도 밀어놓아주시였다.

《보통강개수공사와 관련해서 제기할게 있지요?》

《그렇습니다.》

오기섭은 자리에 앉으며 사업노트를 펼쳐들었다.

《어제 공사설계를 담당하고있는 건축가를 만나 담화를 해봤는데 그 사람이 사상적으로 잘 준비되지 못한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봅니까?》

《우선 설계를 날림식으로 해치우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욕을 좀 해주고 한달쯤 품을 놓고 잘해야 한다고 납득시켰습니다.》

《설계를 한달씩이나 한달 말입니까? 설계가도 동의했다구요?》

《그렇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억이 막히시여 한동안은 말이 나가지 않으시였다. 이 사람은 장마철전에 공사를 끝내야 한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이거야 공사를 파탄시키려는 의식적인 행위와 무엇이 다른가?

《그리구 쓰팔린동지에게 엑스까와똥을 몇대 요구하시지 않겠습니까?
김일성동지께서 부탁하시면 소련정부에서두 거절하지 못할겁니다.》

《그러니까 로동부장동무는 평양시민들의 힘만으론 공사가 어렵다는겁니까?》

《사람의 힘이 기계만이야 하겠습니까?》

오기섭의 태도는 너무나 당당했다. 자기 발언을 얼마든지 정당화할수 있다는건데 이런 때는 과연 무슨 말을 해주어야 하는가.

장군님께서서는 얼마전에 함남, 함북지방을 돌아보시면서 만나시였던 로동계급의 믿음직한 모습을 다시 그려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번에 동해안의 공장, 기업소들을 현지도하시면서 로동계급의 들끓는 건국열의를 후덥게 느끼시였으며 그들에게서 큰 힘을 얻으시였다. 특히 홍남비료공장의 로동자들은 토지를 분여받은 농민들에게 더 많은 비료를 보내주자고 결사대를 조직하여 공장을 복구하고 밤낮없이 전투를 벌리고있었다. 현장에서 로동자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장군님께서서는 새 조국건설에서

로동계급이 지니고있는 사명을 깊이 깨닫고 모두다 로동영웅이 되어야 한다고 뜻깊은 말씀을 해주시였다. 로동자들은 사람값에 못 들던 자기들을 제일 값있는 존재로 내세워주시는 장군님의 진정에 감격하여 2만톤의 비료를 더 증산할것을 결의해나섰다.

그이께서는 비료공장뿐만아니라 본궁화학공장, 룡성기계공작소, 홍남제련소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을 총동원하면 얼마든지 자체의 힘으로 새 나라를 건설할수 있다는 신념을 굳히시였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장군님께서는 오기섭이 나간 뒤에도 일손을 잡지 못하시다가 송수화기를 드시였다.

《리주연부위원장과 평양시인민위원장동무를 이제 곧 불러주시오.》

이밤중으로 공사준비정형을 료해하지 않고서는 마음을 놓을수 없으시였던것이다. 일군들이 장군님의 집무실에 들어섰을 때는 밤이 깊어서였다.

《밤늦게 찾아서 미안합니다. 공사준비정형을 알고싶어서 불렀습니다.》

리주연이 먼저 일어섰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은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자던 참이였습니다. 이런 큰 공사를 처음 맡아해보자니 어떻게 해야 할지 조막손으로 답알 만지는 격입니다.》

장군님께서는 리주연의 보고를 다 들으시고나서 공사에 대중을 동원시키는 문제로부터 지휘부구성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장군님의 말씀을 받고서야 일군들은 자기들이 여직껏 외지받을 해매고있었다는것을 깨달았다.

처음에 그들은 평양시내 공장, 기업소들을 며칠간씩 문을 닫아매고 통채로 동원시키는 방법에 매달리려고 하였다. 그렇게 되면 생산도 문제이지만 직장생활을

안하고 집에서 수공업이나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골치거리로
나섰다. 그렇다고 행정구역별로 하자면 장악통제사업이 더 복잡해질것 같았다.

리주연은 자기들의 고충을 그대로 말씀드렸다.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공장은 공장대로 생산을 내밀면서 로력조직을 해야 합니다.
시인민위원회에서는 공사지휘부를 든든히 꾸리고 로력조직을 빈틈없이 해야겠습니다.
내가 래일 공사장에 나가보자고 하는데 동무들도 같이 나가봅시다.》

리주연은 환성을 터칠번 하였다. 그러나 자기들이 일을 제대로 못해서 장군님의
바쁘신 시간을 빼앗게 되었다는 죄스러움이 터져나오려는 환성을 눌러버렸다.

《장군님께서 직접 나오시여 대책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은 좋지만...》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공사와 관련한 일은 미룰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래일
현지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토론해봅시다.》

《알겠습니다. 그럼 래일 아침에 장군님을 모시고 나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돌아가려고 일어서는 리주연을 손짓으로 멈춰세우시였다.

《김운상동무를 만나보았습니까?》

《며칠동안은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공사설계를 수정하고있을겁니다.》

내막을 알수 없던 리주연은 제 짐작대로 말씀드리고나서야 장군님의 안색이
어두워지신것을 알아차렸다.

《김운상동무가 설계를 한달쯤 걸려야 완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리주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도대체 그 사람이 제정신인가?

장군님께서서는 여전히 무거우신 안색으로 말씀하시었다.

《난 그것이 운상동무의 본심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일종의 강요에 의한 투항이라고 할가... 하지만 난 실망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왜 이 공사를 장마철전에 끝내자고 하는지 모르기때문에 일부 사람들의 견해에 맹종맹동한것입니다. 건국의 앞장에 서야 할 지식인인데...》

리주연은 장군님앞에서 자기를 뉘우쳤다.

《제 책임이 큼니다. 전 그 동무에게 설계를 맡겨놓고는 아직 한번도 찾아가보지 않았었습니다.》

《혼자서 설계를 안고 씨름하자니 힘들것입니다. 운상동무에게 래일 내가 공사장에 같이 나가보잔다고 전해주시요. 주연동무가 래일 아침 여기로 올 때 데리고 오시요. 그 동무 혼자 거기까지 걸어가게 할수야 없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15

다음날 김일성동지께서는 리주연이네들과 약속한 시간이 되기도 전에 현관앞에 나와계시었다. 봄날치고는 류달리 맑고 따스한 아침이였다. 여름이 시작된다는 립하를 배웅한지 이틀밖에 안되는데 아침부터 해가 쟁글쟁글 내리쬐이며 대지를 달구었다. 거리로 오가는 사람들의 차림새도 며칠전과는 험동하게 달라졌다.

리주연네 일행은 장군님께서 나와계시는것을 보고 황황히 달려왔다.

장군님께서서는 그들을 안심시켜주시며 마치 변명이라도 하시는듯 말씀하시였다.

《동무들이 늦은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나왔습니다. 공사장에 나갈 생각을 하니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구만.》

그것은 사실이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오늘 아침에 계획하시였던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시였다. 래일 열리는 북조선민주녀성동맹 제1차대표자회에 참가할 녀맹일군들앞에서 하실 연설문의 초안을 잡아보시려고 책상에 앉으시였했는데 자꾸만 공사장이 얼른거려 도무지 글을 쓰실수 없었던것이다.

장군님께서서는 리주연과 시인민위원장의 얼굴을 번갈아보시며 의아스러운 표정을 지으시였다.

《그런데 김운상동무는 안 왔습니까?》

리주연이 좀 당황한 기색으로 말씀드렸다.

《어제 밤에 제가 그 동무의 하숙집에까지 갔었습니다. 장군님말씀을 전달하고 오늘 함께 가자고 했는데 잠전에 들려보니 새벽에 떠났다고 합니다.》

장군님께서서는 그럴수 있다는듯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그가 이 자리에 싱글벙글 웃으며 나타난것이 아니라 혼자서 걸어왔다는 사실에서 그의 모대김이 느껴지고 그래서 더 정이 가고 믿음이 가시였다.

《우리도 떠나봅시다.》

장군님께서서는 리주연과 함께 승용차에 오르시였다.

두대의 승용차는 종로를 거쳐 만수대를 넘어 서평양쪽으로 달리였다. 서평양조차장다리를 넘어선 승용차는 서포천과 형제산강이 합수되는 봉수산서북쪽기슭에 떨어졌다.

차에서 내리신 장군님께서서는 한손을 허리에 얹으시고 공사장과 주변일대를 부감하시였다. 멀리 제산리와 형산리별판에는 흰옷 입은 농민들이 점점이 널려있었다. 씨불임이 한창인 별판에서 아지랑이가 피여오르며 눈이 사물거리게 했다. 이 나라 어디에 가나 볼수 있는 봄풍경이였다.

봄이여! 너는 허구한 세월 해마다 겨울을 이겨내고 이 땅에 찾아오군 했었다. 하지만 이 봄날처럼 사람들의 가슴에 그렇듯 크나큰 희망과 행복을 안겨준적 있었더냐! 봄이여! 우리 이제 이 땅우에 위대한 새시대를 창조하려 하나니. 력사는 세세년년 해방조선의 첫봄을 기억하게 될것이다!

아지랑이 가물거리는 별판을 바라보시던 장군님께서서는 문득 오성재농민의 땅에는 아직 씨앗을 묻지 못했을것이라는데 생각이 미치시였다. 그 순간에 그이의 시야에서는 아지랑이도 사라져버렸다.

장군님께서서는 공사지휘부쪽으로 천천히 발길을 옮기시였다. 장군님의 승용차를 알아본 장혁수가 먼발치에서부터 구울듯 달려왔다.

《장군님!》

장군님께서서는 장혁수와 인사를 나누신 다음 주변을 두루 살피시며 그동안 해놓은 일들을 물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미전에 일군들로부터 장혁수의 가족을 봉수산 양지바른 곳에 잘 안장해주었다는 보고를 받으시였다. 그러나 본인의 마음속상처를

건드릴것 같아 우정 내색하지 않으시고 장혁수에게도 그런 말을 할 틈을 주지 않으시였다.

《오성재농민이 토성량을 떴다지요?》

그렇지 않아도 장혁수는 오성재가 토성량을 떠난데는 제게도 책임이 있다고 자책하고있었다. 오늘같은 날이 이렇게 빨리 올줄 알았으면, 그래서 자기를 찾아왔던 오성재에게 속 시원한 대답을 주었더라면 그가 제땅을 버리는 망녕된짓은 안했을게 아닌가.

장군님께서는 대답을 못하고있는 장혁수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주시였다.

《너무 걱정마오. 이제 공사를 한다는 소문이 시내에 퍼지면 그가 제발로 찾아올거요. 그런데 그 땅엔 아직 봄씨앗을 뿌리지 못했겠구만.》

장혁수는 그제서야 제 뭇을 발견하고 얼굴을 들었다.

《그건 제가 한동네 농민들에게 말해서 땅을 묵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래주면 좋겠소.》

장군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다시 주변을 살피시였다.

《여기에 설계가동무가 나와있겠는데...》

장혁수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다가 한곳을 손으로 가리켰다.

《저기 있습니다.》

《가서 데려오시오.》

장혁수가 데리러 가서야 운상은 고개를 숙이고 장군님앞에 나타났다.

《김운상동무! 반갑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진정으로 반가우시여 그의 손을 힘있게 잡아주시였다.

운상은 뒤늦게야 몸가짐을 바로하며 장군님께 인사를 올렸다.

《장군님!》

《이미전부터 한번 만나보고싶었습니다.》

《장군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장군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그 이야긴 그만합시다.》

장군님께서서는 운상의 사죄의 말을 막아버리시고 대신 공사에 대해 물으시였다.

《설계자가 한번 말해보시오. 수정한 설계대로 한다면 공사규모가 얼마쯤 될것
같습니까?》

《아직 설계를 완성하지 못해서 구체적으로는...》

《일없소. 대략적으로만 말해보시오.》

운상은 정신을 가다듬으며 말씀올렸다.

《장군님께서 강폭을 45°경사각으로 넓히라고 하신 말씀대로 설계를 수정하면 강의
너비는 50m, 깊이는 7m로 파악 하는데 그러면 총토량이 대략 60만m³으로 추산됩니다.
그리고 3개의 수문과 6천m²에 달하는 호안석축공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세개의 뚝을
새로 쌓아야 하는데 하나는 서포천과 형제산강이 합수되는 곳에서 웃쪽으로 뚝을
쌓아야 하고 또 하나는 서포천의 량쪽에 쌓아야 하며 형제산강의 물길을 새 물길로
꺾어들이는 곳에도 쌓아야 합니다. 뚝의 전체 연장길이는 시오리정도 될겁니다. 이 술한
일감을 장마철전에 처리하자면 연 백만명의 로력이 동원되어 일인당 하루 0.7m³이상의
토량을 제껴야 합니다.》

김운상은 열두번도 더 타산해본 공사량을 단숨에 말씀드렸다.

장군님께서서는 장혁수에게 물으시었다.

《왜정때는 하루 운토량이 평균 얼마였습니까?》

《겨우 0. 3m³이였습니다.》

《그러니 두배가 넘는셈이구만.》

장군님께서서는 한동안 생각에 잠기시였다가 일군들쪽으로 돌아서시며 확신성있게 말씀하시였다.

《할수 있습니다. 이달중에 공사를 시작하면 장마가 시작되는 7월말전으로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서평양과 보통강일대주민들을 큰물의 피해로부터 보호하자면 장마전에 무조건 끝내야 합니다.》

《장군님!》

운상은 어떤 충동에 떠밀리우듯 한걸음 나섰다. 설계가로서 솔직히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에 흥분을 건잡지 못하고 나섰으나 장군님의 시선이 자기 몸에 와닿는 순간 그는 입이 벌어붙고말았다. 도대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한단 말인가, 감히...

《어서 말하시오.》

장군님께서 용기를 보태주시였으나 김운상은 그냥 머뭇거리기만 했다.

《혹시 이 공사를 장마철전으로 끝낼수 없다고 생각하는게 아닙니까?》

장군님께서 정통을 찌르시는 바람에 운상은 정신을 차렸다.

《그렇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것은 종이장우의 계산에 불과한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운상은 말을 끝맺지 못했다.

《기적이 일어날것입니다. 난 그렇게 믿고싶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을 향해 돌아서시며 이 공사는 단순한 자연개조가 아니라 민주건설의 첫 출발로 되는것만큼 공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건국열의가 최대한 발현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시였다.

《이 공사는 인민위원회가 주동이 되여 진행하는것만큼 공사지휘부를 구성할 때에도 각 정당, 사회단체들을 다 망라시키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사과정에 민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민주건설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체득하게 함으로써 새 조국건설에서 승리의 신심을 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공사를 완공하면 앞으로 보통강물줄기를 대동강과 연결시키는 운하를 파서 수상운수로를 개척할수도 있으며 보통강일대를 풍치 좋고 아름다운 유원지로 만들수도 있습니다.》

일군들은 한손으로 허공을 긋기도 하시고 주먹을 힘있게 흔들어보이시며 이 땅의 래일을 설계하시는 장군님의 열정적인 모습앞에 넋을 잃은듯싶었다. 오랜 세월 세상의 버림을 받아오던 토성랑에 인민의 유원지가 건설된다니 넋을 잃지 않고서야 그 황홀함을 어떻게 그려볼수 있겠는가.

장군님께서서는 많은 시간을 바치시여 공사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있을수 있는 애로와 난관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일제놈들이 근 10년동안에도 완성하지 못한 공사인것만큼 단 두달동안에 끝내려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것이고 반동분자들의 책동도 있을것입니다. 때문에

계급적각성을 높이고 시민들속에 공사의 중요성을 널리 선전하여 그들을 사상적으로 동원시키는 한편 사전에 조직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일군들은 모두가 심봉사가 눈을 뜬 기분이었다. 앞이 환하니 신심이 생기고 용기가 백배해졌다.

공사장을 떠나시기 전에 장군님께서는 김운상을 따로 부르시였다.

그이께서는 운상의 팔을 끼시고 산기슭을 따라 거니시였다. 발밑에서는 마른 락엽이 바삭바삭 밟히였다.

《난 조국에 개선해서 운상동무와 같은 건축가가 있다는 말을 듣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동무가 내 고향 만경대를 찾아가보고 새집을 설계한다는 말을 들었을 땐 정말이지 인간적으로 고마웠습니다. 한번 만나면 꼭 인사를 하고싶었습니다.》

그이의 말씀 한마디한마디는 운상의 가슴을 불로 지지는듯싶었다. 그는 달아오르는 흥분을 묵새길수 없어 마음속의 고충을 한꺼번에 털어놓았다.

《장군님, 전 오늘까지 헛살아왔습니다. 해방전에는 나라가 없는탓에 현대건축학을 배우고도 제 할 일을 못 찾았고 해방후에는 기중기같은 건설기계 하나 없으니 현대적인 건축설계가 소용없다고 한탄하면서 제 기분내키는대로 무의미하게 살아왔습니다. 이번에 장군님께서 저를 믿구 큰일을 맡겨주시였는데도 제정신을 못 가지고 살아온탓에 그 뜻을 제대로 새기지 못하구 장군님을 실망시켰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량심의 가책에 시달리는 그를 믿음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시다가 오던 길로 돌아서시였다.

《알았으면 됐습니다. 난 동무가 농촌주택들을 기와집으로 개량할 꿈을 안고있다는 말을 듣고 나와 뜻이 같은 동지를 알게 되어 기뻐합니다. 대대로 못살던 우리 인민들을 기와집에서 살게 해주겠다니 난 평생 동무를 업고다니고 싶습니다. 운상동무의 고향은 장남이라지요?》

《예.》

《부모님들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벽지도리에서 남새농사를 짓습니다.》

《그것 보시오. 운상동무도 농민의 아들인데 달리될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에게는 아직 부족되는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아빠트를 하나 짓자고 해도 기중기도 없고 강철도 없고 세멘트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것을 제힘으로 만들어내여 이 땅위에 인민이 주인된 나라를 세울것입니다. 그러니 운상동무, 마음껏 설계하시오. 우리 인민정권은 동무의 리상을 반드시 실현시켜줄것입니다.》

리주연이나 리병설이 초조한 마음으로 승용차결에서 서성거리고있었지만 장군님께서서는 좀처럼 떠나실념을 하지 않으시였다. 헤여지고싶지 않은 사람과는 화제거리가 통나지 않는 법이다. 장군님께서서는 운상에게 생활의 사소한 문제들까지 세세히 물으시였다. 형제는 몇인가, 하숙생활이 불편하지 않는가, 왜 아직 장가를 안갔는가, 봐둔 처녀는 있는가...

기다리다못해 리병설이 다가오는것을 보고서야 그이께서는 시계를 들여다보시며 아쉬운 표정을 지으시였다.

오늘 공사장을 돌아보시면서 그이께서는 평양시인민위원회 주최로 각 정당, 사회단체연합회의를 소집하며 시당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확대회의를 해야겠다고 계획하시었던것이다. 그러자면 이제 들어가서 해당 기관 일군들과 연합회의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토의사업을 하셔야 했다.

장군님께서는 차에 오르시기 전에 운상의 손을 다시 꼭 잡아주시었다.

《이제 공사를 하느라면 건국의 출발선에서 조선의 건축가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잘 알게 될겁니다. 운상동무,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난 앞으로도 큰 집을 지을 일이 생기면 동무부터 찾겠습니다.》

《장군님, 저같은 놈을 그렇게까지 믿어주시니...》

운상은 끝내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인간으로서, 건축가로서 세상에 새로 태어나는 기분이었다.

장군님께서 떠나가신 뒤 운상은 공사장에서 하루해를 보냈다. 그는 새로운 안목으로 공사현장을 오르내리며 물흐름량과 속도를 계산하고 강바닥의 토질을 분석했다. 원래는 설계만 끝내고 공사장에서 손을 떼려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진것이다. 그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 여기에 남아있으리라 결심했었다. 그만큼 그가 장군님으로부터 받아안은 충격은 강렬한것이였다. 그래서인지 해질녘까지 바지가랭이를 걷어올리고 감탕판을 걸어다녔는데도 힘들지 않았다.

저녁무렵에야 공사장을 떠난 그는 가슴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흥분과 환희를 누구에게든 터쳐놓지 않고는 견딜수 없었다. 그런데 저녁때가 다 되었으니 건축가친구들을 만나자면 래일 아침까지 기다려야 했다.

서평양조차장다리를 건너 시내로 들어오던 운상은 제1인민병원이 눈에 띄이자 태호생각이 났다. 그와 동시에 지금껏 잊고있었던 수영이라는 처녀의사의 얼굴도 떠올랐다. 운상은 오늘에야 비로소 처녀를 만나야 할 이유가 명백해진듯싶었다. 그전에는 다만 마음씨 착한 처녀를 오해하고 모욕한데 대해서 사죄해야 한다는 이유밖에 없었다. 그때 태호의 말대로 처녀를 찾아갔더라면 그럭저럭 자기 인격은 지킬수 있었을것이다. 그런데 자기가 실수한것때문에(그것은 분명 실수였다.) 처녀를 우정 찾아가 용서를 빈다는것은 그의 성미에 맞지도 않았고 어딘가 인위적인데가 있는것처럼 느껴졌었다.

그래서 선뜻 찾아가지 못했고 그후에는 일이 바빠 잊고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처녀에게 진심으로 할 말이 생겼다. 그는 오늘 조선민족이 태양처럼 우러르는 **김일성**장군님을 직접 만나뵈왔고 인민의 건축가가 되자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가르치심도 받아안았다.

말하자면 장군님께서 삶의 좌표를 새롭게 정해주시었다. 사실 운상은 그때 자기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처녀를 혼시했던것이다. 운상은 처녀에게 이걸 말해야 했다. 그래야 솔직한 사죄가 될수 있었다.

저녁시간인데도 치료실에는 환자들이 있었다. 빠끔히 열린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예전처럼 태호는 없고 처녀의사 혼자서 환자치료를 하고있었다.

운상은 복도에서 서성거리며 환자들이 뜸해지기를 기다렸다. 그의 인내력을 시험하려는듯 환자들은 끊기지 않았다. 일단 치료실에 들어간 환자는 병을 다 고쳐가지고야 내보내는 모양인지 좀처럼 나올줄 몰랐다. 그렇게 기다리는게 초조하기는

해도 지루하지는 않았다. 성미 급한 운상으로서는 이상한 일이였다. 운상이자신도 그게 이상해서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내가 지금 왜 처녀를 만나려고 하는가? 처녀를 오해한데 대해 용서를 빌자는거지? 그게 단가?)

그는 번거로운 생각을 날려버리듯 숨을 크게 내쉬었다.

《안녕히 가세요.》 하는 처녀의사의 상냥한 목소리와 함께 마지막환자가 문을 닫고 나가자 치료실에는 고요가 깃들었다.

《다음환자 들어오세요!》

운상은 대답하듯 안으로 들어갔다.

《안녕하십니까?》

시종 따스한 빛이 흐르던 처녀의 두눈은 서서히 차거운 빛으로 바뀌어졌다. 상대는 환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처녀는 마스크를 벗었다. 병력서들을 간종그려놓고 책상위에 널려있던것들을 빼람에 넣었다. 애당초 운상의 존재는 안중에도 없는듯 했다. 운상으로서의 응당한 대접이라고 생각할수밖에 없었다. 그는 제 목소리같지 않은 억양으로 서두를 땀다.

《난 수영씨에게 사죄하러 왔습니다.》

그래도 처녀는 대꾸를 안했다.

《수영씨가 용서해주고말고 하는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죄하지 않고는 내자신이 견딜수가 없어서 그래서 왔습니다. 난 오늘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뵈었습니다.》

처녀는 흠칫하며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운상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인간사랑의 장중한 음악서사시를 온몸으로 들었다.

운상은 수영에게 장군님께서 올해장마철전으로 보통강개수공사를 끝낼데 대해서와 자기에게 공사설계를 맡겨주신데 대해 흥분한 어조로 말했다.

《그런데 난 장군님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서 그분을 노엽혔습니다. 난 오늘에야 깨달았습니다. 인민을 사랑할줄 모르는 사람은 장군님을 노엽힌다는걸 알았던 말입니다. 난 부끄러웠습니다. 보통강개수공사를 건국의 맨 앞자리에 놓으신 장군님의 뜻을 미처 몰랐던게 부끄러웠구 그 주제에 동무를 심장이 차갑다고 큰소리쳤던게 부끄러웠습니다. 난 장군님의 고향을 잘 꾸리는것으로부터 건국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장군님께서서는 보통강을 다스리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하시였으니... 그래서 왔습니다. 수영선생에게 우리 장군님이 어떤분이신가를 알려주고싶었고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되는가를 말해주고싶었습니다.》

운상은 호흡이 가빠나서 더 말을 이을수가 없었다. 달리기경주라도 한듯 전에없이 숨이 차오르는것 또한 이상한 일이였다.

수영은 운상에게 의자를 권했다.

《앉으세요.》

예상치 않았던 호의였으나 운상은 앉고싶지 않았다.

《난 이 공사에 나자신을 깡그리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장군님의 사랑을 받는 건축가가 되겠습니다. 그때 가면 수영선생에게 무례했던것두 용서가 되겠지요.》

《아니예요. 그땐 제가... 하여튼 앉아서 말씀하세요.》

《난 다 말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운상은 누가 쫓아내기라도 한듯 얼른 그 방에서 나왔다. 말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숨이 더 가빠나서 견딜수 없었던것이다. 밖에 나와서야 그는 이마의 땀을 손바닥으로 훔치며 후- 하고 긴숨을 내불었다.

(젠장, 왜 그렇게 숨이 찼을가? 그 처녀가 앓으라고 권하는데도 바보처럼 뛰쳐나오다니... 허참.)

한편 수영은 운상이 나간 뒤에도 오래동안 진정을 못했다. 설계가청년이 폭풍처럼 들이닥쳐 자기 마음속에 일궈놓은 풍랑때문에 진정할수가 없었다. 수영은 보통강개수공사가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는 잘 몰랐다. 서울에서 살다가 평양에 들어온지 몇달밖에 안되었으니 잘 알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공사가 보통강변 특히는 토성랑사람들에게 유리하다는것만은 알고있었다. 그리고 세상일에 문외한이라 해도 지금과 같은 나라형편에서 그런 자연개조공사가 어렵다는것쯤은 알고있었다. 그런데 장군님께서 그 공사를 그토록 중시하신단 말인가?

문득 오성재농민때문에 토성랑에 처음 다녀온 날 몸에 불결한 냄새가 묻어온것 같아 옷도 갈아입고 목욕도 하며 부산을 피우던 생각이 났다. 자기는 고작 제 몸에서 토성랑냄새를 없애자고 찬물을 마다않고 밤늦게까지 부산스러웠는데 장군님께서 백성들전체를 걱정하시여 토성랑을 아예 없애려 하신다니 방금 김운상 그 사람의 말처럼 **김일성**장군님께서 인민을 제일 사랑하시는게 틀림없었다. 그렇다면 여기가 정말로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란 말이 현실화되어가는 세상이란 말인가?...

수영이로서는 눈앞의 현실을 한마디로 규정할 자신이 없었다.

하기야 자기같은 처녀가 세상일을 어떻게 다 알랴.

16

해방전에 수영이가 리화녀전을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의 생활반경은 학교와 가정뿐이었고 따라서 사회의 모순을 발견하고 그 해결책을 찾기에는 시야가 너무 좁았었다. 온실의 화초처럼 곱게 자란 수영에게 그때 제일 고민스러운것은 그 시절에 누구나 홍역처럼 경과하는 사랑과 행복에 대한것이였다. 그것이 인생의 풀기 어려운 숙제로 생각된데는 부모들의 영향도 없지 않았다.

서울에서 크지 않은 방직공장을 경영하는 수영의 아버지는 어머니가 아들을 못 낳아준다고 동대문구에 첩살림을 두고있었다. 아버지가 작은택에 간다면서 뼈젓이 집을 나갈 때면 어머니는 구두를 반들반들하게 닦아 퇴마루아래 놓아주고 개화장을 쥐여주면서 대문밖에까지 나가 공손히 바래주곤 했다.

《잘 다녀오십시오.》

언젠가 그걸 목격한 수영은 대문을 나서는 아버지의 등뒤에 대고 우정 큰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엄마 버리고 가시는 아버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이년아!》

외동딸에게 큰소리 한번 안 치던 어머니였건만 그때만은 진정으로 노했었다.
어머니는 노기를 띠고 엄하게 오금을 박았다.

《그럼 못 쓴다. 아버지는 아버지야.》

평생을 삼강오륜의 바오래기에 묶이워 살아온 어머니에게 있어서 남편은 무슨 죄를 지어도 신성불가침의 존재였던것이다. 자기의 절대적인 하늘이고 땅이었다. 수영은 어머니의 노예적인 순종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엄만 자존심도 없는가? 아버지가 의로운 길을 가는것도 아닌데 《잘 다녀오십시오.》
... 대문을 막아서서 행악질은 못해도 그렇게까지 비굴할거야 있는가, 아들을 못 낳은게
엄마죄인가?

복잡한 인간세상에 무슨 일인들 없으랴만 백포처럼 순결하기만 했던 처녀에게는
부모들의 생활태도가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현상으로 인찍혀졌던것이다. 하기야
신식문명을 배우고 《해연의 노래》를 열독하며 자유와 참된 사랑을 갈망하는 수영이가
불건유교도덕의 옹호자이고 희생자이기도 한 어머니를 어떻게 이해할수 있으랴.

수영은 가시같은 말마디들이 막 쏟아져나오려고 입술이 떨리는것을 겨우 참았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수영이와 함께 잠자리에 누워서 조용조용 말했다.

《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해본적이 없단다. 너자의 행복이란 생각하기에 달린거야.
》

어머니가 정말로 자기 인생에 만족을 느끼고있었는지 아니면 다 자란 자식앞에 아버지의 권위를 지켜주고 자기를 변호하느라고 그랬는지는 수영이도 알수 없었다. 수영은 묻고싶은것이 많았지만 공연히 어머니의 가슴을 더 허빌것 같아 잠자코있었다.

다음날은 일요일이여서 수영은 일요일레베모임에 참가하기 위해 학교로 갔다. 하느님을 믿지 않는 수영은 여느때는 레베에 참가해서도 앞에 선 아이의 머리꽂지를 장난질하며 캐드득거리군 했는데 오늘은 마음이 쓸쓸해서 학교전임목사의 설교를 묵묵히 들었다.

《오늘은 구약성서를 학습하겠습니다. 이스라엘왕 솔로몬의 잠언 제5장을 펼치십시오.》

목사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러운 암사슴같고 아름다운 암노루같은 제 안해를 배반해서는 안된다고 알쏭달쏭한 말로 설교를 늘어놓았다.

성서에서도 저렇게 남자들의 방탕을 타이르는걸 보면 남자란 믿고 의지할만 한 존재가 못되는게 틀림없었다. 그 주제에 녀자의 존재를 기껏 암사슴이나 암노루로 취급하고있다.

녀자는 정말 이렇게밖에 살수 없단 말인가? 과연 녀자는 어떤 존재인가? 녀자인 수영으로서는 녀자의 본질, 녀자의 정체성을 해명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자기의 생활방식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방금전에 목사는 하느님께서 사람이 가는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그럴가?

한평생 행복의 길로만 곡절없이 걷고싶은데 지금 수영이에게는 길이 너무 많고 갈래가 복잡했다.

어느 길로 가야 행복할수 있겠는지 인생의 출발점에서 미리 알고 떠났으면 좋으련만...

자기가 가는 길의 종착점에 분명 행복이 기다리고있다는 담보만 있으면 부지런히 그 길로만 걷겠는데 모든게 안개속에 묻혀있으니 발걸음을 내디디기가 두렵기만 했다. 이 길로 가면 너무 에돌지 않을까. 저 길로 가면 낭떠러지나 가시덤불이 기다리지 않을까...

레배가 끝난 뒤에도 텅 빈 레배당에 혼자 앉아있던 수영은 때각때각 울리는 발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레배당을 돌아보던 수영의 담임교원이었다.

하느님의 품에 자기를 의탁하고 산다는 그리스도교인 이 녀자는 40대에 이르도록 시집을 가지 않은 로처녀였다.

그 녀자는 수영이가 하느님이 계시해준 진리의 무아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있는줄 알고 독실한 신자를 사뭇 기특하게 여기며 앞의자에 앉았다.

《왜 아직 안 가고있지요?》

《선생님, 전... 무섭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녀교원은 애티를 벗지 못한 녀학생의 얼굴에서 하도 짙은 고민을 보았던지 수영의 머리를 쓸어주며 말했다.

《어디로 갈지 모르겠단 말이지요? 그래요, 그건 응당한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불쌍한 어린 양이라고 하시는거예요. 양들에게는 혼자서 제집으로 돌아오는

능력이 없거던요. 하느님께서는 갈길 몰라 헤매이는 불쌍한 우리들을 행복한 세계에로 안내하라고 목사님들을 보내주신거예요.》

수영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여자에게 물었다.

《선생님, 여자는 꼭 시집을 가야 합니까?》

그 여자에게는 천진하고 또 천진한 《어린 양》에게 행복의 길을 가르쳐줄 능력도, 한생의 신조로 간직한 참된 진리도 없었다.

대답이 궁해진 그는 자기를 뵈히 바라보는 수영에게 나직이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글쎄... 예수님의 품이 아무리 자애롭다해도 여자들에겐 사내의 품이 더 좋은 법이지.》

중년나이가 되도록 결혼이란걸 해보지 못하고 따라서 가정생활의 재미라는걸 맛보지 못한 독신녀성이 사내품이 좋다고 경험자답게 말하는걸 보면 그의 사생활을 가히 짐작할만 하련만 천진한 수영은 그것도 느끼지 못하고 또 물었다.

《그런데 선생님은 어째서 시집가지 않고 혼자 사십니까?》

《사랑할만 한 사내가 있어야지.》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난 예수를 사랑하는게 아니예요. 그저 믿을뿐이지. 그렇지 않으면 정신적위안을 얻을수가 없거던. 살아보면 인생이란 공허한거예요.》

8. 15해방은 자기라는 존재에 집착해있던 수영에게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해주었다.

해방후에도 서울에는 달라진것이 별로 없었다. 달라진것이 있다면 총독부 지붕우에서 날리던 히노마루가 성조기로 바뀌우고 초밥이나 우메보시를 좋아하던 난쟁이들대신 껌을 질근거리면서 주머니에 꼬냐크병을 넣고다니는 우멍눈의 꺾다리들이 이 땅의 주인으로 바뀐것뿐이었다.

당시 남조선에서는 미군용기로 수입된 리승만이 자기가 리씨왕조의 후손이라면서 옥좌를 탐내여 좌익세력은 물론이고 립정인물들과도 자리다툼을 하고있었고 《해방자》의 탈을 쓰고 기여든 미군도 맥아더포고 제1호와 제2호로써 자기들이 남조선땅의 새 《주인》이라는것을 명백히 선포하였다. 그런데 주인노릇을 하겠다고 부랴부랴 남조선에 날아든 미군정청관계자들중 그 누구도 조선말을 몰랐고 조선인민에 대해 몰랐으며 조선이 지구의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모르던 놈들이었다.

《주인》으로서 그들이 할 일이란 점령지역 인민들에 대한 통치와 남조선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방파제를 구축하는것뿐이었다.

리화녀전을 졸업하고 서울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수영은 미군이 《해방자》가 아니라 강도이며 야만이라는것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다.

어느날 병원으로 머리가 터진 한 미군병사가 실려왔었다. 거리에서 폭도들의 싸움을 말리다가 부상당했다는데 사실은 백주에 보석상점을 털다가 얻어맞은 놈이라는것을 수영은 알수 없었다.

설사 알았다 해도 천성이 착하고 의술로 인간을 구원해볼 꿈을 지녔던 수영이로서는 그 미군병사를 치료하는데 정성을 다했을것이다. 더구나 미군은 조선민족을 해방시켜준 《은인》이 아닌가. 그 미군병사가 중환자는 아니였지만 《은인》을 일반환자취급할수

없다는 병원측의 요구에 따라 수영은 담당의사로서 꼬박 이틀밤을 밝혔다. 사흘째되는 날 밤도 간호원과 교대로 환자를 지키던 수영은 책상에 엎디어 깜박 졸았다.

그는 문득 자기 어깨너머로 누군가의 손이 와닿는 느낌에 머리를 들다가 그만 《악!》 소리를 질렀다.

머리에 붕대를 감은 구척장신의 미군병사가 두툼한 입술새로 흰 이를 드러내며 징그럽게 웃고있었던것이다. 다른 인종에게서 풍기는 불쾌한 냄새, 짐승의 앞발같은 털부숭이 손...

수영은 입원실에서 어떻게 뛰쳐나왔는지 몰랐다. 몸에 배인 습관대로 의무실에서 위생복을 벗어버리고는 무작정 병원을 나섰다.

생각할수록 분하고 억이 막혔다. 어쩌면 자기를 성의껏 치료해준 의사에게 그런 무례한 행동을 할수 있단 말인가. 그게 사람인가. 그도 사람이라면 사람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제 생각에 움해있던 수영은 켜는듯 한 호각소리에 아차하고 걸음을 멈추었다.

격분한김에 뛰쳐나오다보니 통금시간을 까맣게 잊고있었던것이다. 말이 통하면 집이 코앞이라고 설명이라도 해보련만 꺾다리 미군순찰병은 카빙총을 겨누고 몸수색부터 했다. 수영은 난생처음 당해보는 일이여서 총구앞에 서있다는 공포심보다 전신을 태우는 수치감으로 부들부들 떨었다.

그날 밤 처녀는 류치장에서 한밤을 새웠다.

너무 기가 차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세상이 왜 이렇게 괴이하게 되어가는가. 제땅에서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하게 하니 도대체 이 땅의 주인은 누구인가.

아침에 류치장에서 풀려나온 수영에게는 뜻밖에도 해고장이 기다리고있었다. 그 미군병사가 병원측에 항의했고 병원측에서는 비굴하게도 수영이가 환자에게 무책임했다는 딱지를 붙였던것이다.

수영은 기막힌 현실앞에서 자기에 대한 변호를 포기하고 말없이 병원을 나오고말았다. 진실이 우롱당하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말할수 있단 말인가.

그 다음날 석간신문에는 미군병사가 보석방에 뛰어들어 주인을 쏘죽이고 보석을 다 털어갔다는 짤막한 기사가 실렸다. 수영이덕분에 건강을 회복한 그 미군병사가 병원을 나서는길로 《복수》를 단행한것이였다.

그래도 미군정청은 그 병사가 《폭도》들에게 뇌타박을 받았기때문에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과실이라고 변호해나섰다. 사건은 그것으로 끝났다. 주객이 전도된 세상이라 누구도 감히 미군정청에 시비를 가르자고 나서지 못했던것이다.

과연 넓고넓은 이 천지에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 착하게 살고싶은 마음을 보석처럼 귀중히 여겨주는 그런 세상은 없을가, 생활은 자기만의 좁은 울타리안에서 동화의 주인공처럼 살고싶어하던 수영에게 허다한 난문제들을 덧쌓아놓는듯싶었다.

엮친데엮친 격으로 아버지네 공장은 남조선전역을 휩쓴 통화팽창의 회오리바람에 말려들어 파산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심보나쁜 일본놈들이 조선의 산업을 질식시키려고 수십억원의 《조선은행권》을 람발한 후과로 술한 중소기업들이 넘어졌던것이다.

가뜩이나 고혈압병으로 신고하던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뇌출혈로 쓰러졌다. 수영은 정신없이 뛰어다녔다. 발병초기에 좋은 약을 쓴 덕분인지 어머니는 다음날에 의식을 회복하였다.

의식을 차린 어머니가 제일 먼저 찾은것은 아버지였다. 그런데 그때까지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었다.

수영은 어머니병구완에 제정신이 아니여서 아버지에게 미처 알리지도 못했다. 더구나 어머니가 생사기로에서 해매는줄도 모르고 작은택에 가있을 아버지가 미웠던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어머니를 노엽힐줄이야.

어머니는 실망어린 눈길로 철없는 딸을 서글프게 바라보다가 힘없이 고개를 돌렸다. 주름잡힌 어머니의 눈귀로 한줄기 눈물이 소리없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다.

그제서야 수영은 어머니가 아버지를 사랑했다는것을 분명히 알았었다. 어머니가 죽음의 문어구에서 마지막으로 보고싶었던 사람이 친딸인 자기가 아니라 일생을 함께 해온 남편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에 수영은 어른이 된듯 한 기분을 느꼈다.

어머니 용서하세요!

수영은 황황히 병원을 뛰쳐나와 아버지를 찾아 떠났다.

아버지는 공장에 있었다. 텅 빈 작업장 한가운데 퍼더버리고앉아 한숨을 쉬고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몹시도 처량해보였다. 며칠동안에 아버지는 흰머리칼이 더 많아진것 같았다.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에 아버지의 얼굴은 무섭게 변했었다. 아버지는 허청거리는 걸음으로 병원에 달려갔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졸아든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우는것을

수영은 처음 보았었다. 그날부터 아버지는 어머니곁을 떠나지 않았다. 어머니가 재차 강한 대출혈로 손쓸새없이 사망했을 때 아버지는 극도의 슬픔으로 침식을 전폐하다싶이 했다. 어머니 수의도 제손으로 입혀주었다.

《여보, 평생 고생만 시키다 먼저 보내는구려. 래세에 태어나면 나처럼 신의없는 놈을 만나지 마요.》

그때 수영은 만약 어머니가 그 말을 들었다면 다음세상에서도 꼭 당신한테 시집오겠다고 말했을것이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았다.

어머니를 잃고 공장을 잃고 일자리를 잃고 빚때문에 집까지 내놓아야 했다.

그것이 해방이 수영이네 집에 가져다준 《혜택》이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뒤에도 며칠동안 고주망태가 되도록 술만 퍼마시던 아버지는 수영을 불러앉혔다.

《이 애비를 원망해라, 앞으로는 어쨌으면 좋겠느냐?》

《...》

《이 서울바닥에서는 살아갈 길이 막혔으니 난 네가 얼마동안이라도 평양에 있는 외삼촌을 찾아갔으면 한다.》

수영이도 진작 그렇게 생각하고있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북조선에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정사를 보신다는데 아무렴 여기처럼 무법천지야 아니겠지. 그럼 아버지는? ...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함께 가요.》

아버지는 머리를 저었다.

《내 걱정은 말아라. 네 에미를 먼저 보내구 집안을 이 꼴로 만들어놓은 주제에 무슨 낮으로 처남앞에 나서겠느냐. 혼자 가거라, 난 불가에 의탁해보련다.》

《예?》

수영은 깜짝 놀랐다. 아버지가 머리를 꺾고 중이 되겠단 말인가. 아버지는 허탈감에 빠진듯 한 어조로 뒤를 달았다.

《속세에서 아득바득하며 살아오느라 내 별로 공덕을 쌓지도 못한 주제에 극락왕생이 가당하겠냐만 그래도 악한 일은 안하고 늙어왔으니 늦게나마 찾아가보련다. 부처님은 자비하시다는데 설사 극락세계가 비좁다 해도 나 하나쯤이야 받아주시겠지.》

바람벽에 기대앉아 천정을 올려다보는 아버지의 눈가에는 뿌연 눈물이 고여있었다.

수영은 아버지가 가엾어보였다. 아버지는 단란하던 가정을 풍지박산내버린 잔인한 현실에 분노하면서도 자신의 무력감을 인정하기때문에 황황히 속세를 떠나 부처님한테서 안식을 찾으려 하고있다.

반대로 수영이 자기는 아직도 행복에 미련을 가지고 공산정권이 서있다는 북조선에 가려고 한다. 이 극적인 작별의 마당에서 과연 누구의 선택이 옳은것일까.

아버지는 수영의 생각을 알아맞히기라도 한듯싶었다.

《자고로 신통한 세상이란 있어본적이 없다. 네가 아무리 안데르센의 동화를 좋아해도 인류사에 동화의 세계와 같은 곳은 없었다. 이북의 공산세상이라고 다르겠느냐. 하지만...》

아버지는 바람벽에서 등을 떼고 수영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혹시 알겠느냐, 지금 북조선에선 **김일성**장군이 인민이 잘 사는 나라를 세우신다는데 그분이 극락세계는 아니더라도 선한것이 악한것을 이기고 백성이 마음편히 사는 새 나라의 표본을 이 땅에 세우신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비록 꿈같은 소리이긴 하다만 착한 마음씨 하나만 가지고 인생살이를 시작하려는 너한테 이런 미련까지 없으면 세상이 지겨워서 어떻게 살겠느냐. 내 부처님앞에서 네 앞길에 구름이 끼지 않게 해달라고 일구월심 빌것이니 어서 떠나도록 해라.》

아버지는 포목상을 하는 친구가 밀선을 타고 북반부에 드나든다면서 그를 수영에게 소개해주었다. 그래서 수영은 해방후 석달만에 평양으로 들어왔었다. 아직은 자기의 선택이 옳았다는 절대적인 확신은 가질수 없지만 수영은 여기 평양에 와서부터 마음속깊이 얼어붙었던 행복에 대한 갈망이 조심조심 싹을 틔우고 아지를 펼치면서 자기의 가슴을 부풀게 한다는것을 느끼고있었다.

수영은 날이 어둑어둑해서야 병원을 나섰다. 천천히 집으로 걸어가면서 수영은 저도 모르게 운상을 생각했다.

오성재농민의 일로 모욕을 당한 순간부터 다시는 만나고싶지 않았던 청년이었다. 못할짓을 하다 들킨 사람이 후날에도 그 목격자를 만나면 어쩔수없이 느끼게 되는 창피감때문이랄가...

그런데 오늘 그가 장군님을 만나뵈온 사연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자기는 그에게 의자까지 권했다. 그것도 두번씩이나...

이건 분명 환자들외에는 누구에게도 친절을 보인적 없었던 수영이 자기가 그 사람에게 공감되었다는 증거가 아닐까.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의 호의를 무시하고 훌쩍 가버렸다. 그래도 모욕감을 느끼지 못했으니 어인 일인가.

운상을 미워한다고는 하면서도 수영은 스스로 자기 마음을 믿을수 없었다.

17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집무실에서 쏘련군전권대표 슈띠꼬브대장을 기다리고계시였다. 조금전에 쏘련군사령부에서 슈띠꼬브대장이 떠난다는 전화가 왔었다. 그는 쏘미공동위원회 대표로 서울에 나가있다가 미제의 방해책동으로 공동위원회가 무기휴회되는 바람에 어제 평양으로 돌아왔던것이다. 결국 작년말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3개국 외무상회의에서 토의결정되었던 전후 조선문제 즉 조선에 통일적민주주의독립국가를 세우도록 협조한다던 결정은 휴지장이 되고만것이였다.

과연 우리 민족은 외세에 의해 영영 둘로 갈라져야 한단 말인가. 무거운 생각에 잠겨계시는 그이께 서기가 조용히 다가왔다.

《장군님, 슈띠꼬브대장이 도착했습니다.》

고개를 드시니 군복차림의 슈띠꼬브가 집무실에 들어와 거수경례를 하는것이였다.

《김일성동지, 그간 건강하셨습니다까?》

장군님께서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여 문가로 향하시였다.

《그동안 수고많았습니다. 슈띠꼬브동지! 서울에 나가서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까?》

장군님께서서는 그와 인사를 나누신 다음 친절하게 자리를 권하시였다.

그러나 슈띠꼬브는 앓을념은 앓고 정색해서 말씀드렸다.

《제가 김일성동지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자기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쓰팔린동지와 우리 정부앞에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만 김일성동지앞에서는 인간적으로 량심의 총화를 지으려고 합니다.》

슈띠꼬브의 말은 진심이였다. 전쟁전에는 레닌그라드주에서 구역당사업을 했고 전쟁시기에는 전선군 군사위원을 력임해온 그는 자기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것이 한 민족의 장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는가를 잘 알고있었던것이다.

《제가 서울에서 가지고온것이 있습니다.》

슈띠꼬브가 문을 열자 서기실에서 대기하던 그의 부관이 하얀 모시통구리를 안고 집무실에 들어섰다.

《이건 웬겁니까?》

장군님께서서는 슈띠꼬브에게 사연을 물으시였다.

《공동위원회를 개최하는 날 남조선의 좌익계 정당단체들의 축하연이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시 종로구의 녀맹위원장녀성이 저에게 선물한것입니다. 그 부인은 조선민족을 이 모시통구리처럼 한덩어리가 되게 해달라고 절절하게 당부했었습니다. 그 부인의 부탁이자 전체 조선인민의 념원인데 제 노력이 부족해서...》

장군님께서는 긴 상우에 올려놓은 모시통구리를 살펴보시였다. 발이 가늘고 하얀 모시통구리는 속대를 넣고 돌돌 말아서 붓나무토막처럼 단단했다. 그것은 마치 남북이 갈라지지 않고 하나로 뭉치려는 민족의 념원을 상징하고있는듯싶으시였다.

《이건 슈띠꼬브동지가 건사하십시오. 언제나 우리 인민의 마음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닙니다. 나에겐 그걸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슈띠꼬브가 더 고집하지 못하게 손을 저으시였다.

《쏘미공동위원회가 파탄된것은 결코 슈띠꼬브동지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할수 있는것 다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공동위원회가 파탄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정말이지 그들과는 주먹으로 책상을 치지 않고는 말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슈띠꼬브는 자기의 고심을 알아주시는 장군님께 변명조로 말씀올렸다.

《미국사람들이 3상회의 결정을 그렇게 쉽게 실천할것 같으면 무엇때문에 남조선우익세력을 내세워 기를 쓰고 <반탁>소동을 벌리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슈띠꼬브는 장군님께서 권하시는 의자에 앉으며 말을 이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공동위원회가 이렇게 끝나리라는걸 예견하고계셨습니까?》

《나는 슈띠꼬브동지를 실망시키고싶지 않지만 솔직히 말해서 미국의 태도에 우려를 느끼고있었습니다. 그 우려가 현실로 증명되었을뿐입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말이 난김에 미제와 남조선반동세력의 《반탁》소동의 본질을 명백히 밝혀주고싶으시였다.

제2차 세계대전후 미국은 저들이 강점한 일본이라는 섬나라를 련합국들과 나누어먹지 않고 통채로 삼켜버릴 욕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었다.

한편 소련은 자기들의 북방령토를 되찾는데 초점을 두었기때문에 미국의 욕심을 너그럽게 리해해주었다. 트루만의 특사로 중국에 파견되였던 웨더마이어는 작년 11월에 미육군성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장개석의 가치를 인하시키면서 그가 국내전쟁에서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인민해방군을 이기기가 불가능하다는것을 론증하였다.

미국은 장개석이 중국을 통일하고 약속대로 부르쥬아친미정권을 수립한다는 당초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자 조선남부에라도 자기들의 친미정권을 세워 대륙침략의 교두보로, 일본방위의 국경으로 리용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미 테헤란회담과 알파회담에서 조선에 20~30년간의 신탁통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미국으로서는 극히 자연스러운 결론이라고 볼수 있었다.

그리고 미국은 저들의 전략수정에 대한 조선인의 지지를 세계앞에 선전하는것이 필요하였기때문에 리승만역도를 괴수로 하는 반동단체들을 내몰아 조선에서 신탁통치를 반대한다는 소동을 벌리게 한것이였다.

미국은 말을 바꿔타는 저들의 대외정책변화가 세상에 폭로되는 시기를 될수록 미루려고 했다. 그것은 소련의 태도나 장개석의 반발이 우려되었기때문이였다. 그런

리유로 하여 미국무성은 쏘미공동위원회가 열리는 마당에서도 《남조선에 단독정권을 세울 계획은 없다.》고 뻔뻔스레 거짓말을 했던것이다.

《우리 민족에게는 분렬의 위험이 박두해오고있습니다. 이 엄중한 현실을 고스란히 받아들일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민족의 분렬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여 슈띠꼬브에게 힘있는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내가 항상 주장하는것이지만 조선문제는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라의 통일독립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는 한편 전체 인민의 단결된 힘으로 이 땅에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여 조선인민은 그 누구의 도움이 없어도 제힘으로 민주주의국가를 건설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줄것입니다. 지금 평양에서는 민주건설의 첫 사업으로 보통강개수공사를 벌리기 위한 준비사업을 하고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우리의 건국의지를 보여주는 좋은 실례라고 생각합니다.》

슈띠꼬브는 처음 듣는 소리여서 어지간히 놀랐다.

장군님께서서는 그에게 공사의 절박성과 규모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해주시였다. 슈띠꼬브의 놀라움은 더 커졌다.

《그 방대한 공사를 장마철전에 끝낸다는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결심했고 꼭 해낼것입니다.》

《제가 우리 정부에 제기해서 굴착기라도 몇대 도와주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고맙긴 하지만 우리 힘으로 해내겠습니다. 쏘련에서도 지난 3월에 최고쑬베트 제1차회의에서 5개년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전쟁의 후과를 가시기 위해 애쓰고있는 형편인데 남을 도와줄 형편이 못될겁니다.》

《김일성동지의 민족자주정신은 저도 공감합니다만 그러나...》

슈띠꼬브는 자기의 내심을 털어놓고 말씀드릴수 없었다.

현재 북조선의 긴장한 정치정세로 보나 경제적잠재력으로 보나 이처럼 큰 공사를 할수 있겠는가 하는것이 그의 솔직한 심정이었던것이다. 만약 이 공사를 제 기일내에 끝내지 못한다면 건국은 욕망으로만 하는게 아니며 조선인민자체의 힘으로는 독립국가를 건설할수 없다는것을 내외에 증명하는 계기로도 될것이기때문이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조선의 완전독립을 주장해온 쏘련측의 립장도 어지간히 난처해지게 될것이며 더우기는 큰나라 대표로서 자기 립장도 딱해질수 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슈띠꼬브의 심중을 꿰뚫어보신듯 미소를 띠우시며 말씀하시였다.

《슈띠꼬브동지! 우리 조선인민을 믿으십시오. 우리 인민은 해낼것입니다.》

슈띠꼬브는 어쩔수없이 자기의 심중을 내비쳤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군중의 힘만 믿고 그 공사를 결심하신 모양인데 지나친 모험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북조선에서는 아직도 식민지의 락후성을 청산하지 못하고있습니다. 그런 조건에서 혁명적각성이 부족한 군중을 하루아침에 민주건설의 주력군으로 내세운다는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제 심정을 리해해주십시오. 우리 쏘련의 경우를 보면 1919년에 레닌의 호소에 의해 무보수로동으로 전개된 공산주의토요로동이 대중적경쟁운동의 시초로 되였고 1935년에 돈바쓰탄전에서 스파하노브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토요로동에 처음 참가하였던 15명의 철도로동자들은 다

공산당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파하노브운동은 기준량을 초과완수한만큼 보수가 차례졌습니다. 그 운동마저도 최근에 와서는 점차 기운이 사그러져가고있습니다. 그런데 보통강개수공사는 어떻습니까? 공산당원들만 참가시킬수도 없고 더구나 변변한 기계수단도 없이 인민들의 힘만으로 장마철전에 공사를 끝낸다는것은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장군님께서서는 잠시 침묵을 지키시였다. 오래동안 당사업을 해왔다는 슈띠꼬브까지도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지 못하고있다. 더 가슴아프고 섭섭하신것은 우리 조선인민의 애국열의를 믿지 못하고있는것이였다. 어느때나 인민을 무시할수 없다는거야 력사가 증명해준 진리가 아닌가.

그이의 눈앞에는 어린시절 어른들과 함께 성안에 들어오시여 《만세!》를 부르시던 3월 1일, 그날이 삼삼히 밝혀오시였다. 바로 그날에 그이께서는 인민대중의 힘이 세상에서 제일 강하다는것을 처음으로 체험하시였던것이다. 그때 쇠스랑과 걸이대를 추켜들고 자신과 나란히 서서 만세를 부르던 흰옷입은 그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전설속의 용사들이였던가. 노도같이 일떠선 그 영웅적인민들은 만경대와 칠골에서처럼 묵묵히 밭을 갈고 씨를 뿌리던 어질고 어진 농민들이였고 해종일 구슬땀을 흘리던 로동자들이였으며 한푼이라도 벌어보려고 아득바득하던 장사군들, 품팔이군들, 아낙네들이였다. 그들에게 싸움에 나서라고 부추긴 사람도 없었고 조국을 잃었으니 땅을 치며 울라고 호소한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목숨을 바쳐야 할 혈전장으로 스스로 달려나갔고 《조선독립 만세!》를 웨치며 피를 쏟았고 주검으로 굳어졌다.

장군님께서서는 가슴속에 차넘치는 민족에 대한 절대적인 긍지를 마음껏 펴내시는듯 열변을 터치시었다.

《력사적으로 놓고볼 때 반제반봉건투쟁의 주력은 언제나 인민대중이었습니다. 수천년 인류력사는 인민대중에 의해 발전해왔지만 유감스럽게도 그의 력사적지위와 사명에 대해서는 어느 기성리론에도 밝혀져있지 않았습니다. 과연 인민대중이 그렇게까지 외면당해도 무방한 보잘것없는 존재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인민은 오랜 세월 사회적예속과 자연의 구속에서 자신을 해방하고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줄기차게 싸워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연과 사회를 개조할 지혜와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나는 혁명을 시작할 때부터 조선의 해방을 위해 영원히 나와 함께 싸울 혁명동지가 인민대중이라는것을 절대진리로 간직하고 오늘까지 인민에게 의거하여 싸워왔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해방된 조국땅에 인민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으며 아무리 어려워도 천대받던 토성랑인민들을 나라의 주인으로 대접해주기 위해 보통강개수공사를 주장하는것입니다.》

슈띠꼬브는 장군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이의 절대적인 인민관에 경탄하지 않을수 없었다. 저렇듯 열렬하게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의 위대성을 확신하는 령도자가 동서고금에 있었던가. 문득 2차세계대전 말기에 히틀러가 했다는 말이 생각났다.

《도이쉴란드인민은 내 목적을 리해하지 못하고있다. 내 목적을 인식하고 실현하기엔 인민이 지내 보잘것없다. 만일 나에게 죽음이 차례진다면 도이쉴란드인민도 죽을것이다. 왜냐면 인민은 나보다 가치가 없기때문이다.》

슈띠꼬브는 그 말을 들으며 역시 정신병자는 어쩔수 없구나 하고 넘겨버렸었다. 지금 그 말이 다시 생각나는것은 하늘땅과 같은 대비적고찰이라는 논리학적사고때문이 아니라 **김일성**동지의 절대적인 인민관을 현대정치인들의 유일한 인민관으로 관통시켜야 할것이라는 흥분과 확신에서부터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보통강개수공사를 단시일내에 끝낸다는데 대해서는 쉽게 믿을수 없었다. 더구나 지금 북조선의 형편에서는 그런 물길공사에 힘을 소모할 때가 아니지 않는가.

《제가 **김일성**동지께 말씀드리고싶은것은 쏘미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남북통일정부수립이 장애에 부딪친만큼 북조선현실에 맞는 정치체제를 공고히 하는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하는것입니다. 저는 쓰딸린동지한테서 정치를 배운 사람입니다. 쓰딸린동지가 현재의 중앙집권적정치체제를 어떻게 마련하였는가 하는것은 **김일성**동지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슈띠꼬브동지는 정치의 본질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시려는것 같은데 나는 거기에 대해선 논의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장군님께서서는 화제가 탈선하는것을 바로잡으시려고 말씀을 시작하시였다. 대화분위기는 자연히 논쟁의 형식으로 바뀌여졌다.

《아시겠지만 맑스-레닌주의에서는 민중이 력사의 창조자이며 력사발전의 결정적력량이라는것을 명시하면서 민중이 정권과 생산수단을 장악하고 민중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는 사상을 처음으로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맑스-레닌주의에서 근로인민대중이 력사의 창조자라는것은 생산발전력사행정에서 민중이 물질적부의

직접적인 생산자이며 생산방식의 모순의 해결자라는 이해를 정식화한것이지 결코 근로대중을 력사의 주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한것은 아니었습니다. 민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 문제는 애당초 정치의 주되는 문제로 전개되지조차 못하고 사회발전에서 경제의 결정적역할이라는 대전제의 논의속에 매몰되어있었습니다. 다시말하면 맑스-레닌주의에서는 정치의 사명을 노동계급의 경제적해방으로 보고 정치운동은 그 수단으로 보면서 국가정권문제도 경제적지배를 위한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맑스의 학설은 노동계급이 경제적지배계급으로 되는데 정치의 목적이 있다고만 보았기때문에 민중이 국가주권의 주인이 되어야 사회의 주인, 정치의 주인이 될수 있다는데까지는 발전할수 없었으며 경제적변혁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한 수단이라는것을 옳게 전개할수 없었다는데 대하여 론증하시였다.

슈띠꼬브는 착잡한 생각에 잠겨 평소의 자신심을 잃어버린듯싶었다.

《나는 지금까지 당사업을 해오면서 정치를 폭력의 은폐된 형태로 이해해왔습니다.》

《해당시기 어떤 정치로선을 제기하든 그 기초에는 자기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과 믿음이 깔려있어야 할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시기의 민본사상이나 중민사상, 민권옹호론과도 구별되는 이민위천의 사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슈띠꼬브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김일성동지께서 보통강개수공사를 중시하시는것은 거기에 이민위천의 사상이 반영되어있기때문이라는거겠습니까?》

장군님께서는 가볍게 웃으시었다.

《글쎄 난 정치가이기 전에 여기 평양에 고향을 둔 한 인간으로서 이 공사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주장하고싶을뿐입니다. 나는 해방된 땅위에 인민의 나라를 세우자는 조선의 공산주의자입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인민대중을 역사의 주체로, 혁명의 동력으로 믿고 인민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것이 과연 잘못된 로선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민은 언제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힘있는 존재였지만 그들이 역사밖으로 밀려나있었던것은 인민이란 존재를 역사무대의 한복판으로 안내할만 한 로선과 령도가 없었기때문이였습니다. 때문에 인민의 힘을 믿고 이 공사를 시작하는것은 방금 슈띠꼬브동지도 말씀하да싶이 북조선의 정치체제를 공고히 하는것과도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인으로 세계무대에 등장할 때까지 기다릴것이 아니라 등을 떠밀어 내세워주는것이 정치가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슈띠꼬브는 확신에 넘치신 장군님께 더 다른 말씀을 드릴수가 없었다. 그러나 과연 조선인민자체의 힘으로 그렇듯 방대한 공사를 장마철전에 끝낼수 있겠는가 하는 의혹만은 말끔히 털어버리지 못하였다.

구진배는 남조선주둔 미군사령관 하지중장을 만나기 위해 대기실에서 기다리고있었다. 그를 여기까지 데리고온 하지의 정치고문 버취는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고는 저 혼자 들어갔는데 한시간이 넘도록 나오지 않고있었다.

대기실은 호화롭게 꾸려져있었다. 천정의 커다란 무리등이며 바람벽에 걸려있는 유럽풍의 회화작품이며 바닥에 깔 주단이며 그리고 자기가 앉아있는 안락의자까지 모두다 사치하고 값진것들이였다. 대기실이 이 정도이니 이제 들어가보게 될 하지중장의 방은 얼마나 화려할것인가.

방음장치가 되어있는 문옆에서는 군복을 입은 금발머리양녀가 타자기를 재깍거리고있었다. 입술이 알팍한 그 녀자는 코도 뽀족하고 아래턱도 뽀족해서 대번에 석기시대의 돌도끼를 연상시켰다. 《돌도끼》는 구진배의 존재는 아예 이 방에 없는것으로 생각하는지 말 한마디 걸어오지 않았다.

꾸어온 보리자루처럼 한쪽구석에 앉아 무료감에 시달리던 구진배는 앞차대에 놓인 재털이를 보자 담배생각이 나서 한대 붙여물었다. 그 순간 타자기소리가 멎고 《돌도끼》가 어느새 구진배앞에 다가왔다. 담배연기를 탐스럽게 들이키던 구진배는 영문을 몰라 올려다보는데 그 녀자는 거만한 자세로 내려다보며 손톱에 물감을 들인 뽀족한 손가락으로 재털이를 가리켰다. 당장 담배를 끄라는 뜻이였다. 구진배는 그만에야 자기의 실수를 깨달았다. 감히 어디서 담배질인가.

기가 질린 그는 삼켰던 담배연기를 내뱉지도 못하고 황급히 담배부터 비벼졌다. 그리고 조심스레 연기를 내보낸다는노릇이 그만에야 사례가 들려 요란하게 재채기를

했다. 재채기를 할 때마다 미개한 동양인을 서양녀자앞에서 망신시키려는듯 고약스런 담배연기는 입에서 코구멍에서 자꾸만 쏟아져나왔다.

재채기바람에 눈물까지 찔끔 쏟아올랐다. 금발머리양녀는 문쪽을 흘끔거리며 《스툼, 스툼!》 하고 낮게 소리쳤다.

기침을 하지 말라는 조선말을 모르니 영어로 서라는 소리밖에 할수 없었던것이다. 그래도 구진배는 그 말을 알아들었다.

여기는 숨조차 마음대로 쉴수 없는 하지중장의 방이라는 공포심이 이겼는지 기침이 딱 멎은것이다.

금발머리양녀는 경멸의 눈초리로 구진배를 한참이나 노려보다가 다시 제자리로 가앉아 타자기를 재깍거렸다.

구진배는 잔등에서 땀이 다 나는것만 같았다. 서기년이 꽤썸했다.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할바에야 왜 재털이를 내놓았는가?

그럼 나만 여기서 담배를 못 피우는가?

그는 자기 차림새를 내려다보았다. 하지중장을 만나게 된다고 해서 격자무늬 회색양복에 나비넥타이까지 맨 신사차림이었다. 마른 명태처럼 뼈뼉 말라서 양복이 몸에 잘 붙지는 않지만 키는 보통사람들보다 머리 하나쯤 더 커서 미군꼭다리들과도 짝지지 않는다. (아이적부터 그는 키가 필요이상 꺾두룩해서 《돌피》라는 별명으로 불리웠다.)

푸시시하게 일어서군 하는 머리카락은 뽀마도를 듬뿍 발라서 척 보기엔 고상한 생각만 깃들어있으리라 믿어지게끔 고상하게 빗어넘겼다. 비싼 《사꾸라》표향수도 뿌리고 구두도 약질을 해서 반들반들했다.

그러나 구진배는 자기가 이 방에서 마음대로 담배를 피울수 있는 큰 인물이 못된다는것, 어제까지만 해도 신익회의 《정치공작대》에서 하수인노릇을 하다가 미군사령부산하 방첩기관인 《귀투》(G2)의 비밀지령으로 북조선에 파견되기 위해 여기에 와있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런데 나를 데려온 버취는 왜 아직 나오지 않는가?)

그 시각 버취는 하지중장에게 북조선에서 계획하고있는 보통강개수공사의 중요성을 납득시키느라 땀을 빼고있었다.

《이 공사는 단순한 치산치수가 아니기때문에 응당 주목을 돌려야 합니다. 만약 이 공사가 북조선수뇌부에서 계획한대로 되는 경우 그들은 큰 정치적리득을 보게 됩니다.》

《어떤 리득 말이요?》

하지는 시종 대수롭지 않은 표정으로 짧게 깎은 회색머리를 급적거렸다.

다소 작은 중키에 딱 벌어진 체격의 하지는 직업적인 군인으로서 당초에 이런 말공부에는 흥미가 없었던것이다.

《각하! 미국은 이미 테헤란과 알파에서 조선은 제힘으로 살아나갈수 없을만큼 락후하기때문에 장기적인 신탁통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모스크바3국외상회의에서도 조선의 통일정부수립을 도와주기 위한 신탁통치안을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쏘미공동위원회를 파탄시킨것은 조선의 통일을 막고 남조선에 친미정권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북조선수뇌부에서는 민족자체의 힘으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데 대한 슬로간을 제시했습니다. 그 첫 사업으로 보통강개수공사를 벌려놓은것만 봐도 **김일성**장군의 정치지략이 얼마나 뛰어난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습니다. 이제 그 공사가 시작되면 백성들은 북조선인민정권에 박수를 보내면서 너도나도 떨쳐나설것입니다. **김일성**장군은 바로 이걸 내다본것입니다. 우리가 내세우려는 리승만이같은 3부류정치인들은 상상도 못할 단수높은 전략이지요. 때문에 이 공사를 파탄시키는것은 북조선의 민중이 인민정권의 두리에 별때처럼 뭉치는것을 방해하는 동시에 조선이 제힘으로 민주국가건설을 할수 없다는것을 인정하게 하는 좋은 계기로 될것입니다.》

하지는 자기의 정치고문인 버취의 정세분석에는 머리를 끄덕이면서도 그의 자신만만한 태도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

《당신의 말에도 논리적타당성은 있소. 그런데 문제를 너무 요란하게 보는게 아니요? 지금 우리에게서 북조선의 치산치수에까지 신경을 쓸만 한 여유가 없소. 당장은 김규식과 려운형의 좌우합작을 성사시키는게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이요.

요새 서울공기가 좋지 않소. 특히 좌익계 언론들이 쏘미공위가 중지된 책임을 따지려들고 리승만의 단독정부수립설을 비판하는 도수가 높아졌단 말이요. 우리는 우익계용사들을 내세워 좌익계 언론들이 쏘미공위가 결렬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폭로하지 못하도록 방비대책을 세워야 하오. 그리고 이번기회에 남한땅에서

공산당세력을 뿌리채 뽑아버리자는거요. 그 전주곡이 될만 한 악보를 하나 만들어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소?》

《노불씨가 위조지폐사건을 잘 꾸며놓았습니다. 좌익계신문사인 <정판사>에서 위조지폐를 찍어냈다는 단서를 꾸며서 그것으로 범위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노불이 하는 일이면 실수가 없을거요. 그리고 서울-인천사이 군용도로건설과 38도선에 이르는 군용도로건설은 어떻게 돼가고있소?》

《지금 인부들을 모으고있습니다.》

하지는 공사가 지연되는게 불만스러워 미간을 찌프렸다. 남조선주둔 군사령관으로 부임되자마자 하지가 제일 관심하는것이 군사기지 건설이었던것이다. 이미 38연선지대들에는 수많은 전호와 철조망, 영구화점들이 전개되어 든든한 방어선이 구축되었고 남조선의 여러곳에서 비행장건설과 군항건설이 시작되거나 계획중에 있었다. 제주도에는 모슬포비행장을 중심으로 여러개의 비행장건설이 다그쳐지고 김포비행장도 B-29폭격기가 뜰수 있게 확장할 계획이었다. 또한 인천, 부산, 진해 등 여러 항만을 개축하여 해군기지로 만들 계획인데 한개의 어장에 불과하던 포항에 3백만달러를 들여 군항으로 확장하는 계획안은 이미 국방성에 제출되어있었다. 이 땅의 실제적인 주인이 되자면 북조선의 강바닥파기공사에나 신경을 쓰지 말고 군사기지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할것이다. 이 단순한 리치를 모르는 버취가 하지의 눈에는 애송이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정치란 이런거요. 말로 안되면 총이 말을 대신하는게 정치의 본질이란 말이요. 나만큼 살고 나만큼 포연내를 맡아보면 내 말을 리해할거요.》

하지는 자기 인생을 궁지롭게 돌이켜보며 학생앞에 선 교사의 심정으로 타일렀다. 아직 젊었으니 모를수 있지. 하긴 저 나이에 정치를 론한다는것도 불행한 일이다. 정치라는게 치산치수나 하는게 아니라 그 비단보자기를 벗기면 피가 량자하다는것을 이 젊은이가 안다면 세상이 얼마나 무서워보일것인가. 나이가 원한살이 되도록 피비린 살륙장만 찾아다닌 덕에 미제24군단 군단장의 자리에까지 올라앉은 하지이고보면 정치와 피를 동의어로 리해한다고 해서 크게 탓할것도 없었다.

그러나 벼취도 하지의 훈시 몇마디에 고개를 숙일만큼 뼈대가 물렁물렁하지는 않았다.

벼취는 미국 오하이오주출신으로서 얼마전까지 하지의 연설문초안이나 써주던 서른살미만의 하급장교였다. 정치도 인생도 뜻내기이지만 야심은 만만치 않아서 운수 좋게 벼락출세를 하자마자 남조선정국을 정치실습장으로 여기고있는 철없는 젊은이였다. 요새는 당년 66살의 김규식에게 찰거마리처럼 딱 붙어가지고 남조선의 한다하는 로정객들을 장기쫓처럼 주무르고있는데 자기가 음모하는 《좌우합작》을 중국에서 마샬원수의 중재하에 벌어지고있던 《국공합작》 회담과 동급에 놓고있는판이여서 방금 하지의 설교에 코방귀를 똥만도 했다.

그는 상전의 정치적감각이 무딘것을 속으로 한탄하며 짹짹하게 말했다.

《저에게도 포연내를 맡아볼 기회가 오면 마다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각하의 정치보좌관으로서 권고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각하는 자신이 조선반도에서 미국을 대표한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는 자기를 역사적인물로 은근히 고여올리면서까지 제 견해를 양보하지 않으려는 버취의 고집스러운 성격이 별로 밍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그 공사가 완공되면 북조선의 인민정권이 강화되는것은 물론이고 남조선의 민심도 북으로 쏠린다는거요?》

버취로서는 그나마도 다행스러웠다. 머리가 천천히 돌아도 제 방향으로 돌기만 하면야...

버취는 자기 말귀를 조금씩 알아먹는 상전을 사뭇 기특하게 생각하며 얼른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각하. 북조선은 김일성장군의 민중정치에 박수를 보내면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자고 합니다. 이런 형편에서 우리에게서 북조선의 공산정권으로 쏠리는 민심을 파괴하는것이 급선무로 나서고있습니다. 때문에 이 공사를 파탄시키면 북조선정권은 민중을 우롱하는 정권이며 미래도 없다는것을 세상에 보여줄수 있습니다.》

《민심파괴라...》

하지의 얼굴에는 점차 심각한 기색이 떠올랐다. 만약 북조선의 보통강토목공사가 것처럼 중대한 정치적의의를 안고있다면 이 공사를 대수롭지 않게 대했다가는 그것이 자기의 정치적암둔성을 폭로하는 실례로 역사에 남을것이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무슨 망신이란 말인가.

하지는 모락가의 자질이 엿보이는 버취를 새삼스레 바라보았다.

《요구되는게 뭐요?》

버취는 그때까지 옆구리에 끼고있던 서류가방에서 알박한 문서를 꺼내놓았다.
구진배의 인물자료였다.

《평양출신으로서 8. 15전까지는 평남도청에 근무하던자인데 작년 11월에
평양대지주였던 부친과 함께 월남했습니다.

<취투>에서 주목하는 인물로서 이번작전의 책임자로 평양에 파견하려고 합니다.》

하지는 우명눈에 돋보기를 걸고 인물자료를 들여다보았다.

《결국은 제 고향을 파괴하러 간다? 아주 비극적이고 재미있는 드라마가 되겠구만.
종소, 내가 이자를 직접 만나보겠소. 그다음은?》

버취는 또 한장의 서류를 가방에서 뽑아들었다.

《평양대표부에 연락하여 일본인들에게서 넘겨받은 X망을 이자에게 배속시키려고
합니다.》

《그건 첩보부제씨들과 토론해보오. 이건 뭐요?》

문건을 훑어내려가던 하지는 두번째 조항을 소리내어 읽었다.

《공작자금으로 일본에서 새로 찍어온 조선은행권 1천만원을 지불한다. 이 돈은
북조선경내에 인플레를 조성하는 작전에도 동시에 리용될것이다.》

버취는 하지가 수표한 문건을 서류가방에 끼워넣으며 조심스레 여쭙었다.

《방금 문건으로 보신 인물을 혹시나 해서 대기시켜놓긴 했지만 그런
스파이급인물까지 각하께서 직접 만나시겠습니까? 차라리 작전이 성공하고 돌아온
다음에...》

하지는 엄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소리를 하는거요? 당신자신이 이 작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방금전에도 말한것 같은데...》

그 한마디로 하지는 이번작전을 방관시켰던 자기의 실책을 메꾸고 상전의 위신도 차린셈이었다. 일이 성공하면 그 공로는 당연히 하지의 몫으로 될것이다.

버쉴는 차렷자세를 취했다가 절도있게 돌아서며 나들문으로 향했다. 구진배는 어깨를 낮추고 문턱을 넘어섰다. 하지의 방은 대낮인데도 창가림을 드리우고있어 응접실보다 더 어둡시근했다. 구진배는 어둡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해서 한참이나 돌미륵처럼 서있다가야 으리으리한 책상너머에 앉아있는 이 방의 주인을 알아보고 허리를 푹 꺾었다.

하지는 우명한 눈으로 구진배를 말없이 지켜보면서 상대의 얼혼을 한절반 뺏아놓고서야 실무적인 표정에 실무적인 어조로 입을 열었다.

《당신이 맡은 임무는 대단히 중요하요. 당신도 짐작하고있겠지만 이 공사는 북조선정부의 선전포스타나 같소. 그네들도 일본사람들이 근 10년동안 해오던 공사를 올해 장마철전에 끝낼수 있다고는 애당초 믿지 않을거요. 어떤 명인이 말하기를 수술칼에 마취제가 따르듯이 집권자에게는 화려한 기만이 따른다고 했는데 이번 경우에 신통히 들어맞는 명언이요. 그러니 당신은 무지한 백성들에게 이것이 공산당의 정치책략이라는것을 폭로해서 그들이 스스로 공사를 태만하도록 해야 하요. 장마철까지 공사를 지연시켜서 공산당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북조선인민정권의 신뢰도를 약화시키는것이 당신의 임무요.》

《만약 공사결과가 우리 뜻대로 안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구진배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레 물었다. 하지는 측은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다가 창문옆에 놓인 원탁으로 다가갔다.

전기싸모와르의 스위치를 넣고 물을 끓이면서 구진배를 다시한번 저울질해보았다.

(불쌍한 인간이군. 저런자에게 과연 작전을 맡길수 있을까? 현실을 진단하는 눈이 어떻게 어두워서야 인간이 어떻게 사는가?)

하지는 구진배에게 자신심을 안겨주려는듯 브라질산커피를 진하게 타서 그앞에 놓아주었다.

《당신은 공연한 걱정을 하고있소. 당신생각엔 그들이 공사를 해낼수 있다는거요?》

《그런건 아니지만 혹시...》

《단순하게 생각해보오. 뚜껑을 열어놓은 꿀단지에 술한 파리들이 하루종일 달라붙어있었는데 저녁에 파리를 날리고보니 꿀은 조금도 축나지 않았소. 이것두 같은 리치요. 해방전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이 같은 일을 하는데 기적이 일어난다 해도 두달동안에는 불가능하오. 지금 이북의 공산주의자들은 일본의 식민지통치에서 해방된 기쁨으로 현훈증에 걸려있소. 건국을 한다고 들썩거리면서 뭐나 다 자신있어 보이겠지. 그래서 자신들을 우상화하면서 인간이 창조자인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창조물이라는것을 망각하고있단 말이요. 그네들은 인간이 과학과 기술에 의거하여 우주만물의 주인으로 될수 있다고 망상하면서 자연의 섭리에 도전하려 하고있소. 그게 가능할것 같소?》

구진배는 자기가 그 단순한 리치도 모르고있었다는 생각으로 얼굴이 확 붉어졌다. 그는 얼른 커피잔을 들고 간장빛이 도는 씩씩한 액체를 한모금 들이키다가 하마트면

식도를 델번 하였다. 얼마나 뜨거운지 저도 모르게 비명이 나왔다. 뜨거운 액체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내장을 익히는듯 했다. 이 지붕밑에서 두번째로 당하는 봉변이었다.

하지는 신사답게 그것을 못 본척 하고 구진배에게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놓아서는 안되오. 당신네 나라 속담에도 개미떼가 동뚝을 무너뜨린다는 말이 있지? 당신은 백성들이 동뚝을 허무는 단합된 개미떼가 되지 못하게 해야 하오.》

하지는 할 말을 다했다는듯 구진배에게 등을 돌려댔다. 그옆에 서있던 버취가 다가왔다.

《당신의 별호는 <싸탄>이요. 성서에 나오는 싸탄은 에덴동산에서 최초의 인간인 이브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고 인류의 조상들이 에덴을 떠나 고행의 길을 걷도록 했소. 만약 싸탄이 이브에게 지혜를 지니도록 도와주지 않았다면 인류는 오늘처럼 지혜로운 인간으로 진화할수 없었을것이고 아직도 짐승들처럼 부끄러운 곳도 가리우지 못하고 살았을거요.

거기에 싸탄의 불멸의 공적이 있는거요. 그러니 당신도 공산정권하에서 맹종맹동하는 불쌍한 백성들을 계몽시켜서 그들이 자유세계를 동경하도록 해야 하오.》

그렇게 말하면서 버취는 자기야말로 진짜 싸탄이 아닌가 하는 느낌에 기분이 야릇해졌다.

구진배에게는 《싸탄》이란 대호가 마음에 들었다.

자기는 정사생으로서 뱀의 직성을 타고났으니까 뱀으로 변신하고 에덴동산에 기여들었던 성서의 싸탄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19

구진배는 저녁어스름이 깃들무렵에야 미군정청에서 놓여나왔다. 바지주머니는 방금 받아넣은 권총이 묵직하게 들어있는데 머리는 텅 비어버린듯 아무 생각도 없었다.

래일 저녁이면 여기를 떠나 평양으로 가야 한다. 《취투》의 모사들은 배천으로 가서 치악산을 넘어야 한다고 그에게 침투경로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 초행길에는 언제나 불안이 따르는 법이지만 그의 심기가 편치 않은것은 북으로 들어가는 경로가 미타해서도 아니고 자기 맡은 임무가 불안해서도 아니였다. 그의 심사가 편안치 않은것은 가문의 리권이 잠겨있는 보통강토목공사를 제손으로 파탄시켜야 한다는 기막힌 처지때문이었다.

하지만 다른 길은 없었다. 미국사람들의 지시대로 작전을 성사시켜야 일신의 영달과 앞날을 담보받을수 있었다. 까짓거, 고향이면 어쨌단 말인가. 고향의 술한 재부를 공산정권에 말짱 빼앗기고 야밤에 술가도주해온걸 생각하면 자다가도 주먹을 쥐고 벌떡 일어나곤 하지 않았던가. 차라리 내가 못 가질바엔 아쉬운대로 말짱 쓸어버려야 한다. 구진배는 이를 사려물었다. 그래도 어쨌든 자기 집재산을 제 손으로 물거품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바로 거기에 구진배의 모순이 있었고 비극적인명이 결정되어있는것이였다.

(내 운명이 왜 이렇게 비참해졌단 말인가?)

해방전에 일본에 가서 사각모를 쓰고다닐 때에는 그래도 제 머리로 사고하고 행동할 권리가 있었다. 그 덕에 당시 대학에서 유행하던 좌익서적을 몇권 읽어보고 그 죄로 경찰에 연행되어가서 고추가루물을 한모금 먹고는 머리속에 조금 잡아넣었던 빨간물까지 말짱 토해버리고말았다.

중요한것은 살아남는것이였다. 맑스의 사상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그것을 목숨과 바꿀수는 없었다.

그때문에 그는 대학에서 왜놈경찰의 손발노릇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고 그 대가로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평남도청의 말직에 앉아 자기의 진짜 주인인 일본거류민단의 생명재산과 리권을 보호해주는 파수병노릇을 해야 했다.

해방후 그는 집안에 들이박혀 전전궁궁하다가 소작료 3. 7제를 반대한다고 기고만장해서 욱욕하는 애비를 겨우 설득시켜 38도선을 넘었다. 해방열에 뜬 백성들이 자기네 등가죽을 벗겨먹던 애비는 물론이고 일제의 고등문관시험합격자로 총독의 표창장까지 받은 철저한 친일파인 자기를 가만놔둘리 만무했던것이다.

그런데 《자유》를 표방하는 남조선에 오면 예전처럼 땡땡거리며 살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남조선의 주인은 미군이였다.

구진배는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는 수밖에 없었다.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는 힘든 길을 포기하고 어제는 일본사람들의 손에, 오늘은 미국사람들의 손에 자기를 맡겨버린것이다. 따지고보면 자기 운명의 생사여탈권은 언제나 자기 아닌 다른 사람들의 손에 쥐여져있지 않았던가. 이제는 다른 길이 없다.

그는 발길 닿는대로 걸었다. 광화문거리를 따라 내려오다가 종로2정목으로 꺾어들었다. 길 양옆으로 처마를 맞대고 들어앉은 식당들과 유흥업소들에서는 초저녁인데도 벌써 불빛이 환하고 사람들의 래왕이 분주해졌다. 하루일에 지친 인생들 혹은 하루종일 유흥가의 도락을 그리며 저녁시간을 기다려온 무위도식자들이 꾸역꾸역 밀려들고있었다. 여기는 야만인의 욕구를 충족시킬수 있는 곳이었다. 여기는 존엄이니, 사상과 리념이니 하는 온갖 관념적인것들은 전혀 무의미한것으로 치부되고 만물의 령장인 인간이 제아무리 신사인체 위선을 떨어도 결국은 짐승의 한 종류에 불과하다는것을 확실하게 증명할수 있는 곳이었다.

구진배는 술생각이 나서 식당간판들을 훑어보다가 《에덴동산》이라는 카바레에 눈길이 끌렸다.

식당안에 들어서던 구진배는 이곳에 왜 《에덴동산》이라는 간판을 내걸었는지 이해되였다. 무대우에서는 선악과를 먹지 못했는지 창피를 모르는 《이브》들이 거의 알몸으로 다리를 흔들대고있었던것이다.

구석에 놓인 식탁에 앉아 술을 마시며 무대를 바라보느라니 무겁던 머리가 개운해지는것 같았다.

(식당이름을 참 잘 달았군. 《에덴동산》에서야 고뇌를 모르고 쾌락만 알수 있지. 저년들이 내가 싸탄이라는걸 알기나 할가. 하긴 여기서야 내가 싸탄이 아니지. 이북에 가야...)

그 생각을 하니 또 머리가 무거워졌다. 그는 괴로운 현실을 잊으려는듯 연거퍼 술잔을 기울였다.

구진배는 어지간히 시간이 흘러서야 식당을 나섰다.

무슨 일이 생겼는지 길 한복판에는 사람들이 몰려서있었다.

구진배는 잡스러운 무리에 섞이고싶지 않아 그대로 지나치려다가 인도로에 멀찌감치 선채로 지켜보았다. 길바닥에는 말이 무릎을 꿇고 엇비스듬히 넘어져있는데 마부가 사정없이 채찍을 내려치고있었다. 채찍을 맞을 때마다 말 못하는 가엸은 짐승은 앞발을 쳐들고 허공을 그러안으며 일어나보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다시 곤두박질을 하곤 하였다. 악에 받친 마부는 미군이 입던 흰 군복저고리앞섶을 제끼고 맵싸게 채찍을 휘둘러대건만 맥이 진할대로 진한 불쌍한 짐승은 커다란 코구멍을 벌름거리며 채찍세례를 고스란히 받고있었다. 커질대로 커진 동공에는 공포와 절망의 빛이 가득 담겼는데 이제는 일어나보려는 시도조차 포기한듯싶었다.

구경군들속에서는 동정과 비난의 목소리들이 끊기지 않았다.

《아이, 불쌍해라.》

《말 못하는 짐승이 무슨 죄가 있다구, 찢찢...》

녀학생복차림을 한 서너명의 처녀애들이 마부에게 들이댔다.

《아저씨, 때리지 말아요!》

《야 참, 때리지 말라는데...》

나중에는 한 녀학생이 격해서 소리쳤다.

《아저씨두 사람이예요? 말이 불쌍하지 않아요?》

마부는 허공중에서 휘파람소리가 나게 채찍을 휘둘렀다. 공기째는 소리가 아츠럽게 들리며 구경군들의 입을 단번에 틀어막았다.

《까불지 말구 제 갈길이나 가. 말이 못 일어서면 죽어! 알기나 해? 다섯식구 명줄이 이 말한테 달렸는데 말이 죽으면 내가 야단이지 너희들이야 무슨 걱정이냐?》

녀학생 하나가 눈이 올롱해서 물었다.

《아저씨! 말이 못 일어나면 왜 죽어요?》

《내가 그걸 알게 뭐야? 너희 선생님한테 물어봐라.》

녀학생들은 더 참견할수 없었다. 구경꾼들은 하나둘 흩어져갔다.

구진배에게는 채찍세례를 받고있는 불쌍한 저 말이 지금의 자기 처지와 일맥상통한데가 있는것 같았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알수 없지만 어쨌든 자기도 제 운명의 고삐를 남에게 맡기고 싫든좋든 힘이 진할 때까지 순종할수밖에 없는 처지가 아닌가.

한참이나 그쪽을 노려보던 구진배는 그 어떤 충동에 떠밀리워 성큼성큼 마부에게 다가갔다. 술기운에 더 대담해졌는지 어쨌든 가슴에 앙금처럼 쌓였던 울화가 한꺼번에 끓어올랐다. 금발머리 서기년에게 멸시당한것도, 버취에게서 받은 열등인종에 대한 모욕감도, 평양으로 가야 하는 자신에 대한 서글픔도 동시에 분풀이할 대상을 찾아냈던것이다. 그렇게라도 자기 운명을 거역해보려는 일종의 몸부림이라고 할지...

《야!》

채찍을 든 마부의 손이 허공에서 떴어섰다. 구진배는 다가서자바람으로 철썹! 하고 마부의 귀뺨을 갈겼다. 또 한번 또 한번...

그리고는 바지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들었다. 마부의 눈이 말눈깔처럼 커졌다. 구진배는 말대가리에 총구를 겨누고 고개를 돌리며 방아쇠를 당겼다.

《땅!》

창출간에 벌어진 일이어서 마부는 미처 만류할새도 없었다. 구진배는 양복주머니에서 돈지갑을 꺼냈다. 거기서 손에 잡히는대로 끄집어내여 마부의 발치에 던져주었다.

대충 짐작으로도 호마 두마리는 살만 한 돈이었다. 마부는 열이 나갔는지 돈을 주어들 생각도 못하고 와들와들 떨기만 했다.

구진배는 그 자리를 떠났다. 속이 좀 후련해졌다. 자기도 만일 죽게 되는 경우에는 머리에 대고 자충하는게 좋겠다는 엉뚱한 공상까지 해보았다. 지금이라도 무의식중에 권총을 이마에 갖다댈것 같아 주머니에서 손을 뺀고 걸었다.

그는 몸의 중심도 잡지 못하고 어두운 밤길을 터벅터벅 걸었다. 인생길이란 이런것이다. 진창에 빠지기도 하고 더러운것을 밟기도 하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면서 갈지자로 가다보면 그게 이미 정해진 운명의 길이라는것을 알수 있는것이다. 그걸 거역해보겠다고 리념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정보로만 걸느라 애쓰는 사람들을 보면 참...

집에 들어서니 늙은 에미는 아래목에 자리를 펴고 누웠는데 애비 구문선은 비단보료를 깔고 사망침에 팔굽을 고인 자세로 비스듬히 앉아 화투로 신수를 점치고있었다. 다 늙은 인생에 무슨 앞날이 있겠다고 야밤삼경에 신수보는 놀음을 하느냐고 한마디 쏘주고싶었지만 한켠으로는 불쌍한 생각도 없지 않았다. 서평양일대의 넓은 땅과 가문의 재산을 기울이었던 보통강토목공사의 리권을 해방바람에 날려보내고 달도 없는 그믐밤에 도적고양이처럼 38도선을 넘어왔으니 그 원통한 생각에 잠이 올리 없을것이다.

언제가면 잃었던 모든것을 되찾을수 있을까? 그때를 알아맞추느라고 남다 자는 깊은 밤까지 닳아빠진 화투목을 놓지 못하고있는것일까?...

구진배는 애비앞에 가앉았다.

《무슨 일이나?》

구문선은 마뜩잖게 물었다. 당대 부모를 거들떠보지도 않던 자식이 전에없던 정중성으로 무릎까지 꿇고 효자의 자세를 취하는걸 보면 긴히 할 말이 있는 모양이었다. 또 놀음돈을 달라는 수작인가?

《아버지, 전 래일 평양에 갑니다.》

《뭐라구?》

구문선은 화투목을 집어던지고 앓음새를 고쳤다.

《평양엘?... 거긴 왜?...》

《평양에서 보통강개수공사를 시작한대요. 미국사람들은 나한테 그걸 파탄시켜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야 공산당의 위신이 떨어지고 백성들이 뭉치지 못한다는거지요.》

보통강에 대한 말이 나오자 구문선은 불편을 실룩거렸다. 잠시 생각하는듯 마는듯 하더니 손바닥으로 제 무릎을 때리며 결패있게 말했다.

《그래, 미국어른들의 뜻이 옳다. 파탄시켜야 해!》

구진배는 아버지의 립장이 선뜻 납득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버지만은 반대할줄 알았던것이다.

《아버지! 보통강토목공사야 아버지가 투자한 대상이 아닌가요?》

《이 시라소니같은 놈아!》

애비는 벼락같이 소리쳤다.

《네놈이 이 꼴을 해가지고도 아직 그따위 감상적인 소리를 하고있어? 공산당이 토목공사를 해서 백성들이 그 덕을 보면 저희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지켜보겠다고 기를 쓰고 덤빌텐데 그럼 우린 영영 제땅을 못 찾아! 우리 세상을 되찾지 못하면 그 공사의 리권도 영영 못 찾는단 말이다! 알기나 해? 그까짓 공사야 우리 세상이 온 다음에 마저 하면 될게 아니냐?》

구진배는 정신이 팔쩍 들었다. 늙은 말이 길을 안다더니 역시 아버지는 아버지였다. 이제는 이발빠진 호랑이처럼 으르렁거리기만 하고 아무 맥도 못 추지만 그래도 아버지에게겐 제나름의 확고한 립장이라도 있다. 그런데 자기는 구차스레 신세타령만 하면서 제 기분에 빠져있지 않았는가. 나 한사람의 존재라는것은 자기가 몸담고있는 계급이라는 큰 그릇에 담긴 모래알에 불과하다는것을 왜 망각했던가.

구진배는 이 공사의 운명이자 자기 가문의 운명이고 자기 운명이며 따라서 이발로 물어뜯어서라도 공산정권이 쌓는 제방을 허물어버려야 한다는것을 똑똑히 깨달았다.

그는 아버지에게 불쑥 물었다.

《아버지, 작인들중에 충실했던 놈이 없어요? 하다못해 어리숙한 놈이라도.》

《충실한 작인이라는건 애당초 말이 안되는것이고 어리숙한 놈을 골라보면... 가만있자... 그건 왜?》

《이번에 가서 손발노릇을 시켜볼가 해서요.》

구문선은 눈을 감고 웃몸을 흔들흔들하며 방금 머리속에 떠오른 소작인의 이름을 생각해내려고 애썼다. 언제 한번 제앞에서 머리를 못 들고 땅을 떼울가봐 찢찢매던

어리무던한 소작인, 평양에서 술가도주하는 날 밤 대동강선창에까지 짐을 지고 따라와
공손히 허리굽혀 작별인사를 하던 소처럼 순한 소작인. ... 이름이 뭐드라?... 구문선은
종시 생각나지 않아 토지문서를 꺼내 벌컥벌컥 뒤졌다.

《그렇지, 오성재! 오성재라고 토성랑에 사는 작인이 한놈 있다. 땅밖에 모르는
무골충이야.》

구진배는 오성재의 빗문서를 달래가지고 제 방으로 건너왔다.

잠자리에 누워서 궁싯거리는데 갑자기 지끈- 하고 벼락치는 소리가 귀를 멍하게
했다. 그는 화닥닥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먹물을 뿌려놓은듯 한 창밖에서는 비소리만
소란스레 들려왔다. 또 한번 새파란 번개가 밤하늘을 엇비슷이 찢더니 파르릉!- 요란한
천둥소리가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무엇이 하늘을 크게 노엽혔는지 천둥소리는 그치지
않았고 창대같은 비줄기는 어두운 공간을 짝 메운것 같았다.

구진배는 마음이 심란해서 제대로 잠들수 없었다. 밤새 악몽에 시달리던 그는
아침일찍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비는 멎고 하늘도 개였는데 집둘레에 파놓은
도랑으로는 흙탕물이 팔팔 흐르고있었다. 그는 뒤정원으로 발길을 옮기다가 그자리에
굳어졌다. 정원의 나무중에서 제일 큰 백양나무가 어제밤 벼락을 맞아 중등이
잘리웠던것이다. 더 섬찍한것은 백양나무에 잠자리를 잡았던 참새들이 땅에 한벌
깔려있는것이였다. 구진배는 등골이 오싹해났다. 이 무슨 불길한 징조인가? 하필이면
내 집에 벼락이 떨어지다니? 하필이면 벼락에 맞아죽은 참새무리를 보자고 여태
아침산보를 모르던 내가 이쪽으로 발길을 했는가.

혹시 이게 앞날의 액운을 예고해주는건 아닐가?...

구진배는 얼른 발길을 돌렸다. 제집 정원에서는 마음대로 발길을 돌릴수 있어도 미국사람들이 정해준 길에서는 제 마음대로 돌아설수 없는 구진배였다.

그날 저녁 구진배는 줄개 한명을 대동하고 배천쪽으로 나와 밤중에 치악산을 넘었다. 두놈 다 큼직한 룡크샤크를 잔등에 짊어졌는데 거기에는 미군첩보부에서 넘겨받은 1천만원의 공작자금이 들어있었다.

이튿날 평양성안에 새여든 구진배는 그날부터 자기 임무수행에 착수했다.

20

리주연은 아침 첫시간에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에 도착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평양광성중학교 강당에서 진행된 보통강개수공사를 전인민적동원으로 완수하기 위한 평양시안의 각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합회의 결과를 알아보시기 위해 리주연을 부르신것이였다.

대기실에는 벌써 여러 사람들이 장군님의 접견을 기다리고있었다. 양복에 넥타이를 맨 신사풍의 사람도 있고 광복천으로 지은 옷을 입고온 로동자복차림의 중년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학생복차림의 젊은이도 있고 낱자를 틀어올린 머리에 치마저고리를 입은 녀인도 있었다.

그중에서도 흰 두루마기에 백고무신을 신고 수염을 한자나 기른 늙은이가 제일 유표했다.

그야말로 각계각층 대표들이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려 진을 치고있는것이였다.

리주연을 잘 아는 리병설이 눈인사를 하고나서 소곤소곤 알려주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지금 종합대학건설기성회 성원들을 만나고계십니다. 벌써 한시간이 넘었는데…》

종합대학이란 말을 듣는 순간 리주연은 가슴이 후터워졌다.

우리 나라에 종합대학이 생긴다! 이 얼마나 희한하고 경이적인 사변인가! 리주연은 문득 장군님을 모시고 평남관개공사장을 돌아보던 때의 일이 생각났다.

그때 장군님께서서는 평남관개공사를 품을 들여 잘해서 우리 농민들이 더이상 물고생을 모르고 농사짓게 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그날 리주연은 단조로운 가요곡만 듣던 사람이 각이한 악사들로 무어진 대관현악단의 장엄한 교향악을 처음 듣는듯 한 무아경을 또 한번 새롭게 체험하였다. 정녕 그이의 말씀 한마디한마디는 건국의 대교향악이였다.

해방후 오늘까지 반년남짓한 기간에 당을 창건하고 인민정권을 세우고 토지개혁을 비롯한 제반 민주개혁들을 실시하고…

그뿐인가 보통강개수공사와 평남관개공사뿐아니라 온 나라 공장, 기업소들을 복구정비하거나 새롭게 일떠서고있는 이 기적같은 현실이 과연 창조와 건설의 교향악이 아니란 말인가.

거기에다 오늘은 또 종합대학을 비롯한 학교와 병원들까지… 참으로 전국의 크고작은 일감을 다 맡아안으신 장군님의 지칠줄 모르시는 정력과 무비의 담력으로 신생 조선은 자주독립국가의 새 모습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모되어가고있었다.

리주연은 자기차레가 되자면 시간이 좀 걸릴것 같아 밖으로 나왔다. 천천히 정원을 오락가락하며 그는 장군님께 보고드릴 연합회의정형을 요약해보았다.

어제 진행된 연합회의에서는 공사를 전인민적동원으로 진행하기 위한 결정서가 채택되었다.

결정내용에는 공사에 동원되는 시민들이 애국심을 발휘하여 노동능률을 높이는 문제, 각 단체들에서 맡겨진 책임량을 기어이 완수할데 대한 문제, 삽이나 곡괭이 같은 노동도구는 각자가 가지고나오며 들것은 현장에서 제공한다는 등 필요한 대책안들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었다.

하긴 장군님께서 연합회의방향을 세세히 가르쳐주시었으니 빈틈이 있을수 없었다. 연합회의결정에 따라 벌써 시안의 기관, 기업소, 공장들에서는 보통강개수공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정치사업이 벌어지고있었다.

리주연이자신도 며칠전부터 동평양지구의 공장, 기업소들을 찾아다니며 개수공사에 대한 소식을 알려주고 사람들을 꺾기시켰다. 그가 동평양지구를 택한것은 해방전에 지구당소조를 결성하고 전민항쟁을 준비하던 시기 함께 싸우던 핵심들이 평양곡산공장, 평양화학공장, 평양고무공장에서 일하고있기때문이었다.

그중에는 평양곡산공장의 임성민도 있었다. 임성민은 리주연의 이야기를 듣더니 자기네 곡산공장에서는 노동자돌격대를 조직하여 공사장으로 달려나가겠다고 으윽했다.

또한 거리와 마을, 학교의 이르는 곳마다에 공사와 관련한 격문, 표어, 설계도, 선전화, 벽보가 나붙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의례히 공사이야기가 기본화제거리로 되고있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보통강개수공사소식으로 온 평양시가 끓기 시작했다. 어제 연합회의과정에 좀 애를 먹은것은 공사지휘부를 구성할 때 신민당과 청우당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적극적으로 나서려 하지 않는것이였다.

거기에는 리주연이 모르는 내막이 있었다.

신민당에서는 연합회의직전에 무기명투서를 받았는데 공산당이 주관하는 공사에 끌려다니면 당의 독자성이 무시되고 창당된지 얼마 안되는 신민당의 존재와 권위가 허물어질수 있으니 심사숙고하라는 내용의 글이 적혀있었다.

당파싸움에서는 오랜 관록을 가지고있던 신민당의 상층부에서는 무기명투서의 내용을 무시할수 없었다.

그래서 처음엔 좀 입비뚫어진 소리를 하했는데 다른 단체대표들의 비판이 화살같고 또 공사에 안 참가하면 당이 민심을 잃을수 있다는것을 고려하여 할수없이 지휘부구성에 참가했던것이다.

청우당지도부에서도 편지를 받았는데 자연을 개조하겠다는것은 한울님을 믿지 않는 공산마귀들의 망동이므로 거기에 동참해서는 절대로 안될것이며 오직 한울님이 창조해놓으신 자연의 섭리에 복종하도록 교인들을 교화해야 할것이라고 써여져있었다. 그래서 공사비용이나 좀 보태주고 돌아앉으려다가 서평양일대에 사는 교인들의 항의가 비발치듯 하는 바람에 안 참가할수 없었다.

그것은 평양에 기여든 구진배가 처음으로 시작한 일이었다.

그는 비교적 점잖은 수법으로 공사를 반대하는 선전포고를 한셈이었다.

《부위원장동지!》

리주연은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생각에서 깨어났다.

리병설이 달려오며 재촉했다.

《빨리 갑시다. 장군님께서 기다리고계십니다.》

《아니, 벌써?...》

차레로 보면 자기가 마지막이 아닌가 하는 뜻이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부위원장동지부터 만나시겠다고 하시였습니다.》

리주연이 서둘러 장군님의 집무실에 들어서니 그이께서는 문가로 마주나오시며
리주연의 손을 잡아주시었다.

《기다리게 해서 안됐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리주연은 장군님으로부터 먼저 인사를 받고나니 송구함을 어쩔수 없었다.

《어제 연합회의가 잘되었지요?》

《예.》

리주연은 가방에서 몇장의 서류를 꺼내여 장군님께 올렸다.

장군님께서서는 의자에 앉으시여 문건을 한장한장 넘기시었다.

연합회의결정서, 평양시인민위원회가 작성한 격문,
 보통강개수공사건국로력동원계획, 보통강개수공사총계획서,
 보통강개수공사소요자재계획, 공사실시요강.

장군님께서는 맨마감에 공사지휘부구성에 참가한 정당, 단체들의 명단을 훑어보시고나서 문건을 한옆에 밀어놓으시며 리주연에게 물으시였다.

《그런데 공사지휘부 각 부서책임자들의 명단은 왜 없습니까?》

《그건 아직 결정짓지 못했습니다. 우선 총책임자부터 마땅한 책임자가 없어서 임명하지 못하고있습니다.》

《그건 왜요?》

《우리 도인민위원회 일군들중에도 이런 큰 공사를 책임지고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장군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왜정때 그런 공사를 맡았던 사람이라면 친일파라는 소린데 어떻게 인민위원회에 있을수 있습니까?》

리주연은 열적게 웃었다. 장군님의 말씀을 듣고보니 애당초 있을수 없는 사람을 찾으려 했던것이다.

장군님께서는 웃음어린 어조로 뒤를 이으시였다.

《난 리주연동무가 공사 총책임을 맡아주었으면 합니다.》

《제가 말입니까?》

리주연은 얼굴에 말끝을 높였다.

《왜 놀랍니까? 경험이 없다는거겠지요?》

장군님께서서는 미리 침을 놓으시고나서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건국을 하는거야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인민이 잘사는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리념밖에 없습니다. 인민을 생각할줄 아는 사람이면 능히 이 공사를 책임질수 있습니다. 난 주연동무를 믿습니다.》

리주연은 장군님의 신임에 감격하여 다른 말을 할수 없었다.

《그리고 현장책임은 장혁수동무에게 맡기는게 어떻습니까?》

《장혁수동무를 현장책임자로 임명한단 말입니까?》

리주연이로서는 선뜻 대답올릴수 없었다. 지휘부를 꾸리는 문제에서 장혁수는 한번도 논의돼본적이 없었던것이다.

일군들은 도인민위원회 토목과에서 적당한 사람을 골라보고있던중이였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공사인가.

장군님께서서는 리주연의 마음을 헤아려보시며 담담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장혁수동무는 보통강과 피눈물나는 사연이 얹혀있기때문에 이 공사의 중요성을 가슴에 새기고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그곳에서 일해오면서 공사장실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있습니다. 주연동무는 그가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도리질하는것 같은데 공사장에 기술부를 따로 두고 매 공사구역마다 기술지도원들을 고정시키는 조건에서 크게 걱정할건 없지 않습니까?》

내가 듣건대는 그 동무가 측량기도 다룰줄 안다는데 그만하면 자격이 있는셈이지요. 내가 장혁수를 부디 추천하는것은 이 공사를 통해서 사람값에 못 들고 지지리

천대받으며 토성랑에서 살던 그를 새 조선의 기둥감으로 키우고싶기때문입니다. 우리가 인민의 힘을 믿고 인민이 주인된 나라를 건설하자고 하면서야 장혁수 같은 사람들을 왜 내세우지 못하겠습니까?》

장군님께서는 공사의 성과적완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것은 대중의 애국심을 발동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선전선동사업을 활발히 벌리는것과 함께 공산당원들이 공사의 앞장에 서야 한다는것을 다시 강조하시였다.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각 구당 및 세포조직들에서 모든 당원들에게 공사의 중요성을 똑바로 알려주고 대중의 모범이 되도록 조직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혁신이 일어나는 곳에는 의례히 공산당원들이 앞장에 서있다는 인식을 주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리주연은 신심에 넘쳐 대답을 올렸다. 장군님의 집무실을 나선 리주연은 장혁수를 만나기 위해 공사장으로 떠났다.

장혁수는 리주연으로부터 자기가 시공책임자로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선뜻 믿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쉬나문명정도되는 사람들을 데리고있었지만 공사규모가 커지면 보통로동자로 일하리라 걱정하고있던 혁수였다. 그도 그럴것이 자기야 배운것도 없고 연설도 할줄 모르고 수판도 튕길줄 모르는 막별이군이 아닌가. 그런데 장군님께서 자기를 직접 천거해주시였다니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까지 천지개벽할수 있을까...

리주연이 떠난 뒤에도 현장사무실에 홀로 남은 그는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공연히 방안을 서성거렸다. 세상이 자기의 존재를 필요로 하고 자기 또한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안다는게 얼마나 행복한가.

평소의 그답지 않게 마음이 들뜬 그는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물걸레를 집어들었다. 아무렇게라도 몸을 놀리지 않고는 건딜수 없었던것이다.

그는 전에없이 열성을 피우며 책상도 닦고 창문도 닦고 영치를 하늘로 들고 황소숨을 몰아쉬며 마루도 닦았다. 이 공사장의 시공주였던 왜놈이 거드름스럽게 앉곤 하던 가죽회전의자는 특별히 품을 들여 닦았다. 이제는 당당하게 이 방의 주인이 되었으니 지난날의 때를 말끔히 벗겨내야 할게 아닌가. 청소를 다 하고 방안을 두리번거리다가 지금껏 거들떠보지도 않던 선인장화분에 물도 주었다. 그것도 하나의 생명체인데 이제는 그 생명이 자기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니 그 화분이 별로 귀중해졌다. 참으로 주인의 눈은 모든것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게 해주는듯싶었다.

한참만에야 청소를 끝낸 그는 슬금슬금 랑수책상앞에 놓인 가죽회전의자에 다가갔다.

그동안 이 방을 쓰면서 한번도 앉아보지 않았던 의자였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의자가 제것이 된것이다.

혁수는 조심스레 의자에 앉아보았다. 다시 일어났다가 깊숙이 들어앉으며 등받이에 편안히 몸을 실었다. 팔걸이에 손을 올리고 한바퀴 빙-돌아보기까지 했다. 그리고는 장난군아이들처럼 행동한게 우스워 저혼자 웃었다.

그는 책상앞에 바로 앉았다. 그 자리에서는 공사장의 전경이 창문을 통해 환히 내다보였다.

그제서야 그는 자기가 이 자리에 앉아 빈둥거릴새가 없다는것, **김일성**장군님께서 자기를 이 자리에 앉혀주신것만큼 일을 많이 해서 그분의 믿음에 보답해야 한다는것을 새삼스럽게 느꼈다.

장혁수는 회전의자에서 일어났다.

봉수산기슭의 장석채취장에 야장간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거기 나가볼 계획이었다.

탕, 탕...

누군가 나들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는 소리였다.

《누구요?》

혁수는 자연히 역증을 냈다. 가만히 손기척만 해도 되겠는데 요란스레 솟을대문 두드리듯 할건 뭐가.

문이 벌럭 열리며 허우대 큰 젊은이 하나가 불쑥 들어왔다.

더벅머리에 광목으로 지은 적삼을 입은 젊은이는 거칠고 감때사나운데가 있어보였다. 이건 어디서 나타난 망아지야...

혁수는 화가 치밀었다.

《여, 문두드리는 법도 몰라?》

젊은이는 피씩 웃는것으로 자기의 거친 행동을 사과했다.

젊은이가 웃는 모습은 어딘가 순진한 구석을 엿보게 해주었다.

《책임자를 만나러 왔수다.》

《책임자는 왜?-》

혁수는 맞갖지 않게 반문했다.

《거기가 책임자요?》

젊은이는 모를 일이라는듯 작업복차림의 혁수를 아래위로 훑어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본 책임자들은 다 양복을 입었던데...》

혁수는 웃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니까 난 책임자같지 않다는거야?》

《글쎄 뭐...》

젊은이는 량해를 바라듯 또 순진하게 웃었다. 혁수는 은근히 뺨이 꼰졌지만 젊은이의 솔직성을 탓할수는 없었다.

방금 현장에 나가려고 옷저고리를 벗어놓은 그는 베천으로 만든 돌쩌바람인데다
 꿈무니에는 땀에 절은 광목수건을 차고있어서 올데갈데없는 공사판의
 인부차림이었던것이다.

《그래 어떻게 왔소?》

《여기에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요.》

《그럼 일하러 왔단 말지요?》

《예!》

혁수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졌다. 일하러 온 사람이 그에게는 제일 반가웠다.

《앉으라구, 이름이 뭐가?》

혁수는 젊은이에게 의자를 권하고 제자리에 가앉아 노트를 펼쳐들었다.

《리명덕이요.》

《집은 어딘가?》

《문수리요.》

《무슨 일을 하겠나?》

《특별히... 해방전엔 징용으로 만주에 가서 광산일을 했수다. 남포질이라면 눈감고도 자신있지요. 지금은 샅짐이나 지면서 살지요. 요즘엔 하루종일 역전에 나가있어야 샅짐군 쓰겠다는 사람도 없어요.》

장혁수는 펜대를 놓았다.

《그럼 자넨 여기 돈벌이하러 왔단 말인가?》

이번에는 명덕이가 의아해졌다.

《그게 뭐 어쨌어요?》

《허참. 이 청맹과니같은 친구야, 여긴 돈받구 일하는데가 아니야!》

《그건 무슨 똥판지같은 소리요? 일 시키구 돈 안 주는데가 어디 있소?》

혁수에게는 명덕이를 말로 납득시킬 자신이 없었다.

《어쨌든 돈벌이하러 왔다면 썩 물러가! 여기는 애국로동을 하는데란 말이야! 세상일에 영 깜깜이군.》

명덕이도 지려 하지 않았다.

《그럼 먹구 사는건 어떻게 하오? 뭘 먹구 일하는가 말ियो? 가족은 어떻게 하구? 책임자한텐 가족이 없소?》

불시에 혁수는 의자를 탁 밀어제끼고 일어섰다. 회전의자는 드르륵- 밀려나가다가 바람벽에 부딪쳤다. 혁수는 돌덩이처럼 틀어진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사나운 눈길로 명덕을 노려보았다. 이 녀석은 어찌자고 남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가.

혁수는 으르렁거리는 맹수마냥 이발을 악물고 나직이 말했다.

《나가! 어서 나가!》

방안의 공기는 험악해졌다. 명덕은 책임자가 왜 갑자기 성났는지 알수 없었다. 어쨌든 그냥 버티고있으면 좋은 일이 없겠다는것을 그는 룡감적으로 알아차렸다. 그는 별수없이 사무실을 나왔다.

21

명덕은 바지주머니에 손을 지르고 스적스적 걸었다. 오늘은 아침부터 서평양역에 지계를 지고 나와있었지만 열차운행이 제대로 안되는 때여서 아직 좁쌀 한봉지값도 못 벌었다.

동료샅짐꾼들이 보통강개수공사를 한다고 하기에 공사장에서는 의례히 품삯을 주는줄 알고 갔다가 하마트면 책임자라는 사람과 드잡이판을 벌릴번 한것이다.

(오늘은 재수가 없군.)

명덕은 속으로 투덜대며 이새로 침을 짹 내쏘았다.

하για 스물다섯해를 살아오면서 재수좋은 날이 몇번이나 있었던가. 명덕의 계산에 의하면 우선 세상에 태어난것부터가 재수없었다. 이렇게 지지리 못살줄 알았으면 애당초 세상에 나오지부터 말았어야 했다. 그다음은 어릴적에 어머니를 잃은것이 불행중의 불행이었다.

홀아버지슬하에서 명덕은 제대로 입지도 먹지도 못하면서 잡초처럼 자랐다. 났히우고 뜯기우고...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그다음 또 재수없는것을 꼽으라면 체통이 남보다 큰것이였다. 제 배는 제가 책임져야 했던 세월에 그 큰 배를 무엇으로 채우군 한단 말인가.

그 모든 재수없는것들이 그의 성격을 규정해주었다. 리씨가문의 씨가 좋아서인지 명덕은 늘쌍 거친 음식만 먹으면서도 뼈대가 굵어져서 열서너살부터는 골목대장노릇을 했다. 그는 거칠게 성장했다. 싸움질도 하고 때로는 도적질도 하고... 그것이 그의 운명이였을가? 한번은 패거리들과 함께 성안에 들어갔다가 대동문앞에 당책을 펴놓고있는 점쟁이령감과 마주앉은적이 있었다.

《내 신수 좀 봐달라요.》

령감은 명덕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보며 물었다.

《몇살인가?》

《열여섯.》

손님이 없어 심심해하던 령감은 이 햇강아지같은 녀석이 장난삼아 제앞에 마주앉았다고 생각했었다.

《그 나이에 사주팔자를 보겠다니 임자 인생살이가 꽤 힘든게로군.》

령감은 붓을 들고 명덕이가 부르는대로 모년 모월 모일 모시라고 적었다. 그리고는 당책을 후르르 번져 적당한 장을 펼쳐놓고 한참 들여다보는척 하다가 머리를 흔들었다.

《씩 씨원치 앓군. 임자팔자엔 놀러다닐 날이 없어.》

《왜요?》

《왜라니? 팔자가 그렇다는거야. 세월은 각박한데 체통은 크지 않나. 남보다 큰 배를 채우자면 많이 먹어야겠지? 그러자면 남보다 많이 벌어야겠지? 그러자면 남보다 많이 일해야겠지? 그러자면 남보다 많이 먹어야 할게구...》

점쟁이령감은 명덕에게 패를 지어 몰려다니지 말고 근면하게 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에게는 먹기 위해 일하고 일하기 위해 먹어야 하는 무골충의 인생으로 규정되고말았다.

명덕의 뒤에 호위병마냥 울타리를 치고있던 패거리들중의 아이하나가 참지 못하고 키득거렸다. 힘세고 왈패스러운 자기네 대장이 앞으로 대단한 인물이 될줄 알았는데 결국은 죽을 때까지 자기와 같은 하바닥인생으로 살게 되리라는것을 오늘에야 알았던것이다.

명덕의 눈썹은 대변에 사나와졌다. 대장의 위신을 떨구는 이런 현상은 허술히 넘길수 없었다.

명덕은 벌떡 일어나며 수염점쟁이령감앞에 놓여있는 쪽상을 짚신발로 내리찍었다. 네모난 쪽상은 형체없이 박살났다. 그다음에는 돌아서면서 방금 키득거리던 녀석에게 한주먹 안겼다.

《재수없게시리.》

그런데 더 재수없는것은 그후에도 점쟁이령감의 말이 잊혀지지 않는것이였다.

특히 배안에서 쪼르륵소리가 날 때면 그때 들어두었던 그 말이 귀안에서 새나오곤 했다. 많이 먹어야 하고 그러자면 많이 벌어야 하고... 자기 팔자가 정말 그렇게 규정되어있단 말인가? 그는 서글프고 분한 생각이 들었다. 남들처럼 큰 부자가

되자는것도 아니고 밥이나 굶지 말자는건데 세상이 그것마저 모르쇠를 하면 이거야 너무하지 않은가. 그에게는 사실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기준이 단순했다. 그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하루 한끼라도 뜨끈한 토장국에 보리밥 한그릇 때려눕히고 찹쌀한 건뎡이것을 찍어먹는것이였다. 그런 날은 재수가 좋은 날이였다.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모든 재수없는것들이 인간의 존엄을 지켜주는 제 나라가 있으면 하루아침에 없어진다는것을 그는 오늘까지 모르고 살아왔었다. 해방이 되었다고는 하나 품팔이군인 그에게 밥걱정은 여전하고 재수좋은 날은 별로 없었던것이다.

서평양역사 앞마당에는 서너명의 샛짐꾼들이 지게를 눕혀놓고 마주앉아있었다. 명덕이가 다가가자 그중 나이든 지게꾼이 성급하게 물었다.

《벌써 오나? 그래, 공사를 한다는게 적실하지?》

《예.》

《하루에 얼마씩 준대?》

《돈을 안 준대요, 애국로동이라던지...》

품팔이군들에게는 애국로동이란 말이 귀에 설었다. 그 말의 의미를 대충 짐작들은 하고있었지만 거기에 담긴 깊은 뜻은 알수 없었다.

《그러니 그제 해방전 부역과 비슷한게로구만.》

다들 그 말이 그럴사해서 덤덤히 침묵을 지켰다.

명덕은 여기서 하루해를 다 보낼수 없어 맡겨두었던 지게를 한쪽어깨에 걸쳤다.

《난 본역쪽에 가보겠수다.》

《거기라구 낫겠나?》

명덕은 아무 대꾸없이 떠났다. 거기 가면 혹시 진남포쪽으로 다니는 《히까리》 혼합렬차라도 맞다들릴수 있었던것이다.

인홍리를 지나던 그는 길옆에 사람들이 몰켜서있는것을 보고 웬일인가 해서 다가갔다. 해방전에 담배전매국이었던 건물의 바람벽에 큼직한 공시문이 나붙어있는데 오가던 사람들이 목을 빼들고 읽어보는것이였다.

명덕은 거치장스러운 지계때문에 사람들의 복새통에 끼울수 없었다. 설사 가까이 가본댔자 글을 모르니 읽어볼수도 없었다.

《뭐라구 썼어요?》

그는 제앞에서 서성거리는 사람에게 물어보았다.

《나두 잘 모르겠소. 인민위원회에서 방을 붙였다는데 보통강토목공사를 한다던지...》

보매 그 사람도 글을 모르는것 같았다. 그 사람은 궁금증을 못 참겠던지 앞에 몰켜선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거 누가 좀 크게 읽었으면 좋겠수다.》

《웁수다. 그래야 글 모르는 사람도 알게 아니요?》

그러자 몸매가 호리호리하면서도 강기가 있어보이는 고수머리의 젊은이가 나섰다.

《내가 크게 읽을테니 다들 조용하십시오!》

《조용합시다!》

조용해진 가운데 그 젊은이가 격문을 읽었다.

《보통강개수공사를 급속히 완수하기 위하여 40만 평양시민에게 격한다.

…시민여러분! 나라를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동포여러분! 꺾기하여 보통강을 개수하자. 삽과 팽이를 들고 보통벌로 나가자.

우리의 건설을 방해하는자 인간이든 자연이든 모조리 제거하자....

평양을 지키는 제방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제방이다. 장마철전으로 공사를 완공하기 위하여 건국로력동원을 하자....

젊은이가 격문을 다 읽고나자 모여섰던 사람들은 와- 하고 떠들어댔다.

《이젠 보통벌사람들이 물란리를 면하게 됐구만.》

《난 공사가 시작되면 선참으로 나가겠소!》

《**김일성**장군님정치가 아니문야 생각이나 해볼 공사요?》

《그런데 장마철이 코앞인데 꽤 해낼가요?》

허름한 밀짚모자를 쓴 농군차림의 장정이 실없는 소리 한마디 했다가 곤욕을 치르었다.

《이 량반은 격문을 듣구두 얼빠진 소리를 하고있어?》

《남들은 다 하자고 하는데 어디다 찬물을 끼얹어.》

그 말에는 밀짚모자도 가만있을수 없었던지 껍 성을 냈다.

《뭐가 어째? 나두 보통강물란리때 쪽박차고 나앉았던 놈이야! 공사가 시작되문 춤을 추며 달려나갈판이란 말이요! 남의 속은 알지도 못하고...》

격문을 읽어주던 젊은이가 나서서 시비를 갈라주었다.

《물론 왜놈들이 질질 끌던 공사를 두달동안에 해낸다는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평양시민들이 한마음으로 달라붙으면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군님께서 이번에 축지법을 쓰실게 분명하니 우린 장군님께서 하라는대로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웁소!》

사람들은 저마다 흥분한 기색으로 주먹을 부르쥐었다. 방금 몰리우던 사람도 남보다 두뿔, 세뿔 하겠다고 열을 올렸다.

명덕은 아까부터 주변의 분위기에 섞이지 못하고 격문을 읽어주던 젊은이만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 젊은이가 안해인듯싶은 여자와 그 자리를 떠날 때에야 명덕은 자신없는 소리로 물었다.

《거 성민형 아니우?》

젊은이는 뒤로 돌아서더니 명덕을 대변에 알아보았다.

《명덕아!》

두사람은 길가던 사람들이 보든말든 서로 붙어잡고 돌아갔다.

《살아있었구나, 자식!》

《형님두 무사했군요!》

임성민은 함께 가던 여인을 명덕에게 인사시켰다.

《여보, 인사하오, 해방전에 류치장에 갇혔을 때 사귄 친구요.》

복상스럽게 생긴 성민의 안해는 수줍은듯 얼굴을 붉히며 다소곳이 인사를 했다. 명덕이도 남자를 틀어올린 여인에게 꾸벅 절을 하였다.

《형수님, 절 받으시우.》

생각지 않았던 《시아우》 한테서 절을 받은 여인은 입을 싸쥐며 한옆으로 비켜섰다.

임성민은 대타령리에 사는 장모가 앓아서 병문안을 갔다오는 길이라고 했다. 부부간의 정이 무척 각별한것 같았다. 임성민은 제잡담 명덕의 팔소매를 잡고 가까이에 있는 음식점으로 끌었다.

그들은 해방전에 대동경찰서 류치장에서 낮을 익힌 사이였다.

그때 명덕은 장마당에서 왜년의 돈가방을 털다가 붙잡혀왔고 임성민은 평양곡산공장에서 파업을 선동했다는 죄로 잡혀와 재판을 기다리고있었다. 류치장이라는게 감옥으로 가기 전의 중간정류소 비슷한 곳이었다. 말하자면 지옥의 문어구름 되는 곳이여서 거기서는 인간성이라고 일컫는 어떤 고상한 감정도 통하지 않았다.

그때 잡범들속에 섞여있던 임성민은 제일 어린 명덕을 친동생처럼 위해주었었다. 명덕은 강제로동 3개월이라는 형을 언도받고 먼저 류치장에서 나갔다가 후에 만주로 징용에 끌려갔고 임성민은 1년간 평양감옥에서 옥살이를 했다. 그렇게 헤어져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을 모르다가 문득 만났으니 두사람의 해후가 반가울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막걸리사발을 앞에 놓고 그간의 회포를 나누었다.

임성민에게는 안해와 자식이 있고 온전한 직업이 있었다. 명덕이보다는 안정된 생활을 하고있는셈이었다.

《난 해방이 돼서야 처음으로 사는 재미를 느꼈네. 장군님께서는 우리같은 노동자들이 공장의 주인이 돼야 한다고 하셨거던. 그래서 우린 왜놈들이 파괴한 용광로를 복구해서 제 손으로 쇠물을 뽑았어.》

명덕은 부러운 어조로 물었다.

《임금은 얼마나 주나요?》

임성민은 명덕의 질문을 탓하지 않았다.

《아직은 얼마 안돼. 하지만 우린 돈을 벌자고 건국을 하는게 아니야. 그런데 자넨 어떻게 사나?》

임성민은 식탁밑에 벗어놓은 지계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나야 뭐... 샅짐이나 지지요.》

《조금만 참으라구. 앞으로는 잘살게 될거야. 자네두 품팔이나 하지 말고 공장에 들어가 로동계급이 되라구. 우리 공장에 오겠다면 내 도와주지. 건국을 하는 애국자가 되자면 로동계급이 제일이야.》

《애국자요? 내가 무슨...》

명덕은 당치않은 소리라는듯 고개를 젓더니 막걸리사발을 기울였다. 애국자란 말이 자기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있었던것이다.

자기가 안중근렬사같은 애국자가 될수야 없지 않는가.

그는 애국자가 될 자신도 없었고 또 되고싶지도 않았다. 나라를 사랑했다는 《죄》로 쇠고랑을 차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사람들을 제눈으로 보면서 그는 불행한 조국을 사랑한 애국자는 막벌이군인 자기보다 더 불행하다는 자기식의 괴이한 《진리》를 발견했었다.

막바지인생을 살아온 명덕이에게는 아직 해방이 안고있는 크나큰 의미를 다 이해할만한 능력이 없었던것이다. 임성민은 아연해졌다. 애국자가 돼야 한다는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한단 말인가? 애국자가 되는데 무슨 리유가 필요하단 말인가?...

임성민은 험악한 지난 세월이 제모양대로 빔어던진 정신적기형아를 측은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얼음덩이처럼 차고 이지러진 그의 세상살이태도가 쉽게는 변하지 않을것이라는것을 느꼈다. 하지만 반드시 변할것이다. 해방의 따스한 봄바람이, 건국의 뜨거운 열풍이 명덕이라고 그냥 놔둘가 보냐....

그들은 아쉬운 마음으로 헤어졌다. 임성민은 명덕에게 지계를 지워주며 곡진하게 말했다.

《어쨌든 너두 건국의 앞장에 서야 해. 우리같은 사람들을 위한 세상을 만드는 일이 아닌가. 지금 온 평양시가 보통강개수공사에 대한 소문으로 끓고있어. 자네두 거기 나와보면 애국자가 된다는게 어떤건지 알게 될거야.》

명덕은 오전에 거기 갔됐다는 말을 차마 할수 없었다.

그는 자기도 동원증을 받으면 공사장에 나가야겠구나 하고 생각하며 어깨나란히 멀어져가는 임성민네 부부를 부러운 눈길로 바라주었다.

명덕이와 헤어진 임성민은 안해와 함께 가루개를 지나 대동교쪽으로 천천히 걸었다. 집이 강건너 선교리에 있어서 아직 갈길이 멀지만 그는 안해를 재촉하지 않았다. 오히려 눈앞에 펼쳐진 모란봉의 아름다운 자연속에 잠깐만이라도 잠겨들고싶었다. 이미 철 지난 진달래는 신록이 한껏 짙어진 모란봉을 천연색으로 채색할 소임을 다하려는듯 아직도 붉게 피여있고 산기슭에 파아란 주단처럼 펼쳐진 잔디밭에도 노랑고 하얀 이름모를 작은 꽃잎들이 다문다문 박혀있었다. 저 잔디밭우에 안해와 나란히 앉아있느라면 동화의 나라에 온것처럼 느껴질듯싶었다.

여태 평양에서 살아오면서도 성민은 모란봉의 경치가 이렇게 아름다운줄 몰랐었다.
하긴 해방전해야 언제 자연을 감상할 여유가 있었던가.

성민은 해빛이 재글거리는 잔디밭을 가리키며 안해의 의향을 물었다.

《힘들지 않소? 우리 저기에 좀 앉았다 갈가?》

《괜찮아요. 가다가 장마당에 들러야겠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안해도 자연의 유혹을 물리치기 힘든지 모란봉쪽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다.

《아차, 순일이 신발!...》

임성민은 오늘 아침 아들 순일에게 운동화를 사주마 약속했던걸 깜박 잊고있었던것이다. 그는 안해의 검정고무신을 내려다보며 머리를 기웃거렸다.

《운동화를 사고 돈이 좀 남을가?》

《왜 그러세요?》

《돈이 남으면 당신것두 하나 사자구. 녀자들이 옥색코고무신을 신은게 보기 좋더군.
》

《아이참... 난 일없어요.》

안해는 도리질을 하면서도 복상스런 얼굴에 미소를 함뱌 머금었다. 안해의 행복한 표정을 보느라니 성민의 마음도 봄날처럼 따뜻해졌다. 불행한 두 인생이 한가정을 이룬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부부는 동네사람들이 부러워할만큼 금술이 좋았다.

안해에 대한 성민의 사랑이 얼마나 끈적했는지 첫아이 순일이를 낳을 때 입심 센 산파가 했다는 말이 재미있었다.

《에그, 너편네 신음소리가 그렇게 애처로우면 만들기는 왜 만들었누?》

제정신이 아니었던 성민은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중얼거렸다.

《다시는... 다시는...》

그 말이 동네에 퍼졌지만 사람들은 성민을 놀려주지 않았다. 정말로 그는 아이가 더 생기는것이 두려웠다. 제입 하나 건사하기도 어렵던 때여서 자식을 낳기도 힘들었지만 키우기는 몇배 더 힘들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해 겨울, 그날은 전선줄이 추위를 하소하며 뽁뽁 울고 눈보라가 살을 에이는 설날 그믐날이었다. 성민은 아침도 못 먹고 하루종일 기대앞에서 땀과 기름을 짜내다가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래일은 설날인데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집안에 들어서니 마치 구실 못하는 세대주가 무슨 체면에 찾아드느라고 뽁기를 풍기듯 썰렁한 기운이 그를 맞아주었다. 뽁감이 떨어져 어제 저녁부터 불맛을 못 본 구들은 얼음장같았다. 안해는 낳은지 한달밖에 안되는 어린 자식을 꼭 품어안고 기척없이 누워있었다. 누데기몽치같은 이불을 들추면 체온으로 덥히고있는 온기가 빠져나갈가봐 남편이 들어와도 일어나지 못하고있는것이다. 갓난아이도 이 집안의 유일한 열원인 엄마품에서 떨어지면 얼어죽는다는것을 본능적으로 알고있는듯 눈 못 뜬 강아지처럼 엄마 젖가슴에 딱 달라붙어있었다. 하지만 변변히 먹지 못한 안해가 무슨 젖이 나오겠는가.

이밤의 추위를 강조하는듯 문풍지가 뽁뽁 울고 양철지붕이 덜컹덜컹 소리를 내는 음산한 저녁이었다. 성민은 추위때문이 아니라 이러다가는 자식을 죽이겠다는 생각에

빠가 저려들어 벌떡 일어섰다. 뚜렷한 목표는 없지만 생활전체에 대한 울분이 대동맥을 흐르는 피와 합류하면서 온몸을 끓게 하였다.

말없이 집을 나선 성민은 대동교를 건너 외성혈액은행으로 달려갔다. 그가 안해와 자식을 위해 할수 있는것이란 자신의 육체를 소모시키는것뿐이었다. 피를 판 돈으로 얼마간의 쌀과 나무 한단을 사들고 다시 대동교를 건너오던 그는 정신이 아찔해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맵짠 칼바람은 다리우에 맥없이 앉아있는 성민을 날려보낼것처럼 기승을 부렸다. 바람이 얼마나 세찬지 눈을 뜨기도 힘들고 숨쉬기도 힘들었다. 성민은 자기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내심의 물음에 대답할수 없는것으로 하여 더 숨이 막히는듯싶었다. 앞으로도 이렇게만 살아야 한다면 차라리 이제 당장 대동강에 떨어지고말가? 그럼 안해와 자식은?...

지겨운 삶을 아예 끝장내버리고싶던 그 순간에 마침 다리를 건느던 사람이 웬일인가 해서 다가왔다.

《여보시오!》

《...》

《어서 일어나오. 이렇게 앉아있다간 얼어죽소.》

그 사람이 바로 장군님의 령도밑에 평양지방에 파견되어 전민항쟁준비를 다그치던 리주연이었다. 성민으로서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은인을 만난셈이었다. 리주연은 성민을 부축하여 집에 데려다주었고 가슴을 탕탕 치며 세상을 저주하는 그에게 새삶의 의욕을 돋구어주었다.

《동무는 주먹으로 눈물을 씻으며 한탄만 하지 말고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되찾기 위해 싸워야 하오. 성민동무! 그 주먹을 더 단단히 틀어쥐시오.》

일찌기 아버지를 잃고 열네살부터 소년로동으로 잔뼈를 굳혀오면서도 로동계급의 존엄과 권리에 대해 생각해보지 못했던 성민은 그때부터 리주연이 지도하는 혁명조직에 망라되어 목숨을 내대고 싸웠다. 해방후에는 일본놈들로부터 공장을 지켜냈고 첫 당세포의 당원이 되었다. 그때부터는 지난날 자신없었던 생활의 모든것에 자신심을 가지게 되고 행복에 대한 욕심도 커졌다.그는 증산투쟁에서 누구보다 앞장에 섰고 곡물선전사업과 토지개혁때에도 농촌에 파견된 로동계급답게 일을 잘했다.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일은 다 자기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것이고 장군님께서 하라는대로 하면 매사에 틀림없다는 믿음이 그에게 불같은 열정을 안겨준것이다.

사창장마당입구에 들어서니 풍로를 걸어놓고 지짐부치는 냄새, 군밤냄새가 코를 간지럽히고 사방에서 싸구려를 웨치며 북적대는 소리가 귀를 메게 했다.

평양성안에서도 제일 크다고 하는 사창장마당에는 농토산물같은건 말할것도 없고 일상 생활용품도 없는것이 없었다. 어떤 때는 용도조차 애매한 외국상품까지 잡화매대에 한자리 차지하는가 하면 고려청자거나 발톱이 생생한 범가죽까지 나타나군 해서 서울의 룡주비전보다 결코 못하지 않은 장거리로 소문이 났었다.

임성민은 봄비는 사람들속을 헤집고 신발매대로 찾아왔다. 차일을 쳐놓은 신발매대도 너댓군데나 되었다. 머리에 허름한 중절모를 올려놓은 갱뽕한 중년사내가 장사군의 예민한 감각으로 신발사러 오는 사람들을 영낙없이 붙잡군 했다.

《한컬레 사시우. 막늑거리웨다.》

성민은 다른 매대를 구경할새없이 첫 매대에 붙잡혔다. 널직한 매대에는 오른쪽에 운동화와 지하족이 차곡차곡 쌓여있고 왼쪽에는 고무신들이 남녀별, 문수별, 색깔별로 놓여있었다.

안해는 아이들의 흰색운동화를 골라들더니 보통이에서 한뼘 될가말가한 막대기를 꺼냈다. 아침에 아들애의 발기장을 켜 막대기였다.

《꼭 맞군요. 이거 얼마예요?》

《3원만 내시우.》

안해는 물론 성민이도 약간 의아해졌다.

《그렇게 녹어요?》

《본전만 받자는거우다.》

《그건 왜요?》

《잘 모르시는 모양이군. 이제 며칠 있으면 소비조합상점이라는게 생겨난답디다. 그럼 우리같은 장사꾼들이 뭘 하겠수? 그래서 나두 전에 받아두었던 상품이나 본전에 처리하고는 건국사업을 해보자는거우다.》

신발장사군은 생김새나 체통을 봐선 인심이 넉넉할것 같지 않은데 보기와는 판판이였다.

임성민은 운동화매대에서 물러나 고무신을 쌓아놓은 곳으로 다가갔다. 속으로 돈계산을 해보니 안해의 옥색코고무신도 넉근히 살수 있었던것이다. 가장자리에 흰색으로 테를 두른 옥색코고무신은 볼수록 탐이 났다. 지금껏 짚신이나 검정고무신밖에 신어보지 못한 안해가 저걸 신으면 얼마나 곱고 산뜻해보일가.

임성민은 안해에게 맞을만 한 고무신을 고르다가 무심중 옆에 차려놓은 철물매대에 눈길을 돌렸다. 웬 사람이 삽 한가락을 골라들고 재질을 가늠해보며 하는 소리가 귀전에 들려왔던것이다.

《삽날이 쉿쉿 소리를 내는걸 보니 쇠가 참 좋다. 얼마라구요?》

《5원이우다.》

《그럼 두가락을 주시우. 그런데 쌀값에 비하면 너무 낮은것 같다. 그러다가 장사밑천 털리지 않겠수?》

번대머리 철물주인은 흥! 하고 코방귀를 끼었다.

《나로 말하면 평생 돈을 쫓아다닌 사람이우다. 말하자면 돈을 잡는 방법을 좀 알지요. 하지만 손님두 보통강개수공사를 한다는 소문을 들었겠지요?》

《그래서요?》

《장사꾼이라구 돈만 아는줄 아시우? 요샌 너두나두 공사장에 나간다면서 삽을 요구하는데 이때다 하고 값을 올리면 내가 사람이요?》

임성민은 어느새 철물매대에 다가섰다. 삽을 만져보니 정말로 쇠가 좋았다. 보매 평천리 병기공장에서 군수강으로 뽑은 강철로 만든 모양이었다. 그런데... 성민은 아쉬움을 금할수 없었다. 자기도 삽 한가락 사고싶은데 그러면 안해와 아들의 신발을 살수 없었던것이다.

성민은 안해쪽을 피땀 돌아보다가 자기를 주시하는 눈길과 딱 마주쳤다. 안해는 아들의 운동화를 손에 들고있었는데 이쪽에서 하는 소리를 죄다 들은것 같았다. 안해는 잠시 이쪽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운동화를 내려놓고 다가왔다.

《삽이 정말 좋아요?》

《좋구만. 우리 공장에서도 아직 이런 쇠는 부어보지 못했소. 이런 삽이라면야 굳은 땅도 문제없지.》

《그럼 한가락 사세요. 아무래도 공사장에 나가려면 삽이 있어야지요.》

안해는 주저없이 보통이를 헤치고 돈을 꺼냈다.

《아니, 여보...》

《됐어요. 순일이신발은 다음번에 사지요.》

안해는 남편의 마음을 다 안다는듯 생긋 웃어보이며 보통이에 삽을 싸들었다. 그리고는 제먼저 남편의 팔소매를 잡아끌었다.

《이젠 가지요.》

성민은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그 정황에서는 어떤 설명도 필요치 않았던것이다. 그저 안해가 여느때없이 더 소중하고 더 사랑스럽게 안겨올뿐이었다.

장마당을 나와서야 성민은 안해에게 한마디 했다.

《여보, 고맙소.》

《고맙긴요.》...

다음날 임성민네 공장에서도 보통강개수공사에 돌격대를 무어 내보내는 모임이 있었다. 너도나도 공사장에 나가겠다고 쇠장대를 다루던 구리빛팔뚝을 높이 쳐들었다. 그 모임에서 임성민은 평양곡산공장 돌격대장으로 임명되었다.

22

온 평양시가 보통강개수공사소식으로 끓기 시작하자 반대로 구진배의 마음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공사소식에 접한 백성들의 기세가 그렇게 열광적일줄 몰랐던것이다. 그동안 구진배는 《취투》에서 넘겨준 현지의 반공단체와 손을 잡고 조심스레 일을 벌려나갔다. 그는 이 단체의 우두머리인 로이문의 집 움속에 거처를 정하고 신민당과 청우당에 협박편지를 보냈고 줄개들을 시켜 류언비어를 퍼뜨리게 했다. 현재 공사지휘부 자재과에 틀고앉은 로이문이가 그런 요설을 고안해내는데는 비상한 재주를 가지고있었다. 로이문은 옛날에 하루밤 목어간 어느 길손에게 몸을 맡긴 주막집 딸이 세상에 뱉아놓은 사생아였다. 애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다 에미라는게 기생노릇을 하면서 자식을 키우다보니 로이문은 어릴 때부터 막되게 자라면서 무서운 악돌이로 변했다. 그는 해방전까지 평북 정주에서 투전판, 싸움판, 술놀이판에 안 끼우는데 없이 빈둥거리면서 《경방단》 제복까지 얻어입었었는데 왜놈들이 달아나면서 부랴부랴 무어준 반동단체인 X망에 소속되어 평양으로 나온 작자였다. 어쨌든 로이문은 날 때부터 법을 어기고 나와서인지 마흔고개를 넘어선 오늘까지 인간세상의 법과 룰리를 조롱하는 못된 재간만 키워온 놈이었다.

로이문이가 《동원증을 태워 재를 먹으면 아이 못 낳던 녀자들이 임신할수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고 자랑삼아 말할 때 구진배는 쓰겁게 웃어버리고말았었다.

류언비어를 퍼뜨려도 심각하고 무게있는 말을 퍼뜨려야지 치사하게 그따위 미신적인 소리나 췌치고 다니는것이 제가 듣기에도 시시하게 느껴졌던것이다. 그런데 웬걸... 문수리의 어느 아낙네는 남편의 동원증을 몰래 훔쳐서 태워먹고 그것도 성차지 않아 옆집 세대주의 동원증까지 훔치려다 발각되었다느니, 평천리의 어느 바보는 자기 동원증을 제 손으로 태워서 너편네한테 먹었다느니 별 기막힌 소문들이 다 들려왔다.

이제 와서 구진배는 로이문의 되박이마를 무심히 볼수 없었다. 량미간이 특별히 좁고 눈은 메밀눈인데다 코날은 별스레 길어서 어딘가 기형적인감을 주는 로이문이 반들반들한 되박이마를 살살 문지르며 알팍한 입술을 나풀거릴 때 보면 천하에 더러운 궁리는 더럽게 생긴 놈이 더 잘 지어낸다는 생각이 들군 했다.

그까짓 생김새는 어쨌든 되박이마를 자꾸 문질러서 더러운 요설을 자꾸 쏟아내라, 똥이 더럽기는 해도 밭에 내면 더없는 보약이다. 로이문의 요설에 백성들이 당황해서 공사장에 나가기를 주저한다면 그만한 장중보옥이 어데 있으랴.

구진배는 등사기를 구해다 뼈라를 찍어 살포하는 등 활동을 보다 적극화해야겠다는 생각이 피뚝 떠올랐다. 그것이 소극적인 행동으로 보일수도 있겠지만 깊이 생각해볼수록 그 이상의 고급한 명안이 없었다. 이번 일은 테로나 폭동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아니라 민심파괴라는 단수높은 작전인것만큼 서빨리 총질이나 하다가는 반동들의 책동을 경계하는 판에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수 있었다. 그는 자기의 궁리가 스스로도 만족스러웠다. 버취도 임무를 주면서 구체적인 행동씨나리오를 못 내놓지 않았는가. 하긴 중위견장을 단 젊은 군인에게서 어찌 이런 지성적인 작전안이 나올수 있겠는가.

구진배는 줄개들에게 등사기의 행처를 탐문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등사잉크, 종이 등 세부적인것들까지 놓치지 않았다.

깊은 밤이었다. 구진배는 서너명의 줄개들과 함께 정의고녀건물에 접근하였다. 이 학교에 등사기가 있다는것을 알아내였고 밤에는 령감 혼자서 경비를 선다는것도 미리 정찰해두었던것이다.

주변은 고요하였다. 밤하늘의 별들만이 학교바람벽에 붙어선 검은 그림자들에게 제발 나쁜짓을 그만두라고 경고하는듯 불안스레 깜박거릴뿐이었다.

교사정문에는 예견했던대로 빗장이 걸려있었다.

줄개 하나가 각본에 따라 경비실창문을 탕탕 두드렸다.

《누가 없소?》

안에서 무슨 일인가고 묻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집 아이가 아직도 집에 오지 않아서 찾아왔수다.》

경비실에 불이 켜지더니 나이지긋한 경비원이 복도로 나왔다.

《아이가 집에 안 왔다구요?》

《예, 2학년에 영심이란 애를 알지요?》

《나야 모르지요. 좌우간 학교엔 남아있는 애가 없수다.》

《그럼 담임선생네 집이라도 좀 대주시우.》

경비원은 부모의 안타까운 심정이 리해되어 군말없이 빗장을 벗기고 밖으로 나왔다. 그때를 기다려 문옆에 붙어있던 검은 괴한들이 우르르 밀려들었다.

《이... 이건... 무슨 일들이요?》

구진배는 눈이 화등잔만 해진 경비원에게 날이 선 단도를 들어댔다.

《등사기가 어디 있어?》

그제서야 경비원은 이놈들이 나쁜 놈들이며 이제 곧 무서운 일이 벌어지리라는것을 예감했다.

《음, 그랬구나. 이 반동새끼들아!》

다급해난 구진배는 경비원의 배허벅에 무작정 칼을 박았다. 《쌍놈의 두상!》

경비원은 소리도 못 내고 허리를 꺾으며 쓰러졌다. 악당들은 복도에 쓰러진 경비원을 타고넘어 안으로 쓸어들어갔다.

《찾아라!》

미친놈들의 지랄이 시작되었다. 와당탕, 와지끈... 조금후에 줄개 한놈이 교장실 서류함에서 등사기를 찾아냈다.

《빨리!》

악당들은 들어올 때처럼 우르르 밖으로 몰려나갔다. 좁은 현관에서 서로 먼저 나가겠다고 밀치다가 등사밀대가 떨어진것도 알지 못했다. 뒤에서 따라나오던 구진배가 요행 그것을 집어들었다.

《바보같은것들!》

복도에 쓰러졌던 경비원은 반동들이 도망치는것을 보고만 있을수 없었다. 한놈의 바지가랭이라도 붙잡았으면 좋으련만 그럴 힘도 없었다. 그는 복도에 진한 피자육을 남기며 한치한치 기여서 현관문턱을 넘어섰다. 그리고는 남은 기력을 다 모아 바람벽을 짚고 일어섰다. 어둠속을 손터듬하여 기적적으로 종문을 잡아당겼다.

《땡그라-앙-》

다시, 다시, 또다시 종을 쳤다. 때아닌 깊은 밤중에 불규칙적으로 땡그랑거리는 종소리를 듣고 시내를 순찰하던 보안서원들이 달려왔을 때에는 이미 반동놈들의 그림자도 찾아볼수 없었다.

이틀후부터 시내에는 보통강개수공사를 반대하는 삐라들이 여기저기서 휴지장처럼 날려다녔다.

《보통강개수공사는 공산당의 낫내기이다. 속지 말라!》

《애국로동은 왜정때 강제로동과 같다!》

《공산당원들만 십장을 시킨다!》...

구진배는 제법 머리를 썼다. 그는 삐라의 내용에 따라 어떤것은 민주당의 명의로 쓰고 어떤것은 신민당의 명의로 또 어떤것은 공산당의 명의로 썼다. 인민정권으로 쏠리는 민심을 들물처럼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자면 그런 거짓말이 효과가 있을것 같았다. 그 말을 백성들이 그대로 믿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하고 머리를 기웃거리며 동요하기만 해도 큰것이였다.

민주당이나 신민당에서 삐라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느라 소동을 피우고 그통에 서로 구겨진 마음들을 다림질하느라면 그만큼 공사속도가 늦어질것이고 장마가 닥쳐올것이다. 그러면 만사는 뜻대로 되는셈이다. 그러나 구진배는 강물의 용용한 흐름을 조약돌 한두개로 막을수 없다는 단순한 리치를 망각하고있었다.

사람들은 아침마다 어지럽게 날려다니는 뼈라를 주어모으면서 보통강개수공사가 단순한 자연개조사업이 아니라 하나의 심각한 계급투쟁이라는것을 더 똑똑히 깨닫게 되었다.

23

공사에 대한 소문으로 제일 충격을 받은 사람은 오성재였다.

그는 중성리에 있는 정근식의 사랑채에서 불편없이 살고있었다. 자기가 살던 토성랑웁막에 비하면 불편없는 정도가 아니였다. 정근식의 내외가 인정이 각박하지 않은데다 자기를 여기로 데려온 수영이는 어찌나 마음이 착한지 말이 모자랄 지경이였다.

로친의 병이 하루하루 호전되여갈수록 오성재는 이젠 어디 가서 살아야 할가 하는 근심이 점점 더 커갔다. 로친의 병이 나은 뒤에야 무슨 립치로 이 집에 눌러있겠는가. 토성랑에 다시 가고싶어도 땅을 버린 놈으로 락인이 찍혀있어서 거기에도 갈 체면이 못되였다.

그동안 오성재는 자기가 부여받았던 땅을 매일 돌아보군 했다.

그것도 대낮에는 가보지 못하고 점심참이나 날이 어슬해질 때 멀찌감치에서 바라보며 한숨을 쉬다가는 돌아서군 했다.

한뼘 땅을 다루어온 농사꾼에게 제땅에 대한 미련은 검질긴것이여서 제살붙이를 남에게 떼운것만 같아 밭길이 저절로 거기로 향하곤 했던것이다. 봄을 맞아 다른데서는 밭을 갈고 두엄을 내고 씨를 뿌리는데 자기가 분여받았던 땅은 묵묵히 주인을 기다리고있었다. 그러니 올해는 그 땅을 묵이게 된것이다. 오성재로서는 후회가 막급했다.

그때 자기에게 무슨 귀신이 붙어서 그런 미련한짓을 했을가.

그런데 하루는 수영이가 로친의 약을 가지고 방에 들어왔다가 별 희한한 소리를 전해주었다.

《아저씨, 보통강개수공사를 시작한대요.》

《허허... 뜯소문이겠지.》

오성재가 믿으려 하지 않자 수영은 자기가 들은것을 그대로 알려주었다.

《정말이에요. 올해 장마철전으로 공사를 끝낸대요. 그래서 설계두 다시 한대요.》

그래도 오성재의 귀는 열리지 않았다. 모를 소리다. 한달전에 혁수를 만났을 때에도 아무 소리 없지 않았는가. 더구나 장마철전에 공사를 끝낸다는게 어디 리치에 닿는 소린가. 암만 헛소문이라두 그런 왕청같은 소리를 누가 믿겠는가.

이튿날 또 제땅을 보러 나갔던 오성재는 자기 눈을 의심했다. 술한 사람들이 제땅에서 벽적거리고있었던것이다. 밭을 가는 사람, 달구지로 두엄을 내는 사람, 호빠를 쥐고 밭이랑을 고루는 사람... 아뿔싸!

오성재는 그만 무릎을 꿇고 풀썩 주저앉았다. 제땅이 종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간것이다. 이제는 정말로 제땅을 되찾을수 없게 되었다.

그날부터 오성재는 머리를 싸매고 끙끙 앓았다. 어쩌면 자기 팔자는 이렇게 꼬이기만 하는가.

어제 저녁 퇴근해온 수영이는 머리를 싸매고있는 오성재에게 마지막일격을 가했다.

《아저씨, 내 말이 맞았어요. 보통강개수공사를 당장 시작한다고요.》

《영?》

오성재는 눈을 홑떴다.

《오늘 시인민위원회에서 <보통강개수공사 건국로력동원령>을 발표했어요. 5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대요.》

수영은 오성재가 기빠하리라고만 생각하고 자기가 보고들은것을 빼놓지 않고 말해주었다. 오성재는 아예 울상이 되었다. 도대체 이런 때는 기빠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던것이다.

(내가 청맹과니였어. 한치앞을 내다보지 못해서 땅을 내놓다니....)

그리고보니 엇그제 그 땅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개수공사를 한다는걸 확실하게 알고있었던것이 분명했다.

오성재는 앉은자리에서 꼬박 밤을 새웠다. 한숨과 담배연기로 방안을 채우며 평생 손해만 보며 살아온 자기의 기구한 팔자를 한탄했다. 따져보면 자기는 여태 생활에서 리득이라는걸 모르고 살아왔었다. 어느해 봄인가 보통강여울목에서 알쓸이를 하려고 풀숲에 들었던 잉어가 얇은 물에서 철벽대는것을 호미날로 때려잡은것이 제일 큰 리득이었을가? 아니면, 아니면?... 종시 생각나는것이 없었다. 사람이 이렇게 복이 없어서야 어떻게 살고...

이른아침에 오성재는 조반을 드는둥 마는둥 하고 장혁수를 찾아 떠났다. 가서 공사를 한다는게 사실인지 속 시원히 물어보고 애꿎는 심정을 하소하고싶었다. 그런다고 땅을 되찾을수는 없겠지만 아무에게나 제 속을 터놓지 않고서는 답답해서 견딜수 없었던것이다.

공사장사무실에 찾아간 오성재는 수영이가 한 말이 헛소문이 아니라는것을 알았다. 사무실앞에 세워놓은 큼직한 공시판은 전에 본적이 없던것인데 거기에는 《보통강개수공사 건국로력동원계획》이 나붙어있었다.

글을 모르는 오성재가 그것을 읽어볼수는 없었지만 극도로 예민해진 감각으로 그게 공사와 관련된 글이라는것쯤은 짐작할수 있었다. 사무실의 문썩마다에도 전번에는 볼수 없었던 패쪽들이 걸려있었는데 그것은 지휘부가 구성되면서 기술부, 시공부, 동원부, 자재부 등의 문패를 써붙인것들이였다.

마침 장혁수가 사무실에서 나왔다.

《이 사람, 혁수!》

《성재형님!》

장혁수는 오성재를 와락 붙어잡고 격해서 물었다.

《어딜 갔댔수? 장군님께서...》

그는 어안이 병병해있는 오성재에게 장군님께서 공사장을 찾아주신 사실과 땅을 묵일가봐 걱정하신데 대해 자초지종 이야기했다.

《다시 말해주게, 그게 참말인가?》

그날 저녁 오성재는 정근식의 살림방으로 건너갔다. 그는 오늘 자기가 보고 들은것을 죄다 이야기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자기 행방을 찾으시였고 자기가 받았던 땅을 묵이지 않도록 하시였다는 전설같은 이야기를 두서없이 말했다. 자기가 어떻게 그 전설의 주인공이 될수 있었는지는 오성재도 모르는것이여서 그저 나타난 현상만 이야기했다. 정근식내외와 수영은 오성재의 이야기가 하도 기이해서 이것저것 물어볼념도 않고 듣기만 했다.

《그래서 토성랑집으로 돌아가야겠어요. 그간 이 집에서 입은 은혜는 내 죽어도 잊지 않겠수다.》

정근식은 으흠 기침을 하고나서 점잖게 만류했다.

《이왕 살림을 펴놓았던건데 그대루 살게. 임자네가 나가면 또 빈방이 되겠는데 마음에 부담받지 말구 눌러있게.》

《그렇게 하세요. 아직은 아주머니병두 깨끗해지지 않았어요.》

수영이가 진심으로 권고하고 정근식의 처도 오성재를 만류했다.

《우리한테 뭐 언짢은거라도 있는게 아니유?》

《아이구, 주인마님. 무슨 말씀...》

《아니라면 그대로 있어요. 집두 봐주는겸...》

그러나 오성재는 이미 마음을 굳히고있었다. 자기를 넘려해주는 이 집주인들의 진정은 고맙기 이룰데 없고 그래서 죽어도 그 은혜만은 갚고 죽으리라 생각하고있지만 더이상 여기에 얹혀있을수는 없었다. 제땅이 아직 제 이름으로 남아있고 장군님분부가 계시여 남들이 씨앗까지 물어주었다는데 이제부터라도 그 땅에서 밤낮없이 살아야 할게

아닌가. 그러자면 분여지에서 가까운 토성랑집에 옮겨앉아야 했다. 더구나 공사가 완공되어 토성랑에 물란리가 없어지면 제 살던 집을 품놓고 꾸려야지 언제까지 남의 집 사랑방신세를 지겠는가.

정근식은 오성재의 마음을 짐작했는지 더 권고하지 않았다.

오성재가 사랑방으로 나간 뒤 정근식은 새까맣게 먹칠한 지구의를 빙글빙글 돌리며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모를 일이다. 이 땅에서 정말로 백성들에 대한 무관심의 력사가 끝장났다는게 모를 일이야. 저 보통강의 물길을 돌리듯이 수천년 흘러오던 수난의 력사를 비틀어 돌려세워 백성을 위한 사랑의 새 력사가 흐르게 한다는게 믿어지지 않는구나.》

정근식은 지구의에 한손을 얹고 혼자생각에 잠겨있다가 빙그레 웃으며 수영에게 물었다.

《수영아, 저 사람 이름이 뭐라고?》

《오성재예요. 갑자기 이름은 왜 물으세요.》

《흐흠, 옛말이 하나 생각나서 그런다.》

《옛말이요?》

방금전까지 심각해있던 외삼촌이 갑자기 옛말이라니?...

수영은 호기심이 동해 외삼촌을 바라보았다.

《옛날 어느 한 마을에 큰 부자가 살았단다. 그 부자네 집에서는 먹다남은 찌꺼기를 대문밖에 있는 오물장에 버리곤 했는데 거지 하나가 늘 그 오물장에 붙어살았지. 그래도 부자는 그 거지를 시끄럽다고 쫓아버리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특별히 생각해서 동냥을

준적도 없었다. 거지는 평생 오물장에서 찌꺼기를 먹으며 살다가 죽고 부자도 살만큼 살고 죽게 되었다. 거지와 부자는 나란히 하느님앞에 끌려갔단다. 부자는 생각했지. (저 거지는 지금까지 내 덕에 살아온셈이니 난 당당히 천당에 갈수 있겠구나.) 하고 말이다. 그런데 하느님은 거지만 천당으로 보내고 부자는 지옥으로 보냈단다. 그래서 부자가 항의했지.

<하느님! 난 이승에서 착한 일을 했습니다. 저 거지도 우리 집에서 버린 음식을 먹으며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어째서 거지만 천당으로 보내고 나는 지옥으로 보냅니까? 이건 불공평합니다.>

그러자 하느님이 물었단다.

<너는 저 거지의 이름을 아느냐?>

<모릅니다.>

<그것 봐라! 거지가 네 덕에 오늘까지 먹고살수 있는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것은 저 거지에 대한 무관심때문이었지 네가 거지를 동정해서 그리한것은 아니였다. 차라리 네가 단 한번이라도 저 거지에게 관심을 돌려서 오물장에서 쫓아버리기라도 했다면 나는 너를 천당에 보냈을거다. 그러나 너는 그 거지도 사람이라는 사실을 한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지. 그래서 나는 너를 용서할수 없다. 인간의 가장 큰 죄악은 같은 인간에 대한 무관심이다.>

그래서 그 부자는 지옥으로 갔다더라.》

수영은 외삼촌이 왜 그런 옛말을 하는지 알수 있었다.

외삼촌은 지금 오성재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오늘의 현실을 보았고 그 현실이 너무도 아름다운데 놀랐던것이다.

지구전체를 인간사랑의 불모지로 대해왔고 이 세상의 앞날에 대해서 어떤 기대조차 가지지 않고 살아왔는데 오성재에게서 들은 전설같은 이야기는 그의 허무주의적인 생활관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며 지금껏 본적 없던 아름다운 새세상을 분명히 약속하고있었던것이다.

수영이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외삼촌에게 **김일성**장군님께서 토성랑주민들의 생활을 얼마나 심려하고계시는가 하는것을 운상에게서 들은대로 이야기해주고싶었다.

그런데 수영이자신도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이상의 충격은 받았지만 이 땅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화폭의 본질을 자기것으로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고 따라서 현실에 대한 자기의 정확한 견해를 세우지 못하고있었다. 운상을 만나면 자기가 모르는것들을 좀 물어보기라도 하련만 그 사람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24

평양광성중학교 강당에서 개수공사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합회의가 있는 뒤 평양시당에서는 확대회의를 소집하고 당원들이 공사에 앞장설것을 호소했으며 그로부터 이틀후에는 시민총동원령이 공시되었다.

또한 광범한 대중이 새로운 로동관념을 가지고 공사에 자원적으로 참가하도록 하기 위한 선전요강들이 작성되어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들이 활발히 벌어졌다. 그런 환경에서 공사지휘부에서는 수정한 설계도를 놓고 공사량을 확정하였으며 공사계획을 세분화하였다.

우선 지휘부에서는 넓은 공사구간을 다섯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공사량에 맞게 로력공수를 배정하였다. 개수공사의 기본작업은 새 통수로 굴착과 제방공사로 이루어졌다.

형제산쪽에서 봉수산기슭을 감돌아흐르던 보통강줄기를 꺾어돌리자면 새 통수로를 곧추 켜서 봉수산허리를 자르고 새로 낸 물길에 연결시켜야 했다.

이 공사량을 완수하자면 연 백만명의 로력으로 60만립방의 토량을 처리해야 하였다.

지휘부에서는 공사과정을 두 단계로 구분해놓고 매 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중심과업을 확정하였다.

제1단계공사는(5. 21-6. 15) 보통강의 물줄기를 새 물길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새 통수로의 강바닥을 굴착하는데 중심을 두면서 제방을 쌓아올리는것이였다.

2단계공사(6. 16-7. 30)에서는 새 물길로 통수로가 연결된 조건에서 제방을 높이 쌓고 튼튼히 다지며 통수로를 더 깊이 파고 강폭도 넓혀야 했다. 이와 함께 위험구간들에는 장석을 입혀야 하고 수문공사도 해야 했다.

정작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하면서 마음먹고 달라붙으니 공사량이 아름차보이기는 해도 두렵지는 않았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쏘미공동위원회를 파탄시킨 미제와 리승만도당의 국토분열책동을 규탄하는 평양시군중대회를 소집하시고 전체 인민이 나라의 민주주의적발전을 가로막는 온갖 반동세력을 물리치고 새 조국건설투쟁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시였으며 군중대회에서 양양된 시민들의 기세를 늦추지 말고 지체없이 보통강개수공사를 벌릴데 대해 가르치시였다.

그리고 착공식을 정치적의의가 있게 잘해야 한다는것과 그를 위한 대책적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김책, 리주연을 비롯한 일군들은 시내 공장, 기업소들을 찾아다니며 착공식준비를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해나갔다.

리주연은 선교공업지구를 말아가지고 나갔다가 평양곡산공장의 준비정형을 알아보고는 어성을 높이였다.

곡산공장로동자대렬이 착공식에 들고나갈 구호판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것이다.

《여보, 임성민동무! 로동계급이 만들었다는 구호판이 왜 저렇게 쪼물썩하요? 동무넌 공사장에서 말은 일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게 아니요? 이 공사를 단순한 토목공사로 봐선 안된다구 몇번이나 강조했소? 장군님께서는 착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으로 새 조선건설을 시작했다는것을 온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하시였소. 그러니 <민주건설 만세!>라는 이 구호를 대문썩같이 큼직하게 써서 저 하늘높이 들어올릴 생각을 왜 못하는가 말이요?》

통을 맞은 임성민은 얼굴이 벌개서 고개를 수그렸다.

착공식을 하루 앞둔 날 리주연은 시인민위원장을 비롯한 일군들과 함께 공사현장에 나왔다. 장군님께서 착공식에 몸소 참가하시겠다고 말씀이 계신것만큼 사소한 빈틈도 없게 행사준비를 해야 했던것이다.

그들은 공사장전경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곳에 착공식자리를 마련했다. 널판자와 각목을 잘라 주석단을 만들고 모임장소 곳곳에 구호판들과 기발들을 세웠다.

혁수는 신바람이 났다. 그는 주석단으로 오르는 계단을 만드느라 팡! 팡! 망치질을 하며 리주연에게 물었다.

《부위원장동지! 정말 꿈만 같습니다. 글썄 장군님께서 착공식에까지 참가하신다니… 참…》

《그렇소, 이런 일은 세상에 없을거요!》

리주연이도 자기의 흥분을 표현할 말이 없었다.

착공식장을 꾸리는 일은 저물녘에야 끝났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나려 하지 않았다.

리주연은 래일 착공식에서 발표할 로동규정에 대한 해설문을 오늘 밤중으로 끝내야겠기에 아쉬운대로 떠났다.

그날 밤 그의 집에서는 불이 꺼질줄 몰랐다. 리주연은 로동규정에 대한 해설문을 제대로 쓸수 없었다. 한것은 도녀맹선전부장을 하는 안해 김운죽이 래일 착공식에서 녀맹을 대표하여 토론을 하게 되었는데 그 토론문을 도와달라고 자꾸 방해를 놓기때문이었다.

《당신이야 처녀때부터 웅변술이 좋다고 소문났는데 나한테 뭘 도와달라고 성화요?
》

리주연의 말은 사실이였다. 처녀시절 김운죽은 여성조직인 근우회의 명천군대표로 서울전국대회에 참가하여 봉건의 질곡과 왜놈의 압제에 짓눌려있던 여성들의 가슴을 류창한 웅변으로 활 열어제껴 만사람의 박수갈채를 받았었다.

당시 신간회상무위원으로 서울에 올라가있던 리주연의 귀에까지 그 소문이 흘러들어와 두사람의 인연이 맺어지게 되었던것이다.

안해는 평소의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남편에게 매달렸다.

《우리 여자들끼리 하는 회의라면 걱정없겠는데 장군님께서 직접 참석하신다니 토론문을 어떻게 써야 할지 하나도 생각나지 않아요. 혹시 실수라도 하면 어찌겠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리주연은 할수없이 자기가 쓰던것을 밀어놓고 안해에게 돌아앉았다.

《그럼 토론문을 보기 전에 당신 옷차림부터 보자구. 래일 무슨 옷을 입고 나가겠소?
》

《아니, 그건 왜요?》

《장군님앞에 어떤 차림으로 나서겠는가를 생각 못했단 말이요? 당신은 여성이란 말이요.》

남편의 말투가 엄해지는 바람에 안해는 자신없는 표정으로 얼버무렸다.

《난 그저... 회의때 입군 하던 밤색양복이면 어떨지...》

《그건 불합격이요. 장군님을 모시고 진행하는 큰 정치행사에 늘쌍 입던 양복차림으로 나서겠단 말이요? 안되오! 치마저고리를 입소. 아니, 이제 당장 입어보우.》

《이제요? 래일...》

《입어보라는데...》

리주연은 안해를 강박하다싶이했다.

《입어보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큰소리를 치면서... 당신답지 않게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매사에 사려깊고 리해심이 풍부한 남편에게 습관되었던 김운죽은 여느때없이 흥분한 남편의 태도에 어지간히 당황스러워지기도 했고 불만을 느끼기도 하였다.

《당신은 내가 왜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소? 이건 장군님을 모시는 자세문제란 말이요.》

그는 개수공사문제가 제기된 때부터 오늘까지 자기가 체험하고있는 크나큰 세계를 안해앞에 그대로 펼쳐놓았다. 리주연은 일찍부터 **김일성**장군님의 항일유격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을 조선민족이 낳은 탁월한 군사전략가로 흠모해왔었다. 그러다가 단천군 도덕사에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직접 만나뵙고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받아안으면서부터는 장군님을 군사가로서만이 아니라 위대한 정치가로, 조선혁명의 진정한 수령으로 받들어모시여왔다.

장군님을 받드는 길에 민족의 장래가 있다고 믿었기에 그는 장군님의 전민항쟁로선을 받들고 평양일대에서 맹활약을 하였고 해방후에는 조만식일당을 비롯하여 저저마다 새

조선의 주인이랍시고 연락을 두드릴 때에도 오직 **김일성** 장군님의 평양입성만을 애타게 기다려왔었다.

이번에 장군님께서 보통강개수공사를 발기하시었을 때 리주연은 그것이 위대한 인간으로서의 장군님의 진심이라는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장마철전으로 공사를 해낼수 있다는 확신도 못 가졌다.

리주연은 점점 자기의 흥분을 견잡지 못했다.

《사실 나도 장군님의 뜻을 한치 에누리없이 받들자면 아직 멀었소. 지난해말에 북조선행정10국을 조직하고 처음으로 토론된 문제가 소금문제였다는걸 당신도 알겠지? 나라의 형편이 그토록 어려운 때에 장군님께서서는 동해안인민들의 겨울김장용소금을 걱정하시여 그런 조치부터 취해주신거요. 그게 쉽게 이해될 일이요? 올해 2월에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를 조직하고 제1차회의 의정에 연필문제도 제기하실 때 난 정말 놀랐됐소. 그러니 보통강개수공사도 제2의 소금문제, 제2의 연필문제나 같다고 할수 있지.

당신은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주어야 하오. 그리고 장군님을 진심으로 받들자면 이 공사에 자기를 깡그리 바쳐야 한다는걸 말해주오. 인민이 주인된 나라를 인민자신의 힘으로 일떠세우시려는것이 우리 장군님의 유일한 건국공식이요. 우린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공식에 충실해야 하오. 결국 보통강개수공사는 건국의 경락혈이라고 말할수 있지. 세상은 보통강을 통해서 우리 인민을 제일 사랑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위인상을 알게 될것이고 새 나라의 참모습을 보게 될것이요.》

25

이른아침부터 봉수산기슭의 착공식장으로는 흰옷입은 사람들의 물결이 끝없이 밀려들었다.

장마철이면 시뻘건 황토색물이 바다물처럼 넘실대던 이 골안에 이렇게 많은 인종이 끓어보기는 오늘이 처음이었다. 벌써 주석단앞마당과 공사장바닥에까지 대렬이 늘어섰는데 《건국의 의기로 보통강을 개수하자!》라고 쓴 프랑카드를 앞세운 대오가 서평양조차장다리를 넘어오고 팔동교를 넘어오는 대렬은 그에 뒤질세라 각종 구호판에 팽과리를 쳐대며 밀려들었다. 사람들의 어깨와 어깨에서는 삼날이며 곡괭이날들이 해빛에 번쩍거리며 대오의 힘과 위풍을 더해주고있었다.

착공식장은 물론이고 봉수산기슭까지 공사장의 곳곳에 《김일성장군 만세!》, 《북조선로동시인민위원회 만세!》, 《모두다 떨쳐나 보통강에 애국제방을 쌓자!》라고 쓴 큼직큼직한 구호판들이 세워지고 5월의 훈풍에 기발들이 나뭇기였다.

주석단정면에는 민족의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장군님의 초상화가 모셔져있고 주석단아래에는 《보통강개수공사기공식》이라고 쓴 글발이 붙어있었다.

평양곡산공장 로동자대렬은 주석단정면에 자리잡고있었다. 임성민은 대렬의 맨앞에서 《보통강을 개수하여 북조선중앙-대평양의 수해위협을 방지하자!》라고 쓴 프랑카드를 들고있었다. 그는 남들이 무거우면 교대하자고 해도 듣지 않고 공장에서부터 내내 그것을 들고왔다. 그걸 들어야 대렬의 맨앞에 설수 있고 그래야

주석단에 나오실 **김일성**장군님을 가까이에서 뵈올수 있기때문이였다. 그들이 들고있는 프랑카드는 다른 단체들이 들고온것보다 훨씬 커보였다.

그는 아직 장군님을 가까이에서 뵈온적이 없었다.

작년 10월 개선연설을 하실 때에도 먼발치에서 뵈왔고 올해 3.1운동기념군중대회때에도 임성민네 공장대렬은 늦게 온탓으로 맨앞에 서지 못했다.

이번만은 그 기회를 놓칠수 없었다.

장군님을 가까이에서 뵈고싶은 마음들은 한결같은지라 곡산공장로동자대렬은 오늘 아침 일찌감치 대동교를 건너와 당당하게 앞자리를 잡은것이였다.

임성민네 대렬의 오른쪽에는 중성리 건국로력대대렬이 섰는데 그들은 오늘 **김일성**장군님께서 주석단에 나오시는가 안 나오시는가 하는 문제로 웅성대고있었다.

《이렇게 큰 모임에 장군님께서 안 나오실수 없지요.》

《그래요. 틀림없이 나오실거예요.》

《암만 그래두 나라일에 바쁘신 장군님께서 이런 공사장착공식에까지 나오실수 있을가? 이건 3.1만세기념군중대회나 엇그제 진행된 군중대회하구두 다르거던. 정치회합이 아니란 말이야.》

무명조끼를 입은 청년이 그럴사한 론거로 사람들의 조마조마한 마음을 긁어댔다.

그러자 어깨가 딱 바라진게 씨름군처럼 단단해보이는 젊은이가 샷대질을 했다.

《야, 이게 왜 정치회합이 아니란 말이야. 너 지금까지 이 공사가 어떤 공사라구 강연회랑 할 땐 뭘 들었어?》

무명조끼는 그래도 기가 죽지 않고 제 할 소리를 다 했다.

《우리 앞집에 쏘련에서 살다온 사람이 그러는데 자기는 모스크바에서 10년나마 살면서두 쓰팔린을 본적이 없대.》

그 말에 또 누군가가 양념을 발랐다.

《그게 일리있는 소리야. 옛날부터 왕의 행차는 가볍지 않았거던.》

씨름군같은 젊은이는 더 참지 못하겠던지 얼굴이 험악해가지고 성을 냈다.

《왜 자꾸 그런 맥빠진 소리들을 하는거야?》

《아니, 역증은 왜 내나? 우리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해보는 소리데.》

서로 웅성웅성하는판에 중년나이의 남성이 나서며 대변에 시비를 갈라주었다.

《장군님께선 꼭 나오실거네. 백성들의 마음을 잘 알아주시는 그분께서 백성들이 기다리고있는데 안 나오실수 없지.》

모두들 그 말이 옳다고 떠들어댔다. 씨름군같은 젊은이가 그 사람에게 부러움이 담긴 어조로 물었다.

《향미 아버진 개선연설때 장군님을 가까이서 뵈웠는지요?》

향미 아버지로 불리운 중년사나이는 주위를 둘러보며 그때일을 신바람나서 이야기했다.

《난 그전날 비행기에서 뿌리는 뼈라를 받아보자마자 돛자리를 말아가지고 모란봉공설운동장에 갔댔네. 내가 선참인줄 알았더니 웬걸, 술한 사람들이 밤을 새울 작정으로 나와앉았더군. 모두들 김일성장군님의 축지법이야기로 밤 가는줄도 몰랐네. 그때만 해두 난 장군님께서 천하를 주름잡는 장수라기에 백발수염을 날리는 할아버지로 생각했댔네. 누군가가 장군님은 평양 만경대가 고향이시구 년세두 이제

서른남짓한분이시라구 했건만 다들 믿지 않았지. 쉽게 믿을수가 없었거던. 밤을 꼬박 새우고 다음날 점심에야 행사가 시작되는데 글썽 젊으나 젊으신분이 주석단에 나오시지 않겠나. 그래서 처음엔 **김일성**장군이 안 나오신줄 알고 실망했됐네. 나두 속으루 생각하기를 저분은 **김일성**장군님의 아드님이신가부다 했지.

사회자가 **김일성**장군님께서 개선연설을 하신다구 알리구 그 젊으신분이 연단에 나오실 때엔 금시 모란봉이 떠나갈듯 했지. 감격이 곱절루 커졌으니 그럴수밖에. 모두들 손바닥이 열열하게 박수를 치구 목이 터지게 만세를 부르구 울구 웃구... 굉장했어.》

향미 아버지는 손등으로 눈굽을 훔치고나서 말을 이었다.

《이상한건 장군님존안을 가까이에서 뵈게 되니 이 몸이 똥똥 뜨는것 같고 팔다리에 저절로 기운이 뻗치는거야. 자네들두 오늘 장군님을 뵈게 되면 내 말이 진짜라는걸 믿게 될거네.》

임성민은 장군님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를 하 많이 들어온터여서 향미 아버지의 말을 믿어의심치 않았다.

자기 인생에 봄빛같은 파사로움을 안겨주신 태양같은분, 온 민족이 전설적영웅으로 우러르는 그분께서 조국에 개선하신지 반년도 지났는데 평양에 살면서도 여태 그분을 가까이에서 뵈지 못한것이 임성민으로서는 큰 죄악처럼 생각되었다.

지금 들고있는 프랑카드도 사실은 일을 잘해서 상으로 탄 옷감이였다. 나들이옷이라고는 다 낡은 광목저고리 한벌밖에 없었지만 그는 리주연의 충고를 듣고서야 그 옷감으로 프랑카드를 다시 만들었다. 살아온 지난날이 남편과 별반 차이없이 비참했던 안해가 서슴없이 장농을 열고 그 옷감을 꺼내주었던것이다. 생전

처음 상으로 타본 옷감을 내놓을 때 마음이 알찌근하고 손이 떨렸으련만 안해는 조금도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더 정이 가고 그래서 더 위해주고싶은 안해였다.

《여보, 섭섭해마오. 우리두 잘살 날이 올거요. 장군님뜻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 애들이 입을걱정, 먹을걱정 모르는 세상이 꼭 올거요.》

×

그날 아침 **김일성**동지께서는 여느때없이 조반을 일찍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마치 뜻깊은 명절을 맞는듯 한 즐거움으로 하여 마음의 흥분을 누잠힐수 없으시였었다.

어린시절 보통강의 수난을 목격하시면서부터 늘쌍 가슴속깊이에 응어리져있던 아픔이 오늘로써 영영 사라지게 된것이다. 빼앗긴 조국을 찾자고 15성상 총을 잡으셨던 손에 오늘은 건국의 삽을 쥐시게 된것이다. 그러니 오늘 아침이 어찌 레사로울수 있으랴.

간밤에도 장군님께서는 보통강의 변모된 모습을 꿈에서 보시였었다.

맑디맑은 강물우에는 능수버들이 실실이 드리웠는데 꽃으로 장식한 유람선이 유유히 흘러간다. 강북판에는 당장 날아갈듯 추녀가 건듯 들린 정각이 있고 연분홍치마저고리를 입은 처녀들이 총각들과 나란히 구름다리를 지나다니고 띠엮띠엮 앓은 낚시꾼들이 팔뚝같은 고기를 연방 낚아내고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밝은 웃음이 비껴있었다. 꿈이 달다더니 정말로 그 꿈은 깨고싶지 않으시였었다.

장군님께서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청사에 나가시여 밤사이에 제기된 급한 문건들만 처리하시고는 일군들과 함께 보통강개수공사장으로 떠나시였다.

원래는 공사장으로 나가던 길에 신양리에 들러 중앙당학교 개교준비정형을 료해하실 예정이였지만 그것도 오후로 미루시였다.

장군님께서 타신 차가 서평양조차장다리를 넘어 착공식장에 도착하자 거대한 환구름처럼 모여섰던 군중들속에서 《만세!》의 함성이 터져올랐다.

차에서 내리신 장군님께서는 군중들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미리 나와있던 일군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주석단에 오르시였다.

임성민은 주석단의 맨앞에서 **김일성**장군님을 우러르며 목청껏 만세를 불렀다. 아까 향미 아버지가 장군님을 가까이에서 뵈오면 온몸이 뚝뚝 뜨는것 같다더니 임성민은 그게 참말이라는것을 몸으로 확신하고있었다. 어쩌면 장군님의 미소는 저렇듯 밝고 독특할수 있을가. 어쩌면...

시인민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공사지휘부 총책임자의 시공계획에 대한 보고가 끝나자 사회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퍼졌다.

《다음은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연설하시겠습니다.》

또다시 만세의 폭풍이 공사장에 메아리쳤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군중들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연단에 나서시였다. 공사장전경을 둘러보시며 만세소리가 잦아들기를 기다리시다가 힘주어 말씀을 시작하시였다.

《친애하는 동포들!

오늘 우리는 전체 인민이 민주주의적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는 환경속에서 보람찬 자연개조사업인 보통강개수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이께서는 갑자기 목이 짝 메여 더 말씀을 이을수 없으시였다. 산이 무너지는듯 한 우리와 같은 박수소리도 아득히 먼곳에 들려오는것 같으시였다.

그이께서는 군중들뿐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서도 걱정의 파도가 가라앉은 뒤에야 다시 말씀을 이으시였다.

《우리 인민은 과거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 노예생활을 강요당하여왔지만 이제는 해방된 인민으로서 인민정권의 지도하에 민주주의적건설사업을 하고있습니다... 보통강개수공사는 평양시민들이 애국적인 로동으로써 민주주의 새 조선 건설에 기여하는 첫 사업이며 해방된 우리 인민이 처음으로 하는 대자연개조사업입니다. 우리는 보통강개수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냄으로써 이 공사가 부강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자연개조사업의 첫 봉화로 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장군님께서는 과거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데는 아무런 관심도 돌리지 않았지만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우리 세상에서는 인민을 더 잘 보호하고 더 잘살게 할 의무가 첫째라고 하시면서 우리 손으로 우리 행복을 창조할데 대하여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그리하여 민주수도를 홍수피해로부터 튼튼히 지켜내고 평양시민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며 보통강일대를 풍치 좋고 아름다운 유원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물론 보통강개수공사를 단시일내에 한다는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공사에 필요한 기술인재도 부족하고 식량과 물자도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유리한 조건이 마련될 때까지 이 공사를 하지 않고 그냥 앉아있을수는 없습니다...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고서라도 자체의 힘으로 보통강개수공사와 같은 공사를 하나하나 완공해나가야 합니다.》

장군님께서는 이 공사를 누가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자신의 손으로 해야 하며 공사에서 나서는 모든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극복해나가는데 이 공사의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격정에 넘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이 공사를 통하여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의 기치아래 단결된 우리 인민의 위력을 시위함으로써 리승만역도를 비롯한 반동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평양시민들은 모두다 동원되어 보통강개수공사를 다그치기 위한 군중적인 로력투쟁을 힘차게 전개하여야 하겠습니까. 이 공사에 참가하여 땀을 많이 흘리는것은 나라와 인민을 위한 보람차고 영예로운 일입니다...》

나는 전체 평양시민들이 우리의 민주수도 평양을 모범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이 애국적인 자연개조사업에서 위대한 힘을 발휘하리라는것을 굳게 확신합니다.》

장군님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또다시 《만세!》의 함성이 끊고 박수소리가 터져올랐다.

임성민은 단 한순간도 장군님의 모습에서 눈길을 떼지 않고 그분의 말씀 한마디한마디를 온몸으로 들었다. 그는 장군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공사인가 하는것을 더 똑똑히 깨달았다. 이제는 우리 몫이다. 장군님께서는 나라형편이
어려운데도 이 공사를 먼저 함으로써 인민을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 내세워주시었으니
주인이 되었은즉 주인구실을 해야 한다.

불쑥 며칠전에 만났던 명덕이가 생각났다. 명덕이도 지금 여기 어디에 참가했다면
자기가 왜 애국자가 돼야 하는지 분명히 깨달았을텐데...

장군님의 격려사에 뒤이어 각 정당, 사회단체대표들의 축사가 있는 다음 착공식이
끝났다.

26

착공식이 끝나자 군중들은 대렬을 지어 이미 분담된 구간으로 흩어져갔다.

장군님께서도 일군들과 함께 현장으로 향하시였다.

《오늘은 우리도 힘껏 일해봅시다.》

리주연이며 장혁수며 공사지휘부일군들의 얼굴에는 감격과 환희가 넘쳐흘렀다.

할 일이 많고 한시간이 귀하신 장군님께 그냥 떠나시라고 도덕의리적으로나마
말씀드려야겠건만 그 순간에만은 누구도 장군님을 막아나서지 않았다. 장군님께서
공사장에 나오시여 연설을 해주신것만도 전설같은 일인데 몸소 감탕판에 들어서시여
일을 하시겠다니 수난의 강 보통강은 오늘부터 행복의 강, 행운의 강으로 변환것이다.

이 나라 민주건설력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순간은 한초한초 다가왔다. 일군들은 형제산강과 서포천이 합쳐지는 곳으로 장군님을 안내하였다.

현장에 이르신 장군님께서서는 양복저고리를 벗고 와이샤쯔 팔소매를 걷어올리시였다.

자기 구간에 흠어져간 군중들은 장군님께서 첫삽을 뜨시는것을 지켜보느라 숨을 죽이고있었다.

장혁수가 어제 밤 혹시나 하면서 마음속 간절한 기대를 안고 정성스레 다듬은 삽을 장군님께 정중히 드리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삽을 받아드시고 잠시 공사장을 둘러보시였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으나 그이께서는 어서빨리 일을 하고싶다는 욕망뿐 다른것은 아무것도 생각하고싶지 않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삽날을 땅에 대고 발로 힘껏 누르시였다. 허리를 굽히시고 삽자루를 지그시 눌러 두손에 마쳐오는 흙의 무게를 느끼시는 순간 가슴이 뻐근해지고 눈굽이 후터워나시였다. 눈앞이 뿌옇해져 앞에 놓여있는 가마니짜어방에 흙을 쏟으시고는 다시 삽날을 땅에 박으시였다. 공사장을 진감하는 만세의 함성도 그이의 귀전에는 먼산의 메아리마냥 울려왔다.

자신께서 우시는것을 일군들이 불가봐 고개도 들지 않으시고 또 한삽 듬뿍 흙을 떠올리시였다. 이날을 보시지 못하고 먼저간 부모님들을 대신하여 한삽, 오늘을 위해 꽃다운 청춘을 바치고 백두광야에 묻혀있는 투사들의 묘으로 한삽, 짓밟히고 천대받던 이 나라 인민의 념원을 담아 또 한삽, 사랑하는 고향 평양에 고향의 아들로서 또 한삽, 식민지사회가 남겨놓은 력사의 오물을 걷어버리고 이 땅에 기어이 인민의 나라를 세우리라는 불변의 의지를 담아 또 한삽...

장군님께서는 허리 한번 펴지 않으시고 부지런히 삽질을 하시였다. 일꾼들은 가마니쪽에 새끼줄을 묶어 목도채를 끼우고 둘씩 짝을 지어 20여미터남짓한 제방자리에 부지런히 흙을 날라갔다.

김책은 중앙녀맹위원장 박정애와 한패가 되고 안길은 장혁수와 리주연은 김운상과 한짝이 되였다.

저저마다 장군님께서 담아주시는 흙을 나르겠다고 차례를 기다리는판이였다.

어느새 그이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으나 장군님께서는 조금도 힘든감을 느끼지 못하시였다.

누군가가 그 력사의 순간을 사진기에 담는것도 보지 못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마치 평생 삽질만 해오신듯 온몸을 룰동적으로 움직이시였다. 오직 한가지 일에만 정신을 집중했을 때 저절로 찾아오는 로동의 룰동이, 창조의 희열이 지금 그이의 심신에 찾아든것이다.

김책은 허리를 굽히시고 땀을 흘리시는 장군님을 우러르며 생각이 깊어졌다.

땀을 흘리시면서도 인민위해 바치는 로고가 기꺼우신듯 밝게 웃고계시는 장군님.

지구상에 인류가 생겨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어느 력사의 갈피에 백성들이 주인된 나라를 세우자고 맨먼저 삽들고 나선 위인이 있었더냐?

수천년 한모양새로 흐르던 인간에 대한 무관심의 력사를 절대사랑의 력사로 돌려세우시기 위해 온 육신을 땀으로 적신 민족의 령도자가 있었더냐?

언제면, 과연 언제면 우리 장군님 인민위해 굽히신 허리를 펴실가? 이 땅에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세우고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행복하게 살게 될 그날에야 우리 장군님 허리를 펴실수 있다면 력사여 대답하라! 그날은 과연 언제인가!

김책은 자기가 오늘 하나의 정치대학과정안을 마치는듯 한 기분이었다. 저 불멸의 화폭이 바로 인민의 령도자의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진짜정치이다!

다만 그것이 너무도 순수하고 너무도 뜨겁고 너무도 인민적인것으로 표현되기때문에 정치라는 개념과 먼거리에 있는것처럼 느껴질뿐이다. 결국은 인민의 요구, 인민의 리익, 인민의 존엄을 가장 완벽하게 실현시켜주는 거기에 참된 정치의 본질이 있는것이다. 오늘 이 공사장에 **김일성**동지께서 땀으로 새기시는 위대한 정치현장을 력사는 금문자로 기록해야 할것이다.

《장군님, 삼자루가 부러지겠습니다. 쉬엄쉬엄하십시오.》

김책이 장군님께서 무리하시는것 같아 걱정스레 말씀올렸으나 그이께서는 한본새로 듬뿍듬뿍 흠을 담아올리시였다.

《일없습니다. 나야 젊은 사람이니 혈기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김책은 머리를 저었다. 장군님의 일욕심을 어찌 젊음이 가져다주는 혈기때문이라고만 할수 있으랴. 그것이 정녕 혈기때문이라면 한평생을 인민위해 헌신하시려는 위대한 천품만이 가져다준 영원한 혈기라고나 할가...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장군님의 그 혈기는 조금도 식어지지 않을것이라는 생각으로 하여 김책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김책은 여성인 박정애를 생각해서 흠을 적당히 담아나르려고 했으나 장군님께서는 《좀더 답습시다.》 하시며 그냥 흠을 담으시였다.

《장군님! 됐습니다.》

박정애가 아부재기를 쳤으나 장군님께서는 한삽 더 담고야 《됐소.》 하시였다. 박정애는 자신이 없었던지 목도채를 들 생각도 하지 못했다.

김책은 이때다 하고 얼른 제옆에서 삽질하던 리병설을 끌어당겼다. 처음에 박정애한테 팔소매를 붙잡히지 않았더라면 애당초 녀자하고 짝을 못지 않았을것이다.

《이렇게 허리가 시큰할만큼 담아야 목도하는 맛이 나지요.》

김책은 목도채를 어깨에 메고 으음- 하고 힘을 주며 일어서더니 박정애가 알찌근하게 한마디하고야 씨엉씨엉 걸음을 땀다. 일자리를 떼운 박정애는 삽을 들수밖에 없었다. 그는 장군님의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을 보며 얼른 새하얀 수건을 내어드리였다.

장군님께서 박정애가 내민 수건으로 대충 땀을 닦으시고는 또 삽질을 하시였다.

《땀흘려 일한다는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시고는 더 말씀이 없으시였다.

박정애는 할수없이 그이의 곁에서 삽질을 하며 순서를 기다려 서있는 김책에게 눈을 흘기며 조용히 핀잔을 주었다.

《부위원장동지! 오늘은 철부지 애들처럼 왜 눈치가 없어요? 장군님께서 허리 한번 못 펴시고 삽질을 하는데 큰사람들이 순서를 기다린다는게 말이 돼요? 이리 오라요!》

김책은 박정애한테 복수를 당한셈이 되였으나 할수없이 들것을 그쪽에 가져다놓았다.

《녀맹위원장동무, 리해해주오. 장군님께서 힘드신줄은 알지만 그이께서 도와주시는
힘을 한번이라도 더 나르고싶은걸 어찌겠소.》

그래도 박정애는 리해는커녕 안길이까지 꼬여볼 생각으로 우정 소리를 높였다.

《무슨 변명이에요? 부위원장동지답지 않게! 글썄 저 안길동지는 아직 철이 없어
그런다치구...》

《그건 그렇소.》

김책이까지 맞장구치는 바람에 안길은 그만 억이 막혀 입을 하 벌린채 굳어졌다.
하지만 박정애의 말을 반박할수는 없었다. 철부지소리를 안 듣자면 아쉬운대로
그쪽으로 전향할수밖에.

그제야 장군님께서는 목도군들이 줄어든것을 알아차리시였다.

《김책동무랑은 량심이 없구만. 말로는 녀성을 아껴야 한다면서 그렇게 혹사시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장군님! 이래두 저래두 철부지소리를 들을바엔 여기서 일하겠습니다.》

안길이가 시뻘해서 대답했다.

《하하, 안길동무가 단단히 침을 맞았구만.》

장군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이마의 땀을 훔치시였다.

푸른 하늘, 흰구름, 따사로운 해빛아래 건국의 열기로 끓는 대지, 어기영 치기영
앞서거니 뒤서거니 달리는 사람들...

그이의 시야에는 모든것이 아름답고 정답고 의미깊게 안겨드시였다.

이것이 정녕 건국의 참모습이 아닐가. 인민의 복된 세상을 세우리라는 의지 하나만으로 전인미답의 길을 헤치시는 그이에게 있어서 건국이란 말은 어딘가 생소하고 어마어마하게 느껴질 때가 없지 않으시었다.

올해 서른네살, 너무도 젊으신 나이에 한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고 대국들의 틈바구니에 끼워있는 조국을 당당한 주권국가로 건설한다는것이 아름답게 느껴지실 때도 없지 않으시었다.

그러나 혁명은 자신감보다 필요성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무산민중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건설하시려는것은 정치가로서의 리념이기 전에 인민의 아들로서의 응당한 도리로, 량심으로 간주해오신 장군님이시였다. 어찌면 이 공사가 건국이라는 요란한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평범하고 작아보이기도 하지만 바로 거기에 그 무엇으로도 켤수 없을만큼 거대한 의의가 있는게 아니겠는가...

장군님께서는 공사장을 죽 둘러보시다가 민청원들이 일하는 곳으로 성큼성큼 걸어가시었다.

장군님을 자기들의 작업장에 모신 청년들은 당황해서 어쩔바를 몰라했다.

《여기서 일하면 배짱이 맞을것 같구만. 난 청년들과 일할 때가 좋소.》

그제서야 장군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일을 하시러 오시였다는것을 깨달은 청년들은 와- 환성을 울리며 장군님앞으로 모여들었다. 저마다 자기한테 먼저 담아달라고 질통을 돌려대고 들것을 들이댄다.

김책이가 그쪽으로 걸어가며 박정애에게 말했다.

《아무래두 녀맹위원장동무가 저 철부지들을 또 신칙해야 하겠구만.》

박정애가 가서 뭐라고 했으나 그래도 진짜철부지들은 한번만이라도 장군님께서 손수 담아주시는 흙을 나르겠다고 장군님곁에만 모여들었다.

간부들에게 욕을 좀 먹어도 이런 기회는 놓칠수 없다는 배짱들이었다. 어쨌든 청년들은 성수가 나서 저저마다 달리기경주라도 하듯 와와 소리치며 뛰어다녔다.

장군님께서서는 아까처럼 허리 한번 펴지 못하시고 삽자루가 휘게 흙을 퍼담으시었다.

시간이 퍼그나 흘러 휴식시간이 되어서야 장군님께서서는 허리를 펴시었다.

《좀 쉬고합시다.》

그이께서는 그 자리에 삽자루를 깔고 청년들과 허물없이 마주앉으시었다. 그러자 주변에서 일하던 노동자들까지 장군님곁으로 모여들었다.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시던 장군님께서서는 안색을 흐리시며 리주연을 찾으시었다.

《주연동무, 저걸 보시오. 사람들이 뺑수를 그냥 마시고있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토성랑에 가시여 웅덩이에 고인 물을 맛보시던 생각이 나시었다.

무더위속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찬물을 그냥 마시다가 혹시 배앓이라도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내 생각엔 공사장에 환자가 생길수도 있는데 의료일군들이 여기에다 현장치료실을 전개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료수를 꼭 끓이고 소독제를 타서 작업장에 공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먼데서 온 사람들도 많은데 숙소도 잘 꾸려주어 그들이 불편없이 일하도록 해야 합니다.

림시가설막을 짓는다 해도 온돌을 놓아 방에 습기가 없게 해야 합니다. 여름에도 비가 오면 따뜻한 온돌방이 좋지...》

장혁수는 처음엔 좀 얼떨름해졌다. 장군님께서 이왕 나오셨던김에 공사를 앞당길수 있는 축지법의 묘술을 한가지쯤 가르치실줄 알았는데. 그런데 공사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물을 끓여주고 가설막에 온돌까지 놓아주다니...

장혁수는 물론이고 둘러선 노동자들도 장군님께서 진짜 축지법을 가르쳐주신다는것을 미처 몰랐었다.

《부식물문제도 해결해주어야 합니다. 고기나 기름, 냄새같은것은 평남도와 평양시 인민위원회에서 보장하도록 하시오.》

장군님의 말씀가운데는 공사와 직접 관련된 말씀은 한마디도 없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장군님의 말씀을 들으며 온몸에 부쩍부쩍 힘이 솟구쳐올랐다. 장군님께서 우리같은 사람들을 걱정해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아끼랴.

이윽고 작업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울렸다. 공사장은 또다시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졌다. 목도군들이 영차영차 발을 맞추고 질통부대도 그에 뒤질세라 와와 함성을 높였다.

공사장에서 언제한번 재미로 일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해방된 오늘에야 비로소 노동의 희열을 느꼈던것이다.

너도나도 일욕심을 부리니 팔뚝같은 목도채가 뚝뚝 부러져나가고 질통끈이 끊어졌다고 울상을 짓기도 했다.

《이건 무슨 목도채가 이따위야?》

흙을 산처럼 담아가지고 다니던 젊은이가 두동강난 목고채를 집어던지며 두덜거렸다.

《목고채 탓할게 없어. 그렇게 미옥스레 흠을 담아서야 쇠막대기인들 견디겠나? 그러다간 봉수산에 목도채감이 거덜나겠네.》

그런데 젊은이를 편잔주던 그 사람도 질통끈이 뚝 끊어지는 통에 그 자리에 멈춰섰다.

《허참, 삼바줄이 끊어지다니... 이 사람, 오늘 저녁에 우리 녀편네한테 이 사실을 이실직고하게. 내가 삼바줄을 끊어먹었다구 말이야.》

《그건 왜요?》

《왜 그런가 하면 첫째로, 내가 오늘 애국로동에 얼마나 열성이였는가 하는걸 녀편네가 알 필요가 있어. 둘째는 내가 아직 근력이 뻗친다는거야. 그러니 녀편네가...》

그리고는 젊은이 귀에 대고 뭐라 수군거리고나서 제김에 흐하하 웃어댔다.

《알았지? 나한테 힘이 있거던. 해방전엔 잘 몰랐는데 건국을 하자고나서니 자꾸자꾸 힘이 생긴단 말이야. 이게 중요한거야.》

그렇다! 바로 그것이 중요한것이다. 인민은 자기에게 힘이 있다는것을 깨달았던것이다.

장군님께서서는 삼을 드시고 서포천쪽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김책이 옷매무시를 바로하고 장군님앞에 다가섰다.

《장군님, 그만 들어가시지 않겠습니까? 오후일정도 있는데...》

《벌써 들어간단 말입니까?》

《점심때가 다되었습니다.》

《그래두 좀더 합시다.》

서포천에서는 중성리 건국로력대원들이 기세를 올리고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그들과 함께 삽질을 하시며 또다시 땀을 흘리시였다.

오정포가 울린지 퍼그나 지났건만 장군님께서서는 일손을 놓지 않으시였다.

참다못해 박정애가 장군님앞에 나섰다.

《장군님, 이젠 그만 들어갑시다. 장군님께서 들어가셔야 군중이 점심식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다들 점심을 못하고 그냥 일만 합니다.》

그제서야 장군님께서서는 허리를 펴시였다.

《아니, 우리때문에 군중들이 점심식사를 못한단 말이요? 그래서야 안되지. 들어갑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일을 더 못하고 떠나시는게 아쉬우신듯 인츰 자리를 뜨지 못하시였다.

《혁수동무.》

장군님께서서는 장혁수를 가까이 부르시더니 그때까지 들고계시던 삽을 넘겨주시였다.

《이걸 받소.》

혁수는 장군님께서 쓰시던 삽을 보물처럼 정히 받아들였다.

그러지 않아도 그 삽을 장군님께서 가져가시든가 아니면 간부들이 욕심부릴가봐 은근히 마음쓰고있었는데 장군님께서 직접 자기에게 넘겨주시였으니 그로서는 입이 귀밑으로 돌아갈만도 했다.

장군님께서는 삼을 받아들고 기뻐하는 장혁수를 바라보시다가 차츰 안색을 흐리시였다. 머리는 제때에 깎지 못해서 더부룩하고 웃저고리의 단추는 색깔이 각각이였다. 옷색같은 회색인데 두번째 단추는 검은색이고 세번째 단추는 흰색이였다.

장군님께서는 장혁수가 지금도 홀아비생활을 하고있다는것을 상기하시며 자신께서 가장 중요한것을 놓치고있었다는것을 인정하시였다.

《혁수동문 아직도 현장사무실에서 자취하고있소?》

《예.》

장군님의 심정을 알리없는 장혁수는 삼자루만 쓸어만지며 싱글병글했다.

《혁수동무!》

장군님께서는 그의 팔을 끼시고 걸음을 옮기시며 조용히 그러면서도 절절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이젠 공사도 시작되였으니 머지않아 동무의 소원도 풀릴거요. 예전에는 원한과 울분으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생활을 새롭게 꾸려보오. 언제까지 그렇게 외롭게 살겠소. 아마 먼저 간 안해도 동무가 지금 이렇게 사는걸 바라지 않을거요. 그래야 나도 마음을 놓을수 있소.》

장혁수는 머리를 수긋하고 아무 말씀도 올리지 못했다.

지금껏 가슴속 어느 구석에 묻어두고 다쳐본적 없던 여린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나와 그의 눈물주머니를 건드리는듯싶었다. 누가 언제한번 이런 따뜻한 말을 해본적 있었던가. 친아버지만이, 친혈육만이 해줄수 있는 말을 처음으로 들어보며 장혁수는 끝내 눈물을 떨구고야말았다.

《장군님!》

《새 생활을 꾸리느라면 세상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밝게 보일거요. 사는 재미두 생기구... 난 달라지는 보통강의 모습과 함께 동무의 행복한 모습을 꼭 보고싶소. 부탁이요.》

장군님께서서는 장혁수의 팔을 오래도록 놓지 못하시였다.

떠나시기에 앞서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공사장에 전기를 끌어올데 대한 문제, 현장에서 경제선동을 활발히 벌릴데 대한 문제, 노동자들의 생활보장문제 등 공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점심시간이 퍼그나 지나서야 **김일성**동지께서는 저택으로 돌아오시였다.

《정숙동무!》

그이께서는 대문을 열어제끼시며 큰 소리로 김정숙동지를 찾으시였다. 부엌문이 열리며 행주치마를 두르신 김정숙동지께서 마당으로 나오시였다.

《정숙동무, 내 오늘 큰 소원을 하나 풀었소. 실컷 땀을 흘려봤단 말이요.》

김일성동지께서는 기쁨을 감출수 없으신듯 태양보다 더 밝게 웃으시며 김정숙동지께 양복저고리를 벗어 맡기시고 마당가의 수도로 가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얼른 안에 들어가 세면비누와 수건을 가지고 나오시였다.

그이께서는 세면을 하시면서도 웃음만은 종시 지우지 못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미소를 지으시고 나직이 물으시였다.

《그렇게 기쁘십니까?》

《기쁘지, 정말 기쁘오. 이젠 보통강반의 인민들이 발편잠을 자게 됐단 말이요.
정숙동문 기쁘지 않소?》

《기쁩니다. 장군님께서 기뻐하시는게 더 기쁩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갑자기 눈곱이 젖어드시었다. 장군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것을
보니 눈물이 나왔던것이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아직도 땀이 마르지 않은듯 한 장군님의 면내의를 생각깊은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차분히 젖은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어서 들어가 내의를 갈아입으십시오.》

잠시후 **김일성**동지께서는 점심상앞에 앉으시였다.

상이라야 당콩이 섞인 조밥과 메주장을 넣고 끓인 풋배추국, 구운 조기 한토막 그리고
산나물무침뿐이였다.

그날 장군님께서는 무드기 담았던 조밥 한그릇을 다 비우시였다.

달포전에 공사장을 다녀오시여서는 너무 가슴아파 종시 저녁식사를 들지 못하시던
생각이 떠올라 김정숙동지께서는 눈곱이 젖어드시였다.

《오늘은 밥이 정말 맛있구만. 시간만 허락한다면 매일이라도 공사장에 나가 땀을
흘리고싶소.》

김정숙동지께서는 상을 치우신 다음 장군님께 청을 드리시였다.

《저도 래일부터는 공사장에 나가겠습니다.》

원래 시인민위원회에서는 18살부터 55살까지의 남자들만 공사에 의무적으로
로력동원을 한다고 발표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김정숙동지의 제기를 지지해주시었다.

《좋은 결심이요. 남녀평등권법령도 인차 발포되겠는데 여성들이 공사장에 자원진출해서 한몫하면 사회적인식을 바로잡는데서 큰 역할을 하게 될거요. 그런데 아픈 발을 가지고 일없겠소?》

장군님께서는 미타한 표정을 지으시고 근심스레 물으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산에서 싸우실 때 다치신 발이 자주 동통을 일으키군 해서 뜸치료를 받고계시는중이었다.

《일없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무의식중에 치마자락으로 가리운 발을 꼭 감싸쥐시며 혼연히 대답하시었다.

《그리고 공사장에 만이를 데리고 다니겠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어리신 아드님을 공사장에 데리고 나가야 할 리유를 굳이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장군님께서는 알고계시었다.

《그게 좋겠소.》

27

이튿날 장군님께서는 허정숙을 비롯한 선전부문 일군들을 집무실로 부르시었다. 집무실에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교통국장과 시보안서장 오진우가 먼저 와있었다.

《보통강개수공사와 관련된 문제들을 토의하자고 동무들을 불렀습니다.

교통국장동무, 이리로 나오시오.》

장군님께서는 교통국장을 평양시지도앞으로 불러내시였다.

《지금 동평양지구의 건국로력대원들이 공사장까지 걸어서 다니고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안에 사는 사람들보다 한시간이상은 먼저 떠나야 하고 하루일을 마친 후에는 한시간이상 힘들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여기 사동역에서부터 대동강역을 거쳐 서평양조차장까지 사이에 립시통근열차를 운영하도록 하자는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교통국장은 잠시 생각하는듯 하더니 자신있게 대답올렸다.

《할수 있습니다.》

《기관차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차장에 차갈이에 쓰는 구내기관차가 한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무임승차를 해야 합니다.》

《예?》

교통국장은 난감한 기색을 보였다.

《깍쟁이 부리지 마시오. 일하러 다니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겠다는게 우선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고 또 돈을 내야 한다면 누가 기차를 타겠다고 하겠습니까? 공사가 완공되면 철도에서두 신세를 지겠지요?》

《그렇긴 합니다. 홍수때에는조차장부근도 물에 잠기고 철길로반이 못쓰게 됩니다.

》

《그것 보시오. 그러니 로력동원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통근열차를 리용할수 있도록 시간표를 짜보시오.》

《알았습니다. 이왕이면 방통두 제일 좋은것으로 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이 시원스레 대답올렸다.

장군님께서는 그 다음순서로 오진우를 지명하시였다.

《보안서장동무, 최근에 공사와 관련해서 제기된 동향자료를 들어봅시다.》

오진우가 차렷자세를 취했다.

《장군님, 제가 일을 쓰게 못해서 시내공기가 좋지 않습니다.》

《자기 비판을 하라는게 아닙니다. 객관적사실을 들어봅시다.》

《지금 시내에서는 반동놈들이 공사를 지연시키기 위해 곳곳에 뼈라를 뿌리고 류언비어들을 많이 퍼뜨리고있습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험담들입니다.》

《일없습니다, 들어봅시다.》

장군님께서는 온화한 표정으로 오진우에게 계속하라고 이르시였다. 오진우는 할수없이 책잡에서 몇장의 뼈라를 내놓았다.

《<개수공사는 공산당의 선전포스타이다>, <애국로동은 강제로동이다>, <공산당원들이 심장노릇한다> 뭐 이러루한것들입니다. 그리고 어떤데서는 건국로력대원들에게 발급한 로력동원증을 태워서 그 재를 먹으면 아이 못 낳던 녀자들이 아이를 낳을수 있다느니, 또 평천리 가죽공장에서 채찍을 많이 만드는데 그게 공사장에서 심장들에게 줄거라느니 하여튼 별별 류언비어가 다 돌아가고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뼈라를 대충 읽어보시고 주먹을 틀어주시였다.

《나쁜 놈들!》

정녕 분노하지 않을수 없으시였다. 계급이 다르고 리념이 다르다 해도 같은 조선사람으로서 그렇게까지 악착할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미군정의 사촉을 받고 꼭두각시노릇을 한들 평화적인 민주건설을 이렇게까지 악랄하게 헐뜯다니...

하지만 그네들이 아무리 날뛰여도 력사는 제 곱으로 흐를것이다.

혼자생각에 잠겨계시던 그이께서는 오진우에게 다시 눈길을 돌리시였다. 오진우는 보고를 계속했다.

《이틀전에 시보안서에서는 서평양목재창고담벽에 반동구호를 써붙이던 놈을 하나 붙잡았습니다. 그놈이 진술한데 의하면 서울에서 보통강개수공사를 파탄시키기 위해 반동놈들을 침투시켰다고 합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혼자소리로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하긴 그놈들도 이 공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리득이 되는가를 모르지 않겠지.》

장군님께서는 근엄한 안색으로 오진우에게 말씀하시였다.

《새로운 시대의 탄생을 막아보려는것은 가소롭고 어리석은것입니다. 앞으로 시보안서에서는 반동들의 준동을 제때에 철저히 적발분쇄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 전번에도 강조했지만 이 공사는 치렬한 계급투쟁을 동반한다는것을 잊지 마시오.》

《알았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오진우를 자리에 앉히시고 이번에는 허정숙에게 시선을 돌리시였다.

《선전부에서는 공사를 제 기일내에 끝낼수 있도록 주민들에 대한 사상선전사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선전사업에서 중요한것은 이 공사를 당시 수행하고있던 제반 민주개혁과 밀접히 결부시키면서 광범한 대중을 진보적민주주의사상으로 무장시켜 새 조선의 참된 주인으로 교양하는것이라고 지적하시였다.

《그리고 이 공사는 민주건설의 출발점이며 평양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이라는것을 인식하고 새로운 로동정신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공사기간에 여러가지 선전선동수단을 다 동원하여야 합니다. 정로사에서는 매일 공사소식을 신문에 내도록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예술단체들로 위문공연을 조직하여 공사장이 들썩하게 해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도 장군님께서서는 공사장 곳곳에 기발과 구호판, 경쟁도표판들을 내다걸어 공사의 전투적분위기를 더한층 높일데 대한 문제, 창작가들이 공사장에 나와 시도 짓고 노래도 창작보급할데 대한 문제 등 선전선동사업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토론해주시였다.

《재삼 말하지만 우리는 이 공사를 통하여 나라의 진정한 주인은 인민대중이라는것을 다시한번 세상에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주인의 지위에 올려세우는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요한것은 그들이 주인으로서의 역할, 다시말하면 주인구실을 다하도록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때문에 이 공사를 완공하는 과정에 인민들자신이 자기 힘으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수 있다는것을 깨닫도록 하여야 합니다.》

28

공사가 시작되자 제일 급해난것은 김운상이었다. 한것은 아직 남교제방수문설계를 완성하지 못했기때문이었다. 물길을 돌리는 곳에 수문을 설치하여야 장마철에 새 물길로 미처 빠지지 못한 물이 본래의 강으로 흘러내려 서산리앞에서 대동강에 흘러들수 있었다. 지휘부에서는 수문공사를 할 자리만 남겨놓고 제방공사를 하기로 했으니 김운상으로서의 꿈무늬에 불이 달린셈이었다. 더구나 그를 속상하게 한것은 수문설계를 위한 기초기술자료가 빈약한것이였다. 왜놈들의 설계를 수정하여 공사를 시작했기때문에 그놈들이 만들어놓았던 보잘것 없는 수문설계의 기초자료도 별로 도움이 안되였다. 수리구조물은 강하천의 물량과 그 흐름의 특성에 의해 계산된다. 구체적으로는 기준평균한해흐름량, 큰물량과 강수량 그리고 흙모래를 포함한 강하천의 운반물류출량을 알아야 했다.

그래야 수문의 크기와 높이를 결정할수 있고 투자규모를 산출해낼수 있었다. 그런데 보통강에 대한 조사관측자료는 력사적으로 기록해놓은것이 없었다. 초보적인 자료에 의하면 평양에는 1923년과 1942년 큰물이 가장 혹심한 피해를 가져왔었다.

1923년 8월 6일부 《동아일보》에도 평양과 대동군의 일부 지역의 큰물피해에 대하여 쓴 기사가 있었지만 그 정도의 자료만 가지고서는 아무 일도 할수 없었다.

오늘도 운상은 점심밥을 먹자마자 현장을 답사하려고 기술부사무실을 나서다가 우뚝 멈춰섰다. 하얀 위생복을 입고 마당가에 서있는 처녀를 알아보았던것이였다.

《아니, 수영씨가?》

오늘부터 현장치료대가 나온다더니 그럼 이 처녀가?... 운상은 반가왔다. 반갑다는 감정의 구체적색깔은 분석하기 어려웠지만 어쨌든 반가왔다. 운상은 미소를 짓고 처녀에게 다가갔다. 수영이도 수줍게 웃으며 인사를 했다. 운상이쪽에서 먼저 말을 걸었다.

《어떻게 이런 공사판에 나올 생각을 다 했습니까? 남자의사들도 많을텐데...》

《제가 자원했어요.》

《자원이요?》

운상은 정말 놀랐다. 귀공녀같은 이 처녀가 그런 결심을 했다는게 선뜻 믿어지지 않았던것이다. 수영은 운상이 놀라는것을 탓하지 않았다.

《여기 나와보면 현실을 리해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더군요.》

처녀는 자기의 심정을 그렇게밖에 표현할수 없었다.

수영은 병원에서 보통강개수공사장에 현장치료대를 파견한다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여태 의사들이 공사장에 치료하러 나간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던것이다. 그런데 치료뿐만아니라 노동자들에게 음료수도 끓여주어야 한다는 소리에 그만 아연해졌다. 세상에 별일이 다 있구나. 꿈속에서조차 행복을 맛볼수 없었던 비참하고 무권리한 백성들을 어찌면 그렇게까지 위해준단 말인가.

(공사장에 나가보자.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떤 모양새로 숨을 쉬는지 그 구조를 더 잘 알수 있을거야.)

그래서 그는 이 공사장에 진심을 바치고싶어서 나왔다고 운상에게 뽕뽕이 말할수 없었던것이다. 처녀의 심리가 어떻든 운상에게 중요한것은 수영이가 공사장에 나왔다는 사실 그자체였다.

《잘했습니다. 여기 있느라면 많은걸 배우게 될겁니다. 김일성장군님이 어떤분이신지, 건국이란 어떤것인지, 이 공사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될겁니다.》

《그렇가요?》

《그야 응당하지요.》

운상은 처녀앞에서 자연히 웅변가가 되었다.

우주의 혼돈과 암흑속에서 무질서하게 부딪치고 폭발하는 물질들의 운동과정에 지구가 생겨났고 여러차례의 빙하기를 거쳐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이 탄생하였다. 최초의 인류는 대자연의 속성을 몰랐던탓으로 번개가 치고 우뢰가 울고 눈비가 오고 화산이 분출하는 등 무질서한 자연의 광란앞에서 공포를 느끼곤 했다. 때문에 그들은 신의 존재를 두려워했고 소박한 질서를 지향했으며 안전한 공간속에 자기를 은폐시키려 했다. 눈이 오거나 비가 오는것을 미리 알수 있었으면, 태풍이 불거나 화산이 폭발하는것을 미리 알수 있었으면, 낮이 가면 밤이 오는것처럼 모든 자연현상에 차례가 있고 질서가 있었으면... 그래서 원시시대의 예술은 직선예술이고 기하학적인 도형예술이었다. 이것은 원시인들의 질서에 대한 반영이었다. 그러나 대자연의 횡포는 오늘까지 계속되면서 불가사의한 힘으로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고있다. 무질서는 자연에서뿐만아니라 인간사회에서도 어쩔수 없는것으로 되고있다. 부자와 빈자의 알뜰, 강한자와 약한자의 대립, 종족과 종족간의 충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부터가 해방이라는 역사적정황앞에 당황하여 어디에서 내 위치를 찾아야 할지 몰라 동서남북을 두리번거리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장군님께서는 인민의 힘을 믿고 자연에 도전하여 이 공사를 받기하심으로써 건국의 순서조차 몰라 갈팡질팡하던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를 대변에 바로잡아주시고 40만 평양시민들은 장군님의 구령에 따라 이 공사장에 한사람같이 모여들었습니다. 결국 이 공사는 장군님의 두리에 질서있게 뭉친 대중의 단결력과 자연의 무질서와의 대결이라고 할수 있지요. 말하자면 보통강개수공사를 통해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동시에 인간들의 사상개조까지 실현하는 바로 여기에 김일성장군님의 위대한 신비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수영은 새삼스런 눈으로 운상을 바라보았다. 이 열정적인 청년에게는 뭐나 다 명백하고 모르게 없어보였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세요.》

그것은 운상이가 바라던 소리였다. 그런데 뭘 도와준다?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치자 도대체 도와줄게 있어보이지 않았다.

현장치료실은 지휘부의 방 한칸을 내고 자리잡았는데 운상은 치료실을 꾸리는데 남자손이 필요한것 같아 슬그머니 가보았다. 그런데 지휘부에서 사람들을 동원하여 눈깜짝할 사이에 꾸려준 덕에 운상에게는 일감이 차례지지 않았다. 그가 도와준것은 약병들을 올려놓는 당반을 만들어준것뿐이었다. 그걸 만드느라 운상은 밤을 꼬박 새웠다. 운상은 처녀가 공사장에 나온것을 그렇게라도 환영하고싶었고 가까운 벗이 되고싶은 자기 마음을 그렇게라도 전달하고싶었다.

수영은 아침일찍 송진내 풍기는 삼단짜리 당반을 들고 치료실에 찾아온 운상에게 밝은 웃음을 지어보였다.

《고마워요.》

《흰색라크칠을 해야겠는데...》

운상은 더 할 말이 없어 치료실을 나왔다. 마음은 공연히 즐거웠다.

하지만 생활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운상은 자기에게 어떤 검은 마수가 뻗쳐오고있는지, 그것으로 해서 자기가 어떤 곡절을 겪게 되겠는지 상상도 하지 못했었다.

로이문으로부터 공사설계를 담당한 사람이 김운상이라는것을 알았을 때 구진배는 깜짝 놀랐었다.

그는 자기가 중요한 공작대상을 놓치고있었다는것을 뒤늦게야 깨달았다. 지금까지 구진배는 민심을 흥흥하게 하여 공사속도를 늦추는데만 신경을 썼지 설계와 설계자에게는 손을 대지 않았었다. 그 이유는 기본설계가 이미 끝나고 시공단계에 들어갔기때문이였다. 그런데 기존설계를 수정한 사람이 김운상이고 지금은 수문설계때문에 애를 먹는다는것을 알게 되자 그는 속으로 이마를 쳤다. 신변이 다소 위태롭더라도 김운상을 한번 만나봐야 할것 같았다. 그를 재간껏 구슬려 남쪽에 데리고 나가면 좋고 그렇게 안되는 경우에도 공사장에서 물러나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지금까지 류언비어를 퍼뜨리거나 뼈라를 뿌리는 일들은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지만 이번일은 승산이 있을것 같았다. 하여 그는 로이문을 통해서 운상의 하숙집주소를 알아냈고 지금은 하숙집토방에 쭈그리고앉아 운상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있었다.

구진배는 동경시절부터 김운상을 알고있었다. 같은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운상은 건축학을 전공했고 구진배는 토목학을 배웠었다. 평양이 고향이라는것으로 해서 두사람은 대학초기부터 가까이 지냈다.

운상에 대해 회상할 때마다 맨먼저 떠오르는것은 모형기중기사건이었다.

어느해인가 건축학부에서는 건설기계모형전시회를 조직하였다. 당선자들에게는 대학졸업후 직업선택에서 우선권이 부여된다는 요란한 광고까지 나붙었다.

구진배는 자신이 없어서 애당초 전시회에 참가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는 우연히 운상의 하숙집에 들렀다가 앓은뱅이책상우에 놓여있는 모형기중기를 보게 되었다. 손재간이 좋은 운상은 모형기중기를 조립식으로 만들었는데 하얀색, 파란색으로 색칠까지 해놓아서 하나의 완전한 예술작품같았다.

구진배는 눈이 커졌다. 견물생심이라고 눈이 커지자 욕심도 커졌다. 저것이면 1등은 문제없었다. 구진배는 한번이라도 이름을 떨쳐보고싶었다.

그는 운상이가 돌아오기를 무료하게 기다릴수 없었다. 고학을 하는 운상은 일공판에서 샅집을 지다가 밤늦게야 돌아올것이다.

구진배는 모형기중기를 들고 나오며 하숙집녀인에게 돈을 맡겼다. 두달분 학비는 되고도 남을만큼 넉넉한 돈이었다. 그는 자기의 행동이 운상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그전에도 운상의 학비를 보태준적이 있었던것이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시상대에 올랐던 구진배는 대문을 쿵쿵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여났다.

잠옷바람으로 밖에 나가보니 운상이가 서있었다.

운상은 제잡담 손에 쥐고있던것을 구진배에게 집어던졌다.

창문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이 락엽처럼 흩날리는 지전장들을 희미하게 비쳤다.

《사람을 어떻게 보는거야? 시시하게...》

운상은 자기의 거친 행동을 설명할 필요도 느끼지 않고 성난 표정으로 구진배를 노려보다가 돌아섰다.

당황해난 구진배는 얼른 그의 팔소매를 잡았다.

《미안하네. 그거 말이야... 작다면 더 주지.》

《너 정말 너절하게 놀겠어?》

운상은 구진배의 잠옷깃을 와락 잡아당겼다.

진짜로 한대 때릴 기상이었다. 키는 컸지만 체격이 단단하고 야구팀주장인 운상에게는 언제나 한손 접히우군 하는 구진배였다.

운상은 자기가 너무했다고 느꼈는지 손을 놓고 그냥 돌아섰다.

《날 고향친구로 생각한다면 그러지 말게.》

구진배는 운상의 뒤에 대고 소리쳤다.

《서라구, 모형을 안 가지고 가겠나?》

《필요없어!》

운상은 돌아보지도 않았다.

구진배로서는 그의 괴벽한 행동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 돈도 안 가지고 모형도 안 찾아갈바에야 이밤중에 뭇때문에 왔단 말인가? 도대체 그를 분노하게 한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다음날 대학강당에서는 술한 교직원, 학생들의 참가하에 전시회가 열렸다. 구진배가 내놓은 모형기중기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모았다. 1등은 따놓은 당상이었다. 기린처럼 목을 뽑은 구진배는 여느때보다 키가 더 커진듯싶었다.

드디어 나비수염에 나비넥타이를 맨 교무주임이 연탁에 나섰다.

《예또, 이제부터 전시회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1등, 건축과 3학년 야스끼상.》

박수소리...

《2등, 토목과 4학년 히데오상.》

박수소리...

구진배는 아연해졌다. 1등과 2등을 받은 작품들은 자기것에 비하면 보잘것 없는것들이 아닌가.

아무리 《천황》 폐하께 충성을 맹세했다 해도 조선학생은 일본학생보다 앞설수 없다는 불문률을 구진배는 미처 생각지 못했었다.

《3등, 토목과 3학년 구진배상.》

《예!》

그나마도 기뻐다. 박수소리가 터지려는 찰나에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그건 험잡이요!》

소리를 지른 사람은 김운상과 한학급에서 공부하는 일본인학생이었다.

《모형기중기는 김운상의것이요. 난 그걸 만드는걸 봤단 말이요.》

모두의 눈길이 김운상과 구진배에게 쏠렸다. 구진배는 마른침을 삼켰다. 만약 사실이 밝혀지면 명예는 고사하고 험잡군으로 몰리울 판이었다.

교무주임이 김운상에게 따져물었다.

《김운상, 그게 사실인가?》

구진배는 간이 콩알만 해서 운상의 입을 지켜보았다. 운상은 서슴없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내건 아직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조선인학생들이 박수를 쳤다. 그것은 분명 운상에게 보내는 박수였다. 구진배도 덩달아 박수를 치며 옆의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안도의 숨을 가만히 내뿜었다.

그것으로 일이 끝났으면 좋으련만 운상이 다시 불집을 일으켰다.

《전 의견이 있습니다. 구진배군의 모형기중기는 다른것들보다 훨씬 우수한데 어째서 3등밖에 안되니까? 조선학생이기때문인가요? 학원에서는 마땅히 진실과 진리만을 존중해야 할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조선학생들이 그의 말에 호응해나섰다.

교무주임은 운상을 노려보며 차갑게 뇌까렸다.

《무슨 잔말인가? 김운상, 너는 오늘부터 한달동안 정학처분이다. 그리고 구진배상의 모형기중기는 락선이다!》

구진배는 숨이 탁 막히는것 같았다. 그날 전사회는 결국 흐지부지되고말았다. 저녁에 그는 하숙으로 향한 운상을 붙어잡았다.

《가자구, 한잔하세.》

거리의 변화가에는 현란한 색등들이 행인들의 눈길을 끌었다. 그들은 길옆의 식당에 들어갔다. 식당안은 빈 자리가 없을만큼 혼잡을 이루고있었다. 중일전쟁의 발발로

호경기를 맞은 군수산업체들의 덕분에 식당업자들도 벌이가 꽤찮아진 모양이었다. 그들은 구석쪽에 겨우 빈 식탁을 하나 잡고앉았다.

술취한자들의 고함소리, 떡파는듯 한 노래소리로 소란한 가운데 기모노를 입고 악사석에 앉은 계집의 샤미생소리가 끊길듯말듯 간간이 들려왔다.

구진배는 인차 혀가 꼬부라졌다.

《이 마사무네라는게 이상하단 말이요. 도수도 세지 않은것 같은데 어느새 취하거던. 하긴 일본민족자체가 이상한 족속이지. 이렇게 술도 약하고 음식도 달콤하고 계집도 나긋나긋하고 악기마저 저렇게 애간장을 녹이며 약한 소리를 내는데 사람들은 천하에 지독하거던. 그저 무슨 일에서나 앞자리를 양보할줄 모른단 말이요.》

그는 아직도 자기가 1등이 되지 못한게 알찌근했던것이다.

《운상군, 한가지 묻기요. 아까 왜 모형기중기가 내것이라구 거짓말을 했소?》

《존엄때문이야. 조선사람끼리 일본놈들앞에서 네거다 내거다 싸워야겠나? 그놈들이 조선사람을 얼마나 업수이 여기는가 오늘 봤지?》

구진배는 술잔에 남아있던것을 마저 들이키고 푸념조로 중얼거렸다.

《그렇다고 정면으로 골받이를 해야 소용있소? 차라리 가만있었으면 3등상이라도 타는건데...》

구진배는 운상의 얼굴이 험악해진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중얼거렸다. 《지금 세상에 정의와 진리라는게 도대체 뭐요? 모로 가도 서울만 가랬다구 월계관을 쓰면 그게 진리지. 이 소란한 식당에서 샤미생소리도 간간이 들리고 술취해서 부르는 노래소리도

들리는데 어느것이 진짜 음악이요? 도대체 세상의 온갖 소음속에서 진정한 진리를 가려들을수 있나 말이요?》

운상은 그의 녀두리를 더 듣고싶지 않은지 의자를 밀어제끼고 일어섰다.

《이보라구 진배, 왜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긴것만도 원통한데 자존심마저 버리겠나?》

구진배는 운상의 뒤모습을 흐리멍텅한 눈으로 바라우다가 술병에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보면 두사람은 인생에서 귀중한것이 무엇인가를 가르는 기준이 서로 달랐다. 구진배에게 있어서 존엄은 생존 그다음이었다.

지금도 구진배는 그때일을 돌이켜보며 김운상은 인생을 참 힘들게 살아갈 팔자라고 속으로 단정하였다.

운상은 날이 어두워진 뒤에야 돌아왔다. 요새는 일이 바빠 공사장에서 숙식하했는데 하숙집에서 친구가 기다린다고 누군가 알려주기에 우정 들어온것이다.

운상은 오래간만에 만나는 구진배가 반가웠다. 옛날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해도 자기를 찾아온 고향친구를 랭대할 까닭은 없었던것이다.

《이게 얼마만인가? 어서 들어가자구. 들리는 말이 자네가 남조선에 나갔다던데?...》

구진배는 숨길 필요가 없어 머리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지주였는데 별수 있소?》

《그러니까 지금 남조선에서 들어오는 길인가?》

《그렇소. 이것저것 불일두 있구 친구들도 만나고싶구 해서...》

잠시후 두사람은 하숙어머니가 차려준 간소한 술상에 마주앉았다. 두부를 썰어넣은 남비탕과 마른 명태 몇마리가 상우에 올라있었다. 구진배는 오래간만에 만나는 선배에 대한 도리를 지킨다면서 가지고온 술병을 꺼내놓았다. 한잔씩 마시면서도 구진배는 자기 정체가 탄로날것 같아 좌석이 편안치 못했다.

《난 김형이 일본에서 이름을 날리고있을줄 알았는데…》

《이름은 고사하고 난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도 미처 못 끄고 전전궁궁하는판일세.》

운상은 구진배에게 수문설계로 인한 고충을 털어놓았다.

《자넨 토목을 전공했잖다, 평양이 고향이잖다, 그러니 보통강개수공사에 무관할수 없겠지? 자네가 한달만 빨리 나타났어도… 참.》

그때까지도 운상은 구진배의 아버지가 보통강토목공사의 리권을 절반이나 가지고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있었다. 설사 알았다 해도 그는 구진배에게 뭐든 숨기지 않았을것이다. 그만큼 그는 구진배가 이 공사를 파탄시키려는 원쑤일수도 있다는데 대해서는 꼬물만큼도 생각지 못했고 그를 자기와 같은 사람으로 믿고있었던것이다.

구진배는 흥분을 애써 누르며 심상하게 말했다.

《나야 뭐 김형만큼 아는게 있소. 그래두 설계를 한번 볼수 있으면 좋겠구만.》

《왜놈들의 설계에는 수문자리에 무덤이제방을 쌓게 되어있네. 애당초 볼 필요가 없어.》

《그럼 그대로 하면 되지 않나?》

《안돼. 그러면 본래의 보통강은 장마철에만 물이 흐르는 병신강이 된단 말이야.》

《그래두 그게 수문보다는 안전하구 경제적으로도 리득일것 같은데... 좌우간 술이나 들기요.》

구진배는 자기가 알바 아니라는듯 잔에 남은것을 쭉 들이키고 화제를 돌렸다.

《그 애긴 그만하구 김형은 장차 어떻게 할 생각이요?》

《어떻게라니?》

《여기서 김형이 뭘 하겠는가 말이요? 남조선은 미국의 원조밑에 일떠서겠지만 북조선의 미래는 어떻소? 지금 북조선에서는 맨주먹으로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하는데 이런 한심한 형편에서 현대 건축학을 공부한 김형같은 수재가 할 일이 뭔가 말이요? 차라리 나하구 같이 남으로 나갑시다. 서울에 가면 김형은 장차 조선의 건축가로 이름을 날릴거요. 저 보통강감탕판에 자기 재능을 묻을게 있소?》

운상은 구진배가 두말 못하게 눌러놓았다.

《그런 생각은 말게. 난 여기 평양에서 나의 리상을 실현하겠네.》

그래도 구진배는 실망하지 않았다.

《현재 이북에서는 공산쑤련의 본을 따서 프로레타리아트가 정권을 잡은 계급사회를 세우자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민주주의를 표방하고있지만 그들이 일본에 가서 대학공부까지 한 김형을 가만놔둘것 같소?》

그때에야 운상의 머리속에는 반동이란 생각이 불쑥 떠올랐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구진배를 바라보며 직방 물었다.

《자네 나한테 왜 왔나?》

구진배는 아차- 하고 혀를 깨물었다. 몇잔 마신김에 너무 속도를 냈던것이다.

《난 그저 김형의 처지를 동정할뿐이요.》

만약 그때 김운상이 계급적원썬을 가려볼수 있는 사상적준비가 되어있었다면 일이 다르게 되었을것이다.

그러나 그는 구진배가 반동노릇을 할만 한 재목은 못된다고 생각하고있었다. 오히려 자기가 너무 신경을 곤두세운것 같았다. 해방전에 풍청거리며 살다가 땅도 집도 다 떼웠으니 이북에 대한 감정이 좋을수 없겠지...

《자네가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앞에서 이북정치를 시비하지 말게. 다시 그런 말 하면 좋지 않아. 그리구 평양에서 볼일을 다 봤으면 급게 돌아가라구.》

운상은 큼직한 손으로 마른 명태껍질을 꺾꺾 벗겨서 그앞에 놓아주었다. 구진배는 마치나 자기 정체가 그렇게 발가벗기우는것 같아 슬그머니 고개를 돌렸다. 생각같아서는 이 자리에서 운상을 쫓아버리고싶었지만 그는 자신을 다잡았다. 그에 대한 처리는 공산정권에 맡기는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했던것이다. 오늘 자기를 만났했다는 사실만 폭로되어도 김운상은 공사장에 붙어있지 못할것이다. 결국 그의 존재는 공산정권하에서 지식인의 운명이 얼마나 비참해지는가를 세상에 폭로하는 선전물로 리용될것이다.

아침일찍 김정숙동지께서는 어리신 장군님의 손목을 잡으시고 해방산을 넘으시었다. 일행은 모두 여덟인데 삼이나 혹은 질통을 하나씩 둘러메고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도 한쪽어깨에 삽자루를 둘러메고계시었다.

어제 녀사께서는 중앙녀맹에 찾아가시여 녀성들도 보통강개수공사에 적극 떨쳐나설데 대하여 호소하시었다. 그리고 자신께서 몸소 경위대가족들을 데리고 공사장으로 나가시는 길이였다.

지금도 그이께서는 함께 걷고있는 경위대가족들에게 이 공사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고계시었다.

《장군님께서는 녀성들도 조직된 힘으로 건국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어요. 더구나 이 공사는 장군님의 권위와 새 조국건설의 운명과도 관련되는 공사인만큼 응당 우리가 앞장에 서야지요.》

앞서가는 강일복과 김신숙은 쌍태머리를 나풀거리며 벌써 큰길에 내려섰다. 처녀들은 어머님을 모시고 공사장에 일하러간다는 즐거움에 랄라라 노래를 부르다가 뭐가 또 웃음통을 건드렸는지 허리를 꺾으며 까르르거린다. 그들의 잔등에 매달린 질통도 함께 들까불리운다.

일행이 서평양조차장다리를 넘어 공사현장에 도착하니 온통 사람천지였다. 건국로력대원들은 남자들의 천지에 처음 나타난 녀성들을 신기한듯 바라보았다.

《히야! 녀자들이 이런 공사판에 다 나오다니...》

《아주머니네두 동원증을 받았소?》

돌쩌바람으로 삽질을 하던 젊은 남정 하나가 푸점 좋게 물었다.

《우린 자원해서 나왔어요.》

쌍태머리 강일복이 쟁쟁한 소리로 한방 먹였다.

《그럼 다른데 갈것없이 우리하구 일하자구요. 여기서 노래만 불러주면 우리가 두뭇은 제끼리다.》

《히야. 아낙네들값이 공사장에선 금값이구만.》

아무것도 모르는 남정네들한테서 험한 말이라도 나올가봐 마음이 조금해난 황순희가 참지 못하고 냅다 쏘았다.

《아니, 누굴보구 아낙네라는거요. 이분...》

《순희동무.》

김정숙동지께서는 황순희의 팔을 끌어당기시며 앞으로 나서시였다.

《여러분, 더운 날씨에 수고들 하십니다.》

어머님께서는 주변에서 일하던 사람들에게 허리굽혀 인사를 하시였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리둥절해졌다. 자기같은 막사람들에게 그렇게 공손히 인사를 하시는 저 녀인이 뉘신가?

하지만 아무리 상상력을 발동한다 해도 자기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신분이 백두산녀장군이실줄이야 어찌 짐작이나 할수 있었으랴.

《**김일성**장군님께서는 평양시민전체가 보통강개수공사에 떨쳐나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는데 여자들이라구 어찌 집안에만 앉아있겠습니까. 여러분들두 래일부터는 안해들과 함께 공사장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일두 한결 험하구 재미있구 또 안해들의 몸값두 오르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거참 신통한 소리웨다.》

《다른데 갈것없이 우리하구 일하면서 좋은 연설이나 해주우다.》

어머님께서는 시종 밝은 표정으로 양해를 구하시였다.

《저희들도 여러분과 함께 일했으면 좋겠지만 우린 오늘 김일성장군님께서 첫삽을 뜨신 곳에서 일하려고 합니다.》

남정네들은 저희들끼리 수군거렸다.

《확실히 보통아낙네들하구는 달라.》

《대체 뉘실가?》

그때 어머님과 함께 왔던 경위소대장 김영걸이 장혁수를 데리고 나타났다. 사실은 그 술한 사람들속에서 김영걸이 장혁수를 찾아낸게 아니라 장혁수가 유표한 군복차림의 김영걸을 먼저 알아보았던것이다.

장혁수는 김정숙동지께서 공사장에 나오시였다는 소리에 발이 땅에 닿는지도 모르고 달려왔다.

《너사님께서 여긴 웬일로 오셨답니까?》

벌써 세번째 똑같은 질문을 한다. 어머님께서 일하러 나오셨다고 명백히 말해주었는데도 장혁수는 그 말을 도저히 믿을수 없었다. 토성랑녀인이라면 혹시 그럴수도 있으련만 장군님택에서 어떻게 이런 공사장에 나오실수 있단 말인가. 어머님앞에 다가와서도 그는 얼나간 사람처럼 멍해가지고 인사조차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

어머님께서는 장혁수를 처음 보는 순간 런던의 애뜻한 정을 금할수 없으시였다. 달포전에 장군님께서 그를 만나 눈물겨운 과거지사를 들으시고 너무 가슴아프시여 끝내 저녁식사를 못하시던 일이 생각나시였던것이다.

《제가 김정숙입니다.》

어머님께서는 봄날처럼 따스한 미소를 지으시고 장혁수에게 먼저 인사를 하시였다.

《너사님!》

장혁수는 그제야 정신이 펴져 들어 황황히 허리를 굽혔다. 그리고는 또 어찌할바를 몰라 울대뼈만 움찔거렸다.

《장군님께서 첫삽을 뜨신 장소가 어디니까? 우린 오늘 거기서 일하겠어요.》

장혁수는 어머님께서 들고계시는 삽과 주위에 둘러선 녀성들이 질통을 지고있는것을 제 눈으로 보면서야 정말로 일하러 나오시였다는것을 믿을수 있었다.

어쩌면... 어쩌면 너사님께서...

장혁수는 어머님을 현장에 안내해드렸다.

《여기가 장군님께서 첫삽을 뜨신 곳입니다. 바로 이 삽입니다.》

장혁수는 어머님께 자기가 들고있던 삽을 내보였다. 겨우 이틀밖에 쓰지 못했는데도 삽날은 도금이라도 한듯 번쩍거리고 삽자루도 라크칠을 한것처럼 반들반들해졌다.

《술한 사람들이 그 삽을 한번씩만 써보자구 해서...》

장혁수는 장군님께서 쓰시던 삽을 정히 간수하지 못하고 삽자루가 반들반들해질 정도로 사람들의 손때가 오른것이 잘못이거나 한듯 말끝을 맺지 못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장군님의 손길이 닿아있는 그 삽을 살펴보시며 말씀하시였다.

《이 삽은 공사가 끝난 다음에 잘 보관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후대들에게도 우리 장군님의 혁명력사를 잘 알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공사장엔 그 삽에 대한 전설들이 많이 생겨나고있습니다.》

《전설이요?》

어머님께서는 장혁수의 말에 흥미를 느끼시었다.

《예, 장군님께서 그 삽으로 축지법을 쓰시었는데 그 삽으로 흙을 퍼담으면 아무리 많이 담아도 목고가 무겁지 않았다는겁니다. 그리고 삽날을 땅에 박으면 흙이 다섯자깊이로 없어지고 삽날에서는 류다른 광채가 번쩍거리는데 그 빛을 받으면 바위건 흙이건 다 녹아없어진다는겁니다.》

어머님께서는 장혁수의 말을 들으시며 장군님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흠모심을 다시금 절감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자신께서 들고 오셨던 삽을 김신숙에게 넘겨주시고 대신 질통을 빼앗아메시었다.

《그 전설이 정말 맞는가 보지요. 책임자동무, 어서 그 삽으로 흙을 담아주세요.》

장혁수는 삽을 땅에 박았다.

어머님께서 자기에게 질통을 돌려대고 서계시는데 어쩔수가 없었던것이다. 적당히 담아드리고 이젠 그만 됐다고 말씀올리는데도 어머님께서는 그냥 더 담으라고 하신다.

《전설이 맞는것 같군요. 하나도 무겁지 않아요.》

어깨가 뻐근하도록 지고싶은 짐이여서인지 정말 무겁지 않으시었다.

휴식시간이 될 때까지 어머님께서는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질통을 지시었다.

어리신 아드님께서는 어머님께서 한번 갔다오실 때마다 신발에 큼직하게 달라붙은 진흙덩어리를 나무꼬챙이로 털어드리곤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자신의 키보다 더 큰 삼을 드시였다.

《어머니, 내가 담아주겠어요.》

《그래.》

어머님께서서는 우정 무릎을 꿇고 앉으시였다.

아드님께서는 골숨하게 흙을 파서 입술을 감쳐무시고 안간힘을 쓰시며 질통에 담으시였다.

《우리 만이가 용쿠나.》

어머님께서서는 진정을 담아 아드님을 칭찬하시였다.

아직은 빈삽도 다루어내기 힘든 나이가 아닌가. 아직은 재미있는 장난에 정신이 팔리거나 어머님의 치마자락에 매여있을 나이에 그래도 삼질을 해보겠다는것이 얼마나 장하고 기특한가. 아마 이다음에 어른이 되신 후에도 오늘을 잊지 못하실것이다.

아드님께서는 다시 흙을 파시였다. 이번에는 처음보다 좀 많아졌는지 질통높이에까지 들어올리지 못하신다. 옆에 서있던 강일복이 얼른 아드님을 도와드렸다.

《봐두세요. 제손으로 흙 한삽이라도 제방에 보태고싶어서 그러는거예요.》

김정숙동지께서는 강일복을 만류하시며 혼자생각에 잠기시였다.

(바로 이것이다! 전체 인민이 한마음되어 크나작으나 흙 한줌, 돌 한개라도 보탠다면 이 공사를 얼마든지 장마철전에 해낼수 있다. 이런 마음과 마음들이 모여 이 제방이 형성되는것이고 민주주의제방, 인민정권이 공고화되는것이다.)

휴식시간이 되어서야 김정숙동지께서는 질통을 벗으시며 장혁수에게 말씀하시였다.

《책임자동무, 그 저고리를 벗으세요. 팔소매가 터졌군요.》

《일없습니다. 이까짓거야 뭐...》

장혁수는 너무 황송해서 차마 단추를 벗기지 못했다. 어떻게 감히 어지럽고 땀내나는 작업복을 녀사님손에 맡긴단 말인가. 토목공사관에서 일하는 사람의 옷주제가 어떻게 가꾼 서방같으랴만 김정숙동지께서는 저고리고름안쪽에 항상 꽃고 다니시던 바늘을 뽑아드시며 장혁수를 가볍게 책망하시였다.

《책임자라는 사람이 옷차림부터 단정해야지요.》

장혁수에게는 불쑥 아득한 시절의 친어머니 생각이 떠올랐다. 해종일 장난치다 들어오면 혁수의 험한 단벌 토스레옷을 들고앉아 고콜불아래서 기워주던 친어머니모습이 세월의 안개를 말끔히 걷어헤치고 생생히 떠올랐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풀밭에 앉으시여 저고리의 터진데를 꼼꼼히 기워주시였다. 이런것도 안해가 있었으면 제때에 손질해주었을텐데... 마चना 그 터진 혼솔짚으로 장혁수라는 인간의 생활의 온기가 다 빠져나간듯싶으시여 김정숙동지의 마음은 가볍지 않으시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책임자동무의 생활을 몹시 심려하고계십니다. 그러니 자꾸만 지난날에 포로되어 괴로워하지 말고 하루빨리 새생활을 꾸리도록 해보세요. 해방된 조국의 현실이 사람들로 하여금 새롭게 살것을 요구하고있어요. 이 공사만 봐도 우리의 인민정권이 그 새로운 생활방식을 환영하고 그것을 믿음직하게 담보해준다는걸 알수 있지 않나요.》

마음같아서는 자신께서 직접 중매라도 서고싶지만 갑자기 맞춤형 대상이 떠오르는것도 없고 그보다는 장혁수본인이 새로운 눈으로 생활을 보면서 마음에 드는 대상을 찾게 하고싶으시였었다.

장혁수는 얼굴이 벌개져 아무 말도 못했다. 그저 장군님과 녀사님께 끝없이 감사한 마음뿐이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녀자손이 갈데가 더 없는지 저고리를 이리저리 살펴보시고 장혁수에게 넘겨주시였다.

공사장을 죽 둘러보시니 사람들은 일하던 자리에 끼리끼리 주저앉아 담배연기만 폴폴 날리며 말추렴을 하고있었다. 허허벌판이라 어디 그늘진데도 없어 띄약별은 사람들의 정수리를 사정없이 지지고있었다.

이런 때에는 땀을 들일수 있는 빙수라도 있었으면 좋으련만.

하다못해 시원한 샘물이라도...

김정숙동지께서는 장혁수에게 고개를 돌리시였다.

《이 주변엔 샘물이 없습니까?》

《저기 현장사무실 뒤골짜기에 있습니다.》

《그래요?!》

김정숙동지께서는 반색을 하시며 자리에서 일어서시였다.

《동무들! 우리 건설자들에게 샘물이라도 길어다 주자요.》

김정숙동지의 발기에 녀자들이 다 따라나섰다. 그릇이 없어서 공사지휘부에 있던 바께쓰며 소랭이까지 동원했다.

바게뜨에 샘물을 길어가지고 강일복과 함께 오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봉수산기슭의 잔디밭에 우두커니 혼자 앉아있는 시인 리찬을 알아보시였다. 리찬은 얼마전에 함흥에서 올라왔는데 아마도 공사장에 시를 쓰러 나온 모양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강일복을 먼저 보내시고 그쪽으로 다가가시였다.

《시인선생님두 나오셨구만요.》

리찬은 고개를 들었다. 창작적사색의 바다에 갇혀있었는지 김정숙동지를 첫눈에 알아보지 못했다. 설마 김정숙동지께서 작업복차림으로 여기 공사장에 나와계실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리찬은 갑자기 흠칫 놀라는가싶더니 벌떡 일어섰다.

《아니, 김녀사께서...》

《제가 선생님의 사색을 방해한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시인선생을 이런 공사장에서 만나게 되니 더 반갑습니다.》

리찬은 김정숙동지에게 자기의 고충을 숨기지 않았다.

《장군님께서서는 작가들이 공사장에 나가 예술활동도 하고 좋은 노래를 창작하라고 말씀하시였는데 그 뜻을 받들지 못해서 속을 태우던중입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시인의 한숨섞인 말을 들으시며 오히려 그에 대한 믿음을 한층 더 느끼시였다. 그가 요즘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창작하느라 밤을 패고있다는것을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미 알고계시였다. 며칠전에도 김책동지가 데려온 그를 만나 항일무장투쟁시기이야기도 해주시고 자신께서 애용하시던 노래수첩도 참고하라고 주시였었다. 민족의 태양이시고 불세출의 영웅이신**김일성**장군님에 대한 노래는 꼭

자기가 짓는다면서 심혼을 깡그리 태우던 그가 장군님의 말씀을 받들고 공사장에 나왔으니 한시바빠 좋은 노래를 지을수 있도록 힘자라는것 도와주고싶으시였다.

그렇지 않아도 리찬은 무작정 김정숙동지에게 매달렸다.

《내가 힘에 부친 중임을 맡았다는걸 하늘이 알고 김녀사를 귀인으로 보내준 모양입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뭘 안다고 시인선생을 도와주겠습니까? 그저 함께 걱정해봅시다.》

리찬은 흘러내리는 긴 머리카락을 자주 쓸어올리며 열변을 토했다.

《내가 고심하는건 다른게 아닙니다. 이런 공사장에서는 어떤 노래를 지어야 하는가 하는겁니다. 지금까지 공사판에는 노래가 없었습니다. 감독의 채찍소리와 인부들의 신음소리뿐이었지요. 노래가 있었다면 그저 구슬픈 타령이었습니다. 유럽의 누가 말하기를 <로동이 없는 생활은 최악이고 예술이 없는 노동은 잔인하다>고 했지만 노동의 대가를 착취자에게 빼앗기고 비참하게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는 로동이 노래로 될수 없었습니다. 나부터도 지난 세월을 울분과 탄식으로 살아오면서 이런 공사장이 예술의 원천지로, 그 대상으로 될수 있다고는 한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다나니 작품의 양상을 도대체 찾아낼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김녀사!》

김정숙동지께서는 시인의 창작적고충을 외면할수 없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영채가 어리신 눈빛으로 사람들이 흰구름처럼 하얗게 덮인 공사장과 그우에 펼쳐진 파란 하늘을 바라보시였다. 하늘에도 흰구름송이들이 뭉게뭉게 어려있었다.

《선생님은 처음 목격한 현실앞에 당황해지고 그래서 자신의 창작적흥분을 반신반의하시는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로동이 고통이었고 따라서 그 고역속에서는 노래가 나올수 없었지요. 방금 선생님도 말씀하다싶이 예술은 분명 로동속에 뿌리를 두고 창조되기 시작하였지만 착취자들은 근로민중에게서 생산물과 함께 노래마저 빼앗아간셈이지요. 하지만 이제는 인민이 모든것의 창조자로, 향유자로 되었습니다. 그러니 왜 로동이 흥겹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자기들이 땀흘려 쌓는 제방을 <애국제방>, <건국제방>이라고 이름하고있습니다. 저는 그 말속에 건설자들의 진실한 감정이 다 담겨져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리찬에게 손을 내미시였다.

《선생님, 여기에 혼자 앉아서 애태우지 말고 우리 같이 가서 땀을 흘려보는게 어때요? 건설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로동의 환희를 몸으로 느껴보느라면 흥겨운 노래가락이 저절로 나올겁니다.》

리찬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다

《예전에 우리 작가들은 생활의 관조자였습니다. 소위 예술의 객관성을 운운하면서 그저 멀찍이 서서 현실을 감상하고 글을 쓰곤했지요. 이젠 세상이 달라졌으니 작품의 색깔도 달라져야겠는데 난 아직도 붓을 들기만 하면 눈물이 앞서던 지난날의 창작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것 같습니다. 갑시다! 나두 랭담한 관조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고싶습니다.》

리찬은 김정숙동지의 손에 이끌리어 공사장으로 뛰어들었다.

30

운상은 고심끝에 수문대신 무너지제방을 쌓기로 했다. 이제는 정말 시간이 없었던것이다. 그는 무너지제방을 권고하던 구진배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새 물길의 최대물량에 기초하여 무너지제방을 쌓아놓으면 사상최대의 홍수가 터진다 해도 새 물길로 미쳐 빠지지 못하는 물은 무너지제방을 넘어 본래의 강줄기로 흐르게 될것이였다. 그는 무너지제방설계를 토의에 붙이면서 이것이 립시적이라는것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앞으로 경제가 활성화되어 보통강에 운하를 건설하고 유원지도 꾸릴만큼 여유가 생기면 그때 수문건설을 다시 합시다. 지금은 시간이 없기때문에 수문건설로 발목이 잡히면 공사전반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너지제방을 쌓으면 나라살림이 어려운 때에 수문구조물공사에 투자할 자재도 절약하고 수문운영에 필요한 전기나 로력도 쓰지 않게 됩니다.》

《아닌게아니라 지금은 철근 한톤, 세멘트 한톤이 귀하오.》

리주연이 먼저 운상의 말에 공감했다. 평안남도의 산업을 책임지고있는 그로서는 어려운 나라사정을 생각하는 김운상이 고마울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김운상의 견해에 박수를 보내는것은 아니였다. 처음부터 얼굴에 불안한 기색을 짓고있던 장혁수가 곱지 않은 얼굴로 운상을 바라보며 물었다.

《무늬이를 쌓으면 강줄기가 막힌다는건데 그러면 본래의 강은 아예 버리자는거요?
 》

웬만큼 큰물이 나지 않는 해에는 본래의 강줄기가 말라버릴수밖에 없었다.

운상은 뻔한 질문을 하는 장혁수에게 선선히 대답해주었다.

《그럴수밖에 없지요.》

《강줄기를 아주 말리워버리는건 잘하는것 같지 않다.》

그러자 누군가가 그게 일리있는 소리라고 맞장구를 쳤다.

《큰물이 어느해에 나겠는지는 누구도 알수 없는노릇이니 강이 흐르던 자리에 논을
 풀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메워버릴수도 없고, 그게 난사로군.》

《그래두 큰물고생을 하던 토성랑사람들에게야 그편이 오히려 시원하지 않을까?》

장혁수는 무어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입을 꼭 다물고있었다. 보통강이 원한의 강,
 재난의 강인것만은 사실이다. 생각할수록 원썩같은 보통강, 그 강때문에 흘린 눈물
 얼마이며 그 강에 퍼부은 저주는 얼마였던가. 그러나 정작 그 강이 병신모양으로 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장군님께서서는 앞으로 보통강에 운하를 만들어 살기 좋은 락원을 꾸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하지만 장혁수는 그 자리에서 자기 의견을 털어놓지 못했다.
 게딱지같은 움막들이 짙 들어찬 강변의 어지러운 풍경에만 익숙된 그로서는 보통강변에
 꾸려질 락원이 어떤것인지 도무지 표상을 그려낼수 없었고 따라서 자기 의견을
 고집할수 없었던것이다. 더구나 기술문제에서는 김운상의 론거를 따를수밖에 없는데다

리주연부위원장까지 동의하니 한갓 시공책임자인 자기로서는 다른 소리를 할 처지가 못되었다.

리주연이도 길을 잘못든것 같은 예감이 들었던지 심중한 기색을 짓고 운상에게 물었다.

《전번에 장군님께서서는 앞으로 보통강물줄기를 대동강과 연결시켜 운하를 파서 수상운수로 개척할수도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소?》

운상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도 장군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있습니다. 그러나 전 장군님의 구상이 먼 후날의 보통강을 넘두에 두신거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그건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가 허리를 펴서 여유가 생긴 다음의 일이지요. 보통강에 수상운수를 개척하자면 강바닥도 더 파고 대동강과 연결시키는 운하공사도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럴 힘이 없지 않습니까? 당장은 홍수피해가 기본이지요.》

누구도 김운상의 론거를 반대하지 못했다.

결국 그날 토론은 김운상의 착상대로 무덤이제방을 쌓는것으로 락착되었다.

운상은 지체없이 무덤이제방설계에 달라붙었다.

설계라고 할것까지도 없고 그저 새 물길의 최대물흐름량에 근거해서 제방의 높이와 너비만 계산해주면 되는 단순한것이였다. 다만 시공에서 바닥기초부터 든든히 콘크리트를 쳐서 제방의 견고성을 보장하는것이 기본이였다.

운상은 설계를 맡아하는 한편 기술부 책임자로서 각 공사구역에 배치한 기술지도원들까지 통솔하느라 눈코뜰새 없었다. 그래도 힘든줄을 몰랐다.

×

리주연으로부터 무념이제방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표정을 달리하시였다.

《수문을 어떻게 한다구요?》

《수문자리에 큰물때에만 물을 넘길수 있도록 무념이제방을 쌓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이해되지 않으시였다. 그것은 이해할수도 이해되어서도 안되는것이기때문이였다.

《그 리유는 뭘니까?》

《수문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없기때문에 수해방지를 위한 가장 안전한 방법을 택하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문제작에 드는 자재와 비용을 절약할수 있기때문에 저도 그 방법을 지지했습니다.》

《그럼 원래의 보통강을 버린다는게 아닙니까? 강을 말리워버리면 그 자리는 어떻게 한다는겁니까?》

리주연은 장군님의 안색이 변하시는것을 보고서야 자기들이 무엇인가 잘못했다는것을 깨달았다.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엄중한 과오를 범했다는것을 인정하였다. 어느때나 인자하시고 가볍게 미소를 지으실 때에도 보조개가 꽤이군 하시는 그이의 친근한 표정에만 습관되어왔던 리주연으로서 온몸이 얼어들고 당황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장군님께서는 리주연에게 아무런 질책도 없으시였다.

《됐습니다. 어서 가보시오. 후에 만납시다.》

장군님께서는 혼자 있고싶으시였다. 모진 괴로움은 혼자서 묵새기셔야 했다. 리주연은 집무실에서 나오지 않을수 없었다.

그이께서는 무념이제방을 착상했다는 김운상에 대한 실망감을 금할수 없으시였다. 어쩌면 그가 보통강을 버릴 생각까지 한단 말인가. 평양을 세계적인 도시로 건설하겠다는 꿈을 안고있는 사람이 어쩌면...

물론 보통강은 오늘까지 원한의 강, 눈물의 강으로 불리워왔다.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재난이 보통강과 더불어 빚어졌던가. 하지만 보통강이 재난의 대명사로 불리워왔다 해도, 그래서 그 강을 버려야 한다는 천백가지 론거가 당당하다 해도 그것을 단번에 부정할수 있는 한마디가 있지 않는가. 그것은 보통강도 조국의 한부분이라는것이다. 그런데도 보통강을 버린단 말인가.

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불충분하다면 보통강변에 태를 묻고 살아오는 인민들에게 물어보기라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장군님께서는 양복웃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드시였다.

조국에 개선하시자마자 그이께서 처음으로 찾아내신 지식인들의 이름이 그 수첩에 썩여져있었다. 김운상의 이름도 그 열세명속에 있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장군님께서는 김운상의 잘못도, 리주연의 잘못도 다 자신께서 책임져야 한다는 막중한 정신적부담을 안으신채 오래도록 진정을 못하시였다.

31

공사지휘부에서는 수문설계를 놓고 심각한 비판이 벌어졌다. 처음에 설계를 토론할 때 어정쩡한 태도를 취했던 사람들도 장군님의 말씀을 전달받고서야 가슴들을 쳤다. 자기들이 무슨 정신으로 무념이제방설계에 귀가 솔깃했었는지 암만해도 모를 일이었다.

리주연은 자기부터 용서할수 없었다. 내가 평양을 무슨 꼴로 만들려고 했는가. 이 신성한 땅을 욕되게 하고 그래서 장군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는데 어떻게 용서를 바란단 말인가. 이걸 단순히 무식이 빚어낸 실책이라고만 볼수 있겠는가...

장혁수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주먹을 짹 틀어쥐고 머리를 푹 숙인채 씩씩 황소숨만 몰아쉬었다.

그때 운상의 말을 완강하게 반대하지 못한것이 뼈저리게 후회되었다. 보통강의 운명과 관련되는 일에서 주대를 세우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고 그리고 김운상이 원망스러웠다. 생각같아서는 이제라도 김운상의 뒤덜미를 잡아 강물속에 처박으며 보통강을 무슨 모양으로 만들려 했는가고 벨풀이를 하고싶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보통강을 락원으로 꾸리시겠다고 공사장에서 땀을 흘리시었는데 공부깨나 했다는 사람이 어찌면 그렇게 일한단 말인가.

열띤 목소리들이 방안을 달쿠는데 별안간 《야!》하는 찌지는듯 한 고함소리가 터져나왔다. 여자목소리처럼 앙칼진 외마디 고함소리는 달아오르던 방안에 찬기운을

몰아왔다. 목소리의 임자는 로이문이었다. 그는 운상에게 창끝처럼 손가락을 겨누고 피대를 돌구었다.

《이 해독분자같은 놈아! 너 무슨 심보루 설계를 그따위로 했어? 정체를 밝히라!》

듣다못해 리주연은 로이문에게 주의를 주었다.

《로동무, 감투를 함부로 씌우지 마오.》

로이문은 그러기를 기다린듯싶었다.

《책임자동지는 저런 반동을 싸고돌자는겁니까? 저 사람이 며칠전에 서울에서 들어온 반동놈과 몰래 만났다는걸 알고나 있습니까? 그놈이 어떤 놈인지 알거나 하십니까?》

《그게 무슨 소리요?》

다른 사람들은 물론이고 당자인 김운상도 펄쩍 놀랐다. 그럼 구진배가 정말?...

로이문은 모두의 긴장된 시선을 자기에게 집중시켜놓고 드디어 폭탄을 터뜨렸다.

《그놈의 애비인즉 해방전 이 공사장의 리권을 가지고있던 구문선입니다. 서울로 달아났던 그놈의 아들이 평양에 와서 저 사람과 만났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른단 말입니까?》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였다. 리주연은 아무래도 그 말을 믿을수 없었다. 그는 김운상이 아니라 로이문에게 먼저 따졌다.

《동문 그걸 어떻게 알았소?》

그에 대한 대답은 준비되어있었다.

《그놈이 저 사람의 하숙집에서 나오는걸 본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반동놈과 하숙집에서 만났는가, 안만났는가?》

로이문은 범잡은 포수처럼 득의양양했다.

《그게 사실이요?》

운상은 리주연의 물음에 아찔해졌다. 갑자기 귀가 멍멍해지면서 딥고선 땅이 흔들리는것 같았다. 이런 때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 구진배가 반동인줄 몰랐다고? 대학때 같이 공부한 고향친구로만 알았다고?... 어쨌든 구진배와 무념이제방에 대해 이야기를 한것은 사실이 아닌가. 운상은 자기를 변호할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다.

《사실인가 묻지 않소?》

리주연의 안타까운 목소리가 고막에 와닿는 순간 운상은 눈을 떴다.

《사실입니다.》

정적이 흘렀다. 반동을 잡았다고 회의장이 죽가마 끓듯 할줄 알았는데 오히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로동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천성적으로 순박하기때문에 눈앞의 어마어마한 현실을 쉽게 받아들일수 없었던것이다.

《운상동무, 동무가 어찌면... 이젠 어찌면 좋소?》

리주연이 속상한 나머지 탄식조로 한마디 했을뿐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침묵만 지켰다. 저 사람이 정말 반동이란 말인가? 하는 의혹이 침묵시간을 연장시키고있었다.

로이문은 흰자위가 번뜩이는 눈으로 장내를 둘러보았다.

《동지들은 왜 가만있습니까? 저런자를 두둔하자는겁니까? 저자는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고 조선에 오기 싫어서 왜놈들의 밥을 먹으며 살던 친일파입니다. 난 애당초 저런 사람이 기술부를 책임지는게 미타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공삽니까, 에엥?》

로이문의 입에서 튀어나온 침방울이 사방에 뿌려졌으나 그옆에 앉은 사람들은 그걸 닭을 생각도 못하고 꿈쩍없이 앉아있었다. 그만큼 회의장은 로이문이 풍기는 랭기로 뽕뽕 얼어들었다. 누구도 그의 말을 막지 못했다. 조금이라도 운상을 두둔해나서면 계급성이라는 무자비하고 서슬푸른 칼날이 자기 목으로 곧추 들어오는판에 어떻게 남을 비호한단 말인가.

로이문은 다시 운상에게 공격의 칼날을 겨누었다.

《이 반동놈아, 여기서 당장 사라지라! 너같은 놈이 없어도 우린 이 공사를 해낼수 있어. 동지들! 저런자들은 목을 쳐서 프로레타리아의 맛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쯤하면 운상의 운명은 결정된셈이었다. 리주연이도 그 상황에서는 무작정 운상을 감싸줄수 없었다.

《그 문제는 좀 더 알아보시다.》

회의가 끝난 후에도 운상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건장하던 육체가 한순간에 파김치로 되어버린것이다.

자기가 이 신성한 땅에 상처를 입히려 했고 그것으로 하여 장군님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고 생각하니 앞이 캄캄해지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도무지 몸을 움직일수가 없었던것이다.

오늘회의에서 친일파니 반동분자니 하는 말을 들었지만 그걸 탓할수가 없었다.
왜놈의 별장을 설계해준거야 사실이 아닌가.

결국 공산주의자들의 눈으로 볼 때 김운상이라는 인간은 건국의 주역이 될수 없을뿐아니라 타도대상이었다.

새 나라건설에 앞장서있다는 자부심으로 높뛰던 심장에 친일파라는 찬물을 들쓰고나니 운상에게는 모든게 무의미해지고 삶의 의욕이 깡그리 사라져버리는것 같았다.

맥폴린 걸음으로 밖에 나오던 그는 현장치료실앞에 우두커니 서있는 수영을 발견하였다. 첫 순간 운상은 처녀를 피하고싶었다. 수영이도 오늘회의내막을 알터인즉 그앞에 마주설 용기가 나지 않았던것이다. 그러나 그의 발길은 내심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처녀쪽으로 향했다.

《다 알고있습니까?》

운상은 주눅이 든 목소리로 물었다.

처녀의 눈길은 어딘가 모르게 얽혀진것 같았다. 잠시동안의 침묵이었지만 그 짧은 순간에 운상은 완전히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공연히 허둥거렸다.

《그게 사실이에요?》

처녀가 물었다.

처녀가 무엇을 물어보는것인지 운상은 알았다. 설계를 잘못했다는게 사실인가, 해방전에 친일을 했다는게 사실인가... 반동놈들과 내통했다는게 사실인가...

운상은 수영이한테서만은 이해를 받고싶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한다 해도 수영이만은 자기의 진심을 믿어주기 바랐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곱절 허전해졌다.

(수영이도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하긴 내가 섭섭해할것도 없지. 그건 내 주관이야. 이 처녀의 믿음을 받고싶은것은 내 욕망에 불과한것이고 지금의 처지에선 그런 욕망을 품는것자체가 어리석은것이다. 단념하자. 생활이 맺어주지 못하는 연분을 억지로 엮어보겠다는것도 싱거운노릇이다.)

운상은 머리를 숙이고 말없이 돌아섰다.

운상에게는 처녀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눈이 없었다. 수영은 설계가청년이 말없이 돌아서는 순간 입술을 깨물며 자기를 후회했다. 회의에서 비판된 내용이 사실인가고 물었을 때 운상의 얼굴에 실망의 그늘이 비끼는것을 보며 처녀는 의심하지 말아야 할것을, 묻지 말아야 할것을 물었다는것을 깨달았던것이다.

아무렴 보통강개수공사소식을 제일먼저 알려주며 그토록 열정에 넘쳐있던 그가 의식적으로 나쁜짓을 했을수야 없지 않겠는가. 수영은 그가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뵙고 병원에 찾아와 하던 말을 생생히 기억하고있었다.

《난 이 공사에 나자신을 깡그리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장군님의 사랑을 받는 건축가가 되겠습니다. ...》

그때 수영은 이 청년이 분명 좋은 사람이라는것을 처녀의 깨끗한 마음으로 확신하였다. 그랬으면 그 사람에게 어떤 당치 않은 험구가 들썩워진대도 믿어야 할게 아닌가.

운상이 떠나간 뒤에야 처녀는 그가 자기한테서 기대했던것이 애정과 믿음이였음을 온몸으로 깨달았다. 수영은 다르게도 생각해보았다.

(내가 그 사람을 나쁘게 보았다면 아예 물어보지도 않았을거야. 그가 남남으로 생각되지 않고 좋은 사람으로 믿고싶었기때문에 물어본거야. 그가 반동이요, 친일파요 하는 말을 듣는데 어떻게 그것이 사실인가고 묻지 않을수 있단 말인가. 반동이란 말은 악한 인간에 대한 지울수 없는 낙인이 아닌가... 그런데... 그런데... 난 왜 그 사람이 비판받은것때문에 이다지도 마음쓰는걸까? 이게 사랑일가?)

심장의 박동은 갑자기 빨라졌다. 수영은 운상이가 류다른 감정으로 자기를 대한다는것을 처녀의 예민한 감각으로 느끼고있었다. 그러나 수영이자신은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지 못했다. 그에게 있어서 사랑은 신비스러우면서도 두려운 세계였다. 환희보다는 공포를 느끼게 하는 세계였다.

그가 살아온 세상에서는 결혼이 사주팔자에 의해 규정되었고 거기에 재산의 유무, 신분의 차이가 형제처럼 따라다녔다. 그 저주로운 삼형제론리가 그 세월에는 가정건설의 유일한 공식이었다. 그런데 여기 평양에서는 그가 절대유일의 공식으로 알고있던 가정건설의 삼형제론리를 찾아볼수 없었다. 수영은 평양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어떤 세상에서 사는가에 따라 사랑의 공식도 달라진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그 건축가청년이 실망해서 떠나간데 대해 수영의 마음이 편안치 않은 리유가 거기에 있었다.

그 청년의 믿음에 따라서지 못했다는 자기 반성의 거울을 통하여 수영은 서울생활과 전혀 다른 새 사회의 생활방식에 습관되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던것이다. 이런

경우를 풍토순화과정이라고 하던가? 수영은 이제라도 그 믿음에 따라서고싶었다. 자아완성의 노력이 없다면 영원히 미숙아로 남아있게 될것이다. 어떻게 할가?... 그 사람을 뒤쫓아가서 나는 동무를 믿는다고 말할가? 그건 너무 직선적이야. 차라리 지휘부에 가서 말해볼가?

수영은 한시간남짓이 치료실을 오락가락하다가 리주연을 찾아가기로 용단을 내렸다. 리주연을 만날 구실을 만드느라고 새로 끓인 음료수주전자를 들었다. 총지휘부건물로 올라가면서도 처녀는 예전에 볼수 없었던 자기 행동의 당위성을 한가지라도 더 찾아보려고 애썼다.

오늘까지 수영은 단 한번도 그 누구의 인간됨을 보증하기 위해 나서본적이 없었다. 그런 아름다운 환경에서 살아보지도 못했고 그럴 기회도 생기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만은 함구무언하고 있을수 없었다.

수영은 자기가 이런 걸음을 하는것이 운상에 대한 색다른 감정때문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그는 다만 자기 마음속에 인찍혀져있는 김운상이라는 인간의 참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싶을뿐이었다. 한걸음 더 나아간다면 한 인간의 믿음에 같은 믿음으로 보답하고싶을뿐이었다. 서로의 그 믿음에서부터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다는데 대해서는 의식적으로 외면해버렸다. 녀자의 마음이란 그런것이다.

수영은 리주연의 방문을 조심히 두드리고 문을 열었다. 그때까지 리주연은 회의에서 받은 충격으로 하여 방안을 서성거리며 즐기지도 않는 담배를 태우고있었다.

《의사선생이 어떻게 왔소?》

무거운 기분에 잠겨있던차라 그의 어조는 무뚝뚝했다. 수영은 다소곳이 인사를 하고 고뿌에 음료수를 따랐다. 마침 속이 달았던 리주연은 꿀꺽꿀꺽 고뿌를 기울였다. 그런 뒤에도 수영은 한참 머뭇거리다가 힘들게 입을 열었다.

《저... 설계가선생때문에 왔습니다.》

《응?》

《그 사람이 정말 반동입니까?》

처녀는 리주연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맑고 그윽한 그 눈빛은 반동이 아니라고, 어서 대답하라고 강요하는듯싶었다. 다른 말은 듣지도 않겠다고, 그러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렬히 호소하는듯싶었다. 리주연은 처녀를 만족시켜줄수 없는게 안타까웠다. 그래서 물음으로 대답했다.

《그러니까 의사선생은 그를 믿는다는거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리주연은 자리에 앉으며 수영에게도 의자를 권했다.

《앉소, 앉아서 말하오.》

수영은 앉지 않았다. 앉았다가도 일어나야 할만큼 몹시 흥분되어있었던것이다. 처녀는 김운상이 장군님을 처음 만나뵈고 자기에게 찾아와서 해주던 말들을 그대로 들려주었다. 그리고 현장치료대로 나왔을 때 이 공사의 본질에 대해서, 장군님의 신비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던것도 빼놓지 않았다. 일단 입이 열리자 격조높은 말마디들이 폭포처럼 쏟아져나왔다.

《이런 사람이 나쁜 사람일수 있습니까? 아니예요, 전 믿고싶어요! 그때 한 말들이 다 그 사람의 진심이라고 믿고싶어요. 그런 사람까지 믿을수 없다면 안심하고 믿을수 있는게 도대체 누구겠습니까?

부위원장동지, 솔직히 대답해주십시오. 서울에서 들어온 반동과 만났기때문에 그 사람도 반동이라면, 모든 사람들에 대해 꼭 그렇게만 묻거를 세워야 한다면 서울에서 들어온 나는...》

수영은 말을 뚝 끊으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자기가 지내 흥분했다는 리성의 속삭임을 들었던것이다. 생각대로 말할수 있다면 《...나는, 서울에서 들어온 나는 누구니까? 나도 반동입니까?》하고 들이대고싶었지만 그 말은 차마 입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수영은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얼굴을 붉혔다. 리주연이 어디와서 행악질인가고 당장 욕설을 퍼부을것만 같았다.

《전 이만...》

수영은 들어올 때처럼 깎듯이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다. 하늘에는 구름한점 없었다. 해빛에 눈이 시그러워 손채양을 하고 잠시 서있던 처녀는 현장치료실로 내려갔다.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진듯싶었다. 예전에는 엄두도 못낼 비상한 일을 해낸것으로 하여 처녀의 가슴은 자꾸만 부풀어올랐다. 그것은 자기가 한 인간의 운명을 량심적으로 보증할만큼 담이 커지고 정신적으로 성장했다는 기쁨때문이었다.

한편 리주연은 수영이가 나간 뒤 스스로 자신을 꾸짖었다.

(저 처녀의사는 김운상의 인간됨을 믿고있다. 그것은 그 청년을 사랑하기때문일것이다. 그런데 나는... 나에게는 왜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가? 하지만 나타난 현상은...)

32

오성재는 일을 끝내고 어슬넱에야 중성리로 떠났다. 오늘 오후에 수영이를 현장에서 만났는데 외삼촌이 집에 한번 오라고 했다는것이였다. 오성재는 리유를 묻지도 않고 저녁에 찾아가겠다고 대답했었다.

그는 요즘 세월가는줄 모르고 살고있었다. 하루가 천년같던 고달프고 지루한 인생이 지금은 천년이 하루같다고 할가... 하여튼 세상이 자기를 향해 반갑게 웃어주는듯 한 느낌에 취해보기는 처음이였다. 밭에 나가면 비록 남들이 묻어놓은 씨앗일망정 야들야들한 봄배추가 새파랗게 땅을 덮었고 한이랑씩 건너심은 수수도 이제는 퍼그나 자랐다. 오성재는 그 밭에 온 정력을 쏟아부었다. 그러면서도 불안이 영 없는것은 아니였다. 얼마전에 나라에서는 모든 농민들에게 토지소유권증서를 교부해주었는데 오성재에게는 아직 인민정권의 큼직한 도장이 찍힌 그 증서가 없었다. 그게 있어야 마음이 놓이겠는데 농촌위원회에서는 그 일을 감감 잊어버린듯 아무 소리도 없었다. 속이 상해서 엇그제는 특별한 일거리도 없으면서 농촌위원회에 들러보았었다. 어떻게 왔느냐고 물었으나 그저 지나가다 들렀다고만 하고는 차마 다른 말을 하지 못했다.

땅타발을 하면서 농민을 망신시킨 처지에 무슨 럽치로 증서를 돌려달라는 말을 입에 올린단 말인가.

그래도 토성랑에서 오성재와 이웃해 사는 리재익이 대문가로 향한 그를 불러세웠다.

《자네가 왜 여기서 어슬렁거리는지 누가 모를라구? ... 임자, 마음 폭 농구 농사나 착실히 짓게. 일전에 웬 젊은 군대가 와서 임자이름으로 토지소유권증서를 교부해줬네.

김일성장군님께서 그리하라고 하셨다더군.》

《장군님께서요?》

믿어지지 않는 말이었지만 믿지 않을수 없었다.

그런데 왜 돌려주지 않고 그냥 가지고갔을가?

《다른 말은 없었나요?》

《없었네.》

결에 앉았던 박아바이가 리재익에게 한눈을 깜적하며 오성재의 마음을 달구어놓았다.

《임자가 땅을 어떻게 다루는가 보구 결심하시려고 장군님께서 그 증서를 도로 가져오라고 분부하셨을수도 있지. 비록 임자이름으로 증서는 만들어냈지만 농사를 잘 짓지 못하문야 어떻게 임자한테 그 땅을 주겠나?》

듣고보니 일리가 있는 소리같았다. 땅타발을 하던 놈이 농사까지 잘못 지으면 그뎌 정말 그 땅을 가지겠다는 말을 할수 없지 않는가.

그래서 오성재는 새벽부터 밭에 붙어살고 오후에는 공사장에 나가군 했다. 제땅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이 공사에 자기의 미력한 힘이나마 보태는것이 보통벌농민의 도리라고 생각했기때문이었다.

서성교를 넘은 오성재는 중성리의 골목골목을 지나 정근식의 집대문을 두드렸다. 날이 어두웠기로서니 은인의 집을 헛갈릴 그가 아니었다. 집주인들은 저녁식사도 안하고 기다리고있었다. 정근식은 오성재를 상앞으로 이끌었다.

《어서 나왔게. 수영이가 자네 온 다음에 함께 하자구 해서 기다리고있었네.》

《아니, 원...》

오성재는 말문이 막혔다. 이 집 식구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감사한 마음뿐인데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알수 없었다.

안주인이 약주를 가지고 들어와 수영에게 넘겨주었다. 수영은 외삼촌의 알뜰거리는 늦잔에 먼저 술을 붓고 오성재에게도 부어주었다. 오성재는 선뜻 술잔을 손에 쥘수 없었다. 여태 그런 술잔으로 술을 마셔본적 없는 오성재였다.

《어서 들자구.》

정근식이 먼저 술잔을 내었다.

《오아저씨두 어서 드세요.》

수영이가 재차 권해서야 오성재는 땅을 다루며 험상스러워진 손으로 작은 늦잔을 움켜쥐고 조심히 입으로 가져갔다. 손이 자꾸 후들거려 아까운 술이 방바닥에 쏟아졌다.

따끈한 술이 목젖을 적시며 넘어가자 감미로운 술내가 입안을 가득 채웠다. 난생 처음 마셔보는 약주였다.

《내가 주는 술도 한잔 받으라구.》

그제서야 오성재는 정신을 차리고 열린 정근식의 손에서 술주전자를 뺏아들었다.

《이러지 마시우다. 내가 어떻게 주인어른의 술을 먼저 받겠나요. 제가 한잔 붓겠수다.》

정근식은 마다하지 않았다. 두사람은 권커니작커니 하면서 몇순배 돌았다. 술기운이 퍼진 오성재는 기분이 붕 뚫다. 좋은 술, 좋은 안주가 위에 들어가고 사람대접을 받으니까 즐겁지 않으랴. 한생이 오늘 같았으면... 지지리 천대받고 놀리우던 헌털뱅이인생에 오늘같은 날이 있다는것이 기이하게만 느껴졌고 그럴수록 이 집 식구들에 대한 고마움이 북받쳐올랐다.

《저... 그런데 나를 오라구 한건...》

《천천히 말해주겠네. 술이나 들라구.》

정근식은 서두르지 않았다. 밥상을 내가고 수영이도 제 방에 건너간 다음에야 정근식은 오성재를 웃방에 불러들였다.

《내 임자에게 긴히 부탁할게 있네.》

《어서 말씀하시우. 아, 주인어른 분부라면야...》

오성재는 무릎걸음으로 바투 다가앉았다. 그러지 않아도 이 집에서 입은 신세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속을 태우었는데 이쪽에서 먼저 부탁할게 있다니 오성재로서는 오히려 고맙다고 해야 할판이었다.

정근식은 권연을 붙여물고 오성재에게도 권한 다음에야 말머리를 헐었다.

《다른게 아니구 일전에 시인민위원회에서 보통강개수공사장에 자원출동하라는 령을 내리지 않았나? 나두 로력동원증을 받았네만 질통을 지구 공사장에 나가자니 좀 우습더군. 해방전에두 <부역>같은데 한번 나가보지 않던 내가 토목공사장에 나가서

정갱이를 걷어붙이구 일한다는게 별스럽더란 말일세. 사람마다 제 폰수에 맞는 일이 있는 법이거던.》

오성재는 정근식이 뭘 부탁하고싶어하는지 어렵지 않게 넘겨짚었다. 이걸 어쩐다? 그는 순간이나마 주춤거리지 않을수 없었다. 이미 공사장에서는 돈냥이나 있는 사람들이 로력을 사서 대신 내보내는 현상을 없앨데 대하여 강조했던것이다. 그러나 오성재는 자기를 꾸짖었다. 사람은 인정에 살고 인정에 죽는다는데 규정이 어떻소 하면서 몸을 사리면 그게 무슨 사람이라.

《그런 부탁이라면 걱정마시우. 내 그러지 않아도 신세값을 길이 없어 속이 타됐는데 이 육신을 돌려서 주인어른을 도와드릴수 있다면야... 어서 동원증을 주시우다. 난 아무래두 공사장에 매일 나가는 놈이니 주인어른 대신으로 일하구 동원증에 지장을 받아다 주겠수다.》

《고맙네. 내 체면에 임자에게 이런 부탁 하기가 뭇했는데...》

정근식이 미안해하자 오성재는 아니할 소리라는듯 손을 내저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문 제가 섭섭하지요. 다 죽게 된 로친이 이 집덕분에 살아났는데...》

《허허, 그게 다 제 복이지.》

정근식은 움쭉 몸을 일으키더니 탁자우에 미리 준비해두었던 돈뭉음을 집어들었다.

《아무리 자별한 사이래두 남의 품을 공짜로 쓸수야 없지. 이 돈을 받게.》

어지간히 두툼한 돈뭉치여서 오성재는 와뜰 놀랐다. 술이 말짱 깨는것 같았다.

《이건 웬 돈이웨까?》

《2천원일세. 열이틀품삔이라기보다는 그저 내 성의로 알고 받아두게. 그 돈이면 저 뽕대거리나 굴원동근방에 단칸초가집이라두 장만할수 있을거네. 지금 산다는 토성랑움막보다야 낫겠지.》

오성재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밀어놓았다.

《이러지 마시우다. 주인어른대신에 일하겠다는건 내 진심이우다. 돈을 받자는게 아니란 말이우다. 이 집에서 품삔을 받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지요. 우리 로친이 날 가만놔두지 않을거우다.》

《아닐세. 이 돈을 받지 않으면 난 임자에게 일을 부탁하지 않겠네. 임자가 돈을 받아야 내 마음이 편하거던.》

정근식으로서는 오성재의 욕신을 공짜로 리용하고 죄의식에 시달리기보다는 2천원을 내놓는것이 훨씬 마음편했던것이다.

그러나 오성재의 고집도 여간 아니였다.

《그럼 나두 동원증을 안 받겠수다. 주인어른... 나도 사람이우다. 사람의 낮가죽을 쓰고야 내가 어떻게 그 돈을 받겠나요. 천벌을 받을 일이지요. 그러지 말구 동원증을 그냥 주시우.》

정근식은 양보할수밖에 없었다.

(참 순박한 사람이군. 하긴 후에 내 손으로 단칸집이라도 한채 사주는게 낫지.)

밤이 이슬해서야 오성재는 정근식의 로력동원증을 가벼운 마음으로 받아놓고 그 집을 나섰다.

남산재를 넘어서니 철길건너편에는 불빛한점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엇그제 태어난 초생달이 오성재에게 주위를 간신히 분간할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고마운 달빛이었다. 오늘은 사람이구 달빛이구 자기에게 친절하기만 한것 같았다. 토성랑근방에 들어서니 이제는 눈을 감고도 제 집을 찾을수 있었다.

집앞에 다달은 오성재는 갑자기 시커먼 그림자가 앞을 막아서는 바람에 와찔 놀랐다.

두억시니같은 검은 형체가 손전지로 오성재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쳤다.

《당신이 오성재씨요?》

《거긴 뉘시우?》

오성재는 갑자기 당하는 일이라 가슴이 방망이질하는것을 느끼며 떠듬떠듬 물었다.

자기에게 《오성재씨》라고 깍듯이 부르는 이 사람은 대체 누군가?

검은 형체가 전지불을 끄자 순간에 먹물을 뿌린듯 앞이 캄캄해졌다.

《집에 들어가 이야기합시다. 난 당신에게 복을 가지고온 사람ियो.》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복이라니?

어쨌든 찾아온 손님이니 사연이라도 들어야 할것 같았다. 오성재는 어둠에 익숙해지자 움막의 거적문을 들쳤다. 문옆의 바람벽에 또 다른 검은 형체가 붙어서있는것을 오성재는 눈으로 보았다기보다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집안에 들어가 고콜불을 켜고보니 로친네는 한켠 구석에서 잠들고있었다. 변변치도 않은 몸으로 하루종일 밭에 나가 일하고는 저녁이면 저렇게 꿈쩍 못하군 한다.

《좌우간 들어와 앉으시우.》

오성재는 까닭없이 불안해지는 마음을 달래며 뒤따라들어온 사람에게 말을 건넸다.

손님은 서발막대 휘둘러도 거칠것 없는 움막안을 휘둘러보더니 알만 하다는듯 말대가리처럼 고개를 주억거리며 가마니 짝을 펴놓은 방안에 올라앉았다. 그는 다름아닌 구진배였다. 오성재는 해방전에 구진배를 한번도 본적이 없었다. 지주 구문선의 집 대문안에 들어가본적이 한두번밖에 안되는데다 구진배가 원래 집에 붙어있지 않아서 두사람이 만날 기회가 없었던것이다.

월남하는 날 밤 대동강선창까지 짐을 져다주긴 했지만 구진배와 마주서보지는 못했었다. 구진배도 자기가 구문선의 아들이라는걸 밝히지 않기로 했다. 구진배는 불안해하는 오성재의 마음을 농쳐볼양으로 빗문서부터 꺼내놓았다.

《난 서울에서 구문선어른이 보내서 왔습니다. 해방전에 오성재씨한테 미안한 일이 많았다면서 그때 일들을 사죄하는 의미로 빗을 다 없애준다고 합디다.》

오성재는 땅이 하늘로 바뀐다는 소리를 들은것만치나 놀랐다.

아직은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간의 투쟁은 불가피하다는 계급투쟁의 사회력사적원리를 알수 없었던 오성재로서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오성재의 마음속 동요를 알아차린 구진배는 이때다 하고 품속에서 돈뭉치를 꺼내놓았다.

《이 돈은 지주어른이 살림에 보태쓰라고 보내는것입니다. 소를 한마리 사두었다가 이다음에 제땅이 생기면 농사를 잘 지어보시우.》

열이 빠진 오성재는 가마니 짝우에 던져진 돈뭉치를 머룩머룩 바라보기만 했다.

장리쌀 한말을 꺾주면서도 리자를 곱으로 물게 하던 지주가 왜 이렇게 선심을 쓰는걸까?

도대체 오늘은 무슨 날인가? 귀신의 조화가 아니고서야 일생 단돈 한푼 공짜로 생겨본적 없던 자기한테 이렇게 많은 돈뭉치가 하루저녁에 두번씩이나 생길수 없지 않는가?

아직도 알싸한 인쇄잉크냄새가 풍기는듯싶은 새 돈뭉치였다. 그것은 오성재의 심신을 뽐뽐 얹어매는 포승과도 같은것이였다.

오성재는 머리를 마구 휘젓는 돈뭉치를 보지 않으려는듯 눈을 똑 감았다.

《지주어른이 나한테 이 돈을 공짜로 주지는 않았겠는데 대체 날더러 어찌라는건지 모르겠수다.》

이제는 구진배가 말할 차례였다.

《지금 공산당에서 벌려놓은 보통강토목공사에 해방전부터 지주어른의 돈이 투자된걸 아시겠지요?》

《그야 알지요.》

《지주어른은 오성재씨같은 소작인들이 홍수피해를 받지 않고 농사를 짓게 하려고 제 돈으로 공사를 벌려놓았지요. 일본이 망하는 바람에 공사는 중지되었지만 지주어른은 공산당에서 이 공사에 손을 대는걸 바라지 않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바뀌면 제 돈으로 공사를 마저 끝내겠다는거지요. 지금 공산당에선 장마철전까지 공사를 끝낸다고 생색을 내지만 그건 어렵도 없는 소립니다. 그러니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다음에 지주어른이 다시 평양에 오면 누가 공사에 열성적으로 참가했댔는가 따질텐데 그때

가서 지주어른을 노엽히지 말구요. 좋기는 백성들이 공산당의 선전에 속아서 공사에 열성을 부리지 못하도록 잘 타일러야 합니다.》

오성재는 공사를 달가와하지 않는다는 지주어르신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 보통벌을 안전하게 다루자면 개수공사를 하루빨리 끝내야 할텐데 그게 뭐가 나쁘다는걸까? 어째서 날 보고 공사에 훼방을 놓으라는건가?

《그건 안될 소리우다. 그때문이라면 이걸 도로 가져가시우.》

오성재는 빗문서와 돈뭉치를 결괏있게 쪽 밀어놓았다. 구진배는 저르기 당황해졌다. 애비의 말은 오성재가 땅이나 돈밖에 모르는 무골충이라고 했는데 웬걸, 눈앞의 돈뭉치를 마다하는 배짱이 있을줄이야.··· 해방바람에 어제날의 소작인도 담이 커졌는가.

오성재를 민심교란의 제물로 리용해볼가 했는데 정작 만나고보니 아버지가 말하던 노예가 아니었다. 구진배는 자기가 이북의 변화된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너무 쉽게 일을 꾸미려 했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렇다고 여기까지 왔다가 손털고 돌아설수야 없지 않는가.

구진배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오성재를 안심시켰다.

《그 돈은 넣어두시우. 지주어른이 다 생각이 있어서 돈을 보냈겠지요. 하여튼 지주어른의 뜻을 잊지 마시우. 이다음에 지주어른이 다시 오면 서로 웃으며 만나야지요.》

오성재는 구진배가 떠나는것도 바라워주지 못하고 방바닥에 놓인 돈뭉치만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가난뱅이에게 있어서 눈앞의 돈뭉치는 정신을 흐리게 하는 마약과 같은것이였다.

(내가 이 돈을 가져도 정말 일없을가?)

그는 여러가지로 그 타당성을 찾아보았다. 지주어른이 지난날을 사죄하는 의미에서 준것이 분명하다면 가져도 되지 않을까? 아까 정근식이 주는 돈은 받을 체면이 없어서 사양했지만 이 돈이야 마다할 필요가 뭐가.

아무렴, 옛날에 치르던 고역을 생각하면야...

그렇게 생각하니 별로 꺼리낄게 없을것 같았다. 오성재는 빗문서와 뭉치돈을 께짝안에 간수하고 자리에 누웠다. 이쪽저쪽으로 돌아누우며 잠을 청해보았으나 정신은 더 새록새록해졌다.

저 돈을 어떻게 쓸가. 뺑대거리쑈에 집을 한채 살가, 아니면 소를 한짝 살가? 아니면... 아니면... 로친네치마저고리도 한감 끊어야겠고... 그보다는 농쟁기부터 그쫌히 마련하는게 더 급하지...

수중에 돈이 생기니 마음이 커지고 평생 묵어있던 온갖 소원들이 한꺼번에 머리를 쳐드는듯싶었다. 돈이 없어 풀수 없었던 소원들, 소박하고 또 소박한 그 소원들은 해를 넘기고 년대를 이어가면서도 가슴속 깊이에서 곰팡이도 끼지 않고 생생히 살아있었던것이다.

(그래, 집을 사는건 그만두자. 지금 사는 움막도 판자를 좀 사다가 지붕이랑 바람벽이랑 잘 손질하면 그런대로 살수 있지. 이 돈으로는 소나 한짝 사매고 보습이랑 농쟁기를 마련해야겠어. 농사를 몇해 잘 지으면 집 한채 살 돈이 생기겠지.)

그날 밤 오성재는 난생처음 비단조끼에 명주바지저고리를 입은 자기 모습을 꿈에서 보았었다.

한편 오성재의 집을 나선 구진배는 밖에서 망을 보던 심복을 데리고 토성랑을 떠났다. 오성재를 만났던 결과가 신통치 않아서인지 속에 돌맹이를 매단 기분이었다.

전지불도 안 켜고 가다가 진창에 발목까지 빠지자 그의 입에서는 절로 쌍욕이 나왔다. 그는 이런 밤길을 걷고있는 자신이 보잘것 없고 사람스럽지 못한 시정배로 느껴졌다. 공사를 파탄시키는것이 궁극적으로는 자기 이익에 부합되는것이라고 대의명분을 내세우긴 해도 어쨌든 구질구질한노릇인것만은 틀림없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정말로 계급의 이익을 지키는 정의로운것이라면 무지렁이같은 오성재따위나 도적고양이처럼 찾아다니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담하게 행동해야 할것 같았다.

서문동을 거쳐 종로 네거리에 이르렀을 때는 자정이 넘은 뒤였다. 거리는 인적이 하나없이 고요하였다.

세상에 살아움직이는것은 자기네 둘뿐인듯싶었다. 문득 구진배는 심복의 품안에 있는 뼈라뭉치가 생각났다. 이 주변은 평남도당청사를 비롯해서 공산당의 중요기관들이 자리잡고있는 변화한 곳이어서 한번도 얼씬해본적이 없었다. 미리 계획했던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조용한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캄캄한 어둠과 무덤속 같은 정적이 대의를 위해 남아답게 행동하라고 검은 피를 끓게 해주는 듯싶었다.

《날 따라와.》

구진배는 졸개에게 속삭이듯 지시하고 옆골목으로 꺾어들었다. 서문고녀의 담장을 끼고 한참 가다가 전차선이 지나간 큰길과 마주치는 곳에 멈추어섰다. 어둠속에서도 담장에 붙어있는 종이장이 눈에 띄었다. 자세히 볼수는 없었지만 《평양시민들은 건국의기로 보통벌에 애국제방을 쌓자!》는 표어가 분명했다.

구진배는 표어를 와락 찢어버리고 졸개에게 명령했다.

《여기다 붙여!》

《예.》

졸개는 어느새 뼈라에 풀을 먹이고 있었다.

그 순간 갑자기 저앞에서 전지불이 번쩍거리고 뒤따라 고함소리가 터져나왔다.

《누구얏! 서라!》

서라 하면 뛰여야 하는것이 구진배와 같은 족속들의 생존법칙이었다. 뛰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전에 구진배는 벌써 본능적으로 땅을 차며 뛰었다. 뼈라를 손에 들었던 심복도 어느새 다 쫓겨버리고 구진배와 마라손경주라도 하듯이 내달렸다. 서라고 웨치는 고함소리가 뒤따랐으나 그럴수록 죽기내기로 달렸다. 전차선로를 따라 달리다가 큰길로만 달리면 재미없을것 같아 옆골목으로 꺾어들었다. 고함소리에 뒤이어 심장을 멎게 하는 총소리가 야밤의 고요를 깨뜨렸다. 그래도 멈춰설수 없었다. 이제 멈춰서면 자기 운명은 영원히 정지될것이다. 두번째 총성이 울리는것과 동시에 옆에서

씩씩거리며 달리던 심복이 외마디비명을 지르며 어푸러졌다. 그래도 구진배는 몇발자국 더 내달렸다. 그러다가 생각을 고쳐하고 돌아섰다.

심복은 자기의 거처지를 알고있었다. 만약 심복이 부상을 당한채 보안서원들의 손에 잡힌다면 자기도 끝장이었다. 대의를 위해서는 심복이 깨끗하게 죽어야 했다.

이것은 구진배가 단도를 뽑아들고 심복에게 달려가는 짧은 순간에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한 론거였다. 구진배는 땅바닥에 코를 박고있는 심복의 목덜미어방에 힘껏 단도를 찔러넣었다. 저승길로 가는 인생의 마지막경련이 단도자루를 통해 손바닥에 전달되었다. 단도를 뽑는 순간 뜨끈한 피가 얼굴에 확 뿜어올라왔다. 구진배는 팔소매로 얼굴을 훔치고 다시 돌아서서 달렸다. 생사를 겨루는 정황이어서 발이 땅에 닿는지도 몰랐다.

숨가빠 달리던 구진배는 오물장을 지나다가 툅 멈춰섰다. 지형을 알수 없는 조건에서 자꾸 골목으로만 들어가다간 오히려 더 막다른 처지에 빠질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그는 어둠속에서 가까이 오는 보안서원의 발소리에 쫓기위 큼직한 쓰레기무지에 얼른 몸을 묻었다. 뒤따르던 보안서원은 전지불로 쓰레기장을 뒤편 훑어보고는 옆골목으로 뛰어갔다.

쓰레기무지에 얼굴을 박고 새우처럼 꼬부린채 꼼짝않고있던 구진배는 주위가 조용해진 다음에야 조심히 얼굴을 들었다. 그때에야 그는 쓰레기장에서 풍기는 더러운 냄새에 얼굴을 찡그렸다. 그는 옷을 대강 털고 얼른 그 자리를 떠났다. 옷에 끼은것인지 묻었는지 아니면 그런 의심때문인지 더러운 냄새는 코밑을 자극하며 그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해주었다.

보안서원에게 잡히지 않은것이 오히려 구슬퍼지기까지 했다.

(내가 그렇게 쓰레기장에 신통히 어울리는 존재란 말인가? 만약 그 보안서원이 거기서 나를 발견했다면 나는 절대로 쓰레기통에 처박혀있을 몸이 아니라는것만이라도 확인했을게 아닌가.)

구진배는 자기라는 존재의 고귀함을 그렇게라도 인정받고싶었다. 그러다가 또 반대쪽으로 자기를 위안했다. 까짓거, 죽은 정승 산 개만도 못하다는데 고귀한 몸으로 잡혀죽느니보다는 쓰레기같은 모양을 하고라도 살아남는것이 중요한것이다. 그런즉 자기를 구원해준 그 쓰레기장은 자애로운 부처님이 안내해준 극락세계가 아니겠는가...

그는 자정이 넘어서야 자기의 은거지인 로이문의 집으로 들어갔다.

집은 작지만 그래도 담장을 쌓고 대문을 세운데다 부엌에 파놓은 움에는 집뒤로 빠지는 비상구까지 있어서 은신처로는 맞췄다. 방안에는 로이문이 술병과 안주접시를 올려놓은 쪽상을 마주하고 앉아있었다.

《왜 이처럼 늦으셨소?》

그러다가 얼굴이며 옷에 피칠갑을 한것을 보고는 들었던 술잔을 떨구며 화닥닥 일어났다. 피비린내가 방안을 짝 채웠다. 살기가 번뜩이는 그 눈길과 마주치기조차 섬찍해서 로이문은 구진배의 등뒤를 살피며 혀아래소리로 물었다.

《똥보는?》

《죽었다.》

구진배는 단마디로 내뱉었다. 로이문은 온몸을 사시나무떨듯 하며 더 물어볼념도 하지 못했다. 구진배는 피에 젖은 양복저고리를 팔에서 뽑아 아무렇게나 흘 집어던졌다.

저고리는 날개를 편 박쥐처럼 방안을 가로질러 옷목에 날아떨어졌다. 로이문의 처가 얼굴을 찡그리며 말없이 그 옷을 뭉그러가지고 부엌에 나가더니 조금 있다가 더운물에 적신 수건을 가지고 들어왔다. 구진배는 대충 손과 얼굴의 피흔적을 닦고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술잔이 성차지 않아 병채로 입에 가져다댔다. 꿀꺽꿀꺽... 갈증에 시달리던 사람이 게걸스레 물마시듯 목을 잔뜩 젖히고 말짱 다 마셔버렸다.

그때까지도 로이문은 얼혼이 나가서 앉지도 못하고있었다.

《앉으라구.》

나이는 구진배가 썩 아래지만 종속관계로 보면 상급이어서 로이문은 공손히 자리에 앉았다.

《일이 어떻게 돼가나?》

《그럭저럭...》

로이문은 적당히 대꾸하려다가 미친개처럼 빨간 눈으로 자기를 사납게 노려보는 구진배의 시선과 마주치자 앉은자리에서 꼳꼳이 굳어졌다.

《우리가 하는 일은 빼앗긴 세상을 되찾는 대업이다. 피를 물고 해야 할 일을 그럭저럭이라구?...》

로이문은 구진배의 칼날이 당장이라도 제 몸을 찌르고 들어오는것만 같았다.

《잘못했습니다.》

구진배는 제 손으로 술을 부어마시고서야 좀 누그러진 어조로 뒤를 달았다.

《백성들이 공산당의 선전에 넘어가 장마철전으로 공사를 끝낸다구 죽을등살등 모르고 나서면 야단이다. 중요한건 백성들이 합심하지 못하게 하는거야. 그래야 일에서 능률을 못 내거던.》

구진배는 로이문의 긴장을 풀어줄양으로 술잔을 그에게 넘겨주며 덧붙였다.

《아무 일에서나 요진통을 찾아야 해. 그리구 공사판에선 주먹 쥔 왈짜들이 판을 치는 법이야. 머리를 짜보라구.》

로이문은 어느새 술잔을 비우고 입술을 뺍 씻으며 얼른 주어섬겼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공책임자녀석도 좀 주물러보려구 합니다.》

《어떤 놈인가?》

《장혁수라구 토성랑에서 사는 놈인데 해방전부터 공사장에서 일하던 놈입니다. 얼마전까지 향토건설돌격대를 책임지고있었는데 이번에 시공책임자로 발탁이 돼서 제세상처럼 날칩니다.》

《장혁수, 장혁수...》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어봐도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어쨌든 우린 목숨을 걸고라도 장마철전에 공사를 끝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 공사는 옛 주인과 새 주인간의 싸움이야. 우리는 그들이 절대로 이 땅의 주인노릇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주인이 될수 있어.》

《지당한 말씀입니다.》

《공사장주변의 식당을 장악하는 일은 어떻게 됐소?》

《그건 넘려마십쇼. 공사장과 가까운 뽕대거리에 국수집을 하나 손에 넣었습니다. 원래는 국수사리나 팔아서 연명해가던 집인데 제가 돈을 주어서 영업을 확대하게 했습니다.》

《잘했다. 주변음식점들보다 값을 낮게 해서 노동자들이 많이 쓸어들게 하구 그 기회에 잡소리들이 많이 퍼져서 일을 보이코트하게 해야 한다. 또 한가지는 최악의 경우에 제방을 폭파해야 하는만큼 폭약과 도화선을 준비해야겠다.》

《마침 공사장에서두 장식채취때문에 발파를 하니까 제가 노력해보지요.》

구진배는 술병 두개를 더 눕히고서야 습기찬 움속에 퍼놓은 잠자리에 두더쥐처럼 들어박혔다. 통풍이 안되는 움속에서 하루밤만 자고나오면 몸에서는 곰팡이냄새와 땀내가 섞인 시취같은 냄새가 코를 찌르곤 했다. 그래도 거기가 안전하니 냄새썩은 참을수밖에 없었다. 하긴 밝은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기를 포기한 구진배이고보면 세상에 날 때부터 그 냄새가 몸에 배어있었는지도 모른다.

33

사동역은 이른아침부터 림시통근열차를 타러 나온 사람들로 붐비었다. 남정들은 누구라없이 삽이나 곡괭이를 들고 꿈무니에는 보자기에 썬 밥곽을 혹처럼 매달고있었다. 흙바닥에는 남정네들뿐만아니라 처녀들과 녀인들도 작업도구를 들고 서있었다. 녀맹에서도 김정숙동지의 발기에 의하여 공사장에 나가기로 했던것이다.

《아니, 녀자들도 일하러 간다는거요? 거 희한한데...》

《사방에서 치마자락이 필력이문 열이 빠져서 일을 제대로 할가?》

《공사판에서야 더우면 벗어내치구 고쟁이바람으로 일하군 하는데 녀자들이 있으면 곤난하군.》

남정네들이 심심풀이로 한마디씩 던지는 말을 녀인네들이 듣고 가만있을수 없었다. 몸이 좋은 녀인 하나가 한손을 허리에 얹고 한발 나서며 방금 말한 중년사내에게 기관총처럼 쏘아댔다.

《아니? 그 덕에선 아직두 총각행세를 하실려우? 고쟁이바람으로 일하든 훌딱 벗구 일하든 그걸 누가 쳐다나 보겠다구 내우를 해요? 그 나이에 부끄러운 흉내를 내는게 보기 부끄럽수다. 그리구 치마자락 필력이문 일 못하겠다는 아저씨! 바람쟁이 아니요? 치마만 보문 삭신이 노그라지는거야 바람쟁이지 뭐겠소? 그래두 우리가 공사판에 나가야 일이 헐해질거우다. 저마다 같이 일하고싶어하지 않나 두고보시우.》 그리고는 제김에 흐흐흐 웃었다.

남정들은 괜히 싱거운 소리 한마디씩 했다가 녀살이 떨어지게 얻어맞고도 또 지분거렸다.

《아주머니, 과부 아니요? 세차기는...》

《그래, 정말 과부라면 오늘중으로 시집보냅세. 아주머니, 말만 떼시우.》

남자들이 암만 느물거려도 녀인은 낯색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것 참, 알랑한 귀인을 만났수다. 그 덕들은 성인학교두 안다니시우? 우리
 녀자들이 해방덕에 변한걸 모르는가 말이우다? 이제 남녀평등권법령두 나온다는데
 그때 가서두 녀자들을 깔보면 법에 걸려요.》

저마끔 한마디씩 주고받으며 주변을 들쭉하게 하는데 대피선에 있던 열차가
 기적소리를 울리며 구내에 들어섰다. 사람들은 와 모여들기는 했으나 열차에 선뜻
 매달리지는 못했다.

리명덕은 차문이 어디쯤 서겠는가 짐작하고 홈에 바투 서있다가 열차가 채 벗어나기
 전에 날쌔게 승강대로 뛰어올랐다. 역전에 매일 샅집지러 나가곤 한 덕에 그쯤한 요령은
 알고있었던것이다. 객차방통은 전차처럼 량옆으로 긴의자들을 붙여놓았었다. 명덕은
 가운데쯤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도 리건국로력대에 배속되어 공사장에 일하러
 나가는 길이였다. 사실은 제가 스스로 나가고싶어 나선것은 아니였다.

기림리에 사는 누이도 어제 아버지한테 대접하겠다고 찹쌀 한되를 들고와서 하는
 말이 자기네 리녀맹에서도 공사장에 자원출동한다고 했다.

그러니 녀자들까지 열성을 보이는 공사에 빠진다는것도 시시한 노릇이고 더구나
 로력동원증까지 받았으니 이왕이면 선참으로 제 몫을 해제끼고싶었다.

본래 뼈대가 굵어 힘꼴이나 쓰는데다 샅집군으로 살아온 명덕에게는 그까짓 흠집이나
 지는건 문제 아니였다.

출발역에서부터 림시열차는 사람들을 가득 태우고 떠났다. 명덕은 열차안이
 소란스럽건말건 고개를 수그리고 팔짱을 낀채 덤덤히 앉아있었다.

자기의 발앞에 다른 사람의 발이 바투 붙어있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나이지긋한 사람이 앞에 서있었다. 열차를 처음 타보는지 삼자루에 몸을 의지하고 열차가 흔들리는데 따라 휘청거리는데 보기가 민망스러웠다.

차안의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보고있는것만 같아 명덕은 얼굴이 절로 붉어졌다.

(이 두상은 왜 딱 내옆에 서가지구...)

바늘방석에 앉은것 같다더니 그 말이 그르데 없었다. 앉아 가는 대가로 마음속 고통을 당하느니보다는 서서 가는게 훨씬 편할것 같았다. 명덕은 자기의 그 생각에 스스로 놀랐다.

(어째서 내가 이룬데 신경을 쓰게 되었을가? 예전에는 안 그랬던것 같은데...)

예전에는 정말 안 그랬었다. 남에게 양보하면 자기만 손해보는 세상에서 양보가 다 뭐가. 해방전에는 그런 생활률이 응당한것이였고 누가 탓하는 사람도 없었다. 극상해서 《말세로군.》하고 개탄하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째서 자기의 리기적인 몸가짐이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수 있다고 두려워하게 되었을가.

(젠장, 모르겠다.)

명덕은 끝내 자리에서 일어설 용단을 내리지 못했다.

열차는 대동강역과 본평양역을 거쳐 어느새 서평양조차장에 도착했다.

열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삼삼오오 폐를 지어 조차장다리를 건너 각기 자기들의 작업구역으로 흩어져갔다.

아침부터 찌뿌둥해있던 하늘에서 10시쯤 지나자 보슬비를 뿌리기 시작했다. 예전같으면 이런 을씨년스러운 봄날엔 따뜻한 아래목에 영치를 붙이고앉아 막걸리동이나 축내겠지만 오늘도 공사장에는 사람들이 한벌 덮여있었다. 사람들은 비가 오건말건 성수가 나서 일을 제끼고있었다.

《오늘은 일하기가 그저 그만이군. 해가 내려쬐이는것보다 좋거던.》

《이런 날에야 일자리가 폭폭 나지.》

명덕은 목고를 메고 부지런히 흙을 날랐다. 처음에는 오래간만에 집단로동을 해서인지 재미도 나고 힘들지도 않았다. 하지만 역시 토목로동은 놀음거리가 아니였다. 비에 젖은 땅이 질적거리고 신발에 망작같은 흙덩이가 매달리군 하니 일은 곱절 힘들어지고 공연히 짜증이 났다.

소동은 전혀 별치 않은것으로부터 시작되였다.

공사장에서는 리단위로 작업구간을 맡겨주면 다섯명이나 열명씩 조를 무어 작업량을 정해주기때문에 별집모양의 구덩이들이 사방에 생겨났다. 명덕이네 옆에서는 대신리사람들이 일하고있었는데 그 경계선을 이루던 흙담벽이 대신리쪽으로 넘어졌던것이다. 그쪽에서 대번에 신경질이 날아왔다.

《이건 뭐야? 당장 치우라구.》

그러자 문수리사람들도 가만있지 않았다.

《왜 우리보구 큰소리야? 자기넨 상관이 없어?》

무너진 토량은 서너m³ 잘되는데 누구도 그 흙무지에 삽을 박으려 하지 않았다. 그럴만도 했다. 문수리쪽에서 시비를 가르자고 나선 사람은 민주당에 소속된

사람이었고 대신리쪽에서 눈을 부릅뜨고 제일 크게 고아대는 사람은 신민당의 당원이었던것이다. 그들은 리유가 없으면 리유를 만들어서라도 개와 고양이처럼 으르렁가르렁거리곤 했다. 무슨 일에서나 민주당은 자기나름의 관록을 시위하러 하고 갓 조직된 신민당도 세력확장에 모지름을 쓰던 시기라 민주당이 《산으로!》하면 신민당은 《바다로!》하기가 일쑤였다. 그러니 오가는 말이 고울수 없고 어느 쪽에서도 먼저 양보하러 하지 않았다.

《뭘가 어째? 시시해?》

서로 목에 피대들을 돈구더니 허우대 큰 대신리사람이 먼저 먹살을 잡았다. 사태는 점점 험악해졌다. 가만 놔두면 문수리사람이 밀리울판이었다.

명덕은 그들이 고아대는것을 처음부터 지켜보았다. 그에게는 량견이 다 미웠다. 그까짓 흙이 몇삽이나 되겠다고 아낙네들처럼 찌찌하게 논단 말인가. 그중에서도 대신리사람이 더 미웠다. 체통이 크다고 문수리사람들을 깔보는가.

명덕은 이런 공사판에 어느 정도 익숙되어있었다. 그는 구덩이안에 뛰어들며 대신리사람을 콕 밀쳐버렸다. 그 사람은 몸의 균형을 잃고 저쑤에 나가넘어졌다.

《이자식이, 사람을 쳐?!》

넘어졌던 사람이 주먹을 쥐고 달려드는것을 명덕은 발길로 차버렸다. 그렇게 되자 대신리사람들도 가만있지 않았다. 싸움은 불가피한것이였다. 명덕은 자기 목고채를 잡아들었다. 량편에서 몇사람씩 삼이며 목고채를 들고 마주섰다. 이런 판에서는 먼저 공격해야 했다. 조금이라도 약한 구석을 보이거나 주춤거리다간 순식간에 반주검이 될수 있었다.

명덕은 목고채를 사선으로 비껴들고 발뒤꿈치를 들었다. 그찰나 벼락같은 고함소리가 울렸다.

《이게 무슨 짓들이야!》

몰켜선 사람들을 헤집고 장혁수가 구덩이에 뛰어들었다. 그는 맨앞에서 목고채를 들고있는 명덕에게 사납게 소리쳤다.

《그걸 놓지 못해?》

명덕은 목고채를 집어던지며 쓰겁게 웃었다. 순간 장혁수는 명덕을 알아보았다. 언젠가 일자리를 달라고 찾아왔다가 돈을 안 주는 공사장에선 일을 안하겠다면 책임자에겐 가족이 없느냐고 가슴을 허비고 사라진 그 젊은이였다. 장혁수는 머리끝까지 치밀어오르는 분기를 참지 못하고 명덕의 멱살을 거머쥐었다.

《네녀석이였구나. 그래 공사장을 싸움판 만들자고 왔냐? 돈을 안 주니까 그 뱀푼이를 하자구 왔어?》

장혁수는 우악스런 힘으로 명덕을 흔들어대다가 왈칵 밀쳐버렸다. 명덕은 뒤로 비칠거리며 나가넘어졌다.

술한 사람들앞에서 망신을 당한 명덕은 악에 받쳤다.

왜 나보구만 해보는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장혁수는 명덕을 한대 후려칠듯 주먹을 떨며 소리쳤다.

《씩 사라져라! 너같은 자식은 필요없어! 다시한번 그랬다간 죽여버리고말겠다.》

《뭘야?》

명덕은 리성을 잃었다. 상처입은 자존심이 (자존심이라기보다는 울퉁배이었다.) 그의 머리를 휘잡아둘렀던것이다. 그는 집어던졌던 목고채를 거머쥐고 일어섰다. 자기 목숨도 남의 목숨도 하찮게 생각되는 그런 순간이 닥쳐온것이다. 그의 눈에서는 살기가 흘렀다. 그때였다.

《명덕아!》

녀자의 다급한 웨침소리는 길길이 날뛰던 명덕의 운동감각을 순간에 마비시켜버리는듯싶었다.

명덕은 구덩이우에서 찌리질통을 지고 자기를 내려다보는 누이의 겁에 질리고 원망어린 눈길과 마주치자 맥없이 목고채를 내리워버렸다. 사나운 파도처럼 날뛰던 격한 감정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대신 뜻모를 억울함과 서러움이 밀물처럼 쓸어들어 눈곱에서 찰랑거렸다. 작업장의 팽팽하던 분위기는 가라앉았다.

명덕의 누이는 그 자리에 서있기가 부끄러운듯 조용히 사라졌다. 장혁수조차도 망아지처럼 날뛰는 명덕을 단단히 혼뜨검내려던 생각을 잊어버리고 녀인의 뒤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현장에 나와있던 로이문이라도 모든것을 낱낱이 지켜보고있었다.

작업은 다시 시작되었으나 명덕은 일할 기분이 나지 않아 봉수산기슭의 황철나무밑에 곱처럼 웅크리고 앉아있었다. 생각할수록 현장책임자라는 사람이 꽤썸해서 견딜수 없었다. 전번에는 사정을 몰라서 돈을 안 주는 공사장에선 일을 못하겠다고 가버렸지만 그렇다고 원썬대하듯 할게 있는가. 한번 밉게 보였다고 무작정 쌍욕을 퍼부어대니 명덕이로서는 억울할수밖에 없었다.

(제가 뭐길래 가라말라 하는거야? 체...)

벨대로 한다면 훌쩍 가버리겠지만 어쨌든 책임량이라는게 있으니 제 마음 내키는대로 할수 없었다. 또 그렇게 되면 문수리책임자가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미주알고주알 일러바치겠는데 명덕은 늙으신 아버지가 자기때문에 속을 썩이는것을 바라지 않았다. 이웃들이 무던한 로친네라도 데려다놓으라고 권할 때마다 징용갔던 아들이 온 다음에 며느리를 맞으면 걱정없다면서 기림리에 시집간 누이네와 세간을 합치는것도 반대해온 아버지였다.

생각은 누이에게로 이어졌다. 손우누이 정혜는 무슨 팔자가 그따윈지 3년전에 시집가서 반년만에 남편을 징용에 떠나보내고 그로부터 반년후에는 사망통지서를 받았었다. 다행이랄지 불행이랄지 유복자가 생겨서 그 애 하나를 데리고 청상과부로 살고있는 누이였다. 그 누이가 지금쯤 어느 구석에서 못난 동생때문에 속태우고있는것만 같아 명덕의 마음은 편안치 않았다. 그럴수록 시공책임자에 대한 고까운 감정을 금할수 없었다.

34

장혁수는 하루종일 1작업구역에서 실컷 땀을 흘렸다. 장군님께서 주신 삽으로 일하느라면 초인간적인 힘이 생기는지 아무리 땀을 흘려도 힘들지 않았다.

이제는 그 삽에 대한 전설이 공사장뿐아니라 온 평양시에 파다하게 퍼져서 일하러 나온 사람들은 저마다 그 삽을 한번만 써보자고 성화를 먹이곤 했다. 하지만 장혁수는 미련한 사람들이 혹시 삽자루라도 부러뜨릴가봐 아예 제손에서 놓지를 못했다.

그렇게 일에 파묻혀있느라면 온갖 걱정거리가 다 달아나고 저절로 흥겨워지곤 했다.

그리고보면 자기는 아무래도 책임자노릇이 팔자에 맞지 않는것 같았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겨 사람들과 마주서면 머리가 아프고 화가 동하는 모양이었다. 하기야 사람을 다룬다는게 쉬운 일이겠는가. 오늘 문수리작업장에서 일어났던 소동만 봐도 하마트면 자기때문에 더 큰 싸움이 일어날번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공사장에 나온 때 사람들이 하루에 흘려야 할 땀방울을 미리 천평에 달아보고 하루책임량을 정해줄수야 없지 않는가. 이게 다 평양을 위한 일이고 내 나라를 위한 일인데 아직도 옛날에 강제부역에 끌려나올 때나 남의 집에 가서 샅일을 해줄 때처럼 수관알부터 튕겨서야 어떻게 장마철전으로 공사를 완공한단 말인가.

그렇지 않아도 장혁수는 공사가 시작돼서부터 늘쌍 얼굴이 킁킁해있었다.

원래 계획에는 6월 중순까지를 1단계공사기간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보통강의 옛 물길을 새로 짜는 통수로로 돌리게 되어있었다. 그러므로 이 기간에는 새 통수로의 강바닥굴착작업을 기본으로 하면서 동시에 량쪽제방도 쌓고 봉수산을 45°경사로 폭 깎아서 물길을 넓혀야 했다.

이 기간에 처리해야 할 토량은 20만 m^3 이 훨씬 넘었다.

지휘부에서는 하루 평균 1만명씩 연 25만명으로 예견하였고 한사람당 1 m^3 의 토량을 하루책임량으로 정하였었다. 그런데 공사가 시작된지 닷새가 넘도록 어느 하루도

과제를 수행해본적이 없었다. 우선 동원로력이 제대로 다 나오지 않아서 나온 사람들은 설사 자기 책임량을 다 했다고 해도 총적인 공사량은 1인당 0.3m³ 정도 한것으로 집계되곤 했다.

장혁수는 속이 탈대로 탔고 그래서 작업조건을 가지고 시비를 따지는 사람들을 보면 욕설부터 퍼붓곤 했다.

자기같으면 차레지는 일감을 군말없이 맡아서 힘자라는것 해제끼겠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같지 않으니 야단 아닌가.

저녁총화시간이 되어 현장사무실에 올라가니 마당 한구석에 오성재가 쭈그리고 앉아있었다.

《날 기다리랬수?》

장혁수는 반가운 낯빛으로 오성재에게 다가갔다.

오성재가 매일 공사장에 나오는줄은 알았지만 우정 찾아오거나 조용히 만난적이 없어서 장혁수는 궁금한게 많았다.

《그새 어떻게 지내시우? 농사는 잘되나요?》

《잘되네. 수수가 벌써 무릎을 넘었네.》

《아주머닌 별일 없겠지요?》

《일없네. 로친넌 노상 밭에 나가살지.》

오성재는 문득 생각난듯 현장치료실쪽을 돌아보며 말했다.

《저기 현장치료대에 체네의사 있지? 그 체네가 바로 우리 로친을 살린 선생이네. 나랑 자기 집에 데려다 살게했다는 그 집일세.》

《그래요?》

이미 사연을 알고있었지만 그 고마운 사람이 수영선생인줄은 모르고있었다.

장혁수는 머리를 끄덕거렸다. 그러고보니 그 처녀의사는 생김새도 마음씨도 일색이다. 오성재와 같은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주는 마음을 타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공사판에 노동자들을 치료해주겠다고 자원해서 나올수 있겠는가.

장혁수는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오성재에게 물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소?》

오성재는 딱한 부탁이라도 있는듯 인츰 입을 열지 못했다.

《말해보시우. 형님이 나한테 감출게 뭐 있겠수?》

《감추기야 뭐. 자네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오성재는 어색하게 웃고나서 정근식의 동원증을 꺼내들고 사연을 이야기했다.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그게 무슨 사람이겠나. 그 집 주인어른은 나올 새가 없더니 내 뭇은 내 뭇대로 하고 그 어른 뭇은 내가 대신해주고싶어 그러네. 내 육신을 놀려서 조금이라도 신세를 갚을수 있는 일이야 왜 못하겠나. 그것두 공짜로 일해달라는게 아니구 돈을 주겠다는걸 내 억지루 뿌리쳤네.

참, 그 어른은 쉽지 않은 사람이야. 그러니 여기다 도장을 좀 눌러주게.》

장혁수는 대뜸 소래기를 질렀다.

《정신있어요? 지휘부에선 로력을 사서 내보내는 현상을 없애라구 그만큼 강조했는데 형님까지 그러면 어찌겠소? 이리 내시우. 동원증을 회수하고말아야지.》

오성재는 황급히 손을 등뒤로 가져가며 한발 물러섰다.

《아니야, 그러지 말게.》

울상이 된 오성재를 바라보느라니 혁수는 마음이 약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처녀의사의 외삼촌이란 량반이 꽤섬하긴 하지만 성재형님도 사람의 도리를 지키자고 자기한테 힘든 부탁을 한것인데 규정만 규정이라고 뻑뻑거리면 그의 립장이 어떻게 되겠는가.

사실 성재형님의 경우는 간상배들이 로력을 돈으로 사서 내보내는것과는 사정이 다르지 않는가.

장혁수는 락심한 표정때문에 얼굴이 더 킁킁해보이는 오성재에게 손을 내밀며 무뚝뚝하게 말했다.

《동원증을 주시우. 도장을 찍어주겠수다.》

오성재는 선뜻 믿어지지 않는지 머뭇머뭇했다.

《참말인가? 회수하자는건 아니겠지?》

혁수가 피씩 웃어서야 오성재는 안심이 되는듯 어쭈게 따라웃으며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현장사무실에 들어가 도장을 눌러가지고 나온 혁수는 동원증을 돌려주려다가 제 주머니에 넣었다.

《도장은 내가 열이틀동안 매일 눌러놓겠수다. 형님이 공사장에 매일 나온다는거야 내가 아는데 도장받으러 날 찾아다닐게 있소? 나중에 돌려주지요.》

《그러면 나야 고맙지. 자넬 믿겠네.》

오성재는 아직도 안심치 않는지 두번세번 다짐을 받고야 그곳을 떠났다.

공사총지휘부에 하루실적을 보고하고나서도 장혁수의 마음은 오성재의 일로 해서 개운치 않았다.

여름해는 아직도 형제산마루에 한발이나 남아있는데 공사장은 벌써 텅 비어있었다. 저녁이면 혁수에게는 늘 외로움이 밀려들군 한다. 일에 정신이 팔려 사람들과 섞들려 돌아갈 때에는 느끼지 못하던 외로움과 허전함이 공사장에서 사람들이 다 가버리고나면 어김없이 찾아와 그의 마음을 쓸쓸하게 해주군 했다. 남들은 이 시간이면 제집에서 안해와 자식들과 혹은 부모형제들과 모여앉아있겠지만 혁수는 혼자서 때식을 끓여먹고 래일아침까지 적적하게 빈집을 지켜야 한다. 아까 오성재에게 막무가내로 큰소리를 쳐서 그런지 오늘은 별로 쓸쓸해졌다. 차라리 혼자서라도 녹초가 되도록 일해서 마음속의 괴로움을 쫓아버리고싶었다. 그는 사무실에 세워두었던 삼을 들고 공사장으로 나갔다. 낮이 제일 길다는 하지가 스무날정도 남아있으니 요새는 저녁 8시가 지나야 날이 어두워진다. 그러니 이제 나가도 두시간은 일을 할수 있었다. 그는 새 통수로의 웃쪽으로 천천히 올라가며 공사장을 쪽 둘러보다가 한곳에 눈길을 멈추었다. 3작업구역에서 일하고있는 녀자를 발견했던것이다. 그 녀자는 혼자서 구덩이의 흙을 파서는 소랭이에 담아 제방까지 날라가군 했다. 저 녀자는 작업시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일하고있을가? 가까이 다가가보니 그곳은 오전에 소동이 일어났던 문수리작업장이었다. 소랭이에 흙을 담아가지고 구덩이에서 올라오던 녀인은 시공책임자가 우뚝 서서 자기를 내려다보는 바람에 어지간히 당황해했다.

장혁수는 그 녀자가 소동의 장본인인 명덕의 누이라는것을 첫눈에 알아보았다. 그런즉 이 녀자는 제 동생이 못다한 일을 대신하고있단 말인가.

녀인은 낭자를 틀어올린 머리에 흰수건을 썼는데 그래도 새파란 젊음은 차분히 내려간 눈매며 꼭 다문 입술이며 탄력이 느껴지는 걸음걸이에 진하게 배여있었다. 아까는 조폭한 제 동생을 대번에 길들여놓고 조용히 사라지더니 지금은 남 안 보는 시간에 동생의 허물을 메꾸느라 혼자서 땀흘리고있는 이 녀인을 혁수는 무심히 대할수 없었다.

리유는 어쨌든 저녁늦게까지 일하고있는 이 녀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라도 하고싶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녀인처럼 성실한 마음으로 공사에 동원된다면 얼마나 좋으랴.

어디서 사는지 주소라도 알아두었다가 래일 현장속보에 내주고싶었다.

같은 남자끼리라면 손을 맞잡고 통성이라도 하고 어깨를 툭 치며 친구가 되자고 한마디 하련만...

그 녀자가 제방에 흙을 쏟고 돌아설 때에야 혁수는 자기가 그 녀자의 뒤모습을 얼없이 지켜보고있었다는것을 깨닫고 얼른 고개를 돌렸다.

그는 녀인이 가까이 온 다음에 통명스레 물었다.

《아주머닌 누구요?》

《...》

혁수는 다시 물었다.

《난 현장책임자요. 아주머닌 누구요?》

그의 목소리는 자못 엄엄했다. 정혜는 대답하지 않을수 없었다.

《저... 기림리녀맹단체인데...》

《그런데 왜 여기서 일하오? 여긴 문수리작업구간이란 말이요. 정말 이상하군. 이름이 뭐요?》

《리정혜예요. 난 사실...》

사실 정혜는 많은 사람들앞에서 동생을 옥박지르던 시공책임자가 밭살스러웠다. 그 사람이 동생의 먹살을 흔들어대지만 았았어도 일이 그렇게 험악해지지는 았았을게 아닌가.

정혜는 내키지 았는대로 사연을 설명하려 들었으나 혁수는 손을 획 내젓고 돌아섰다.

《됐소. 다 알고있소.》

《?...》

장혁수는 어안이 병병해진 녀인을 남겨두고 부리나케 현장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창고에서 제일 큰 질통을 골라들었다. 혼자서라도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동무가 생긴셈이었다. 더구나 명덕이가 도중에 작업장에서 달아난데는 자기 책임도 없지 았은만큼 명덕의 누이와 함께 일한다고 해서 이상할것도 았었다.

장혁수는 명덕이 누이와 함께 일할 구실을 여러 각도에서 찾으려고 애쓰는 자신을 의식하지 못한채 질통을 덜렁거리며 작업장에 나타났다.

정혜는 다시 나타난 시공책임자가 반갑지 았았다. 남의 도움을 받는다는게 미안하고 외간남자와 단둘이 일하기가 난처하고 더우기는 시공책임자에 대한 첫인상이 나빴기때문이었다.

그러거나말거나 장혁수는 자기의 삼을 녀인에게 내밀었다.

《이 삼으로 담소. 김일성장군님께서 착공식날 쓰시던 그 삼이요.》

그 말에 사태는 완전히 달라졌다. 정혜는 흙물은 손을 팔소매에 몇번이나 문대고서야
삽을 받아들었다. 삽자루도 쓸어보고 삽날도 만져보았다.

《장군님께선 그 삽을 나한테 직접 주셨소. 그리구 나같은 사람들이 건국의 주인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셨소.》

장혁수는 그렇게 길게 말해본적이 없었다.

자랑이라는걸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무슨 조화가 들었는지 그 녀인에게만은 제 자랑을
하고싶었던것이다. 그는 얼굴을 붉히며 질통을 돌려대었다.

《어서 답소.》

녀인으로서는 어쩔수 없는 정황이었다. 장군님의 손길이 닿았던 그 삽으로 한번 일을
해보려면 장승같이 우뚝 서있는 이 사람의 질통에 흙을 퍼담는 수밖에 없었다.

녀인은 적당히 담으려고 했지만 장혁수는 자꾸 더 담으라고 했다. 세번째만엔
짜증까지 났다. 질통이 넘쳐나도록 흙을 담고도 힘들지 않게 구덩이의 가파로운
경사면을 톱아올랐다. 대번에 일자리가 폭폭 났다. 일에 재미를 느낀 녀인도 이제는
낮선 남자와 일한다는 경계심을 잊어버린듯싶었다. 그러나 장혁수는 자기가 젊은
녀인과 일한다는 생각을 잊을수가 없었다.

아마도 그래서 질통이 넘쳐나게 흙을 담아도 힘든줄 모르고 시간이 가는줄도
몰랐던지... 두사람 다 말 한마디 안했다. 할 말도 없었고 그럴 용기도 없었다. 녀인은
남정에게 얼굴의 땀을 씻으라고 머리수건을 벗어주고싶었지만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구덩이곁에 수건을 놓아두었다. 그러나 장혁수는 감히 그 수건을 집어들지 못했다.

갑자기 어디선가 갓난애의 울음소리가 자지러지게 울려왔다. 장혁수는 난데없이 들려오는 울음소리에 와뜰 놀랐다. 삼질을 하던 녀인이 얼른 구덩이에서 나와 다른 구덩이로 달려갔다. 거기에는 목고로 쓰던 가마니짝들을 뒤집어놓은 우에 포대기로 감싼 어린애가 눕혀져있었다.

《성학아! 응-》

녀인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장혁수는 예리한 송곳으로 심장을 쿡 찔리우는 듯한 느낌에 숨을 헉 들이그었다.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발길이 옮겨졌다. 두살이나 세살쯤 되었을가. 그는 아이를 안아드는 녀인에게 제 목소리같지 않은 갈린 음성으로 조용히 물었다.

《아이이름이 뭐라구요?》

《성학이에요.》

녀인은 피딱 고개를 들며 대답했다.

장혁수의 얼굴은 이상하게 쨍그러졌다. 가슴깊이 묻어두었던 추억이 또다시 머리를 쳐들고 그를 괴롭혔던것이다.

이때를 기다리고있었던듯 피로가 덮쳐들며 온몸이 나른해졌다.

그는 공사지휘부 자재과에 있는 로이문이가 제결에 바투 다가와서야 고개를 들었다.

《여기서 뭘하시우?》

대답도 하고싶지 않았다. 질통을 지고있는걸 보면 모르는가. 로이문은 장혁수의 침울한 표정과 구덩이안에 아이를 안고있는 젊은 녀인을 번갈아 바라보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저 녀자는 분명...

시공책임자는 왜 저렇게 소태썸은 상인가?

로이문은 더러운 생각을 뽑아내려는듯 손가락으로 되박이마를 문지르며 메밀눈을 반짝거렸다.

《저 녀성동무는 누구요?》

《기림리에서 나왔다고. 혼자서 일하길래...》

장혁수는 더 일할 기분이 나지 않았다. 그는 녀인에게 간다는 말도 없이 삼을 찾아들고 로이문에게 물었다.

《날 찾아왔소?》

로이문은 녀자에 대해 좀더 알고싶었지만 장혁수를 따라서지 않을수 없었다.

《집에 가기 싫어서 같이 한잔 하자구 찾아왔소. 마당에 서서 공사장을 자세히 보느라니 시공책임자동무가 어물거리드란 말이요. 질통을 벗어놓구 같이 갑시다. 오늘 저녁엔 내가 한턱 내겠소.》

장혁수는 로이문을 잘 몰랐다. 시인민위원회 건설과에 있었다는데 이번 공사지휘부가 조직되면서 처음으로 면식을 익혔었다.

술소리가 나오자 그동안 잊고 살았던 술생각이 간절해졌다. 게다가 이래저래 마음이 울적해져서 한잔 마시지 않고는 잠들것 같지 않았다.

《갑시다.》

불덩어리같은 저녁해도 사라지고 지평선너머에서는 석양의 마지막잔광이 불타고있었다.

로이문은 봉수국수집으로 장혁수를 데리고 갔다.

공사장에 일하러 나온 사람들이 밀려드는 점심때에 비해 저녁에는 국수집이 퍼그나 조용했다.

옷방에 두어패 둘러앉은 사람들은 가설건물을 짓고 공사장에 나와사는 건국로력대원들 같았다. 로이문은 주인에게 아래방에다 술상을 차리게 했다.

《시공책임자동무가 처음 왔는데 잘 차려야겠소.》

《물론이지요. 개수공사 얼씨구 절씨구-》

식당주인이면 저절로 허리가 유연해지는 모양이다. 주인은 갑작갑작하며 부엌에 있는 여자들을 재촉했다.

《천천히 하오.》

로이문은 점잖게 한마디 하며 담배갑과 성냥을 방바닥에 꺼내놓았다. 시간도 많은데 보잘게 있느냐 하는 태도였다. 그는 장혁수에게 담배를 권하며 사뭇 동정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책임자노릇을 처음 해보니 일이 힘들거요. 요새 시공책임자 얼굴이 축가는데 알린단 말이요. 나처럼 인민정권기관에서 일해본 사람들은 요령이라도 있는데 책임자동무야 언제 그런 요령을 배웠겠소. 불을 붙이오.》

로이문은 성냥을 그어 장혁수에게 내밀었다.

장혁수는 담배연기를 내뿜으며 자기의 고충을 숨기지 않았다.

《아닌게아니라 책임자노릇하기가 벅차오. 후-》

《너무 근심마오. 쏘련에서 인차 굴착기가 나올거요.》

《그게 정말이요?》

장혁수가 불쑥 어성을 높이는통에 옷방에 앉았던 사람들도 자연히 귀를 강구었다. 그것은 로이문이 바라는것이였다.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로동부장을 하시는 오기섭동지가 그렇게 말했다오. 어디 가서 읊기지는 말고 혼자만 알고있소. 쓰팔린이 북조선에 굴착기를 주겠다고 약속했다누만. 사실 우리한테야 공산당에서 지시한대루 공사를 장마철전에 끝내겠다는 사상적인 각오밖에 더 가진게 있소? 맨주먹으로 공사를 해야 하는데 품삯도 못 받는 로동자들을 혹사시키기가 우리 정권기관 일군들의 립장에서 볼 땐 미안하단 말이요. 나나 당신이나 다같은 프로레타리아트들인데 우리가 로동자들을 걱정해주지 않으면 누가 해주겠소. 하여튼 너무 몰아대지 말구 굴착기가 나올 때까지는 쉬엄쉬엄 하기로. 굴착기만 나오면야 장마철전에 와닥닥 끝낼수 있지.》

옷방에 앉은 사람들속에서는 저가락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자기들의 사정을 헤아려주는 로이문이 절을 하고싶을만큼 고마왔을것이다.

인차 술상이 들어와 장혁수는 로이문과 마주앉았다.

술잔을 기울이면서도 장혁수는 방금 들은 말에 신경이 쏠려있었다. 굴착기가 나올 때까지 일을 쉬엄쉬엄 하라는 소리는 평양시민이 떨쳐나서 장마철전에 와닥닥 해제끼자던 애초의 립장과 차이나는 소리가 아닌가?

정말로 공사방향이 달라졌는가? 로동부장을 하는 어른이 그런 말을 했다면 근거없는 소리는 아닐것이다.

한가지 부정할수 없는것은 돈도 못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을 같은 처지에 있는 자기가 다그어대지 말아야 한다는것이였다. 굴착기가 당장 나온다면야 뭇때문에 사람들을 힘들게 일시키겠는가.

(도대체 무슨 갈래판인지...)

장혁수의 혼탁된 심리를 더 휘저어놓으려는듯 로이문은 반들거리는 되박이마를 문지르며 또 다른 소리를 꺼내놓았다.

《그보다 심각한게 뭘지 아오?》

《그게 뭘요?》

로이문은 장혁수의 애를 말리려고 소갈비를 한입 뜯어 오래오래 씹어삼킨 다음에야 뒤를 달았다.

《쏘련에서 굴착기가 나오든 안나오든 우리 인민들의 애국심만 높다면야 무서울게 뭘겠소. 문제는 우리 정권기관에서 그만큼 사상선전사업을 했는데도 공사에 동원되는 백성들의 사상상태가 떨쩔한거란 말이요.

공사를 시작해서부터 하루실적이 계획보다 떨어지고있는것만 봐두 긴말할 필요가 없지. 하긴 이 방대한 공사를 각성되지 못한 군중을 믿고 그들의 자각적열성에 맡기려고 했던 우리 정권기관 일군들의 책임이 크오. 지금 항간에서 어떤 소문이 도는지 아오?》

장혁수는 눈을 치뜨고 그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는가 기다렸다.

《옛그제 서성리에 산다는 건국로력대원이 하는 말인즉 옛날부터 대동강엔 어미룡이 살고 보통강엔 새끼룡이 살아왔다는거요. 그래서 보통강의 형세가 룡의 몸뚱아리처럼 우불구불하다누만. 이제 보통강을 다른데로 돌리면 어차피 룡이 자리를 옮겨야 하는데

그러면 룡이 꿈틀거리면서 보통강주변을 아예 쓸어버린다는거요. 결국은 이 공사를 해선 안된다는 소리지. 내 그 사람한테 미신탕지가 단단히 붙었다구 욱은 해주었지만 생각해보면 그것두 욱질이나 해서 넘길 문제가 아니드란 말이요.》

그것은 로이문이 앉은자리에서 되박이마를 문지르며 궁리해낸 수작이었다. 장혁수는 마치 그 말의 출처를 알기라도 하듯이 술상을 탕 치고 로이문을 노려보며 말했다.

《그건 다 나쁜 놈들이 내돌리는 개수작이요.》

그의 손에 들려있던 저가락 두개가 갈구리처럼 휘여졌다. 로이문은 장혁수의 슬뚜껑같은 손을 바라보며 등골이 서늘해지는것을 느꼈다. 방금 먹은 음식들이 명치에 매달리는것 같았다. 밥상에 앉아서는 마음을 편안히 가져야 소화가 잘된다는데 쇠도리깨같은 놈과 마주앉아있자니 아무래도 소화제를 먹어야 할것 같았다.

로이문은 마음속에 스며드는 불안감을 씻어내려는듯 제앞의 술잔을 잡아당겨 입에 쏟아넣었다. 그리고는 슬쩍 화제를 돌렸다.

《기분잡치는 소리는 그만하고 술이나 드시다. 참, 아까 함께 일하던 녀자 말이요? 정말 모르는 사이요?》

《모른다는데...》

장혁수는 공연히 어성을 높였다. 술기운때문인지 얼굴은 벌겍게 달아올랐다.

다음날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사람들은 끼리끼리 둘러앉아 도시락들을 펴놓았다. 한동네사람들끼리 혹은 같은 작업조끼리 혹은 신민당끼리 혹은 민주당끼리... 하여튼 마음맞는 사람들끼리 둘셋씩 혹은 여라문명씩 사방에 모여앉아있는데 그 수는 작업장에 생겨난 구덩이수와 비슷하였다. 언제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져 무질서하게 널려있는 저 술한 구덩이들이 없어지고 새 물길이 자기 형태를 잡을것인가.

명덕은 자기 동네사람들속에 끼울가 하다가 산기슭의 소나무밑에 외파로 가앉았다. 사람들과 마주앉고싶은 기분도 아니고 더군다나 젊은 놈이 나물죽이나 싸들고다니는 꼴을 보이기가 창피스러웠던것이다. 그는 허리춤에 묶은 보자기를 풀어 도시락을 꺼내들었다. 말려두었던 길짱구에 보리와 수수를 섞어 쏘 죽이었다.

그가 막 숟가락을 잡으려는데 웬 사람 하나가 명덕에게 다가왔다.

《동무! 여기 있었구만.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오?》

명덕은 낮모를 사람을 의아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되박이마가 반들거리고 얼굴이 좀 우습게 생긴 사람이었다.

《뉘시우?》

《난 공사지휘부에 있소. 어제 동무가 싸우는걸 말리러 갔댔지.》

그 사람이 웃는것도 어딘가 기분나쁘게 보였다. 그러니 나를 지휘부에 끌고가서 혼시라도 하겠다는건가. 하긴 시공책임자를 때리겠다고 덤벼들었됐으니 왜정때라면 십장들의 몽둥이에 열번은 더 죽었을것이다.

명덕은 거칠게 물었다.

《날 왜 찾소?》

《달리 생각마오. 우리한테 동무같은 프로레타리아가 필요하오.》

로이문은 웅크리고앉아있는 명덕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주었다. 그러다가 뚜껑을 채 닫지 못한 밥곽을 내려다보며 비죽이 웃었다.

《가기요.》

《어디 말어요?》

《저기 뽕대거리에 우리 지휘부에서 동무같은 모범로동자들을 위해 운영하는 식당이 있소. 내 한턱 내지. 공짜는 아니고 앞으로 일을 잘해주면 되오. 갑시다.》

로이문은 무작정 명덕의 팔소매를 잡아끌었다.

명덕은 지휘부사람이 권하는데다 료해할것도 있다니 따라가지 않을수 없었다.

로이문은 명덕이와 함께 가면서 이것저것 물었다. 집은 어디고 직업은 무엇이고 가정형편은 어떻고...

만주에서 광산일을 했다는 소리를 듣더니 발파를 해보았는가고 물었다. 명덕은 피씩 웃었다.

《그까짓거야 뭐.》

《그렇소?》

로이문의 메밀눈이 반짝반짝했다.

로이문을 따라간 곳은 《봉수국수집》이라는 간판을 지붕우에 올려놓은 ㄱ자형의 기와집이었다. 점심시간인지라 술한 사람들이 웅성거리고있었다. 방안마다 사람들이 둘러앉았고 토방이나 마당가의 도끼모태우에 쭈그리고앉아 국수사발을 손에다 받쳐들고 먹는 사람도 있었다. 손님들에게 넘어가는 국수그릇은 얼핏 보기에다 다른

음식점에서보다 량도 많고 꾸미도 괜찮아보였다. 부엌에서 국수분들우에 올라앉았던 주인이 로이문을 알아보고 황급히 달려나왔다.

《아이구. 부원나리, 어서 오십쇼.》

《방이 있소?》

《그러문요. 자 여기루...》

주인은 로이문과 명덕을 부엌으로 안내했다. 소고기가 무드기 담긴 소랭이며 삶은 닭알을 담아놓은 그릇을 요리조리 피해서 주인을 따라가니 부엌과 잇달린 작은 방이 있었다.

주인이 어떻게 볶아쳤는지 담배 한대 태울 사이도 없이 큼직한 주안상이 들어왔다.

상우엔 없는게 없었다.

소고기볶음, 돼지갈비찜, 통닭찜, 생선회, 두릅순, 찰떡 그리고 명덕이가 먹어보지 못했던 료리도 있었다.

《그럼 어서.》

주인은 문을 닫고 나가면서 어깨를 들썩거렸다.

《개수공사 열씨구 절씨구... 자, 또 한바탕 놀러보세.》

명덕은 처음에는 어쩔바를 몰랐지만 술이 몸에 들어가자 차츰 긴장이 풀리고 배심이 생겼다. 까짓거 나중엔 어찌되든 차례진건 먹구불판이었다.

로이문은 명덕을 동무라고 부르다가 어느새 자네로 바꾸었다.

《자네 내 말을 잘 듣게. 사실 난 자네를 지휘부에 추천할가 했댔네.》

《지휘부요? 내가 거기서 뭘해요?》

《할 일이 있지. 자네처럼 힘깨나 쓰는 젊은이들이 있어야 공사장에 피를 부리는 건달군들이 배겨나지 못하거던. 자네 평천리가죽공장에서 채찍을 많이 만든다는 소리 들었나?》

《아니요.》

《음, 강건너쪽은 좀 뜨구만. 나두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사실인것 같애, 공사가 잘 안되면 사람들을 강제로라도 동원시켜야겠으니 할수 없지. 그런데 자네한텐 채찍을 주어도 마음이 착해서 십장노릇을 못할것 같구만. 어쩐가. 꽤 할수 있겠나?》

《난 그런거 못하우다.》

《하긴 자넨 공산당원이 아니지? 자네만 알고있게. 십장은 공산당원들만 시킨다네. 그 사람들한테는 임금을 준다네.》

《그게 사실이요?》

명덕은 저도 모르게 눈을 치떴다. 돈을 벌자고 왔으면 썩 사라지라던 장혁수의 얼굴이 떠올랐던것이다.

《조용하라구. 자네 어디 가서두 내가 말했단 소린 하지 말게. 알겠지?》

《사람을 어떻게 보구 그러시우?》

그래도 로이문은 명덕에게서 다짐을 받아내고서야 다음말을 꺼냈다.

《그럼, 난 자네가 발파공일을 해주었으면 하네. 제방공사를 하자문 술한 돌이 요구되는데 발파공일을 해본 사람이 없어서 그래. 어쩐가?》

명덕은 발파공일이 싫지 않았다.

《좋수다.》

《그럼 래일 아침에 지휘부로 올라오게. 요새 발파공들을 모집하는데 내가 자네를 추천해주지.》

로이문이 명덕에게 그 일을 시키려는것은 자기나름의 생각이 있어서였다. 로이문은 얼굴이 벌개가지고 바람벽에 기대앉으며 한탄조로 말했다.

《이러나저러나 공사가 제대로 안돼서 야단났네. 문제는 우리 지휘부사람들의 능력에 달려있지. 어제 자네를 때리려던 현장책임자라는 사람도 정권기관에 있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적하면 주먹질이거던. 난 어제 자네가 사내답게 해볼줄 알았는데 용케 참더구만. 현장책임자라니까 좀 떨리던가?》

로이문은 눈을 가느스름하게 뜨고 명덕의 아픈 곳을 때끔때끔하게 꼬집어뜯었다. 술기운이 퍼진데다 가뜩이나 억울한 심정을 안고있던 명덕은 왈각 성을 내었다.

《사람을 어떻게 보구 그러시우? 내가 겁을 낸다구요?》

《그렇지 않으면 어찌겠나? 책임자를 때리겠나... 혹시 그 사람이 자네 매부가 될수도 있어, 해해...》

로이문은 고자들처럼 염소울음소리를 냈다. 술잔을 들었던 명덕의 손이 굳어졌다.

《사람을 놀리는거요?》

《이렇게 깜깜이라구야. 어제 저녁에 현장책임자하구 자네 누이하구 작업장구탱이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있구만. 흠! 내가 제때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누이가 무슨 욕을 봤을지 모를거야. 공사판이라는데가 원래 그러니까...》

명덕의 얼굴표정은 소름끼칠 정도로 험악해졌다. 그는 쇠집게같은 손으로 로이문의 나긋나긋한 어깨를 짊 붙어잡고 따져물었다.

《똑바로 말하오. 뭐가 어쨌다구?》

로이문은 어깨가 빠진다고 아부재기를 쳤다.

《내가 없는 소릴 하겠나? 이걸 놓으라는데...》

《현장책임자가 그랬단 말이지...》

명덕의 이새로 나지막하게 새여나온 그 말은 흡사 호랑이의 목구멍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처럼 무시무시하게 들렸다. 로이문은 명덕에게 잡혔던 어깨를 눌러보며 한수 더 떴다.

《별수 없지. 현장책임자권한이 있겠다, 완력까지 있으니 누가 감히 맞서겠나.》

《흥! 옛날부터 법은 멀구 주먹은 가깝다구 했소.》

해방전 버릇이 되살아난 명덕은 리성을 잃고 소리쳤다. 이제는 무엇으로도 그를 멈춰세울수 없었다. 그는 남았던 술을 맹물마시듯 들이키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이 사람 왜 이러나? 어딜 가?》

로이문이 붙어잡는 시늉을 했으나 그는 돌아보지도 않았다.

명덕이가 문을 차고 나간 뒤 로이문은 마음속에서 요정들이 춤을 추는것 같아 쾌재를 올렸다.

(일이 재미있겠는걸...)

로이문은 술병에 남은것을 다 비우고 음식도 꼼꼼히 씹어서 책임적으로 배를 채운 뒤에야 국수집을 나섰다. 현장사무실마당에 들어서던 그는 마침 명덕이와 장혁수가 건물뒤로 사라지는것을 발견하고 슬금슬금 따라갔다.

그때 장혁수는 점심밥을 먹고 현장에 나가려다가 명덕이와 마주쳤던것이다.

《나 좀 봅시다레.》

《무슨 일이요?》

《가보면 알게 아니요?》

명덕은 곱지 않은 말투로 도발을 걸었다. 가만 거동을 보니 만나자는 리유가 대충 알만 했다.

(제법 뱀통이 센데... 어제 일을 못 참겠다는거겠지.)

장혁수는 길들지 않은 망아지처럼 분별을 잃고 날뛰는 명덕이가 별로 밍지 않았다. 그는 담배꽂초를 비벼끄고 명덕을 따라가며 시무룩이 웃었다.

(좌우간 녀석이 사내다운데는 있어. 어쨌든 제 누이가 속을 썩겠군.)

명덕은 현장사무실뒤 조금 둔덕진 곳에 장승처럼 버티고서서 장혁수가 다가오기를 기다렸다가 먼저 주먹을 휘둘렀다.

《너절한 자식! 죽어봐라!》

불시에 가해진 타격이어서 장혁수는 미처 피할새가 없었다. 혁수도 이런 경우에 제 몸건사 할줄은 알았다. 그러나 햇망아지같은 명덕이쥬은 우습게 보고 마음의 탕개를 늦추었됐으므로 그 강타에 하마트면 뒤로 넘어질번 했다.

《너 이게 무슨짓이야?》

그래도 명덕은 막무가내였다.

《너같은게 무슨 책임자야? 내 누이를 건드리고도 무사할줄 알았어?》

또다시 혁수의 동가슴에 주먹이 날아들었다.

혁수는 이 햇망아지가 왜 이렇게 날뛰는지 어림없이 짐작되었다. 그만에야 혁수도 자제력을 잃었다. 그동안 잠자던 사나운 피가 순간에 끓어번졌다. 이 녀석이 날 너절한 놈으로 본단 말이지... 그는 본능적으로 손을 내밀며 재차 들어오는 명덕의 팔을 후려잡았다. 그 팔을 자기앞으로 콕 나꾸어채는것과 동시에 상대의 눈통을 이마로 지끈!- 들이받았다. 명덕은 눈앞이 번쩍했다가 갑자기 새까매지는통에 얼굴을 싸쥐었다. 이제는 혁수의 차례였다.

《너 좀 맞아봐라!》

혁수는 사정보지 않았다. 그 어떤 뿌리깊은 적의나 증오때문은 아니었다. 젊은 녀석한테 먼저 맞은데 대한 뺨풀이나 앙갚음도 아니었다. 오직 자기의 진심이 모욕당하는게 분해서 견딜수 없었던것이다. 어제 저녁 그 녀자와 함께 흘린 땀을 네가 감히 모욕하다니...

그리고보면 장혁수에게는 명덕을 때려줄 자격이 있었다. 현장책임자로서가 아니라 토성랑사람으로서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철없는 동생을 징계할 형님으로서의 의무가 있었다.

《이자식아! 네 누이는 내가 못다한 일을 대신하느라고 아이까지 업고나와서 늦도록 일하는데 네녀석은 미안해할 대신에 뭐가 어쨌다구? 난 둘째치고 네 누이가 오해받는게 분해서 못 참겠다. 에익!》

명덕은 매를 맞으면서도 그 말을 가려들었다. 이건 또 무슨 소린가? 누이가 현장책임자하구 내 몫을?...

그 시각 로이문은 멀찍이 숨어서 그 광경을 훑쳐보며 무릎을 쳤다. 그에게는 누가 때리고 누가 얻어맞았는가 하는게 중요치 않았다. 사실 명덕이가 장혁수를 패주었다면 속이 좀더 후련하겠지만 반대로 명덕이가 매를 맞았으니 장혁수는 체손으로 올라가미를 건셈이었다.

다음날 아침 공사장에는 뼈라가 하얗게 뿌려졌다.

《로동자들을 마구 때리는 현장책임자 갈아치우라!》

《현장책임자는 왜정때 십장과 같은 놈이다!》

...

아침부터 현장에서는 뼈라들을 한데 모아 불태우는 역사질이 벌어졌다.

《젠장, 간나새끼들때문에 아까운 종이만 태우는군.》

《글쎄말이요. 아이들 공책 뭘 종이도 귀한데...》

그러나 개중에는 머리를 기웃거리는 축들도 있었다.

《불 안 땀 굴뚝에서 연기 안 난다는데 무슨 일이 있긴 있는 모양이군.》

《설마 현장책임자가?...》

《하여간 매맞은 사람이 있고 그걸 본 사람이 있길래 소문이 났겠지?》

리주연은 조반도 못 먹고 현장에서 뼈라를 소각하느라 바빠 돌아갔다.

장혁수를 만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싶었으나 그 사람은 아침부터 보이지 않았다.

아마 속이 타니까 어느 작업장에서 땀을 흘리고있겠는데 수천명의 인종이 끓고있는 넓은 공사장에서 그를 찾아낸다는건 풀숲에서 바늘 찾기였다. 장혁수는 점심에도

식사하러 들어오지 않았다. 점심시간에 리주연은 지휘부일군들의 모임을 소집하였다. 공사장에 비상사태가 발생한만큼 그에 대한 대책을 의논하기 위해서였다.

《지금 공사장에 장혁수동무를 비방하는 빠라가 뿌러지고 뒤숭숭한 소문이 돌고있는데 동무들의 견해는 어떻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가 본인이 없는데서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나부터 말한다면 장혁수동무가 이런 사태를 빚어낸 장본인이긴 하지만 그를 해임시킬수는 없다고 보오.》

선전부 책임자가 리주연의 말을 긍정해나섰다.

《이건 반동놈들이 꾸며낸 개수작입니다. 설사 그 비슷한 일이 있었다 해도 때릴만 한 리유가 있기에 때렸겠지요. 더구나 그 동무는 아직 공산당원도 아니고 정치적수양이 어린것만큼 관대하게 봐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원부책임자는 립장을 달리했다.

《문제는 장혁수동무가 반동놈들에게 공사를 헐뜯을수 있는 언질을 주었다는것입니다. 나는 제기된 사태가 심각한만큼 장혁수동무를 엄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오히려 대중에게 주는 영향이 더 나빠질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리주연은 자기의 결심을 바꾸고싶지 않았다. 놈들이 민심을 흔들어보려고 쓸라닥질을 한게 뻔한데 그 장단에 춤을 출수야 없지 않는가.

장혁수가 어떤 사람인가는 그와 함께 일하는 건설자들이 더 잘 알것이다. 만약 장혁수를 해임시키면 건설자들은 지휘부일군들이 머저리라고 손가락질을 할것이다.

(장군님께서 인민정권기관일군인 나에게 공사총책임을 맡겨주신것은 이 공사에 참가한 사람들의 운명까지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그리하여 리주연은 이 문제를 더이상 떠들지 않기로 했다.

오후에도 공사장에 나가있던 그는 저녁충화때문에 사무실에 들어오다가 문짚에 끼여있는 쪽지편지를 발견하였다. 보낸 사람의 주소는 없었다. 방안에 들어와 편지를 읽던 리주연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다. 편지내용인즉 현장책임자 장혁수가 이틀전 저녁무렵에 기림리녀맹에서 나온 리정혜라는 여자와 작업장구덩이안에서 어물거렸다는것, 텅 빈 공사장에서 갓난애기까지 다른데 팽개쳐두고 저희들끼리 있는것만 봐도 뻔하다는것, 공사지휘부일꾼들이 직권을 람용해서 이런 너절한짓을 하는것은 인민정권기관의 위신을 말아먹는 행위이기때문에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이였다.

리주연은 격분을 참을수 없어 편지를 와락 구겨쥐었다. 어떤 놈이 지휘부주변을 배회하면서 빼라사건으로 장혁수를 넘어뜨릴수 없게 되자 또 이따위 너절한 놀음을 하는게 분명했다. 그게 어떤 놈일가? 그런데 이게 사실일가? 편지에 녀자의 이름까지 밝힌걸 보면 전혀 무근거한 소리같지는 않았다.

그때까지도 장혁수는 현장에서 들어오지 않았었다.

리주연은 다시 현장에 나가서 일을 끝내고 돌아가려던 기림리녀맹위원장을 조용히 만났다. 녀맹위원장은 영문도 모르고 정혜를 칭찬했다.

《정혜동무요? 똑똑한 동뭍니다. 어제 현장책임자동지두 정혜동무를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 동무를 속보에까지 냈는데요.》

《현장책임자가 뭘 칭찬했다는거요?》

《모르십니까? 정혜동무는 동생이 못다한걸 대신하느라고 저녁늦게까지 일했답니다.

》

리주연은 그제야 얼굴빛이 밝아졌다. 그러면 그렇겠지...

그날 리주연은 리정혜라는 녀자가 나이는 서른살이고 남편없이 혼자 산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저녁총화시간에야 리주연은 얼굴이 컴컴해있는 장혁수와 마주앉았다. 장혁수는 자기때문에 공사장분위기가 어수선했다고 생각해서인지 풀이 죽어있었다.

《현장책임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어깨를 떨구고 다니면 뼈라를 뿌린 놈들이 좋아한다는걸 모르오? 쥐새끼같은 놈들이 쏘라닥거린다구 대장부가 그게 뭐요? 점심까지 건느면서...》

《제가 잘못된거야 사실이지요.》

《정말 사람을 때리긴 때렸소?》

장혁수는 명덕이와 있었던 일을 간단히 추려서 말했다.

《암만해도 난 힘들어서 현장책임자를 못해먹겠습니다.》

장혁수는 맥빠진 소리를 하다가 리주연에게 기대어린 눈길을 돌렸다.

《참, 쏘련에서 굴착기가 나온다는게 사실입니까?》

심상치 않은 소리여서 리주연은 긴장해졌다.

《그건 또 무슨 소리요?》

《그런 말이 돌고있습니다. 만약 그게 정말이라면 돈도 못 주는 형편에서 건설자들에게 노동강도를 높이자고 요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리주연은 억이 껍 막혔다.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인가? 현장책임자립장이 그렇게 떨떨해서야 어떻게 공사속도를 보장하겠는가.

《동문 이 공사를 자체의 힘으로 해야 한다고 하신 장군님의 말씀을 다 잊었소? 동무가 토성랑사람이 옳긴 옳소?》

리주연은 한바탕 욕설을 퍼부었다. 그는 방금전까지만 해도 장혁수의 해임문제를 덮어버리려고 했는데 굴착기소리까지 듣고보니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할것 같았다.

36

산협길이여서 승용차는 몹시도 들추었다. 차가 꺾충거릴 때마다 운전사는 가슴이 한줄으로 줄어드는듯싶었다. 앞좌석에 앉은 부관 리병설도 그때마다 언짢은 눈길을 운전사에게 보내곤 했으나 할수 없었다. 이 길로 승용차가 달려보기는 아마도 장군님께서 타고계시는 이 차가 처음일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차가 들추는것도 느끼지 못하신듯 말없이 차창밖을 내다보시며 생각에 잠겨계시였다.

그이께서는 지금 군자리의 폐갱에 사장되어있는 병기생산설비들을 돌아보고오시는 길이였다.

일제는 패망직전에 평양에 있던 비행기제작설비들을 이 깊은 산골에 소개시켜놓았던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석수 떨어지는 갱안에까지 들어가시여

기계설비들을 사장시키지 말고 무기생산을 조직할데 대하여 해당 일군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주시였었다. 무기가 있어야 했다. 정세는 **김일성**동지께 백두산시절에 잡았던 그 총을 계속 들어줄것을 요구하고있었다.

미제는 쏘미공동위원회를 파탄시킨 후 남조선을 영구강점하기 위한 흥심으로 골적으로 드러내고있었다. 놈들은 침략전쟁을 위한 대포밥으로 써먹을 괴뢰군을 조직하기 위하여 작년 11월에 《군정법령》 제28호로 미군정청안에 《국방사령부》를 설치하고 일본군대복무자, 장개석군대와 위만군복무자, 일제의 경찰대와 테로단에 들었던 악질분자들을 그러모았다.

괴뢰해군의 모체로 될 《해상병단》이 즉시로 조직되었고 올해 2월에는 《국방경비대》를 꾸려놓았으며 작년말에 문을 열었던 《군사영어학교》를 얼마전에는 《국방경비대 사관학교》로 개편하고 수많은 악질장교들을 키워내고있었다. 그리고 막대한 자금을 들여 과거 일본군의 군사시설들을 개축하는 등 38°선일대는 물론이고 남조선전역을 대륙침략의 전초기지로 만들고있었다.

한편으로 미군정청은 남조선에서 돌아나려는 민주화의 싹을 짓밟개기 위하여 별의별 악법들을 매일같이 만들어내고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들에 대한 파썸적탄압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었다.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군사기지화책동으로 하여 남조선전역은 또다시 폭압과 략탈, 기아와 빈궁의 암흑세계로 전변되었으며 인민들은 말할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미군정이 줄여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더라도 1946년초에 남조선에는 100만이 훨씬 넘는 실업자가 거리를 헤매고있다고 한다. 그대신 극소수의 지주,

예속자본가, 민족반역자들이 미제와 결탁하여 인민들을 착취함으로써 남조선에서는 민족적 및 계급적모순이 날로 첨예화되고있었다. 결국 외세를 몰아내고 참다운 민주주의통일국가를 세우자면 총을 더욱 억세게 잡아야 했다. 아직도 일부 사대주의자들과 교조주의자들은 군건설의 시기상조를 운운하면서 쏘련군대가 있는데 걱정이 뭔가, 국방공업은 중공업에 토대해야 하는만큼 우리 형편에서는 군수산업이 꿈에 불과하다는 등 얼빠진 소리를 하고있었다. 하지만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에 돌아오신 후 정규무력건설을 3대과업의 하나로 제시하시고 그 준비사업을 다그쳐오시였다.

물론 아직은 빈주먹뿐이고 온전한 기계공장 하나 없는 상태이지만 혁명과 반혁명, 민주와 반동사이의 대립과 투쟁이 격화되고있는 조건에서 북조선의 제반 민주개혁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는 동시에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담보하자면 자체의 정규무력을 건설할수 있는 토대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했던것이다.

그이께서는 근엄한 안색으로 곁에 앉은 김책에게 말씀을 건네시였다.

《난 일본놈들을 몰아내고 조국을 해방한 다음에는 우리 나라를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낙원으로 만들기 위해 힘껏 일하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북삼천리의 산과 들에는 오곡백과 주렁지고 공장의 굴뚝에서는 흰 연기가 솟구치고 바다에선 고기배들이 만선기를 날리고 유치원과 학교들에서는 아이들의 노래소리 울려나오고 금도끼로 찍어내고 옥도끼로 다듬어 세운 집집마다에선 비단옷을 입은 인민들이 흰쌀밥에 고기국을 마주하고… 백년이고 천년이고 자자손손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세우고싶은것이 나의 리상이였습니다. 그런데 국토분렬로 하여 이런 길을 걷게 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이께서는 군자리에 기관단총을 만들기 위한 공장을 꾸리도록 하시고 당면하게는 기계설비들에 대한 경비가 약한데 나쁜 놈들이 책동하지 못하도록 대책을 단단히 세울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알았습니다.》

김책은 앉은 자세에서 절도있게 대답했다.

승용차는 한참 달려서야 덕암리를 꺾이른 큰길에 나섰다. 큰길이라야 달구지길이지만 그래도 운전사는 팽팽하던 긴장을 어느 정도 늦추고 이마의 땀을 훔치며 가속답판을 지그시 밟았다.

푸른 하늘과 맞닿은 멀리의 우중충한 산발들은 검푸른색으로 위엄있게 솟아있고 가까운 야산들은 산수화를 그린 병풍처럼 골안을 둘러싸고있었다. 밭에서는 밀보리가 파랗게 자라고 벌써 모내기를 끝낸 빼기논들에서는 야들야들한 벼잎들이 키를 솟구고있었다. 대지는 온통 푸른빛으로 단장되여있었다.

굽인돌이를 돌아서자 산기슭에 자리잡은 서너채의 농가들이 그이의 시야에 안겨들었다. 그중 세번째 집에는 주인인듯 한 장정이 마당에 나와앉아 무엇인가 손질하고있었다.

《차를 세우시오. 여기 실정도 료해할겸 좀 쉬고갑시다.》

승용차는 길가에 멎어섰다.

장군님께서서는 차에서 내리시여 유정한 시선으로 주변을 둘러보시며 그 집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산촌의 목가적인 정서를 강조하려는듯 탕탕 도끼질소리가 그 집마당에서 울려퍼지고있었다. 집주인은 낯선분들이 자기 집으로 들어서자 영문을 알수없어 엉거주춤 일어섰다.

마당에는 허연 비게덩어리같은 자귀밥들이 사방에 널려있었다. 주인은 후치를 만드느라 참나무를 다듬고있었다.

《수고합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주인에게 먼저 인사하시며 마당안에 들어서시였다.

등거리와 잠뱅이차림의 주인은 장군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시여서야 손에 들었던 자귀를 떨어뜨리며 눈을 껌벅거렸다. 설마하는 의혹의 얇은 구름장이 주름살깊은 농부의 얼굴에 떠올랐다.

그는 자기생각이 틀림없는가를 확인해달라는듯 장군님의 뒤에 서있는 김책과 리병설에게 시선을 돌렸다.

김책이 농부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얼굴에서 설마의 구름장을 걷어주었다.

《**김일성**장군님이십니다.》

김책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집주인은 땅바닥에 두손을 대고 어푸러졌다.

《장군님!》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를 일으켜세우시고 다정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지나가던 길에 사는 형편이랑 알고싶어서 들렸습니다.》

그이께서는 토방에 허물없이 걸터앉으시며 주인도 자신의 곁에 앉도록 하시였다. 집주인은 장군님과 나란히 앉는다는게 너무 황송해서 일어서려 했지만 그이께서는 소탈하게 웃으시며 그를 눌러앉히시였다.

《주인은 서있고 손님이 앉아있으면 인사불성이지요. 자, 담배나 한대 태우십시오.》

장군님께서서는 주인에게 담배를 권하시며 식구는 몇인가, 땅은 얼마나 받았는가, 무슨 작물을 심었는가 등 구체적으로 물으시였다.

집주인은 자기같은 산골농군을 허물없이 대해주시는 장군님의 인품에 긴장이 풀렸는지 담배연기를 맛스럽게 날리며 물으시는대로 대답을 했다.

《우리 농군들에겐 제땅에서 곡식이 자라는걸 바라보는 재미가 제일입니다.》

《예로부터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고 했는데 한번 본때있게 농사를 지어보십시오. 이 지방에서두 청산된 지주놈들과 반동들이 못된짓을 하지 않습니까?》

《웬걸요. 제간놈들이 어디라구 감히 머털 내밀어요?》

주인은 오늘에 한껏 만족되어있었다. 땅을 가졌으니 만사가 다 해결된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였다.

《땅을 가졌다고 저절로 그 땅의 진짜 주인이 되는게 아닙니다. 그 땅에서 농사도 잘 짓고 계급적원썹들이 준동하지 못하게 경각성을 높여야 그 땅을 영원히 지켜낼수 있습니다. 그러자면 많이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두 <농민신문>이 오겠지요?》

농민은 뒤더수기를 문지르며 열적은 표정으로 말씀드렸다.

《예. 오긴 오는데 난 글을 몰라서...》

김일성동지께서는 빨리 문맹을 퇴치해서 많이 배워야 농사도 더 잘 지을수 있고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될수 있다는데 대하여 간곡하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이미전부터 생각해오시던 문제를 꺼내시였다.

《주인님생각엔 현물세를 어떻게 바쳤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동네에서두 그런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왜정때처럼 정액소작료를 물지 않고 현물로 땅값을 문다면 그거야말로 농민들이 바라던것이지요. 게다가 3. 7제로 현물세를 문다면 우린 더 바랄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3할로 현물세를 무는걸 찬성한단 말이지요?》

《그러문요.》

《좀 많지 않습니까?》

《많다니요? 나라에서 땅을 거저 주었는데 그만큼도 바치지 않으면야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요.》

그래도 장군님께서는 다시 물으시였다.

《2할 5부면 어떻습니까?》

주인은 후닥닥 일어서며 황황히 두손을 흔들었다.

《그건 너무 적습니다. 어떻게 그렇게야 하겠습니까?》

장군님께서는 그를 다시 자리에 앉히시며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다. 지난 4월 초순에 대동군 립흥리를 지나시다가 밭에서 조를 심는 농민들과 현물세문제를 의논하시던 일이 기억에 떠오르시였다. 그때도 농민들은 2할 5부는 너무 낮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나라에 빚을 지는 심정이라고 하나같이 말했었다.

이 땅의 어디에 가나 만날수 있는 어질고 순박하고 량심적인 조선농민들, 땅의 주인된 도리를 다하자고 나라살림을 먼저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이 장군님께서서는 무척 기쁘고 자랑스러우시였다. 그래서 더 그들을 위해주고싶으시였고 이 평범한 사람들이 잘사는 새 나라를 세우는데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고싶으시였다.

그곳을 떠나오시면서도 그이께서는 현물세를 3할은 바쳐야 한다면서 후닥닥 일어서던 등거리와 잠뱅이차림의 그 농민을 그려보시면서 것처럼 진실하고 량심적인 농민들로 농촌진지를 더 강화할데 대하여 김책에게 말씀하시였다.

《앞으로 <농민신문>의 부수도 늘이고 활자도 알아보기 쉽게 찍도록 합시다. 그리고 농민들을 위한 소책자도 발간하여 그들의 계급의식을 높여주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제지공장을 빨리 복구정비해야 할텐데...》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장군님께서 타신 승용차는 오후 서너시쯤 되여 북조선립시인민위원회청사로 들어섰다.

집무실에 들어서신 장군님께서서는 전화로 강량옥서기장을 찾으시였다.

《지금 들어서는 길입니다. 그새 제기된것이 없습니까?》

《오전에 리주연동무가 왔댔습니다. 공사장에 제기된 문제들때문에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꼭 받아야겠다고 합니다.》

《무슨 문제인데요?》

《기본은 공사속도가 보장되지 못하고있는것인데 그 동무 말을 들어보면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것 같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잠시 동안을 두시였다가 말씀을 이으시였다.

《그럼 저녁시간에 공사문제를 놓고 협의회를 조직합시다. 그전에 서기장선생과는 농민들의 현물세제정과 관련해서 사전토의를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 인차 가겠습니다.》

송수화기를 놓으신 장군님께서서는 두팔을 책상우에 올려놓으시고 착잡한 생각에 잠기시였다. 리주연부위원장이 찾아왔을 때에는 자기 힘으로 풀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를 안고왔겠을것이다. 공사장에서 또 어떤 문제들이 제기되었을가.

공사를 시작한 때부터 오늘까지 그이께서는 여러가지 일로 바쁜 시간을 보내시면서도 어느 한순간이나마 공사장을 잊어본적이 없으시였다. 과연 인민들의 힘만으로 장마가 닥치기 전에 공사를 끝낼수 있을가? 내가 현실을 너무 낭만적으로만 대하는게 아닐가? 만약 장마가 예상외로 빨리 들이닥친다면 그땐... 장군님께서서는 마음속의 불안을 쓸어버리시듯 손바닥으로 책상을 쓸다가 한쪽 모퉁이에 놓여있는 《정로》를 집어드시였다. 서기가 가져다놓은 최근 신문인데 공사장에 대한 생각에 잠겨있다가니 이제야 눈에 뜨인것이다. 그이께서는 신문의 1면에 실린 《보통강개수공사특보》부터 읽으시였다.

《서천관현악단의 연주가 들려온다. 모두 신바람이 나서 관현악소리에 발을 맞추어 흠을 나른다. 건국을 위한 로동이니 무엇을 생각할 여유도 없이 한삼이라도 더 나르겠다는 욕망이 나의 팔다리, 나의 근육을 뒤흔들인다. 맹인들까지 질통을 지고 서로서로 손을 잡으면서 흠을 나르는 눈물겨운 장면도 보인다. 저 사람들은 새 조선의 밝은 미래를 틀림없이 보았을것이다.》

《...릉다리에 사는 건국로력대원 정명수는 죽음에 다달은 아들의 병도 아랑곳않고 공사장에 매일 출동하고있다. <내가 여기서 땀을 흘리고있을 때 병원에서는 의사선생님들이 내 아들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있다. 이것이 우리 나라다!>라고 그는 말하였다. 로력동원증을 받지 못한 늙은이들도 따로 로인부대를 무어 일하는가 하면 정평리의 한 녀인은 다리병신인탓으로 공사에 참가하지 못하는 남편의 안타까운 마음을 대신하여 아들과 함께 공사장에 나와 열성을 다하고있다. 이것이 보통강개수공사장의 참모습이다!》

다른 신문에는 평양시민주녀성동맹의 여성들이 공사장에 자원진출하여 남자들 못지 않게 혁신할뿐아니라 먼곳에서 달려와 가설막을 짓고 일하는 돌격대원들에게 포단을 비롯한 지원물자를 보내준 소식도 실려있었다.

장군님께서는 신문을 내려놓으시고 생각을 이으시였다. 이것이 우리 인민이다! 이런 인민들의 뜨거운 애국적열정이면 얼마든지 공사를 제기일내에 끝낼수 있다. 그렇다면 대중의 열성은 높는데 작업실적은 왜 오르지 못하고있는가?

37

저녁무렵, 장군님의 집무실에는 김책과 안길 그리고 강량욱서기장과 리주연 등이 보통강개수공사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모여앉았다. 장군님께서는 탁자를 사이에 두고 그들과 마주앉으시였다.

《공사가 어떻게 돼가고있습니까?》

리주연의 표정은 밝지 못했다. 그는 김운상이 떠남으로 해서 수문설계가 중단된 엄중한 사태를 먼저 보고드리려 했으나 그 말은 차마 입밖에 나가지 않았다.

장군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얼마나 심뇌가 크실것인가. 하여 그는 나중에 기회를 봐서 그 문제를 말씀드리기로 했다.

《전반적으로 공사계획을 미달하고있습니다. 계획에는 일인당 하루 운토량을 1m³으로 정했는데 보통 0.6m³밖에 못하고있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선 하루 동원로력이 계획대로 나오지 못하고있습니다. 일부 건달군들과 모리배들은 동원장을 받고도 로력을 돈으로 사서 자기대신 공사장에 내보내는 현상이 나타나고있습니다.》

리주연은 대표적으로 중성리에 사는 정근식이란 사람이 오성재농민에게 동원증을 맡긴 사실을 들은대로 말씀올렸다. (장혁수는 현장책임자로서 규정을 어기고 동원증을 받아놓지 않을수 없었던 사정을 리주연에게 이야기했던것이다.)

장군님께서는 낯익은 이름을 듣는 순간 리주연의 말을 중지시키시였다.

《가만, 오성재농민이라면...》

《예, 토지를 바꾸어달라던 그 농민이랍니다.》

장군님께서는 한견으로 반가운 생각이 드시였다. 그 사람이 어디로 갔을가 걱정하시였는데 다시 돌아와 땅을 가꾸는데도 열성이고 공사장에도 매일 나온다니 마음이 좀 놓이시였다.

《정근식이란 사람은 공사장에 나오지 못할 무슨 리유라도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행히도 강량옥서기장이 정근식에 대해 좀 알고있었다.

《한때는 그 사람도 예수의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그러다가 42년 큰물때 서성리에 있던 공장이 수해를 입고 그때문에 군수품조달을 지연시켰다는 죄로 류치장신세를 지고 나와서는 예수의 교리도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레배당에 다니던 발길을 딱 끊어버렸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정근식에 대해 좀 자상히 알고싶으시여 강량옥에게 물으시었다.

《그 사람이 예수의 교리를 부정하는것과 공장이 홍수피해를 입은게 무슨 련관이 있다는겁니까?》

《성서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우습기 짝이 없는 거짓말이라는겁니다. 거기에는 40일동안 비가 와서 지구전체가 물에 잠기고 노아부부만 살아남았다고 써여있는데 그리자면 비가 내리기 전에 그만한 분량의 물이 지구에 존재해있어야 했다는거지요. 증발한것보다 더 많은 량의 비가 쏟아져내릴수는 없기때문에 그건 질량보존의 법칙이라는 상식도 모르는 어린애같은 옛말이라는겁니다. 더구나 성서에는 노아부부가 제일 착하기때문에 방주를 보내주어 그들을 살아남게 했다는데 어째서 보통강수해때는 제일 가난하고 착한 토성량사람들만 피해를 입고 심보 못된 일본놈이나 부자들은 살아남았는가고 하면서 지독하게 하느님을 욕질했습니다. 속세의 진리를 부정할수 있는 능력이 신앙의 기초로 된다는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하여튼 조만식이도 그 사람의 사나운 입심에는 꿈쩍을 못했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사업수첩에 정근식이라고 써넣으시고 리주연에게 시선을 돌리시였다.

《내 생각에는 주연동무가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보는게 좋겠습니다. 그가 공사분위기를 흐리게 하자고 우정 그런것 같지는 않고 일제시기 부역에 동원되는것처럼 생각했을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애국심을 지닌 사람이라면 건국의 구경군이 되지 말고 이 거창한 시대의 흐름에 합류하라고 잘 말해보시오.》

《알았습니다. 》

《그다음엔 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로동자들속에서 공사를 장마철전으로 끝낼수 있겠는가 하고 동요가 일어나고있습니다. 장혁수동무까지 쏘련에서 굴착기가 나온다는데 로동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가 하는 소리를 하는 형편입니다.》

《장혁수동무가?... 그게 정말입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며칠전에는 말썽을 부리는 로동자를 때려주었는데 그 다음날로 현장책임자를 갈아치우라는 뼈라까지 뿌려졌습니다.》

리주연은 지금 공사장에 장혁수로 인하여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떠돌고있으며 지휘부에서는 그의 해임문제까지 논의되고있다는데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다. 장군님께서서는 무거운 안색으로 리주연의 말을 듣고계시였다. 어떻게 돼서 장혁수가 그렇게 갈팡질팡한단 말인가? 누구보다 보통강반에 원한이 쌓인 사람이고 그래서 누구보다 공사가 빨리 완공되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이 공사를 시작할 때 누구보다 믿고 내세워주고싶었는데...

장혁수의 과거사를 잘 알고있는 장군님께서는 그에 대해 남달리 원심을 쓰게 되는것을 어쩔수 없으시였다. 무작정 정을 주고싶고 언제나 믿고싶고 아름가득 행복을 안겨주고싶으시였다. 만약 이 자리에서 그를 두둔해준다면 그것이 혁명적원칙에서 탈선한 편견으로 되겠는가...

이윽고 그이께서 말씀하시였다.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이 공사를 통하여 인민이란 존재의 위대성을 시위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장혁수동무의 사업에서 결함이 나타났다고 하여 덮어놓고 해임시켜버리면 평범한 로동자, 농민들을 새 조국건설의 기둥으로 내세우자고 하는 우리의 로선을 수정해야 한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끝까지 믿어봅시다. 물론 장혁수동무의 사상적준비가 약한것은 사실이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이 기회에 그가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때 리주연이 다시 일어났다. 장혁수문제가 논의되는 마당인것만큼 말씀드리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그리고 또... 장혁수동무에게 녀자문제가 제기된것이 있는데...》 하고는 도중에 입을 다물어버렸다. 정작 말씀드리자고보니 별 시시한 문제까지 장군님께 보고드리는것 같이 생각되었던것이다. 김책이며 안길이까지도 못마땅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장군님께서만은 리주연의 말에 관심을 돌리시였다.

《좀 자세히 말해보시오. 말쑥지를 떼놓고 그만두면 더 궁금하지 않습니까?》

리주연은 장혁수와 리정혜가 알게 된 사연을 아는것 말씀드렸다.

《장혁수동무는 실지로 그 여성이 홀몸이라는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기된
신소내용은 너무 야비합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아쉽고 분한 생각에 잠기시었다가 명백히 말씀하시였다.

《누군가가 장혁수동무의 잔등에 의식적으로 흙탕칠을 하고있습니다. 그가 나라의
기동감으로 성장하는것도 바라지 않고 행복해지는것도 바라지 않는 세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이의 말씀이 갑자기 비약하는 바람에 일군들은 모두 긴장해졌다. 그이의 음성은
점점 격해지시였다.

안타깝고 절절하신 그이의 진정이 일군들의 가슴속으로 고스란히 흘러들었다.

《동무들도 알겠지만 장혁수동무는 보통강반에서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는
공사가 끝나기 전에는 새가정을 꾸리지 않겠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사가
완공되고 그가 행복하게 살게 된다면 그걸 배아파할 사람은 나쁜 놈들밖에 없습니다.
지금 일밖에 모르고사는 그에게 곁에서 돌봐줄 사람이 있고 따뜻한 보금자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장혁수라는 평범한 인간의 생활상문제가 건국의 아름찬 일감을 도맡아안으시고
누구보다 바쁘신 장군님의 집무실에서 논의된다는것자체가 이례적이고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장군님께서서는 이 문제를 다른 문제들보다 더 진지하고 심중하게 대하시였다.
그리고 공사와 관련되는 모든 문건들에는 계급적각성을 더 높일것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반동들의 책동에 경각성을 높이는것과 함께 일군들이 대중의 건국열의와 투쟁기세를 어떻게 조직동원하는가에 따라 공사의 승패가 좌우된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기본은 대중을 인민정권의 두리에 묶어세우고 당원들이 군중의 앞장에 서서 돌격운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는것입니다. 나도 인차 공사장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시공방법이 걸렸다는데 현지에 나가 료해도 해보고 장혁수동무도 만나봅시다.》

그뿐이 아니였다. 김운상이 설계를 어떻게 진척시키고있는지도 알아봐야겠고 먼데서 와있는 건설자들의 숙식조건이 어떤지도 직접 가보고싶으시였다. 그리고 전번처럼 힘껏 일을 하고싶으시였다.

김운상에게 생각이 미치자 장군님께서서는 전화기옆에 놓여있던 책들을 리주연에게 내미시였다.

《김운상동무가 수문설계기초자료때문에 애를 먹는다는데 도움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리주연은 열결에 그것을 받아들였다.

한권은 《서선지방의 자연지리개요》이고 한권은 《평양부》였다.

《그리고 이 자료들은 해방전 <평양민보>와 <동아일보>에서 발취한것들인데 해방전 평양시의 수해자료들입니다. 운상동무에게 참고하라고 하시오.》

장군님께서서는 자신의 친필로 쓰신 서너장의 서류를 같이 넘겨주시였다.

리주연은 가슴이 조여들었다. 장군님께서 언제 이걸 다... 이 술한 자료들을 찾아내시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바치시였겠는가. 그런데... 장군님께서 천금같은 시간을 쪼개시여 찾아내신 이 귀중한 자료들을 받아야 할 당사자는 지금 공사장에 없다.

리주연은 이 순간처럼 김운상이 야속해보인적은 없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리주연이 머뭇거리는데 보시며 불안감을 느끼시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장군님, 제가 일처리를 잘못했습니다.》

리주연의 보고는 장군님께 정말로 뜻밖이었다.

김운상, 그 사람이 그렇게 신의없고 나약한 인간이였는가.

다음순간 그이께서는 도리머리를 저으시었다.

초가집에서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조선농촌주택개량을 연구과제로 삼았다던 그가 의식적으로 건국의 대오에서 떨어져나갈수는 없다. 만약 그런 애국적이고 량심적인 지식인까지도 나의 동지가 아니라고 단정한다면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라고 한 우리의 인테리정책은 말공부에 지나지 않는것으로 될게 아닌가. 김운상이 일시적으로나마 주저앉은것은 우선 그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모자랐다는것이고 그의 주변에 불신의 찬공기가 흘렀기때문인것이다.

누가, 어떤 세력이 건국열로 달아오른 그의 심장을 랭동시키려 하는가.

생각에 잠기셨던 장군님께서 심중한 안색으로 리주연에게 물으시었다.

《그러니까 수문설계를 아직 못 끝냈겠습니까?》

《예.》

《김운상동무를 한번 찾아가보았습니까?》

리주연은 대답대신 머리를 숙였다. 한번 찾아가 만나봐야겠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일에 몰리다나니 하루하루 미루어오고있었던것이다.

장군님께서는 대답을 못하는 리주연을 바라보시며 마음이 허전해짐을 느끼시였다.

과연 리주연에게도 김운상은 버릴수 없는 사람이라는것을 설명해야 한단 말인가. 혁명은 동지를 얻는것으로부터 시작되고 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은 혁명가의 기본품성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그리고 김운상과 같은 사람을 건국의 주인으로 내세우는것이 우리 일군들의 몫이라는것을 주연동무가 모른단 말인가.

장군님께서는 안타까운 심정을 내색하지 않으시고 리주연을 다시 자리에 앉히시였다.

《내 주연동무에게 한마디 하고싶은것은 혁명을 실무적으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심장이 뜨거워질수 없습니다. 어서 그 자료를 본인에게 가져다주시오. 그리고 내가 공사장에서 만나기를 바란다고 전해주시오.》

일군들이 돌아간 뒤에도 장군님께서는 한자리에 앉아계시였다. 현실의 난문제들이 마치도 자신의 의지를 시험해보려는듯 거친 파도마냥 끊임없이 밀려드는것 같아 그이께서는 좀처럼 안정을 찾을수 없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오늘 공사장에서 제기된 크고작은 문제들을 통하여 건국이 얼마나 힘든것인가를 다시한번 실감하시였던것이다. 과연 인민의 힘으로 인민의 나라를 세우자는것이 그렇게도 실현불가능한 리상이란 말인가.

오늘의 현시점에서 공사를 제기일내에 끝내자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겠는가...

깊어가는 밤과 함께 장군님의 사색도 끝없이 깊어져갔다.

38

종로 뒤골목의 추녀낮은 단층집들은 어둠속에 잠겨있었다. 이 시간이면 누구나없이 네활개를 펴고 안식의 꿈나라를 훨훨 날고있건만 김운상은 하숙집 옷방의 얹은뱅이책상앞에 조각처럼 앉아있었다. 공사장에서 쫓겨나다싶이 했던 그날부터 운상은 머리를 싸매고앉아 자기라는 존재를 정확히 해명하기 위해 번뇌에 시달려왔다.

건국의 앞장에 서보겠다면 건축가로서의 리상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삶의 희열마저 사그러져버릴만큼 그의 고민은 심각하고 절망적인것이였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내가 정말 반동과 한짜인가? 며칠을 두고 그 한가지 질문에 음해있다보니 운상은 스스로 자기를 믿을수 없게 되였다.

한달전 장군님으로부터 공사설계에 대한 과업을 받아안았을 때 그는 난생처음으로 삶의 환희를 느껴보았었다. 물론 그때에도 토목설계에서 자기의 능력을 의심해보지 않은것은 아니지만 장군님으로부터 직접 과업을 받아안았다는 건축가로서의 행복감이 그에게 자신감을 북돋아주었었다.

비록 건축학을 전공했지만 대학시절에 수재로 이름을 날렸고 토목공학도 배울만큼은 배웠으니 그러한 자신감이 근거없는것은 아니였다. 지금도 그는 자기의 지식이 모자라서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고는 생각지 않았다. 문제는 무념이제방을 쌓으면 본래의 보통강은 강바닥이 드러나고 평양의 허물로 된다는것을 자기가 알면서도 설계를 그렇게 한것이였다. 그런데 장군님께서서는 토목공학을 배우지 못하시였지만

무념이제방의 결함을 대번에 지적하지 않았는가. 이것은 결국 보통강을 대하는데서 장군님과 자기의 립장이 차이난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였다. 한걸음 더 나아간다면 그것은 평양에 대한 사랑의 차이이고 애국심의 차이였다.

이 차이는 어디서부터 오는것인가?

곰곰히 생각해볼수록 자기에겐 친일파요, 반동이요 하고 억지감투를 씌우는것이 억울하긴 해도 지금의 처지에서는 변명할수가 없었다. 자기를 비판하던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김운상이라는 인간이 건국의 선봉투사가 될 자격이 없는것만은 분명하지 않은가. 세상사람들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새 조국건설에 한몫 바치려던 나의 열정, 나의 량심은 누가 알아줄것인가. 그것을 알아주신 유일한분은 **김일성**장군님이시였다. 그런데 그분을 노엽혔으니, 아!...

운상은 철들기 전에 집을 떠나서부터 오늘까지 외롭게 살아왔었다.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심정으로 살면 외로움이 덜어진다지만 다가가고싶은 사람이 없었고 왜놈들이 살판치던 그 세월에는 그런 다심한 정을 품고사는것조차 허용되지 않았었다. 오히려 그 세월에는 다 버리고싶었다. 그러던 그가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부터는 오직 그분에게로 가까이, 제일 가까이 다가가고싶은 일념만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었다.

평생 그분의 가르치심을 받고 그분의 사랑만을 받고싶었는데 그 자격을 스스로 잃었으니 이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차라리 고향에 내려가 농사나 지을가? 평양을 떠나면 가슴을 짓누르는 마음속 고통에서 다소나마 해방될것 같았다.

옛그제 그는 하숙집어머니에게 자기 생각을 비쳐보았다.

《부모님들을 모시면서 남새농사나 지을가 해요. 고향에서 참한 색시두 얻구...》

하숙집어머니는 며칠째 옷방에만 박혀있는 운상의 거동을 심상치 않게 지켜보던중이었다.

《그런 말로 날 속이진 못하네. 아무렴 평양성안에 임자 색시감이 없겠나? 그건그렇구 집짓는 기술을 배운 임자가 고향에 가서 남새농사나 짓겠다는건 속에 없는 소리야. 임자한테 무슨 일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책없는 늙은이소견에두 잘하는 생각같지 않아.》

하숙집어머니는 부엌에 내려가 한참 덜거덕거리더니 개다리소반을 받쳐들고 올라왔다. 따끈하게 데운 모두부와 풋나물무침, 간장종지가 전부였다. 녀인은 자그마한 종발에 술을 부어 운상의 앞에 놓아주고는 제앞에도 한잔 부어놓았다. 초년에 남편을 잃고 독수공방의 밤이 하도 지루해서 술을 배웠다는 하숙집어머니였다.

《해방이 돼서는 술없어도 살수 있었는데 오늘은 임자하구 한잔 마시고싶군. 내 옛말 좀 하라나?》

《하십시오.》

녀인은 제먼저 한모금 마시고나서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난 기미년 만세때에 남편을 잃었네. 그땐 하늘이 보이지 않았어.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가 깨여보니 늙은 시어머니와 다섯살난 아들이 내 머리맡에 앉아있더군. 별수 있나? 산 사람이야 살아야지. 무슨 고생인들 안했겠나. 죽고싶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였어. 그래도 억척스레 살았지. 재작년에 질병에 끌려간 아들의 사망통지서를 받았을 때는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는것처럼 앞이 캄캄해지더군. 난 죽자고 결심했네.

남편과 아들까지 저승길에 앞세우고 살만큼 살았으니 사는데 싫증나더군. 불도 안 땀 땀돌바닥에서 물 한모금 안 먹고 사흘동안을 쓰러져있었네. 온몸이 나른한게 땅속깊이 잤아드는것 같더군. 그런데 글썽 강아지란 놈이 킁킁거리면서 부엌문을 자꾸 긁어대는게 아니겠나. 며칠째 굶었으니 그놈도 배가 고팠겠지. 방안에 주인이 있다는걸 아는지 그냥 부엌문을 허비며 애타게 킁킁거리는데 더 누워있을수가 없더군. 문을 열고 밖에 나와보니 여전히 하늘은 무너지지 않았고 해가 짹짹 비치더란 말일세. 그때 난 생각했네. 죽지 말고 살자, 살아서 이놈의 세상이 망하는 꼴을 꼭 봐야겠다 하고 말이야.

내 말은 강아지가 날 살렸다는게 아니라 사람목숨이 그렇게 질기다는거야. 조그마한 미련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매달리게 되거던.

내가 임자한테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겠나? 살아가느라면 무슨 일인들 없으랴만 벼랑끝에 몰렸어두 기죽지 말고 버티여내라는거야. 그게 대장부지.》

산전수전을 다 겪은 늙은이의 자격으로 조용조용 말하는 하숙집어머니앞에서 운상은 다른 말을 할수 없었다. 그자신이 고향으로 내려갈 생각을 하면서도 아직 용단을 내리지 못하고있는것이 바로 평양에 대한 미련때문이었다. 고향에 내려간다는것은 평양에 현대적건축물들을 세우고싶었던 건축가로서의 리상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뜻이었다. 중요하게는 보통강개수공사를 외면할수 없다는 설계가로서의 량심과 인간적인 도의심이 그의 발목을 잡고있었다. 설사 수문설계에 다시 손을 댈 자격은 없다 해도 하다못해 평범한 로력자로서 질통을 지고 육신이라도 바쳐야 마음이 개운해질것 같았다. 더우기 구진배가 진짜 반동이라면 어느때건 공사장에 나타날수 있는데 그의 얼굴을 알고있는 자기가 어떻게 아주 떠날수 있겠는가.

그리고 또 한가지는 수영이라는 처녀의사에 대한 미련이었다.

그동안 그 처녀에 대해 잊으려 했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것을 운상은 날이 갈수록 똑똑히 느끼고있었던것이다. 여하튼 그 여러가지 사정들은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것을 방해할뿐아니라 방구석에 앉아 고민이나 하지 말고 어서 일어나라고 잡아흔드는듯싶었다.

지금 이 시각도 운상은 앓은뱅이책상앞에 한모양으로 앉아서 친일파요, 반동이요 하는 말들이 차단봉처럼 앞을 막아선다 해도 래일부터는 공사장에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굳히고있었다.

제 생각에 빠져있던 그는 밖에서 찾는 소리에 귀를 강구었다. 잘못 들었나?... 찾는 소리가 또 들렸다.

《계십니까?》

운상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었다. 이밤중에 누가 왔을까? 마당에는 리주연부위원장이 서있었다.

《아니?...》

촉수낮은 전등빛에 비쳐진 리주연의 얼굴표정은 어둡고 착잡해보였다. 방안에 들어온 리주연은 잠시 운상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뭘하고있소?》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다.

《아직 자지도 않고 뭘하고있는가 말이요? 그래 아직도 자기라는 존재를 해명하지 못해서 고민하고있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렇게도 모르겠는가 말이요?》

평소의 침착하던 모습은 리주연에게서 찾아볼수 없었다.

운상은 그의 태도를 종잡을수 없어 한동안 어리둥절해있었다. 부위원장이 이밤중에 웬일일가?

리주연은 백로지에 정히 싸가지고온것을 운상에게 내밀었다.

《이 책은 김일성장군님께서 동무에게 보내시는거요. 수문설계에 필요한 참고서들과 장군님께서 직접 발취하신 보통강수해자료들이요.》

순간 운상은 가슴을 때리는 세찬 충격에 흠칫 몸을 떨었다. 이게 무슨 꿈같은 소리인가?

《장군님께서 어떻게... 저야...》

《그렇소. 동무자신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 고민하고있고 나도 동무가 어떤 사람인지 믿을수 없어서 새 설계를 찾으려고 했는데 장군님께서는 김운상동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계신단 말이요. 장군님께서는 동무를 변함없는 동지로 믿고 이 자료들을 주시면서 공사장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시였소. 운상동무! 난 장군님의 집무실에서 곧바로 동무한테 달려오는 길이요. 동무는 고작 자기 운명을 두고 고민하고있지만 장군님께서는 이 시각에도 공사의 운명을 걱정하고계신단 말이요.》

그제서야 운상은 리주연부위원장이 왜 그렇게 흥분했는가를 깨달았다. 또다시 흥벽을 두드리는 강한 충격에 운상은 종시 자기를 지탱해내지 못하였다. 그는 헉- 하고 흐느끼며 무릎을 꿇고 방바닥에 주저앉았다.

(장군님께서서는 나 자신도 미처 다 몰랐던 나의 가치를 값높이 사주시며 변함없이 믿고 계시는데 나는 보통강을 버리고 그분의 믿음을 저버리고 도피하려 했으니 세상에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겠는가. 결국 나는 본의아니게 2중으로 죄를 지었구나.)

김운상은 목이 껍껍 메여 말을 제대로 할수 없었다.

《부위원장동지!... 용서하십시오... 이제... 난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나 지금 리주연의 마음속에서도 일진광풍이 휘몰아치고있었다. 그의 심중은 운상이보다 더 격양되고 복잡했던것이다. 그는 장군님으로부터 혁명을 실무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자기의 본질적과오가 무엇인가를 통절히 느꼈다. 장혁수나 김운상에게 제기된 문제들은 따지고보면 그들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 부족한데서 생긴것이였다.

매사에 침착하고 간간한 그의 성격적우점이 이번에는 간과할수 없는 엄중한 결함으로 되었던것이다. 왜냐면 그 우점이 인간들의 운명에 대한 객관적인 랭정성으로 나타났기때문이였다.

《운상동무! 날 용서하오. 난 오늘 사람들에게 대한 믿음이 부족한탓에 장군님을 실망시켜드렸소. 내 언제면 장군님의 뜻을 제대로 받드는 일군이 되겠는지 모르겠소. 난 가겠소. 래일 공사장에서 만납시다.》

《이밤중에...》

리주연은 김운상이 만류할새없이 방문을 열고 나섰다. 여기서 공사장까지는 한시간남짓이 걸어야 하는데 밤길을 홀로 걸으면서 자신을 더 깊이 반성해보고싶었던것이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운상은 서둘러 따라나섰다. 이제야 뭘 주저하랴. 리주연도 그를 말리지 않았다.

밤하늘의 별들이 남산재를 넘어가는 두사람의 앞길을 조금이라도 밝혀보려는듯
열정적으로 깜박거렸다.

달아오른 두사람의 머리를 식혀주려는지 서늘한 바람이 이마를 스치곤 했다.

저벅, 저벅... 생각깊은 발자국소리가 봄밤의 고요를 조금씩 흔들뿐 사위는 정적에
묻혀있었다.

서성교를 건너서야 리주연은 이제껏 정리한 생각을 털어놓았다.

《운상동무, 동무나 나나 심각한 교훈을 찾읍시다. 일단 장군님 가시는 길을
따라나섰으면 죽을 때까지 오직 장군님발자취만을 따라야 한다는걸 명심합시다. 그
길에서 한걸음이라도 헛디디게 되면 우리 인생은 막돌보다 못해진다는걸 잊지 말자구.
》

운상은 묵묵히 듣기만 했다.이 길을 걷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하랴. 리주연은 한참
말없이 걷다가 문득 생각난듯 처녀의사가 자기를 찾아왔던 이야기를 해주었다.

《처녀가 정말 쨌쨌더군. 사람을 보는 눈이 나보다 낫더란 말이요. 하긴 그렇게
믿으니까 사랑도 이루어지는거겠지.》

운상은 그 말을 선뜻 믿을수 없었다. 수영이가 정말 나를 믿는단 말인가? 정말?...
그의 가슴은 조용히 두근거렸다.

39

생활은 우리 장군님의 어깨우에 크고작은 짐을 너무도 많이 얹혀드리곤 했다. 안타까운것은 당시의 환경에선 그럴수밖에 없었다는것이였다. 누가 그분의 일을 대신할수 있단 말인가. 위인만이 발견할수 있고 해결할수 있는 복잡한 문제들은 장군님의 어깨우에 층층만층으로 덧쌓여지곤 했다.

정근식의 문제도 례외가 아니였다. 리주연은 정근식을 만났던 결과를 장군님께 보고드렸다. 결과가 신통치 않아서인지 리주연의 표정도 씩원치 않았다.

《저에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줄 아는 능력이 부족한가 봅니다.》

《좀 자세히 들어봅시다.》

장군님께서는 만년필을 놓으시고 리주연과 마주앉으시였다.

오늘 리주연은 서성고무공장에 정근식을 만나러 갔다가 허탕을 쳤다. 공장에서 대준 주소대로 집을 찾아가니 그는 널직한 퇴마루에 나앉아 낚시대를 손질하고있었다. 그것부터가 우선 리주연의 깔끔한 눈에 거슬렸다. 남들은 건국을 한다고 뛰어다니는데 신수멀끔한 량반이 명주바지저고리차림으로 올방자를 틀고앉아서 낚시대나 주무르다니...

거친 말마디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려 했지만 리주연은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한 례절을 생략할수 없었다.

《리주연이라고 합니다. 도인민위원회에서 일을 보지요.》

웬만한 사람이라면 기념집회때마다 주석단에 오르곤 하는 리주연을 모르리 없건만 달팽이도 부러워할만큼 바깥일에 흥미를 잃고 사는 정근식은 정말로 그를 몰랐다. 언젠가 이름은 들은적이 있는것 같은데... 부위원장이라고 했던가?

《헌데 무슨 일루?...》

리주연은 찾아온 용건은 뒤로 미루고 낚시도구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낚시질취미가 대단한 모양입니다?》

《나한텐 낚시질재미가 세상을 더 살아야 할 리유의 전부이지요. 50평생을 살고나면 세상살이가 시들해지는건 어쩔수 없는가 봅니다.》

《왜 그렇게 인생을 허무하게 생각합니까?》

《누군가 말하기를 현대인의 특징은 허무라고 했지요. 호젓한 강가에 낚시대를 드리우고 앉아있느라면 서로 속고 속이며 더 많이 가지겠다고 오구작작대는 인간세상이 우습게 생각되지요. 그래서 중들이 깊은 산속에 들어가 암자를 짓고 혼자 살았는가봅니다. 허위로 가득찬 속세에서 괴롭게 살기보다는 정직한 짐승들을 벗삼아 사는게 더 마음 편했을테니까요, 허허... 이거 초면에 객적은 소리를 해서...》

정근식은 쓰겁게 웃었다. 제가 한 말이 스스로 역겨웠던 모양이었다. 리주연은 방안을 두루 살피다가 책상위에 놓여있는 지구의에 눈길을 멈추었다. 큼직한 석탄덩이처럼 새까맣게 먹칠해놓은 지구를 보며 리주연은 아연해졌다.

《지구의는 왜 저렇게 됐습니까?》

《그게 지구의 본색이라고 보았습니다. 창세기전처럼...》

정근식은 비양조의 웃음을 지으며 서슴없이 대답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리유가 뭘니까? 왜정때라면 몰라도 지금은 나라가 해방되지 않았는가요? 지구의 방방곡곡에서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선포하고 새 사회를 건설하고있는 때가 아닙니까?》

《그럼 지금은 창세기라고 해두지요.》

정근식은 통명스레 한마디 했다. 청하지 않은 손님으로 왔으면 용건이나 내놓을것이지 별 시비를 다 한다는듯 한 점잖은 신호였다.

리주연은 강량옥서기장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상기하며 세상일에 팔짱끼고 돌아앉은 이 사람을 건국의 마당으로 끌어내기가 조련치 않으리라는것을 예감하였다.

리주연은 자기가 찾아온 목적을 직선적으로 털어놓았다.

《시인민위원회에서는 보통강개수공사에 평양시민전체가 떨쳐나서야 한다고 선전사업도 하고 로력동원증도 발급했는데 어째서 자기대신 로력을 사서 내보냈는가요?》

정근식은 깜짝 놀랐다.

《그 일때문에 왔습니까, 도부위원장어른이?...》

《예, 리유를 알고싶어서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었다는건가요?》

《대단히 잘못되었지요.》

《어째서요? 나야말로 그 리유를 알고싶은데요? 누가 나가서 일하든 제 몫을 하면 되지 않는가요? 더구나 가난한 사람은 일해주는 대신에 품삯을 받아서 좋을거구...》

정근식은 그것이 왜 잘못이라고 하는지 놀라왔고 리주연은 정근식이 정말로 제 잘못을 모르는게 놀라왔다.

《당신은 아직도 왜정때처럼 돈이면 다 해결되는줄 아는 모양인데 우리가 바라는건 당신의 애국심입니다. 지금 공사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로력동원증에 도장을 받을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땀을 바쳤다는걸 확인받는 그 순간이 기뻐서 하루일의 피곤이 다 달아난다고 합니다. 그게 애국심이 커간다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애국자가 될수 있는 그 기회를 스스로 버린셈입니다. 혹시 그 동원증을 종교에서 말하는 면죄부처럼 생각한게 아닙니까?》

정근식은 돈이 부정당한다는게 이상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해서 다시 물었다.

《어쨌든 건국을 하자면 돈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이지요. 그러나 장군님께서서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기본이라구 하셨습니다. 장군님의 개선연설에서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라고 하신 말씀은 사람들의 애국심을 내라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나도 그 말씀만은 천금보다 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애국심이라...》

정근식은 눈을 꼭 감고 생각에 잠겼다. 그는 지금까지 리완용이 같은 매국노만 되지 않으면 그럭저럭 부끄럽지 않게 살수 있다고 믿어왔었다. 설사 북조선에 공산정권이 선다 해도 역적이 아닌데야 겁낼게 뭐가. 그래서 해방직후 장대재교회당의 최장로가 월남하자고 꼬드기는것도 따라가지 않았었다. 그런데 리주연의 말을 들어보면

공산정권하에서는 애국자만 살수 있다는 소리가 아닌가. 공연히 속이 비틀어진 정근식은 감았던 눈을 뜨며 리주연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지금 무산계급의 정권을 세우자고 하는듯 한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평등한 세상을 건설하자는 구호밑에 프로레타리아의 마치가 내 집과 공장을 들부시면 나두 빈털터리가 될게 아닙니까. 게다가 나두 꼭 공사장에 나가서 감탕판에 무릎을 건어올리고 땀흘리며 질통을 져야 이 세상에서 살수 있는 허가증을 받는다는건데 음... 그건 좀 너무한데요. 모세의 십계명에도 로동에 성실하라는 말은 없었지요.》

《그만하십시오! 》

매사에 침착한 리주연이었지만 정근식의 의식적인 도발을 듣고만 있을수 없었다. 장군님의 말씀을 받고 왔으니만큼 정근식을 잘 설복해서 공사에 동원되도록 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더이상 부처님처럼 점잖게 처신할수 없었던것이다. 리주연은 분노한 눈길로 정근식을 쏘아보며 격분을 터쳤다.

《당신은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허무와 회의의 수렁늪에 빠졌는지 모르고있소. 당신은 지금 장군님의 건국사상을 믿지 못하고있단 말이요. 장군님께서는 당신같은 사람도 이 공사를 통해서 애국자로 성장하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고 하시였소. 이 거세찬 시대의 흐름에 합류하지 못하고 건국의 구경군노릇을 하고있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나를 여기로 보내시였소. 그런데 당신은 뭐가 어쨌다구... 》

《장군님께서... 나를?...》

정근식은 무릎을 반쯤 세우고 엉거주춤 일어섰다. 하 벌린 입도 다물지 못하고 쾅해진 표정으로 리주연을 바라보기만 했다.

리주연은 더 마주앉아있고싶지도 않아 홀 일어서고말았다. 문지방을 넘어서며 그는 다시 오금을 박았다.

《당신두 장군님께서 지난 3월에 발표하신 20개조정강을 읽었겠지요? 그런데 아직도 모세의 십계명타령이요? 당신이 없어도 우린 이 공사를 해낼거요. 당신은 팔짱끼고 앉아있지만 장군님의 건국로선을 받들고 우리 인민들이 어떤 새세상을 건설하는가를 당신은 보게 될거요.》

리주연이 대문을 나설 때까지 정근식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굳어져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심각한 안색으로 리주연의 보고를 끝까지 들어주시였다.

해방된 오늘까지도 이 땅의 변혁을 믿지 못하고 은둔해있는 그 사람이 한편으로는 섭섭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프시였다. 그 사람의 지난날이 얼마나 모질었으면 그렇게까지 현실을 믿지 않겠는가. 그런 사람들도 하나하나 손잡아 이끌어 건국의 마당에 내세워주는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아무래도 내가 한번 만나봐야겠습니다.》

그이께서는 시계를 들여다보시고 자리에서 일어서시였다. 오후에 선전부문일군들과 만나기로 약속하시였는데 그전에 정근식이부터 만나보셔야 할것 같았다.

당황해난것은 리주연이였다. 자기가 결김에 홀 떠나온탓에 그이의 귀중한 시간을 빼앗는 결과를 빚어냈기때문이였다.

《장군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신단 말입니까? 제가 다시 가보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이것은 다만 그 사람한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각계층 군중이 우리 인민정권을 진심으로 믿는가 안 믿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거친 세상을 살아오면서 많이 속히우고 마음속에 상처도 많이 받은것 같은데 우리는 품을 들여서라도 그에게 인생의 환희를 찾아주어야 합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먼저 집무실을 나서시였다.

잠시후 장군님께서 타신 승용차는 리주연의 안내로 정근식의 집근방에서 멎었다. 골목이 좁아 차를 먼발치에 세우고 대문앞에까지 걸어가시였다.

《이 집입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리주연이 가리키는 대문앞으로 다가서시여 몸소 대문을 두드리시였다.

《계십니까?》

대답이 없었다. 다시 손바닥으로 굳게 닫긴 대문을 텅텅 두드리시며 좀더 크게 소리치시였다.

《주인님 계십니까?》

그래도 안에서는 인적이 없었다.

《주인이 없는게 아십니까?》

리주연이 의아해서 하는 말이였다. 장군님께서서는 빙그레 웃으시였다.

《주인이 없으면 어떻게 대문빗장을 안에서 걸었겠습니까? 아마 주연동무한테서 얻어맞은게 아파서 머리를 싸매고있는 모양인데 겨울잠을 자는 곰처럼 골방에 들어박힌 은둔자를 만나기가 그렇게 쉽겠습니까?》

장군님께서서는 다시 대문을 두드리시였다.

《주인님 계십니까?》

그때에야 안에서 미닫이문이 드르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거 누구요?》

별로 반갑지 않다는듯 한 소리였다.

《주인님을 뵙자고 왔습니다.》

손님의 레절있고도 위엄있는 음성에 집주인은 어쩔수 없었던지 신발을 끌며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의 빗장을 벗겼다.

대문은 마지못해 열리는듯 찌궁 하고 신경질을 부리며 열렸다.

순간 정근식은 전기에 감전된 사람처럼 깜짝 놀라며 숨을 들이그었다.

어떻게 **김일성**장군님께서 자기 집 대문앞에 서계실수 있단 말인가?

장군님께서는 인자하게 웃으시며 정신을 못 차리고있는 정근식에게 인사를 하시였다.

《안녕하십니까?》

《장군님! 제가 그만 장군님을 몰라보았습니다. 어찌먼 이렇게...》

정근식은 두손을 합장하고 깊숙이 허리를 굽혔다.

장군님께서는 걸음을 옮기시며 친근하게 물으시였다.

《집구경이나 합시다. 그런데 안주인은 어디 갔습니까?》

《예, 시장에 나간다면서...》

정근식은 한발 먼저 방안에 들어가 방금전까지 베고 누웠던 베개를 치우고 방석을 내놓으면서 루루이 변명했다.

《실은 아까 도부위원장어른한테서 얻어맞고 누웠었는데 부끄러운 꼴을 남에게 보이기 창피해서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도 잠자코 있었었습니다.》

《이왕 매를 들였던바에는 단단히 치자고 이렇게 다시 왔습니다. 하하...》

장군님께서서는 집주인의 웅색한 마음을 풀어주시려고 호탕하게 웃으시며 방안을 둘러보시였다.

십장생을 그린 병풍과 리주연에게서 들은대로 책상우에 놓여있는 먹칠한 지구의, 옷칠한 탁자우에 놓인 리조 백자기접시에서 풍기는 과일향기, 창가의 어항, 벽에 걸린 족자들...

장군님께서서는 묵화로 게와 기러기를 그린 단원(김홍도)의 족자를 유심히 감상하시였다.

무성하게 자란 갈밭속에서 제가꿈 기여다니는 게무리들은 탄력있고 민활하게 다리를 놀리며 마치 설렁거리는 소리를 내는듯 한데 가을바람이 우수수 갈밭을 흔들고있는듯 생동한 화폭이였다.

잠시 그림을 감상하시던 장군님께서서는 옆에 서있는 리주연에게 물으시였다.

《주연동무 보기엔 게가 모두 몇마리입니까?》

리주연은 장군님께서 정근식을 되게 비판하실줄 알고 긴장해있다가 뜻밖의 질문을 받고 어리둥절해졌다. 장군님께서 한번 세여보라고 재차 말씀하신 뒤에야 그는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모두 열세마리입니다.》

장군님께서는 웃음어린 어조로 리주연에게 정확히 세여보라고 충고하시였다. 리주연은 머리를 기웃거리더니 이번에는 손가락으로 꼭꼭 짚어가며 하나, 둘 하며 세나갔다. 틀림없이 열세마리였다.

《분명 열세마리입니다.》

《주인님은 몇마리로 알고있습니까?》

긴장해있던 정근식은 장군님께서 우정 화제를 돌리신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미 알고있던대로 대답올렸다.

《열세마리올시다.》

《다 틀렸습니다. 열네마리입니다.》

리주연이도 의아해졌지만 정근식은 더 놀랐다.

저 그림을 걸어놓은지도 몇년 잘되는데 자기는 지금껏 열세마리로 알고있었던것이다. 그림 한마리는 어디서 나타났단 말인가.

장군님께서는 보조개가 패이는 특징적인 미소를 지으시고 손을 드시여 그림의 한곳을 가리키시였다.

순간 정근식이도 리주연도 동시에 《아!》하고 탄성을 터쳤다. 무성한 갈숲짊으로 몇개의 게다리가 보였던것이다. 정근식은 장군님을 우러르며 찬탄을 금치 못했다.

전설로만 들어오던 장군님의 천리혜안을 제 눈으로 확인했으니 왜 그렇지 않으랴.

《저는 여태 그걸 보면서두 갈뿌리인줄만 알았했습니다.》

정근식은 숨어있던 게를 찾아낸것으로 해서 그림의 가치가 더 높아졌다고 생각하는것인지 어린애처럼 기뻐하였다.

장군님께서는 그림앞에서 물러나시며 슬쩍 기본문제에로 들어가시였다.

《저 숨어있는 게가 주인님을 닮은것 같지 않습니까?》

정통을 찢리운 정근식은 방금전까지 멋도 모르고 좋아한 자기가 천하게 여겨졌다.

장군님께서는 전국에 바쁜 시간을 내시여 굳게 닫긴 대문을 두드려주시고 골방속에 은둔해있지 말고 밝은 세상으로 나오라고 몸소 손을 내미시는데 그 깊은 뜻은 알지도 못하면서 주책없이 허허 웃고있었으니 자기 감각이 얼마나 둔해졌는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서글퍼졌다.

장군님께서는 정근식과 마주앉으시고 흥금을 터놓으시였다.

《난 주인님이 보통강개수공사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가 섬섬하고 인민정권을 믿지 못하고있는게 안타까워서 속 시원히 이야기를 나누어보자고 찾아왔습니다.》

정근식은 송구스러워 몸둘바를 몰랐다. 오성재가 처신을 어떻게 했기에 장군님한테까지 그 일이 알려지고 도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실직고했길래 장군님께서 이런데까지 걸음하시게 했단 말인가. 하긴 따져보면 누구를 탓할것도 없었다. 정근식은 이렇게 된바에는 여태 머리속에 웅크리고있던 의문점들을 깨끗이 털어버리고싶었다.

세상의 리치를 아침에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는데 혼돈과 애매함으로 가득찬 머리가 정리된다면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을수 있었다.

《제가 불민한탓으로 국사에 바쁘신 장군님께서 초라한 저희 집대문을 몸소 두드리시게 한 죄는 따로 벌을 청하겠습니다만...》

정근식은 마른침을 한번 삼키고 고개를 들었다.

《철없는 초학도를 훈계하는셈치고 가르쳐주십시오. 내 지금껏 이 세상에 잠시 머무르는 손님흉내를 내면서 허무주의면사포를 쓰고있었던것은 이 땅에 인류가 바라던 만민평등의 사회가 세워질수 없다는 절망감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의 공자가 <덕으로 인도하고 례로 다스리는 정사를 펴야 한다>고 했지만 그게 현실화되어본적은 동서고금에 없었습니다. 물론 장군님께서만이 이 세상에 무릉도원을 세우자고 팔 걷고 나서신줄은 내 아무리 바깥일에 껌껌 이래두 모르는바 아니지만 그게 과연 가능한가 하는것입니다. 세상이 벽적 떠들어댄다고 귀구멍을 넓히고 영치를 들썩거리는것은 내 나이에 어울리지 않지요.》

정근식은 머리속에 있던것을 단숨에 쏟아놓았다.

그리고 초조한 기색으로 장군님의 말씀을 기다렸다.

장군님께서는 진지한 표정으로 정근식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고나서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주인님의 심정이 이해됩니다. 하긴 만민평등의 세상을 건설하자는 구호가 어제 오늘 처음 나온것은 아니지요. 우리 나라 력사만 놓고보아도 진보적인 학자들은 봉건적인 전제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속에서 왕권신수설을 배격하고 백성을 근본으로 삼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사상을 내놓았습니다.

김시습이나 리수광도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고 했고 후기 실학의 대표자였던 정약용도 민권옹호사상을 내놓았습니다. 동학의 창시자 최제우가 내놓은 인내천사상도 당시로서는 진보적이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인민을 위한것이였는가.》

장군님께서서는 자리를 고쳐앉으시며 력사가 인민을 어떻게 보았는가 하는데 대하여 알기 쉽게 개괄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봉건전제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민본사상, 민권옹호사상, 평등과 민주주의사상, 인내천사상 등이 형성되였지만 그것은 주로 봉건통치체제내에서의 리상적인 정치를 주장한것으로서 민중에게 절대적인 지위와 권리를 부여하지 못한것이였다. 또한 그것은 물질적부의 생산자로서의 민중의 능력은 인정하였으나 사회변혁의 능력을 외면하거나 심지어 그것을 전면부정하는 사상이였으며 민중을 정치의 주인으로가 아니라 통치의 대상으로 본 사상이였다.

유미자본주의나라들에서도 정권의 형태가 공화제나 군주제나, 정권의 활동방식이 민주주의나 독재나 하는 론의가 정치학의 주되는 내용으로 되면서 국민주권사상, 주권재민론사상이 형성되였다.

《유토피아》나 《태양의 도시》에서는 사적소유가 없고 무위도식자가 없는 리상사회를 그리면서 국가주권을 민주주의적으로 조직할것을 공상하였다. 그러한 사상들은 프랑스에서도 미국에서도 나왔지만 그것은 다 민중을 기만하고 부르쥬아독재통치를 위장하기 위한 장식물에 지나지 않는것이였다.

《그러나 우리 조선의 혁명가들은 해방된 조국땅우에 인류가 리상으로만 그려오던 진정한 인민의 나라를 세우자고 합니다. 그래서 로동자들은 공장의 주인이 되게 하고 농민들은 땅의 주인이 되게 했으며 20개조정강을 발표하였습니다. 보통강개수공사도 토성랑인민들이 더이상 수해를 입지 않게 하자고 나라사정이 허락치 않지만 인민의 힘을 믿고 일판을 벌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주인님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세기적변혁들을 제 눈으로 목격하면서도 의식적으로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근식은 부정하지 않았다.

《정말로 그런 세상이 세워진다는게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술한 현자들이 하느님홍내를 내면서 지구상에 에덴동산같은 낙원을 만들어보라고 인간을 교화해왔지만 세상은 아름다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군님께서서는 어떤 새로운 교리로 백성의 세상을 건설하려고 하십니까?》

《나의 건국리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입니다. 종교에서는 인간을 신의 피조물로, 귀소개념이 없는 불쌍한 어린 양으로 보았다면 나는 인간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주적인 존재로 봅니다. 인간은 자연과 사회의 주인이며 제 운명의 주인입니다.》

정근식은 장군님의 론리정연한 말씀에 무엇이라고 할 말이 없었다. 그러면서도 하늘이 준 이 기회를 놓치고싶지 않아 좀더 대담하게 말씀드렸다.

《제가 너무 외람된것 같지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항간에서는 북조선이 곧 쏘련의 가맹공화국으로 된다는 말이 나돌고있습니다. 설사 그렇지는 않다 해도 북조선엔 사회주의정권이 서겠는데 그러면 나같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장군님께서서는 정근식의 단순성앞에서 웃지 않을수 없으시였다.

《주인님은 세상일에 귀구멍을 넓히지 않는다고 하시더니 그런 잡소리까지 다 들으셨군요. 식자가 있는 어른이 돌아가는 소리 몇마디로 세상을 재단한다면 그 이상 서글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반동놈들이 민족주의자들이나 지식인들에게 공산주의자들을 헐뜯느라고 별의별 소리를 다하고있는데 이젠 다 애국적민주세력의 단합을 막아보려는 비렬한 수법입니다. 우리가 건설하려는 사회는 노동자, 농민, 지식인들과 함께 기업가나 종교인들에게도 나라의 혜택이 골고루 한몫씩 차례지는 사회, 말하자면 온 민족을 위한 사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놓으십시오.》

그래도 정근식은 잘 이해되지 않았다.

《그런 이론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건대 사회주의정권형태는 콤문과 쏘베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콤문형태의 정권은 존재기일이 너무 짧았고 쏘베트는 프로레타리아독재사회로서 민족보다 계급을 우선시하지 않습니까?》

《빠리콤문의 운명이 짧았던것은 그것이 도시로동계급만을 위한 정권이기때문이였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와 빈고농, 병사들을 위한 쏘베트정권하에서는 그 초시기에 즉시적인 사회주의실현이라는 구호밑에 일사천리로 강행된 재산의 공유화와 유산계급일반에 대한 일률적이고 무자비한 숙청이 민족단합에 일정한 지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보적민주주의의 구호밑에 인민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는 진정한 인민의 새 나라를 세우자고 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그 누구의 흥내를 내지 않고 어디까지나 조선식으로 건국을 해나가야 합니다. 조선사람에게는 미국옷도 맞지 않고 쏘련옷도 맞지 않습니다. 때문에 맞지도 않는 다른 나라 옷을 입을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맞는 조선옷을 만들어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라는 조선혁명의 성격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조선식민주주의길로 나가자고 합니다. 주인님이야 정치의 가까거겨를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인민이 자주시대의 주인으로 등장한 력사의 흐름을 외면해서야 되겠습니까?》

장군님께서서는 가슴에 차오르는 흥분을 이기지 못하시고 자리에서 일어서시였다.

《주인님은 모든것을 허무적으로 대하면서 지구의에 먹칠이나 하는것으로 어두운 이 세상을 복수하려고 하신 모양인데 그건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왜냐면 그건 아름답고 밝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해온 인류의 력사를 모욕하는것으로 되기때문입니다. 멀리 볼것도 없이 우리 항일투사들은 적들에게 두눈을 빼앗기고도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웨쳤습니다. 말을 들으니 선생은 그 무슨 허가증이 비싸다고 하셨다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이 땅우에 진정한 인민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땅우에서 자주적인간으로 살수 있는 권리를 가지기 위해 20성상 혈전만리를 헤쳐온 투사들도 감히 그런 자세는 하지 않습니다. 주인님같은분들도 마음편히 잘살게 하자고 목숨을 바친 그네들의 령혼이 바람세찬 만주벌판에서 아직도 잠들지 못하고있는데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내가 더 섭섭한것은 주인님이 오성재농민의 인격을 너무도 무시한것입니다.》

《예? 그건...》

정근식은 변명이라도 하려는듯 고개를 들다가 그만 흠칫하고 굳어졌다. 장군님의 안광에서 가슴을 서늘하게 하는 섬광과도 같은 빛을 보았던것이다.

장군님께서서는 준절한 음성으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주인님은 오성재라는 한 인간을 모욕했습니다. 그 순박한 농민이 주인님한테 신세진것을 잊을수가 없어서 규정에 어긋나는줄 알면서도 동원증을 받을 때 그의 처지가 얼마나 난처했겠는가를 생각해보았습니까?》

정근식은 들었던 고개를 푹 떨구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다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았던것이다. 자기는 오성재에게 선심을 쓰고 그 인정을 리용해서 그의 육신을 부러먹으려고 했었다.

본의든 아니든 결국은 그렇게 되었다. 공사장에서 제정한 로동규정을 어기는것으로 해서 그의 립장이 딱해질수 있다는것은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다. 그래서 장군님께서서는 그토록 노하신것이였다. 지지리 놀리워 살아온탓에 본인조차도 자기가 모욕을 당하는줄 모르고 모욕당한 평범한 한 농민의 존엄을 지켜주시려고 바쁘신 시간을 내신것이다.

세상살이가 싫어졌다는것은 세상리치를 다 알았기때문이라는 자기의 견해가 얼마나 어리석고 협소한것이였는가를 자인하면서 그는 장군님앞에서 머리를 들수 없었다.

그러나 장군님께서서는 결코 그의 경거망동을 단죄하시자고 오신것만은 아니였다. 그이께서는 석탄덩이같은 지구의를 빙글빙글 돌리시며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주인님이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인민의 힘으로 이 땅에 락원을 일떠세울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민들이 얼마나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이 지구우에 건설하는가를 주인님은 꼭 보게 될것입니다. 주인님도 멀찍이 앉아서 구경만 하지 말고 건국의 길을 나와 함께 손잡고 걸읍시다. 나는 인민의 세상을 념원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동지로 믿고싶습니다.》

《장군님!》

...

정근식은 장군님께서 떠나가신 뒤 그만 대문앞에 주저앉았다. 마치 과도사나운 바다우에서 폭풍에 내동댕이쳐진것처럼 몸을 주체할수가 없었다. 한참만에야 후들거리는 다리를 끌고 방안에 겨우 들어선 그는 허탈상태에 빠진 사람처럼 맥없이 늘어져버렸다.

예전에는 고독을 즐기며 살아왔건만 오늘만은 사람이 그리웠다. 누구하고든 마주앉아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머리속의 온갖 찌꺼기들을 분수처럼 뿜어버리고싶었다.

정적이 드리운 방안에서는 십장생을 그린 병풍속의 해와 산과 소나무와 거부기들이 그렇게 속을 태우면 자기들처럼 오래 살지 못한다고 충고하는듯 정근식을 조용히 지켜보고있었다.

40

장혁수로부터 정근식의 로력동원증을 돌려받은 오성재는 며칠째 남모르게 속을 썩이고있었다. 지금도 그의 귀전에는 장혁수가 동원증을 돌려주며 하던 말이 생생히 남아있었다.

《나도 이 동원증을 별치 않게 생각했됐수다. 누가 대신하든 제 몫을 하면 되는줄 알았지요. 리주연부위원장한테서 장군님말씀을 전달받고서야 정신이 들었수다.

장군님께서는 그 동원증은 단순한 통제수단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건국에 바친 공로를 보증해주는 애국증서와 같다고 말씀하셨대요.》

《애국증서라구?》

《예. 그리구 건국은 돈으로 하는게 아니라 애국의 마음이 기본이라구 하셨대요.》

오성재의 얼굴빛은 컴컴해졌다. 정근식에게 동원증을 돌려주기가 난감했던것이다. 장혁수가 그걸 모를리 없었다.

《형님 손으로 돌려주기 딱하다면 내가 돌려주겠습니다.》

《아니, 아니... 내가 주지.》

오성재는 동원증을 쥔 손을 얼른 움츠렸다. 장혁수의 살갑지 못한 성미에 정근식한테 가서 떡떡거리면 제 립장이 더 웅색해질것 같았던것이다. 그렇게 받아넣긴 했지만 오성재의 마음으로서는 화로불을 뒤집어쓰고 참으면 참았지 사람의 체면을 가지고서는 정근식에게 그걸 되돌려줄 용기가 전혀 생길것 같지 않았다.

은혜를 입을 때 같아서는 하늘에 가서 별이라도 따다 바치고싶었는데 그까짓 육신을 대신해주는 일도 못해주게 되었으니 이 딱한 사정을 어떻게 설명한단 말인가?

어제 저녁에도 그는 정근식의 집앞에까지 갔다가 종시 대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돌아섰다. 생각끝에 그는 현장치료실에 나가있는 수영을 찾아갔다.

그날도 수영은 마당 한옆에 걸어놓은 돌가마에서 음료수를 끓이고있었다. 나무가 잘 마르지 않아서인지 불길이 씨원치 않았다. 처녀는 머리에 재티를 얹으며 후- 후- 바람을 불어넣었다. 그러다가 그만 연기를 삼키고 눈물이 찔끔 나오게 재채기를 했다. 치료실에서 나오던 간호원처녀가 재미있다는듯 까르르 웃었다. 수영이도 웃었다.

현장치료실에는 남자의사 한명과 수영이 그리고 간호원이 한명 나와있는데 남자의사는 치료가방을 메고 병원에서 회진하듯 넓은 공사구간을 돌아다니고 수영이와 간호원은 치료실을 지키면서 찾아오는 환자도 봐주고 음료수를 끓여 현장에 내가군 했다. 수영은 날이 갈수록 현장치료대에 자원해나온것을 긍지롭게 여기고있었다. 옛날에는 공사판이라는데가 막사람들이 모여서 온갖 룰리적인것들을 무시하고 막되게 사는 무지막지한 생활무대라는 인식만 있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았다. 사람들은 땀을 아끼지 않았을뿐아니라 누가 더 많은 땀을 흘리는가 경쟁이라도 하는듯싶었다. 그렇게 열성적으로 일하다가도 설참이면 힘든 기색없이 어깨춤을 추며 노래를 부른다.

예상치 않았던 기쁜 일에 부닥치면 그 기쁨이 곱절 커지는 법이다. 악행의 범람속에서 선행의 쪼각이나마 찾아보려고 애쓰던 지난날에 비해볼 때 수영에게는 공사장의 풍경이 놀랍기만 했다. 그래서 처녀는 그 아름다운 풍경에 자그마한 꽃 한송이라도 보태는 심정으로 자기 맡은 일에 열성을 냈다.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친절하고 어떤 때는 하얀 위생복자락을 날리며 공사장을 돌아보고 하루에 두번씩 꼭꼭 물을 끓여 음료수를 보장하고... 며칠전에는 사창장마당에서 꽃무늬를 새긴 사기물고뿌를 열개나 사왔다. 누가 시킨것도 아니건만 그걸 사는데 한달분 생활비를 다 털어넣었다. 장사꾼녀인에게서 고뿌를 살 때에도 값을 깎지 않고 달라는대로 돈을 치르었다. 마치 물건을 흥정하면 공사장에 바치는 자기의 정성을 제스스로 흥정하는것 같아서 그럴수 없었던것이다. 노동자들이 그 깨끗한 고뿌로 음료수를 마시며 기뻐하는것을 보니 자기의 마음도 함께 즐거워졌다. 생활이 이렇게 즐겁고 무한히 자기를 헌신하고싶어본적이 언제 있었던가.

《수고하누만.》

《아이, 아저씨 오셨어요!》

수영은 손수건으로 눈굽을 짖어내며 오성재에게 인사를 했다. 오성재는 돌가마를 걸어놓은 곳에 쭈그리고앉았다.

《나무를 너무 많이 넣었구만.》

그는 불이 당기지 않은 장작을 몇가치 꺼내더니 나머지는 서로 엇갈리게 쌓아놓고 부채질을 해댔다. 연기만 피워올리던 불무지에서는 얼마 안있어 탁, 탁- 소리를 내며 불길이 솟구쳤다.

《고마워요, 아저씨!》

오성재는 장작을 두어가치 더 밀어놓고 일어섰다.

《물까지 끓여서 보장하느라 수고하는데 인사야 우리가 해야지. 우리같은 사람들이 언제 이런 대접을 받아봤나? 원래 여기는 물이 나쁜데 끓인물을 먹으니 인젠 배탈나는 사람이 없거던.》

《그렇거예요. 100도에서 5분만 물을 끓이면 세균뿐아니라 일부 비루스들도 죽는답니다. 물은 45분정도 끓이면 저항성이 센 간염비루스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미생물들이 다 죽거던요.》

제 기분에 잠긴 처녀는 오성재가 말을 못 알아들을수 있다는것은 생각지도 않고 어려운 학술용어까지 섞어가며 신바람이 나서 설명했다. 물을 끓이면 물속에 있던 효소, 박테리오파지, 항생소와 같은 생물학적인자들을 포함하여 물의 화학적처리에 의해서도 잘 없애지 못하는 발암성물질들을 효과적으로 없앨수 있다는것, 끓였다가 식혀서

오래된 물에서는 세균이 더 많이 번식할수 있기때문에 하루가 지난 물은 다시 끓여서 마셔야 한다는것...

오성재는 수영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서도 처녀의 명랑한 기분에 말려들어 입을 병글서하고있었다.

《아이참, 제가 괜한 소리를 하는군요.》

수영은 살짝 얼굴을 붉히며 가마우에 앉은 먼지를 닦아냈다.

《그런데 참, 어떻게 오셨어요? 어디 아프세요?》

오성재는 어줍게 웃었다. 정작 말을 꺼내자니 또 혀가 굳어졌다. 하지만 여기서까지 말을 못하면...

그는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한참이나 우물거리다가 정근식의 로력동원증을 천근처럼 무겁게 꺼내들었다.

《사실은 이것때문에...》

《그게 뭔데요?》

수영은 정근식이란 이름을 보고도 사연을 짐작하지 못했다.

《이게 왜 아저씨한테 있었어요?》

《사실은...》

오성재는 맥락이 닿지 않게 한마디씩 중얼거리는데 너무도 난해해서 상상력이 풍부하지 않고서는 도대체 알아들을수 없었다. 오성재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던것은 당연한것이였으니 생활을 아름답게만 보고있던 처녀에게는 이런 문제를 풀이할수 있는 방정식이 없었던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공사지휘부에서는 건달군이나 모리간상배들이 돈으로 로력을 사서 내보내는 현상에 대해 계급적안목을 가지고 문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고있었다. 공사선전요강에는 이 공사에 품 한자루 바치기 아까와하는 그런자들은 인민의 새세장에서 살 자격이 없는 력사의 반동으로 낙인하고있었다. 수영이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외삼촌이 그런 부류에 속한단 말인가? 아니야! 외삼촌은 그런분이 아니야!

처녀에게는 눈앞의 모든것이 갑자기 생기를 잃어버린듯싶었다. 외삼촌에 대한 원망과 자신에 대한 창피감 그리고 오성재아저씨에 대한 죄스러움이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수영은 진심으로 사과했다.

《안됐어요, 아저씨. 동원증은 저에게 맡기세요.》

오성재가 몇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떠난 뒤에도 수영은 멍하니 그 자리에 서있었다. 처녀의 심중을 대변해주려는듯 물가마는 뚜껑을 달랑거리며 끓고있었다. 병싯해진 뚜껑짚으로는 하얀 증기가 더 참아내지 못하겠다는듯 썩- 소리를 내며 세차게 뿜어나왔다. 하지만 수영은 자기의 답답한 마음을 그렇게 속씨원히 내뿜을데도 없었다.

(오늘 저녁에 가서 외삼촌에게 말하면 성내지 않을가? 어쨌든 할 말은 해야겠어. 그래야 외삼촌도 세상일에 랭담한 은둔자의 복면을 벗어버릴수 있어. 물이 끓으면 세균이 죽는것처럼 외삼촌도 이 공사의 도가니속에 잠겨보아야 해. 건국의 열풍을 맞으면 어제날에 뒤집어졌던 그 복면이 답답해서라도 제손으로 벗어던질거야.)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수영은 밥상을 물린 뒤에 조심히 옷방으로 건너갔다. 벽에 걸린 족자며 책상위의 골동품 그리고 십장생도 병풍을 비롯하여 옛스러운 기물들은 그

방에 들어서서 사람을 천년전의 아득한 과거로 끌어들이는듯싶었다. 이 방의 주인은 자기가 살아보지 못한 과거속에 현재의 자기를 은폐시키려는가? 과거만이 그에게 안정을 주기때문인가? 이 방에서 현실을 느끼게 해주는것을 부디 찾아본다면 창문턱우에 놓여있는 어항속의 금붕어들뿐이었다. 어항속에 갇혀있긴 하지만 어쨌든 살아움직이고있었다. 공작어들은 빛갈고운 꼬리를 하늘거리며 한가로이 헤엄쳐다니다가 사람이 다가오자 풀숲사이에 숨느라고 부산을 피우고있었다. 위풍스럽고 점잖은 신선어는 무서울게 뭐냐는듯 긴 수염을 한껏 뻗치며 거드름을 피우고 꼬리긴 금붕어는 톱 불거진 눈망울을 디룩거리면서 숨을 필요도 없고 위세를 부릴 필요도 없다는듯 안개같은 긴 꼬리를 흐느적이며 한자리에 꼼짝않고 떠있었다.

그리고보면 꼬리긴 금붕어가 방주인의 생활방식을 제일 많이 닮지 않았을까? 수영은 자기의 대비적고찰이 황당해서 쓰거운 웃음을 지었다.

《할 말이 있느냐?》

좀해서는 웃방에 올라오지 않는 조카딸의 거동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는지 정근식이 먼저 물었다.

《오늘 오성재아저씨를 만났됐어요.》

수영은 로력동원증을 내놓으며 외삼촌의 기색을 엿보았다. 정근식은 탁자우에 내려놓은것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외삼촌을 볼 면목이 없대요.》

《면목이 없기는 그 사람이나 나나 마찬가지다. 그 사람은 나한테 면목이 없다지만 나는 나라앞에, 장군님앞에 면목이 없게 됐구나. 내가 그 사람을 욕보이게 했지. 그러구 너한테두 면목이 없다.》

외삼촌은 예상외로 험한 태도를 보였다. 수영이로서는 기껏 준비했던 선전제강이 필요없게 된셈이었다. 그런데 장군님앞에 면목이 없다는건 무슨 소린가?

정근식은 의아해하는 조카딸에게 장군님께서 집에 다녀가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장군님께서 우리 집엘?... 이 모든걸 알고계신단 말이에요?》

수영의 놀라움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정근식은 서글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계신다. 나 정근식이 일생동안 일신의 도를 잃지 않으려고 애써왔다만 부끄럽게두 장군님께 건국의 횡방군으로 알려지게 되었구나.》

수영은 외삼촌의 탄식을 수긍하고싶지 않았다. 이제라도 공사에 참가하여 그 수치를 씻을 생각은 않고 인격타령만 하고있는것이 잘 납득되지 않았던것이다.

《그런데 왜 공사장에 안 나가세요?》

정근식은 조카딸의 마음을 꿰뚫어보려는듯 한참이나 수영을 바라보았다.

《내가 쉽게 결심하지 못하는것은 현실의 모든걸 정말로 믿어야 한다는 확신이 없기때문이다. 게 좀 얹아라.》

정근식은 진지한 태도로 탁자앞의 참대의자를 가리켰다. 지금까지는 세상일을 론할만한 대상으로 보지 않았던 조카딸이지만 그동안 공사장에 나가있었으니 자기의 의문을 풀어줄수도 있다고 생각되었기때문이었다.

수영이가 의자에 앉자 정근식은 성급하게 물었다.

《너는 현장치료대로 거기에 나가있었으니 느끼는바가 있겠는데 네 보기엔 어떻드냐?》

《뭐가요?》

《네 보기엔 공산당이 세우는 새 나라가 돈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귀히 여기는 그런 세상이 분명한것 같은가 말이다. 선사시대로부터 오늘까지 돈이 외면당해본적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없었다. 유다가 은화 서른냥에 예수를 팔았다는것만 봐도 돈이 어떤것인지 알만하지 않느냐. 그런데 장군님께서서는 오성재 그 사람의 인격을 모욕했다고 나를 꾸짖으시였다. 장군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돈보다 사람을 앞에 놓는 새세상이 분명하겠지만 정말로 그런 지상천국이 운수사나왔던 이 나라에 세워진다는게 쉽게는 믿어지지 않는구나.》

정근식은 수영에게 자기 고민을 숨기지 않았다. 지난 세월에 그는 너무도 많이 기만당해왔었다. 민족의 리상향에 대한 순결한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군 할 때마다 다시는 그럴듯 한 리론이나 시대풍조에 속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오늘에 이른 정근식이였다. 오는 바람, 가는 바람 다 따르며 인생의 돛폭을 올리기에는 먹은 나이도 많고 닳을 내린 포구도 그만하면 안정감이 있었다. 그런데 건국의 세찬 바람은 세월이 덮어준 허무의 락엽을 그의 가슴에서 날려버리고 희망의 돛폭을 펴려거리게 해주었다. 한번 더 믿어볼가? 이제 돛을 올리고 떠났다가 인생에 또다시 풍랑을 만난다면 영영 침몰하고말것이 아닌가... 바로 그런 리유로 해서 그는 현실을 선뜻 믿을수 없었고 공사장에 나가볼 결심을 하루하루 미루고있었다.

《내 질문이 너무 커서 한마디로 대답하기는 어려울게다.》

정근식은 수영의 대답을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투로 말했다. 그러나 수영은 할 말이 있었다.

《아니예요. 말할수 있어요.》

《응?》

수영은 공사장에서 일어나는 경이적인 일들에 대해 외삼촌에게 할 말이 많았다. 남자들만 아니라 여자들과 늙은이들도 공사장에 자원진출하여 땀을 흘리고있는데 대하여, 맹인들이 서로 손을 잡고 흠을 저나르는 눈물겨운 광경에 대하여, 앓는 남편을 대신하여 온 가족을 데리고나온 장별리의 녀인에 대하여 자기가 보고 들은것을 다 말하고싶었다.

그러나 그는 한가지만 말했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건설자들에게 음료수를 꼭 끓여서 공급하라고 말씀하시였답니다. 외삼촌, 이게 믿어지세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전 매일 두번씩 음료수를 끓이면서두 장군님께서 왜 그토록 노동자들을 아끼시는지 다는 리해하지 못하고있어요.》

정근식은 눈을 꼭 감고 가타부타 말이 없었다.

수영은 현장치료실에서 침식하고있었다. 누가 시킨것은 아니지만 야간작업을 하는 단위가 많아지면서 치료실을 비울수 없다고 생각했기때문이었다.

지휘부에서도 수영의 발기를 지지해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수영에게 한가지 마음쓰이는 일은 지휘부식당에서 김운상과 자주 마주치게 되는것이였다. 운상은 기술부사무실에서 침식하면서 수문설계에 정력을 쏟아붓고있었다. 그래서인지 수영을 만나도 건성으로 알은체를 하고는 얼른 지나치곤 했다. 하긴 그 사람한테 무시당한다 해도 할수 없었다. 그날 운상이가 모두의 규탄을 받을 때 자기한테서만이라도 믿음을 얻고싶어했지만 수영은 그렇지 못했었다. 후에 리주연부위원장을 찾아가 자기 심정을 토로하긴 했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라.

수영은 그가 다시 나타난것이 반가웠다. 그러나 그 반가움을 표현할 길은 없었다. 괴롭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 감정의 변덕으로 하여 수영은 운상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가질수 없었다. 어쨌든 이상한것은 그 사람때문에 마음쓰는 자신을 꾸짖으면서도 조용히 미소를 짓게 되는 그것이였다. 그때마다 수영은 어머니가 해주던 말이 생각나곤 했다.

수영이가 녀학교를 졸업하는 해 설날이였다. 그날 어머니는 수영에게 설빔을 새로 지어주었다. 연분홍빛 비단치마에 노란 양단저고리는 수영의 마음을 나비처럼 팔랑거리게 해주었다. 어머니가 설빔을 입혀주며 고름을 매여줄 때 설음식을 준비하던 그 손에서 풍기던 파, 마늘냄새 그리고 손이 터서 옷고름을 만질 때마다 비단을 뜯던 사르륵 소리를 수영은 오늘까지도 생생히 기억하고있었다.

수영은 어머니와 함께 광화문앞거리에 사는 외할머니네 집에 세배하러 갔었다. 밖에서는 함박눈이 소리없이 내리고있었다. 뽀드득뽀드득 슷눈이 밟히는 소리가 기분 좋게 들려왔다.

어머니는 자기와 키가 비슷해진 수영을 대견스레 바라보다가 불쑥 말했다.

《너도 이젠 처녀꼴이 다 잡혔구나. 소녀시절은 끝났어.》

수영은 까르르 웃고나서 물었다.

《엄마, 그건 어떻게 가르나?》

《소녀시절은 사랑을 받는 시절이란다. 그러나 처녀시절엔 사랑을 받기도 하지만 보다는 많이 주어야 한단다.》

어머니는 딸에게 인생의 법칙들을 조용조용 가르쳐주었다.

《너에게도 그런 때가 찾아올게다.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줄수 있겠니?》

《말하지 않구.》

수영은 서슴없이 대답하는데 엄마는 소리없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넌 아마 말하지 못할거야. 그건 꼭 숨겨두고싶어지는 그런거란다.》

《그건 왜? 엄마한테 말못할게 뭘 있다구?》

그런데 지금 어머니가 말하던 그런 일이 자기에게 생긴게 분명한데 그걸 말해달라던 어머니는 이 세상에 없다. 그럼 누구하고 이 일을 의논해본단 말인가?

수영은 이날 이때껏 마음속깊이에 봉인해두었던 그 감정을 누구에게든 헤쳐보이며 조언을 받고싶었다. 그런데 그럴만 한 사람이 없었다. 하기가 어머니를 대신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현장치료실의 조용한 방에 앉아 끝없는 상념에 잠겨있던 수영은 다급히 문두드리는 소리에 흠칫 놀랐다. 문을 열고 들어선것은 쌍태머리를 땀은 뺏모를 처녀였다.

처녀는 깍듯이 인사를 하고 용건을 말했다.

《선생님! 현장에 좀 가주시겠습니까?》

《환자가 생겼나요?》

《예. 우리 어머님께서 발을 상하시었는데 선생님께서 치료해주셔야겠습니다.》

그 처녀는 요청이 아니라 명령조로 말했다. 그런데도 그 표정이며 억양에서 풍겨오는 정중성때문이랄가 하여튼 수영은 두말없이 일어나 치료가방을 챙겨들었다.

(참, 별일이야. 환자쪽에서 의사에게 당당하게 소리치는것도 별일이고 의사가 군소리없이 환자를 찾아가는것도 별일이고... 예전같으면야...) 하고 수영은 생각하였다.

수영은 마당에서 음료수를 끓이는 간호원에게 치료실을 부탁하고 그 처녀와 함께 현장으로 향했다. 수영은 그 처녀와 나란히 걸으며 먼저 물었다.

《그 집에선 어머니까지 일하러 나온 모양이지요? 이자 동무가 말하는걸 보니 어머니를 몹시 존경하는것 같던데... 정말 부러워요.》

처녀는 수영을 바라보며 생글생글 웃었다.

《의사선생님두 김정숙녀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겠지요?》

《장군님 부인 말씀인가요?》

《예, 제가 말하는 어머니는 김정숙녀사이십니다.》

수영은 뚝 멎어섰다.

그리고 의문이 가득 실린 눈으로 그 처녀를 바라보았다.

처녀는 갑자기 말뚝이 되어버린 수영을 잡아끌면서 여전히 웃는 얼굴로 덧붙였다.

《전 장군님의 저택에서 함께 산답니다. 강일복이라구 해요. 김정숙녀사님은 저에게 친어머니같으신분이에요.》

그래도 수영은 뭐가 뭘지 석연치 않았다.

《그러니까... 김정숙녀사님께서 발을 상하셨다는거예요?》

강일복은 수영에게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산에서 싸우실 때 발에 입은 상처로 신고하시면서 얼마전부터 뜸치료를 받고계시었다. 오늘 작업장에서 갑자기 샘줄기가 터지는 바람에 작업이 중지되었을 때 어머님께서선 참으로 삼을 드시고 차디찬 물웅덩이에 뛰어드시었다. 그때에야 남자들도 저마다 삼을 찾아쥐고 샘줄기를 막아서 작업을 계속할수 있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선 감탕속에서 맨발로 일하신탓으로 상처가 더해지시었다는것이였다.

《어머님께서선 자꾸 일없다고 하시는데 곁에서 보기만 할수 없어서 제가 몰래 선생님한테 찾아온거예요.》

수영은 향간에서 돌아가는 백두산녀장군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번만이라도 꼭 만나뵙고싶었던 김정숙녀사를 이제 뵙게 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는 이미전부터 김정숙녀사께서 공사장에 매일같이 나오신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러나 그이를 직접 만나볼 기회는 좀처럼 차례지지 않았다. 세상에 빨찌산녀장수로 소문난 그분은 어떤 녀성이실가? 어쨌든 우리같은 보통녀자들하고는 전혀 다른분이실거야...

휴식시간이여서 건설자들은 일하던 자리에 삼자루며 맞들이채를 깔고앉아있었다. 한쪽에서는 오락회를 하느라 들썩거리고 저쯤 떨어진 곳에서는 어느 예술단이 위문공연무대를 펼쳐놓고있었다.

강일복이 제먼저 달려갔다.

《어머님께서 저기에 앉아계세요.》

그 처녀는 수수한 차림새로 맨땅에 허물없이 앉아 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훔치시는 녀인에게로 달려가 뭐라고 여쭙었다. 수영은 믿을수 없었다. 그분은 너무도 평범한 녀인이시였던것이다. 보통녀인들처럼 흰 저고리에 까만 치마를 입으시고 끈으로 허리춤을 동여매신 저분이 **김일성장군**님의 부인이시란 말인가?

그 순간 수영은 김정숙녀사께서 자기같은 보통녀인이라는것을 알게 된것이 굉장히 큰 발견으로 생각되면서 이루 말할수 없는 친근감에 휩싸였다.

어머님께서 이쪽을 돌아보실 때 수영은 그이의 안광에서 해빛처럼 찬란히 빛이 뿜어져나오는것을 본듯싶었다.

어쩌면 녀인의 눈빛이 그토록 광채로울수 있을까? 그러고보면 그분은 결코 보통녀인이 아니시였다.

수영은 어머님의 곁에 다가서며 정중히 인사를 올렸다.

자리에서 일어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밝은 웃음을 지으시며 수영의 손목을 다정히 잡아주시었다.

《의사선생님한테 수고를 끼쳐서 미안해요.》

어머님의 겸허하신 말씀에 수영은 몸둘바를 몰랐다.

어머님께서서는 인적기없는 풀밭으로 수영을 이끄시었다.

《우리 조용한데 가서 이야기나 하자요.》

수영은 그이께서 내색하시지 않아도 오른쪽발을 디디기 힘들어하신다는것을 알아보았다. 그는 풀밭에 치료가방을 내려놓고 어머님께 정중하면서도 강경하게 말씀드렸다.

《상처를 보여주십시오.》

어머님께서서는 어쩔수 없으신듯 수영의 요구를 고분고분 받아주시었다.

상처를 치료하는 동안 어머님께서서는 수영에게 나이는 몇이고 집은 어디인가, 부모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것 등을 차근차근 물으시었다. 수영은 친혈육의 다심한 정을 느끼며 물으시는대로 대답올렸다. 정녕 오래간만에 포근한 안정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였다.

처치를 끝낸 다음 수영은 의사의 권리로 어머님께 요구하였다.

《이제부터는 절대안정하시면서 매일 처치를 받으셔야겠습니다.》

어머님께서서는 수영을 자신의 곁에 앉히시었다.

《처치는 여기에 나와서도 받을수 있어요. 수영선생이 현장치료실에 있으니 내가 꼭꼭 찾아가겠어. 그러면 되지요?》

마치 무리한 요구를 내대는 철부지동생을 달래시듯 어머님께서는 진정으로 사정하시였다.

《지금 나한테 <절대안정>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아요. 장군님께서는 이 공사를 발기하시였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히 누워있겠어요? 난 그렇게 못살아요. 난 수영선생도 장군님의 새 조국건설로선을 받드는 길에 언제나 앞장서리라고 믿어요. 그러면 좋은 세상에서 꼭 행복해질거예요.》

어머님께서는 이 세상의 래일을 황홀하게 펼쳐보이시다가 문득 화제를 돌리시였다.

《참, 애인이 있어요?》

수영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전 아직...》

《그건 거짓말이에요. 아무렴 평양총각들이 눈이 멀었다고 이런 미인을 가만놔둘가?》

그때 수영의 머리속에 떠오른것은 운상의 모습이였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애인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도 그 설계가청년의 모습이 자꾸만 떠오르는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수영은 자기가 알고있는 인생살이의 빈약한 지식으로써는 이 복잡한 감정의 모순을 풀이해낼 자신이 없었다.

불현듯 처녀는 어머님께 자기의 마음을 헤쳐보이고싶었다. 그것은 친어머니에게만 할수 있는 말이였다.

《전 사실 생활에 자신을 못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사는것자체가 쓰겁고 무서웠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지금은 마음속에서 어떤 노래같은것이 울리군 한답니다. 생활이 즐겁고 희망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아이참...》

김정숙동지께서는 따뜻한 미소로 수영의 마음을 덥혀주시며 정답게 말씀하시였다.

《수영선생은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있지요? 그건 이상할게 없어요. 우리 세상에선 서로 화목하고 사랑으로 사는 방식이외에는 달리 살수 없을거예요. 장군님께서는 머지않아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포하신답니다. 녀자들의 권리, 녀자들의 존엄을 나라에서 법으로 지켜준단 말이에요.》

《남녀평등권법령?!》

수영은 가슴속에서부터 솟구치는 환희를 걷잡을수 없어 나직이 부르짖었다.

《그래요. 수영선생두 앞으로 가정을 이루고 어머니가 되면 녀자로 태어난 행복감을 더 크게 느낄거예요. 저기 아이들을 보세요.》

어머님께서는 어른들의 오락회를 구경하고있는 일여덟명의 아이들을 가리키시였다. 부모들을 따라오거나 주변마을에서 놀러 나온 베짖뱅이아이들이였다. 김정숙동지와 함께 공사장에 나오신 아드님께서도 그 애들속에 계시였다. 아이들을 정답게 바라보시는 어머님의 안광은 다함없는 행복감으로 밝게 빛나고있었다.

《우리도 저기에 가보자요.》

김정숙동지께서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서시였다. 수영이도 치료가방을 들고 어머님을 따라나섰다. 어머님께서는 휴식참에 오락회를 벌려놓은 건설자들의 흥을 깨뜨릴세라 그들의 등뒤에 조용히 다가서시였다.

방금 앞에 나선 사람은 고개를 젖히고 한손을 쳐들며 시를 읊었다. 보매 공부를 좀 한 사람같았다.

생의 향락은 꿈도 못 꾸고
 생을 저주하며 죽기를 바라던
 어제날의 인생들!
 민족의 생명과 명예를 칼질당하고
 빼앗길대로 빼앗겼던 불쌍한 백의동포들!
 어제날이 남겨준 유산이란
 혈벗은 가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제나름의 몸부림...

사람들은 지난날을 돌이켜보며 숨소리마저 죽이고 들었다.

행복의 태양은 솟아올랐다
 새 나라 새 조선의 건설자들아!
 동에서 달음치고 서에서 뛰쳐나오라
 건국의 급행차에 너도나도 올라타자
 참생이 움돋는 해방의 새 봄날에
 새 나라의 주인들아 만세를 부르자!

모두들 와- 하고 박수를 쳤다. 자기들의 심정을 시원하게 터쳐준 시인에게 박수를 보내느라 김정숙녀사께서 뒤에 서계시는줄은 꿈에도 몰랐다. 다행히도 그 시인이 다음사람을 지명하려고 두리번거리다가 김정숙동지를 알아보았다.

《아니, 김정숙녀사님께서?...》

사람들의 놀라움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저... 저분이? 분명 토성랑녀인인데 그럼?...》

혼자소리로 중얼거리던 그 사람은 암만해도 그럴수 없다는듯 입을 다물고 눈을 더 크게 떴다. 분명 자기가 잘못 보았다고 생각했던것이다. 모색이 실통하다 해도 대비할데 해야지 장군님의 부인을 토성랑녀인과 착각리다니...

그러나 그 사람은 잘못 보지 않았다. 건설장에 소문난 토성랑녀인은 다름아닌 김정숙동지이시였다. 어머님께서 서성리작업구간에서 일하실 때 현장속보원이 찾아온적이 있었다.

《아주머니의 이름이 뭐요? 속보에 내자구 그러오.》

《속보예요?》

《그렇수다. 내 늘쌍 불적마다 남정들만큼씩 흠을 담아가지고 다니길래 서성리작업대에 녀장수가 한사람 나타났다 생각했소. 이름과 주소를 대시우.》

곁에서 같이 일하던 경위중대가족들이 사실을 밝히려고 나서는걸 어머님께서는 슬쩍 눈짓하시며 시치미를 떼시였다.

《난 이름을 대고싶지 않은데요.》

《아주머니, 이걸 지휘부에서 내놓은 규정이란 말이요. 한사람을 통해서 열사람을 교양하자는건데 선전사업에 방해를 주자는거요?》

현장속보원이 어찌나 세도를 쓰는지 어머님께서는 무작정 시치미를 뚝수 없으시였다.

《저... 우리 집은...》

《차 이런, 겸손하다구야. 내가 알아맞춰보라우?》

《어떻게요?》

옆에 있던 강일복이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그야 간단하지. 여기는 서성리작업구간이고 아주머니 누구보다 열성이니 토성랑에 사는게 틀림없을거요. 내 추리가 어떻소?》

《예, 딱 맞아요!》

김정숙동지께서는 웃음을 함뱉 머금으시고 현장속보원의 추리를 긍정해주시였다.

현장속보원은 사기가 났다.

《그럼 속보제목두 <토성랑녀인>으로 합시다.》

이렇게 되여 어머님께서는 토성랑녀인으로 공사장에 소문이 나게 되시였다.

토성랑녀인, 어머님께서는 그렇게 불리우시는것을 최대의 표창으로 받아안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벌떡벌떡 일어서는 건설자들을 향해 고개를 숙여보이시였다.

《제가 여러분들의 즐거운 기분을 방해한게 아닙니까?》

책임자인듯 한 사람이 작업복자락을 여미며 어머님께 정중한 자세로 말씀올렸다.

《녀사님께서 저희들의 작업장을 찾아주신것만도 감격스럽습니다. 우리한테야 녀사님을 한자리에 모신것보다 더 즐거운 기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낮추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처럼 장군님의 건국로선을 받드는 건설자들중의 한사람일뿐입니다.》

어머님께서는 가까이 서있는 더벅머리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시며 아직 휴식시간이 남았는데 오락회를 계속하자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아이들의 노래를 들어보는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박수소리가 잦아들자 어머님께서는 아까부터 손을 잡고있던 더벅머리소년을 사람들앞으로 돌려세우시였다.

《네 이름이 뭐냐?》

《강영환.》

《영환아! 어서 노래를 불러봐라.》

그러나 더벅머리소년은 고개를 수그리고 기여들어가는 소리로 한마디 했다.

《난 노래를 몰라요.》

《아는 노래가 하나두 없니?》

《예.》

어머님께서는 아프신 마음으로 더벅머리소년을 바라보시였다. 그 애는 결코 사람들앞에 나서기 부끄러워 노래를 못 부른것이 아니였다. 지난 세월은 아이들에게 노래를 주지 못했던것이다. 그 애는 노래와는 너무도 인연이 멀었었다. 인연이 있는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난뿐이였다. 가난은 절대로 서정적일수 없는것이다. 가난은 그 애가 걸치고있는 다 해진 람루이고 참기 어려운 굶주림이며 두군데나 맨 자리가 있는

검정고무신이였다. 가난의 노래가 있다면 그것은 울분의 웨침뿐일것이다. 노래조차 모르는 이 아이들에겐 아직 앞날의 주인이 될만 한 아무런 자격도 없다. 아직은 이 애들이 나라의 기둥감으로 자라리라고 믿는 사람들도 많지 못하다.

하지만 장군님께서서는 아이들을 제일로 사랑하신다. 장군님의 그 사랑을 자양분으로 해서 아이들은 성장할것이며 반드시 새 조선의 미래를 책임질것이다. 어머님께서서는 영환이라는 더벅머리소년을 꼭 안아주시며 확신에 넘친 음성으로 그 애의 미래를 확인해주시였다.

《너희들이 오늘 노래를 못 불렀다고 해서 부끄러워할건 없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장군님께서 세워주신 인민정권의 품에서 공부도 하고 앞날의 주인으로 자라나게 될게다. 그때 가서 너희들은 오늘 못 부른 노래까지 다 합쳐서 새 나라를 노래하는 가수가 되여야 한다.》

말씀을 하고나시니 어머님께서서는 마음이 어느 정도 후련해지는것 같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아이들과 함께 서있는 아드님을 손짓해부르시여 소곤소곤 말씀하시였다.

《요전날 배운 노래를 부를수 있지요?》

《예!》

《그럼 어서 씩씩하게 불러봐요.》

어머님께서서는 아드님의 옷차림을 바로잡아주시고 앞으로 떠미시였다. 여기저기서 수군수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 애는 누구요?》

《글쎄...》

앞에 나선 어리신 장군님께서서는 사람들을 향하여 깍듯이 인사를 하시고 씩씩하게 노래를 부르시었다.

노래가 끝났어도 사람들은 넋을 잃은듯 박수칠 생각도 못하고있었다. 도대체 저 아이는 누구인가? 이제 겨우 네댓살밖에 안되었을 어린 아이가 어찌면 그렇게 영특할수 있을까?

어리신 장군님께서 인사까지 하시고 어머니의 곁으로 가신 뒤에야 사람들은 한순간에 깨달았다. **김일성** 장군님의 자제분이시다! 하는 생각들이 모든 사람들의 가슴속으로 줄달음쳐던것이다.

군중들은 순식간에 어머니와 어리신 아드님을 에워쌌다.

고령의 야장간늙은이가 사람들을 헤치고나왔다. 늙은이의 주름깊은 눈가에는 뿌연 눈물이 맺혀있었다.

《내 여태 지루한 인생을 살아온것이 바로 오늘을 보자는것이였소이다. 백성을 하늘처럼 여기시는 천사같은 국모님이 아니시고서야 어찌 토성랑녀인으로 변신하실수 있으며 해님의 정기를 타고나신 새별같은 장군이 아니시고야 어찌 이렇게 기특하실수 있겠소이까? 아! 참으로 이 땅에는 백성들이 소원하던 지상락원이 왔소이다!》

수영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심장속에 사진찍어두고있었다. 그것은 모두 아름답고 감동적인 새세상의 모습들이였다.

42

수리날 이른아침이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저택마당에 나서시여 크게 심호흡을 하시며 간단한 아침운동을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양복단추를 마저 채우시고 부엌문을 여시였다.

《정숙동무, 뭘하오?》

강일복과 함께 아침식사를 준비하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얼른 문계로 다가오시였다.

《왜 그러십니까?》

《밥이 다됐으면 우리 아침산보나 합시다.》

뜻밖의 말씀에 김정숙동지께서는 당황함과 기쁨이 한데 섞인 표정으로 굳어지시였다. 그것은 한순간이고 그이께서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시며 재빨리 행주치마를 벗으시였다. 머리모양새도 만져보시고 저고리고름도 살펴보시였다.

대체로 장군님께서서는 아침산보를 혼자서 하곤 하시였다. 그 산보길에서 펼쳐지는 위인의 사색은 심오하고 새롭고 위대한것이였다. 그걸 모르지 않기에 김정숙동지께서는 장군님의 아침산보를 따라나서고싶을 때마다 애써 그 욕망을 눌러오곤 하시였다.

백두산시절에도 그랬고 조국에 개선하신 후에도 두분이 아침산보를 함께 해본적은 몇번 되지 않았다.

그런데 수리날 이 아침에 장군님께서 산보를 같이하자고 하시니 김정숙동지께서는 즐거운 나들이를 떠나는것만치나 기쁘시였다.

《일복이, 국이 다 끓으면 불조절만 해줘요.》

《알겠습니다. 어서 가보십시오.》

쌍태머리 강일복이 생글생글 웃으며 김정숙동지의 등을 떠밀었다.

류달리 청명한 아침이었다. 산기슭에 띠옴띠옴 들어앉은 독립가옥들에서 곧추 솟구쳐오르던 밥짓는 연기도 깨끗한 아침공기를 흐려놓는게 미안스러운지 허공에서 자취를 감추곤 했다. 두분께서는 저택뒤 정원에서 해방산숲속으로 뻗은 오솔길에 나란히 들어서시었다.

숲은 이 행복한 순간을 위해 밤새껏 준비한듯 신비한 고요속에 두분을 맞이했다. 땅을 덮고있는 풀잎새는 말할것도 없고 잣나무의 뽕뽕뽕뽕한 바늘잎 하나하나에도 맑은 이슬이 반짝거려 숲은 한껏 청신하고 정갈해보였다. 깊이 들어갈수록 숲속의 정취는 더 짙어졌다.

《좋은 아침이요.》

장군님께서서는 숲의 향기를 한껏 호흡하시며 조용히 말씀하시었다. 아릅드리 소나무에 붙어있던 딱따구리가 왜 이 순간에조차 인사 한마디 못하느냐고 핀잔하는듯 병어리나무를 야무지게 쪼아댔다.

《딱따그르르-》

그 신호를 기다리고있었는지 산새들은 자기들의 보금자리를 찾아주신 두분에게 인사를 드리느라 일제히 청아한 목청들을 뽐아댔다. 숲속은 온통 새들의 노래소리로 가득찼다.

새들의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던 장군님께서 먼저 말씀을 건네시었다.

《어제 안길동무랑 리병설이랑 수군거리는 눈치를 보니 오늘 무슨 계획을 세운것 같은데 정숙동문 눈치챈게 없소?》

김정숙동지께서는 가볍게 웃으시였다.

《벌써 짐작하고계셨습니까. 사실은 오늘 모란봉에 놀러 가자고 동무들이 장군님 모르게 준비를 한것 같습니다. 안길동지는 저한테 장군님께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휴식하시겠다는 허락을 받아내라고 과업을 주었는데 전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정숙동지께서는 혹시나 하는 기대를 안으시고 장군님의 대답을 기다리시였다.

《허허… 그랬구만… 어쩐다? 난 오늘 보통강개수공사장에 나가 볼 생각인데…》

《공사장에 말입니까?》

《그렇소. 공사장에 나가서 또 한번 땀을 흘려보고싶소. 나한테야 그게 휴식이지.》

장군님께서는 말씀을 끊으시고 산보길우에 차단봉처럼 드리워있는 오동나무가지를 오른손으로 쳐들어주시며 김정숙동지를 지나보내시였다. 잎새들에 매달려있던 령롱한 이슬방울들이 두분의 어깨우에 떨어져내렸다. 장군님께서는 산보길을 나란히 걸으시며 모처럼 마련한 휴식의 한때를 즐길수 없는데 대해 랑해라도 구하시는데 절절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정숙동무에게 솔직히 말한다면 새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 산에서 왜놈들과 싸울 때보다 몇갑절 더 힘든것 같소. 할 일은 많은데 손에 쥘건 아무것도 없지. 게다가 정세는 점점 더 긴장해지고있소. 어제 밤에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리승만이가 전라북도 정읍에 가서 쏘미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가망이 없으니 남조선에서만이라도 단독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는거요. 참 가슴아픈 일이요. 국토분렬의 위험성이 커가고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북조선에서 제반 민주개혁들을 실현하고 그 성과를 공고히 해서 전조선적인 민주주의통일정부수립의 가능성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오. 그러니 나한테 휴식이란 말이 어울릴수 없지.》

정말이지 장군님께서서는 조국에 개선하신 날부터 오늘까지 어느 하루도 마음편히 쉬여본적이 없으시였다.

당을 창건하고 인민정권을 세우고 토지개혁을 실시하고 파괴된 산업을 복구하고… 농민들이 땅을 받았다고 기뻐하고 노동자들이 공장의 주인이 되었다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실 때에도 그이께서는 해놓은 일에 대한 만족감보다 앞으로 해야 할 일, 조선인민을 가장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시려는 책임감으로 밀려드는 피로를 막아내군 하시였다. 건국의 출발선에서 혹시 로선상의 자그마한 잘못으로 인민들의 리익이 침해당할가봐, 그래서 인민들의 기쁨이 실망으로 변하고 새 조선의 새 력사가 순간이라도 멈추어설가봐, 인민이 주인된 나라로 정해진 민주건설의 방향각이 약간이라도 편차날가봐 그이께서는 발편잠에 들지 못하시였고 온갖 심혈을 깡그리 바쳐오시였다. 그럴수밖에 없는것이 력사는 시험해볼수 없다. 한번 흘러가버리면 다시는 돌려세울수 없는것이다. 때문에 한 나라의 령도자로서 력사의 요구, 인민의 요구에 자신을 따라세우자면 단 한순간도 휴식이 차례지지 않는것은 당연한것이라고 그이께서는 자신을 달래군 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장군님의 마음속 고충을 읽으시며 눈굽이 후터워지시였다.

《장군님께서서는 그동안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해놓으셨습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은데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장군님께서서는 고맙다는 말씀대신 김정숙동지의 손을 꼭 잡아주시었다. 밋밋하게 뻗어가던 오솔길은 점점 경사가 심해졌다. 이쯤하면 산보길이 아니라 등산길이라고 해야 할 것이었다. 그래도 장군님께서서는 그냥 비탈길을 오르시었다.

《힘들지 않소?》

《아닙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장군님께서 돌아가자고 하실가봐 겁이 나신듯 발걸음을 가볍게 옮기시었다. 실지로 장군님과 함께 령마루를 오르는 지금 그이의 심신은 구름처럼 뚱뚱 뜨는것 같으시었다.

드디어 령마루에 올라서시었다. 령마루에서는 멀리 서평양일대와 그아래로 보통강을 따라내려오면서 평천리주변까지 한눈에 바라보였다. 무연하게 펼쳐진 보통강일대에는 진펄이 태반이고 농경지와 공장지구들은 여기저기에 떠엄떠엄 물려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서성교아래 토성랑마을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시고 혼자소리로 말씀하시었다.

《토성랑마을에는 연기가 오르는 집도 많지 못하구만.》

장군님께서서는 양복주머니에서 습관처럼 담배를 꺼내드시었다. 아침공기에 누기가 찻는지 세번째만에야 성냥가치에 불이 달렸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곁에서 장군님을 지켜보시다가 문득 땅바닥에 시선을 떨구시었다.

장군님께서 서계시는 주변은 이미전부터 무수한 발자욱에 다져져있었다. 그리고보면 장군님께서 토성랑이 바라보이는 이곳에 자주 와보신것이 분명했다. 아침산보길에 여기까지 오시여 토성랑인민들에게 마음속으로 아침인사를 보내시고는 혼자서 속을 태우시였을 장군님!... 세월이 흐르면 장군님의 발자취는 가을락엽에 묻혀버리고말것이다. 이 길이 그렇게 쉽게 묻혀버려도 되는 길이란 말인가?

《정숙동문 무슨 생각을 하고있소?》

김정숙동지께서는 눈물이 핑 도는것을 어쩔수 없으시였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신채 말씀드렸다.

《장군님께서 아침산보길을 왜 여기로 정하시였는지, 여기에 몇번이나 오시였댔는지 그리고 이 사실을 누가 알겠는지 생각해보던중입니다.》

《허허... 그게 뭐 그리 중요하겠소?》

순간 김정숙동지께서는 장군님께서 무엇을 심려하고계시는지 력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싶으시였다. 왜냐면 바로 그것이 당대 사회의 본질을 규정해주기때문이였다.

장군님께서는 따뜻한 눈길로 김정숙동지를 바라보시다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주시였다.

《눈물을 닦소, 동무두 참...》

또다시 토성랑쪽으로 돌아서시며 장군님께서 의논조로 말씀하시였다.

《중요한건 토성랑인민들이 하루빨리 홍수의 위협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거요. 정숙동무 생각엔 올해에 큰 장마가 질것 같지 않소?》

《전 평양지방의 날씨를 잘 모르긴 하겠지만 요즘 가물이 계속되고 날이 물쿠는걸 보면 큰비가 올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보리장마가 일찍 닥쳐올것 같소. 리주연동무의 보고에 의하면 1단계공사가 빠듯하다는데...》

장군님의 생각은 자연히 공사장으로 이어졌다. 사실 공사를 시작하여 스무날남짓한 기간 그이의 마음속에서는 공사장이 떠나본적이 없으시였다. 하루공사계획이 미달되고 반동들의 책동이 심해지고 수문설계에 문제가 생기고... 그때마다 그이께서는 누구에게 선뜻 터놓을수 없는 고충으로 속을 태우곤 하시였다. 과연 이 공사를 자체의 힘으로 장마철전에 끝낼수 있겠는가? 장마가 눈앞에 닥쳐온 현상황에서 장군님께서는 보통강개수공사장에 민주건설의 첫삽을 박으신 자신의 결심이 옳았다는것을 다시한번 확인하고싶으시였다. 그만큼 사태는 심각했다. 만약 1단계공사에서 계획된 새 통수로로 제기일내에 돌려놓지 못하고 보리장마를 겪게 되면 아직 완공하지 못한 남교제방은 순식간에 허물어질것이고 토성량을 비롯하여 서평양일대는 또다시 큰물피해를 입게 될것이다. 그러면... 그 후과는 생각해보고싶지도 않으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심중한 표정으로 김정숙동지에게 물으시였다.

《정숙동무, 솔직히 말해보오. 우리가 이 공사를 장마철전에 끝낼수 있을까?》

《...》

《여긴 우리 두사람뿐이요. 난 동무의 진심을 듣고싶소.》

그이께서는 이제 김정숙동지로부터 시원스런 대답을 듣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을것만 같으시였다. 만약 인민의 힘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이께서는 애당초 공사를 시작할 엄두를 내지 못하시었을것이다. 그런데 이 공사를 제기일내에 끝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인민의 힘을 믿고 새 나라를 세우시려는 자신의 건국방식에 대한 부정으로 되지 않겠는가.

김정숙동지께서는 이 시각 장군님앞에서 이 나라 천만인민을 대신하여 얼마나 책임적인 대답을 해야 하는가를 온몸으로 느끼시였다. 그이께서는 그동안의 공사진행과정에 혁명을 위해 인민이 필요한것이 아니라 인민을 위해 혁명이 필요하다는 장군님고유의 혁명원리를 다시한번 새롭게 체험하시였다.

력사를 거슬러보면 자기의 정치리념을 실현하고 정치적지반을 다지기 위해 인민의 힘을 필요로 했던 정치가들이 한둘이였던가. 그러나 우리 장군님의 혁명은 하나에서 열까지 다 인민자신을 위한것이였다. 때문에 인민의 령도자로서의 장군님의 조국애, 인간애가 집중적으로 구현되여있는 이 공사는 그이께서 착공의 첫삽을 뜨시던 력사의 그 순간에 벌써 그 결과가 명백해질수밖에 없는것이였다. 보통강개수공사뿐인가? 인민의 힘으로 인민의 세상을 세우시려는 그이의 건국방식에 따라 전국의 방방곡곡에서 미증유의 기적들이 창조되고있지 않는가. 김정숙동지께서는 정중한 자세로 장군님께 말씀올리였다.

《장군님, 저는 이 공사가 장군님의 뜻대로 완공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을수 있는 담보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거요?》

《전 매일 <정로>에 실리는 보통강개수공사소식을 읽으면서 건설자들의 건국열의에 감동되곤 합니다. 이것은 인민들이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같이 떨쳐나섰다는게

아니겠습니까. 인민들은 장군님께서 자기들을 믿고계신다는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전국적으로 보통강개수공사를 지원하고있지 않습니까. 평안남북도는 물론이고 멀리 함경도에서까지 많은 지원금을 보내왔다는데 이걸 우리 인민들이 이 공사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기들의 애국심을 바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힘이면 장마철전에 얼마든지 공사를 끝낼수 있습니다. 장군님곁에 진실한 동지들이 있고 인민들이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장군님께서서는 가장 가까운 동지로부터 진심어린 대답을 들으니 마음도 가벼워지고 안색도 밝아지시였다. 그이께서는 볼우물이 패이는 례의 인상적인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시였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고맙소. 내 여기로 아침산보를 오던중 오늘은 정말 기분이 좋구만. 동무도 알겠지만 난 해방된 오늘까지 인민들이 큰물피해로 고생하는것을 차마 볼수 없어서 이 공사를 결심했소. 우리는 어떻게 하나 장마철전에 공사를 끝내서 사람들에게 새 조국건설을 제힘으로 할수 있다는 신심도 안겨주고 조선사람의 힘을 믿지 못하는자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어야 하오... 세상은 이 **김일성**이 축지법을 쓴다 어쩐다 떠들썩하지만 동무도 알다싶이 나한테야 한가지 수밖에 더 있소? 그것은 인민을 믿고 인민에게 의거하면 천하를 얻는다는것이요. 우리는 언제나 이 절대불변의 진리에 충실하여 인민을 하늘처럼 받들어야 하오.》

그 순간 김정숙동지께서는 지구의 무게와도 맞먹는 거대한것이 흉벽을 쿵- 하고 치는듯 한 느낌을 받으시였다.

저기 대동강너머에서 불덩어리같은 아침해가 솟아올랐다. 천만가락으로 부서지는 아침해살이 저아래 토성랑마을까지 따사롭게 비쳐들었다.

《이젠 그만 내려갑시다.》

두분께서는 올라오실 때처럼 나란히 산을 내리시였다.

43

푸른 하늘에는 흰구름송이들이 태평스레 떠있고 땅우에는 흰웃입은 사람들이 창광산으로, 모란봉으로 흰구름처럼 밀려가고있었다.

가루개를 넘어가는 승용차는 길을 메우는 사람들때문에 속도를 놓지 못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경적도 울리지 못하게 하시였다. 오늘은 운전사도 부관도 어딘가 씩씩등한 표정이였다. 해방된 조국에서 처음 맞게 되는 수리날이여서 장군님과 김정숙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하루만이라도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려고 어제부터 그 준비사업을 슬슬 해놓았했는데 장군님께서는 오늘 아침 보통강개수공사장에 나가보시겠다고 말씀하시였던것이다. 그이께서는 공사장에 나가 일하실 작정으로 동화를 신고나서시였다. 리병설은 장군님의 차림새를 보며 수리놀이준비를 해놓았으니 오늘 하루만이라도 피로를 푸시라고 말씀드릴수조차 없었다.

지금 승용차 뒤좌석에 앉으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운전사나 리병설의 속상한 마음은 짐작도 못하신틀 모란봉으로 밀려가는 사람들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고계시였다.

아직은 살림들이 넉넉치 않겠지만 그래도 명절음식들을 있는껏 꾸려가지고 활개짓하며 오가는 인민들을 보시는것이 그이에게는 행복이였고 휴식이였다. 이런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라면 평생 단 하루의 휴식도 없이 일해도 여한이 없을것 같으시였다.

승용차가 공사장가까이 당도했을 때 그이의 기쁨은 또 다른 광경으로 하여 곱절이나 커지시였다. 온 공사장에 건설자들이 하얗게 덮여있었던것이다. 한여름의 폭양아래 살갗을 구리빛으로 태우며 영차! 영차! 목고를 메고 달리는 사람들을 보시느라니 가슴이 뻘뻘해지시였다. 인민이라는 신성한 존재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이랄가, 믿음이랄가... 하여튼 그 순간 **김일성**동지께서는 새 나라, 새 인간들의 새 모습을 보시며 감동이상의 걱정을 금할수 없으시였다.

《운전사동무, 어때? 오늘 여기에 나오지 않았으면 이런 기쁨을 어떻게 맛보겠소. 보라구, 우리 인민들이 얼마나 장한가!》

그이께서는 아까부터 운전사나 부관의 안타까와하는 마음을 다 헤아려보시였던것이다. 운전사는 열적게 웃었다.

《장군님! 전 오늘같은 날은 공사장이 텅 비여있을줄 알았습니다.》

아침부터 공사장에 나와있던 리주연을 비롯한 지휘부일군들이 장군님한테로 달려왔다. 시인 리찬도 질통을 벗어던지고 양복저고리를 팔에 꿰며 황황히 달려와 장군님께 정중히 인사를 올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사지휘부일군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시다가 리찬을 알아보시였다.

《리찬선생이 <애국제방가>와 같은 노래를 창작하는 비결을 알만합니다. 그렇게 질통을 지고 건설자들과 같이 일하느라면 그들의 숨결을 진실하게 느낄수 있지요.》

《이건 김정숙녀사께서 저에게 가르쳐주신 창작방법입니다. 예전에는 멀찍이 서서 눈으로 보기만 하고 글을 썼지만 이렇게 직접 땀을 흘려보니 인민들의 애국열기를 더 잘 느낄수 있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나도 오늘같은 날까지 애국의 땀을 바쳐가는 인민들에 대한 송가를 짓고싶은 심정입니다.》

장군님의 말씀을 들으며 리찬은 설레이는 걱정을 누를수 없었다. 인민은 아직도 조국을 찾아주시고 인민의 나라를 일떠세우시려 헌신분투하시는 절세의 애국자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송가 한편 변변히 지어드리지 못하고있는데 장군님께서서는 오히려 인민에 대한 송가를 짓고싶다고 하신다. 오랜 세월 인민의 목에 메여있던 식민지노예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인민의 정권을 세워주시고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농민들의 숙원을 풀어주신것이 과연 장군님께서 인민에게 바치신 송가가 아니란 말인가? 평양을 수해로부터 보위하고 토성랑인민들의 재난을 막아주시려고 나라사정이 그토록 어려운 때 이 거대한 공사를 펼쳐놓은것이 장군님께서 인민에게 바치시는 송가가 아니란 말인가. 송가라면 이보다 더 위대하고 뜨겁고 진정한 노래가 무엇이란 말인가...

김일성동지께서 나오셨다는 소식이 퍼지자 공사장은 《만세!》의 함성으로 끓어번졌다.

리주연은 도인민위원회 일군들도 전부 공사장에 나왔다고 자랑스레 말씀드리고나서 덧붙였다.

《공사지휘부에서도 오늘은 휴식을 예견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자원적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오늘은 작업구간이나 책임량을 제정해준것도 없는데 그저 맞다들리는데서 땀을 흘리는 판입니다. 그야말로 진짜애국로동입니다.》

《정말 그렇소!》

김일성동지께서 걸음을 멈추신 곳은 선교4리 건국로력대가 일하는 곳이었다. 건로대원들은 일하던 차림 그대로 장군님을 에워쌌다. 그들속에는 임성민도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선교4리위원장의 인사를 받으시며 다정히 물으시였다.

《오늘은 수리날인데 왜 쉬지 않고 나왔습니까?》

리위원장은 허리를 쭉 펴며 대답올렸다.

《장군님! 건국이 바쁜 때에 수리날이라 해서 꼭 놀아야 한다는 법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 동무들은 당장 장마가 닥치겠는데 이 제방에 흙 한삽이라도 더 쌓아서 하루빨리 공사를 완공하는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리위원장의 흠땀은 손을 굳게 잡아주시며 그의 대답을 긍정해주시였다.

《동무들의 생각이 옳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의 하루가 장래의 백날과 맞먹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한걸음 걸을 때에 열걸음, 백걸음씩 내달려 하루빨리 살기 좋은 락원을 일떠세워야 합니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둘러선 로동자들에게 생활형편을 물으시였다.

《생활이 어렵겠는데 점심밥이랑 제대로 싸가지고 나왔습니까?》

누구도 선뜻 대답을 못했다. 자기들의 점심밥까지 걱정해주시는 장군님앞에서 모두 목이 짹 메였던것이다.

리위원장이 얼른 한발 나섰다.

《장군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린... 우린 일없습니다.》

그러나 김일성동지의 안색은 밝아지지 않으시였다. 자식에게 줄것이 있을 때 어머니는 기쁜 법이다. 자식에게 줄것이 없을 때 어머니는 괴로운 법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지금 그 괴로움을 느끼고계시였다.

요즘이 보리고개여서 절량세대들이 생겨나고있다는것을 그이께서는 알고계시였다. 그래서 이미전에 식량을 해결해오도록 해외에까지 일군들을 파견하시였는데 그쪽에서 떠나보낸 식량이 며칠안에 도착하게 되어있었다.

《조금만 더 견딤시다. 오늘은 비록 어렵지만 앞으로는 모두가 잘살 날이 꼭 옵니다.》

그이께서는 로동자들에게 고무적인 말씀을 해주시며 주변에 멎어있는 토운차를 바라보시였다. 강북관에서 제방까지 레루를 놓고 광차바퀴우에 큼직한 케썸처럼 나무로 짠 통을 올려놓았는데 한립방은 잘 담을것 같았다.

《여기서는 소기계화가 실현되였구만. 저 밀차는 자체로 만든것입니까?》

《예. 우리 선교4리대대는 곡산공장과 조선화학공장로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리위원장은 제 자랑을 하는것 같아 말끝을 얼버무렸다.

《역시 로동계급은 모든데서 앞장이로구만.》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사장에 기계화를 적극 도입할데 대해 말씀하시면서 공사장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둔덕진 곳에 오르시였다. 높은데서 내려다보니 공사장은 온통 구덩이천지였다. 저마끔 자기 말은 구간의 토량을 처리하다보니 구덩이와 구덩이사이에 경계뚝이 생기고 그러다보니 공사가 시작되여 보름가까이 되여오지만 새 통수로의 형태도 잡지 못하고있었다. 당장 보리장마가 시작되겠는데 하루빨리 새 통수로를 짜서 봉수산기슭으로 꺾어돌린 물길에 연결시키지 못한다면 올해에도 홍수피해를 입을수 있었다.

어쩐지 그이께서는 저 구덩이를 가로막고있는 경계선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의 증거물처럼 생각되시였다. 구덩이와 구덩이를 가로막은 하나의 경계뚝이 허물어지면 보다 큰 구덩이가 될것이고 그렇게 서로서로 가로막은 경계뚝들을 다 없애버리면 새 통수로가 형성될것이 아닌가.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도 그렇게 하나로 합쳐지면 인민정권이라는 새 통수로를 따라 부강한 독립국가건설이라는 대하로 용용히 흘러갈것이다. 그런데 지금처럼 일하면 언제 통수로가 열리겠는가.

시공방법에 문제가 있다던 리주연의 우려가 공연한것이 아니였다.

장군님께서서는 뒤편에 서있는 김운상을 손짓해부르시였다.

《김운상동무, 여기로 나오시오.》

운상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머리를 들지 못하고 장군님가까이로 다가섰다.

하숙집에 찾아왔던 리주연과 함께 공사장에 다시 온 날부터 밤잠을 잇고사는 김운상이였다.

그동안 흘린 땀이면 본의아니게 생겼던 인생의 얼룩이 지워지고도 남았으련만 그는 어느 하루도 수문설계때문에 발편잠을 자지 못했다.

《장군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그만 설계를...》

《됐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김운상에게 수문설계와 관련된 일은 내색하지 않으시고 새 통수로를 가리키시었다.

《저 제방의 길이가 얼마요?》

《1 800m입니다.》

《강폭은?》

《50m입니다.》

《깊이는 7m지요?》

《예.》

그이께서는 둘러선 일군들에게 생각하신바를 터놓으시었다.

《지금은 강바닥굴착과 제방쌓는 작업을 전면적으로 벌려놓고있는데 그렇게 하면 장마철전에 통수로를 낼수 없습니다. 내 생각엔 통수로를 빨리 내기 위해서는 제방과 제방사이 강중심에서 좌우 5m씩 10m너비로 파서 그 흙으로 먼저 량쪽제방을 쌓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무릎을 꿇고앉으시여 땅우에 그림을 그려가시며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었다.

먼저 새 통수로를 전구간에 10m폭과 7m깊이로 배수로를 열어놓은 다음 점차 강폭도 넓히고 제방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도 나고 도중에 장마가 지더라도 이미 파놓은 배수로가 있어 웬만한 보리장마는 견딜수 있을것이다. 그렇게 되면 저 보기 흉한 구덩이들도 자연히 없어질것이다.

《어떻습니까?》

일꾼들은 얼굴을 붉히며 대답을 못했다. 듣고보니 단순하고 명백한데 자기들은 공사를 전반적으로 밀고나갈 생각에만 빠져있었던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꾼들이 납득되었다면 마음놓인다고 하시면서 김운상에게 수문설계에 대해 물으시였다.

《운상동무가 수문설계를 처음 하다보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것 같은데 어쨌든 본래의 강줄기를 살리는 방향에서 수문을 설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머지않은 앞날에 구보통강을 운하로 만들어 보통강일대를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잘 꾸리자고 합니다.》

장군님께서는 나무꼬챙이로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시며 수문설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설명하시였다.

《나도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것은 수문의 바닥높이를 잘 정하는것이라고 봅니다. 그러자면 보통강의 한해평균 강수량을 계산해서 강물이 일년내내 구보통강으로도 흐르고 개수보통강으로도 흐르게 해야 합니다. 만약 장마철에 물이 범람하면 구보통강의 물량은 수문으로 조절할수 있지 않습니까?》

얼핏 들어봐도 쉽게 납득되는 말씀이였다. 이 단순한 리치를 나는 왜 처음부터 어렵게만 생각했겠을까. 운상은 기술자로서의 부끄러움보다 자책감으로 하여 얼굴을

들수 없었다. 장군님께서 보통강을 두고 얼마나 마음쓰시었으면, 평양을 얼마나 사랑하시었으면...

《장군님, 저는 건축가는 고사하고 평양에서 살 자격조차 없는 놈입니다.》

장군님께서는 운상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었다.

《됐습니다. 우리 손잡고 평양을 민주조선의 수도로 잘 꾸려봅시다. 앞으로도 일감이 생기면 난 운상동무부터 찾겠습니다.》

김일성 장군님께서는 공사장을 한바퀴 돌아보시고 다시 선교4리작업장으로 오시여 웃저고리를 벗으시었다.

《이젠 일이나 합시다. 난 지금 막 일을 하고싶어서 못 견디겠습니다.》

그이께서는 장혁수가 올리는 삽을 받아드시고 경계쪽에 삽날을 박으시었다.

《리위원장동무, 로동계급은 이런 일에서도 앞장서야 합니다. 경계뚝을 없애면 마음들도 넓어질겁니다.》

그러시고는 착공식날처럼 면내의가 화락해지도록 땀을 흘리시었다. 너도나도 장군님께서 도와주시는 흙을 나르겠다고 줄을 서는판이여서 일군들은 로동자들을 눈짓으로 쫓아버리려고 했지만 누구도 그런 영광을 마다하려 하지 않았다.

어느새 선교4리와 선교3리의 경계뚝은 다 없어지고 선교3리와 선교2리의 뚝이 허물어지고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경계뚝에 삽날을 박으려 하지 않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창피한 꼴을 감추려는듯 겉싸게 뚝을 허물어내렸다. 한때는 민주당이다 신민당이다 다투던 사람들도

아무데나 질통을 돌려대고 흙을 담았다. 너도나도 경계뚝을 허물어내리니 벌집처럼 구멍만 숭숭하던 작업장은 어느덧 통수로 형태가 잡히기 시작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잠시 허리를 펴시고 시원스레 넓어지는 작업장을 만족한 시선으로 바라보시었다.

(얼마나 좋은가.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마음과 마음을 합쳐 하나로 뭉칠 때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은 더한층 강화될것이고 자주독립국가의 토대도 튼튼해질것이다.)

장군님께서는 설참에 노동자들과 마주 앉으시여 모두다 힘을 합쳐 공사를 하루빨리 끝낼데 대해 다시 강조하시었다.

《우리는 맨주먹으로 빈터우에서 새 민주조선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식량사정도 어렵고 공장도 제대로 돌아가지 못해서 밥 한가락 변변히 만들어내지 못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조선건설의 중심지인 평양을 제힘으로 꾸려나가야 합니다.

이 공사가 완공되면 평양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홍수피해로부터 보호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마음놓고 민주주의국가건설과 생산활동에 참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같은 날에도 쉬지 않고 공사장에 나왔는데 그 마음이면 장마철전에 능히 공사를 끝낼수 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우리 조국이 외세에 의하여 둘로 갈라지게 된 엄중한 정세에 대해 지적하시고 북조선에서 제반 민주개혁들을 실시하고 자체의 힘으로 건국위업들을 실현해나간다면 조선의 자주적통일정부수립을 앞당기는것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1단계공사기간이 열흘정도 남았으니 그때까지 배수로파기에 역량을 집중하여 돌격전을 벌려야 하며 공산당원들이 돌격운동의 앞장에 설데 대해 가르치시였다.

작업은 다시 시작되었고 장군님을 모시고 일하는 건설자들의 기세는 산이라도 떠옮길듯 충천하였다. 지금까지 강연회랑을 통해서 이 공사가 단순한 토목로동이 아니라는것을 알고있었지만 장군님말씀을 직접 듣고나니 자기들이 하는 일이 거창하고 중요한 건국사업이라는것을 더 잘 깨달았던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점심때가 되어서야 아쉬운 마음으로 일손을 놓으시였다. 옷저고리를 입으신 장군님께서는 점심시간을 리용하여 가까이에 있는 가설막들을 돌아보라고 하시였다. 가설막들이 있는 곳으로 향하시던 그이께서는 음료수통을 들고 현장으로 나오는 위생복차림의 처녀들과 맞다들리시였다.

《오, 현장치료대 의사선생들인게로구만.》

《그렇습니다. 휴식시간과 점심시간마다 끓인물을 내오군 합니다.》

리주연이 자랑을 담아 보고드렸다. 공사 총책임자인 그로서는 마음씨 착한 현장치료대처녀들을 장군님앞에 내세우고싶었던것이다.

너무도 뜻밖에 김일성장군님을 뵈게 된 수영이와 간호원처녀는 하마트면 음료수통을 떨굴번 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처녀들의 인사를 받으시며 그들에게 다가가시였다.

《어느 병원에서 나왔습니까?》

《제1인민병원입니다.》

수영이가 대답올렸다.

《그 병원에도 의사손이 모자랄텐데 공사장에 나와서 치료도 할래 음료수도 끓일래 정말 수고합니다. 건설자들을 위해주는 선생에게 진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수영은 그만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몰라 허둥거렸다. 장군님께서 오히려 자기에게 인사를 하시다니 이런 법도 있는가.

김일성동지께서는 어쩔바를 몰라하는 처녀의사를 기특하게 여기시며 소탈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나도 물 한고뿌 주겠소?》

아닌게아니라 땀을 많이 흘려서인지 갈증이 나시였다. 수영은 그제야 제 할바를 찾은듯 얼른 물고뿌를 잡았다. 그러다가 다시 멈칫했다. 어찌나... 새 고뿌가 아니여서... 술한 건설자들의 손이 닿았던 물고뿌로 어떻게 감히 김일성장군님께 물을 떠올린단 말인가. 치료실에도 새 고뿌는 없었다. 이럴줄 알았으면... 하긴 아무리 상상력이 있다 한들 이런 일이 있을줄 어찌 알겠는가.

장군님께서서는 머뭇거리는 처녀의 안타까운 심정을 헤아려보시였다.

《일없소, 어서 주오.》

수영은 할수없이 허리를 굽혀 물을 뜬 다음 빠드득소리를 내면서 고뿌를 닦았다. 그리고는 물을 조심히 버리고 새 물을 떠서 또 닦았다.

두번, 세번...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불결한것이 묻어있을것 같아 마음이 조여졌다.

《허, 그러다 물을 다 버리겠소. 내가 괜한 소리를 했는가?》

수영은 장군님의 재촉을 받고서야 얼른 밀굽을 훑치고 정중히 물을 떠드렸다.

장군님께서서는 물고뿌를 단번에 쭉 기울이시였다. 소금을 몇알 넣었는지 알릴듯말듯 짭짤한 맛이 돌았다. 장군님께서서는 하얀 사기물고뿌며 짭짤한 물맛에서도 건설자들에게 고이는 처녀의사의 정성을 읽으시며 빈고뿌를 내미시였다.

《물맛이 괜찮소. 땀을 많이 흘리는 건설자들에게엔 맹물보다 이렇게 소금을 넣는게 좋지. 앞으로는 끓인물을 식혀서 시원한 오이랭국이나 보리차를 만들어주도록 해보오. 보리차를 마시면 배탈도 안나고 근기가 있어서 건설자들이 좋아할거요.》

수영은 자기 귀를 의심하였다. 차라니?... 건설자들에게 차를 대접한단 말씀인가? 그때까지만 하여도 차문화는 상류가정들에서나 볼수 있는것이고 일반사람들에게는 낮이 설었다. 그런데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장군님께서서는 리주연에게 보리를 보내주겠다고 하시며 그걸 가루내여 차를 만드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수영이네와 헤어지신 후 **김일성**동지께서 맨먼저 들리신 곳은 평양곡산공장로동자들의 가설막이였다.

강변에 립시로 지은 가설막에는 맨땅에 판자를 깔고 그우에 가마니 짝을 펴놓았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안색을 흐리시였다.

《다른 가설막들도 온돌을 놓지 않았습니까? 내가 전번에 로동자들의 숙소에 온돌을 놓아주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왜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엄하게 질책하시였다.

《이런 맨땅에서 자면 밤에 습기가 올라오고 또 비가 오거나 흐린 날이면 감기에 걸릴수 있다는걸 타산해야 할게 아닙니까? 우리야 인민정권기관의 일군들인데 건설자들의 생활에 무관심해서야 되겠습니까?》

그이의 비판을 받고서야 일군들은 가설막의 온돌문제가 왜 장군님을 노엽혔는지, 그것이 얼마나 엄중한 잘못인지를 깨달았다.

《모든 가설막들에 온돌을 놓은 정형을 주연동무가 나에게 직접 보고해야겠습니다.》

점심때가 퍼그나 지나서야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사장을 떠나시였다. 떠나시기 전에 그이께서는 장혁수를 따로 부르시였다.

장혁수는 장군님으로부터 엄한 추궁을 받을것을 각오했는지 풀이 죽어있었다. 그러나 장군님께서서는 전혀 뜻밖의 질문을 하시였다.

《혁수동무, 기림리의 정혜녀성을 어떻게 생각하오?》

혁수는 너무나 당황해서 대답을 올릴수 없었다.

《난 그 녀성이 저녁늦도록 공사장에서 혼자 일했다는 그 한가지 사실만으로도 그가 좋은 녀성이라고 생각하오. 물론 난 간섭하자는게 아니요. 그저 동무가 하루빨리 새생활을 꾸렸으면 해서 그러는거요.》

김일성동지께서는 장혁수의 생활이 마음에 걸리시여 가볍게 한숨을 지으시였다. 저술한 건설자들속에는 분명 그 녀성도 있을것이라고 그이께서는 믿으시였다. 혁수를 친동생처럼 생각하시는 그이께서는 그 녀성의 얼굴이라도 보고싶으시였지만 이제 그 녀성을 여기로 불러오면 어딘가 억지감이 생길것 같아 애써 마음을 다잡으시였다.

《혁수동무, 우리가 이 공사를 하는것도 모든 사람들이 그늘없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건설하자는데 있는거요. 울분만 안고 살아서는 새로운 시대를 호흡할수 없소.》

장군님의 뜨거운 말씀을 폐부로 빨아들이느라니 장혁수의 온몸은 격정으로 달아올랐다. 승용차를 내려우고나서도 장혁수는 망두석처럼 길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있었다.

안해와 자식을 잃은 뒤부터 그는 새 가정을 이루는 문제를 한번도 깊이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제 한몸도 건사하기 힘든 주제에, 그래서 사랑하는 안해와 자식을 지켜주지도 못한 주제에 또 무슨 불행을 당하자고 새 가정을 꾸린단 말인가. 모진 세상에서 한가정의 세대주구실을 하기에는 자기 힘이 너무나 무력하다는것을 인정할수밖에 없었던 혁수였다. 그것이 사나이로서 최대의 수치라는걸 모르는바 아니지만 다르게 사는 법은 배울수 없었다. 그러나 해방은 가장 무기력한 존재인줄만 알았던 자기에게도 무궁무진한 힘이 있다는것을 깨우쳐주었고 자기의 앞날에 무한한 행복의 가능성이 있다는것을 인식시켜주었다. 못별이 충충한 밤마다 무섭게 밀려드는 외로움으로 한숨지을 때면 예전과는 다르게 살자고, 남들처럼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당당하게 소리치는 마음속의 또 다른 자기를 보는듯싶었다. 그때마다 그는 봄썩처럼 빠끔히 머리를 내미는 새 가정에 대한 미련을 아쉬운 마음으로 밟아버리곤 했다.

그런데 장군님께서는 자기의 마음속 상처를 들여다보시고 그토록 가슴아파하시면서 하루빨리 새생활을 꾸려야 마음을 놓겠다고 말씀하시는것이였다. 친부모의 따뜻한 사랑이 배인 장군님의 말씀은 혁수로 하여금 가슴깊이 눌러워있던 새생활에 대한 욕망이 머리를 쳐들게 해주었다.

(정말 그 녀자가 혼자 사는 녀자라면...)

그는 삼자루를 움켜쥐고 공사장 한복판으로 걸어갔다. 머리가 무거울 때는 일이상 좋은 약이 없었다.

44

그때까지만 해도 평양지방에서는 수리날을 크게 쇠는 풍습이 있었다. 제일 성황을 이루는것은 그네뛰기였다. 수리날이라고 하면 의례히 그네가 련상되고 여느날에도 그네줄을 잡으면 수리날이 떠오를만큼 수리날과 그네는 뗄수없이 련결되어있었다. 그래서 수리날이면 창광산이나 모란봉의 놀이터들에서 남정네들보다 녀자들이 더 활기를 띠고 하늘공중 날아오른 그네를 보며 온 한해 마음속에 쌓였던 시름거리들을 가셔버리곤 했다.

그런데 봉수산골짜기의 서재골에는 그네터도 씨름터도 없는데 올해따라 수리놀이를 한다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것은 공사장에 일하러 나오는 사람들을 홀려내기 위해 구진배와 로이문이 파놓은 함정이였다. 로이문은 공사지휘부의 이름으로 삼천리악단의 악사들까지 초청하였고 봉수국수집주인을 꼬드겨 평퍼짐한 곳에 제법 차일까지 쳐놓고 고기굽는 냄새를 피우게 했다. 대타령이나 평천리쪽에서 넘어오던 사람들은 지휘부에서 한턱 낸다는 바람에 봉수산고개를 넘지 못하고 먹자판에 끼여앉았다. 그들속에는 명덕이도 섞여있었다.

그네터도 씨름터도 없으니 그저 부어라 마셔라 하는 판이었다. 한쪽에서는 악사들이 깽깽이를 켜고 한쪽에서는 주정뱅이들이 술을 마시느라 저마끔 고아대고 또 한쪽에서는 얼근해진 누군가가 비린청으로 《수심가》 한곡조를 뽑고있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 놀음판의 위험성을 냄새맡지 못하고있었다. 얼굴이 솟불처럼 벌개진 남정이 앉은자리에서 《매화가》 타령을 엮어댄다.

명덕은 놀음판의 분위기에 잠기지 못하고 처음부터 한쪽구석에 따로 앉아 막걸리사발만 기울였다. 그동안 그는 로이문의 소개로 봉수산중턱을 헐어서 남교제방의 장석을 보장하는 발파대에서 일해왔었다. 이제 사흘만 더 하면 의무적으로 동원되어야 했던 열이틀을 채우게 된다.

그런데 어제 로이문이 찾아와 공사가 끝날 때까지 여기서 일하라는것이였다. 집형편이 허락치 않아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했더니 제말만 잘 들으면 돈도 생긴다는것이였다.

《어떻게요?》

로이문은 사방을 두리번거리고나서 겨우 알아들을만 하게 속살거렸다.

《자네한테만 말해주겠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구. 금광업자들한테 다이नामा이트나 도화선이 금값이야. 자네야 그걸 다루는 사람이 아닌가. 금을 다루면서도 돈걱정을 하다니, 원...》

명덕은 텐겁을 했다. 폭약에 대한 출고규정은 엄격했던것이다. 설사 규정이 엄격하지 않다 해도 나라재산을 도적질할수야 없지 않는가.

《정신나갔소?》

로이문은 되박이마를 살살 긁으며 고지식한 명덕을 비웃었다.

《그럼 죽사발이나 기울이며 살아보게나, 흥! 궁하면 원님 망건값도 잘라먹는됐어.
임자 봉수국수집 외상값도 처리 못했지?》

명덕은 아연해졌다. 로이문이 자기를 국수집으로 데리고갈 때마다 일을 잘하라고
한턱 내는줄만 알았는데… 하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으랴.

(내가 미련한 놈이지.)

장혁수와 싸운 뒤부터 명덕은 로이문과 마주서는것을 될수록 피해왔다. 그와
마주서면 왜서인지 선밥먹은 놈처럼 속이 편안치 않았던것이다.

그날 명덕은 로이문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장혁수에게 주먹맛을 보이려다가 반대로
톡톡히 얻어맞았었다. 그때에는 후날 장혁수를 단단히 복수하려고 베풀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에는 공사장에 뼈라가 뿌려지고 나쁜 놈들이 현장책임자를 모해하려고
책동한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어제 자기가 얻어맞은것을 누가 본 사람이 없겠는데
뼈라까지 나도는걸 보면 나쁜 놈들 작간이 틀림없는것 같았다. 제일먼저 짚이는것이
로이문이었다. 명덕은 즉시로 로이문을 찾아가 따지려다가 주저앉고말았다. 어제
점심에 로이문은 봉수국수집에 남아있었으니 자기가 싸우는걸 보지도 못했을것이다.
그는 나쁜 사람일수 없다. 누이와 현장책임자사이에 있는 일까지 대주면서 걱정하지
않았는가. 가만!… 누이를 만나보자. 그러면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수 있을것이다.
현장책임자가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 누이가 증명해줄것이다. 명덕은 일이 끝나자
럼시렬차를 타지 않고 누이네 집으로 갔다.

누이는 동생이 오래간만에 왔다고 반가와하건만 명덕은 푸르딩딩해서 토방에 걸터앉으며 따졌다.

《누이, 오늘 공사장에 빠라 뿌려진거 봤어?》

《응, 나쁜 놈들이 현장책임자를 헐뜯었더구나, 그 사람이 노동자들을 때렸다구.》

《그건 사실이야, 어제 내가 현장책임자와 싸웠거던.》

깜짝 놀란 누이는 두손을 가슴앞에 모두어잡고 명덕에게 다가섰다.

《너... 정말이냐?》

《그게 다 누이때문이란 말이야.》

《뭐?...》

누이는 경악에 찬 표정으로 굳어졌다. 의혹의 질은 그늘이 정혜의 얼굴을 어둡게 해주었다.

《그게... 그게 무슨 말이냐?》

《현장책임자가 누이를 건드렸다면서? ... 저녁늦게 작업장구덩이안에 있는걸 봤다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똑바로 말해줘. 현장책임자가 정말 그랬어? 사실이라면 내 진짜 가만 안 있겠어.》

《그러니까 나하구 현장책임자하구 작업장에서... 그래서... 네가 싸웠다구?...》

누이는 명덕의 말뜻을 겨우 알아들었다. 순간 누이의 얼굴에는 서리가 덮였다. 처음엔 너무 기가 막혀 말도 못하다가 드디어 격렬한 분노를 터뜨렸다.

《누가 그러던?... 누가?...》

《그럼 사실이 아니라는거야?》

《너 네 누이를 뭘루 보는거냐? 나나 현장책임자가 그렇게 너절한 사람들 같니? 누가 너더러 내 걱정 하랬어? 나는 내가 지킬수 있단 말이야!》

명덕은 당황해졌다.

《아니면 그만인데 성낼거야 있어?》

그 말이 누이를 더 격분시켰다.

《명덕아! 그렇게두 모르겠니? 난 둘째치구 너때문에 수고한 현장책임자가 모욕당하는게 분해서 그래, 분해서...》

《나때문이라구?...》

한참만에야 누이는 명덕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주었다. 그날 어떻게 되어 현장책임자와 같이 일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장군님께서 착공식때 쓰시던 삼을 써보았다는것까지 빼놓지 않았다. 그 사람은 **김일성**장군님께서 아시는 사람이다, 그런 큰사람이 자기같은 하찮은 녀자때문에 사람들의 말밥에 오르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무슨 낮으로 그를 대하겠는가, 게다가 철없는 동생의 경거망동으로 나쁜 놈들에게 좋은 구실을 만들어주었으니 우리 형제는 현장책임자와 어떤 악연으로 얽히려는것인가. 명덕은 누이의 말을 다 듣고나서야 머리를 싸쥐었다. 이런 경우를 두고 도적이 매를 든다고 했던가? 은혜를 원썬로 갚는다고 했던가? 현장책임자가 나를 얼마나 어리석고 시시한 놈으로 보겠는가.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도 현장책임자는 구차한 변명 한마디 하지 않았었다. 확실히 그 사람은 사내대장부다운데가 있었다. 기회가 생기면

현장책임자에게 용서를 빌어야겠다고 명덕은 생각했다. 그리고 이번 일은 따져볼수록 로이문의 작간질이 분명한데 그걸 증명할 재간은 없었다.

그 사건을 계기로 명덕은 더 우울해지고 말수더구도 적어졌다. 지금도 명덕은 주위가 소란하건 말건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가 하고 혼자생각에 잠겨있었다.

공사장에 그냥 남아있을것인가, 아니면 로력동원날자나 채우고는 전번에 임성민이 말한대로 공장에 들어갈것인가. 나라에서 노동자, 사무원들에게 식량공급을 해준다는데 직장에 들어가면 호구지책은 한시름 놓을수 있었다. 그런데 어떤 직장이 좋겠는지는 가늠이 가지 않았다.

노상 떠돌이생활만 해온 명덕이로서는 한직업에 안착되어 일하기가 험할것 같지 않았던것이다.

자기 생각에만 움해있던 그는 누군가가 뛰여오며 웨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져서야 그는 웬일인가 하고 머리를 들었다.

등거리바람의 젊은이가 숨이 막혀 도간도간 갑자르며 골안이 떠나가게 소리쳤다.

《장군님께서… **김일성**장군님께서… 공사장에 나오셨소!》

그 젊은이가 두번세번 곱씹어 웨쳐서야 사람들은 제정신이 들어 벌떡벌떡 일어섰다.

《그게 정말이야?》

저저마다 그게 사실이냐고 술렁대는데 숨가빠 달려온 젊은이는 눈앞의 광경에 기가 막히는지 분노한 목소리로 웨쳤다.

《이 등신같은것들아!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지금…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계시는데 네놈들은 여기서… 에익! 이 덜돼먹은것들아! 네놈들도 사람이냐?!》

정신이 뻥해있던 명덕은 젊은이의 말을 리해하는 순간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장군님께서 공사장에 나와 일하시다니... 이것저것 생각할새 없이 그의 몸은 벌써 그 자리를 떠났다.

골짜기아래로 난 소로길을 따라 달리다가 고쳐생각하고 봉수산중턱에서 방향을 꺾어 등성으로 올리뛰었다. 고개만 넘으면 공사장이 지척이었다. 그는 발이 땅에 닿는지도 모르고 달렸다. 새처럼 날았다. 잡관목숲이며 바위츠렁이며 가리지 않고 령마루를 향해 직선으로... 뒤축이 무너앉았던 낡은 로동화가 벗겨졌지만 그걸 찾아신을 경황이 없었다. 나무그루터기에 찢린 발바닥에서 피방울이 점점이 떨어졌지만 별로 아픈줄도 몰랐다.

그렇게 허위단심 달려왔건만 장군님께서는 방금 공사장을 떠나신 뒤였다. 명덕은 전신의 힘이 싹 빠져버려 그 자리에 허물어지고말았다. 명덕은 **김일성**장군님을 한번도 만나뵙지 못했다. 먼발치에서라도 그분을 만나뵙는것이 소원인데 자기에게는 그런 행운이 차례지지 않았다. 오늘도 곧장 공사장으로 나왔으면 틀림없이 장군님을 뵈을수 있었는데 놀음판에 걸려들어 일생에 다시없을 기회를 놓친것이다. 하지만 누구를 탓하랴.

명덕은 가까스로 몸을 일으켰다. 장군님께서 선교4리작업장에서 일하시였다니 거기에라도 가보고싶었다.

한쪽신발을 잃은채로 절뚝거리며 선교4리작업장에 찾아간 명덕은 그곳에서 임성민을 만났다. 그들은 작업구간을 무시하고 경계뚝들을 허물고있었다.

《성민형!》

《명덕아!》

《성민형,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뵈왔어요?》

명덕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있었다. 임성민은 땀에 뜬 얼굴로 말했다.

《난 장군님과 함께 일했다. 넌 어디 갔다가 인제야 왔니?》

《형님!》

명덕은 황소영각소리를 냈다. 자기가 어떤 놀음판에 끼였됐다는걸 알면 성민형이 가만있지 않을것이다. 그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삼자루를 뺏아들었다. 성난 황소처럼 고개를 숙이고 무섭게 삼질을 해댔다. 임성민도 그를 말리지 않았다.

명덕은 말없이 땀만 흘렸다. 하고싶은 말들이, 머리속을 무겁게 하던 잡념들이 모두 땀으로 바뀌었다. 아무리 땀을 흘려도 힘들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는 오늘처럼 땀을 흘리고싶어서 흘려본적은 한번도 없었다. 예전에는 땀흘려 일하는게 얼마나 힘들고 분하고 억울했던가.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온몸을 땀으로 말끔히 녹여버리고싶기만 했다.

두사람은 일이 끝난 뒤 조용한 강변에 나란히 앉았다. 임성민은 그날 명덕에게 많은 말을 해주었다. 이 공사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하여, 해방된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김일성**장군님은 어떤분이신가에 대하여...

《명덕이, 우린 해방전엔 사람값에 못 들었됐지. 그래서 도적질도 하고 싸움질도 하면서 살았지. 결코 돈이 없어서가 아니였어. 나라가 없으니 사람답게 살수 없었거든. 사람답게 살려고 발버둥치면 왜놈들이 가만 안 두었지. 그런데 장군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신 덕에 우리같은 놈도 사람대접을 받게 되었지. 오늘도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가설막을 돌아보시면서 로동자들이 맨땅에서 자는걸 걱정해주시였어. 로동자들이 병이라도 만날가봐 꼭 온돌을 놓아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야. 장군님께서 우릴 그렇게 아껴주시는데 우리가 장군님께서 걱정하시는 이 공사에 자기를 아껴야겠나? 아니야! 우린 제 몸을 아끼지 말아야 해! 짱그리 바쳐야 해! 명덕인 아직도 애국자가 된다는게 무슨 소린지 모르고있어.》

그 말이 옳았다. 전번에 길거리에서 임성민과 처음 만났을 때 명덕은 애국자가 돼야 한다는 말을 귀등으로 넘겼었다.

《우린 꼭 애국자가 돼야 해. 그건 **김일성** 장군님께서 바라시기때문이야.》

명덕은 잠자코 있다가 불쑥 물었다.

《형님! 장군님을 만나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가요?》

그 물음속에는 이제부터라도 인생길을 새롭게 걸어가려는 그의 결심이 비껴있었다. 장군님을 만나뵈을수 있는데로 가는 길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라는것을 깨달았던것이다.

임성민은 명덕의 손을 힘껏 움켜쥐었다.

《장군님을 만나뵈으려면 그분께서 마음쓰시는 일터에 가있으면 돼. 장군님께서 새 나라를 일떠세우시는 곳이면 어디든 다 찾아가시거던.》

명덕은 공사가 끝날 때까지 여기에 남아있기로 결심하였다.

45

해방산을 넘어선 정근식은 서성교를 지나 봉수산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는 지금 보통강개수공사장으로 가는 길이었다.

하얀 모시로 지은 바지저고리차림에 슬슬 부채질을 하며 바쁘지 않은 걸음으로 걷는것을 보면 한가로운 유람객의 자세였다. 오늘은 그의 생일날이다. 로친네는 공사장에 가서 수영이를 데려오라고 아침부터 성화를 먹였다.

《령감은 걱정되지두 았수? 그 애가 공사장에 나가사는지도 보름이 넘었는데 오늘같은 날에야 집에 데려와야 할게 아니요? 그 애가 있을 땐 그래도 사람사는 집같더니 요샌 꼭 무덤속같은게 질거죽겠수다.》

《그 애가 제 외삼촌생일을 잊지 았았다면 제발로 나타나겠는데 뭘 찾아다닌다는거요? 그리구 지금같은 때에 생일놀이는 또 뭐구?...》

《지금이 어드래서요? 해방이 돼서 처음 맞는 생일인데 있는껏 차려봅시다레.》

종당에 정근식은 마누라한테 질수밖에 없었다. 사실은 자기도 이미전부터 공사장에 한번 가보고싶었다. 그러니 수영이를 만나러 간다는건 자기의 내심을 감추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았았다. 세상에 철저한 현실도피란 있을수 없는 모양이다. 아프리카의 장글이나 남아메리카의 뽀따날 같은데 깊숙이 숨기 전에는 절대적인 현실도피가 불가능하다. 그것은 결국 철저한 현실부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생에 대한 허무도 절대적일수 없다는것을 말해준다.

정근식의 경우가 그랬다. 해방전에는 오불관언하고 사는것이 가능했었다. 그때는 세상이 그를 외면했고 자기 또한 이 세상에 볼 일이 없었다. 그래서 스스로 은둔자로 자처하면서 고독에 습관되었고 점차 그 고독을 사랑하게까지 되었다. 그런데 해방된 세상에서는 그를 가만놔두려 하지 않았다. 장군님께서 굳게 닫긴 대문을 두드리시던 그날부터 그의 생활세계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적굴동을 지나고 봉수산기슭을 돌아서던 그는 공사장의 한적한 풍경앞에 다소 어리둥절해졌다. 조카딸의 말은 사람들이 공사장에 하얗게 널려서 쉴새없이 일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쉴참이 아닌데도 일하는 사람은 없고 다들 나무그늘밑에 앉아 땀을 들이고있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더니 자기가 와보길 잘한것 같았다. 하긴 이 복더위에 토목로동을 한다는게 험하겠는가. 그래도 왜정때처럼 채찍을 들고 꺾꺾거리는 십장들이 없으니 마음편히 쉴수는 있을것이다.

정근식은 제 생각에 움해서 걷다가 웬 사람에게 팔목을 잡혔다.

《보아하니 정신을 안 가지고 다니는것 같군요. 저길 보지 못합니까?》

그 사람이 가리킨 곳은 팔동교방향으로 물길을 돌린 봉수산기슭을 더 넓고 깊이 파내는 곳인데 암만 봐도 별다른것은 보이지 않았다.

그 사람은 정근식의 팔을 놓아주며 허허 웃었다.

《이 사람이 공사장물계는 영 깜깜이군요. 당장 발파를 한단 말입니다.》

《발파요?》

그 물음에 대답이라도 하는듯 때마침 지심을 흔드는 발파소리가 울렸다.

꽁, 꽁, 콰꽁...

발과소리에 잇달아 뽀얀 먼지구름이 주변을 덮었다. 돌부스레기가 그곳까지는 미치지 않았지만 정근식은 저도 모르게 뒤발자국 물러섰다.

《공사장이 처음인가 봅니다. 외지에서 오셨는가요?》

길옆에 주저앉아서 그 사람이 묻는 말이였다. 정근식은 자기도 알아들을수 없는 소리를 웅얼거렸다. 평양에 살면서 여기에 처음 와본다고 하기가 량심에 찔리웠던것이다.

《로동안전규정이라는게 있으니까 먼지가 가라앉을 때까지는 여기서 다리웁이나 하고 가세요.》

정근식은 그 사람이 권하는대로 풀밭에 앉으며 먼저 물었다.

《댁은 여기서 무슨 일을 보시는지요?》

뒤꽁무니에 수첩을 찢러놓고다니는것을 보니 막일이나 하는 사람같지 않았던것이다.

《나요? 시를 씁니다.》

《시를요? 이 공사판에서 시를 쓴다구요?》

《왜 놀라십니까?》

그는 정근식이 놀라는게 놀랍다는듯 되물었다. 그 사람은 시인 리찬이였다. 리찬은 얼떨떨한 표정을 짓고있는 정근식에게 정색해서 물었다.

《놀랄만도 하지요. 옛날같으면 신음소리, 채찍소리만 울리던 공사장에서 노래소리가 울린다는게...》

리찬은 심장에서 끓고있는 시적인것을 퍼내지 않고는 견딜수 없다는듯 초면인 정근식에게 손세까지 써가면서 열변을 토했다.

인간은 원래 자연앞에 무력한 존재였다. 때문에 역사적으로 자연에 대한 공포와 신앙이 존재해온것은 불가피한것이였다. 보통강의 역사만 보아도 사람들에게 해마다 재난을 들뜨우면서 태고적생긴 모양대로 흘러왔었다. 지난날 봉건통치배들은 인민을 억압할줄만 알았지 그들을 보살피줄 생각은 하지 않았다. 일제통치시기에도 왜놈들은 저들의 침략적, 약탈적목적으로부터 보통강을 리용하려 했을뿐 그 주변일대에서 사는 인민들의 운명에는 무관심하였다. 그런데 **김일성**장군님께서 평양을 수해로부터 보호하고 토성랑인민들을 살리자고 처음으로 삼을 들고 나서시였다. 인민수난의 역사, 불행의 역사를 끝장내자고 대자연에 선전포고를 하시였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만민평등의 행복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대문의 열쇠가 어디에 있느냐 세기와 세기를 넘으며 뜻있는이들이 역사의 미궁을 더듬질해왔건만 누구도 찾을수 없었던 행복한 세상의 열쇠를 우리 장군님께서 찾아주시었다. 찾으신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 바쳐 만들어내신것이다. 리찬의 어조는 시종일관 웅변적이였다.

《난 빛과 어둠을 시창작의 근본으로 삼고 글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해방전에는 어둠에 대해서만 노래했지요. 그 시대의 양상은 어두웠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빛에 대해서만 노래하고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태양에 대한 노래만을 쓰려고 합니다. 난 지금 절세의 애국자가 누구인가를 민주의 새 조선의 위대한 태양이 누구인가를 온 세상에 노래하는 <**김일성**장군의 노래> 를 창작하고있습니다.》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정근식의 눈은 휘둥그레졌다. 생각지도 않았다가 뜻밖에 대단한 사람을 만났던것이다. 그는 리찬의 흥분에 전염된듯 바투 다가앉으며 그 보배손을 덥석 움켜쥐었다. 무표정하던 그의 얼굴에는 마음속에 켜진 등불타인지 퍼그나 진지하고 엄숙한 빛이 흘렀다.

《선생은 민족앞에 정말 큰일을 하고있소이다.》

《이러지 마십시오. 장군님에 대한 송가를 짓는거야 만민이 일구월심 바라는게 아닙니까? 조선민족이 낳은 불세출의 위인을 세상앞에 뚜렷이 내세우는것은 민족성원모두의 응당한 본분인즉 한방울의 먹물이라도 손끝에 묻혀본 사람이라면 누구보다 맨먼저 정중한 자세로 나서야지요.》

정근식은 머리를 들지 못했다.

《백성들모두가 제 본분을 다하고 사는건 아니지요. 나라는 위인만 봐도 평양에 태를 묻고 살면서 오늘에야 구경삼아 여기에 나와봅니다. 동원장을 받고도 로력을 돈으로 사서 대신 내보냈됐지요. 그래서 장군님께 노여움을 끼쳐드렸됐습니다. 장군님께서 내 집 대문을 손수 두드리시며 건국의 한마당으로 불러주시였는데도 영치가 무거워 오늘에야 나왔습니다.》

《글쎄 어쩐지 관청에 온 촌답같다 했습니다.》

리찬은 능청스레 말하며 제 먼저 웃음을 터쳤다. 정근식에도 오래간만에 룡담을 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웃었다.

《무엇이 나를 여기로 뚫기쳐냈는지 하여튼 와보고싶더라니까요. 선생같은 귀인을 만나고보니 우리 로친네가 못나긴 했어도 하늘의 계시를 받고 내 등을 떠민게 틀림없습니다. 허허...》

《아닙니다. 이 공사장에서 나같은 선비를 만나는게 뭐 그리 대단한것이겠습니까? 여기서 봐야 할건 **김일성**장군님께서 착공식날 첫삽을 뜨신 자리지요.》

정근식은 애원에 가까운 간절한 표정으로 리찬에게 청을 드렸다.

《날 거기에 데려다주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탁이야 백번이라도 들어주지요. 갑시다.》

아직 발과먼지가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지만 건설자들은 작업장으로 밀려들고있었다. 공사장은 대번에 활기를 띠었다.

정근식은 리찬을 따라 일어섰다. 서재골로 넘어가는 굽인돌이를 꺾어들던 그는 새 통수로가 뻗어간 공사장의 전경앞에 입을 딱 벌렸다. 자를 대고 그은것 같은 저런 제방이 언제 생겨났는가? 50m 강폭을 사이에 두고 량옆으로 뻗은 제방과 분주히 오르내리는 사람들을 경탄의 눈길로 바라보면서 그는 이 력사의 기적앞에서 자기 위치를 생각해보지 않을수 없었다. 강산이 이렇게 변하도록 자기는 뭘하고있었는가?

그동안 자기는 망태기가 되어버린 이 세상에 어떤 미련도 가질게 없다고 생각하면서 지구전체를 암흑세상으로 규정했었다. 그런데 **김일성**장군님께서 영영 밝아질것 같지 않던 이 세상에 광명을 안아오시였고 암흑속에서 헤매이던 천덕꾸러기들이 거인적형상으로 자연에 도전하고있는것이다.

보라! 너도나도 질통을 지고 뛰지 않는 사람이 없다. 저기 저 남정들은 어째서 목고줄을 자기쪽으로 당겨놓으며 싱갱이질을 하고 보매 중학생인듯 한 소년은 어째서 어른들과 같은 질통을 지고있으며 장석을 입히는 저 사람들은 무엇이 즐거워 허리를 물속에 잠그고도 웃고 떠드는가.

정근식은 눈앞에 안겨오는 광경들과 공사장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노래소리, 북소리, 뿔과리소리에 정신이 팔려 몇번이나 발을 헛짚어 넘어질뻔 하였지만 그래도 공사장에서 눈을 떼수 없었다.

리찬은 서포천과 형제산강의 합수목에 정근식을 데리고왔다.

《여기가 바로 장군님께서 첫삽을 뜨신 곳이에요.》

정근식은 시커먼 감탕흙이 드러난 그곳에 말없이 다가섰다. 바로 여기가 **김일성**장군님께서 수천년 감탕속에 묻혀있던 인민을 나라의 주인으로, 위대하고 존엄높은 존재로 떠올리시기 위하여 첫삽을 박으신 곳이란 말인가. 바로 여기가 민주건설의 첫출발점이고 이 땅에서 자연에 대한 항거의 력사가 시작된 곳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여기는 응당 황금으로 판간을 두르고 천만년 길이 보존해야 할 유서깊은 곳이 아닌가.

생각에 잠겨있던 정근식은 멀지 않은 곳에서 떠들썩하는 소리에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곳에서는 팔뚝만큼 굵은 이깔장대들을 달구지에서 부리우고있었다.

《저기선 뭘하는가요?》

그쪽을 유심히 살피던 리찬은 탄성을 질렀다.

《아하, 저 사람들이 끝내...》

리찬은 제 먼저 앞장에 서며 정근식을 이끌었다.

《우리도 가봅시다. 참 희한한 구경거리지요.》

거기는 선교4리 작업구역인데 지금 임성민은 옷동을 벗어제끼고 나무레루를 놓을 준비를 하고있었다.

팔뚝만 한 굵기의 이깔나무를 꺾질을 벗기고 잘 다듬어 침목에 고정시키면 얼마든지 레루를 대신할수 있었다. 곡산공장에서 당장 밀차를 만들어오겠는데 소철레루가 없다고 한탄만 하지 말고 나무레루를 놓고서라도 하루빨리 제방을 쌓자는것이였다.

임성민의 착상은 돌격대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쇠붙이건 나무건 밀차가 굴러가면 되는거지.》

《그래그래. 밭건굽건...》

째지게 가난해서 서른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간 더꺼머리가 한마디하는데 코마루가 잘 익은 사람이 맞장구를 친다.

《그 말이 맞아. 막걸리건 탁배기건 취하면 되니까.》

《쫓쫓, 한다는 소리들이...》

결국 어제부터 봉수산에서 매출한 이깔나무를 골라 꺾질까지 벗겨가지고 온것이다.

정근식은 침목우에 레루를 놓는 그들의 작업모습을 얼없이 지켜보다가 리찬이 팔을 끌어서야 거기서 떠났다.

《우리 건설자들이 참 용한 생각을 해냈군요.》

정근식은 생각깊은 어조로 한마디했다.

《난 저 나무레루를 단순한 발명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공사에 진심을 바치지 않고서야 저런걸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니 애국레루라고 해야지요. 좀 둘러보시오. 저기선 목조기중기가 우뚝 솟고 저쪽에선 권양기가 밀차를 끌어올리고 사람들은 또 어땡소? 여기선 애국이란 말밖에 할 소리가 없습니다.》

리찬의 마음속에서는 벌써 시가 다듬어지고있는 모양이었다. 그는 얼핏 회중시계를 꺼내보고나서 정근식에게 돌아섰다.

《자, 이젠 나두 일을 좀 해야겠으니 손님을 계속 안내할수가 없구만요.》

리찬의 말은 어딘가 야유조로 들렸으나 정근식은 탓하지 않았다. 설사 어느 젊은이나 아낙네가 모욕하고 놀려댄다 해도 그로서는 할 말이 없을것 같았다. 그만큼 그는 공사장에서 받은 충격이 컸던것이다.

《내 오늘은 공사장구경이나 하자고 나왔했는데 그냥 돌아가면 사람이 아니지요. 부탁인데 삽이든 질통이든 하나 얻어주시겠습니까?》

리찬의 얼굴에서는 갑자기 웃음기가 사라지고 대신 심각하고 엄한 표정이 떠올랐다.

《얻어드릴수 있지만 그만두겠습니다.》

《그건...》

정근식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리찬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오늘 일하러 나온게 아니지요. 처음 나와보고 가책이 큰 모양인데 체면이나 세우고 량심에 위안이나 얻자고 삽질이나 몇번 하고 떠난다면 그건 이 공사를 더 욱되게 하는것으로 되지요. 난 당신이 이 공사장을 보다 정중성있게 대했으면 해서 하는

소립니다. 하여튼 자기의 정신을 목욕재계하고 오직 애국심 하나만을 간직하고 나오십시오. 그때 나랑 바지가랭이를 걷어올리고 힘껏 일해봅시다.》

정근식은 아팠다. 마음의 고통은 육체적고통으로 번져져 그는 얼굴을 찡그렸다. 그러나 시인선생의 말이 그른데는 없었다.

그는 수영이를 찾으려던 생각마저 단념하고 머리를 수긋한채 공사장을 떠났다. 한결음한결음 무겁게 옮기는 그의 모습에서 유람객의 자세는 찾아볼수 없었다.

46

수영은 땀나무가 떨어져서 낫을 들고 봉수산으로 올라갔다. 음료수를 끓이는 땀나무는 지휘부에서 보장하군 했는데 어제 하루종일 가랑비가 오는 바람에 미처 마른 나무를 준비해놓지 못했던것이다. 수영은 난생처음 낫을 들고 산에 오르는 자신의 정신적변화가 스스로도 장하게 느껴졌다.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생활을 대해본적이 있었던가.

언젠가 어머니는 수영에게 이런 말을 해준적이 있었다.

《넌 성질이 불과 같애. 하지만 우등불처럼 활활 타지도 못하구 밝게 빛나지도 못해. 화로불과 비슷하지만 화로없는 집이 없구 겨울이면 화로불신세를 안 지는 사람이 없지. 그러니 평생 남을 위해 살아야 하는게 네 팔자다.》

그때 수영은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불이 될바에야 어두운 광야를 밝히는 우등불이 되거나 높은 산정의 봉화가 될것이지 하필이면 빛도 없는 숯불에 비유할건 뭐람... 그러나 생활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수영은 사람들에게 따스한 온기를 주는 화로가 마음에 들었다. 인간세상에 열을 보태주는 존재로 산다는게 얼마나 보람있는 삶인가.

결국 수영은 어머니가 말해주던 그 팔자대로 사는셈이었다. 지금껏 차디찬 세월탓에 식어버렸던 그 착한 천성이 해방된 오늘에야 비로소 이글이글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것은 아닌지...

수영은 서재골로 넘어가는 오솔길을 따라 올라가며 마른 나무가지들 찾아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러다가 어느새 숲의 정서에 잠기고말았다. 어제 비가 내린 뒤여서인지 한여름의 숲은 푸르고 청신한 기운을 한껏 풍기고있었다. 이름모를 갖가지 풀들이 땅을 덮었고 소나무와 참나무, 물오동나무들이 푸른 잎으로 하늘을 가리웠는데 높고낮은 잡관목들이 하늘땅의 공간을 채우고있어 혼성림은 온통 푸른빛이었다. 수영은 흰 저고리에 까만 치마를 입고있었는데 푸른 숲의 세계에서는 이색적인 존재였다. 도시에서만 살아온탓에 대자연에 습관되지 못한 처녀는 숲의 청신한 공기, 숲의 색깔, 숲의 음향 그 모든것이 다 신비하게 생각되면서 자기가 이 자연의 조화를 파괴하는것 같아 숨쉬고 말하고 움직이는것조차 서슴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이름모를 꽃잎속에서 꿀벌이 뱅뱅거리고 까딱하지 앉는 나무잎우에 벌레가 기여다니는것을 처녀는 신기한듯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고요한 정적속에 홀로 서있는 자기를 의식하는 순간 갑자기 무섭증이 엄습해왔다. 수영은 그 정적속에서 벗어나보려는듯 한발을 내디뎠다. 발밑에서 삭정이 부러지는 소리가 별스레 크게

들려왔다. 마른 나무를 하자면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겠는데 두려운 생각이 앞서서
발을 더 옮길수 없었다. 수영은 할수없이 주변에서 삭정이라도 주어모았다. 한참 신고를
해서야 겨우 물 한가마 끓일만 한 땀감을 모을수 있었다. 그나마 다행이었다. 래일은
지휘부에서 나무를 보장해줄것이다. 수영은 나무단을 옆에 끼고 산을 내렸다.

현장사무실모퉁이를 돌아서던 처녀는 현장에서 들어오던 설계가청년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못 본척 할수도 없고 그렇다고 먼저 말을 건넬수도 없고... 참으로 따분한
순간이었다.

《의사선생이 땀나무까지 하는가요?》

운상이가 다가서며 묻는 말이었다.

《아니예요, 저...》

수영은 공연히 얼굴을 붉히며 그 자리에 서성거렸다. 운상은 무슨 말인가 더 할듯말듯
하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버렸다.

처녀는 저도 모르게 호- 한숨을 내쉬었다. 그 사람앞에서 왜 그렇게 찢찢맸는지
자기도 알수 없었다.

어쨌든 그 사람과 마주서거나 그 사람 생각을 하기만 해도 마음의 안정이 형클어지곤
하는데 그 리유를 설명할수 없는게 안타까울뿐이었다.

운상이 역시 처녀와 싱겁게 헤어지고는 혼자서 속을 썩이고있었다. 조용한 환경에서
단둘이 마주섰는데 그렇게도 할 말이 없었던가.

그는 얼마전에 완성한 남교수문설계를 찾아쥐고 다시 현장으로 나가면서 자신을
끝없이 원망했다.

그동안 수문설계에 다쫓기우면서도 그는 수영에 대해 잊어본적이 없었다. 리주연부위원장한테서 수영이가 자기를 보증해나섰다는 말을 듣던 그 순간에 운상은 인생의 중대사를 마음속으로 결정지었던것이다.

지내볼수록 처녀는 얼굴도 마음씨도 한결같았다. 룡담을 즐기는 동원부책임자의 말을 빌면 수영이가 처녀로서는 특제품이라나...

현장치료라는 말조차 몰랐던 사람들에게 처녀의사는 아름답고 귀중한 존재로 떠받들리울수밖에 없었다.

수영이가 남들의 칭찬을 받을 때마다 운상은 마치 자기가 칭찬받은것만큼이나 기뻐다.

언제건 기회가 생기면 자기의 가슴을 헤치고 사랑에 불타는 심장을 꺼내보이리라 열백번 버르었는데 정작 마주서서는 아까운 기회를 놓쳐버린것이다.

사랑한다는 말이 그렇게 번지기 어려운 단어였던가.

(내가 바보야, 사내라는게...)

운상은 수문기초타입이 한창인 작업장에서 삽 한가락을 얻어들었다. 기운이 진할 때까지 일하느라면 답답한 가슴이 좀 열릴것 같았다. 한여름의 무더위는 가만히 서있는 사람의 몸에서도 땀을 줄줄 짜냈다. 더위는 피부를 뚫고 들어와 심장까지 익히는듯싶었다. 벌써 삽질 몇번에 눈을 뜰수 없으리만큼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한판을 밀고나면 어느새 또 모래와 자갈이 몰탈판우에 듬뿍 올라오고 뒤따라 세멘트가 쏟아지며 먼지를 일으킨다.

《또 해보세.》

맨앞에 선 사람이 소리치며 썩- 하고 삽날로 몰탈판을 민다. 그러면 마주선 사람이 썩- 하고 사선으로 삽날을 밀고 뒤따라 썩썩- 썩썩- 순식간에 혼합이 끝난다.

운상은 삽 권 손과 뒤로 번디던 다리에 온몸의 체중까지 싣고 세관게 삽질을 해댔다. 어느새 골을 찌고 물을 붓는다. 앞사람은 삽날로 몰탈판을 탕! 치고 혼합물에 삽날을 박았다. 그것을 신호로 삽날들이 차례로 엇갈리며 몰탈을 혼합한다.

운상은 삽날을 몰탈무지에 박고는 뚝심으로 밀어내군 했다. 마주서서 일하던 노동자가 운상에게 요령을 가르쳐주었다.

《설계가선생, 삽날을 몰탈판에 댔다가 앞사람의 삽날이 나가자마자 제껴 뒤따르라구요.》

그래도 운상은 들은척도 않고 미련스레 삽을 혼합물에 박군 했다. 온몸의 기력을 강그리 뽑아버리자는것이 그의 목적이였다. 함께 일하던 리주연이 그를 유심히 지켜보다가 휴식시간에 제결으로 불렀다.

《얼굴색이 좋지 않구만. 무슨 일이 있는게 아니요?》

《예, 있습니다.》

제 생각에 움해있던 운상은 기다리기라도 했던것처럼 제껴 대답했다. 그는 침착한 눈빛으로 자기를 지켜보는 리주연에게 매운 연기처럼 가슴속에 짝 차있는 안타까움을 말끔히 털어놓고싶었다. 누구에게라도 말하지 않고는 건딜수 없었던것이다.

《부위원장동지두 런애를 해봤습니까?》

엉뚱한 질문에 리주연은 한동안 아연해졌다가 운상의 고민거리가 무엇인가를 짐작했다. 그는 우정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세상에 런애 못해본 남자도 있나? 별걸 다 묻누만.》

운상은 싸움이라도 걸듯 목소리를 높였다.

《별거라구요? 이걸 저한테 운명적인거란 말입니다.》

《그 체네의사 말이지?》

《예.》

《내 그렇게 될줄 알았소. 그 처녀라면 나도 찬성이요. 첫사랑인가?》

《예.》

《흔히 사랑의 감정은 가변적인거라구 하던데...》

《부위원장동진 절 떠보시는군요. 난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 처녀는 훌륭한 처녀입니다. 물론 난 그 동무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처녀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난 내 가슴에 처음으로 찾아든 이 감정을 가장 소중한것으로 여기고 싶습니다. 그를 사랑하고싶고 그의 사랑을 받고싶고 그 과정에 서로가 더 훌륭해지고싶고... 사람이란 그렇게 완성되는게 아니겠습니까?》

리주연은 새삼스런 눈으로 운상을 바라보았다.

《사랑에 빠지면 누구나 시인이 된다더니... 허허...》

리주연의 마음은 절로 흥그러워졌다. 좋은 일이다. 우리 세상은 사랑으로 살아야 할 세상이니 미래의 터전을 닦는 이 공사장에서 사랑이 맺어지는것은 응당한게 아니라. 그의 머리속에는 장혁수와 이정혜의 모습도 떠올랐다. 하긴 이 공사장에서 사랑을 꽃피우는 젊은이들이 어찌 한둘이겠는가.

《고백했나?》

《못했습니다. 내 감정을 멋있게 표현하고싶은데 어디 말이 나가야지요.》

리주연은 빙그레 웃으며 경험자답게 조언을 주었다.

《운상동무, 표현방식은 그닥 중요치 않소. 그 마음이 진실하면 되는거요. 사랑의 언어는 하도 많아서 그걸 가려듣는건 귀가 아니라 마음이거던. 어쨌든 좋은 일이요. 내 장군님께 동무의 고민거리를 보고드리겠소.》

《뭐라구요? 부위원장동지 정신있습니까?》

그래도 리주연의 표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보고드려야 하오. 장군님께서 기뻐하실거요. 이젠 동무의 일신상에 대한 문제이기 전에 이 공사장의 풍경이란 말이요. 해방된 조국땅에서 행복을 꾸려가는 인민의 모습이란 말이요. 내 말뜻을 알겠소?》

그래도 운상은 동의할수 없었다. 아무리 그렇기로서니 장군님께 그런 하찮은 일까지 말씀드릴수 있단 말인가. 리주연은 운상의 마음이 이해되는듯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동무나 나나 아직은 우리 장군님에 대해 모르는것이 너무 많소. 장군님께서 우리들 매 사람의 행복을 두고 얼마나 마음쓰시는지 모르고 산단 말이요.》

그는 운상에게 장군님과 김정숙어머님께서 시공책임자 장혁수의 생활을 걱정하고계시는데 대해 자상히 말해주고나서 제 이야기를 덧붙였다.

《난 해방전에 결혼식을 할 때 기쁨보다도 서글픔이 더 컸댔소. 봉건을 타파한다면서 명천공회당에서 신식으로 결혼식을 했는데 경찰이 두놈씩이나 참가해서 불온한 말을 하지 않는가 감시하는통에 축하도 제대로 못했지. 그날 난 나라없는 백성으로서 망국민의 가정이 또 하나 생겨난다는게 서글웠고 망국노의 후세가 태어나게 된다는

절통함으로 해서 눈물이 났댔소. 하지만 동무들에겐 제 나라 땅에서 마음껏 행복을 누릴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소. 장군님께서 동무들의 행복을 보살펴주시고 인민정권이 동무들의 행복을 담보해줄거요. 그러니 땃땃하게 청혼을 하오!》

47

새 통수로의 면모가 뚜렷해지고 제방뚝이 하루하루 높아가자 처음엔 고개를 기웃거리던 사람들도 열성적으로 작업에 동원되었다.

공사지휘부에서는 6월 15일까지 계획된 1단계공사를 마감짓기 위해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50m너비로 옛 강을 막는것과 일단 새 통수로로 물길을 돌린 다음에는 배수로작업을 할수 없는 조건에서 바닥파기작업을 빨리 다그치는것이였다.

장혁수는 자기가 작업조직을 해놓고도 어리둥절해질 때가 많았다.

아침에 작업량을 정해주면서 하루일감치고는 빠르할거라고 생각했는데 점심때도 되기 전에 벌써 다했다면서 작업과제를 또 달라고 하는 단위가 한둘이 아니였던것이다. 그럴 때마다 그는 기쁨보다도 놀라움이 앞서군 했다. 어떻게 날마다 이런 기적이 생길수 있단 말인가. 공사초기에는 일인당 하루 평균실적이 0. 3m³이였는데 한달이 지난 지금은 2. 5m³이나 3m³까지 해제끼군 한다.

그래서 요즘엔 정신을 차릴수 없었다. 온 공사장이 자기를 필요로 하는것 같아 한시도
가만 앉아있을수 없었다.

그러다가도 하루일을 끝내고 지친 몸으로 자리에 누워서든가 혹은 공사장을
돌아보면서 기림리구간을 지날 때면 애기를 눕혀놓고 혼자서 일하던 녀인의 모습이
기다렸던듯 머리속에 떠오르곤 했다. 애기의 이름이 성학이라는것도 그리고 그가 혼자
사는 녀자라던 리주연부위원장의 말도 잊혀지지 않았다. 제일 잊혀지지 않는것은
공사장에 나오시였던 장군님께서 정혜라는 녀성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고, 지난날에
포로되어있지 말고 생활을 사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혈육의 정으로 말씀하시던
그 순간들이었다. 자기같은 사람도 인간답게 살라고 장군님께서 친부모처럼,
친형님처럼 그렇게 마음써주실줄이야...

이제 와서 행복은 자기의 피할수 없는 운명인듯싶었다. 장혁수는 기회를 봐서 그
녀자를 정식으로 만나 봐야겠다고 생각을 굳히었다. 그 녀자가 맨주먹밖에 없는 자기를
받아주겠는지는 모르겠지만 길고 짧은거야 대 봐야 할게 아닌가. 그런데 그 녀자에게
어떻게 말을 붙여야겠는지 암만 궁리해봐도 신통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 녀자의
립장을 모르고 무작정 찾아가서 혼사말을 꺼낼수는 없었던것이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이런 때는 누가 좀 나서주었으면 좋으련만 누구에게 이런걸 부탁해야 할지
마땅한 책임자가 떠오르지 않았다. 리주연부위원장에게 부탁해볼가 했다가 인침
도리머리를 저었다. 그런 시시한 일을 큰 간부들에게 들고다닌다면 도덕도 모르는
덜돼먹은 놈이라고 비난이나 받을것 같았다. 그러니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이 문제를
덮어두어야 하는가...

그가 병어리 랭가슴 앓듯 혼자서 속을 썩이던 어느날 저녁무렵이었다. 공사지휘부에 올라가 작업실적을 보고하고 현장사무실에 돌아온 그는 제 눈을 의심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 현장사무실마당에 서계시였던것이다.

《주인이 이제야 오는군요.》

《녀사님께서 어떻게?...》

장혁수는 어안이 병병해졌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인자하신 미소를 지으시고 뒤에 서있는 녀인에게 말을 건네시였다.

《아니, 왜들 서로 모르는척 해요? 정혜동무! 어서 와요.》

그때에야 장혁수는 큼직한 보통이를 안고 저쪽에 서있던 녀인을 알아보았다. 성학이
엄마!...

장혁수는 당황함을 숨기지 못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얼빠진 표정을 하고있는 장혁수의 심중을 눈치채지 못하신듯 활달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이번에 시녀맹원들이 현장합숙에 침구류들을 지원했는데 시공책임자동무에게도 하나 차례졌어요. 이걸 정혜동무가 만든건데 꼭 시공책임자동무한테 주고싶다고 해서 이렇게 함께 왔답니다. 어서 고맙다고 인사나 하세요.》

김정숙동지께서는 정혜가 들고있는 큼직한 보통이를 가리켜보이시였다. 그러나 장혁수에게는 고맙다는 인사를 차릴만 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우릴 이렇게 세워만 두겠어요? 어서 방구경을 시켜주세요.》

어머님께서 말씀하셔서야 장혁수는 흩어진 정신을 수습하며 현장사무실로 향했다.
그러는걸 어머님께서 멈춰세우시었다.

《우리가 사무실에 가선 뭘하겠어요? 동무가 침식한다는 방에 가보지요.》

장혁수는 난처한 기색을 지었다. 누구도 관심해준적 없는 거처지였고 그래서
정돈조차 제대로 해놓지 않은 살림방을 어떻게 보여드릴단 말인가.

김정숙동지께서는 허둥거리는 혁수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시었다.

《일없어요. 우린 손님으로 온게 아니예요.》

어머님께서는 장혁수의 사는 형편을 구경이나 하자고 오신것이 아니라 자식의
세간살이를 걱정하는 친어머니의 심정을 안고 찾아오신것이다. 세간난 자식의 집에
손님으로 가는 어머니가 있던가. 따라서 장혁수에게는 김정숙동지가 세상에서 제일
귀한 손님이었지만 어머님께서는 자신을 손님으로 생각지 않으시었던것이다. 그
차이를 어떻게 말로 설명할수 있으랴.

장혁수는 사무실옆에 꾸려놓은 살림방으로 김정숙동지를 안내할수밖에 없었다.
방안에는 홀아비의 궁상스런 생활을 보여주는 직관물들이 여기저기 되는대로
널려있었다. 구석에 처박아놓은 빨래감이며 대강 뭉그려놓은 잠자리며 천정우에서
너울거리는 거미줄이며...

김정숙동지께서는 아픈 마음으로 방안을 둘러보시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었다.
장혁수가 지난날의 함바생활습성을 버리지 못하고있는것을 비판하고싶으시였지만 차마
말이 나가지 않으시었다.

지금 그에게는 무절제한 생활에 대한 비판보다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장혁수라고 왜 이렇게만 살고싶겠는가.

김정숙동지께서는 방청소도 해주고 그래서 이 방안에 온기를 채워주지 않고는 떠날수 없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멀찌감치에서 서성거리는 정혜에게 우정 큰소리로 말씀하시였다.

《정혜동무, 우리 왔던김에 청소랑 빨래랑 해주고 가는게 어때요? 시공책임자동무가 일이 바빠서 방도 제대로 못 거두었군요.》

바빠맞은 장혁수는 얼른 김정숙동지를 막아나섰다.

《이러지 마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머님께서는 벌써 저고리소매를 걷어올리시고 방안에 들어가 빨래감들을 주어드시였다.

《같이 하자요. 혁수동무 천정에 거미줄부터 털어내세요. 난 강에 나가서 빨래를 해오겠어요.》

그때에야 정혜는 보통이를 내려놓고 어머님께 손을 내밀었다.

《빨래는 제가 하겠습니다.》

아마 장혁수와 단둘이서 방청소를 하기가 웅색했던 모양이였다. 어머님께서는 정혜의 심정이 리해되시여 순순히 옷가지들을 넘겨주시였다.

《그럼 수고해줘요.》

방청소를 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어머님께서는 장혁수의 지난 생활의 흔적들을 털어내시듯 노전밑에 비벼끈 담배꽂초부터 시작하여 방안의 구석구석을 쓸고

닭고 하시였다. 큼직한 퀘짜우에 정혜가 가져온 포단을 얹어놓고 바람벽에 못을 박아 옷가지들을 걸어놓으니 그래도 방안이 훨씬 깨끗해진것 같았다. 저 퀘짜우에 이불보까지 산뜻하게 쳐놓으면 한결 더 아늑해질것이다.

어머님께서는 정혜에게 이불보를 하나 떼서 드리우라고 말해줄가 하다가 생각을 고쳐하시였다. 제살림이라고 생각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스스로 해놓을게 아닌가.

청소를 끝내신 어머님께서는 당장 무엇을 더 해줄게 없을가 하고 방안을 두루 살피시며 온화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정혜동문 고생을 많이 한 녀자예요. 결혼해서 반년도 못살고 남편이 징병에 끌려갔는데 반년만에 사망통지서가 왔다더군요. 장동무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난 두사람이 새가정을 못하고 행복하게 살면 더 바랄게 없겠어요.》

장혁수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했다. 자꾸 울고만싶어지는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날은 이미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정혜는 강가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시였다.

《난 먼저 가겠어요. 정혜동무를 집에까지 꼭 데려다주세요.》

《녀사님!》

어머님께서는 조차장다리까지 따라오는 장혁수를 겨우 돌려보내시고 저택으로 향하시였다. 장군님께서 바라시던대로 그들 두사람을 마주세웠으니 발걸음은 한결 가벼우시였다.

며칠전 장군님께서 장혁수와 정혜에 대하여 이야기하신 다음날부터 어머님께서도
 줄창 기림리 녀맹단체에 가서 일하시였다. 그 과정에 정혜와 친숙해지고 설참이면 그
 녀성의 과거사도 들어주시였다. 들을수록 눈물겹고 그래서 더더욱 그의 앞날에
 아름가득 행복을 안겨주고싶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정혜에게 장혁수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내시면서 자신의 감정을
 터놓으시였다.

《장군님께서도 장혁수동무가 하루빨리 새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계신답니다. 난 정혜동무도 혁수동무를 남처럼 생각하지는 않을거라고 봐요.
 그렇지요?》

그것은 사실이였다. 정혜에게는 그날 동생이 못다한 일을 말없이 함께 해주던
 현장책임자가 고마왔었다. 그런데 명덕이가 사실여부를 알지도 못하고 망동을
 부린것으로 해서 일이 복잡하게 번져지는통에 현장책임자를 볼 낮이 없게 되였다.
 더구나 그 일로 해서 현장책임자가 철직된다는 말까지 돌아갈 때 정혜는 그 사람이 자기
 형제들때문에 남의 말밥에 오르는것 같아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을 안고 살아왔었다.
 그때부터는 장혁수가 생판 남일수 없었다. 녀자의 마음이란 그런것이다. 정혜는 고개를
 다소곳하고 자기 생각을 파헤치듯 나무꼬챙이로 땅을 허비며 수줍게 말했다.

《저... 그 사람은 장군님께서도 알고계시는 큰사람인데 저같은게... 그리구... 저한테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머님께서도 노여운 어조로 정혜의 구김살 많은 생활태도를 다림질해주시였다.

《정혜동문 잘못 생각하고있어요. 장군님께서는 정혜동무에 대해서도 알고계신답니다. 그리구 혁수동무는 보통강물란리때 갓난아이를 잃은 사람이예요. 그런 사람이 정혜동무의 아이를 사랑하지 않을것 같아요? 그건 남자들을 욕되게 하는 생각이예요. 정혜동무! 어머니된 금지를 가지세요.》

오늘 정혜는 제손으로 꾸민 포단을 가지고 공사장에 나타났다. 시녀맹에서 합숙침구용포단을 지원하자고 녀맹원들에게 호소했는데 정혜가 만들어온것은 다른것들보다 훨씬 크고 포근해보였다.

《아유... 목화솜만 넣었군요.》

《그 포단이 누구에게 차례지겠는지 복받았다.》

《꼭 첫날이부자리같구만.》

녀인네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하는통에 정혜는 어쩔바를 몰라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정혜의 마음을 읽으시며 미소를 지으시였다. 제손으로 성의껏 마련한 지원품으로 자기의 대답을 대신한 그의 소박하면서도 결단성있는 태도가 마음에 드시였던것이다.

《그렇게 품들여 만들어왔으면 제가 직접 가져다주어야지요. 그럼 일이 끝난 다음에 나랑 함께 가요.》

정혜는 부끄러운지 얼굴을 붉히면서도 알릴듯말듯 고개를 끄덕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지금쯤 호젓한 들길을 나란히 걷고있을 두사람을 그려보시며 걸음을 재촉하시였다.

김정숙동지를 바라우고 돌아온 장혁수는 사무실마당에 선뜻 들어서지 못하고 주춤거렸다. 마당가에서 빨래를 널고있는 녀성의 자태를 알아보았던것이다.

마음같아서는 한달음에 그 여자곁으로 다가가고싶었다. 더구나 장군님과 김정숙녀사께서 자기의 일신상문제를 걱정하고계신다니 이제 와서 행복은 자기의 욕심이기 전에 어쩔수없는 의무로 돼버린것이다.

혁수는 자기의 그 생각에 놀랐다. 행복이 어떻게 의무로 된단 말인가?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였다. 생활은 자기로 하여금 행복하게만 살것을 요구하고있지 않는가. 그렇기는 해도 자기같은 헛털뱅이는 그 여자와 짝이 맞을것 같지 않았다. 자기에게는 그 여자를 행복하게 해줄만 한것이 아무것도 없기때문이였다. 집도 없고 가장집물도 없었다. 당장 자수성가할 방도도 없고 가장의 구실을 할만 한 자신도 없었다.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아무것도 없을수 있을까? 아니다! 그는 아직 많은것을 모르고있었다. 자기같은 사람들의 행복을 담보해주는 인민정권이 있다는것을, 따라서 래일에 대한 희망이 있다는것을, 그것이면 인간의 행복에 필요한것은 다 가지고있는셈이라는것을 의식하지 못할뿐이였다.

어쨌든 혁수는 스스로의 자격지심때문에 그 여자에게 다가서기를 주저하면서 지금은 오직 공사에 대해서만 생각해야 한다고 자신을 납득시키려고 애썼다.

날은 이미 완전히 어두워졌다. 빨래를 다 널어놓고 잠깐 서성거리던 정혜는 혁수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기 무엇한지 이쪽으로 총총히 걸어왔다. 아마 그대로 돌아가려는 모양이였다. 장혁수는 할수없이 인기척을 내며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섰다. 사무실 창문에서 흘러나오는 장방형의 불빛이 마당 한가운데 마주선 두사람을 국부조명처럼 비쳐주었다. 이런 때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그들은 배워두지 못했었다.

여자쪽에서 종시 견디지 못하고 침묵을 깨뜨렸다.

《저… 전 그만 가보겠어요.》

정혜가 발을 내짚을 때에야 장혁수의 입이 열렸다.

《우리… 공사를 끝내고 만나지요.》

그렇게밖에는 말할수 없었던가. 자기를 위해주려는 여자에게 하는 말치고는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정혜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한자리에 굳어져있다가 알릴듯말듯 고개를 숙여보이고 자리를 떴다.

하긴 그 정황에서는 그 이상의 말이 어색하게 들렸을것이다. 무슨 말을 더 하겠는가. 아무리 바빠도 일을 핑계대는건 자신을 속이는 시시한노릇이라고 말하겠는가.

얼음장밑에서 흐르는 겨울의 시내물처럼 생활은 멈춰서본적이 없다고 행악질을 해야 속이 후련하겠는가.

정혜는 그렇게 유식한 말을 할줄도 몰랐고 그럴 생각도 없었다. 정혜는 장혁수의 거친 말투에서 가공되지 않은 진심을 읽었던것이다.

정혜가 큰길에 나섰을 때에야 장혁수는 황황히 여자를 쫓아갔다. 김정숙녀사께서 그를 꼭 집에 데려다주라고 당부하신것도 있지만 밤중에 여자를 혼자 보낼수 없었던것이다.

큰길에 나선 혁수는 저쯤 앞에서 언뜻거리는 흰저고리를 알아보았지만 가까이 다가설 용기는 내지 못하였다. 이제 그 여자곁에 갔다간 길 한복판에서 그를 힘껏 그러안고 억눌러오던 자기의 감정을 깡그리 쏟아버릴것만 같았다. 혁수는 그게 두려웠다. 그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흰저고리를 호위하며 스적스적 걸었다. 자기가 따라온다는걸

모르지 않겠는데 정혜는 한번도 멈춰서거나 돌아보지 않았다. 마치나 그 녀자는 혁수가 자기를 호위해주는것을 당연한것으로 여기는듯싶었다. 그것은 그들 두사람 다 자기들사이의 간격을 의식하지 않았기때문이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나란히 걷고있었던것이다. 서성교를 넘어 기림리에 들어설 때까지 두사람의 거리는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장혁수는 혼자서 공사장으로 돌아오면서도 그날만은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

정혜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기뒤를 따라오는 장혁수의 존재에 마음쓰면서도 멈춰서거나 걸음을 늦추지는 못했다. 생각이 온통 뒤에만 가있다나니 하마트면 집앞을 지나칠번 했었다. 집이라는데 즐거움을 모르고 살아온 제 팔자를 신통히도 알아서 고삭은 밀짚이영을 뒤집어쓴채 웅크리고앉은듯싶은 단칸초가집이었다.

요즘엔 문수리에 사는 친정아버지가 몸이 불편해서 여기에 와있었다. 늘쌍 공사장에 나가사는 명덕이보다는 제손으로 아버지 병구완을 해드리는게 나을것 같아 며칠전에 자기가 우정 모셔왔었다. 아버지가 집에 계시면서 성학이도 봐주기때문에 정혜로서는 편리한 점도 없지 않았다. 정혜는 서둘러 삼작문을 밀며 소리쳤다.

《성학아, 엄마왔다.》

그런데 방문을 여는것은 동생 명덕이었다.

《왜, 이제 오우?》

《응? 그저...》

아버지도 안심치 않은지 한마디했다.

《아낙네가 밤중에 다니면 못써.》

정혜는 우물우물하다가 말머리를 돌렸다.

《온지 오랬니?》

《응, 아버지도 없는 집에 가기도 싫구 해서...》

《잘했다. 내 얼른 저녁해줄게.》

《밥은 내가 했어. 성학이는 먼저 먹었어.》

《그래?》

아들애는 할아버지곁에서 쉼쉼 단잠에 들어있었다. 부엌에 들어서니 정말 저녁준비가 다 돼있었다. 정혜는 동생에게 동자질을 시킨것이 미안스러웠다. 그는 얼른 밥상을 챙겨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저마끔 말없이 숟가락을 놀렸다. 정혜의 마음은 여전히 자기가 오던 길을 헤매고있었다.

(그 사람이 인젠 현장사무실까지 갔을가? 아직 못 갔을거야. 조차장다리쯤 갔을가?)

《누이, 무슨 생각을 해?》

눈길을 들어보니 아버지도 명덕이도 숟가락을 멈추고 자기를 바라보고있었다.

《응? 아무것도 아니야.》

정혜는 당황한김에 얼른 밥그릇우에 머리를 숙였다. 그러나 조금후에는 또 장혁수에 대해 생각했다. 무슨 호위병처럼 십리 남짓한 길을 말없이 따라왔던 그 사람의 시커먼 형체가 도무지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었다. 그것만 봐도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게 틀림없었다.

《너 아무래두 무슨 일이 생긴게로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 정혜는 와뜰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자기를 유심히 바라보고있는 아버지와 명덕의 눈길과 또 부딪쳤다.

《아니예요. 일은 무슨...》

저녁설것이를 끝낸 정혜는 토방에 나와앉았다. 혼자서 생각에 잠겨있고싶었던것이다. 잠시후에 명덕이 방문을 열고 나왔다.

《누이, 무슨 일이 있었지?》

《아니라는데...》

정혜는 아직 자기의 마음을 누구에게도 헤쳐보이고싶지 않았다. 그런데 생각과는 달리 종시 참아내지 못했다.

《너 현장책임자 알지?》

《응.》

《아직도 그 사람 원망하니?》

《그건 왜 물어?》

《글쎄 대답해봐.》

정혜는 초조한 눈빛으로 명덕을 바라보았다. 그 녀자에게는 앞날의 행복을 결정하는데서 현장책임자에 대한 동생의 견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던것이다. 그럴수밖에 없는것이 장차 한집안식구가 되여야 할 사람들사이에 어떤 원한을 품고있다면 이 문제는 더 생각해볼 여지가 없지 않겠는가.

명덕은 애절한 빛이 떠도는 누이의 얼굴을 한참 쳐다보다가 비로소 깨도가 되는지 단마디로 대답했다.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정혜의 얼굴에는 조마조마하던 표정대신 가벼운 홍조가 피어올랐다. 그 녀자는 저도모르게 호-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며 조용히 미소를 머금었다. 찍하면 속을 태우고 우둘령거리기 잘하는 오랍동생에게 그때처럼 애뜻한 정을 느껴보기는 처음인듯싶었다.

정혜는 부엌에 들어가 아껴두었던 밀가루를 퍼냈다. 동생이 좋아하는 지짐이라도 지져주고싶어서였다. 어쨌든 오늘 저녁은 정혜에게 레사로운 보통날 저녁이 아닌것이다.

《풍구를 좀 돌려라.》

동네는 고요한 정적속에 잠겨있었다. 사방에서 풀벌레 우는 소리만 들려오는 태평스러운 여름밤이었다. 지짐판에서는 기름이 뽀질뽀질 타며 고소한 냄새를 마당에 풍겼다. 정혜는 머리를 수긋하고 풍구를 돌리는 동생에게 참지 못하고 또 물었다.

《너 정말 그 사람 좋은 사람으로 보니?》

《응.》

《그건 왜?》

명덕이 풍구를 멈추고 얼굴을 들었다.

《그 사람이 **김일성**장군님과 친하다는거 알지?》

《친하다기보다는... 하긴 **김일성**장군님께서 착공식때 쓰시던 삼을 그 사람에게 주었다니까...》

《그게 친한거지.》

명덕은 다시 풍구를 돌렸다. 그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하는 태도였다. 한참 풍구를 돌리던 명덕은 제법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그리구 그때 일은 확실히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 내가 나쁘다고 사실대로 옥해주는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지. 안 그래?》

그리고는 씩 웃었다. 투박스럽기는 해도 솔직한 말이었다.

정혜는 혈육의 따스한 눈길로 동생을 바라보며 나직이 속삭였다.

《명덕아, 고맙다.》

《고맙긴... 제 행복은 제가 챙기겠어. 아, 지짐탄다.》

48

오늘은 1단계공사를 결속하고 새 통수로를 여는 날이었다. 공사장은 온통 사람천지였다. 각 단체돌격대와 리민돌격대가 총출동하고 법률학교, 광성중학교, 평양농업학교 학생들, 무소속으로 지원나온 사람들이 공사장을 한벌 덮었다. 이날은 공사가 시작된 이래 최고의 동원인원수를 기록한 날이었다. 사람이 많은것만큼 일하는 방법도 각양각색이었다. 들것, 목고, 질통, 밀차, 목조기중기... 농민들은 소달구지를 몰고나왔고 상인들은 세바리짐자전거까지 끌고나와 흙을 날랐다. 공사장의 곳곳에 기발이 나뭇기고 《하루빨리 애국제방을 쌓자!》, 《건국은 우리의 힘으로!》 등의

구호들이 사람들의 발걸음에 힘과 물동을 더해주었으며 현장방송까지 설치되어 공사장분위기를 돋구어주었다.

대타령리 건국로력대원들은 현장방송에서 자기들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잠시 일손을 멈추었다.

《대타령리 건국로력대원들은 아침일찍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오전 열한시 현재 하루책임량을 넘쳐수행하고도 통수식을 앞당기기 위하여 계속 혁신하고있습니다. 특히 정용주, 리창화, 최인수를 비롯한 많은 대원들이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뒤떨어진 사람들의 몫까지 도와주고있는것은 해방조선의 건국투사들의 일본새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분들을 애국자라고 높이 자랑합니다. 모든 건설자들은 이들의 불타는 애국심을 본받아 1단계공사의 마지막돌격전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워나갑시다. 그럼 대타령건국로력대원들의 작업성과를 축하하여 삼천리악단에서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삽질을 하던 갱깃한 중년남자가 주독이 오른 코마루를 버릇처럼 매만지며 방금 이름을 부른 사람을 부럽게 바라보았다.

《창화형님은 좋겠수다. 방송에 이름이 나와보기는 난생처음이지요? 애국자라는게 어디 간단한 말인가요? 예전에 이등박문을 쫓죽인 안중근이나 같다는 소린데...》

나이지숙한 사람이 웃는 얼굴로 통을 놓았다.

《그러게 임자도 애국자란 말 듣고싶으면 더 열성적으로 일하란 말이야. 밤새 막걸리동이나 안고있지 말구.》

중년사내는 그 말을 탓하지 않았다.

《그래야지요. 일을 많이 해서 우리 세상을 빨리 만들어놔야 나같은 인민두 막걸리랑 마음대로 마시면서 잘살수 있지요.》

창화라는 사람이 씨물씨물하며 중년을 시까슬렀다.

《체체... 제까짓게 무슨 인민이야? 주정뱅이지.》

《주정뱅인 뭐 인민이 아니요?》

《어림없지. 주정뱅인 그저 백성이라고 해.》

그 말에 중년은 어지간히 약이 올라 창화라는 사람을 쏘아보다가 가슴을 쑥 내밀며 결론했다.

《나두 인민이우다!》

그리고는 울퉁뿔을 고스란히 삽자루에 옮겼다.

주위에는 즐거운 웃음판이 터졌다.

리주연은 이른아침부터 공사장 전구간을 다람쥐 채바퀴 돌리듯 하느라 다리쉽 한번 해보지 못했다. 통수식을 앞두고 그는 몹시 흥분되어있었다. 1단계공사를 마감짓는데서 기본은 10m너비에 7m깊이의 배수로작업을 완성하는것이였다. 일단 강물을 돌린 다음에는 배수로를 깊이 파는 작업을 할수 없기때문이였다. 그래서 처음에는 통수식때까지 배수로파기를 다그치자고 호소하군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통수식날이 다가올수록 건설자들의 자각적열성이 점점 높아졌던것이다. 우선 하루로력동원수가 눈에 뜨이게 많아지고 소기계화를 비롯한 창발적인 작업방법들이 도입되어 공사속도가 빨라졌다. 예전에는 오후 서너시쯤이면 하루과제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기때문에 공사장이 텅 비다싶이 했는데 지금은 그날책임량을 다하고도 날이

어두워서야 작업장을 떠나곤 했다. 임성민네 돌격대원들은 달이 밝다고 야간작업까지 했었다. 공사초기에는 일인당 하루실적이 반립방정도였는데 이제는 보통 세립방이상씩 해제끼곤 한다.

어제 리주연은 장군님께 통수식과 관련한 문제들을 보고드리면서 자기의 놀라움을 덧붙여 말씀올렸다.

《저는 요즘에 대중의 힘이 무궁무진하다는 그 말씀의 참뜻을 새롭게 느끼곤 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평양곡산공장돌격대원들은 하루작업을 끝내고도 야간작업을 했는데 한사람당 다섯립방의 토량을 처리했습니다.》

장군님께서도 놀라시었다. 놀라신만큼 기쁨도 곱절 크시었다.

《다섯립방?!... 대단하구만. 정말 기적이에요!》

어제날 력사밖으로 밀려나있던 평범한 인민대중이 그 위대한 기적의 창조자인것으로 하여 그이께서는 더없이 기쁘시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리주연에게 공사속도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건설자들의 생활조건을 잘 보장해줄데 대하여 곱씹어 강조하시었다.

통수시간이 다가올수록 건설자들의 사기는 더욱 높아갔다. 오늘하루 배정받은 정력을 말끔히 소비하려는듯 건설자들은 질통이 넘쳐나게 흙을 지고 달리고 또 달린다. 리주연은 서성리작업장에서 달구지에 듬뿍들퍼 흙을 퍼올리는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그들속에는 오성재도 섞여있었다.

《이게 몇탕째입니까?》

이른아침에 달구지를 몰고나온 토성랑의 리재익농민이 허리를 펴며 대답했다.

《일곱탕째올시다.》

《그러면 벌써 서너립방 제깁셈이군요. 하루에 열립방은 문제 없겠습니다.》

《열립방이야 더 해야지요. 우리 토성랑사람들이 마음편히 사는 일인데 우리가 앞장서는거야 응당하지요.》

《지금은 농번기인데 바쁘지 않습니까?》

《일없수다. 통수식이나 한 다음엔 며칠동안 김매기를 와닥닥 해제끼고 또 나와야지요. 그런데 총책임자어른!》

리재익은 정색해서 리주연의 앞에 다가섰다.

《오늘 통수식때 **김일성**장군님께서 나오시는가요?》

누구나 다 알고싶어하는 문제를 리재익이 먼저 꺼낸것이다. 주변의 사람들은 일손을 멈추고 긴장한 눈길로 리주연의 입을 바라보았다.

리주연은 그들을 실망시키고싶지 않았지만 사실대로 말해주었다.

《장군님께서는 어제 저녁에 지방현지지도를 떠나시였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아쉬워하는 표정이 동시에 떠올랐다. 리재익농민은 모두가 들으란듯이 위안삼아 한마디 했다.

《하기야 장군님께서 온 나라 정사를 다 보실래기 바쁘시겠는데 어떻게 시간을 내시겠소. 우리 미련한것들이 괜히 욕심을 부리는거지요.》

《아닙니다.》

리주연은 리재익농민보다 더 크게 말했다.

《장군님께서는 떠나시면서 오늘 통수식때 여러분들이 물머리를 돌리는 장면을 기록영화와 사진으로 잘 찍어두라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꼭 보시겠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드디어 통수시간이 되었다. 건설자들은 배수로에서 일손을 떼고 새로 쌓은 댐쪽제방우에 하얗게 늘어섰다. 공사를 시작하여 26일째되는 이날까지 건설자들은 공사총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토량을 처리하였다.

리주연은 공사지휘부 일군들과 함께 배수로 웃머리에 서있었다. 그는 흥분으로 떨리는 손에 삽자루를 틀어쥐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다.

수수백년 제멋대로 흐르던 보통강이 오늘로써 인간의 무한대한 힘앞에 굴복하고 공손히 방향을 바꾸게 된것이다. 오랜 세월 무질서한 대자연의 희생물로 불행과 고통을 당해오면서 무기력한 존재로 낙인찍혔던 그 인민들이 질통과 목고로 자연과 싸워 이긴것이다.

《시작합시다.》

리주연은 물목에 삽날을 지그시 박고 폭 뚫어 넘겼다.

지휘부일군들도 삽을 들었다. 리주연은 주변에 모여서서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건설자들에게 갈린 소리로 웨쳤다.

《여러분들도 다같이 제깍시다!》

그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모두들 와- 하고 달라붙었다. 삽이 없는 사람들도 손으로 흙덩이를 날랐다. 잠간새에 막혔던 물목이 터졌다.

처음에 줄줄 흐르던 물은 점점 물목을 넓히면서 팔팔 쏟아지다가 마침내는 와와 사품치며 흘러내렸다. 그래도 사람들은 물속에서 나오려 하지 않았다. 서로 웃고 떠들며 하늘공중 물보라를 휘뿌려올리는가 하면 옷을 입은채로 아예 풍덩 주저앉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제는 보통강이 불행을 주지 않을것이다. 만약 보통강때문에 울어야 한다면 그것은 행복과 기쁨의 눈물일것이다. 누가 먼저 선창을 댄는지 《만세!》의 함성이 오래도록 공사장을 뒤흔들었다.

그날은 1946년 6월 15일이였다.

49

쏘련군 전권대표 슈띠꼬브대장은 자기 방에 앉아서 최근 주목되는 정세들을 더듬어보고있었다. 그중에서도 이틀전 서울의 좌익계에서 시민대회를 소집하고 쏘미공동위원회를 하루빨리 재개할것을 요구한 소식은 그의 머리를 무겁게 해주었다.

미국측의 생억지로 공동위원회가 무기휴회에 들어간지도 벌써 한달이 훨씬 넘었다. 대국의 수석대표로서 나라의 통일을 그토록 절절히 바라는 조선인민앞에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평양으로 돌아오던 때의 미안함은 아직도 그의 가슴속에 빛으로 남아있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서울소식을 듣고보니 자기가 그 빛을 물게 될 기회가 온것만 같아 자연히 생각도 많아진것이다. 슈띠꼬브는 머리를 돌려 철함옆에 세워놓은

모시통구리에 눈길을 주었다. 서울에 나가있을 때 통일을 소원하는 한 조선녀인이 그에게 선물한 것이었다.

그런데 현시점에서 내가 과연 그때 그 녀인이 기대한바대로 그 막중한 책임을 다해낼수 있을까?

슈띠꼬브는 스스로 제기한 그 물음에 자신있게 대답할수 없었다. 시민들이 시위나 한다고 조선에 대한 미국의 립장이 달라지겠는가. 지구상에서 사회주의국가가 생겨나는것을 그렇게도 두려워하는 미국이 이제와서 태도를 바꾸지는 않을것이다. 만약 조선문제에서 미국의 립장이 변하지 않는다면 내가 할 일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문기척소리가 나더니 부관이 조심히 들어왔다.

《무슨 일이요?》

부관은 차렷자세로 앞에 다가와서더니 북조선공산당기관지인 《정로》신문을 한장 내밀었다. 슈띠꼬브는 의아한 눈으로 부관을 바라보았다. 자기가 조선글을 모른다는것을 부관은 알고있었던것이다. 부관은 서류철에서 로어로 타자친 종이 한장을 신문우에 덧놓으며 보고했다.

《어제 보통강개수공사장에서 통수식을 진행한 보도기사가 실렸습니다. 전권대표동지께서 관심하시는 대상이기때문에 그 기사를 따로 타자했습니다.》

슈띠꼬브는 부관의 말을 리해하지 못했다. 말을 리해 못했으니 처음엔 놀라지도 않았다.

《이자 뭐라고 했소?》

부관은 방금 한 말을 반복했다.

순간 슈띠꼬브는 흠칫하며 상체를 뒤로 제꼈다.

술진 눈섭이 당장 날아날듯 꿈틀하며 꼬리를 쳐들었다가 잠시후에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럼... 공사가 벌써 끝났다는거요?》

《그런건 아닙니다. 1단계공사만 끝냈는데 어쨌든 물길은 돌렸다고 합니다.》

슈띠꼬브는 제앞에 놓여있는 《정로》를 성급히 끌어당겼다가 그중에서 로어로 타자친 종이장만 집어들었다. 큼직하게 확대된 기사제목이 그의 눈앞으로 육박해왔다.

보통강개수공사특보

《통쾌! 통수만세!

통수-민주주의조선의 발원지인 대평양을 수침의 위협으로부터 방비하는 보통강개수공사는 이 감격의 통수로써 절반이 완성되었다. 통수가 됨으로써 평양은 수침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으며 따라서 공사의 진행을 아니꼽게 노리는 민족반역자, 친일주구배 등 반동분자들의 코잔등을 찍어놓고만것이였다.

...

방향을 전환하는 옛 강물은 이 순간에 새 물길을 찾아 꿈틀거리고 7m깊이로 되어있는 배수로는 새 주인-강물을 맞으려고 대기하였다. 건설대원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배수로 웃머리 좌우에 늘어섰다. 기록영화촬영기, 각 신문사 사진반들의 촬영기들은 이 역사적인 화폭을 영원히 기록하고자 대기하고있었다.

오후 5시 30분 평안남도인민위원회 리주연부위원장과 공사지휘부일군들이 새 통수로의 물머리를 헐었다. 그에 뒤따라 대동군인민들과 건국로력대원들이 웃고 떠들며 손으로 물목을 터치자 강물은 꿈틀거리며 새길로 힘차게 흐른다. 만세! 보통강통수 만세!》

슈띠꼬브는 한동안 생각에 잠겨있다가 다급히 송수화기를 들었다. **김일성**동지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지 않고서는 이 모든것을 사실로 믿을수 없었던것이다.

그런데 장군님의 집무실은 비어있었다. 그는 힘없이 송수화기를 내려놓고 기사를 다시 더듬어내려갔다.

과연 그럴수 있을까. 공사가 시작된지 한달도 안됐는데 벌써 통수식이라니...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옷걸개에서 모자를 벗겨들었다. 아마해도 제 눈으로 보지 않고는 견딜수 없었던것이다.

《나가보자구.》

잠시후에 슈띠꼬브의 승용차는 서평양조차장다리를 넘어섰다.

그는 공사장의 전경이 바라보이는 곳에 차를 세웠다. 그리고 환상적인 현실앞에서 말없이 굳어져버렸다.

그는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곳에 와본적이 있었다. 그때는 분명 허허벌판뿐이었다. 그 벌판 한가운데로 구불구불한 강줄기가 아무런 통제없이 태평스레 흐르고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서 솟아났는지 일직선으로 뻗은 제방이 눈앞에 펼쳐져있었다. 이럴수가 있을까? 이런걸 두고 신의 기적이라고 하는가.

강바닥과 제방에서는 흰옷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있는데 눈짐작으로도 두개 사단인원은 될것 같았다. 그러니 분명 신의 행위는 아니다. 하다면...

슈띠꼬브는 입을 꼭 다물고 차주위를 오락가락하며 보통강개수공사문제로 김일성동지와 나누던 대화를 상기해보았다.

그때 자기는 보통강개수공사를 조선사람의 힘만으로는 할수 없다는 견해였고 김일성동지께서는 할수 있다고 믿으시였었다. 자기는 정치의 본질을 폭력의 은폐된 형태 즉 정권장악을 위한 권력으로 보았고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대중의 리익을 지켜주고 그들을 자주적존재로 내세우는것이라고 주장하시였다. 그 대화가 있는 후 슈띠꼬브는 암만해도 강건너 불보듯 할수 없어 소련정부에 굴착기를 다문 몇대라도 보내줄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오늘까지도 아무 소식이 없었다. 하긴 쉽지는 않을것이다. 조국에서도 전쟁의 후과를 가시기 위해 할 일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리고 독립을 쟁취한 동유럽의 형제나라들을 돌봐주어야 할 책임까지 걸머지고있는 조국이다. 바로 한주일전에도 소련과 유고슬라비아사이에 경제원조협정이 조인되였다.

너도나도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판에 유독 북조선에서만은 자체의 힘으로 나라를 일떠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눈앞에 펼쳐보이고있다. 그럴수록 하나라도 더 도와주고싶은데 오히려 얼마전에도 소련군포의 람발과 적산이양협정문제로 김일성동지로부터 심각한 의견을 받았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것이 북조선경제와 인민생활에 부정적영향을 끼치고있는데 대하여 원칙적립장에서 맏짜게 지적하시였다.

슈띠꼬브는 이제부터라도 북조선을 진심으로 도와주고싶었다. 전대미문의 기적이 코앞에서 일어나는줄도 모르고 대국의 전권대표라는 사람이 구경군처럼 앉아있다가는 남들의 웃음거리로 될것 같았다. 그런데 무엇을 도와주어야 하는가?

슈띠꼬브의 마음속에는 문득 자기가 그토록 희망을 걸고있는 쏘미공동위원회도 북조선에 별로 도움이 못될것 같은 회의심이 갈마들었다.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보통강개수공사를 제힘으로 해제끼는것만 봐도 북조선은 당당한 자주독립국가의 자격을 갖추고있으며 따라서 그 어떤 보모의 보살핌이 필요없다는것을 증명한셈이다.

(그러니 지금상황에서 내가 조선인민을 도와줄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슈띠꼬브는 괴로운 마음으로 아까와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반복하였다. 그래도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눈앞에 보이는 제방이 그의 입을 열어불게 했던것이다.

50

보통강통수에 대한 소식은 구진배의 심기를 몹시도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소식을 안고온 로이문의 존재도 잊고 혼자 생각에 잠겼다.

도대체 인간이란 어떤 신기한 존재이길래 예전같으면 몇년씩 걸려야 할 공사량을 한달도 안되는 기간에 절반이나 해제졌단 말인가.

《인간이란 쉽게 변하지 않는 동물이다. 같은 인간들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는 조건에서 암만 때려문다 해도 10년동안에 못한 일을 두달동안에 해제낄수 없다.…”》

이 말은 자기가 떠나올 때 하지중장이 한 말이였다. 자기도 그렇게 믿었다. 그래서 슬슬 류언비어나 퍼뜨리면서 장마철까지 공사를 지연시키면 된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천지조화로밖에 설명되지 않는 기적이 일어날줄이야… 더 놀라운것은 그 기적의 창조자들이 자기가 무지렁이로 치부해오던 오성재와 같은 보통벌사람들이라는것이였다.

구진배는 기적적인 공사속도에 경악을 금할수 없었고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데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수 없었다. 해방전엔 돈을 받고 일하면서도 느렁뱅이처럼 움직이던 사람들이 어째서 지금은 돈 한푼 못 받으면서도 흙 한삽이라도 더 나르려고 뛰어다니는가? 이게 다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달라지리라고 계산하지 못한 하지의 과오였고 자기의 잘못이였다.

떠나던 날 아버지가 하던 말이 생각났다.

《공산당이 보통강토목공사를 주관해서 백성들이 그 덕을 보면 저희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지켜보겠다구 기를 쓰고 덤빌텐데 그럼 우린 영영 제땅을 못 찾아!》

아버지가 옳았었다. 누구에게나 자기의것은 소중한 법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발을 사려무는 법이다. 백성들도 나라의 주인이라는 강심제를 맞고 너도나도 장수가 되었으니 제 보금자리를 제손으로 꾸리고 제힘으로 지키는데서 기적을 창조할수밖에 없을것이다. 그러니 맑스라는 령감이 계급투쟁의 불가피성이라는 리론만은 정확히 명중한셈이다.

구진배는 자기도 자기의것을 되찾기 위해 일어서야겠다고 다짐하였다. 개도 자기에게 차례진 뼈다귀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으르렁거리는데 하물며 사람이야...

지금까지는 장마철전에 이 공사를 끝내지 못할줄만 알고 로이문과 서재골 무당집 아들같은 작자들이 쏠라닥질을 하게 했는데 이제는 자기도 용사가 되어 나서야 했다.

밤이 이슬한 뒤 구진배는 로이문과 함께 그의 집을 나섰다.

《조심하세요.》

로이문의 처 춘미가 대문을 잠그려고 따라나와서 제 서방에게 하는 소리였다. 구진배는 기분이 언짢아졌다. 그래도 로이문에게는 신상을 넘려해주는 계집이라도 있지만 자기는 죽건살건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을 개밥의 도토리신세라는 생각에 마음이 서글퍼졌던것이다. 허나 그것도 한순간이고 이따위 감상적인 기분에 젖어있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온몸에 광기가 더 살아나는것 같았다. 《가자!》 그는 신경질적으로 내뱉고 품안의 권총을 더듬어보며 어둠속으로 녹아버렸다.

서성교근방에 와서 로이문을 서재골 무당집으로 보내고 자기는 아래토성랑으로 향했다. 오성재네 움막을 찾아가는 길이었다. 구진배가 오늘 밤 거사에 오성재를 끌어들이려는것은 제판의 타산이 있기때문이었다.

《공사에 필요하다면야 가야지요. 그런데 무슨 일이지우?》

오성재는 구진배에게 본능적인 경계심을 품으며 물었다. 오성재 생각엔 공사를 반대하던 사람이 어째서 한밤중에 찾아와 공사일을 도와달라고 하는지 선뜻 납득되지 않았던것이다.

《아, 나도 그새 시인민위원회 토목과에 한자리 잡았지요. 아무래도 이북에서 살아가려면 나도 건국을 해야 할게 아니요. 고장난 전동기를 오늘 밤중으로 수리소에 실어가야 래일중으로 고칠수 있단 말이우다. 달구지를 얻을수 있겠지요?》

《글쎄... 꼭 써야 한다면야...》

오성재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딱히 거절할만 한 구실도 없었다. 그래도 자기를 생각해서 돈도 주고 구문선의 빚문서도 전해준 사람이 부탁하는건데 무작정 안 가겠다고 할수야 없지 않는가. 더구나 공사장일이라는데...

세상리치를 자기처럼 두리몽실하게만 대해오던 오성재에게는 이 사탄의 무리가 얼마나 나쁜 놈인가를 판별할 계급적안목이 없었다. 그는 더이상 묻지 않고 소달구지를 얻어가지고 구진배를 따라나섰다. 구진배가 달구지와 함께 현장에 도착하니 벌써 로이문과 무당집 아들이 전동기의 고정틀나사를 다 풀어놓고있었다.

《어떻게 됐는가?》

《준비됐수다.》

구진배는 태연하게 분부했다.

《달구지를 이쪽에 들이대오. 소리를 내지 말고.》

오성재는 더럭 의심이 들었다. 소리는 왜 내지 말라고 하는가? 좋은 일을 하면서 왜 도적고양이처럼 조심하는가?

그는 지금껏 공사장에서 반동들의 책동을 경계하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자기와는 상관없는것으로 생각해왔었다.

(혹시?...)

오성재는 깨름한 생각을 감추지 못하고 우정 큰소리로 물었다.

《그런데 이걸 왜 밤에 날라가는거요?》

《렁감! 조용하라는데...》

《글쎄 왜 도적놈들처럼 이러는가 말이우다?》

어둠속에서 두런두런 하는 말소리를 들었는지 공사장을 순찰하던 보안서원의 전지불이 이쪽으로 향해졌다.

《거 누구요?》

《젠장!》

전동기를 훔쳐가려던 계획이 틀어지자 줄개들은 전동기틈새에 흙모래를 쓸어넣었다.

《이게 무슨짓들이요?》

구진배는 오성재에게 총구를 겨누었다가 생각을 고쳐하고 전지불을 목표삼아 뒤방 갈졌다.

평화롭던 공사장에 처음으로 울린 총성이었다.

땅! 땅!

구진배는 제 먼저 돌파서면서 소리쳤다.

《뛰라!》

총소리에 와뜰 놀란 황소가 구진배의 명령을 알아듣기라도 한듯 화닥닥 뛰쳐달아나는 통에 그는 하마트면 소발통에 채울번 했다. 줄개들도 달구지를 멘 황소와 달리기경주를 시작했다.

《서라!》

날카로운 고함소리에 잇달아 보안서원이 쏜 총알이 구진배의 귀뿌리를 스치며 지나갔다. 극도의 공포감을 안고 구진배는 숨이 턱에 닿아 내달렸다. 오성재는 보안서원이 달려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와들와들 떨기만 했다.

자정이 훨씬 넘어 로이문의 집에 들어박혀서야 구진배는 자기가 살았다는것을 느낄수 있었다. 전동기를 훔치지는 못했지만 대신 총성을 울리고 오성재를 현장에 내버렸으니 전혀 소득이 없는것은 아니었다. 달구지를 끌고왔던 오성재는 입이 있어도 반동들과 결탁되었다는것을 부인하지 못할것이다. 오성재는 법대로 처리될것이고 그것이 공사장에 주는 영향은 자못 클것이다. 공산당은 자기가 주인으로 내세워준 백성에게 뺨을 맞은셈이니 암만 부처님같이 자비로운 공산당이라도 배신감에 격분할것이고 그렇게 되면 무자비한 독재를 실시할것이다.

잠시후 구진배는 자기가 오늘의 실패를 억지로 합리화하려 한다는것을 깨달으며 쓰겁게 웃었다. 공산당의 지지기반이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것을 알기때문이였다.

그날 밤 구진배는 버취의 지령을 무전으로 받았다.

《제방을 폭파할것.》

버취는 서울에 앉아서도 보통강개수공사장의 기적을 다 알고있는게 분명했다. 그러니 민심파괴가 실패한 현시점에서 유일하게 남은 방도는 물리적파괴뿐이였다.

결국 오늘일은 공사장에 보내는 마지막경고장과 같은셈이였다. 그는 로이문에게 폭약구입을 재차 강조했다.

51

김일성동지께서는 어제 밤 일어난 사건을 리주연에게서 보고받으시었다.

《오성재라구?》

너무도 낮익은 이름이었다. 그럼 오성재가 반동이란 말인가? 그가 땅을 안
가지겠다고 한것도 토지개혁을 혼란시키기 위한 고의적인 행동이었단 말인가?
정근식의 로력동원증문제도 그런 각도에서 봐야 한단 말인가?

장군님께서는 왕청같은 결론이 나오는 바람에 절로 허거픈 웃음을 터치시었다.

《주연동무는 이 문제를 어떻게 봅니까?》

리주연은 미리 생각했던대로 말씀드렸다.

《본인의 말을 들어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반동놈들의 흉책에 말려든것이 분명합니다.
공사속도에 겁을 먹은 반동들이 일부 각성되지 못한 사람들을 리용하여 대중을
인민정권으로부터 리탈시키려고 책동하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리주연은 그 다음말에 자신이 없는지 좀 머뭇거리다가 다시 뒤를 이었다.

《그러나 리유는 어떻든 현행범으로 붙잡혔기때문에 무죄로 인정하기도 힘듭니다. 더
엄중한것은 보통별대지주 구문선이로부터 해방전 빚문서와 함께 많은 현금을 받은
사실입니다. 본인의 진술에 의하면 한달전에 서울에서 들어온 반동놈으로부터
전달받았는데 어제 밤 사건의 주범이 그놈이었다고 합니다.》

《보시오. 땅과 공장을 빼앗기고 달아난 농들은 제놈들의 세상을 되찾을 야망을 포기하지 않고있습니다. 공사지휘부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제기된 문제가 복잡하기때문에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았으면 합니다.》

《주연동무, 그 농민을 믿을바에는 끝까지 철저하게 믿읍시다. 그 농민이 고의적으로 나쁜짓을 하지 않았다는게 확실한 조건에서 현행범이니 무죄니 하는 형법상의 술어를 쓰는것조차 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 농민에게 우리가 어떤 법적처벌을 준다면 오히려 반동놈들을 도와주는것으로 될것입니다. 우리는 백두산시절에 일본놈들의 강요에 못이겨 사냥군으로 가장하고 밀영에 들어왔던 사람도 로자까지 주어서 고스란히 돌려보내군 했습니다.》

장군님의 명백한 결론에 리주연은 머리가 거뜨해졌는지 빙그레 웃기까지 했다.

《알겠습니다. 사실 공사장에서는 건설자들의 격분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반동놈들과 같이 밀려다닌 놈도 반동이나 같다면서 오성재를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고 으웁니다.》

《그럴수 있지.》

장군님께서서는 만년필로 책상을 다독이시다가 자리에서 일어서시였다.

《우리는 이번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계급적각성을 더 높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물론 오성재농민이 오늘은 비록 원쑤를 가려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변함없이 믿고 사랑한다면 래일에는 반드시 새세상의 주인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다할것입니다. 인민에 대한 믿음에서는 절대로 한계점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무슨 힘으로 새 나라를 건설하겠습니까?》

장군님께서는 자신의 심중을 피내시다가 양복안주머니에서 오성재의 토지소유권증서를 꺼내드시었다. 지난 두달동안 품속에 소중히 간직해오시던 증서였다.

《난 이 증서를 보통강개수공사가 끝나는 날 본인에게 돌려주자고 했었습니다. 그 땅이 다시는 수해를 받지 않는다는게 확실해진 다음에 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돌려주어야 할것 같습니다. 주연동무가 이걸 본인에게 전해주시오. 이제는 새 통수로가 완성돼서 물길을 돌렸으니 안심하고 농사를 지으라고 하시오. 그리고 다시는 반동놈들의 피임에 넘어가지 말고 인민정권을 믿으라고 하시오.》

리주연은 언제 한번 단 한순간도 인민이란 존재에 대해 실망해본적이 없으시는 장군님의 하늘같은 도량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새롭게 음미해보았다.

《그리구 내 잊을번 했는데 그때 우리가 만났던 정근식이라는 사람이 공사장에 나오니까?》

리주연은 까마득히 잊고있던 정근식이란 이름을 장군님께서 상기하시자 얼굴을 붉혔다.

《그후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시오. 그리구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다시 찾아가보시오.》

왜 그래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으셨지만 리주연은 잘 알고있었다.

장군님께서는 다시 의자에 앉으시며 리주연에게 1단계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낸 기세를 늦추지 말고 2단계공사를 진행할데 대해 말씀하시었다.

《올해 일기조건을 보면 장마를 서두르고있습니다. 그것도 례년에 없는 큰 장마가 질것 같은데 그전으로 2단계공사를 무조건 끝내야 합니다. 그러자면 시내 공산당원들과

시민들을 다시한번 대중적돌격운동으로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우리는 1단계공사에서 양양된 대중의 열의를 총발동하여 7월말까지 예견했던 이 공사를 7월 15일까지 끝내야 합니다. 평안남도인민위원회에서는 공사를 앞당겨끝내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을 평양시당과 시인민위원회 일군들과 잘 토론해보시오.》

《알았습니다.》

×

흐릿한 날씨였다. 하늘에는 구름층이 두텁게 드리워있어서 해가 어디바루쬘 떠있는지도 알수 없었다. 오성재는 시간가는줄 모르고 보통강변의 자기 밭머리에 앉아있었다. 이제는 수수대가 어깨를 넘게 자랐다. 비료를 얼마 치지 못했는데도 땀흘려 가꾼 덕인지 본래 땅이 좋아서인지 시퍼렇게 독을 쓰며 하루가 다르게 크는데 특별히 실한 수수대들은 오성재와 키를 다투며 바람에 설렁대고있었다.

봄에 이 땅을 가꾸기 시작할 때만 해도 장마걱정이 마음 한구석에 없지 않았는데 이제는 물길을 돌렸으니 올해의 풍작은 먹어놓은거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자기는 미련하게도 이 땅을 못쓰게 만들려는 반동놈들의 꼭두각시노릇을 하지 않았는가.

아직도 그는 지난밤에 있던 일들이 한바탕 꿈을 꾸고난것처럼 믿어지지 않았다. 그 꿈속에서 깨어난 지금의 오성재는 어제날의 오성재가 아니였다. 그는 자기 손에 움켜쥐고있는 토지소유권증서를 바라보며 리주연부위원장이 하던 말을 되새겨보았다.

《장군님께서는 이 증서를 임자에게 돌려줄 때가 된것 같다고 하시면서 제땅에서 농사를 잘 지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하시였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동무가 계급적으로도 각성하여 나라의 참된 주인이 되기를 바라고계십니다.

오성재동무, 이제부터라도 믿으시오! **김일성**장군님께서 주신 땅은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준다는것을 믿으시오! 장군님 세우시는 새 나라가 진정한 인민의 나라라는것을 믿으시오! 오직 **김일성**장군님만을 믿으시오!》

오성재는 터져나오는 오열을 견잡지 못하고 으흑- 신음소리를 내면서 땅에 어푸러졌다. 축축하고 부드러운 땅에 이마를 대고 껴이끼이 울었다. 어릴 때처럼 마음껏 소리내여 울었다. 자기에게 땅을 주고 사람답게 살게 해준 이 세상에 죄를 지은 자신이 너무나 미웠다. 땅에 어푸러져 태질하면서 그는 태어나던 그때부터 뒤집어쓰고있던 무지렁이의 허울을 벗어버리고있었다.

오성재-너는 과연 어떤 존재였더냐? 지금까지 세상은 너라는 존재를 티끌처럼 여기면서 너의 행복에 무관심했고 너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었다. 너는 이 세상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였다. 구진배가 너에게 뭉치돈을 준것은 네가 고와서가 아니라 예전처럼 노예로 살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자들은 네가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는것을 바라지 않았었다.

네가 은인처럼 생각하는 정근식도 너에게서 기대한것은 자기의 육체적로동을 대신해주는것뿐이었다. 네가 그 이상의 귀한 존재가 될수 있다는것을 믿지도 않았었다. 그러나 새 나라는 너에게 아무것도 바라는것이 없었다. 바란것이 있다면 네가 새세상의 주인이 되어 행복하게 사는것뿐이었다. 장군님께서는 너와 같은 인간들도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면서 주인구실을 다하리라고 믿으시였다. 그런데 너는 뭐냐?
운명의 노예로부터 자주적인간으로 그 모양새를 바꾸기가 그렇게도 힘이 들더냐...

일어서라! 눈물만 짜지 말고 이 땅에 두발을 뽐디디고 일어서서 장군님 바라시는
모습으로 어깨를 펴고 살아라!

자리에서 일어선 오성재는 허둥허둥 집으로 반달음을 놓았다. 아는 사람이 찾아도
입안에서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집에 들어선 그는 께쪽에
넣어두었던 빗문서와 돈뭉치를 꺼내들었다. 한뭉테기 되는 더러운것들을 마당가에
팽개치고는 주저없이 부시를 쳐서 불을 싸질렀다. 너울거리는 불길을 바라보는
오성재의 눈동자에서도 불길이 너울거렸다. 그는 지금 전혀 새로운 오성재로 다시
태어나고있었다.

오성재는 전에 없던 근엄한 표정으로 채무지를 짓밟아버리고는 삼을 들고 공사장으로
향했다. 사람들이 자기를 반동이라고, 머저리라고 욕을 해도 좋았다. 나라에 죄를
짓고도 장군님덕분에 새롭게 태어났으니 땀으로 그 죄를 씻어야 했다.

52

시당회의실에서는 시당열성자회의가 열리고있었다.

안길이가 주석단가운데 틀지게 앉고 그 량옆에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로동부장
오기섭과 평양시당책임비서 그리고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앉아있었다.

회의에서는 **김일성**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공사를 7월 15일까지 앞당기기 위하여 대중적돌격운동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구체적문제들이 토의되었다.

연단에 나선 리주연은 2단계공사 과업에 대해 설명하고있었다. 2단계공사의 중심과업을 통수로굴착작업을 계속하여 너비 10m 깊이 7m의 통수로를 본래설계대로 50m로 넓히는 한편 제방뚝을 더 튼튼하게 쌓아올리는것이였다. 여기서도 기본은 새 통수로의 량쪽에 길이 2km, 높이 5m의 제방뚝을 쌓는것과 함께 10m 높이의 남교제방을 튼튼하게 완성하는것이였다. 2단계공사의 작업량은 22만 900여㎡이였다. 특별한 기계수단도 없이 순수 사람의 힘으로 이 방대한 토량을 한달동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심각한 현실앞에서 회의에 참가한 사람들은 쉽게 입을 벌리지 못했다. 만약 공사를 끝내기 전에 장마가 들이닥치면 새로 쌓은 제방이 위험해질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때까지 기울인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리주연은 공사를 빨리 끝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나서 신심에 넘친 어조로 말을 맺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공사과정을 통해서 장군님의 가르치심대로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과정에 대중의 자각적열성과 애국적헌신성도 높아지고 공사전망에 대한 신심도 확고해진만큼 이제 남은 공사과제도 얼마든지 해낼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대중의 양양된 열의를 어떻게 총동원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이런걸 다 해아려보시고 대중적돌격운동을 벌릴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리주연의 연설이 끝난 뒤 실무적인 문제토의로 넘어갔다. 회의에서는 공산당원들이 앞장서서 리민돌격대외에 단체돌격대를 많이 조직하며 하루책임량을 늘일데 대한 문제가 결정되었다.

그때까지 말없이 앉아있던 오기섭은 자기 존재를 시위할 필요를 느꼈는지 양바탕한 목을 빼들고 장내를 내려다보았다.

《조용하시오! 공사지휘부에서 시공책임자 왔소?》

회의장뒤쪽에 앉아있던 장혁수가 엉거주춤 일어섰다. 사실 그는 공산당원이 아니여서 이 회의에 참가할 자격이 없었지만 시공책임자가 참가해야 한다고 해서 제일 뒤자리에 앉아있었던것이다.

오기섭은 그를 지명해놓고도 공연히 노트를 벌컥거리며 자기에게 시선을 집중시켜놓고야 말꼭지를 뗐다.

《음, 누군가 했더니 주먹군이로군. 마음에 드오. 프로레타리아트한테는 붉은 주먹이 제일이지. 안 그렇소, 안길동무?》

오기섭은 장혁수가 명덕이와 싸웠던 일을 상기시키면서 안길을 슬쩍 건드렸다. 안길은 말갈지 앓은 소리에 대답하기도 싫은지 마뜩잖은 표정을 지을뿐이었다. 오기섭에게는 이 회의장에서 제일 마음쓰게 되는것이 안길의 존재였었다. 안길이만 없다면 격동적인 연설로 회의장을 후끈하게 달구어놓을수 있겠는데... 사실 공사에 무관심하던 오기섭이가 오늘 회의에 얼굴을 내민것은 공사전망이 확고해진 조건에서 로동부장의 생색을 내고싶었기때문이었다.

오기섭은 다시 장혁수에게 갈구리를 던졌다.

《참, 내 알기엔 무소속이라던것 같은데 언제 공산당에 들었소?》

아픈데를 찢리운 장혁수는 앞걸상의 모서리를 움켜쥐며 주눅이 든 소리로 웅얼거렸다.

《아직은...》

《아직 비당원이라?...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정수분자들의 회의에 참가했소?》

옆에 앉은 리주연이 오기섭에게 가만가만 말하는 소리를 장혁수는 듣지 못했다. 그는 침중한 낮빛으로 주석단을 바라보며 큰소리로 말했다.

《난 당원이 되고싶지만 아직 자격이 없어서 감히 넘겨다보지 못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끝나면 선참으로 당에 들겠습니다.》

장혁수의 대답에 제일 흡족해하는 사람은 안길과 리주연이었다. 토성랑내기가 공산당원이 되겠다고 큰소리를 치다니... 장군님께서 들으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시랴...

장혁수의 당당한 대답에 오기섭은 말문이 막혔다. 제일 만문해보이는 장혁수의 얼을 뺨아놓고 제 의도에 맞게 회의흐름을 조정해보려던노릇이 예상치 않은 암반에 부딪친것이다. 오기섭은 한동안 장혁수를 노려보다가 다시 물었다.

《그 결심은 좋소. 그건 그렇구... 공사를 한달이내에 끝낼수 있겠소?》

《예, 할수 있습니다.》

《덮어놓고 할수 있다고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납득시켜보란 말이요. 시공도 주먹치기를 하겠다는거야 아니겠지?》

장혁수는 기분이 상했으나 주석단에 앉은 사람의 말을 반박할수는 없었다.

《현재 남은 토량이 22만^m이 좀 넘으니까 하루에 만명씩 동원해서 한사람당 1^m씩만 처리해두 스무이틀이면 공사를 끝낼수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량을 2. 5^m으로 정했으니 그보다 더 빨리 끝낼수도 있지요.》

《하하하...》

오기섭은 고개를 제끼고 웃다가 갑자기 툭 그치더니 채머리를 떨며 아랑있게 말했다.

《그게 주먹치기라는거야. 평양시민들중에 녀자들과 늙은이들, 아이들, 거기에 병신들까지 빼놓으면 일할수 있는 로력자가 몇명인가? 그리고 1단계공사에서 기운이 빠진 사람들이 하루에 얼마나 일할수 있겠는가 하는거랑 다 타산해봐야 한단 말이요.》

《어제 증성리건로대원은 하루에 3^m을 처리했습니다.》

《저 사람 말하는거 보라. 여보! 그건 각성된 프로레타리아트에게서 나타나는 개별적인 현상이구 일반적인 평균실적은 아니란 말이요. 력사적으로 조직적단련이 부족한 조선로동계급의 취약성도 주산으로 튕겨봐야 할게 아닌가?》

그 말에 안길은 오기섭이쪽으로 획 고개를 돌렸다. 꼭 참고 보자보자하니까 점점 못하는 소리가 없었다. 그의 눈에서 사납게 번쩍이는 빛이 오기섭의 입을 열구어버렸다.

《오기섭동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거요?》

안길은 술한 사람들이 있는데서 큰소리로 싸울수 없는게 안타까웠다. 그는 가까스로 분을 참으며 장혁수에게 물었다.

《시공책임자동문 토성량출신인데 토성량사람들은 이 공사에 어떤 립장을 취하고있습니까? 강건너 불보듯 합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토성랑사람치고 공사에 안 참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녀자들은 물론이고 아이들까지 다 떨어져나섰습니다. 금단이 할아버지는 환갑나이이지만 오늘까지 하루도 변진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짝다리 광수는 매일 야장간에 나와서 풀무질을 하지요. 그뿐인가요?...》

《됐소! 됐소!》

오기섭이 다급하게 장혁수의 말을 중단시켰다. 가만 놔두면 장혁수가 독판치기를 할것 같았다.

안길은 그를 자리에 앉히고 오기섭을 바라보며 엄하게 말했다.

《들었소? 우리 인민은 이런 인민이요. 타산을 세우려면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건국위업에 떨어져나선 인민들의 애국열의부터 계산해야 할게 아니요?》

통을 맞은 오기섭은 쓰다달다 말없이 입만 다시는것으로 자기 심사가 편안치 않다는것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그가 회의장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왕청같은 소리를 하는데는 그럴만 한 이유가 있었다.

열흘전에 쏘련에서 최고쑬베트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깔리닌이 서거한것과 관련하여 평양에서는 조의대표단을 파견했는데 오기섭은 아쉽게도 그 명단에 끼우지 못하였다. 간부사업을 보는 연안파인 무정이 될수록 자기와 같은 얼마우재들이 쏘련에 들락날락하는것을 경계한 모양이었다.

오기섭이 부디 쏘련에 다녀오려는것은 어떻게 하나 공사에 필요한 굴착기를 다문 한두대라도 받아오려는 의도에서였다. 공산당 제2비서자리에서도 밀려나고 얼마전엔 선전부장자리에서도 밀려나 지금은 노동부장자리에 영치를 붙이고있지만 날이 갈수록

자기 몸값이 인하된다는것을 예민하게 발달된 권력의 촉각으로 감각하면서 그는 모스크바의 힘을 빌어서라도 자기의 위상을 회복해야겠다고 타산했던것이다. 그래서 쏘련에 있을 때 자기의 뒤를 봐주던 크레믈리의 모모한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편지를 보냈었다. 그런데 굴착기가 나오기 전에 공사가 끝난다면 행차뒤 나발이 되는셈이다.

회의에서는 15일간을 경쟁기간으로 설정하고 제일 성적이 우수한 돌격대에 **김일성**장군상과 우승기를 수여하기로 하였으며 책임량을 초과수행한 개별적인 혁신자들에게도 상품을 수여하기로 하였다.

심사가 뒤틀린 오기섭은 돌격운동을 벌리자고 할 때에는 귀를 막고있다가 표창문제가 논의되자 다시 찬물바게쓰를 준비해가지고 끼여들었다.

《내 생각엔 토목공사나 하면서 **김일성**동지 개인의 명의로 된 표창을 하는건 적당치 않을것 같소. 또 그런 표창을 하는데 대해 **김일성**동지께서 허락하시겠는지도 모르겠고... 차라리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명의로 표창을 주면 어떨지...》

오기섭은 그만 안길에게 말꼬리를 잘리웠다.

《오기섭동무!》

그의 목소리는 별로 높지 않았지만 바스락소리조차 없는 회의장 맨뒤에서도 똑똑히 들을수 있었다.

《**김일성**장군님은 개인이 아니라 전체 조선인민의 령수이시오! 우리 민족의 태양이란 말이요! 온 나라 인민이 **김일성**장군님의 건국위업을 받드는 길에 펼쳐나선것을 당신은 보지 못하오? 그런 인민에게 장군님의 존함으로 불리우는 표창장을 받는것보다 더 큰 영광이 무엇이고 그보다 더 높은 표창이나 수훈이 어디 있는가?》

안길의 불같은 질책에 오기섭은 꿀꺽소리 한마디 할수 없었다. 범의 수염을 다쳐놓은셈이니 조금이라도 움쩍했다간 당장 떡메같은 주먹이 날아올것만 같았다. 안길은 채찍질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구 이런 표창은 장군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정하고말고 하는게 아니요. 이건 장군님을 받드는 우리모두의자세문제란 말이요. 조선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초기혁명활동시기부터 그이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지만 그이를 조선혁명의 태양으로 우러러 받들면서 <조선의 별>노래를 지어불렀고 <김일성>이라는 태양의 존함으로 높이 칭송하였소.》

안길의 말은 회의참가자들의 마음을 후덥게 달구어주었다. 제 곁을 타고 흐르는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정이 채택되었다.

《표창은 15일간성적에 의해 진행하며 공사를 완공한 다음에는 전기간성적에 따라 특별표창을 하기로 한다. 특별표창은 한개 대상에 김일성장군상과 상금, 우승기를 수여하며 2등은 세개 대상에 1만원의 상금과 우승기를 수여한다. 그리고 책임토량보다 0.5m³을 더한 사람에게는 상품을 수여한다.

표창기준은 다음과 같다.…」

...

1차돌격전투가 벌어지는 첫날 아침부터 51개 단체돌격대와 75개의 리민돌격대가 공사장으로 모여들었다. 거기에다 대동군에서 달려온 1 700명의 응원대, 강선제강소 300여명의 용해공돌격대 그리고 무소속으로 자원진출한 사람들까지 합쳐 공사장은 하얗게 사람천지였다.

공사장에 달려온 대렬들은 돌격대기발과 프랑카드, 표어기들을 기세 좋게 펴려이고있었다.

《넘려되는 장마전에 공사를 완공하자!》

《당원의 핵심적역할과 모범적작용을 더욱 높이자!》

《녀성의 민주력량을 발휘하여 애국제방공사돌격운동을 적극 후원하자!》

구호의 내용들은 각이했지만 읽어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삼킨 손에 저절로 힘이 가게 하는것들이었다.

돌격전투는 제방을 쌓고 강바닥을 파내고 남교제방에 장석을 입히는 등 공사장의 곳곳에서 동시에 시작되었다.

누구나 땀투성이, 흙투성이가 되어 경쟁적으로 뛰어다니고 흙을 퍼담는 사람들의 삽날에서도 번개불이 일었다.

선교4리돌격대원들은 옷옷을 벗어제끼고 찰떡같은 진흙을 망작만하게 떠가지고는 그대로 어깨에 메고달린다. 그옆의 선교3리사람들은 그 작업방법에 내심으로 감탄하면서 한마디씩 해댔다.

《저 친구들 잠자리에 오줌 싸겠군.》

이쪽에서도 가만있지 않는다.

《자네들은 밤에 잘 생각을 다 하는걸 보니 안되겠어. 우린 오늘 밤을 밝히자는거야.
》

《두고보게, 김일성장군상은 우리거야.》

그리고는 입씨름할새도 없다는듯 떡판처럼 따놓은 흙을 하나씩 안고 와- 하며 제방으로 내닫는다.

현장을 돌아보던 장혁수는 그 광경을 보고 빙그레 웃었다. 시당 열성자회의가 있는 후부터 그는 예전보다 더 과묵해졌다. 그날 흥분한김에 많은 사람들앞에서 당원이 되겠다고 말해놓고는 은근히 속을 태우고있는 혁수였다.

그가 알고있는 당원이란 **김일성장군**님의 뜻을 한치 에누리도 없이 받드는 특별한 사람들이였다. 이 공사장에서만 봐도 제일 어렵고 힘든 곳에는 언제나 공산당원들이 서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그는 공사장에 나오시였던 장군님께서 자기더러 당원이 되여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날부터 자나깨나 그 생각뿐이였다.

(내가 정말 당원이 될수 있을까? 공산당원들의 회의에서 내 입으로 당원이 되겠다고 말했으니 죽으나사나 당원이 돼야겠어.)

그러자면 남보다 열배는 더 땀을 바쳐야 했다. 그는 시공책임자로서 할바는 하면서도 공사장의 어려운 모퉁이마다에 어깨를 들이밀군 했다. 그가 제일 많이 가서 일하는 곳은 기림리녀맹돌격대옆에서 통수로를 넓히고있는 중성리작업구간이였다. 오늘은 거기에도 가지 못하고 선교4리의 작업모습에 흥이 살아나 항상 가지고다니는 자기 삽으로 떡판처럼 흙을 따내기 시작했다.

비는 한대중으로 퍼부었다. 게다가 세찬 바람까지 못되게 불어치는통에 공사장은 뽕얀 비발속에 잠겨있었다.

그래도 사람들은 작업을 그만두려 하지 않았다. 질통을 지고 달리다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달리고 경사진 제방으로 오르다가 미끄러지면 기여서라도 오르군 했다. 온몸이 비에 젖고 감탕에 매닥질되었지만 일손을 놓고 짜증을 부리는 사람은 없었다.

운상은 건국로력대원들과 함께 남교제방을 보강하는 작업장에서 떠나지 못하고있었다.

장마가 시작되자 운상의 신경은 고도로 긴장되었다. 그는 매일매일을 시험관앞에 선 학생의 심정으로 살고있었다. 자기가 설계한 제방이 엄혹한 자연의 세례를 끄덕없이 막아낼것인가? 제일 미타한 곳이 남교제방이었다. 수문을 시공하면서 10m높이로 동시에 올려쌓은 제방은 새 통수로를 꺾어돌리는 곳에 위치하고있기때문에 물의 압력을 제일 많이 받는 곳이었다. 그래서 흙가마니를 제방의 안쪽에 올려쌓기로 하고 아침부터 그 역사질을 하고있는것이였다.

점심도 건느고 일손을 다그친 덕에 작업은 오후 두시가 남짓해서 마무리지을수 있었다.

건국로력대원들은 녹초가 되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밥을 먹자 해도 가설막까지 걸어갈 힘이 없었다.

그때 마침 수영이가 끓인 물통을 들고 작업장에 찾아왔다.

처녀는 여기저기 주저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김이 물물 피여오르는 따끈한 물을 권했다.

《마시세요. 몸이 좀 녹을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비속을 뚫고 자기들을 찾아온 처녀의사를 보는 순간 벌써 온몸이 훈훈해지는것을 느꼈다. 처녀의사가 가지고온것은 한고뿌의 더운물이 아니라 자기들은 찬비속에서 탈이라도 만나면 안되는 귀한 존재라는것을 알게 해주는 뜨거운 마음이었던것이다.

그 순간에 수영의 존재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선녀같은 신성함과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었다. 지금껏 자기 안해를 포함하여 여성일반을 천시해왔고 따라서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해 정리해볼 기회를 가져보지 못했던 사람들도 그 순간에만은 가슴이 뭉클해져 수영에게 제가꿈 인사를 했다.

《의사선생, 고맙수다.》

운상은 남들처럼 물고뿌를 받아들고 타는듯 한 눈길로 처녀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는 지금 누구보다도 진정으로 온 세상이 다 듣도록 고맙다는 말을 처녀에게 하고싶었다.

(오늘은 내 말하리라, 설사 거절당한다 해도 사랑한다고 말하리라!)

운상은 처녀가 현장을 떠날 때 무작정 따라갔다.

사람들이 자기네 두사람을 지켜본다는것쯤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는 수영에게 명령조로 말했다.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나와주오. 할 말이 있소.》

그리고는 처녀가 뭐라 항변할새없이 돌아섰다. 자기의 결심은 절대적인것이기때문에 반대의사를 표시할수 없다는 태도였다. 그는 몇걸음만에 다시 멈춰서서 오금을 박았다.

《무조건 나와야 하오. 기다리겠소.》

그때의 운상에게서는 예전의 레절있고 정중한 지식인청년이 아니라 사랑에 열렬한 사나이의 기상만 보일뿐이었다.

건국로력대원들이 돌아간 뒤에도 운상은 그 자리를 뜨지 못했다.

제방을 보강하긴 했지만 강물이 불어날수록 마음의 불안도 커갔던것이다. 그는 수문권양장을 짓느라 대충 옷설미를 올려놓은 곳에 들어가 비를 그으면서 한편으로는 강물이 더 불어나지 않고 얕전해지기를 빌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처녀가 나타나기를 빌었다.

벌써 저녁때가 다 되어 날은 어두워지고있었다. 비는 여전히 그칠줄 몰랐다. 그렇게 빌었건만 강물은 계속 불어오르고 그때까지 수영은 나타나지 않았다. 처녀가 자기의 언행에 모욕을 느끼고 아예 나타나지 않으려는가.

그는 처녀가 기다려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은근히 두려웠다.

(정작 나타나면 말을 어떻게 할가? 사랑한다고?... 자신없어.)

자신없을수밖에 없었다. 자기가 언제 사랑이라는걸 맛보았던가. 지나온 생활의 갈피를 아무리 뒤져봐도 그것이 사랑이었다고 규정할만 한 장면은 끼여있지 않았다.

그가 이해하고있던 사랑의 세계는 환희와 행복의 세계였다. 그런데 식민지민족의 지식인청년에게는 민족의 운명, 자기 개인의 운명에 대한 불안과 울분은 차고넘쳤어도 환희와 행복은 깃들 자리가 없었다. 해방과 함께 잠자던 인생의 환희가 눈을 뜨긴 했지만 역시 사랑의 세계는 감당하기 어려울만치 벅차고 신비한 세계였다.

그래서 운상은 지금 처녀를 만나자고 큰소리치긴 했지만 자기의 진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가슴을 조이고있었다.

그는 눈덩이처럼 커지는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보려고 권양장에서 나왔다. 그리고는 비발속에서 제방을 오락가락하며 혹시 미타한 부분이 없는가를 다시 살펴보았다. 사품치는 흙탕물은 제방의 중간쯤에서 철썩거리며 새로 쌓은 제방을 물어뜯곤 했다. 운상은 물결의 못된 장난질을 원망스레 내려다보며 수문가까이로 오다가 딱 굳어졌다. 제방반대편으로 물이 줄줄 새나오고있었던것이다. 그는 황급히 제방아래로 내려갔다.

물은 수문콩크리트를 친 부분과 제방뚝이 연결되는 곳에서 새나오고있었다. 물이 새는것을 그대로 방임해둔다면 틈새가 점점 넓어져 뚝이 허물어지는것은 물론이고 지탱점을 잃은 수문도 넘어질것이다.

운상은 더 생각할새없이 제방우에 미리 준비해두었던 흙가마니를 끌어다 안쪽에 보강하기 시작했다. 뚝이 허물어지면 자기가 이 땅에 처음으로 만들어세운 수문이 파괴된다. 그렇게 되면...

날은 이미 어두워진데다 남교제방은 기본공사장과 좀 떨어져있는 곳이여서 주변에는 소리쳐불러올 사람도 없었다.

그런 생각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젓먹던 힘까지 총동원하여 질질 끌어다 쌓기를 그 몇번...

이제는 더 쌓을 흙가마니도 없고 남은 기력도 없었다.

흙가마니가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만 더...

무엇이 자기를 그런 행동으로 떠밀었는지 운상은 알수 없었다.

그는 허리까지 물속에 잠그고 발더듬으로 지탱점을 찾은 다음 물이 새나가는 틈새기에 자기의 가슴을 가져다댔다. 두팔을 넓게 벌린 자세로 온몸을 제방에 밀착시키니 몸도 마음도 이상하게 편안해졌다.

사람이 살아가느라면 자신이 장하게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는 법이다.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하고난 뒤에 찾아오는 그런 감정은 일생에 몇번밖에 맛볼수 없다. 운상은 이 시각 제방우에 었디여 그 감정을 흐뭇하게 맛보고있었다.

한때는 건축가로서 개인의 명예만을 생각하던 자기가 아니였던가. 그래서 조선의 건축가로 자처하면서도 보통강의 탁류를 청소해버리는 일에서 자신의 뭇을 찾을 생각은 못했다.

그런데 장군님께서서는 보통강개수공사와 더불어 인민의 건축가로서 삶의 자세를 다시 세워주시였으니 이제부터는 장군님께서 바로잡아주신 그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먼 인생길을 곧바로 걸어갈 자신이 있었다. 그때문에 운상은 스스로 자신이 장해보이고 수영이앞에, 나라앞에 그리고 장군님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신을 발견한것으로 하여 마음이 편한것이였다.

사품치는 강물에 떠내려오던 굵직한 통나무가 제방을 직각으로 때리고 빠른 물살을 따라 빙그르르 돌면서 허리어방을 치는 순간에 운상은 자기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모험을 하고있는가를 깨달았다. 공포의 전율이 순식간에 온몸으로 줄달음쳤다. 그러나 그는 제방에서 몸을 뗄수 없었다.

수영이가 제방에 나타난것은 그무렵이였다. 저녁때까지도 처녀는 여기로 나올 결심을 못 내리고있었다. 그런데 날이 어두워오고 비도 몇지 않으니 수영의 마음은 안정을

찾을수 없었다. 자기가 안나가면 그 사람이 차디찬 비속에서 밤새 기다릴것만 같았다.
그는 치료실안에서 오락가락하며 자기를 설복하느라 애썼다.

(넌 지금 자신을 속이고있어. 넌 그 사람을 사랑하고있으면서도 코대를 높이는거야.
네가 코대를 높일게 뭐 있어?... 네가 나가지 않으면 그 사람이 밤새 기다릴수 있다는
생각은 왜 못해?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야. 아까 그 사람의 눈빛을 봤지?
호랑이눈빛같은... 요전날 김정숙녀사님께서도 사랑은 성실하고 열렬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 그러니 어서 나가봐라.)

결국 수영은 콩당거리는 가슴을 부둥켜안고 제방으로 나오지 않을수 없었다.

제방우에는 사람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다. 자기의 예측이 빗나간것으로 해서
수영은 실망을 안고 돌아섰다.

그때 강물우에서(틀림없이 물우에서였다.) 자기를 찾는 소리가 들려왔다.

《수영선생이요? 나 운상이요.》

수영은 소리난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머리와 어깨만 내놓고 제방에 엎드려있는
운상을 어렵פות이 알아보았다. 알아보았다기보다 그렇게 느꼈다.

《거기서 뭘 하세요? 무슨 일이에요?》

《빨리 가서 흙가마니를 가져오오. 물이 새고있소.》

사태를 짐작한 수영은 발을 구르며 소리쳤다.

《정신있어요? 빨리 나오세요!》

《젠장, 물이 샌다지 않소? 제방이 위험하단 말이요!》

제힘으로는 운상을 끌어낼수 없었다.

히긴 누가 봐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여기서는 누구든 제방이 먼저이고 자기 목숨은 그다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수영이도 물속에 들어섰다.

어떻게 해야 한다는 생각도 없이 무작정 뛰여든 것이다. 그 순간에는 물이 무섭지도 않았다.

무서운 것은 운상의 신상에 닥치는 위험이었다.

운상은 버럭 고함을 질렀다.

《나가요! 빨리 나가지 못해!》

그래도 수영은 물살을 헤쳐으며 운상의 곁에 다가갔다.

그리고 말했다.

《힘께 있자요.》

그 말이 담고있는 의미가 하도 커서인지, 가슴을 치는 세찬 물살때문인지 숨이 가빠났다.

그러나 운상은 얼굴을 이그러뜨리며 사납게 소리쳤다.

《안돼! 흙가마니부터 가져오라는데, 빨리!》

처녀는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상황에서 사람도 제방도 구원하자면 운상의 말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리성으로 깨달았던 것이다.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요.》

수영은 울먹이는 소리로 한마디 남기고는 어둠속으로 내달렸다.

우산을 언제 집어던졌는지는 생각나지도 않았다. 자기가 울고있다는것도 몰랐다. 그렇게 달리면서 처녀는 조금전에 자기가 했던 말을 상기했다.

(함께 있고싶었어, 물속이든 불속이든... 그가 내 말을 알아들었을까?)

운상은 알아들었다.

그런 순간에는 깊숙이 묻어두었던 진정도 쉽게 알아듣는 법이다. 가식은 한가할 때에만 머리를 내밀곤 한다.

(고맙소, 수영이, 함께 있고싶었소, 언제나... 동문 내가 소리친것을 용서하겠지? 젠장, 하필 이런 정황에서...)

수영이가 사람들을 데리고 달려왔을 때 운상은 의식을 잃고있었다.

지체없이 그를 현장치료실로 날라갔다. 밝은 불빛아래 옷을 벗기고 보니 다리와 어깨에서 심한 상처가 드러났다.

그동안에 피는 얼마나 흘렸을까... 떨리는 손으로 상처에 소독솜을 가져다대자 운상은 해쓱해진 얼굴을 찡그리며 가느다란 신음소리를 냈다. 수영은 조심스레 물었다.

《정신이 들어요?》

운상은 힘들게 눈을 떴다. 처음에 보이는것이 수영의 얼굴이었다.

운상은 처녀에게 뭔가 말하고싶었으나 안타깝게도 말이 나가지 않았다.

그러나 수영은 그가 무슨 말을 하고싶어하는지 알았다.

《걱정마세요, 제방은 무사해요.》

운상은 다시 눈을 감았다.

환자상태를 봐선 병원에 후송해야 했지만 수영은 여기서 치료하기로 마음먹었다. 아직은 홍수의 위험이 가셔지지 않았는데 자기가 목숨을 내대고 지킨 그 귀중한 창조물을 내팽개치고 병원에 마음편히 누워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처녀는 운상의 침대곁에서 꼬박 새웠다. 그래도 피곤을 몰랐다. 누구의 방해도 없는 조용한 방에서 수영은 운상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을 조이기도 하고 앞날의 행복을 공상속에 미리 맛보며 혼자서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

운상은 새벽녘에야 정신을 차렸다. 그는 말없이 처녀를 바라보기만 하다가 모포밖으로 손을 내밀었다. 그 손우에 수영의 손이 살며시 얹혀졌다. 수영은 운상에게 손을 꼭 잡히운채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말하지 마세요, 난 다 알아요.)

그들은 시간의 흐름도 잊고 오래동안 그렇게 굳어져있었다. 마치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것은 자기네 둘뿐인듯싶었다.

54

정근식은 서성교를 넘어섰다. 그는 손수레를 끌고 공사장으로 가는 길이었다. 광목천으로 지은 후렁후렁한 작업복을 입고 꿈무늬에 수건을 차고있는 그의 모습은 올데갈데 없는 노동자차림이었다. 지하죽은 끈을 바싹 당겨신었다.

손수레에는 예전에 공장설비를 더러 축소하면서 제집창고에 가져다두었던 전동기가 실려있었다. 그는 오늘에야 비로소 공사장에 나갈 결심을 한것이였다.

은둔자 정근식이 드디어 허무주의면사포를 벗어던진것이다.

그 정신적인 변화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사흘전에는 오성재가 우정 그를 찾아왔었다.

오성재는 자기가 나쁜 놈들의 꼬임에 빠져 나라앞에 큰 죄를 지을번 한 일과 장군님께서 자기를 용서해주신것은 물론 토지소유권증서를 돌려주신 전설같은 이야기를 자초지종 들려주었다.

《난 지금껏 버려지처럼 살아왔수다. 나처럼 못난 놈은 세상에 더 없을거우다. 나 같은게 무슨 사람이겠수? 그런데도 장군님께서는 금수보다 못한 이놈을 사람대접해주시면서 이제는 보통벌도 수해를 입지 않게 됐으니 농사를 잘 지어서 남부럽지 않게 잘살라고 하시였수다. 글썄... 나 같은 놈도 나라의 주인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단 말이우다, 으흠...》

오성재는 목이 껍껍 메면서도 말을 멈추지 않았다.

《내 부실한 놈이 돼서 주인어른 신세를 갚는다는게 도리어 장군님한테까지 근심을 끼쳐드렸수다. 하지만 나두 이제부터 사람답게 살겠수다. 장군님 바라시는대로 살아야 사람다운 생활을 할수 있다는걸 알았으니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겠수다.》

정근식은 오성재가 생판 낯선 사람처럼 보였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판판 달라질수 있는가? 이 사람이 불과 한달전까지만 해도 사람답게 산다는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불행앞에 공손히 머리숙이군 하던 사람이라고 누가 믿겠는가. 별치 않은

동정앞에서도 눈물이 글썽해지던 사람이 지금은 정근식이 자기보다 먼저 세상의 변화에 눈뜨고 장군님 뜻을 받들어 사람답게 살겠다고 땡땡 큰소리치고있는것이다.

자기가 이 세상에 등을 돌려대고있는 사이에 해방된 이 땅은 지난시대의 오물을 밀어내면서 선하고 정의로운것이 확산되는 방향으로 아름답게 변하고있는게 틀림없었다. 그렇다면 나도 이 생활을 외면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그런데 바로 어제 저녁에 리주연부위원장이 또 정근식의 집대문을 두드릴줄이야...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정근식이라는 작은 물방울이 건국의 대하에 합류할 때까지 열번이고 백번이고 찾아가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리주연은 길게 말하지 않았지만 정근식은 자기가 서야 할 위치를 깨달았다. 장군님의 말씀은 재만 남았던 그의 가슴에 전혀 새로운 질적변화를 일으키면서 희망의 불길을 지펴주었던것이다.

공사장에 당도한 그는 그때 나무레루를 놓던 곳으로 찾아갔다.

그리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전동기를 부리웠다.

밀차를 밀던 임성민은 영문을 알수 없어 정근식에게 물었다.

《아바인 누구십니까? 이걸 왜 우리한테 주는가요?》

《나도 평양시민이요. 내 그만 망녕이 들어서 돈으로 이 공사를 욱되게 했으니 이렇게라도 그 죄를 씻어볼가 하오.》

정근식은 얼른 그 자리를 떠났다.

공사장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던 그는 마침 사람들속에 섞여있는 리찬을 붙들었다.

《내 오늘에야 목욕재개하고 왔습니다. 늦기는 했지만 시인선생한테 내 모습을 보이고싶어서 이렇게 찾아다니던중입니다.》

리찬은 정근식의 아래우를 훑어보며 빙그레 웃었다. 《차림새부터가 합격입니다. 이 공사장에서 땀흘릴 자격이 있단 말입니다.》

《땀흘릴 자격이라... 그게 애국심을 가진 사람만이 이 공사에 참가할수 있다는 소린데... 참 좋은 말입니다.》

잠시후 리찬은 질통을 하나 얻어가지고 나타났다.

감탕판이여서 그들은 아예 신발도 벗고 바지가랭이를 무릎까지 걷어올렸다.

정근식으로서는 난생처음 해보는 토목로동이였다.

《무겁지 않습니까?》

리찬이 묻는 말이였다.

《무겁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워진것 같습니다.》

《그거 명담입니다.》

리찬은 정근식의 심중이 리해되는지 머리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내 시 하나 읊을가요?》

리찬은 질통을 한번 추스르고나서 제방으로 걸어가며 시를 읊었다.

무거운 짐 지고서 닫는 사람은

숨차다 고개길을 탄치 말고서

때로는 맘을 녹여 탄탄대로의

이제도 있을것을 생각하시오

...

무거운 짐 지고서 닫는 사람은

기구한 발부리만 보지 말고서

때로는 춘하추동 사방산천의

뒤바뀌는 세상도 바라보시오

...

이 짐이 무거움에 뜻이 있고요

이 짐이 괴로움에 뜻이 있다오

무거운 짐 지고서 닫는 사람이

이 세상 사람다운 사람이라오

정근식은 일에 재미가 나서 힘든줄도 모르고 시간이 흐르는것도 몰랐다. 자기가 수영이를 만나야 한다는것도 잊고있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질통을 벗어놓던 그는 우뚝 멈춰섰다.

제앞에 수영이가 서있었던것이다.

《수영아!》

놀라움과 반가움이 수영의 얼굴에 엇갈려 나타났다.

점심시간에 음료수통을 들고나왔던 수영은 모색이 신통한 사람을 보고서도 설마하는 생각에 외삼촌을 찾지 못하고있었다.

온통 감탕칠을 하고 바지가랭이를 걷어올린 외삼촌이 질통을 지고있는 모습을 한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수영이로서는 그럴수밖에 없었다.

《외삼촌!》

수영은 외삼촌에게 달려와 팔소매를 붙잡고 어린 소녀처럼 콩당콩당 뛰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정말 일하러 나오신거예요?》

《일하러 나왔다가보다는 천국을 구경하러 왔다.》

《천국이요?》

《그렇다. 이야기는 천천히 하구 밥부터 먹자. 오래간만에 일을 했더니 출출하구나. 어디 식당이 없냐?》

《그럼 오후에도 일하시겠어요?》

수영은 잘 믿어지지 않는듯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그렇지 않구.》

《좋아요. 오늘 점심엔 내가 내겠어요.》

《그래? 참 귀인을 만나서... 아뿔싸!...》

돌아보니 불같은 시인은 또 어디로 달려갔는지 그 자리에 없었다.

천국을 구경시켜준 값으로 점심 한끼라도 대접하고싶었는데 아쉽기 그지없었다.

합수목에서는 하당골쪽으로 가는게 뺑대거리까지 가는것보다 빨랐다. 수영이와 이야기를 나누며 걷던 정근식은 조차장 다리근방에 앉아있는 음식장사아낙네들을 보자 생각이 달라졌다.

《수영아! 먼데 음식점을 찾아갈것없이 저기 가서 한그릇 사먹자꾸나.》

수영은 기겁을 했다.

《외삼촌, 정신있어요? 길바닥에서 어떻게?...》

그러거나말거나 정근식은 조카딸의 팔을 잡아끌었다.

《저절 사먹는 사람이 따로 있다더냐? 난 우선 배가 고파죽겠다.》

다리근방에는 떡장사, 지짐장사, 국수장사들이 음식함지들을 앞에 놓고 길랑옆으로 주련이 앉아있었다.

공사판에는 이런 음식장사아낙네들이 모여들기마련이어서 점심을 안 가지고 온 건설자들이 벌써 여기저기 패를 지어 앉아있었다.

정근식은 국수장사아낙네앞에 다가서며 제법 너스레를 피웠다.

《여기선 성안에서보다 값도 낮고 량도 많다는데 아주머니, 거 국수 두그릇 얼른 말아주시우.》

사람단련에 치여난 장사군아낙네는 정근식의 금새를 제격 알아보았는지 되려 제편에서 송구스러워했다.

《에그, 어르신은 이런데서 자실분이 아닌데요?》

《허허, 이 아주머니 사람 가린다. 아주머니손이 커보여서 왔으니 찾아온 손님 쫓지 말구 얼른 주시우.》

《에그, 어찌나... 룽모소반두 없는데...》

《그냥 들고먹지요. 하여튼 많이만 주시우.》

수영이가 자꾸 소매를 당겼으나 정근식은 모르는체 하고 버티고있었다. 아낙네는 국수사발을 들었다놔다하며 골라보았으나 몽땅 이빠진 사발들이라 할수없이 그중에서

깨끗해보이는 사발에다 국수를 담아주었다. 본래 건설자들을 대상해서인지 아니면 정근식의 너스레가 효험을 보았는지 좌우간 국수사리도 흐뭇하고 돼지고기편육도 무드기 놓아주었다. 수영은 창피스러웠지만 국수그릇을 받아들지 않을수 없었다.

정근식은 국수그릇을 손에 들고 길옆에 쭈그리고앉았다.

《어서 먹자.》

예전에 명월관이요, 해락관이요 안 다녀본데가 없고 고기쟁반이요, 랭면이요, 온면이요 안 먹어본게 없었지만 지금 먹는 메밀국수처럼 맛있어본적은 없는것 같았다.

이따금씩 불어치는 바람에 길가의 황토색먼지가 후추가루처럼 국수그릇에 떨어졌지만 정근식은 개의치 않았다.

외삼촌옆에 쭈그리고앉은 수영은 저가락질할념을 못하고 존경어린 눈길로 외삼촌을 바라보기만 했다.

그는 외삼촌의 식성을 잘 알고있었다. 외삼촌은 미식가였다.

그 까다로운 식성때문에 외삼촌어머니가 늘 마음쓰며 사는걸 수영이가 왜 모르랴. 외삼촌어머니는 남편의 구미를 맞추기 위해 음식의 맛과 색, 담는 그릇에 이르기까지 신경을 썼다. 그 덕분에 언제나 따뜻하게 덥힌 은수저를 들고 자개박이밥상에 마주앉아 반짝반짝하는 낯밥바리의 뚜껑을 열곤 하던 외삼촌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지금 외삼촌은 로동의 즐거움, 평범한 사람들이 느끼는 생활의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 우정 텃텃한 흥내를 내는것 같았다. 하긴 오래간만에 일을 했으니 배도 고프시겠지...

어쨌든 벽에 걸린 족자나 감상하던 외삼촌이 이렇게까지 갑작변이를 일으켰다는게 수영이로서는 놀랍기도 하고 눈물겹도록 고맙기도 했다.

《외삼촌, 정말 맛이 있어요?》

수영은 자기것을 외삼촌의 그릇에 덜어주며 물었다.

《나한테 물어볼게 있니? 너두 먹어보면 나한테 덜어준걸 후회할게다.》

수영은 외삼촌의 기분에 말려들지 않을수 없었다. 처녀는 대답하게 저가락을 들었다. 저쪽에 앉아 탁배기를 마시는 사람들이 이쪽을 흘끔흘끔 쳐다보는걸 보면 자기가 현장치료실 의사라는것을 아는데 분명한데 까짓거 홍보겠으면 보라지... 남보기 창피하다고 굶을수야 없지 뭐...

먹어보니 정말 맛이 있었다.

식사를 마친 뒤 두사람은 다시 공사장쪽으로 오다가 산기슭의 넓다란 공지에 나란히 앉았다.

오래간만에 배불리 먹고 들바람을 맞으며 앉았느라니 정근식은 기분이 똥똥 뜨는것 같았다.

《난 오늘 세상에 다시 태어난 기분이다.》

그렇게 허두를 떼놓고 한참동안 생각에 잠겨있던 그는 푸른 하늘의 흰구름을 바라보며 지나간 날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내가 일본에 가서 공부할 때 장질부사에 걸린적이 있었단다. 그래서 도꼬교외의 어느 격리병동에 실려갔지. 고열에 떠서 가물거리는 의식속에서도 난 죽어서는 안된다는 한가닥 의지의 가냘픈 줄을 놓지 않았다. 그때 제일 그리운게 사람이더라. 누군가 내 손만 쥐여주어도 힘이 되련만 격리병동이라는데가 저승행의 마지막정류소나 같아서인지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더구나. 이미 저승에 가신 어머니가 왜 그렇게

원망스럽던지... 어머니의 무덤이라도 파보고싶도록 사무치게 어머니사랑이 그리웠고 인간의 정이 그리웠지만 세상은 나에게 결눈 한번 주지 않더구나. 그때부터 난 세상전체에 더 냉담해진것 같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와보고 난 인간에 대한 무관심의 력사가 이 땅에서 끝장났다는것을 확신했다. 이걸 틀림없다.》

수영이도 외삼촌의 생각과 다를바 없었다. 그동안 공사장에 나와있으면서 처녀는 많은것을 배웠다. 예전에 그는 생활에서 자기중심주의로 사고하면서 많이 받으려고 했었다. 사람들의 리해와 양보를 받으려고 했고 사랑을 받으려고 했다.

덮어놓고 받으려는것은 거지의 자세이고 아낌없이 주려는것은 아버이의 마음이라고 했다. 하늘의 태양은 자기의 빛과 열을 지상만물에 주기만 할뿐이고 달라는것이 없는데 인간도 서로 그렇게 살수 없을가. 그러나 자기자신을 포함하여 인간은 다 리기적이고 타산적인 존재여서 남에게 준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받으려고 했다. 안데르센의 동화는 실현될수 없는 꿈에 불과한것이였다. 그런데 태양의 성질을 그대로 닮으신 성인같은분이 이 나라와 이 나라 인민들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꾸어놓으실줄이야.

《전 여기로 나올 때까지만 해도 김일성장군님께서 왜 이 공사를 중시하시는지, 어째서 건설자들에게 음료수를 꼭 끓여서 공급하라고 그토록 신신당부하시였는지 잘 몰랐됐어요.

장군님께서 평범한 사람들을 제일 사랑하시는 리유를 똑바로 알게 되면 앞으로의 생활방식도 정리될것 같구 내가 살아가야 할 이 나라의 본질을 알것 같더군요.

난 알았어요! 장군님께서 건설자들을 사랑하시는건 어떤 타산이나 필요성때문이 아니였어요. 그저 자기 조국, 자기 민족이기때문이에요. 그분은 온 민족을 혈육처럼

생각하시는데 혈육을 사랑하는데야 어떤 리유가 필요없지 않나요. 말하자면 그분은 하늘의 태양같은 분이예요. 난 이곳에서 환상적인 동화의 세계가 현실화되어가는것을 분명히 보았어요. 이젠 이 세상이 마음이 놓여요.》

정근식은 조카딸의 잔등을 두드려주었다.

《네 말이 옳다. 역대적으로 누구나 옥좌에 오르면 자기의 절대권력을 시위하는 일부터 벌려놓았지. 그래서 반대파를 청산하는 칼부림을 하고 피라미드를 쌓거나 사치한 궁전을 짓는데 재부를 탕진했거던, 현명한 백성들은 통치자를 숭배한것이 아니라 무서워하고 증오했지. 그런데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제일 불쌍한 토성량인민들을 구제하는 일부터 시작하시었으니 오늘 공사장에 나와보고 난 이것이 그분의 진심이라는것을 믿게 되고 그분의 인간상을 더 깊이 알게 되었구나. 인민을 가장 열렬히 사랑하고 가장 위대하고 힘있는 존재로 력사무대에 내세우는것이 그분의 한생을 관통하는 좌우명이고 그분이 세우시는 새 나라의 본질이 틀림없다는것을 믿게 되었단 말이다.》

4년전 보통강의 수해로 공장을 잃고 왜놈들에게 끌려가 매까지 맞을 때는 그것이 이 세상의 마지막모습이라고 생각했던 정근식이 오늘은 새세상의 첫 장면을 본 심정이여서 마냥 입을 다물줄 몰랐다.

《외삼촌, 고마워요!》

수영은 떨리는 소리로 진정을 담아 말했다.

《나한테 고마울건 없다. 이 나라에선 다르게 살수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는것이 옳게 사는거다.》

55

로동법령초안을 검토하시던 장군님께서는 김책이 들어서는 바람에 색연필을 놓으시였다. 김책의 표정은 심각했다.

《이번 장마로 남조선지역이 큰물피해를 많이 보았다고 합니다. 서울방송으로 수자를 불어대긴 했는데 실상은 더 참혹한것 같습니다.》

김책은 장군님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것이 자기 잘못이거나 한듯 무거운 표정을 바꾸지 못하고 들고온 서류중에서 필요한 대목만 읽어드리였다. 6월 중순의 보리장마로 남조선각지에서 수해를 입었는데 특히 서울지방의 수해가 제일 우심하다고 했다.

한강의 물이 불어나면서 술한 사람들이 사망하고 많은 주택이 침수되었으며 수천정보의 논밭이 물에 잠기였다. 게다가 폭우로 교통이 두절되여 서울지방에서는 쌀값이 대폭 뛰여올라 시내주민들이 고통을 겪고있다고 했다.

장군님께서는 김책이 읽어내려가는 수자를 들으시며 안색을 흐리시였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까지 <립정>법통을 계승한다던 최동오선생까지 <좌우합작>놀음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판인지 모르겠습니다.》

《최동오선생은 <제갈공명>이라는 별명을 들을만큼 사리에 밝은분인데 그 놀음에 기여든걸 보면 놈들의 술책이 그만큼 교활하다는것입니다.》

장군님께서는 김책에게 놈들이 벌려놓은 좌우합작의 내막을 알기쉽게 까밝혀주시었다.

불과 한달전까지만 하여도 미군정청은 쏘미공동위원회를 결렬시킨 후 소위 민주위원의장 리승만과 김구, 김규식을 우익 《3령수》로 내세워 남조선단독정부조작을 꾀하였다.

그것이 저들의 뜻대로 되지 않고 리승만에 대한 실망이 커지자 미군정청은 좌우익의 대립에 불만을 느끼고있는 애국적민주인사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악용하여 좌익의 려운형과 우익의 김규식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좌우합작극을 연출하게 되었다.

《좌우합작》의 표면상 명분은 결렬된 쏘미공동위원회를 재개하도록 하며 좌우가 합작하여 통일적민주주의의 립시정부를 세우자는것이지만 실제로는 남조선의 애국적민주세력을 분렬와해시키고 미군정을 기반으로 《남조선과도정부》를 조작해내기 위한것이였다.

《좌우합작》의 산파역을 담당한 하지의 정치고문 버취의 궁냥대로 하면 좌우익이 대립되어있는 현 상황에서 《합작》은 국민이 바라는것이며 결국 《좌우합작위원회》가 나오면 앞으로 탄생하게 될 과도정부의 모체로서 통일적민주주의성격을 세상에 납득시킬수 있다는것이였다.

《그럼 남조선의 정객들이 왜 이런 유치한 놀음에 말려들었는가?》

장군님께서는 가슴이 답답하신듯 원탁우에 놓인 주전자에서 물 한고뿌를 부어마신 다음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민중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민중과 동떨어져있기때문입니다. 앞으로 진보적인 좌익세력은 물론이고 우익의 민주인사들도 미제의 속임수를 깨닫고 정신을 차릴 때가 오긴 하겠지만 그들이 인민에 대한 사랑을 자기의 정치리념으로 간직하고있었다면 이런 회오리바람에 흔들리지 않았을것입니다. 이번 수해도 결국은 인민이 외면당하고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장군님의 음성은 격해지시였다. 일제의 식민지기반에서 해방된 조선사람들이 또다시 새로운 주인들의 무관심때문에 아까운 목숨을 잃는다고 생각하시니 도무지 마음을 진정할수 없으시였다.

장군님께서서는 김책이 나간 뒤에도 한동안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집무실을 거니시다가 아까 밀어놓으시였던 로동법령초안을 당겨놓으시였다. 벌써 두번째로 보시는 초안이었다.

그이께서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법령의 매 조항마다에 조선로동계급에 대한 사랑을 쏙아박고싶으시였던것이다.

맑스의 경제사관에서는 인류발전력사를 생산력발전의 력사, 생산도구의 교체의 력사라고 했지만 장군님께서서는 이 법령에서 생산의 주인인 로동계급의 지위를 새롭게 천명하고싶으시였다.

맑스의 잉여가치학설도 결국은 노동자들이 자본가에게 더 많은 노동시간을 착취당하는것을 인정한데서부터 생겨난 리론이다.

만약 고물리운을 짜내는 자본가가 없고 로동계급이 물질적부의 창조자인 동시에 향유자가 되였다라면 애당초 잉여가치학설은 성립되지조차 않았을것이다.

장군님께서서는 바로 그런 세상, 노동자들 자신이 공장의 주인, 생산의 주인이 되는 노동계급의 참세상을 이 땅에 세우고싶으시였었다.

지나온 역사를 돌이켜보면 1802년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노동법》이 출현한 때로부터 여러 자본주의나라들에서도 《노동법》이 존재했지만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의 모순을 인정한 사회제도하에서의 《노동법》이 노동자들의 이익을 옹호하면 얼마나 했겠는가, 때문에 일찌기 노동운동의 선각자들은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함축의 역사라고 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노동계급의 민주주의적해방을 철저히 실현하며 그들의 사회경제적처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가장 인민적인 노동법령을 조선노동계급에게 안겨주고싶으시였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일정한 사회력사적제조건이 성숙되였다고 볼수 있었다.

다시말하면 근로인민대중이 정권의 주인이 되었고 해방과 함께 일제와 그 주구들이 가지고있던 공장과 광산, 은행을 비롯한 생산수단이 노동계급의 수중에 장악되였다. 예전에야 노동자들이 아무런 권리도 없이 식민지적착취와 압박속에서 비인간적인 노예로동을 강요당해오지 않았는가.

장군님께서서는 초안을 밀어놓으시고 지난날 조선노동계급의 가혹한 노동실태를 보여주는 자료들을 집어드시였다. 해방전 《동아일보》를 비롯하여 서기가 구해온 자료들에는 노동자들이 2중3중의 식민지적착취를 당하며 기아와 빈궁속에서 신음하던 피눈물나는 역사가 수자적으로 기록되여있었다.

일제는 식민지초과리윤을 짜내기 위하여 조선로동자들에게 하루 14~16시간의 노동시간을 강요하였다. 조선인로동자들은 이처럼 긴 노동시간을 강요당하면서도 《렬등민족》이라는 천대와 멸시속에서 일본인로동자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받았다. 일제는 로동자들의 목숨을 파리목숨처럼 여기면서 아무런 로동안전대책도 세우지 않았고 징용, 보국대로 본토에 끌어난 백수십만명의 조선로동자들에게 노예로동을 강요했으며 심지어 군사시설장에서는 비밀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참혹하게 학살하였다. 생각만 해도 원통한 수난의 력사는 영영 끝장이 났다. 이제부터는 로동계급이 참다운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지니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로 떠받들리워야 할것이다.

장군님께서서는 색연필을 드시고 8시간로동제, 로동에 대한 보수문제, 로동자들의 휴가제, 로동안전문제, 특히 녀성로동자들에 대한 우대제 등 법령초안의 매 조항들에 자신의 진정을 부어넣으시였다.

1946년 6월 24일.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제9차회의를 소집하시고 《북조선 로동자,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을 발표하시였다. 그로부터 며칠후에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를 지도하시면서 농민들의 부담으로 되였던 가림잡세를 폐지하고 곡물수확고의 25%를 국가에 납부하는 농업현물세제를 실시하시였다.

그날 저녁 장군님께서서는 김책과 안길을 비롯한 백두산시절의 동지들을 저택으로 초청하시였다.

《며칠전에 노동법령을 발포한 날도 시간을 내지 못했는데 오늘까지 그냥 보내면 동무들이 섭섭해할것 같아서 식사나 같이하자고 불렀습니다.》

김책은 버릇처럼 두손을 마주비비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아닌게아니라 오늘 저녁엔 장군님을 찾아와서 인사를 올리자고 저희들끼리 약속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 안길동무랑 림춘추동무랑 농사군출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뭘 우리만 좋아했습니까? 김책동지야 농사군이 되고싶다고까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농민들의 기쁨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림춘추의 말에 장군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방가운데 농인 긴 식탁에 모두를 둘러앉히시었다.

《농민들이 좋아한다면 됐습니다.》

《좋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농사군의 리익을 이처럼 철저히 옹호해주는 법령을 갖 해방된 우리 나라에서 발포했다는건 세상을 놀래울만 한 사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말이지 노동법령이나 농업현물세제실시나 그 어느 나라를 뒤져봐도 찾아볼수 없는 가장 인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법령이며 토지개혁과 대등한 역사적의의를 가지는것으로서 노동자나 농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것을 세상에 선포한 선언문과도 같은것입니다.》

림춘추는 정말로 선언문을 랑독하듯 일사천리로 내리췌었다.

림춘추가 저런 론조로 말을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듣기만 해야 했다. 할수없이 김책은 그만하라고 손을 내저었다.

《그 역사적의의는 역사가들에게 맡기고 당장은 장군님께 축배부터 드립시다.》

그러면서 부엌에 대고 제집에서처럼 큰소리쳤다.

《정숙동무, 거 있는대로 들여보내시우.》

그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김정숙동지께서 쟁반에 감자를 무드기 담아들고 들어오시였다. 감자와 인연이 깊은 북쪽내기들이여서 그런지 모두 환성을 올렸다.

《벌써 햇감자가 나왔소?》

《예, 햇감자예요. 평원군의 농민이 분여받은 제땅에서 수확한 첫 열매를 장군님께 올려온것입니다.》

모두들 식탁가운데서 김을 문문 피워올리는 햇감자를 신기한 보물처럼 바라보기만 했다. 하긴 그것을 어찌 무심히 대하랴. 이 나라 농민들이 처음으로 제땅에서 제손으로 거두어들인 자기의 재부인데 그게 보물이 아니라면 뭐란 말인가.

《내 동무들한테 편지를 하나 보여줄게 있습니다. 이 감자를 보내온 농민이 써보낸것인데 한번 읽어들 보시오.》

장군님께서서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시여 옆에 앉은 안길에게 넘겨주시였다. 안길은 헛기침을 한번 하고나서 소리내여 편지를 읽었다.

《**김일성**장군 전 상서

조선민족을 해방시켜주시고 무산대중을 건져주신 은혜는 백골난망이오나 크신 은혜를 보답할길이 막연하와 우선 제땅에서 캐낸 감자를 보내오니 약소타 꾸중말으시고 받으시오면 저는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김일성**장군 만세!》

장군님께서는 농사일로 거칠어진 손으로 콩다리연필에 침을 발라가며 한자한자 땅처럼 진실한 자기의 마음을 담아보낸 생면부지의 그 농민을 그려보시며 생각에 잠겨계시다가 좌중의 침묵을 깨뜨리시였다.

《이 감자를 보낸 농민도 농업현물세제실시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더 기뻐할것입니다. 식기 전에 하나씩 들면서 이야기합시다. 감자는 따끈할 때 후후 불면서 먹어야 제맛이지요.》

장군님께서는 매 사람에게 감자를 한알씩 집어주시고 자신께서도 감자껍질을 벗기시였다.

《우리가 인민의 나라를 세운다는것은 결국 인민이 잘사는 나라를 세운다는것인데 그러자면 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지켜주는 법을 만들어내는것은 당연한 리치가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노동법령을 발포하고 농업현물세제가 실시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대중이 나라의 주인이라는것을 법적으로 담보한셈입니다.

이 위대한 세계사적변혁이 바로 북조선에서 이룩되었습니다.》

《장군님!》

김책은 격정에 넘친 어조로 흥금을 터놓았다.

《전 지금 온 세상에 대고 새 나라 만세를 부르고싶은 심정입니다. 이 편지를 쓴 농민처럼 말입니다.》

장군님께서는 흥분을 건잡지 못하고 들썩거리는 동지들을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하긴 우리가 이런 날을 보자고 혈전만리를 헤쳐온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김책동무! 동무들! 우리 아직은 만세를 부르지 맙시다. 아직은 할 일이 많습니다.》

부엌에 내려가셨던 김정숙동지께서 매 사람앞에 모두부접시와 술잔, 수저를 놓아주시고 차례로 술을 부어주시었다. 장군님께서서는 김정숙동지께서 술을 다 부으실 때까지 기다리시었다가 말씀을 계속하시었다.

《아직은 중요산업을 국유화하는 문제,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포하는 문제,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는 문제 등 참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파괴된 산업도 하루빨리 복구해서 경제를 살려야 하고 종합대학도 세워야겠고...

또 당면하게는 보통강개수공사를 장마철전에 꼭 완공해야 합니다. 이 공사를 완공해야만 인민들은 자기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게 될것이며 인민의 나라를 세우려는 새 정권의 진정을 더 잘 알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노동법령과 농업현물세제실시로 양양된 인민들의 혁명적열의를 총발동하여 보통강개수공사를 마감짓기 위한 대중적돌격운동을 더 힘있게 벌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사가 완공되어 토성량사람들이 <새 나라 만세!>를 부르는 날 우리도 <인민 만세!>를 부릅시다. 그날을 위하여 잔을 듭시다!》

장군님께서 잔을 드시자 투사들도 일제히 잔을 높이 들었다.

이튿날부터 평양시당과 시인민위원회에서는 **김일성**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노동법령 및 농업현물세제실시경축 돌격운동을 받기하고 시민들이 이 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호소하였다. 공사현장에서는 보통강개수공사향토건설대

로동법령 경축대회를 열고 대중적돌격운동을 벌릴것을 결의하였으며 **김일성**장군님께 자기들의 맹세를 담은 편지를 삼가 올리였다.

1946. 7. 1 《정로》 1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장군님께 드리는 편지

...

우리 향토건설대원들은 이번에 발포된 위대한 로동법령을 절대지지환영하며 로동법령을 경축하는 보통강개수공사 제2차 돌격운동을 벌리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공사를 예정기한을 앞당겨 완성함으로써 민주건설의 방해물을 그것이 인간이든 대자연의 홍수이든 제거하고야말것을 위대한 장군님앞에 맹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단결하여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손으로 아름다운 조선민주건설을 완성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계속 용감히 투쟁할것을 장군님앞에 다시 한번 맹세합니다.》

56

며칠만에 집에 들렀던 명덕은 다음날 아침일찍 통근열차를 타기 위해 사동역으로 나왔다. 공사지휘부에서 발파조에 따로 가설건물을 지어주고 침식을 보장해주는 덕분에 그는 며칠에 한번씩 이렇게 집을 다녀가곤 한다. 집에 홀로 계시는 늙은 아버지는

명덕이가 오면 자기 걱정은 말고 일만 잘하라는데 왜 또 왔는가 지청구를 하면서도 공사장소식을 꼬치꼬치 캐묻군 한다.

《네가 발파대장이 됐다구?》

《대장이야 뭐... 그저 책임지구있어요.》

《그게 그 소리지. 부하가 몇이냐?》

얼마전에 발파조책임자가 다른데로 가는 바람에 명덕이가 책임을 졌는데 누군가가 아버지에게 일러준 모양이었다.

《같이 일하는 사람이 다섯이예요.》

《네가 옹쿠나. 그저 일이 사람이다. 대장이라구 호령질만 말구 너부터 오류를 아끼지 말아라. 집걱정은 안해두 된다.》

아버지의 말은 사실이였다. 나라에서 잡곡이나마 식량공급을 해주고 함께 밥벌이하던 지계군들이 자기네 동료가 대장이 됐다면서 여러가지로 집일을 도와주는 덕에 명덕은 일에만 전심할수 있었다.

일찌감치 역에 나오느라 했는데 벌써 술한 사람들이 열차를 기다리고있었다. 이윽고 대피선에 있던 열차가 홈에 들어서자 서로 먼저 오르겠다고 밀치닥거리며 혼잡이 이루어졌다.

명덕은 여느때와는 달리 사람들의 혼잡속에 끼우지 않고 한옆에 물러서있다가 좀 즈뚱해진 다음에야 열차에 올랐다.

발파대책임자라는게 일반 근로대원들처럼 처신해서는 안된다는 인격관념이 상사말같던 그를 점잖은 사람으로 다듬어왔던것이다.

가운데쯤 들어가니 마침 빈자리가 하나 있었다. 조금후에는 차시간을 맞춰나온 사람들이 연방 밀려들면서 통로까지 꽉 메워버렸다.

명덕이앞에는 나이든 여인이 바투 붙어서있었다. 점심밥곽을 옆구리에 낀걸 보니 녀맹돌격대가 분명한데 아마 집에서 뒤거두매까지 하고 나오느라 늦은 모양이었다.

명덕은 움쭉 일어나며 의자모서리를 잡고있는 그 여인에게 자리를 양보했다.

《여기 앉으시라요.》

《아이구, 일없어요.》

뜻밖의 호의에 당황해진 여인은 손을 내저으며 사양했다.

그러자 맞은편에 앉았던 사람이 훈수를 들었다.

《아주머니, 앉으시우, 젊은 사람이 권하는데 거절하면 안되지요.》

옆에서들 한마디씩 해서야 여인은 송구함을 감추지 못하며 조심스레 걸터앉았다. 차안의 분위기는 자연히 화기애애해졌다.

《해방이 되더니 베천갈던 사람들의 마음도 비단같아졌수다.》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또 한마디 칭찬하는 바람에 명덕은 쑥스러워 고개를 돌렸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서는 흐뭇한 기분에 몸이 뭉 뜨는것 같았다. 그 사람의 말이 옳았다.

예전에는 착하게 살아야 할 리유가 없지 않았던가.

그 시절에는 자기자신과 제 집안일이 제일 걱정스러웠었다. 그런데 공사장에 나와 사람들과 섞일리면서 명덕은 애국자가 돼야 한다던 임성민의 말이 조금씩 리해되는듯싶었다. 지금은 제집근심이 작아지고 대신 공사일이 더

걱정스러워졌던것이다. 예전에는 자기의 울분을 대변하여 걸핏하면 휘둘러대던 주먹도 이제는 부드러워진 제 마음을 닮아 공손해지고 오직 창조를 위해서만 힘껏 틀어쥐곤 했다.

그래도 명덕은 자기가 얼마나 성장하였는가를 의식하지 못하고있었다.

현장에 도착한 명덕은 작업조직을 하고나서 지휘부에 화약을 타러 올라갔다. 자재부에서는 로이문이 혼자 앉아있었다.

《요샌 임자보기가 힘들구만. 책임자가 되더니 이젠 봉수국수집같은 녹거리음식점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건가?》

명덕은 그 집에서 받았던 깨름한 느낌과 수리날의 후회가 한꺼번에 떠올라 통명스레 대꾸했다.

《그 집엔 안 다니겠수다.》

《왜?》

로이문의 표정은 대번에 차거워졌다. 명덕은 그래도 자기를 후하게 대해준 로이문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것 같아 적당히 넘겨버렸다.

《딴건 없어요. 그저 로형한테 외상값두 있구. 요샌 두루두루 바빠서...》

《흠. 그래두 외상값을 잊지는 않았군. 이젠 공사두 거의 끝나가는데 빨리 회계를 해야지.》

로이문은 찰찰한 웃음을 흘리며 되박이마를 살살 긁었다.

《공사가 끝난 후에 샅벌이를 해서라도 값을 물겠으니 걱정마시우.》

《물어줄 생각만 있다면 이제라도 방도야 있지.》

명덕은 대번에 눈살을 세웠다.

《어떻게요? 전번처럼 화약을 또 잘라먹자는거요?》

그러거나말거나 로이문은 장부책과 전표에 몇자 끄적거리더니 쯤전에 책임자가 꺼내놓은 폭약과 도화선을 명덕이앞에 밀어놓았다. 도화선은 로이문이가 이미 필요한만큼 잘라내고 남은것이였다. 로이문이 창고를 관리한다고는 하지만 폭약출고만은 매일매일 자재부책임자가 립회하기때문에 로이문으로서는 다소 위태롭긴 해도 다른 방법이 없었던것이다.

《이 자리에서 결판을 보자구. 공사가 끝나서 다 흠어져간 다음에 내가 임자한테 외상값 받으러 따라다니라는건가? 그것두 뭐 샅짐벌이를 해서 물어준다구? 흠! 말두 안될 소리. 임자 영큼하구만. 외상이라구 먹을 땐 좋구 값은 안 물겠다? 나한텐 그런 수가 통하지 않아.》

로이문으로서는 뻔이 꼬일만도 했다. 처음엔 명덕이를 주먹이나 휘두르는 상놈으로 보고 쉽게 거머쥘수 있을것 같아서 공밥을 먹였는데 수리날 이후부터 별스레 열성을 피우는걸 보고는 케가 글렀다고 짐작했던것이다. 아닌게아니라 그후에는 밭파조에서 《명덕이》, 《명덕이》하는 판이였다.

명덕은 눈짐작으로 도화선이 어방없이 모자란다는것을 알아차렸다.

《어찌자는거요? 공사를 못하게 하자는거요?》

《흥! 그럼 공사만 중요하구 내 돈은 휴지장이라는거야? 그러니 괜히 소란피웠댔자 임자한테 좋을건 없어.》

로이문은 은근히 명덕을 위협했다. 출고량은 다 나갔으니 명덕이더러 책임지라는 소리였다.

《도대체 도화선은 해서 뭘한다는거요?》

로이문은 어처구니없다는듯 양천대소를 하는데 그 웃음소리가 꼭 염소울음소리였다.

《글쎄… 혹시 고기잡이라도 하려는지. 해해…》

순간 명덕은 한팔을 내뻗쳐 로이문의 먹살을 움켜쥐었다.

염소울음소리가 딱 멎었다.

《네놈은 어떤 놈이냐?》

숨통이 막힌 로이문은 대번에 얼굴빛이 수수떡처럼 되었다.

《이놈! 객객! 이걸 놔! 객객!》

명덕은 손아귀에 지그시 힘을 주었다가 저만치 뿌려던졌다.

로이문은 명덕의 기상이 하도 무서운지라 감히 짹소리도 내지 못했다.

《내 지은 죄가 있어서 이번까지는 참는다. 하지만 내 손에 걸려들기만 해봐라.》

명덕은 한옆에 사려놓은 도화선통구리를 들고 뚜벅뚜벅 자재창고를 나섰다. 암만 생각해봐도 로이문이란 작자는 공사장에 어울리지않는 놈이 분명했다.

그놈은 길바닥의 흐린 물웅덩이같은 놈이었다. 깊이를 알수 없는 그 흐린물의 수면에도 맑은 날에는 푸른 하늘이 비끼는 법이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한발을 내짚었다가 그만 무릎까지 빠진셈이었다.

(어쨌든 보기만 해도 재수없는 놈이야. 우리같은 로동자하고 다른 놈이라면 나쁜 놈이 분명한데 좀 캐봐야겠어. 그놈은 그놈이구… 이걸 어쩐다?…)

도화선이 절반밖에 없으니 야단 아닌가.

오늘 계획한대로 발파를 못하면 남교제방에 필요한 장석을 어떻게 보장하겠는가.

머리를 짓수긋하고 걷던 그는 선교4리 작업장옆에서 걸음을 늦추었다.

선교4리에서는 작업시작전에 회의를 하고있었는데 마침 임성민이 일어서서 주먹을 흔들며 연설을 하고있었다.

《보통강개수공사만 완공된다면 나는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장군님께서 바라시는대로 기한전에 이 공사를 끝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정식 야간돌격대를 못하고 밤일을 하자는걸 제기합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그에 호응해나섰다.

《나도 야간돌격대에 들겠소.》

《까짓거 우리 몽땅 돌격대에 들자구요.》

《좋수다!》

선교4리건국로력대는 남교제방을 맡았는데 그곳은 2단계공사에서 제일 중요한 구간이었다. 1단계공사때 쌓은 제방이 보리장마는 견디여냈지만 아직 견고하지 못하고 더구나 7월초부터 기본장마가 시작되면서 급격히 불어나는 강물이 제방을 시시각각 위협하고있었다.

만일 남교제방이 터지는 날에는 지금까지의 공사가 수포로 돌아간다. 때문에 지휘부에서는 제일 핵심적인 단위들을 남교제방에 붙였던것이다.

임성민네 돌격대원들의 열띤 모습을 바라보고 서있던 명덕의 얼굴에는 전에없이 심각한, 비장하다고까지 할수 있는 표정이 굳어져있었다.

(옴다! 그거다!)

명덕은 드디어 결심이 섰다. 그는 자신있게 걸음을 옮겼다.

《명덕아!》

회의를 끝낸 임성민이 소리쳐불렀으나 그는 손을 내젓고는 발파현장으로 씩씩 씩씩 걸어갔다.

명덕의 결심이란 도화선을 절반으로 잘라쓰자는 것이었다. 도화선을 규정대로 쓰면 불을 달고 대피소까지 와서도 한숨 돌린 다음에야 첫 발파가 시작되는데 불을 달자마자 죽기내기로 냅다 뛰면 도화선을 절반으로 잘라써도 일 없을 것 같았다. 설사 위험하다 해도 다른 길이 없었다. 방금 성민형도 공사를 완공할수만 있다면 죽어도 한이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나라고 그렇게 결심 못할 건 뭐가.

가설막에 돌아온 명덕은 발파조성원들을 다른 작업에 돌려놓고 혼자서 작업준비를 해나갔다. 위험한 일에 다른 사람들을 끼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진흙떡을 빗어놓고 도화선을 절반으로 잘라 퇴관에 연결했다.

현장이 조용해지는 점심시간을 발파시간으로 정하고 한참 발파준비를 하는데 임성민이 찾아왔다.

《아까 왜 왔됐나?》

《예? 그저 지나가다가 들렸됐어요.》

임성민은 별로 허둥대는 명덕을 의아스레 바라보다가 노루꼬리만 한 도화선에 눈길을 멈추었다.

《도화선이 왜 저렇게 짧아?》

더 숨길래야 숨길수도 없었다. 사연을 대충 듣고난 임성민은 펄쩍 뛰었다.

《너 죽자고 그래?》

《그럼 어찌겠소? 발파를 못하면 오후작업을 못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지휘부에 제기해서 해결받으면 되지 않아?》

《젠장, 내가 말하지 않았소? 이제 무슨 낯으로 지휘부에 손을 내밀어요? 이건 내가 보상해야 하는거란 말이예요.》

《그럼... 같이하자.》

《발파가 애들 장난인가 하시우?》 명덕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는듯 돌아서다가 임성민에게 어깨를 잡혔다.

《야, 발파라는게 불달고 뛰는건데 뭐가 대단하다구 그래? 어쨌든 혼자서 하는것보다 둘이서 하면 불다는 시간을 그만큼 단축할게 아니야?》

암만 궁리해봐야 임성민을 떼버릴 방도는 없었다.

한참동안 임성민을 바라보던 명덕은 승낙한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였다.

《고맙수다. 죽으러 가는 길두 동무가 있으면 험하다는데.》

그리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어제까지 무겁게 매달려있던 비구름을 다 털어버렸는지 하늘도 오늘은 청청하게 개여있었다.

공중에서는 수리개 한마리가 그 장한 기상을 시위하려는듯 빙빙 원을 그리고있었다.

명덕은 수리개를 점도록 바라보며 말했다.

《형님, 난 예전같으면 이런 생각을 안했을거예요. 많은 돈을 준대두 안하고 죽이겠다고 때려두 안했을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말려두 하고싶어요. 언젠가 형님이 말했지요. 우린 장군님의 뜻을 받드는 길에 목숨두 아끼지 말아야 한다구요.》

임성민은 몰라보게 성장한 명덕을 껴안아주고싶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제 기분대로 살던 명덕이가 지금은 공사를 하루빨리 끝내기 위하여 서슴없이 한몸을 내대고있는것이다.

임성민은 명덕의 손을 지그시 잡아주며 말했다.

《명덕이, 장군님께선 우리같은 사람들이 새 조국건설에서 로동영웅이 돼야 한다구 말씀하셨대. 우리 잘해보자구.》

그들이 준비작업을 거의 끝낼무렵에 장혁수가 현장에 나타났다. 장혁수는 점심시간에조차 쉬지 않고 일하는 두사람을 멀리서 알아보고 대견해서 찾아왔던것이다.

사연을 알게 된 장혁수도 처음엔 노발대발하다가 나중엔 제 몫을 챙기려들었다.

《둘이 하는것보다 셋이서 하면 더 안전해.》

《좌우간 권한은 나한테 있수다.》

명덕은 툭툭거리며 머리를 짜보았으나 현장책임자를 쫓아낼수는 없었다. 결국은 셋이 한동아리가 되어 발파준비를 완료했다.

임성민이 성냥을 꺼내들자 명덕은 씩 웃더니 담배쌈지를 꺼냈다.

《이럴 땐 이게 제일 확실해요.》

그는 마라초를 두툼하게 말아 장혁수와 임성민에게 한대씩 들려주고 자기도 한대 맡았다. 깊숙이 한모금 빨고나서 그는 두사람에게 머리를 수그렸다.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한번도 남들앞에 머리를 숙여보지 않았던 명덕이었다.

《형님들! 용서하랴요. 내가 잘못해서... 나때문에 이런 위험한 일을...》

임성민은 명덕의 손을 꼭 잡아주는것으로 대답을 대신하고 장혁수는 허허 웃으며 명덕의 어깨를 툭 쳐주었다.

《자식, 마음에 들어!》

총지휘는 명덕이가 했다.

열두개의 발과구멍을 한사람이 네개씩 맡기로 했다.

그는 두사람에게 발과구멍을 지정해주고 도화선에 불을 다는 순서와 방법을 알려주었다.

《절대 덤비지 말고 침착해야 해요.》

제각기 위치를 차지했다. 명덕은 담배를 몇모금 빨고 불덩이가 커진 다음 짹막하게 구령을 쳤다.

《시작!》

저마끔 자기 맡은 도화선에 불을 달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넷...

장혁수가 덤벼치며 미처 달지 못한것을 명덕이가 마저 불을 붙였다.

《뛰자요!》

세사람은 동시에 내달렸다.

명덕이가 돌부리에 걸려 곤두박질할뻔 하는것을 임성민이 가까스로 부축해주었다.

빨리 더 빨리...

그들이 대피호에 채 가닿지 못했는데 첫 발파소리가 울렸다.

쿵!...

《옳디라!》

장혁수는 명덕이를 와락 밀쳐넘어뜨리며 제 몸으로 덮었다. 임성민이가 또 제 몸으로 그들을 덮쳐눌렀다.

쿵, 쿵, 쿵...

돌부스레기들이 임성민의 잔등에까지 떨어졌다.

맨 밑에 깔리운 명덕은 그 정황속에서도 발파소리를 하나, 둘... 세었다... 열하나, 열둘!

《됐어요. 이거 숨막혀죽겠수다.》

임성민이 허리를 펴고 장혁수도 일어섰다. 다행히도 누구 하나 상한 사람이 없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은 세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병글거리다가 고개를 제끼고 호탕한 웃음을 터쳤다. 발파먼지가 자오룩한 곳에서 얼굴을 땀과 먼지로 매닥질한 세 사나이가 걱정을 누를길 없어 터친 웃음소리는 봉수산 멀리로 메아리쳐갔다. 건국의 나날에 태어난 수많은 로동영웅들중에는 그들의 모습도 들어있었다.

57

로이문은 공사지휘부앞마당에서 세사람의 행동을 뵈히 내려다보고있었다. 그리고 발파소리가 여느때만큼 울리자 케가 글렀다는것을 직감했다. 장혁수가 이 일을 덮어두지 않을건 뻔하고 그렇게 되면 자기는 빠져나갈데가 없었다.

그 즉시로 로이문은 공사장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누구도 자기 집을 모르기때문에 당분간은 안전하다고 볼수 있었다.

로이문이 반동이라는 소문은 이튿날 온 공사장에 퍼졌다.

그 소문에 제일 바빠맞은것은 봉수국수집령감이였다.

그동안 얼굴 한번 내밀지 않던령감이 어제는 통폐지를 삶아가지고 나오더니 오늘은 국수버치를 머리에 인 로친네까지 데리고 나타났다.

《내가 눈먼 참봉이었수다. 그놈이 반동인줄도 모르고 은인대접을 했으니 이런 죽을 죄가 어디 있겠소?》

주인령감은 장혁수의 소매를 붙어잡고 징징 우는 소리를 했다.

《그놈이 그런 여우귀신인줄 누가 알았겠소.》

《아니우다. 난 그놈한테서 여우노린내를 맡았댔수다. 그래두 밀천을 대주면서 돈 잘 벌게 해주길래 더 캐보려구 하지 않았지요. 남들은 공사장에 나와서 애국자가 되는데 난 제 주머니 불쿨 생각만 했으니 천벌을 맞아두 할 말이 없수다. 내 그래서 부정한 돈으로

모았던 가산을 다 헐었수다. 아무리 국수사리나 만지며 돈에 환장한 놈이라두 반동새끼덕에 부자 될 생각은 없으니까요.》

주인령감은 정말 가산을 다 헐었는지 매일같이 공사장에 한짐씩 지고나오군 했다.

확실히 사람도 산천도 달라져가고있었다.

장혁수자신도 생활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전보다 많이 달라졌다.

그중에서도 확실하게 달라진것은 정혜에 대한 립장이었다. 김정숙동지께서 정혜를 데리고 현장사무실에 오셨던 그날 혁수는 종시 그 녀자와의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헤어졌었다. 혁수는 그 녀자가 자기의 언행에 모욕을 느끼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것만 같아 은근히 속을 태웠다.

그런데 며칠후에 정혜가 제발로 찾아올줄이야...

정혜는 어쩔바를 모르는 혁수를 본체도 앓고 전번처럼 빨래감을 뒤져내서는 다 빨아서 넣어놓고 가버렸다. 녀자들은 날 때부터 애정을 타고난다더니 그 말이 맞는것 같았다. 그날 혁수는 말한마디 붙여보지 못했지만 자기 운명이 결코 이 녀자와 떨어질수 없으리라는것을 행복과 두려움속에 예감했었다. 그때부터는 저도 모르게 그 녀자가 기다려지고 그가 일하는 기림리 녀맹작업장으로 발길이 향하군 했다. 그러나 녀맹돌격대가 일하는 곳에 직접 끼우지는 못하고 그옆의 중성리작업장에서 독심을 빼군 했다. 요즘엔 매일같이 거기에 붙어있어서 현장부원이나 지휘부에서 장혁수를 찾을 일이 생기면 거기로 찾아오는판이었다.

그래도 그는 창피하다는 생각이 없었다. 자기가 그새 좀 뻔뻔스러워졌는지...

그는 자기가 일하는것을 그 녀자가 보고있을거라는 생각에 삼질을 해도 자루가 부러질만큼 흙을 파올렸고 목고를 해도 목고채가 휘여들게 흙을 담았다. 일을 잘하면 정혜가 좋아할줄 알았는데 한번은 옆으로 슬쩍 지나가면서 한다는 말이 《무슨 사람이 그렇게 미웁해요?》 하는것이였다.

혁수는 정혜가 저쯤 지나간 다음에야 고개를 젓히고 너털웃음을 웃었다. 그 말 한마디로 정혜는 제 마음을 명백히 표현했던것이다. 그 말 한마디는 오랜 세월 혁수의 가슴에 응어리져있던 서러운 인생에 대한 울분을 봄눈처럼 녹여주고 대신 행복한 삶에 대한 욕망을 북돋아주었다.

장혁수는 그 말을 다시 듣고싶었다. 열번이고 백번이고 듣고싶었다. 그러자면 미웁스레 일을 해야 했다.

그래야 정혜가 자기를 관심해주고 사랑해줄수 있었다.

정혜를 제 사람으로 인정하고나니 그 녀자에게 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은 별로 힘들지 않았다.

어제 오후 혁수는 남들이 보건말건 질통을 지고 달리는 정혜를 불러세웠다.

온통 사람천지여서 조용히 따로 만나고싶어도 그럴수가 없었던것이다.

그는 밀도끝도없이 정혜에게 강박하는 투로 말했다.

《래일 점심에 현장사무실로 오우. 나랑 같이 갈데가 있소.》

그리고는 녀자의 마음이 얼마나 활랑거리겠는가 하는것은 생각지도 않는듯 범상한 표정으로 제 먼저 자리를 떴다.

오늘 점심에 정혜는 혁수를 찾아왔다. 오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혁수는 정혜를 뒤에 달고 봉수산중턱에 안치되어있는 안해의 묘를 찾아갔다. 올봄에 때장을 입힌 봉분에는 손질할게 없었다. 그래도 혁수는 봉분을 한바퀴 돌며 새로 돌아난 잡초들을 뽑고 자기 손으로 준비한 간단한 음식들을 상돌우에 올려놓았다.

혁수는 술을 붓고나서 정혜에게 말했다.

《오늘이 이 사람 제사날이요. 4년전 오늘 토성랑을 휩쓴 물란리때 아이를 업은채루 그만 저세상사람이 됐소. 그때 내가 할수 있는 일이라는게 처와 자식을 보통강감탕밑에 묻는것뿐이었소. 그것두 깊은 밤중에... 그런데 김일성장군님께서 여기에 다시 잘 안장하도록 해주시였소. 이젠 공사도 끝나게 되었으니 이 사람의 혼두 편히 잠들수 있을거요. 거기서두 한잔 붓고 위로해주오.》

장혁수는 정혜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정혜는 조심히 술을 부었다.

두근거리던 가슴도 이상하게 평온해졌다.

한쪽무릎을 꿇고앉으며 다소곳이 절을 올렸다.

천천히 일어났다가 다시한번 더...

그리고는 일어날념을 하지 않고 봉분의 잔디를 어루쓸며 조용조용 무덤속의 녀인에게 자기의 진정을 헤쳐보였다.

《언니! 언니나 나나 해방전엔 비참하게 살수밖에 없었지요. 그건 우리 녀자들이 팔자가 사나워서가 아니라 나라가 없었기때문이에요. 이젠 그런 못된 세월이 끝장났어요. 김일성장군님께서 나라를 해방시켜주시고 보통강개수공사도 완공하게

해주시었어요. 언니도 성학이도 다 살아서 오늘같은 세상을 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언니! **김일성**장군님께서랑 김정숙녀사님께서랑 성학이 아버지가 누구보다도 행복하기를 바라고계신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성학이 아버지를 위헤드리려구 해요. 가난한 세월탓에 언니가 성학이 아버지한테 해드리지 못하고 마음속에만 품고있던 소원들을 제가 다 풀어드리겠어요. 물론 난 언니만큼은 못하겠지만 세상이 하도 좋아서 언니의 소원을 풀어줄수 있을거예요. 그러니 마음을 놓으세요.

성학이 아버지가 아파하면 약이 되어주고 추워하면 불이 되어주고 더워하면 시원한 바람이 되어주고 배고파하면 제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살면서 나도 행복해지고싶어요. 언니! 그래도 되지요?!》

땃걸음 떨어진 곳에서 장혁수는 갈퀴같은 손으로 터슬터슬한 소나무껍질을 쥐여뜯고있었다.

×

공사는 바야흐로 마감단계에 들어섰다. 장마비에 불어난 물은 서포천과 형제산강이 합수되는 곳에서 남교제방에 막혀 태질하다가 할수 없다는듯 새 통수로로 따라 사뭇치며 흘렀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평양시민들에게 공사를 완공하기 위한 최후돌격전을 벌릴것을 호소하시면서 공산당원들이 돌격전의 앞장에 설데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그에 따라

평양시당에서는 평양 시내 2 500명의 공산당원들로 《보통강개수공사 공산당원돌격대》를 조직하였다.

공사장에서는 대자연과의 마지막 결사전이 벌어졌다.

당원돌격대원들은 억수로 쏟아지는 비속에서도 일손을 놓지 않았다. 낮과 밤의 경계도 없었다. 남자들이 기진하여 비틀거리면 여자들이 대신하여 목고를 메었다. 번개치고 우뢰우는 한밤중, 쏟아지는 폭우속에서 기름불망치로 앞을 밝히며 웃으며 달리는 사람들...

《정로》 1946년 7월 17일부 1면 《보통강개수공사특보》

《최후돌격전이다. 7월 14일에는 아침부터 각 기관과 직장세포에서 조직된 공산당원돌격대를 선두로 수천명 돌격대원들이 참가하였다. 먼저 평안남도당과 중앙당학교에서 돌격대를 조직하여 출동한것을 비롯하여 인민위원회 돌격대, 기관, 직장들과 직맹, 민청돌격대 등 단체돌격대들이 앞장서고 전체 시민돌격대원들이 그뒤를 따라 전투기세를 올리면서 치열한 돌격작업을 벌렸다.

최후돌격전은 낮에 이어 밤에도 계속되었다. 7월 14일 밤 임성민동무를 비롯한 선교4리의 야간특별돌격대는 공사의 운명을 좌우하는 합수터의 큰 물속에서 치열한 결사전을 벌렸다.》

《정로》 1946. 7. 18일 《보통강개수공사특보》

《보통벌에 비는 끊임없이 내린다. 오늘(15일)이 획기적공사 보통강애국제방공사의 최후돌격일이다. 현장은 10여일동안이나 내리는 장마비로 밭을 엮어매는 진흙탕이다. 이 불리한 조건하에서 최후제방돌격공사는 엄숙히 진행되었다.

이날 최후의 결실을 맺으려고 총동원한 평양 시내 공산당원들은 이 위대한 공사를 자기들의 손으로 완성한다는 감격의 얼굴로 홍조되었고 만신은 긴장의 화신이다. 완만히 늘어진 제방에 최후 한덩어리의 흙은 쌓인다...

<우리는 대자연에 도전하여 이를 정복하고 강물을 돌렸다. 앞으로 우리는 우리의 앞을 막는 곤란한 모든 장애물을 격파분쇄할 것이며 반드시 승리를 획득할 것이다.>

1946. 7. 15일 오후 5시. 보통강반에 성벽처럼 솟아오른 10여리 애국제방우에는 수천수만년을 두고 제멋대로 행패하던 재난의 강을 길들인 기적의 창조자들, 력사의 새 주인들이 <우리의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장군 만세!>, <보통강개수공사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고있다.

끝없는 걱정과 목메여 서로 부둥켜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전체 건설자들의 얼굴마다에는 42만 900여㎡미터의 토량을 불과 55일동안에 파올리고 10리가 넘는 보둑을 예정동원로력의 절반으로 쌓아올렸으며 공사계획을 보름이나 앞당겨 끝낸 승리자의 자랑찬 기쁨이 어리여있다.

쏟아지는 비발속에서 수천의 삽날을 하늘 높이 추켜올리며 건설자들이 웨치는 함성은 민주조선건설의 첫 개가였으며 새 조국건설을 위한 김일성장군님의 위대한 구상의 빛나는 첫 승리였다...》

...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다. 장혁수를 비롯한 지휘부성원들은 저녁에도 남교제방에 나와있었다. 남교제방공사를 맡아했던 임성민네 돌격대원들도 제방에서 떠나지 못하고있었다.

강물이 시시각각으로 불어나는 조건에서 새로 쌓은 제방이 아직은 마음놓이지 않았던것이다.

58

구진배는 경상골 로이문네 집에서 떠날 차비를 끝내고 술상에 마주앉았다. 그는 이것이 이승과의 리별주로 될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털어버릴수 없었다.

어제 그는 버취의 비밀지령을 받았다. 버취는 지령에서 보통강개수공사를 무조건 파탄시켜야 한다는것,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돌아올수 없다는것을 명백히 밝혔다. 그러니 제방을 폭파시키지 못하면 제집으로 돌아갈수도 없었다. 생각할수록 기가 막혔다. 자기로서는 이를 사려물고 공사를 파탄시키려 해보았지만 결국은 실패하고말았다. 지금에 와서 보면 그것은 답알로 바위치기였다.

그런데도 자기는 답알로 바위를 까부시지 못했다고 해서 죽어야 하는것이다. 버취중위가 그렇게 명령했으면 그것은 곧 법이었다. 버취의 지령이 아니라도 구진배는 이제 와서 빈손털고 나앉을수 없었다. 그는 이미 폭약도 준비해놓았고 예비방안도 세워놓았었다. 결사의 각오를 품고 스스로 이 길에 나섰다고는 하지만 구진배는 자기가 지금 미국상전들의 채찍에 쫓기위 단말마적인 발악을 하고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날수 없었다. 만약 죽음이 기다리는 그 벼랑끝에도 관세음의 손길이 뻗쳐있다면 자기를 구원해줄것이라는 허황한 기대라도 가져보는수밖에...

공산주의자들과의 혈전에서 화랑도의 용맹을 펼쳐보리라던 장한 기상은 어디로 가고 왜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몰리우게 됐단 말인가. 구진배는 또 한번 술잔을 기울이고 생각에 빠졌다. 돌이켜보면 자기는 오늘까지 강한자에게 운명의 고삐를 맡기고 노예로 살아왔었다. 그러니 비참해질수밖에 없지 않는가. 일본에서 공부할 때 보았던 고대그리스법인 《고르툼시법전》의 구절이 생각났다.

《노예는 산 재산이다.… 노예와 짐짐승의 용도에는 차이가 없다. 어떤자는 날 때부터 자유인으로 되며 어떤자는 노예로 된다고 하면 노예로 되는것이 도리에 맞는다는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미군이 주인노릇을 하는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기가 부담스러워 스스로 노예가 되였은즉 이제와서 누구를 탓하랴. 일단 내짚은 걸음이니 이제는 피를 물고라도 공산정권과 싸워야 했다.

구진배는 오늘 밤 남교제방을 폭파하고 로이문과 함께 남으로 나갈 계획이었다. 운명적인 이밤에 발목을 잡는것이 있다면 제결에 앉아 술을 쳐주는 로이문의 처였다.

자기들의 행동계획을 알고있는 녀자를 그냥 놔두고 떠날수도 없었고 도적고양이처럼 행동해야 할 남행길에 데리고가는것도 거치장스러웠다.

방법은 단 한가지 죽여야 했다.

두달가까이 자기를 숨겨주고 여러가지로 헌신한 녀자를 죽여버린다는것이 안되긴 했지만 세상에 억울한 일이 한둘이라더냐? 나만 봐도 제방을 폭파시키지 못하면 죽어야 할 처지인데 이런 원통한 일을 왜 나만 겪어야 한다더냐.… 로이문은 구진배의 뜻을 거역할수 없어 고개를 푹 수그렸다. 이렇게 된바에는 남아답게 처신할수밖에 없었다.

구진배는 독약을 마신 그 녀자의 몸부림을 보고싶지 않아 로이문을 데리고 먼저 밖으로 나왔다. 뒤따라나오는 다른 놈에게 그는 나지막하게 명령했다.

《방안에 석유를 치고 불을 달게.》

그들이 경상골을 빠져나와 만수대중턱쯤에서 되돌아보니 로이문네 집근방에는 화광이 충천하고있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있었다. 비옷을 뒤집어쓴 두 악마들은 서성교를 넘어 공사장으로 향했다. 구진배의 계획은 제법 치밀했다. 이미 서재골 무당집 아들은 다른 한패를 데리고 보통강상류로 떠났다. 강물이 불어난것을 리용해서 강변에 무저놓았던 통나무를 떠내려보내면 그것들이 새로 쌓은 남교제방을 직각으로 들이치게 된다.

하늘이 도와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제방을 무너뜨릴수 있었다. 어쨌든 제방이 위험해지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쏠려서 통나무를 밀어내느라 소동을 벌릴것이고 자기는 그 기회에 수문기계실을 폭파한다. 수문이 폭파되면 남교제방도 순식간에 허물어지게 된다. 구진배는 제손으로 제방을 파괴하는것이 고향에 대한 모독이라는것을 모르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제는 목숨을 내건 마지막도박판에서 제발 살아남게 해달라고 비는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공사장에는 예상치 않았던 정황이 발생하였다.

형제산강상류에서 떠내려오는 통나무들이 남교제방을 위협하고있었다. 통나무들은 미처 빠지지 못하고 주변에서 맴돌면서 제방을 건드리는데 그것들이 자꾸 불어나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알수 없었다.

《화불을 더 밝히라!》

제방에 나와있던 장혁수는 누구에게라없이 소리치고는 제먼저 강물에 뛰어들었다. 처음에 잡히는 통나무를 새 통수로쪽으로 힘껏 떠밀었다. 그리고는 또 다음통나무로 헤엄쳐갔다. 어제날에는 떠내려가는 가산을 건져보겠다고, 물살에 휘말려간 안해와 자식을 찾아보겠다고 필사적으로 허우적대던 장혁수, 그가 지금은 내 나라를 위하여, 제손으로 쌓은 제방을 구원하기 위하여 횡포한 자연의 광란에 몸을 내댄것이다. 정녕 이 제방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내야 할 소중한 자기의것이었던것이다.

사품치는 강물이여! 맞서보자! 나 이젠 네가 무섭지 않다! 나 이젠 너보다 더 강하다! 나는 너를 이길수 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세워주신 새 나라가 나를 장수로 키워주었다. 나 이젠 더이상 너의 광란을 용서하지 않을것이다!

그때까지 흠가마니를 더 쌓아올리며 제방을 보강하던 임성민네 돌격대원들도 서슴없이 강물속에 뛰어들었다. 그날 밤은 오성재도 명덕이도 모두 제방이 걱정스러워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있었다.

오성재는 새로 만들어두었던 화불망치를 기름초롱에 담그려고 수문기계실로 달려갔다. 거기서 그는 구진배와 정면으로 맞다들었다.

《반동이다! 반동놈이다!》

그때 임성민은 제방에 흠가마니를 날라다놓고 물속에 뛰어들려던 참이었다. 오성재의 고함소리를 들은 그는 손에 잡히는대로 삽자루를 거머쥐고 수문기계실로 달려갔다.

그앞에서는 화불망치를 든 명덕이가 성난 사자처럼 내달리고있었다. 수문기계실앞에 다달은 명덕은 오성재를 깔고앉은 로이문을 알아보았다.

《요 생쥐새끼야!》

로이문은 명덕의 발길에 채워 저만큼 나가떨어졌다. 분노에 눈이 뒤집힌 명덕은 로이문을 타고앉아 사정없이 짓조겨댔다.

《이 반동새끼야! 죽어라, 죽어!》

그사이 구진배는 기계실에 폭약을 장치하고 불을 달았다. 문밖으로 나오던 그는 칼을 뽑아들고 명덕에게 달려들었다. 도화선에 불을 달았으니 공연히 총소리를 내지 말고 여기서 빨리 달아나야 했다.

구진배가 칼을 높이 드는 순간 《명덕아!》하는 고함소리와 함께 임성민이 구진배에게 육박했다.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던 구진배는 임성민의 삽날을 겨우 피했다. 구진배와 임성민이 맞붙어 돌아갈 때 명덕은 썩- 하고 도화선이 타는 소리를 들었다.

귀로 들었는지 아니면 심지가 타는 냄새를 맡았는지 어쨌든 발파공의 직감으로 명덕은 기계실에 눈길을 돌렸다.

《폭약?!...》

명덕은 황황히 기계실로 뛰어들었다. 어둠속에서 타들어가는 도화선을 발견한 그는 주저없이 그것을 와락 잡아당겼다. 그런데 놈들이 어떻게 해놓았는지 심지가 잘 빠지지 않았다. 명덕은 더 생각할새없이 폭약꾸레미를 안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제방으로 달려가며 그 저주로운것을 사품치는 강물에 집어던졌다. 순간 요란한 폭음이 울리며 물기둥이 솟구쳐올랐다.

구진배는 일이 틀어졌다는것을 알았다. 정녕 이렇게 끝장이란 말인가.... 이제는 목숨이라도 건져야 했다. 지금은 목숨이외의 그 어떤 고귀한것도 있어보이지 않았다. 그러자면 여기서 빠져나가야 했다.

구진배는 이상한 괴성을 지르며 임성민을 떠밀쳐버리고 주머니에서 권총을 뽑아들었다. 그 순간 그는 뒤통수에 강한 타격을 받으며 정신이 아찔해졌다. 그는 어둠속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수문쪽으로 몇걸음 비칠거렸다. 발밑에는 아찔한 허공이었지만 구진배는 알수 없었다. 한발을 잘못 짚는 순간에 몸의 중심이 앞으로 쏠렸다. 지옥으로 날아떨어지는 육체에서 혼이 빠져나간듯 구진배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수문아래로 떨어진 구진배는 강물에 거품처럼 떠내려갔다. 수문기계실앞에는 몽둥이를 들어쥔 오성재가 아직도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있었다.

제방에서는 술한 사람들이 강물에서 통나무를 밀어내느라 이쪽에 주의를 돌리지 못하고있었다. 그곳에서는 아직 위험이 가셔지지 않았던것이다.

임성민은 구진배의 칼에 맞아 팔에서 피가 흘렀지만 제방으로 급히 달려갔다. 상처를 돌볼새가 없었다. 무작정 강물에 뛰여든 그는 제멋대로 흥떡이는 통나무들을 아래로 밀어내기 시작했다. 캄캄한 밤인데다 강물이 소용돌이치는 곳이여서 통나무 한대를 밀어내기가 조런치 않았다. 한대 또 한대... 제방을 구원해야 한다는 오직 한가지 생각에 몰두했던 그는 기운이 진해서야 자기가 팔에 상처를 입었다는것을 상기했다. 아까는 너무 위급한 정황이여서 상처에 신경쓰지 못했는데 물속에 들어와있으면서 피를 많이 흘린 모양이었다.

그는 자기에게 제방까지 헤엄쳐나갈 힘도 남지 않았다는것을 알았다. 누구든 소리쳐불러서 구원을 청할수 있었지만 자기 하나때문에 소동을 피울수 없었다. 지금은 자기 목숨보다 제방의 안전이 더 중요했다. 가까이엔 통나무라도 있으면 붙잡으려면 서너미터앞에 떠있는 통나무까지 헤엄쳐갈 자신도 없었다.

(이렇게 죽는단 말인가?)

그는 살고싶었다. 정말이지 그는 죽고싶지 않았다.

해방덕분에, **김일성**장군님덕분에 사람다운 삶을 시작했는데, 푸른 들판과 같은 미래가 있고 리정표가 뚜렷한 행복의 대통로가 곧바로 뻗어있는데 죽는다는게 웬말인가? 하지만 이렇게 죽는게 아쉽기는 해도 후회되지는 않았다.

소용돌이에 휘말려 빙그르르 돌던 통나무가 그의 어깨를 떠박질렀다. 임성민이 마지막으로 그려본것은 고래등같은 기와집에서 비단옷을 입고있는 안해와 자식들의 모습이였다.

(순일아, 순옥아, 부디 행복하게 살아라. 여보!...)

임성민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제방에 화불을 밝히긴 했지만 거리가 멀고 통나무와 사람들이 물속에 한데 뒤엉켜있어서 임성민이 없어진것을 누구도 몰랐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비내리는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고계시였다. 집무실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드리워있었다.

장군님께서는 숨쉬기조차 가쁘신듯 창문을 활 열어제끼시였다. 창문을 열자 습습한 비냄새가 풍겨오고 도로에는 콩알처럼 떨어지는 비소리가 한층더 소란하게 들려왔다.

(공사가 끝난 오늘에 이런 가슴아픈 일이 생기다니?…)

장군님께서는 임성민의 희생이 가져온 비통함에 잠기시여 오래도록 창문가에 서계시였다. 자신께서 지난 6월 4일 공사장에 나가시였을 때 선교4리작업장에서 일하시였으니 임성민이도 거기에 있었겠는데 그때 얼굴이라도 익혀두었을걸 하는 후회에 가슴이 저려드시였다. 평양곡산공장로동자돌격대의 가설건물을 돌아보실 때 분명 임성민이도 있었을텐데… 하긴 훌륭한 사람들은 그렇듯 평범하고 평시에는 눈에 잘 띄이지조차 않는다. 그것이 바로 훌륭한 사람들의 고상한 인격이 아닐가.…

리주연이 가져온 자료를 보니 임성민은 평양곡산공장에서도 우수한 공산당원이고 모범로동자이며 토지개혁때에도 로동자선전대로 나가 일을 잘하였다는데 것처럼 훌륭한 인간을 얼굴도 기억해두시지 못한것이 미안스럽고 지어 죄스러운 느낌까지 갈마드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여전히 창밖을 내다보시며 리주연에게 갈리신 음성으로 물으시였다.

《임성민동무에게 아이들이 있습니까?》

《예,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우리 그 애들이라도 잘 키웁시다.》

그러시고는 또 침묵에 잠기시였다. 장군님께서 괴로와하시는것을 차마 보고만 있을수 없었던지 오진우가 나섰다.

《저희들의 책임이 큼니다. 반동놈들의 책동을 예견하고 경비대책을 철저히 세웠더라면 이번사고를 막을수도 있었는데...》

장군님께서서는 창가에서 물러나시며 일군들쪽으로 돌아서시였다.

《사고라... 물론 사고야 사고지.》

그이께서는 혼자소리로 되뇌이시며 담배통에서 담배 한대를 꺼내드시였다. 불을 붙이지는 않으시고 그냥 주무르시다가 손에 힘을 주는 바람에 부스러지고말았다. 그것을 재털이에 던져넣으시며 오진우에게 물으시였다.

《그러니까 반동놈들은 다 잡았습니까?》

《예.》

오진우는 서재골 무당집 아들을 비롯해서 공사를 파탄시키려던 적대분자들을 몽땅 잡아낸데 대해서와 그자들의 진술에 의해 밝혀진 구진배의 정체를 요약해서 말씀드리였다.

오진우는 구진배도 이 땅에 태를 묻었다는데 어쩌면 그런 망동을 부릴수 있는지도대체 리해가 안된다는듯 기가 막혀 말끝을 맺지 못했다. 장군님께서서는 근엄한 표정으로 말씀하시였다.

《고향에 대한 리해를 단순히 나서자란 땅이라는 지리적개념으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중요한것은 그 인간의 사상과 리념이 어떠한것인가 하는데 있습니다. 그가 자기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가 안하는가, 민족의 아들로 옳게 살기를 바라는가 바라지 않는가

하는데 따라서 매 인간의 고향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는것입니다. 그런 놈들에게는 고향에 대한 신성한 감정이 있을수 없습니다. 그놈들에게 고향에 대한 애착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은 그 땅에 남아있는 자기의 재부에 대한 영원한 소유욕때문입니다. 그 탐욕심이 그 인간을 짐승으로 만들고 가장 신성한것을 모독하게 한것입니다. 나쁜 놈들!...》

장군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는 더 하고싶지 않으신듯 리주연에게 화제를 돌리시였다.

《임성민동무의 장례준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리주연은 이미 계획하고있던대로 말씀올렸다.

《공사지휘부에서는 그 동무가 일하던 평양곡산공장 자치위원회와 합동해서 장례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위자료도 넉넉히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답니까?》

리주연은 자기의 대답이 장군님을 만족시켜드리지 못했다는것을 깨달으며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지금 공사장뿐만아니라 시인민위원회에서도 개수공사경축대회 준비로 흥성거리고있습니다. 이런 때에 임성민동무의 불상사를 너무 떠들면 시민들에게 주는 영향이 좋을것 같지 않아서 될수록 조용히 장례를 치르려고 합니다.》

《동무들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장군님께서는 곁에 서있는 안길과 오진우에게 근엄한 안색으로 물으시였다. 하지만 그들도 장군님께 시원한 대답을 드리지 못했다.

장군님께서서는 대답을 못하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다가 가슴속에서 고패치는 걱정을 한꺼번에 터쳐놓으시었다.

《난 생각을 달리합니다. 임성민동무의 희생은 방금 동무들이 말한것처럼 불상사도 아니고 사고도 아닙니다. 그는 제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바쳤습니다. 전장에서 돌격전의 앞장에 섰던 전사가 적의 화점을 막고 쓰러졌을 때 그걸 사고로 봅니까? 적진속에 뛰어들어 백병전을 벌리던 병사가 희생되었을 때 그걸 불상사로 봅니까? 임성민동무의 희생이 그것과 무엇이 다른니까? 그는 공산당원으로서, 새 나라의 주인으로서 건국위업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친 영웅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무슨 분위기를 고려한다면서 그런 영웅과 조용히 작별할수 있겠습니까? 조총을 울리고 조포를 쏘지는 못한다 해도 장례식이야 왜 크게 못해주겠습니까?》

화산이 분출하듯, 태양이 폭발하듯 뜨거운 걱정을 뿔어올리시던 장군님께서서는 눈앞에 칠색무지개가 비껴서야 자신께서 울고있다는것을 느끼시었다.

안길이도 혁- 하고 흐느끼며 돌아서고 오진우도 리주연도 고개를 떨구며 입술을 깨물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손수건으로 눈굽을 닦으시며 잠시 흥분을 가라앉히신 다음에야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을 이으시었다.

《임성민동무의 영웅적희생은 동무들이 고려해야 한다는 경축분위기와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 동무는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건국의 주인들이 자기 역할을 다하자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비록 우리곁을 떠났지만 그의 령혼은 새 나라 건설에 떨어져나선 우리 인민모두의 가슴속에 간직되었을것이고

인민들은 그 령혼의 부름에 언제나 충실할것입니다. 때문에 나는 장례식을 크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난 그의 장례식을 시민장으로 할것을 제기합니다.》

장군님의 말씀에 일군들은 머리를 들었다. 나라의 큰 인물도 아닌 평범한 노동자의 장례식을 시민장으로 하다니...

《이것은 해방된 조국땅에서의 첫 시민장으로 될것입니다. 그의 희생이 얼마나 값높은것인가를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합시다. 인민을 위대한 존재로 받든다는것이 무엇인지 온 세상이 알도록 합시다.》

장군님께서서는 그 자리에서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시민장공동준비위원회를 조직하도록 하시고 준비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그리고 선전부부장 허정숙을 부르시여 북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이름으로 임성민의 추도사를 쓰도록 하시였다.

《추도사가 완성되면 나한테 가져오시오.》

장례문제에 대한 토의를 마친 장군님께서서는 비오는 창밖을 내다보시며 장마와 관련한 대책들을 철저히 서울데 대해서도 강조하시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이 나간 뒤에도 자신께서 무엇을 더 보태주실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한동안 일손을 잡지 못하시였다.

저녁에 허정숙부부장이 임성민의 추도사를 만들어가지고 장군님을 찾아왔다. 장군님께서서는 추도사를 한자한자 뜯어보시며 거기에 자신의 진정도 덧써놓으시였다.

《동무여! 우리는 지금 가장 뜨거운 동지적사랑과 가장 뼈저린 동지적슬픔으로 동무를 떠나보내는 마지막마당에 섰나이다.

...

생각하건대 인민의 선봉으로 인민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것이 우리 공산당원들의 본분이거니 이제 동무는 인민의 선봉인 동시에 우리 당원들의 선봉이 되였도다.

동무여! 우리는 동무의 거룩한 뜻을 이어 이제 다시 우리 인민을 착취하는 어떠한 반동의 폭풍우가 있을지라도 인민의 선봉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여 목숨을 바쳐 동무의 뒤를 따르기를 다시한번 맹세하나이다.

동무여!

동무는 갔으나 동무가 남긴 위훈은 우리의 피와 살속에 남아 항상 우리를 채찍하며 우리의 투쟁을 고무하리라. 동무는 갔어도 우리의 민주건설은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의 기치아래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과감히 전개되고있으니 동무여! 고이 잠들라!》

60

이른아침이였다.

삼복철이건만 정원에는 청신하고 시원한 기운이 돌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정원을 산책하고계시였다.

오늘은 보통강개수공사 완공경축대회를 하는 날이다. 경축대회준비위원회에서는 이날을 맞으며 시내의 모든 극장들에서 무료공연을 조직했고 사진전람회도 열었다고 한다.

두석달전까지만 해도 맨주먹으로 어떻게 것처럼 방대한 공사를 할수 있겠냐고 머리를 기웃거리던 사람들이 오늘은 만세를 부르게 된것이다. 장군님께서도 오늘은 목청껏 만세를 부르고싶으시였다. 오늘을 위해 청춘을 바친 백두산시절의 동지들에게 《동지들이 흘린 피의 대가로 이 땅에 새 민주조선건설이 시작되였다!》고 소리높이 웨치고싶으시였다.

장군님께서는 리병설이 다가오는것을 보시고 그쪽으로 마주 나가시였다.

《장군님, 쏘련군사령부에서 슈띠꼬브대장이 찾아왔습니다.》

《벌써 왔소?》

그이께서는 의아스러워하시며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시였다.

오늘 경축대회에 전권대표인 그를 초청했는데 한시간이나 먼저 찾아온것이였다.

《여기로 데려오시오.》

《알았습니다.》

잠시후 슈띠꼬브가 리병설의 안내를 받으며 장군님앞에 나타났다.

《안녕하십니까? **김일성**동지.》

《슈띠꼬브동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일찍 온걸 보면 무슨 일이 생긴 모양입니다?》

장군님께서는 상대방과 인사를 나누시며 여유있는 표정으로 물으시였다.

《아닙니다. 사실은 조용한 시간을 내서 **김일성**동지께 자기비판을 하려고 레의에 어긋나는줄 알면서도 일찌감치 찾아왔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자신만만하던 슈띠꼬브가 전에없이 의기소침한 태도를 보이는것이 선뜻 리해되지 않으시였다.

슈띠꼬브는 군모를 벗어두고 장군님과 나란히 걸으며 자기의 심정을 털어놓았다.

《저는 김일성동지께서 평양시민자체의 힘으로 보통강개수공사를 하겠다고 하실 때 원칙적으로 반대했었습니다. 믿을수 없었기때문이지요. 혁명적단련이 부족한 군중을 믿고 굴착기도 한대 없이 맨주먹으로 그렇게 큰 공사를 벌려놓았다가는 오히려 건국사업이 첫걸음부터 좌절되고 정치적으로 손해만 볼수 있다고 우려했기때문입니다. 저에게는 그때 사회주의쏘련에서 갓 해방된 북조선을 주인답게 도와주어야 한다는 제나름의 도의심이 있었었습니다. 북조선이 제발로 걸어나갈 때까지는 큰 나라인 우리가 주인구실을 해주어야 한다는 도의심, 따져보면 대국의 전권대표라는 우월감에서 싹터난 도의심이였습니다. 손님이 주인을 도와주면 얼마나 도와주겠습니까?》

장군님께서는 슈띠꼬브가 무엇때문에 괴로와하고있는가를 짐작하시고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였다. 슈띠꼬브는 계속했다.

《그날 김일성동지께서는 보통강개수공사를 하는것은 자신의 진심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난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이민위천사상과 자기 민족에 대한 남다른 신뢰감을 존중하면서도 오늘과 같은 기적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기 민족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무한대한 사랑이 민중으로 하여금 기적을 창조하게 하였습니다. 조선민족의 자주정신에 대해 제가 순간이나마 확신을 못 가졌던것을 용서해주십시오. 나는 역시 손님이였습니다. 북조선의 진짜주인은 자기 힘을 자각한 인민대중이고 그 인민을 주인으로 키워주신 김일성동지이십니다.》

역시 슈띠꼬브는 인간적인 면에서도 허심하고 대장부다운데가 있었다.

장군님께서는 그에게 따스한 눈길을 보내시였다.

《사실 슈띠꼬브동지가 조선인민의 힘을 믿지 못한것은 당신의 잘못이라고만 할수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믿지 않았지요. 우리 인민들자체가 자기 힘을 믿지 못했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며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해방된 조선에서 너도나도 주인이 되겠다고 나서는 때에 우리 조선의 혁명가들은 력사의 요구를 반영하여 인민대중을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망국노의 처지에 시달리던 인민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여본적 없었기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보통강개수공사부터 민주건설을 시작하려고 결심한것은 토성랑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끝장내고 그 과정에 우리가 세우는 새 나라가 진정으로 인민을 위한 세상이라는것을 믿게 하고 인민이란 존재의 위대성을 인민자신이 믿게 하고싶어서였습니다. 결국 이 공사과정에 인민들은 자기 존재의 고귀함을 알게 되었으며 인민정권의 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것입니다.》

잠시 말씀을 멈추신 장군님께서는 아득한 하늘가 멀리에 눈길을 주시고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슈띠꼬브동지! 우리 인민은 참으로 위대한 민족입니다!》

그것은 자기 민족에 대한 절대적인 긍지만을 안고계시는 **김일성**동지께서 세계앞에
 웨치시는 위대한 선언이었다. 그것은 인민의 수령 **김일성**동지의 자존심이었고 인민들을
 영원한 혁명동지로 믿고 사랑하시는 **김일성**동지의 진심이였다.

《슈띠꼬브동지, 래일 우리는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위원회를 결성하려고
 합니다. 북조선에 제반 민주개혁들이 실시되고 각계층 군중들이 인민정권의 기치밑에
 단결된 조건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함으로써 이 땅에 자유와
 민주주의가 보장된 전조선적인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투쟁할것입니다.》

슈띠꼬브는 가슴을 치는 충격을 느끼며 말없이 장군님을 우러러보았다.

(정녕 위인이시다! 보통강개수공사뿐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나고있는 그 모든 기적의
 근본요인은 **김일성**동지의 주체의 정치관, 주체의 인민관에 의한것이다. 아!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수령으로 모신 조선인민의 미래는 얼마나 밝고 창창한가!)

리병설이 다가와 경축대회장으로 떠나실 시간이 되였다고 장군님께 보고드렸다.

《갑시다.》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슈띠꼬브와 함께 대회장으로 향하시였다.

경축대회장소인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청사 앞광장은 이날에 만세를 부르고싶어
 달려온 사람들로 꽉 차있었다.

장군님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자 군중들은 하늘이 떠나갈듯 《**김일성**장군 만세!》를
 목청껏 웨쳤다. 만세의 함성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장군님께서서는 경축대회 첫 순서로 보통강개수공사장에서 영웅적으로 희생된
 임성민동지를 위하여 목상할것을 제의하시였다.

군중들은 놀랐다. 나라를 찾는데 큰 공을 세운 개국공신도 아니고 공사장에서 일하다 희생된 평범한 노동자가 이런 대우를 받다니... 군중들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마음속으로 웨쳤다.

(우리도 사람이구나! 정말로 우리가 주인된 세상이로구나! 만백성을 진정으로 위해주시는 저런분에게 나를 맡기면 분명 행복해지겠구나.)

잠시후 마이크앞에 나서신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민주수도건설의 첫 성과를 축하한다》라는 역사적인 연설을 시작하시였다.

《친애하는 평양시민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 민주조선의 수도인 평양을 홍수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통강개수공사를 승리적으로 완공하고 경축대회를 가지게 됩니다.》

순간 《만세!》의 폭풍같은 함성이 터져올랐다.

장군님께서서는 목이 꼭 잠기시여 한동안 말씀을 잊지 못하시다가 평양시민들이 보통강개수공사에서 건국의 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예정기일보다 15일이나 앞당겨 공사를 완공한데 대하여 축하하시였다.

《보통강개수공사의 승리적완수는 북조선에서 민주건설의 기초가 닦아졌다는것을 증명하여주는것입니다. 해방후 북조선인민들은 조성된 유리한 정세에서 나라의 완전자주독립과 민주주의적발전을 위하여 진정한 인민의 정권인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를 수립하고 역사적위업인 민주주의적과업들을 착착 수행하여왔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평양시민모두가 민주건설에 자기를 바칠줄 아는 조선인민의 모범이며 특히 공산당원들이 민주건설의 선봉투사이며 애국자들이라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임성민의 애국적희생을 다시한번 강조하시였다.

《시민여러분!

여러분은 민주건설에서 승리자의 영예와 애국자의 칭호를 지니였으며 우리 나라 민주건설력사에 아름답고 가치있는 한페이지를 남기였습니다. 북조선에서 위대한 민주건설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있는것은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 기초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가 민주주의의 토대우에서 튼튼하여지고있으며 또 인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투쟁하는 진정한 인민의 정권이라는것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시위하는것으로 됩니다.》

계속하여 장군님께서서는 미제와 리승만도당의 국토분렬책동에 의하여 남조선에서 민주화가 말살되고있는데 대해 지적하시면서 전체 조선인민이 힘을 합쳐 투쟁할데 대해서와 경제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승리는 우리의것입니다. 모두다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주위에 굳게 뭉쳐 민주주의적통일정부수립과 조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갑시다.

보통강개수공사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운 평양시민 만세!

우리 인민의 정권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만세!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만세!

...

조선의 민주주의적자주독립 만세!》

경축대회장에는 우뢰와 같은 만세의 폭풍이 천지를 진감시켰다. 장군님께서도 가슴이 후련하도록 만세를 부르시었다. 사랑하는 고향 평양을 살기 좋은 인민의 낙원으로 꾸리시려는 평생의 념원이 현실로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기쁨때문에, 보통강의 탁류를 밀어내는 과정에 어제날 무권리하던 인민이 존엄높은 자주적존재로 자라났다는 환희때문에, 바로 그 인민이 새 조선의 아름다운 미래를 건설할것이라는 확신때문에 만세를 부르고 또 부르시었다.

대회가 끝나자 군중들은 주석단가까이로 밀려오며 만세소리를 더욱 높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주석단에서 내리시여 군중들앞으로 다가가시며 답례를 보내시었다.

맨앞에 서있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시던 장군님께서서는 밀집된 군중들속을 힘들게 비집고나오는 정근식을 알아보시었다.

《아, 정근식선생도 나오셨군요.》

정근식은 장군님께 깊숙이 허리를 굽혔다.

《장군님, 전 오늘 장군님의 만세선창을 따라 정녕 오래간만에 만세를 실컷 불렀습니다.》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말씀드리지 않고는 견딜수 없어 정근식은 심중에 고패치는 걱정을 그대로 쏟아놓았다.

《일찌기 3. 1만세때나 6. 10만세때는 피멍이 든 가슴을 안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때의 만세소리는 환희의 웨침이 아니라 울분의 절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장군님의 선창에 내 작은 목소리도 합쳐 진정한 기쁨의 함성을 터쳤습니다. 예수가

부활해서 만세를 불렀다는 기록은 보지 못했지만 난 오늘 세상에 다시 태어난 기분으로 만세를 불렀습니다.》

장군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정근식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었다.

《예수가 만세를 부르지 않았다면 그럴 리유가 없어서겠지만 선생님이야 새세상을 만나서 인생의 의의를 깨달았으니 만세를 부를만 하지요. 선생의 마음이 밝아졌다니 나도 기쁩니다. 그러니 이제는 정선생이 먹칠해놓은 지구의도 제 본색을 찾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근식은 진지한 표정을 짓고 옷깃을 여미며 정중히 말쌈올렸다.

《저는 워낙 소인이라 이 세상에 먹칠이나 할줄 알았지 그걸 정화시킬 능력은 없는 놈입니다. 하지만 장군님 계시여 이 나라 삼천리에 광명의 새아침이 밝아왔은즉 내 미력한 힘이나마 건국대업에 바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선생, 자기 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선생에게는 큰힘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통강개수공사를 통해서도 느꼈겠지만 자연과 사회의 주인인 인민대중에게는 이 땅을 진정한 낙원으로 꾸릴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계를 밝고 아름답게 할수 있는 존재는 언제나 인민밖에 없습니다.

정선생! 우리 앞으로 그런 훌륭한 세상을 이 땅우에 세우기 위해서 함께 손잡고 일해봅시다!》

장군님께서는 떠나가시었다. 정근식은 오래동안 그 자리에 못박혀있었다. 조각처럼 굳어진 자세로 장군님을 바라우며 정근식은 심장으로 웨쳤다.

(장군님마음속엔 언제나 인민밖에 없기에 인민의 마음속엔 언제나 장군님
 생각뿐입니다. 불행이 닥치면 하느님을 찾던 무지한 백성들이 이제는 장군님사랑에
 눈떠서 장군님을 만백성의 하느님으로 모시였습니다. 이 세상의 손님으로 건국의
 구경군노릇을 하던 나와 같은 인간도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고 오성재와 같은
 무지렁이백성도 노예로부터 주인의 옥좌에 올려앉혀주시고 주인으로 내세워주어도
 주인구실을 할줄 몰라 허둥대던 인간들도 한사람, 한사람 손수 다듬어 건국의 앞자리에
 세워주시고... 참으로 보통강개수공사라는 자연개조를 통하여 인간개조를 실현하신
 장군님 축지법의 여의주가 이민위천이었음을 내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 그리스도교의
 세상에서는 거짓말같은 노아의 홍수를 믿고있지만 이 땅에는 정말로 장군님 베푸신
 인민사랑의 대하가 굵이치고있습니다. 아, 장군님!)

...

대회가 끝난 뒤 정근식은 안해와 나란히 집으로 향했다. 늘쌍 집안에서만 맴돌던
 안해도 오늘은 성장을 하고 경축대회에 참가했었다. 안해는 뽀뽀하게 풀을 먹인
 모시저고리에 물색비단치마를 입고 낭자를 틀어올린 머리에는 비취색옥비녀를 꽂았다.
 여름버선을 신은 발에는 가냘픈 흰색으로 테를 두른 옥색코고무신을 신었다. 그렇게
 차리고 나서서인지 안해는 집에서보다 10년은 더 젊어보였다. 그래도 찬찬히 보면
 머리에 흰머리카락이 드문히 섞이고 입가에도 잔주름이 잡혔다. 예전에는 안해가
 늙는다는데 대해 한번도 깊이 생각해본적 없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그 흰머리카락이며
 입가의 주름살들이 눈에 걸렸다. 힘든 세상을 살아가자니 늙어야 할 리유는 많겠지만
 안해가 늙은 기본리유가 자기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미안스러움을 금할수 없었다. 자기가

언제 안해와 동부인해서 걸어보았던지 종시 생각해내지 못하고 정근식은 안해에게 물었다.

《당신 올해 원살이던가?》

《새삼스레 그건 왜 물으시우?》

《우리가 이 좋은 세상에서 얼마나 더 오래 살수 있을까 생각중이요. 그러면 내 당신을 더이상 늙지 않게 해줄수 있을텐데…》

그 말에 코마루가 쩡해졌는지 안해는 왼쪽으로 고개를 틀었다.

《원, 참…》

정근식은 골목어구에서 삼을 든 사람들과 마주쳤다. 그러고보니 좀전에 큰길에서도 삼을 들고 물려가는 사람들을 본것 같았다. 공사는 다 끝났는데 뭘하러 가는 사람들일까? 나라에서 또 무슨 큰일을 벌려놓았는가? 불현듯 정근식은 생활의 사소한 현상도 무심히 넘기지 못하는 자기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였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대문밖에는 결눈질조차 안하고 살아오던 자기가 아니었던가.

그는 참지 못하고 지나가던 젊은이에게 물었다.

별참견을 다 한다고 핀잔을 듣는다 해도 진심으로 알고싶은거야 어찌겠는가.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였다.

《젊은이, 삼을 들고 어디로들 가시우?》

《아바인 모르시나요? 오후에 개수공사장에서 나무심기를 한대요.》

그리고는 제 동무들을 따라잡느라 반달음을 놓았다.

정근식은 알만 하다는듯 고개를 끄덕이다가 안해에게 재촉했다.

《우리도 얼른 집에 들렀다가 공사장에 나가봅시다. 내 이 땅에 태를 묻고 살아오면서
여태 나무 한그루 못 심었는데 오늘은 내 손으로 버드나무 한가지라도 심어보고싶구려.
》

지금 정근식은 진정으로 새생활의 한복판에 뛰어들고싶은 충동에 휩싸여있었다. 그는
어서빨리 집에 가서 지구의부터 제손으로 닦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

그날 오후 남포방향으로 달리던 까만색승용차가 팔동교우에서 조용히 벗어섰다. 맑은
하늘의 태양이 승용차 차창에 반사되면서 찬란한 빛을 뿌렸다. 차안에는
김일성동지께서 타고계시었다. 김매기실태를 알아보시기 위해 주변농촌으로 나가시던
그이께서는 새로 쌓은 제방에서 술한 사람들이 나무심기하는것을 보시자 그냥 지나칠수
없어 차를 세우신것이다.

사람들은 둘씩 혹은 셋씩 짝을 무어 제방에 새파란 떼장을 입히는가 하면 버드나무와
물황철나무모를 심고있었다. 리주연이 보고하기를 경축대회기념으로
공사지휘부일군들끼리 나무심기를 조직했다고 했는데 아마 비밀이 샌 모양이었다.

시간이 넉넉하다면 자신께서도 인민들과 함께 나무를 심고싶으시었다. 아마 저
사람들속에는 자신께서 만나보고싶으신 반가운 얼굴들이 다 있을것이다.

리주연이도 장혁수도 김운상도 정근식도...

장군님께서서는 저 제방과 함께 새로 태어난 건국의 주인들이 그저 나무를 심는게 아니라 나라를 받드는 애국의 마음을 묻고있다고 생각되시였다. 저 애어린 나무모들이 머지않아 지심깊이 뿌리를 내리고 억센 힘으로 애국제방을 지켜주듯이 아직은 새 나라가 강대하지도 부유하지도 못하지만 인민은 반드시 제힘으로 이 땅에 부강조국을 건설할것이다....

곧추 뻗은 제방우에서는 어린애가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고있다. 그 아이의 부모인듯싶은 젊은 남녀는 나무심기를 끝내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아이를 지켜보면서 밝게 웃고있다. 해방된 이 땅에서 눈물의 홍수를 몰아내려고 기적같이 일떠선 애국제방, 그우에서 걸음마를 익히는 갓난아이, 두팔을 활짝 벌리고 아기가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부모들, 그 모든것을 축복하는듯 아낌없이 빛을 뿌리는 밝은 태양...

장군님의 시야에는 모든것이 다 인상적으로 안겨오시였다. 얼마나 아름답고 평화로운 새세상의 모습인가.

아이아버지쪽을 유심히 바라보시던 장군님께서서는 얼른 차창을 내리우시고 그쪽에 초점을 모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장혁수를 알아보시였던것이다.

드디어 어린애는 용케도 넘어지지 않고 아버지의 넓은 품에 안겼다. 아이를 버쩍 안아들고 일어선 사람은 장혁수가 옳았다. 기쁨에 젖은 그의 웃음소리가 보통강반우에 울려퍼졌다. 그결에서는 성학이 엄마가 소리없이 웃고있었다.

(됐어, 장혁수가 웃으니 됐어!)

장군님께서도 시름없이 웃고있는 장혁수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보조개가 패이게 웃으시였다.

기쁨이, 형언할수 없는 크나큰 행복감이 심신의 피로를 말끔히
가셔주는듯싶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장혁수의 행복에 겨운 모습에서 토성랑인민들의
웃음을 보시였으며 인민의 새 나라를 세우시려는 자신의 건국리념이 절대적으로
옳았다는것을 생활로 확인하시였었다.

한참만에야 장군님께서서는 아쉬운 마음으로 차창을 올리시며 운전사에게 나직이
이르시였다.

《떠납시다.》

승용차는 떠났다. 이제 장군님 가시는 그곳에서는 또 어떤 새 전설이 태어나겠는지...

×

그때로부터 수십년세월이 흘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보통강반에서 민주건설의 첫삽을 뜨시였던 력사의 그날을
출발점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이 땅우에 창조와 건설의 년대를 수놓아왔다. 그리하여
어제날 토성랑자리에는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즐비하게 일떠서고 어제날 토성랑의
후손들은 오늘도 버드나무 휘늘어진 보통강유보도를 거닐며 행복의 노래, 추억의
노래를 부르군 한다.

불빛도 아름다운 락원의 밤이여

꽃물결 흘러가는 조국의 거리여

이 행복 주시려고 우리의 수령님

빈터우에 건국의 첫삽을 뜨셨네

...

아! 보통강! 보통강아!

인민의 행복을 담아시고 영원히 흐르라!

[전체목록으로 →](#)